



승인(협의)번호
제 39301 호

2013

여성기업 실태조사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2013. 12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이 보고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아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수록한 것입니다.

보고서 이용 안내(이용자를 위하여)

1. 「2013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기업 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함
2. 이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수치는 2012. 12. 31 기준으로 4,680개 여성기업의 표본조사 결과를 모수 추정한 것(42,118개)으로 각 항목의 구성비 분석에는 유용하나 절대규모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제약을 갖고 있음
3. 본 실태조사에서는 통계청 권고에 따라 조사단위를 사업체 단위에서 기업체 단위로 변경하여 실시함. 이로 인해 기존 실태조사 결과 값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비교는 주의하여 활용하여야 함
4. 본 조사에 제시된 통계표의 모든 통계수치는 %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표시하였으므로 소수점 아래 자리의 차이로 인해 각 세부항목의 합이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제시된 통계표 중 복수 응답, 중복응답 설문은 설문 구성비의 합계가 100을 초과할 수 있음
5. 본 보고서에 사용된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 - 」 : 해당사항 없음(조사는 되었으나 정보가 없는 경우)
 - 「 0.0 」 : 0 또는 0 단위 미만(조사 결과 값이 0이거나 0의 근사값인 경우)
6. 조사에 관한 문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담당자(02-369-09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람, 조사 결과는 여성기업 종합포털사이트 (www.wbiz.or.kr),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http://stat2.smba.go.kr>) 등에서 확인 가능

제1장 조사 결과 요약	1
제2장 조사 개요	27
1. 조사 배경 및 목적	29
가. 조사 목적	29
나. 조사의 법적 근거	29
다. 조사의 연혁	29
2. '2013년도 실태조사' 주요 추진 방향	30
가. 조사 단위 변경(사업체에서 기업체로 변경)	30
나. 여성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 실시	30
다.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표본 개선	30
3. 표본 설계	31
가. 모집단 정의(조사 대상 및 모집단 범위)	31
나. 모집단 층화 변수 설정	32
다. 표본크기 및 배분	33
라. 표본 추출	35
4. 조사 내용	36
5. 실사 진행	36
가. 표본 규모 및 조사 시점	36
나. 조사 수행 주체	36
다. 조사 방법	36
라. 자료의 검증	37
마. 자료 처리 및 통계 분석	37
바. 최종 확정된 유효 응답 기업체 수	38
6. 모수 추정	39
7. 조사 용어 정의	40

가. 일반 대상 및 업종 관련 용어	40
나. 기업 성장 및 사업 전환 관련	41
다. 인력, 정책 및 기타	42

제3장 조사결과 45

제1절 여성기업의 일반현황 및 특성 47

1. 여성기업 일반 현황	49
가. 기업체 등록형태	49
나. 기업 인증 유형	51
다. 기업연령	53
라. 기업성장단계	55
마. 주력생산 품목 구분	57
바. 대표자 연령	59
사. 대표자 동일 업종 경력	61
아. 대표자 최종학력	63
자. 대표자 전공분야	65
2. 사업장 현황 및 입지	67
가. 공장 현황	67
나. 물류창고 현황	69
다. 영업장/지점 현황	71
라. 본사 및 공장 입지 형태	73

제2절 여성기업의 재무 관련 현황 77

1. 2012년도 재무상태	79
2. 2012년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81
3. 자금조달 방법	83
4. 2012년 자금 사정	85
5. 자금 사정 악화의 원인	87
6. 주요 자금 투자 분야	89

제3절 경영의 성과 91

- 1. 2012년 여성기업의 경영 성과 93
- 2. 경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 95
- 3.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 98
- 4. 경영 악화에 대한 대응 방법 100
- 5. 기업구조조정 실시 경험 103
- 6. 향후 기업구조조정 실시 계획 105
- 7. 향후 기업구조조정 계획 방향 107
- 8. 과거 사업전환 추진 또는 전환 시도 여부 109
- 9. 과거 사업전환 추진 또는 계획 동기 111
- 10. 사업전환 시 느낀 애로사항 113
- 11. 사업전환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116

제4절 경영 활동 현황 119

- 1. 시장경쟁 및 경영상황 121
 - 가. 주력분야의 시장경쟁 정도 121
 - 나. 주력분야 시장전망 예상 123
 - 다. 여성기업의 중점 전략 125
- 2. 구매 활동 128
 - 가. 원부자재 구매금액 및 국내/해외 구매 비중 128
 - 나. 원부자재 구매 관련 애로사항 130
- 3. 생산 활동 133
 - 가. 생산(판매) 제품의 구성비 133
 - 나. 하도급 수행 관련 135
 - 다. 거래 모기업의 지원 사항 139
 - 라. 거래 모기업으로부터 겪은 주된 애로사항 141
- 4. 판매 활동 143
 - 가. 여성기업의 국내외 고객별 매출액 구성비 143
 - 나. 판매 대금 수취 방법 145
 - 다. 판매 활동 관련 애로사항 147

5. 투자 및 사업의 확대	149
가. 연구개발 담당조직 형태	149
나.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 비율	151
다. 설비 투자 용도	153
라. 연구 개발 투자비 조달 방법	155
마. 설비 투자비 조달 방법	157
바. 자체 기술 개발 시 애로사항	159
사. 사업 규모 확대 계획 유무	162
아. 사업 규모 확대의 주된 요인	164
6. 마케팅	167
가. 여성기업의 핵심 경쟁 요소	167
나. 국내외 주요 경쟁사 대비 제품/서비스 경쟁력 수준	169
다. 마케팅 능력 중 취약 분야	172
라. 마케팅 관련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	174
7. 해외 수출 활동	176
가. 2012년도 수출 실적 유무	176
나. 수출을 하지 않는 이유	178
다. 현재 주요 수출국 및 향후 관심 수출국	180
라. 해외시장 개척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183
마. 효과적인 해외 마케팅 수단	186
바.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분야	189
사. 해외 시장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	192

제5절 인사 노무 관리 **195**

1. 여성기업의 전체 인력 현황	197
2. 여성기업의 고용형태/성별 인력현황	202
3. 여성기업의 직종별 인력현황	204
가. 사무/관리직	204
나. 연구개발직	204
다. 생산/기술직	205
라. 영업/판매/서비스직	205

4. 경쟁기업 대비 평균 근속연수 및 전문성	210
5. 인력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애로경험	212
6. 인력 채용시 어려운 점	214
7. 인력 관리 시 애로 사항	217
8.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부 인력정책	219
9. 일·가정 양립을 위해추진 중인 정책	222
10. 일·가정 양립제도의 정착을 위한 필요 사항	224

제6절 교육 및 연수 227

1.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실시 여부	229
2.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231
3. 가장 많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내용	233
4.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형태	236
5. 교육훈련 위탁 기관	238
6.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 필요성	240
7. 여성경영자 대상 교육(연수) 참가여부	242
8. 여성경영자 교육에 불참 이유	244
9. 여성경영자 교육의 필요성	246
10. 여성경영자가 필요한 교육 분야	248
11. 여성 경영자 대상 교육(연수)의 기대 효과	250

제7절 여성기업인의 특성 및 애로 사항 253

1. 일반 중소기업 대비 여성기업의 장점	255
2. 일반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강점	257
3. 일반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약점	260
4. 여성기업인으로써 경영상 어려운 부분	263
5. 일반 중소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경영상 불리한 정도	275
6. 일반 중소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부분	277
7. 여성기업인으로써 겪는 차별 대우에 대한 경험 유무	284
8. 과거 대비 여성기업인에 대한 인식 변화정도	286

제8절 여성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정책 인식 289

- 1. 정부의 기업 활동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291
 - 가. 자금 지원 제도 292
 - 나. 인력 지원 제도 292
 - 다. 세제 지원 제도 293
 - 라. 기술 지원 제도 294
 - 마. 판로 지원 제도 295
 - 바. 정보화 지원 제도 295
 - 사. 수출 지원 제도 296
 - 아. 사업 전환 및 재창업 지원 제도 297
- 2. 여성기업 성장을 위해 확충이 필요한 정부 정책 306
- 3. 여성기업의 정부 정책 활용 시 애로사항 309
- 4. 여성기업이 정부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겪는 애로사항 311
- 5.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 · 314
- 6. 여성기업 공제조합의 필요성 317

제9절 공공구매제도 관련 319

- 1.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비율 의무화 제도 인식 여부 321
- 2. 공공구매를 통한 정부기관 납품 경험 유무 323
- 3. 공공구매를 통한 정부기관 납품 경험이 없는 이유 325
- 4. 공공기관 물품·용역 납품/공사 시 느끼는 여성기업으로서 애로정도 327
- 5. 공공기관 입찰 시 겪는 애로 사항 329
- 6. 공공구매 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 332
- 7. 여성기업 확인증 인식/발급 여부 334
- 8. 여성기업 확인증 인식 경로 336
- 9. 여성기업 확인증을 인증 받지 않은 이유 338

제10절 여성기업의 창업 관련 341

- 1. 지금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343
- 2. 현 기업체를 맡기 전 종사한 직업 345

3. 창업 준비 시 애로 사항	347
4. 창업지원 기관의 창업 지원 여부	349
5. 창업 준비 시 자문 받은 기관	351
6. 창업 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경로 및 구성비율	353
7. 창업 시 정책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경험	355
8. 창업 시 정책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이유	357
9. 초기 사업 운영 시 가장 어려웠던 점	359
10. 창업 후 손익분기점 도달 기간	361
11.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중요한 요인	363
12.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 분야	365
13. 현 사업 분야의 여성기업 적합성	367

표 목 차

<표 1> 기업체 등록형태	50
<표 2> 기업 인증 유형(복수 응답)	52
<표 3> 기업 연령(업력)	54
<표 4> 기업성장단계	56
<표 5> 주력생산 품목	58
<표 6> 대표자 연령	60
<표 7> 대표자 동일 업종 경력	62
<표 8> 대표자 최종학력	64
<표 9> 대표자 전공분야	66
<표 10> 공장 수, 규모, 소유형태	68
<표 11> 물류창고 수, 규모, 소유형태	70
<표 12> 영업장/지점 수, 규모, 소유형태	72
<표 13> 본사 입지 형태	74
<표 14> 공장 입지 형태	75
<표 15> 2012년도 재무 상태	80
<표 16> 2012년도 매출액 및 당기 순이익	82
<표 17> 자금조달 방법	84
<표 18> 2012년 기업 자금 사정	86
<표 19> 자금 사정 악화의 원인	88
<표 20> 주요 자금 투자 분야	90
<표 21> 2012년 여성기업의 경영 성과	94
<표 22> 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복수 응답)(1/2)	96
<표 23> 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복수 응답)(2/2)	97
<표 24>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복수 응답)	99
<표 25> 경영 악화에 대한 대응 방법(복수 응답)(1/2)	101
<표 26> 경영 악화에 대한 대응 방법(복수 응답)(2/2)	102
<표 27> 기업구조조정 실시 경험	104
<표 28> 향후 기업구조조정 실시 계획	106
<표 29> 향후 기업구조조정 계획 방향(복수응답)	108

<표 30> 과거 사업전환 추진 또는 전환 시도 여부	110
<표 31> 과거 사업전환 추진 및 계획 동기	112
<표 32> 사업전환 시 느낀 애로사항(1/2)	114
<표 33> 사업전환 시 느낀 애로사항(2/2)	115
<표 34> 사업전환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117
<표 35> 주력분야의 시장경쟁 정도	122
<표 36> 주력분야의 시장전망 예상	124
<표 37> 여성기업의 중점 전략(1/2)	126
<표 38> 여성기업의 중점 전략(2/2)	127
<표 39> 원부자재 평균 구매금액 및 국내/해외 구매 비중	129
<표 40> 원부자재 구매 관련 애로사항(1/2)	131
<표 41> 원부자재 구매 관련 애로사항(2/2)	132
<표 42> 생산(판매) 제품의 구성비	134
<표 43> 하도급 수행 여부 및 수급기업과의 거래 관계	136
<표 44> 하도급 수행 위탁기업 수 및 납품액(1/2)	137
<표 45> 하도급 수행 위탁기업 수 및 납품액(2/2)	138
<표 46> 거래 모기업의 지원 사항(복수 응답)	140
<표 47> 거래 모기업으로부터 겪은 애로사항	142
<표 48> 고객별 매출 구성비	144
<표 49> 판매대금 수취방법	146
<표 50> 판매활동 관련 애로사항	148
<표 51> 연구개발 담당조직 형태	150
<표 52>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 비율	152
<표 53> 설비 투자 용도	154
<표 54> 연구 개발 투자비 조달 방법	156
<표 55> 설비 투자비 조달 방법	158
<표 56> 자체 기술 개발 시 애로사항(1/2)	160
<표 57> 자체 기술 개발 시 애로사항(2/2)	161
<표 58> 사업 규모 확대 계획 유무	163
<표 59> 사업 규모 확대의 요인(1/2)	165
<표 60> 사업 규모 확대의 요인(2/2)	166
<표 61> 여성기업의 핵심 경쟁 요소	168
<표 62> 국내 주요 경쟁사 대비 제품/서비스 경쟁력 수준	170

<표 63> 해외 주요 경쟁사 대비 제품/서비스 경쟁력 수준	171
<표 64> 마케팅 능력 중 취약 분야	173
<표 65> 마케팅 관련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	175
<표 66> 2012년 수출 실적 유무	177
<표 67> 수출을 하지 않는 이유	179
<표 68> 현재 주요 수출국	181
<표 69> 향후 관심 수출국	182
<표 70> 해외시장 개척 과정의 애로사항(1/2)	184
<표 71> 해외시장 개척 과정의 애로사항(2/2)	185
<표 72> 효과적인 해외 마케팅 수단(1/2)	187
<표 73> 효과적인 해외 마케팅 수단(2/2)	188
<표 74>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 분야(1/2)	190
<표 75>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 분야(2/2)	191
<표 76> 해외 시장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	193
<표 77> 여성기업의 인력실태 - (1)전체	199
<표 78> 여성기업의 인력실태 - (2)고용형태 및 성별	200
<표 79> 여성기업의 인력실태 - (3)직종별	201
<표 80> 고용형태별 인력현황	203
<표 81> 직종별 인력현황-(1)사무/관리직	206
<표 82> 직종별 인력현황-(2)연구개발직	207
<표 83> 직종별 인력현황-(3)생산/기술직	208
<표 84> 직종별 인력현황-(4)영업/판매/서비스직	209
<표 85> 여성기업 종사자의 평균 근속연수 및 전문성	211
<표 86> 인력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애로경험	213
<표 87> 인력 채용시 어려운 점(1/2)	215
<표 88> 인력 채용시 어려운 점(2/2)	216
<표 89> 인력 관리 시 애로사항	218
<표 90>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부 인력정책(1/2)	220
<표 91>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부 인력정책(2/2)	221
<표 92>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	223
<표 93> 일·가정 양립제도의 정착을 위한 필요 사항	225
<표 94>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실시 여부	230
<표 95>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232

<표 96> 가장 많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내용(1/2)	234
<표 97> 가장 많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내용(2/2)	235
<표 98>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형태	237
<표 99> 교육훈련 위탁 기관	239
<표 100>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 필요성	241
<표 101> 여성경영자 대상 교육(연수) 참가여부	243
<표 102> 여성경영자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245
<표 103> 여성경영자 교육의 필요성	247
<표 104> 여성경영자가 필요한 교육 분야	249
<표 105> 여성 경영자 대상 교육(연수)의 기대 효과	251
<표 106> 일반 중소기업 대비 여성기업의 장점	256
<표 107> 일반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강점(1/2)	258
<표 108> 일반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강점(2/2)	259
<표 109> 일반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약점(1/2)	261
<표 110> 일반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약점(2/2)	262
<표 111> 여성기업인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운 분야-(1)마케팅관리	264
<표 112> 여성기업인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운 분야-(2)인사관리	265
<표 113> 여성기업인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운 분야-(3)노사관계	266
<표 114> 여성기업인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운 분야-(4)생산관리	267
<표 115> 여성기업인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운 분야-(5)자금관리	268
<표 116> 여성기업인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운 분야-(6)외상/어음 거래	269
<표 117> 여성기업인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운 분야-(7)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270
<표 118> 여성기업인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운 분야-(8)기술개발	271
<표 119> 여성기업인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운 분야-(9)경영 관련 정보 획득	272
<표 120> 여성기업인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운 분야-(10)거래 기업과의 마찰	273
<표 121> 여성기업인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운 분야-(11)지적 재산권 보호	274
<표 122> 일반 중소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경영상 불리한 정도	276
<표 123> 일반 중소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부분-(1)남성 중심 비즈니스 관행	278
<표 124> 일반 중소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부분-(2)여성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279
<표 125> 일반 중소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부분-(3)남성우주의 네트워크 운영으로 여성의 참여 제한	280
<표 126> 일반 중소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부분-(4)소극적 경영으로 인한 사업기회 상실 우려	281
<표 127> 일반 중소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부분-(5)가사, 자녀보육 추가 부담	282
<표 128> 일반 중소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부분-(6)금융업무 수행과정 시 불리함	283

<표 129> 여성기업인으로써 겪는 차별 대우에 대한 경험 유무	285
<표 130> 과거 대비 여성기업인에 대한 인식 변화정도	287
<표 131>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1)자금 지원 제도	298
<표 132>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2)인력 지원 제도	299
<표 133>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3)세제 지원 제도	300
<표 134>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4)기술 지원 제도	301
<표 135>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5)판로 지원 제도	302
<표 136>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6)정보화 지원 제도	303
<표 137>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7)수출 지원 제도	304
<표 138>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8)사업 전환 및 재창업 지원 제도	305
<표 139> 여성기업 성장을 위해 확충이 필요한 정부 정책 (1/2)	307
<표 140> 여성기업 성장을 위해 확충이 필요한 정부 정책 (2/2)	308
<표 141> 여성기업의 정부 정책 활용 시 애로사항	310
<표 142> 정부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겪는 애로사항(1/2)	312
<표 143> 정부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겪는 애로사항(2/2)	313
<표 144>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1/2)	315
<표 145>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2/2)	316
<표 146> 여성기업 공제조합의 필요성	318
<표 147>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비율 의무화 제도 인식 여부	322
<표 148> 공공구매를 통한 정부기관 납품 경험 유무	324
<표 149> 공공구매를 통한 정부기관 납품 경험이 없는 이유	326
<표 150> 공공기관 물품용역 납품/공사 시 느끼는 여성기업으로써 애로정도	328
<표 151>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시 겪는 애로 사항(1/2)	330
<표 152>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시 겪는 애로 사항(2/2)	331
<표 153> 여성기업 공공구매 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	333
<표 154> 여성기업의 여성기업 확인증 인식/발급 여부	335
<표 155> 여성기업의 여성기업 확인증 인식 경로	337
<표 156> 여성기업이 여성기업 확인증을 받지 않은 이유	339
<표 157> 지금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344
<표 158> 현 기업체를 맡기 전 종사한 직업	346
<표 159> 창업 준비 시 애로사항	348
<표 160> 창업지원 기관의 창업 지원 여부	350
<표 161> 창업 준비 시 관련 정보나 자문 받은 기관	352

<표 162> 창업 시 필요자금 조달경로 및 구성비율	354
<표 163> 창업 시 정책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경험	356
<표 164> 창업 시 정책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이유	358
<표 165> 초기 사업 운영 시 가장 어려웠던 점	360
<표 166> 창업 후 손익 분기점 도달 기간	362
<표 167> 창업 성공의 주요 요인	364
<표 168>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 분야	366
<표 169> 현 사업 분야의 여성기업 적합성	368

그림목차

(그림 1) 기업체 등록형태	49
(그림 2) 기업 인증 유형(복수 응답)	51
(그림 3) 기업 연령(업력)	53
(그림 4) 기업성장단계	55
(그림 5) 주력생산 품목	57
(그림 6) 대표자 연령	59
(그림 7) 대표자 동일 업종 경력	61
(그림 8) 대표자 최종학력	63
(그림 9) 대표자 전공분야	65
(그림 10) 공장 수, 규모, 소유형태	67
(그림 11) 물류창고 수, 규모, 소유형태	69
(그림 12) 영업장/지점 수, 규모, 소유형태	71
(그림 13) 본사 및 공장 입지 형태	73
(그림 14) 2012년도 재무 상태	79
(그림 15) 2012년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81
(그림 16) 자금조달 방법	83
(그림 17) 2012년 기업 자금 사정	85
(그림 18) 자금 사정 악화의 원인	87
(그림 19) 주요 자금 투자 분야	89
(그림 20) 2012년 여성기업의 경영 성과	93
(그림 21) 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복수 응답)	95
(그림 22)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복수 응답)	98
(그림 23) 경영 악화에 대한 대응 방법(복수 응답)	100
(그림 24) 기업구조조정 실시 경험	103
(그림 25) 향후 기업구조조정 실시 계획	105
(그림 26) 향후 기업구조조정 계획 방향(복수응답)	107
(그림 27) 과거 사업전환 추진 또는 전환 시도 여부	109
(그림 28) 과거 사업전환 추진 또는 계획 동기	111
(그림 29) 사업전환 시 느낀 애로사항	113

(그림 30) 사업전환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116
(그림 31) 주력분야의 시장경쟁 정도	121
(그림 32) 주력분야의 시장전망 예상	123
(그림 33) 여성기업의 중점 전략	125
(그림 34) 원부자재 평균 구매금액 및 국내/해외 구매 비중	128
(그림 35) 원부자재 구매 관련 애로사항	130
(그림 36) 생산(판매) 제품의 구성비	133
(그림 37) 하도급 수행 여부	135
(그림 38) 하도급 수행 위탁기업 수 및 납품액	135
(그림 39) 거래 모기업의 지원 사항(복수 응답)	139
(그림 40) 거래 모기업으로부터 겪은 애로사항	141
(그림 41) 고객별 매출 구성비	143
(그림 42) 판매대금 수취방법	145
(그림 43) 판매활동 관련 애로사항	147
(그림 44) 연구개발 담당조직 형태	149
(그림 45)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 비율	151
(그림 46) 설비 투자 용도	153
(그림 47) 연구 개발 투자비 조달 방법	155
(그림 48) 설비 투자비 조달 방법	157
(그림 49) 자체 기술 개발 시 애로사항	159
(그림 50) 사업 규모 확대 계획 유무	162
(그림 51) 사업 규모 확대의 주된 요인	164
(그림 52) 여성기업의 핵심 경쟁 요소	167
(그림 53) 국내 및 해외 주요 경쟁사 대비 제품/서비스 경쟁력 수준	169
(그림 54) 마케팅 능력 중 취약 분야	172
(그림 55) 마케팅 관련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	174
(그림 56) 2012년도 수출 실적 유무	176
(그림 57) 여성제조기업의 수출 실적 유무(제조업)	176
(그림 58) 수출을 하지 않는 이유	178
(그림 59) 현재 주요 수출국 및 향후 관심 수출국	180
(그림 60) 해외시장 개척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183
(그림 61) 효과적인 해외 마케팅 수단	186
(그림 62)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 분야	189

(그림 63) 해외 시장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	192
(그림 64) 인력실태 - 고용형태 및 성별	197
(그림 65) 인력실태 - 직종별	197
(그림 66) 고용형태별 인력현황	202
(그림 67) 직종별 인력현황 - (1)사무/관리직	204
(그림 68) 직종별 인력현황 - (2)연구개발직	204
(그림 69) 직종별 인력현황 - (3)생산/기술직	205
(그림 70) 직종별 인력현황 - (4)영업/판매/서비스직	205
(그림 71) 여성기업 종사자의 평균 근속연수	210
(그림 72) 여성기업 종사자의 전문성	210
(그림 73) 인력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애로경험	212
(그림 74) 인력 채용시 어려운 점	214
(그림 75) 인력 관리 시 애로사항	217
(그림 76)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부 인력정책	219
(그림 77)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	222
(그림 78) 일·가정 양립제도의 정착을 위한 필요 사항	224
(그림 79)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실시 여부	229
(그림 80)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231
(그림 81) 가장 많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내용	233
(그림 82)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형태	236
(그림 83) 교육훈련 위탁 기관	238
(그림 84)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 필요성	240
(그림 85) 여성경영자 대상 교육(연수) 참가여부	242
(그림 86) 여성경영자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244
(그림 87) 여성경영자 교육 필요성	246
(그림 88) 여성경영자가 필요한 교육 분야	248
(그림 89) 여성 경영자 대상 교육(연수)의 기대 효과	250
(그림 90) 일반 중소기업 대비 여성기업의 장점	255
(그림 91) 일반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강점	257
(그림 92) 일반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약점	260
(그림 93) 여성기업인으로써 경영상 어려운 분야	263
(그림 94) 일반 중소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경영상 불리한 정도	275
(그림 95) 일반 중소기업 대비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부분	277

(그림 96) 여성기업인으로서 겪는 차별 대우에 대한 경험 유무	284
(그림 97) 과거 대비 여성기업인에 대한 인식 변화정도	286
(그림 98)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291
(그림 99)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1)자금 지원 제도	292
(그림 100)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2)인력 지원 제도	293
(그림 101)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3)세제 지원 제도	294
(그림 102)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4)기술지원 제도	294
(그림 103)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5)판로 지원 제도	295
(그림 104)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6)정보화 지원 제도	296
(그림 105)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7)수출 지원 제도	297
(그림 106)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8)사업 전환 및 재창업 지원 제도	297
(그림 107) 여성기업 성장을 위해 확충이 필요한 정부 정책	306
(그림 108) 여성기업의 정부 정책 활용 시 애로사항	309
(그림 109) 정부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겪는 애로사항	311
(그림 110) 여성 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	314
(그림 111) 여성기업 공제조합의 필요성	317
(그림 112) 공공구매 비율 의무화 제도 인식 여부	321
(그림 113) 공공구매를 통한 정부기관 납품 경험 유무	323
(그림 114) 공공구매를 통한 정부기관 납품 경험이 없는 이유	325
(그림 115) 공공기관 물품용역 납품/공사 시 느끼는 여성기업으로써 애로정도	327
(그림 116) 공공기관 입찰 시 겪는 애로사항	329
(그림 117) 공공구매 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332
(그림 118) 여성기업 확인증 인식/발급 여부	334
(그림 119) 여성기업 확인증 인식 경로	336
(그림 120) 여성기업 확인증을 받지 않은 이유	338
(그림 121) 지금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343
(그림 122) 현 기업체를 맡기 전 종사한 직업	345
(그림 123) 창업 준비 시 애로사항	347
(그림 124) 창업지원 기관의 창업 지원 여부	349
(그림 125) 창업 준비 시 관련 정보나 자문 받은 기관	351
(그림 126) 창업 시 필요자금 조달경로 및 구성비율	353
(그림 127) 창업 시 정책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경험	355
(그림 128) 창업 시 정책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이유	357

(그림 129) 초기 사업 운영 시 가장 어려웠던 점	359
(그림 130) 창업 후 손익 분기점 도달 기간	361
(그림 131) 창업 성공의 주요 요인	363
(그림 132)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 분야	365
(그림 133) 현 사업 분야의 여성기업 적합성	367

제1장

조사 결과 요약

주요 결과 요약

1. 조사 개요

1. 조사의 목적

- 국내 여성기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기업 지원 정책 발굴 및 향후 육성 과제 도출 등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2. 조사 범위 및 내용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및 범위	목표 모집단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및 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기업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의 기업체를 영위하는 여성기업인임
	조사 모집단	전국사업체조사(2011년 12월 말 기준)의 결과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의 여성이 대표자인 42,118개 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 조직형태가 회사이외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비법인 단체, 전기·가스·수도 업종의 경우 모집단의 규모가 작아 제외
표본 추출 방식	표본 층에서의 표본추출방법은 층화계통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화 : 산업별 15개 업종, 종사자 규모로 5개 층, 지역별 5개 층 - 층내 표본추출방법은 각 산업별, 규모별, 지역별 층에 할당된 표본기업체는 해당 층에서 행정구역에 따라 정렬 후 계통 추출함 	
표본 규모	○ 전국의 4,000개 기업체	
최종 유효 표본	○ 최종적으로 회수/검증된 4,680개 기업체	
표본 오차	○ ±1.27%(95% 신뢰수준)	
조사방법	○ 일대일방문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편의 고려와 응답률 제고를 위하여 FAX, E-mail 조사를 병행 	
자료수집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일반정보 및 특성(15개) - 기업일반현황(2개) - 재무관련현황(6개) - 경영의 성과(11개) - 경영활동사항(30개) - 인사노무관리(8개) - 교육 및 연수(11개) - 여성기업인 특성 및 애로사항(7개) - 정부의 여성기업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9개) - 공공구매 관련 문항(9개) - 창업관련 문항(13개) 	
조사 시점	○ 조사 기준일 : 2012년 12월 31일	
	○ 조사 대상 기간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조사 실시 기간 : 2013년 10월 15일 ~ 2013년 11월 20일	
	○ 조사 주기 : 격년(홀수년도)	
조사 수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조사 전담기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조사 실시기관 : (주)포커스컴퍼니 	

II. 주요 조사 결과

1. 여성기업 일반 현황

가. 여성기업 일반 유형

- 여성기업의 등록형태는 일반 법인이 99.0%임

※ (참고) 2013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이전의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에서 여성기업체 대상 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개인사업체'는 표본에서 제외됨.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의 경우, '개인사업체'가 96.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여성기업 중 94.8%는 특별한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일반기업에 해당하며, 벤처기업은 2.5%, 기술혁신형 기업은 0.9%로 나타남
- 조사대상 시점인 '12년까지 여성기업의 기업연령은 3년 미만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균 업력은 7.7년으로 나타남
 - 참고로, 여성제조업의 경우는 평균 기업연령이 8.5년으로, 일반 중소기업(평균 10.8년) 대비 2.3년 짧은 편임

[여성기업의 기업연령(업력)]

(단위 : %, 년)

3년 미만	4~5년	6~10년	11~15년	16년 이상	[평균 업력]
29.7%	16.5%	28.4%	16.2%	9.1%	7.7년

나. 여성기업 대표자 관련 현황

- 여성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49.5세이며, 동일 업종경력은 평균 10.2년
- 대표자의 학력은 대졸(전문대 포함)이 61.1%로 가장 높고, 고졸이하가 30.2%, 대학원졸이 5.1%로 고학력 여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문대졸 이상 대표자의 전공분야는 인문/사회계열이 39.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제/경영(28.8%) 등의 순임

2. 여성기업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가. 여성기업 매출현황

- '12년 여성기업체 당 평균 매출액은 2,389백만원, 당기순이익은 75백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율은 3.1%임
- 제조업 중심으로 보면, 여성제조업의 평균 매출액(3,591백만원)이 일반중소제조업(5,283백만원)보다 1,692백만원 적으나, 당기순이익율은 여성기업(4.5%)이 일반중소제조업(3.4%) 대비 1.1% 더 높음

[전체 여성기업 및 여성/중소제조기업의 매출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기업체 당 평균 매출	2012년 기업체 당 평균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율(%)
여성기업 전체 평균		2,389	75	3.1%
제조업	여성제조업 평균	3,591	160	4.5%
	일반중소제조업 평균	5,283	180	3.4%

※ 일반중소제조업 매출액은 '2013년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함

- 업종별, 기업체 당 평균 매출액은 제조업이 3,591백만원, 비제조업이 2,115백만원으로 제조업의 기업체 당 평균 매출액이 더 높음
- 특히,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제조와 비제조업 중 '도매 및 소매업'은 기업체 당 평균 매출액이 각각 5,523백만원, 3,564백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업종별 여성기업의 매출현황 비교]

(단위 : 개사, 백만원)

구 분		사례 수	2012년도 매출액		2012년도 당기순이익		
			매출 총액	기업체 당 평균	당기순이익 총액	기업체 당 평균	
전 체		42,118	93,733,736	2,389	2,931,700	75	
부 문	제조업	7,459	26,152,077	3,591	1,149,998	160	
	비제조업	34,659	67,581,659	2,115	1,781,701	55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2,580,589	3,144	82,143	102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4,239,748	5,523	247,520	327
		기타 제조	5,822	19,331,740	3,395	820,336	146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945,486	2,141	45,979	103
	건설업	8,211	11,814,705	1,507	443,046	56
	도매 및 소매업	10,963	36,061,556	3,564	717,683	72
	운수업	1,954	3,533,557	2,002	102,430	56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1,703,978	1,829	57,766	63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2,372,436	1,487	79,594	51
	금융 및 보험업	769	941,330	1,344	14,308	2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1,949,518	1,392	67,135	4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2,840,149	1,278	70,544	3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3,578,922	1,127	106,290	34
	교육 서비스업	891	640,065	861	35,281	44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88,231	928	4,551	4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426,368	1,464	-16,021	-56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685,357	1,087	53,116	86

나. 여성기업 재무현황

- 여성기업의 '12년도 기업체당 평균 자산은 1,584백만원으로, 평균 자기자본은 629백만원, 평균 부채는 956백만원으로 나타남
- 제조업 중심으로 보면, 여성제조업의 기업체당 평균 자산은 2,653백만원으로 일반중소제조업(4,605백만원) 보다 1,952백만원 낮음

[전체 여성기업 및 여성/중소제조기업의 재무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업체 당 평균 자산	기업체 당 평균 자기자본	기업체 당 평균 부채
여성기업 전체 평균		1,584	629	956
제조업	여성제조업 평균	2,653	1,073	1,580
	일반 중소기업 평균	4,605	1,753	2,852

※ 일반 중소기업의 자산, 자기자본 및 부채액은 '2013년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함

※ 자산 = 자기자본 + 부채(단, 소수점 아랫자리의 반올림으로 인해 각 세부항목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여성기업 경영지표

-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수익성)은 3.1%, 부채비율(안정성)은 152.0%임
 - 중소기업제조업과 여성기업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비교해보면, 여성 제조업의 수익성은 4.5%로 중소기업제조업(3.4%) 대비 1.1%p 높음
 - 반면, 부채비율은 여성제조업이 147.3%, 중소기업제조업이 162.7%로 나타나 여성제조업이 중소기업제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보임

[’12년도 전체 여성기업 및 여성/중소기업제조업의 주요 경영지표 비교]

(단위 : %, 배, 백만원)

구 분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생산성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부채비율(%)	자기자본 회전률(배)	종업원 1인당 매출액(백만원)
여성기업 전체 평균		3.1	152.0	3.8	196
제조업	여성제조업 평균	4.5	147.3	3.3	222
	일반 중소기업 평균	3.4	162.7	3.0	278

※ 주요 경영지표의 산식

• 수익성

$$\text{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 안정성

$$\text{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액}}{\text{자기자본}} \times 100$$

• 활동성

$$\text{자기자본 회전률(배)} = \frac{\text{매출액}}{\text{자기자본}}$$

• 생산성

$$\text{종업원 1인당 매출액(백만원)}$$

라. 여성기업 경영성과

- ’12년도 경영성과에 대해서 54.3%는 보통이라고 하였으나, 18.6%는 이전보다 양호했다고 평가하고, 27.1%는 악화되었다고 평가함
 - 경영성과가 ‘양호’했다는 평가 이유로는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5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용절감 노력(19.0%) 때문으로 나타남
 - 경영성과가 ‘악화’되었다는 평가 이유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가 76.2%로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한편, 경영성과가 악화된 여성기업의 45.5%는 비용절감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22.5%는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여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37.3%)과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 복원업(28.9%)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높은 편임

마. 여성기업 자금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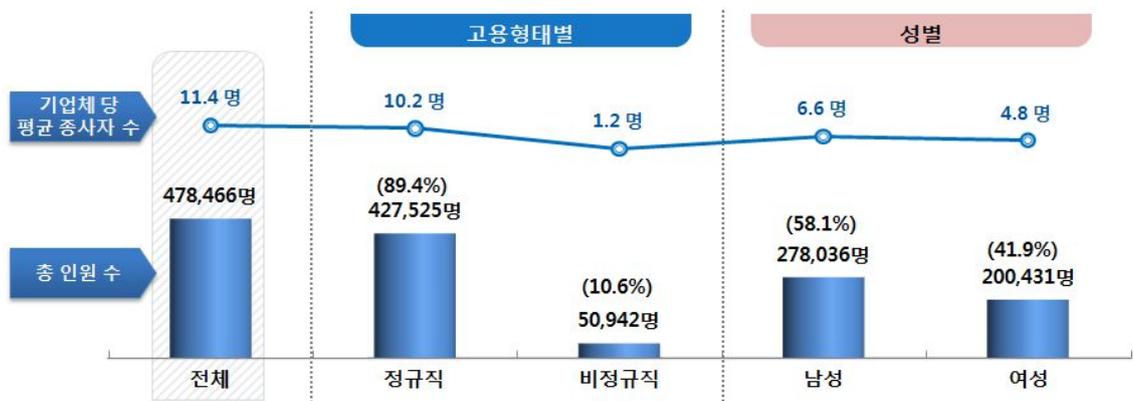
- '12년도 자금사정에 대해서 16.2%는 이전보다 양호했다고 평가하였으나, 27.0%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평가
- 자금사정 악화는 내수 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73.4%)가 주요 원인이며, 이 외에 '원가비용 상승'(7.8%), '인건비 부담 증가'(6.8%) 등으로 나타남

3. 여성기업 인력 및 관리 실태

가. 여성기업 인력현황

- '13년 6월 30일 기준, 여성기업 인력은 478,466명(기업체 당 평균 11.4명)임
-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이 427,525명으로 전체의 89.4% 차지
- 여성기업의 남성 종사자는 278,036명(58.1%), 여성 종사자는 200,431명(41.9%)으로 남성고용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종사자 성비는 업종별로 다름
-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51.7%)과 '식료품/음료 제조'(51.4%), 비제조업 중,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76.2%), '교육 서비스업'(64.9%), '금융 및 보험업'(55.5%) 등은 여성인력 고용율이 더 높음

[고용형태별/성별 여성기업 인력 현황]



※ 인력 총 인원은 소수점 아래 자리의 차이로 인해 각 세부항목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조업 기준, 여성기업의 여성 종사인력 고용비율은 37.5%로, 일반 중소기업(26.9%) 대비 여성인력 고용율이 10.6%p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중소제조기업의 성별 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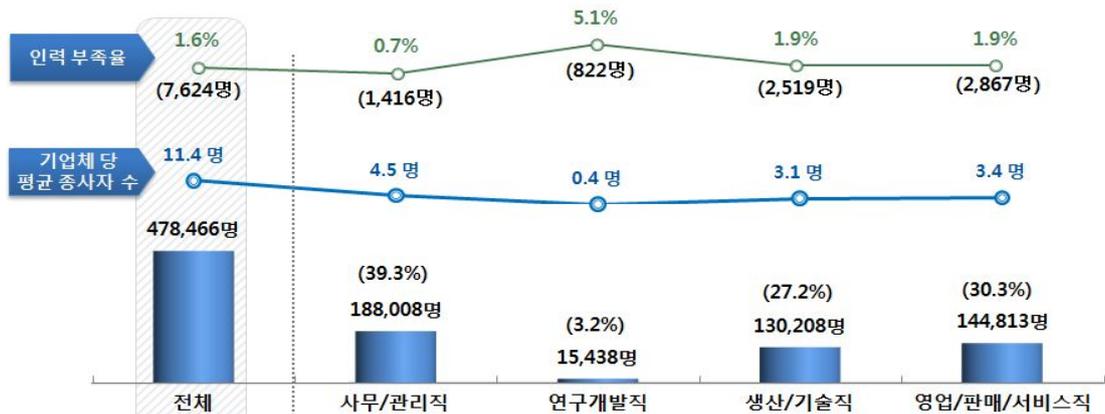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여성 제조업		일반 중소기업	
	총인원	구성 비율	총인원	구성 비율
전 체	118,001	100.0	2,086,116	100.0
남 성	73,735	62.5	1,524,037	73.1
여 성	44,266	37.5	562,079	26.9

※ 중소기업종사자별 인력현황은 '2013년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함

- 직종별 인력구성비는 사무/관리직이 188,008명(전체 인력의 3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업/판매/서비스직 144,813명(30.3%), 생산/기술직 130,208명(27.2%), 연구개발직이 15,438명(3.2%) 순으로 나타남
- '13년 여성기업의 전체 부족인원은 7,624명으로 전체 인력 부족율은 1.6%임
- 직종별 인력부족율은 연구개발직이 5.1%로 가장 높고, 사무관리직의 인력부족율이 0.7%로 가장 낮음

[직종별 여성기업 인력현황]



※ 인력부족률=부족인원/(현인원+부족인원)×100

※ 인력 총 인원은 소수점 아래 자리의 차이로 인해 각 세부항목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업체 당 평균인원을 살펴보면, 제조업 평균 15.8명, 비제조업 평균 10.4명으로 제조업의 기업체 당 평균인원이 5.4명 많음
- 제조업 중에서는 '섬유/의복/가방/신발'(17.8명), 비제조업 중에서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20.3명)에서 평균 인원이 많음

[업종별 여성기업 인력현황]

(단위 : 명, %)

구 분		현 인원(2013년 6월 30일 기준)			
		총인원	구성 비율	기업체 당 평균	
전 체		478,466	100.0	11.4	
부 문	제조업	118,001	24.7	15.8	
	비제조업	360,465	75.3	10.4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13,308	2.8	16.0
		섬유/의복/가방/신발	14,287	3.0	17.8
		기타 제조	90,406	18.9	15.5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5,013	1.0	10.9
		건설업	69,955	14.6	8.5
		도매 및 소매업	80,479	16.8	7.3
		운수업	27,512	5.8	14.1
		숙박 및 음식점업	15,057	3.1	14.6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9,686	4.1	11.7
		금융 및 보험업	7,329	1.5	9.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221	3.0	8.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5,842	5.4	10.7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70,198	14.7	20.3
		교육 서비스업	10,768	2.3	12.1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2,012	0.4	17.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801	0.8	11.8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593	1.8	12.8		

나. 여성기업 인력관리

- 여성기업 종사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3.9년이며, 근속년수 기간별로는 3년 이상~5년 미만인 36.5%로 가장 높음
- 제조업 종사자(4.3년)의 평균 근속년수는 비제조업(3.8년) 대비 0.5년 더 길게 나타남

[여성기업 종사자의 평균 근속년수] (단위 : %, 년)

구 분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평균 근속년수]	
전 체	31.3	36.5	25.8	6.4	3.9	
부 문	제조업	29.9	33.4	27.1	9.5	4.3
	비제조업	31.6	37.2	25.5	5.8	3.8

- 여성기업은 종사자의 전문성을 경쟁기업 보다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48.6%, '동등'이 46.1%로 나타나 자체인력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인력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애로정도는 '보통'이 42.5%, '애로를 겪지 않음'은 31.1%로 인력부족이 경영상 큰 애로사항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부족으로 인한 애로 정도가 큰 양상을 보임
- 인력채용 시 애로사항은 적합한 인력부족(32.2%), 중소기업 기피현상(30.1%), 낮은 임금수준(24.9%), 열악한 근무여건(22.4%) 순임
 - 제조업은 중소기업 기피 현상(40.8%), 비제조업은 적합한 인력 부족(32.5%)이 인력 채용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 인력관리 시에는 인건비 부담(31.0%)에 대한 애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인력 구인난(17.4%), 일반인력 구인난(17.2%), 잦은 이직(14.4%)에 대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은 인건비 부담(29.2%), 일반인력 구인난(19.2%)이 주요 애로임
 - 반면, 비제조업은 인건비 부담(31.4%) 다음으로 전문인력 구인난(17.1%)이 더 큰 애로로 나타남

(단위 : %)

구 분		인력채용 관련 애로사항				인력관리 관련 애로사항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적합한 인력부족	중소기업 기피현상	낮은 임금수준	근무여건 열악	인건비 부담	전문인력 구인난	일반인력 구인난	잦은 이직	
전 체		32.2	30.1	24.9	22.4	31.0	17.4	17.2	14.4	
부 문	제조업	30.9	40.8	23.6	20.2	29.2	18.6	19.2	12.7	
	비제조업	32.5	27.8	25.2	22.8	31.4	17.1	16.8	14.8	
세 부 업 종 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34.0	31.1	31.9	22.4	33.4	10.8	22.1	16.0
		섬유/의복/가방/신발	22.6	42.7	17.8	22.7	20.5	27.9	18.2	8.1
		기타 제조	31.6	41.9	23.2	19.6	29.8	18.4	18.9	12.9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33.3	23.7	24.3	27.3	33.3	9.7	19.8	24.8
		건설업	37.7	30.9	27.6	25.9	27.0	23.0	12.6	16.2
		도매 및 소매업	29.1	29.0	21.0	20.0	29.8	13.0	22.3	11.7
		운수업	29.6	20.0	32.6	38.3	29.4	5.9	13.0	32.0
		숙박 및 음식점업	26.3	24.0	35.0	28.7	41.5	8.9	11.8	23.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42.7	44.7	17.8	7.9	38.2	27.3	17.4	5.7
		금융 및 보험업	24.5	24.7	21.1	13.5	25.3	7.8	13.2	28.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8.9	18.2	37.8	24.2	37.5	9.6	22.5	14.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7.6	33.7	22.5	18.4	39.1	21.1	18.5	7.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5.9	19.9	29.9	26.2	35.5	21.1	12.1	14.6
		교육 서비스업	36.2	17.1	15.0	12.6	28.6	23.7	13.7	11.3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42.1	22.6	16.0	19.0	26.9	17.0	16.2	20.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1.2	23.2	21.6	27.4	27.9	22.7	9.6	19.6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1	24.3	22.3	31.1	33.9	19.2	10.7	13.1		

- 향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부 인력정책은 신규채용 인건비 보조제도가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소기업 내 일자리 유지/창출 지원제도(16.8%), 훈련 후 채용연계 지원제도(1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출산 전/후 휴가 제도가 9.2%로 가장 높음
- 그러나 77.4%의 여성기업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이 없다고 응답

[여성기업의 일·가정양립 지원 현황]

(단위 : %)

구분 (중복응답)	출산 전/후 휴가제도	탄력적 근로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	선택적 근로 시간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직무 대체제	일·가정 양립관련 지원제도 없음	
전체	9.2	8.9	5.7	5.3	3.0	2.3	77.4	
부문	제조업	13.7	7.9	5.9	3.4	7.2	1.3	74.4
	비제조업	8.2	9.1	5.6	5.7	2.0	2.5	78.0

- 여성기업의 일·가정 양립지원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개선 및 재정적 지원(45.3%)인 것으로 나타남

4. 여성기업 기업구조조정 및 사업전환 실태

가. 기업 구조조정 실태

- 과거 구조조정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은 8.1%이며, 향후 기업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 여성기업은 5.8%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비제조업 중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2.8%)과 ‘교육 서비스업’ (11.0%)은 타 업종 대비 향후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 높음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으로는 인력감축 등 고용조정(46.4%), 사업다각화 (39.1%)를 통한 구조조정 계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고용조정 계획은 ‘금융 및 보험업’(64.4%)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다각화는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65.5%)에서 높음

[여성기업의 과거 구조조정 경험 및 향후 구조조정 계획] (단위 : %)

구 분		과거 구조조정 실시 경험 여부		향후 구조조정 실시 계획		향후 기업 구조조정 계획 유형(복수 응답)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순위	2순위	
						인력감축 등 고용조정	사업 다각화	
전 체		8.1	91.9	5.8	94.2	46.4	39.1	
부 문	제조업	8.7	91.3	7.8	92.2	34.1	41.5	
	비제조업	8.0	92.0	5.4	94.6	50.3	38.4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7.7	92.3	8.4	91.6	30.5	48.9
		섬유/의복/가방/신발	6.0	94.0	8.9	91.1	34.1	57.6
		기타 제조	9.2	90.8	7.6	92.4	34.6	37.8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7.7	92.3	4.4	95.6	34.7	62.9
		건설업	7.8	92.2	4.0	96.0	59.4	40.6
		도매 및 소매업	8.0	92.0	5.1	94.9	52.9	37.8
		운수업	6.2	93.8	4.8	95.2	24.7	56.8
		숙박 및 음식점업	6.4	93.6	5.0	95.0	51.9	35.4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8.0	92.0	6.8	93.2	47.8	65.5
		금융 및 보험업	5.6	94.4	3.3	96.7	64.4	35.6
		부동산업 및 임대업	5.8	94.2	5.0	95.0	33.2	24.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1	84.9	12.8	87.2	45.1	23.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6.0	94.0	2.8	97.2	55.4	40.8
		교육 서비스업	12.9	87.1	11.0	89.0	51.8	36.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7.5	92.5	8.9	91.1	42.6	43.6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2	93.8	4.8	95.2	57.3	20.2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7	95.3	9.6	90.4	56.9	47.5		

나. 사업전환 실태

- 현재 사업전환을 계획 중이거나 향후 추진 의사가 있는 여성기업은 7.1%
 - 주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2.9%), '기타 제조업'(9.9%)에서 사업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기업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여성기업의 사업전환 실태] (단위 : %)

사업전환 완료	현재 사업전환 진행 중	현재 사업전환을 계획 중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향후 추진의사 있음	향후 추진 계획 없음
1.1	1.3	1.4	5.7	90.6

-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기업(90.6%)은 사업전환 계획이 없다고 응답
 - 그 이유로는 주로 사업전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거나(80.7%), 사업전환 시 소요자금 충당 어려움(8.3%) 등으로 나타남

5. 여성기업 경영활동

가. 시장 경쟁 및 경영상황

- 주력 사업분야에 대해 시장 경쟁정도를 높다고 응답한 여성기업은 37.9%
 - 향후 주력 분야의 시장전망을 예측함에 있어서는 비관적이라는 예측(24.1%)이 낙관적인 전망(16.9%) 보다 높음
- 국내 주요 경쟁사 대비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기업은 58.5%로 나타남
- 반면, 해외 주요 경쟁사 대비 경쟁력이 비슷하다는 의견(36.7%)이 우수하다(29.2%)는 의견보다 더 많음

[국내외의 주요 경쟁사 대비 여성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평가]

(단위 : %)

구 분	귀사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수준			
	우수	보통	부족	모름/무응답
국내 주요 경쟁사 대비	58.5	36.5	4.9	-
해외 주요 경쟁사 대비	29.2	36.7	11.8	22.2

나. 구매 및 생산 활동

- '12년 원부자재 구매 총액은 18,192,241백만원(기업체 당 평균 1,222백만원)으로 나타남
 - 원부자재의 구매처는 국내가 93.8%로 나타났으며, 원부자재 구매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구매가격 상승(78.5%)임
- 하도급을 수행한 여성기업은 9.3%이며, 대기업(16.4%)보다는 중소기업과의 하도급 거래(52.9%)가 많음
 - 제조업에서는 '섬유/의복/가방/신발' 제조업(17.4%),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16.7%)에서 하도급 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남

[여성기업의 하도급 거래 현황]

(단위 : %)

하도급 수행 여부		수급기업과의 거래		
없음	있음	중소기업과 거래	대기업과 거래	대·중소기업과 공동 거래
90.7	9.3	52.9	16.4	30.7

다. 판매 활동

- 여성기업의 매출액 중 국내 일반 고객 비중이 84.6%로 대부분을 차지
 - 그 외로는 국내 공공기관(13.0%), 해외 고객(2.4%) 순으로 매출 구성
- 여성기업이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직면하는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위축으로 인한 판매 감소가 48.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가격 경쟁력 취약(12.4%), 마케팅 역량 부족(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라. 투자 및 사업의 확대

- 여성기업의 주요 자금투자 분야는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운전자금(32.2%)이며, 그 다음으로 판촉 및 광고홍보 등 판매자금(15.9%)이 차지. 반면, 투자 계획이 없는 여성기업도 34.0%로 높게 나타남
-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는 여성기업은 13.3%로 나타남
- 설비투자의 경우, 여성기업의 12.6%가 설비투자를 하고 있음
 - 설비투자를 하는 여성기업의 62.6%는 기존설비 유지·보수에 투자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기존설비 교체(22.4%), 신규설비 도입(16.1%)에 투자

[여성기업의 설비 투자 현황]

(단위 : %)

기존설비 유지, 보수	기존설비 교체(갱신)	신규설비 도입	기존설비 확장
62.6	22.4	16.1	15.2

- 향후 사업규모 확대(신규 또는 기존 사업의 확장)에 대해 92.9%의 여성기업은 확대 계획 없다고 응답
 - 반면, 제조업 중 '식료품/음료 제조업'(12.7%), 비제조업 중 '교육 서비스업'(14.7%)에서 사업을 확대할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확대 계획이 있는 여성기업의 경우, 사업확대를 계획하는 주요 이유는 제품 품질(기술)의 차별성(34.1%) 또는 수요 증가 및 시장 성장(28.3%)인 것으로 나타남

[여성기업의 사업 규모 확대 계획]

(단위 : %)

구 분		사업 규모 확대 계획		사업규모 확대의 주요 요인			
		있다	없다	1순위	2순위	3순위	
				제품 품질(기술)의 차별성이 있어서	수요증가 및 시장성장으로 인해서	가격경쟁력이 있어서	
전 체		7.1	92.9	34.1	28.3	11.7	
부 문	제조업	11.1	88.9	40.0	23.1	15.5	
	비제조업	6.2	93.8	31.9	30.3	10.2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12.7	87.3	52.2	18.6	17.1
		섬유/의복/가방/신발	8.1	91.9	31.9	13.0	18.9
		기타 제조	11.3	88.7	38.8	24.9	14.9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9.8	90.2	15.2	49.2	27.9
		건설업	5.3	94.7	28.5	30.6	7.9
		도매 및 소매업	5.3	94.7	29.0	28.3	15.5
		운수업	8.5	91.5	37.6	18.5	0.0
		숙박 및 음식점업	3.4	96.6	24.0	31.4	37.1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8.6	91.4	20.6	38.1	17.0
		금융 및 보험업	2.9	97.1	50.0	0.0	5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5.5	94.5	39.1	33.4	10.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2	89.8	43.2	32.0	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4.9	95.1	35.1	30.8	0.0
		교육 서비스업	14.7	85.3	43.1	30.1	4.6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0.3	89.7	0.0	85.9	14.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8	95.2	31.4	28.2	20.2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	90.5	23.1	33.6	21.6		

마. 마케팅 관련

- 여성기업이 생각하는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요소는 서비스 경쟁력(22.1%)이며, 그 다음으로는 품질 경쟁력(19.7%), 가격 경쟁력(1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여성기업이 생각하는 마케팅관련 가장 취약한 분야는 수요예측 등의 시장 정보 수집 능력(34.8%)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 수요예측 등 시장 정보 수집(31.1%), 신제품 개발/제품 개선 기획(26.7%)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제조업은 수요예측 등 시장정보수집(35.7%) 다음으로 수요처 채널 관리(21.2%)가 취약하다고 응답
- 마케팅 관련 정부지원 희망 분야로는 시장조사 및 관련 정보의 제공(37.9%)을 가장 원하고 있음
 - 제조업은 신제품 기획 및 개발 기획 지원(33.5%), 비제조업은 시장조사 및 관련 정보의 제공(40.0%)을 마케팅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이라고 응답함

[여성기업의 마케팅 취약 분야 및 정부 지원 필요 분야]

(단위 : %)

구 분		마케팅 취약 능력(분야)			마케팅 관련 필요 정부 지원 분야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수요예측 등 시장 정보 수집	수요처 개발/유통 채널 관리	신제품 개발/제품 개선 기획	시장조사 및 관련 정보 제공	홍보/광고 관련 지원	신제품 기획/개발 기획 지원	
전 체		34.8	20.2	14.0	37.9	20.8	17.2	
대 분	제조업	31.1	16.3	26.7	29.9	14.1	33.5	
	비제조업	35.7	21.2	10.9	40.0	22.5	13.3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품/음료 제조	29.3	24.8	19.4	28.5	22.9	19.3
		섬유/의복/가방/신발	23.5	12.9	27.9	30.2	14.2	34.4
		기타 제조	32.3	15.4	27.7	30.2	12.8	35.4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35.3	31.5	10.1	59.9	18.5	5.0
		건설업	31.7	30.3	10.6	37.6	22.2	10.4
		도매 및 소매업	37.8	19.7	11.3	44.5	20.4	11.7
		운수업	26.0	27.1	7.2	43.5	24.3	6.3
		숙박 및 음식점업	33.5	16.8	15.0	31.0	35.9	8.7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25.2	23.4	22.4	26.2	21.3	31.0
		금융 및 보험업	42.8	13.3	8.0	35.4	28.7	7.5
		부동산업 및 임대업	46.7	15.4	10.7	38.2	16.0	18.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5.2	17.5	13.7	36.1	19.5	26.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43.1	14.0	5.8	47.6	25.7	9.4
		교육 서비스업	41.5	15.8	0.0	24.5	33.6	6.8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37.5	22.1	8.0	22.8	45.7	8.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1	18.7	8.8	25.4	34.3	15.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1.3	11.4	8.2	38.4	30.9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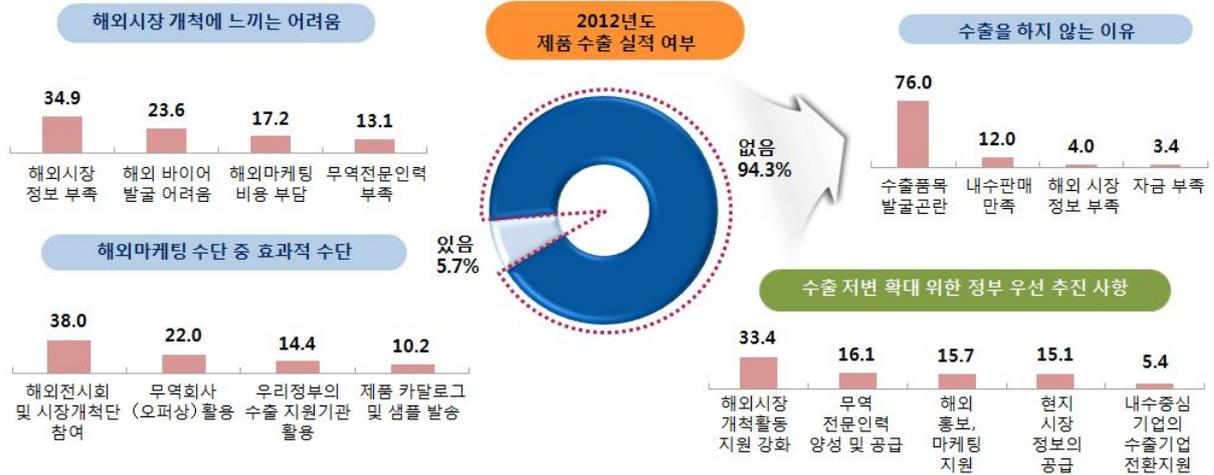
바. 해외 기업 활동(수출) 관련

- '12년도에 수출한 실적이 있는 여성기업은 5.7%임
 - 수출경험이 없는 여성기업은 94.3%로, 주요 원인은 수출품목 발굴이 곤란(76.0%)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여성기업의 현 주요 수출국은 중국(39.5%)과 일본(31.3%)이며, 향후 관심 수출국으로는 아시아(중국과 일본 제외)(24.6%), 중국(21.6%), 유럽(12.4%) 등의 순임

(단위 : %)



- 수출경험이 있는 여성기업의 해외 시장개척시 주요 애로사항은 해외시장 정보 부족(34.9%)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해외 바이어 발굴 어려움(23.6%), 해외 마케팅 비용 부담(17.2%) 등의 순임
- 수출경험이 있는 여성기업은 가장 효과적인 해외 마케팅 수단으로 해외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여(38.0%)를 꼽음
- 여성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정부 추진 희망사항으로는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역인력 양성 및 공급(16.1%), 해외 홍보 마케팅 지원(1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6. 교육 및 연수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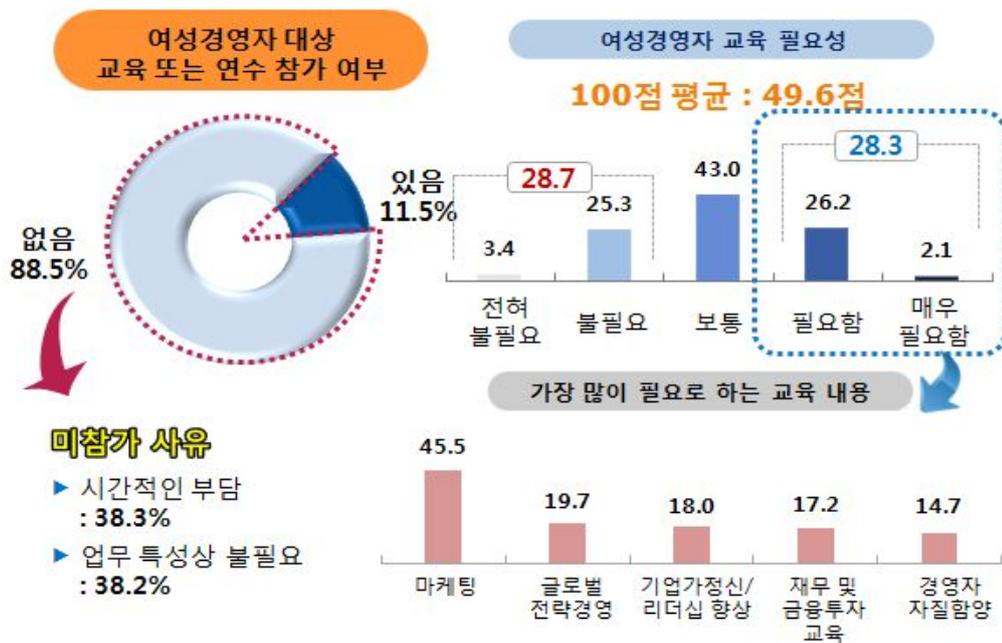
가. 종사자 대상 교육 관련

-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여성기업은 38.8%임
 - 교육 내용은 품질/생산/관리교육(23.2%), 소양교육(20.1%), 영업/마케팅 교육(1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교육 형태는 대부분 사내 자체교육(69.5%)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외부 위탁 교육은 28.9%임
- 반면, 여성기업의 61.2%는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 미실시
 -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업무특성상 훈련이 불필요 (38.0%)하거나, 근로자가 역량(29.8%)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나. 경영자 대상 교육 및 연수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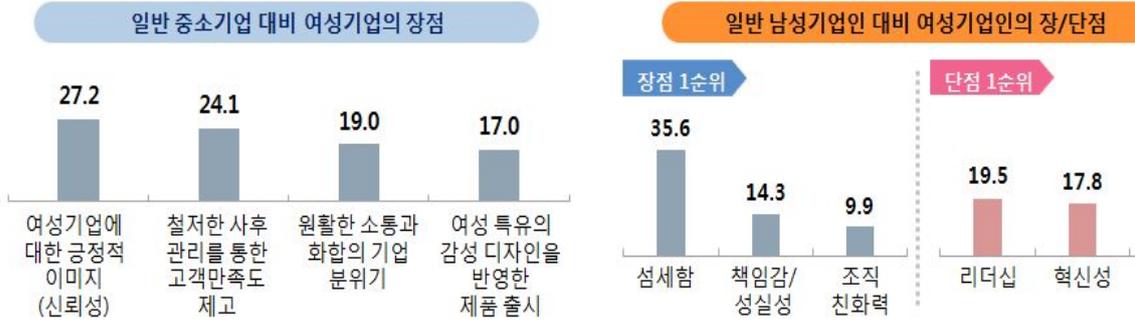
- 여성경영자를 위한 교육/연수 참가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인은 11.5%
 - 여성경영자 교육/연수 경험이 없는 비중은 88.5%로, 주로 시간적 부담(38.3%)과 교육 필요성이 없어서(38.2%) 참가하지 않음
- 여성기업 대표자의 28.3%는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
 - 여성경영자가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교육은 마케팅 분야(45.5%)임



7. 여성기업인의 특성 및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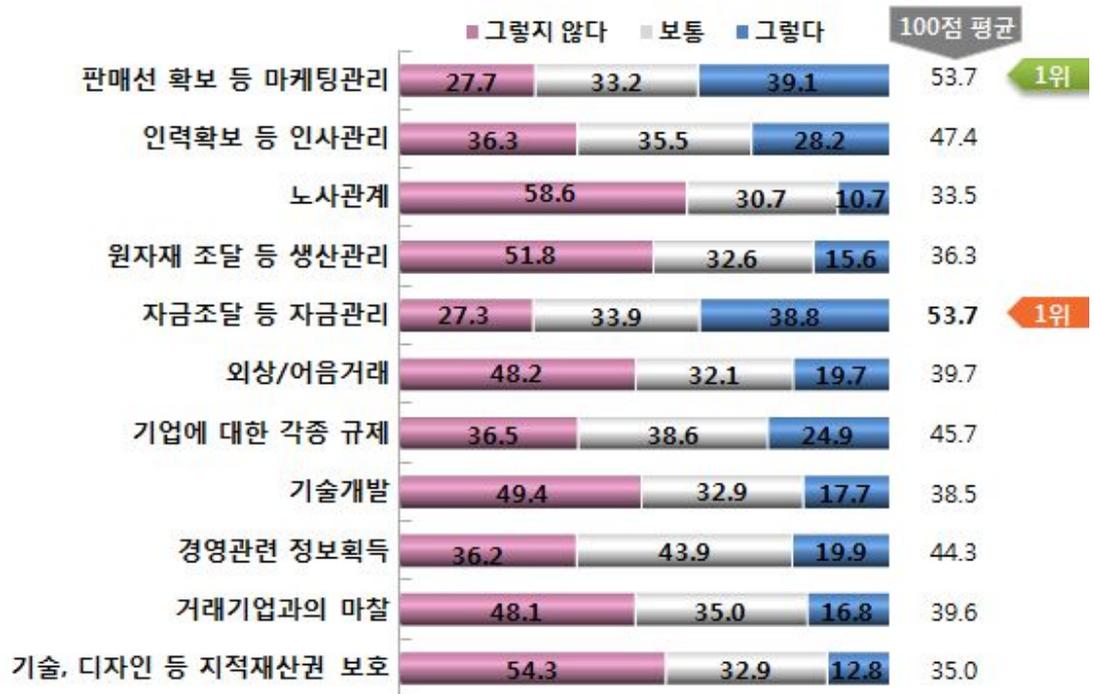
가. 여성기업인의 특성

- 여성기업이 생각하는 여성기업의 주요 장점은 긍정적 이미지(신뢰성)(27.2%), 사후관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24.1%)로 나타남
- 여성기업인은 남성기업인 대비 섬세함(35.6%)과 책임감/성실성(14.3%)이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리더십(19.5%)과 혁신성(17.8%) 등은 남성기업인에 비해 부족한 점으로 평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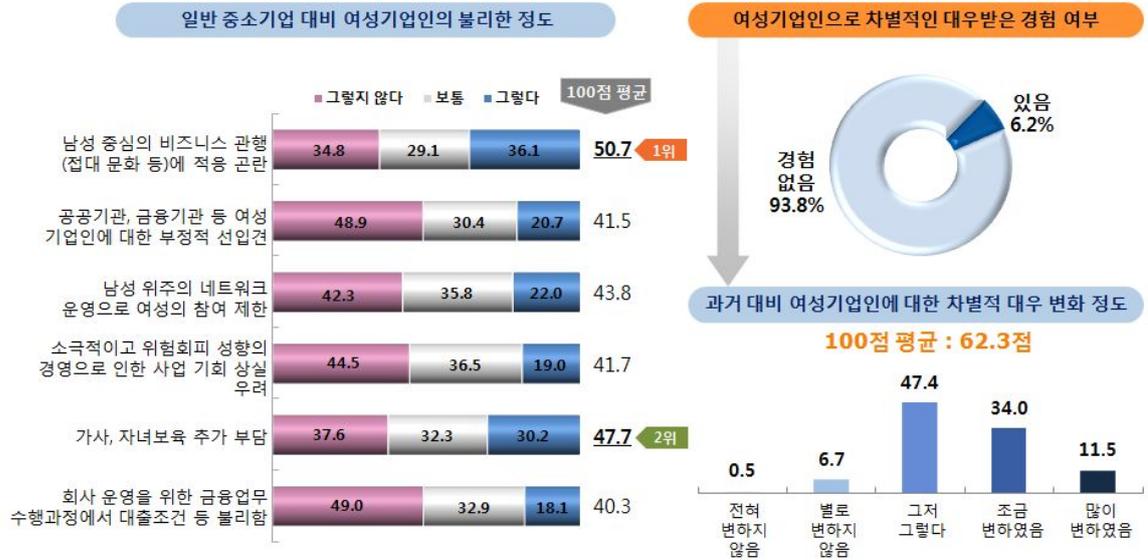


나. 여성기업인 애로사항

- 여성기업의 경영상 가장 큰 애로는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 관리(53.7점)와 자금조달 등의 자금관리(53.7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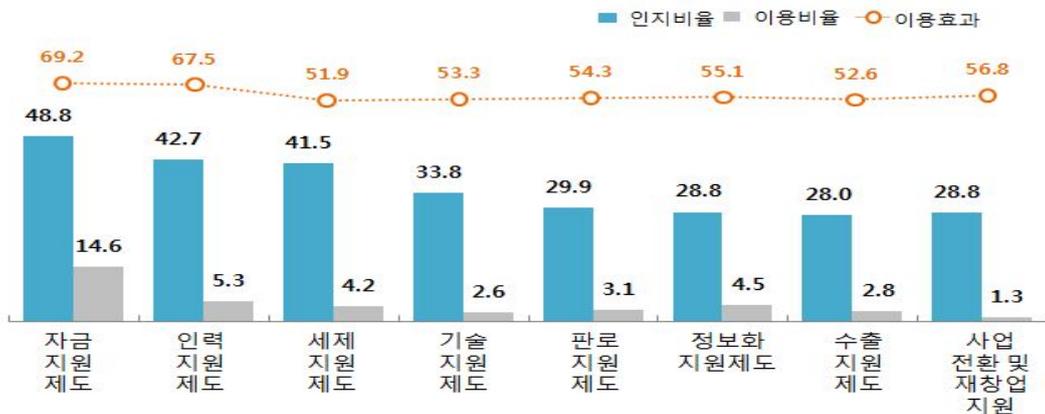
-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이 가장 불리한 부분은 남성중심의 비즈니스 관행(접대문화 등)에 대한 적응 곤란(50.7점)임
 - 그러나 93.8%의 여성기업인은 여성으로서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은 없으며, 차별적인 대우가 그동안 변화되었다(45.5%)고 느끼고 있음



8. 여성기업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가. 정부지원정책 활용에 대한 현황

- **(제도 인지율)** 여성기업은 정부지원정책 중, 자금지원제도(48.8%)에 대한 인지율이 가장 높고, 인력지원(42.7%), 세제지원(41.5%) 등의 순임
- **(제도 이용율)** 지원제도 이용률에서도 자금지원제도 이용(14.6%)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력지원(5.3%), 정보화 지원(4.5%) 순으로 나타남 - 8개 지원 제도 중, 자금과 인력지원을 제외하고는 이용률이 약 5%미만
- **(제도 이용효과)** 자금지원(69.2점)과 인력지원(67.5점) 제도의 이용 효과가 높은 편으로, 그 외 정책 이용효과는 대략 50점 정도로 보통 수준



나. 정부지원정책 활용에 대한 애로 및 지원필요사항

- 정부지원 정책 활용 시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37.7%)과 신청자격 조건의 까다로움(30.9%)을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음
- 여성기업이 생각하는 확충이 가장 필요한 제도는 자금지원제도(45.1%)이며, 그 다음으로는 세제지원(22.8%), 판로지원(14.0%) 등의 순임
 - 참고로, 여성기업들은 정부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정보 부족(19.8%), 까다로운 지원요건(14.5%) 등이 애로사항이라고 응답
- 여성기업 생각하는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 중점 추진 필요 사항은 여성기업 지원정책 개발(37.7%)과 국내외 판로지원 확대(23.9%)로 나타남

가장 확충이 필요한 정부 정책



정부지원 정책 활용 시 어려운 점



정부자금 지원 관련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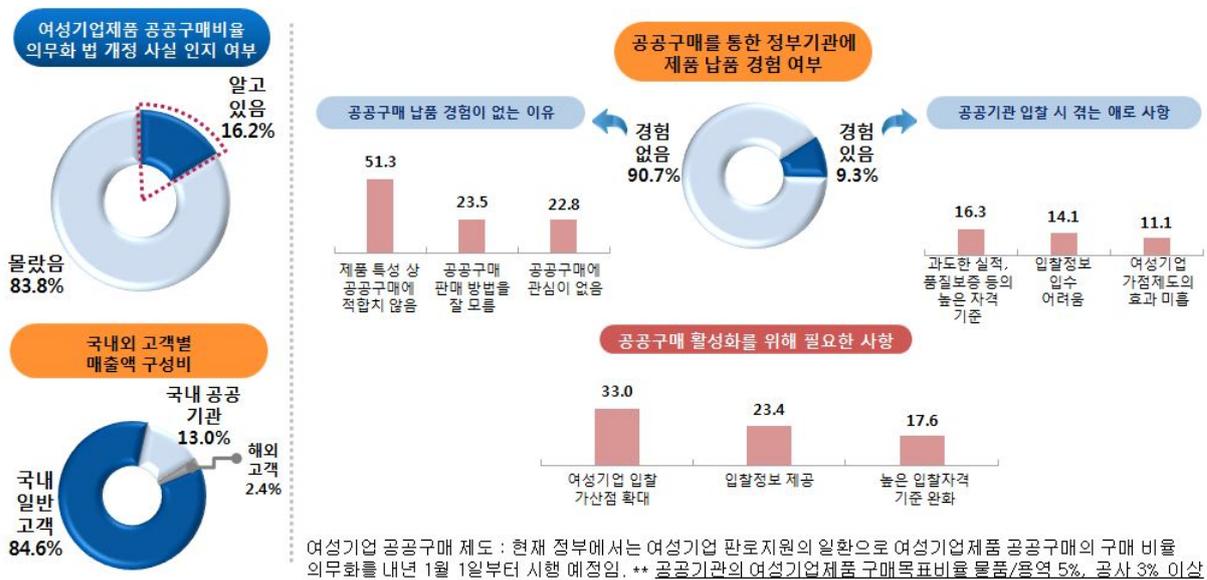


여성기업 육성 관련 중점 추진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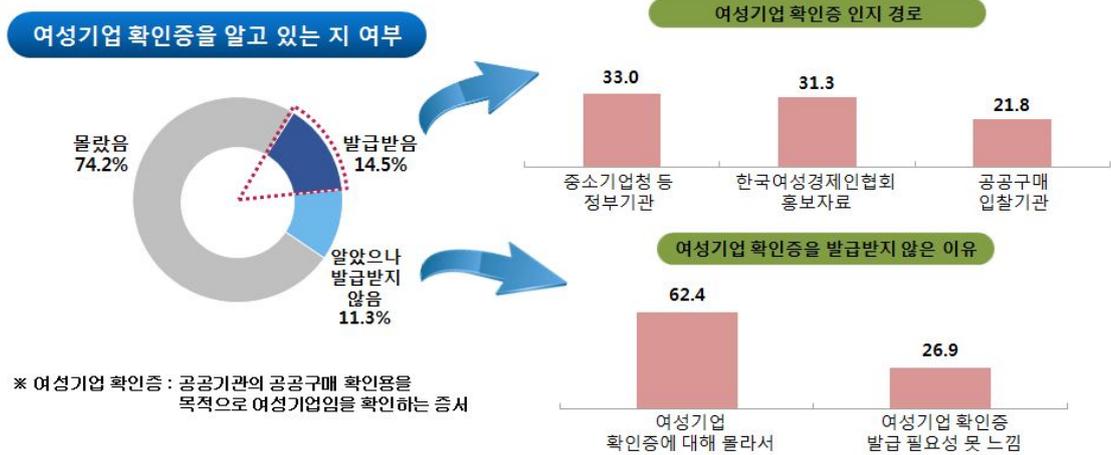


9. 공공구매 관련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의무화 제도(14.1.1 시행)에 대해 여성기업의 16.2%가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
- 공공구매를 통해 정부기관에 납품한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은 9.3%임
 - 공공기관 납품 경험이 없는 여성기업은 제품 특성상 공공구매에 적합하지 않아서(51.3%) 또는 공공구매를 통한 판매방법을 모르기 때문에(23.5%) 납품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시 겪는 주요 애로사항은 과도한 실적, 품질보증 등의 높은 자격기준(16.3%), 입찰정보 자체의 입수 어려움(1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기업이 생각하는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여성기업 입찰 가산점 확대가 33.0%로 가장 높고, 입찰 정보 제공(23.4%), 높은 입찰자격 기준 완화(1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기업 중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은 14.5%로, 그 외 74.2%의 여성기업은 확인증을 모르고 있고, 11.3%는 알고 있으나 발급받지 않았다고 함
 - 여성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지 않은 주요 이유는 확인증에 대해 몰라서(62.4%)가 주요 원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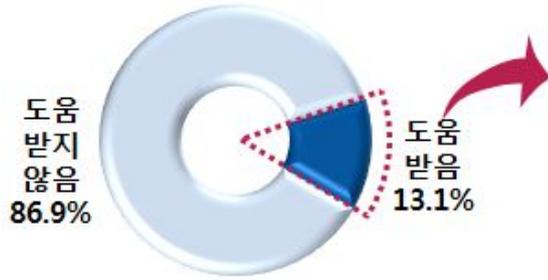
10. 여성기업 창업 관련

- 현 사업 창업 전에는 주로 일반기업에 재직(35.7%)하거나 개인사업(32.4%)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주부였다가 창업한 여성기업인은 19.6%임
- 창업 후 여성기업이 손익분기점 도달까지 걸린 기간은 2-3년이 23.4%로 가장 많으며, 3년 이상이 21.4%, 1-2년이 17.8%임
- 여성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은 자금 조달(42.5%)과 판로 확보(26.5%)이며, 창업 이후에는 판매/마케팅 관리(38.5%)와 재무/자금관리(30.6%)가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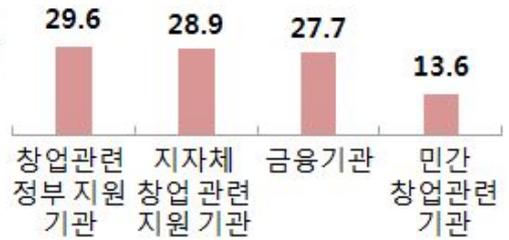
애로사항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창업 준비 시	자금 조달(42.5%)	판로 확보(26.5%)	아이템 발굴 및 사업타당성 분석(10.6%)
초기 사업 운영 시	판매/마케팅관리(38.5%)	재무/자금관리(30.6%)	인력관리(12.1%)

- 여성창업자 중, 13.1%는 외부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도움 받은 기관은 정부지원기관(29.6%), 지자체 지원기관(28.9%), 금융기관(27.7%) 등의 순임

창업관련 도움 받았는지 여부



창업 준비 시 도움 받은 기관



- 창업 자금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여성창업자는 주로 본인/공동경영인 출자(77.4%)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창업 자금을 조달한 여성기업인은 19.8%이며, 정부정책 자금을 이용한 경우는 1.6%에 불과함
- 여성기업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창업의 중요요인은 자금조달 능력(33.0%)이고, 정부로부터 가장 필요한 지원도 창업자금 지원(51.4%)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기업은 창업 시 자금 부분에 대한 니즈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임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성공 창업 중요 요인	자금조달 능력(33.0%)	경영/마케팅능력(30.3%)	판로확보(14.4%)
정부 지원 필요 분야	창업자금 지원(또는 보증) (51.4%)	세금지원 확대(16.1%)	컨설팅 지원(11.9%)

제2장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2013년도 실태조사'주요 추진 방향
3. 표본 설계
4. 조사 내용
5. 실사 진행
6. 최종 유효 표본 수 및 모집단 확정
7. 모수추정
8. 조사 용어 정의

1 조사 배경 및 목적

가. 조사 목적

- 국내 여성기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기업 지원 정책 발굴 및 향후 육성 과제 도출 등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나. 조사의 법적 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국내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매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함

* 근거조항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2항에 의하여 한국여성경제인 협회가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통계법 제 15조 및 제 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 제 39301호)

다. 조사의 연혁

- 1999년. 여성기업 실태 및 차별적 관행조사에 대해 실태조사 최초 실시
- 2001년. 각종 정책개발 및 관련 기관 연구자료 등으로 여성기업 실태조사 활용되기 시작
- 2003년. 통계법 제15조 및 제 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승인 (정부승인 제39301호 : 2003.5.13.)
- 2005~2011년. 매 2년 주기로 여성기업 실태조사 실시(99년 이후 총 7회 실시)
- 2013년. 제 8회 조사 실시
 - * 통계 작성 변경 승인(통계청 고시 제2013-261호: 2013.9.24)

2 '2013년도 실태조사' 주요 추진 방향

가. 조사 단위 변경(사업체에서 기업체로 변경)

- 2013 여성기업 실태조사에서는 통계청 권고(통계협력과-2857, 2011.09.23)에 따라, 조사 대상의 단위를 사업체 대신 기업체 표본으로 변경하여 실시함
- 여성기업 기업체 표본은 개인 사업체를 제외한 회사법인 및 회사이외 법인으로, 상대적으로 규모 있는 주요 업종 기업의 비중이 높음
 - 기업체로 표본을 변경할 경우, 모집단 수가 42,118개로 축소되며, 5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전체 표본의 52.7%로 기존 5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전체 표본의 95.4%를 차지하던 문제점 개선
 - 사업체 표본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이 전체 표본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기업체 표본으로 변경되면서 건설업(19.5%), 제조업(17.7%) 등의 주요 업종 표본 비중이 높아짐

【참고】 여성기업 사업체 표본 및 기업체 표본의 차이

- 여성기업 사업체 수(1,189,900개) vs. 여성기업 기업체 수(42,118개)
- 5인 미만 사업체(1,165,219개 95.4%) vs. 5인 미만 기업체(22,217개, 52.7%)
- 기업체의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업(26%) 건설업(19.5%), 제조업(17.7%) 순으로 많음. 반면, 사업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숙박·음식점업은 기업체의 경우 2.4% 차지

나. 여성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 실시

- 여성기업 관련 주요 이슈를 조사 문항에 반영하여 실시
 - 일가정양립, 여성기업지원정책(공공구매, 여성기업확인증) 등 여성기업의 이슈와 관련된 문항을 포함하여 조사

다.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표본 개선

- 5인 이상, 제조업 표본비중 확대(1,000표본) 등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표본 설계방식으로 개선함. 비례 할당 시, 특정 업종의 비중이 매우 작아질 수 있으므로 덕배분 표본할당 기법 적용

3 표본 설계

가. 모집단 정의(조사 대상 및 모집단 범위)

- 목표 모집단 :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및 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기업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의 기업체를 영위하는 여성기업인
- 조사 모집단 : 『전국사업체조사(2011년 12월 말 기준)』의 결과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의 여성이 대표자인 42,118개 기업체
- 조사대상 업종은 15개로, '농림,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은 조사대상 업종에서 제외함
 - 조사업종 : '제조업'(C),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건설업'(F), '도매 및 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교육 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산업대분류 및 기업체 규모별 여성사업체 현황: 모집단 현황]

업종별	5인 미만	5~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계
제조업	2,629	3,548	955	228	88	6	5	7,459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87	220	44	9	1	0	0	461
건설업	3,533	4,383	244	33	16	1	1	8,211
도매 및 소매업	7,255	3,277	356	57	14	3	1	10,963
운수업	1,187	505	144	64	50	4	0	1,954
숙박 및 음식점업	500	395	96	19	16	1	1	1,02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913	615	117	23	12	1	2	1,683
금융 및 보험업	554	167	33	7	7	0	1	76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98	442	70	12	8	1	0	1,73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19	992	150	30	11	2	2	2,40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109	841	227	115	115	23	22	3,452
교육 서비스업	427	374	77	10	3	0	0	89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48	22	5	0	0	0	11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78	102	33	7	2	0	0	32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88	304	66	9	5	1	0	673
계	22,217	16,213	2,634	628	348	43	35	42,118

나. 모집단 층화 변수 설정

- 업종, 종사자 규모, 지역을 기준으로 층화
 - 업종 구분은 15개 산업대분류로 구분. 단, 제조업은 세부 층화 단계에서 '식품/음료제조업', '섬유/의복/가방/신발 제조업', '기타 제조업' 등 3개 층으로 세분함
 - 기업체 규모는 종사자 수 기준으로 5인 미만, 5-19인, 20-49인, 50~99인, 100인 이상 등으로 5개 층으로 구분
 - 지역 구분은 지역별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경북권(대구, 경북)',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의 5개 권역으로 구분
- 규모 있는 여성기업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00인 이상 기업체를 전수층으로 구성

[산업대분류 및 기업체 규모별 전수층 현황]

업종별	5인 미만	5~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계
제조업	2,629	3,548	955	228	88	6	5	7,459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187	220	44	9	1	0	0	461
건설업	3,533	4,383	244	33	16	1	1	8,211
도매 및 소매업	7,255	3,277	356	57	14	3	1	10,963
운수업	1,187	505	144	64	50	4	0	1,954
숙박 및 음식점업	500	395	96	19	16	1	1	1,02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913	615	117	23	12	1	2	1,683
금융 및 보험업	554	167	33	7	7	0	1	76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98	442	70	12	8	1	0	1,73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19	992	150	30	11	2	2	2,40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2,109	841	227	115	115	23	22	3,452
교육 서비스업	427	374	77	10	3	0	0	89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48	22	5	0	0	0	11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78	102	33	7	2	0	0	32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88	304	66	9	5	1	0	673
계	22,217	16,213	2,634	628	348	43	35	42,118

- 업종 특성상 100인 이상의 기업체 비중이 낮은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대해서는 50인 이상의 기업체를 전수층으로 구성하여, 업종별 추정의 정확도를 높였음

다. 표본크기 및 배분

- 전체 표본 크기는 조사예산과 인력 등을 고려하여 4,000개로 결정함
- 여성기업 실태조사에서 제조업의 표본크기는 산업대분류 내 산업중분류의 다양성(제조업 내 산업중분류는 24개)과 정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총수 추정의 목표 상대표준오차가 2.5%를 만족하도록 1,000개 기업체로 결정함
- 비제조업의 각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총수 추정의 목표 상대표준오차는 전체적으로 3.5%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업종별 표본크기 및 상대표준오차 현황]

업종별	모집단 기업체 수	표본크기			상대표준오차 (상시근로자 총수 추정)	
		표본총	전수총	전체		
제조업	7,459	901	99	1,000	2.5%	
비제조업(소계)	34,659	2,595	405	3,000	1.1%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61	122	10	132	2.6%
	건설업	8,211	320	18	338	3.4%
	도매 및 소매업	10,963	353	18	371	2.1%
	운수업	1,954	197	54	251	1.7%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158	37	195	2.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683	188	15	203	3.3%
	금융 및 보험업	769	145	15	160	3.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190	21	211	2.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212	15	227	2.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236	160	396	2.2%
	교육 서비스업	891	152	13	165	2.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76	5	81	1.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08	9	117	2.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38	15	153	2.4%
계	42,118	3,496	504	4,000	1.0%	

- 전체 비제조업의 표본크기는 3,000개 기업체로, 비제조업에 대한 상시근로자 총수 추정의 목표 상대표준오차는 약 1.1%이고, 전체 업종에 대한 상대표준 오차는 1.0%임
- 비제조업 내에서는 업종별, 종업원 규모별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해서 업종별 통계생산에 유리한 멱배분법(power allocation) 중 1/3제공근비례배분을 표본배분 방안으로 결정하였음
- 기업체 규모별 상시근로자 총수 추정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전체적으로 1.5% 이하임
- 각 업종 내에서 규모별 표본배분은 전수층에 대해서는 전수 추출, 표본 층은 기업체 규모에 표본배분은 제공근비례배분을 적용함. 각 기업체 규모에서 최소 표본크기를 10개사로 설정하였음

라. 표본 추출

- 각 산업별, 규모별, 지역별 층에 대해 비례 배분하여 정렬 후, 계통추출 함
- 각 층에서는 본 표본과 3배수의 예비표본 기업체를 추출함
- 표본기업체 내 조사대상자 추출 : 추출된 기업의 임원급 이상(대표자 및 관리자) 종사자 중 적격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함

【 표본 설계 내용 주요 요약 】

구 분	내 용
모집단 및 표본 추출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단 : 2011년 기준 기업체조사 모집단 - 표본 추출틀 : 여성이 대표자인 42,118개 기업체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오차 주요 관심변수 : 상시근로자 총수 - 목표오차 : 전국 1.0%, 제조업 2.5%, 나머지 산업대분류는 3.5% 이하 - 표본규모 : 4,000개 기업체
표본추출방식 (층화, 특성, 분류지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 층에서의 표본추출방법은 층화계통추출 * 층화 : 산업별 15개 업종, 종사자 규모로 5개 층, 지역별 5개 층 * 층내 표본추출방법은 각 산업별, 규모별, 지역별 층에 할당된 표본기업체는 해당 층에서 행정구역에 따라 정렬 후 계통 추출함
표본배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배분법(power allocation) 중 1/3제공근비례배분
추정식 (평균, 총합, 비율, 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별 총계 및 평균의 추정식 * $\hat{\tau}_{\text{산업}} = \sum_{h=1}^4 N_{\text{산업},h} \bar{y}_{\text{산업},h} + \tau_{\text{산업,전수층}}$

4 조사 내용

- 여성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총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 내용 구성함
 - 일반정보(9개)
 - 기업의 특성(6개)
 - 기업일반현황(2개)
 - 재무관련현황(6개)
 - 경영의 성과(11개)
 - 경영활동사항(30개)
 - 인사노무관리(8개)
 - 교육 및 연수(11개)
 - 여성기업인 특성 및 애로사항(7개)
 - 정부의 여성기업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9개)
 - 공공구매 관련 문항(9개)
 - 창업관련 문항(13개)

5 실사 진행

가. 표본 규모 및 조사 시점

- 표본 규모 : 전국의 4,000개 기업체
- 조사 주기 : 격년(홀수년도)
- 조사 기준일 : 2012년 12월 31일
- 조사 대상 기간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조사 실시 기간 : 2013. 10. 15 ~ 2013. 11. 20

나. 조사 수행 주체

- 조사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조사 전담기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조사 실시기관 : (주)포커스컴퍼니

다. 조사 방법

- 일대일방문면접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조사하나, 조사 응답자의 편의 고려 및 응답률 제고를 위해 팩스/이메일/우편 등을 병행하여 진행함

라. 자료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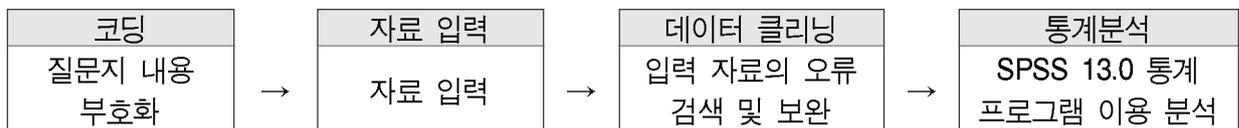
- 조사된 설문지는 설문 로직에 맞춰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은 재방문하거나 응답자에게 직접 연락을 통해 보완하여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

구분	주요 내용
검증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실사연구원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된 설문지에 대해 문항 간 논리적 오류 등을 면밀하게 점검 • 2단계 <전화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에게 전화를 하여, 주요 문항에 대해 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 3단계 <인터넷 검색 및 기존 자료 비교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업 홈페이지 방문 및 인터넷 검색, 기존자료 비교 검증 • 4단계 <전산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 처리 과정에서 문항 간 논리적 오류, 이상치 등을 확인하고 점검

- 무응답 대체
 - 응답기업 특성(업종, 종사자 규모, 매출액)별 그룹내 평균치를 적용함. 단, 전체 항목 무응답률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 조사표는 폐기하여 재조사

마. 자료 처리 및 통계 분석

- 최종적으로 검증을 마친 설문지는 SPSS 1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시행함



- 분석 변수 설정
 - 업종 : 15개 업종(제조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운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종사자 규모 : 5개 규모(5인 미만, 5인 ~ 19인, 20인 ~ 49인, 50인 ~ 99인, 100인 이상)
 - 권역 : 5개 권역(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전라권, 충청권)

바. 최종 확정된 유효 응답 기업체 수

- 조사기간('13.10.15~'13.11.20) 동안 수집된 설문 중, 사후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유효 응답 기업체 수는 총 4,680개사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27%임

[최종 유효 응답 기업체 수 현황]

업종별	5인 미만	5-19인	20-49인	50-99인	100인 이상	계
제조업	393	519	331	104	50	1,397
식료품/음료	57	47	43	17	10	174
섬유/의복/가방/신발	50	58	36	13	8	165
기타 제조업	286	414	252	74	32	1,058
비제조업	1,404	1,244	409	114	112	3,28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7	63	26	5	1	142
건설업	129	195	62	11	3	400
도매 및 소매업	277	170	41	11	4	503
운수업	119	69	32	16	15	251
숙박 및 음식점업	77	68	37	10	3	19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4	137	38	9	2	270
금융 및 보험업	101	46	10	2	1	16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2	86	9	4	2	2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9	91	34	6	7	22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57	102	44	30	70	403
교육 서비스업	71	73	19	4	0	16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9	34	14	3	0	8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7	39	19	2	1	1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5	71	24	1	3	154
총합계	1,797	1,763	740	218	162	4,680

6 모수 추정

- 일반적인 층화추출법의 추정방법을 적용함. 총계 및 평균의 추정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산출함. 여기서 전수 층은 '50인 이상' 또는 '100인 이상' 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업종에 따라 다름.

$$\hat{\tau}_{\text{산업}} = \sum_{h=1}^4 N_{\text{산업},h} \bar{y}_{\text{산업},h} + \tau_{\text{산업,전수층}}$$

여기서,

$\hat{\tau}_{\text{산업}}$: 특정 산업의 모집단 총계 추정치

h : 종사자 규모의 층으로 전수층을 제외한 4개의 층에서 추정함

$\tau_{\text{산업,전수층}}$: 특정 산업의 종사자 규모 전수층의 총계

$\bar{y}_{\text{산업},h}$: 특정 산업의 종사자 규모 h 층의 표본평균

$N_{\text{산업},h}$: 특정 산업의 종사자 규모 h 층의 부차 모집단 크기

또한,

$$\hat{\bar{Y}}_{\text{산업}} = \frac{1}{N_{\text{산업}}} \hat{\tau}_{\text{산업}}$$

여기서, $\hat{\bar{Y}}_{\text{산업}}$: 특정 산업의 모평균 추정치

$N_{\text{산업}}$: 특정 산업의 모집단 크기

- 모집단 총계의 분산 추정은 다음과 같음

$$\hat{Var}(\hat{\tau}_{\text{산업}}) = \sum_{h=1}^4 N_{\text{산업},h}^2 \hat{Var}(\bar{y}_{\text{산업},h})$$

- 95% 신뢰수준에서 모집단 총계에 추정에 대한 오차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B = 1.96 \times \sqrt{\hat{Var}(\hat{\tau}_{\text{산업}})}$$

7 조사 용어 정의

가. 일반 대상 및 업종 관련 용어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업종 정의 구분

- 제조업 : 식품/음료 제조업, 섬유/의복/가방/신발 제조업, 기타 제조업(목재/종이 제품, 석유 정제품, 플라스틱 제품, 금속, 기계, 가구 등의 제조)
- 건설업 : 전문직별 공사업(도장, 도배, 내장목공, 창호), 종합건설업(건물, 토목)
- 도매 및 소매업 : 화장품 및 화장품비누 소매업, 섬유직물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백화점, 대형할인점, 방문판매, 계약배달판매 등 무점포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 음식점업(한식, 서양음식점), 다과점(다방, 커피숍), 주점업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 운수업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철도, 육상여객, 도로화물, 소화물(택배), 파이프라인 운송,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냉장 및 냉동, 농산물 창고업, 위험물품 보관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

방송업, 통신업(우편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생명보험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부동산업, 임대업(운송장비, 개인 및 가정용품,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무형 재산권 임대)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법률관련, 세무 및 회계 관련,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인력 공급 및 고용알선,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 경비, 경호 및 탐정업, 사무지원 서비스)
- 교육서비스업 :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일반교습학원(일반입시학원, 언어학원), 예술학원,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병원, 의원, 공중 보건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아동 및 부녀자, 노인 요양 복지시설)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노래방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도박장, 게임방)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산업 및 전문가 단체, 노동조합), 수리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미용, 육탕 및 유사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결혼 상담업)

나. 기업 성장 및 사업 전환 관련

- **기업 성장 단계** : 해당 기업이 인지하는 기업의 성장단계
 - 진입기 :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
 - 성장기 :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 성숙기 :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이 정체되어 있으나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는 경우
 - 쇠퇴기 : 매출액, 시장점유율, 수익성 등 경영지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 : 기업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편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일로 인력 감축과 사업 축소 등이 대표적임
- **사업전환** : 시장 환경 변화로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한 뒤 새로운 업종·품목 사업으로 진출하는 것

다. 인력, 정책 및 기타

○ 인사 노무 관리 관련

- 사무/관리직 : 인사, 기획, 경리 등 직접적으로 생산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자(대표, 임원 포함)
- 연구/개발직 :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연구/개발 및 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생산/기술직 :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 생산과정에 종사하는 자로 기술직이나 단순 생산직 모두 포함
- 영업/판매직/서비스직 :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상품 판매, 마케팅, 비서, 경비, 운전업무 등 생산 외 활동에 종사하는 자
- 비정규직 : 비정규직은 산업기능요원, 용역 근로자, 시간제 파트타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대체근로자, 자택/가내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

○ 인력 정책 관련

- 산업기능요원제도 : 군복무를 대신하여 일정기간 동안 지정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함
* 관련법령 : 병역법 제36조
- 외국인력제도 :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유희인력을 중소기업현장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기술을 연수시키는 한편 국내인력으로 대체가 곤란한 분야에 중소기업 인력을 지원해 주는 제도
- 신규채용 인건비 보조제도 : 신규채용 시 인건비를 보조하는 제도 (EX: 청년인턴제,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보조 등)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 탄력적근로시간제 : 주 40시간 근로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 출산전·후 휴가제도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90일의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산후 45일 이상 확보)
- 육아휴직제도 : 만 6세(2008.1.1.이후 출생자녀에 한함) 이하의 자녀가 있고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남녀 근로자가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하는 제도
-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

- 선택적근로시간제 : 업무시작과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제도로 회사의 규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대를 사전에 정하고, 상사의 승인을 받아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자유출퇴근제'도 포함
- 직무대체제 : 특정인의 부재 시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그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

○ 교육 훈련 제공 형태

- 외부위탁훈련 : 기업이 훈련비용을 부담하되 훈련실시, 훈련생 관리 등을 외부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 인터넷 원격훈련 : 인터넷이나 인트라넷 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훈련을 말함.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고 컴퓨터에서의 CD 또는 우편으로 배송된 책자 등을 실행하여 학습하는 것은 제외됨
- 우편 원격훈련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통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네트워크(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으로서 집체훈련과 병행하여 실시된 경우도 포함

○ 여성기업 공공구매제도

- 정부에서는 여성기업 판로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에 대해 물품·용역 5%, 공사 3% 이상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함('14년 1월 1일 시행)

제3장

조사 결과

제1절 여성기업의 일반현황 및 특성

제2절 여성기업의 재무 관련 현황

제3절 경영의 성과

제4절 경영 활동 현황

제5절 인사 노무 관리

제6절 교육 및 연수

제7절 여성기업인의 특성 및 애로 사항

제8절 여성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정책 인식

제9절 공공구매제도 관련

제10절 여성기업의 창업 관련

제1절

여성기업의 일반현황 및 특성

1 여성기업 일반 현황

가. 기업체 등록형태

- 여성기업 등록형태는 '일반법인'이 99.0%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1.0%)로 '합명회사', '조합법인'이라는 응답 있었음
- '100인 이상' 여성기업에서는 코스닥등록법인(1.1%)이 일부 있음

※ (참고) 2013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이전의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에서 여성기업체 대상 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개인사업체'는 표본에서 제외됨.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의 경우, '개인사업체'가 96.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그림 1) 기업체 등록형태

(단위: %)



<표 2> 기업체 등록형태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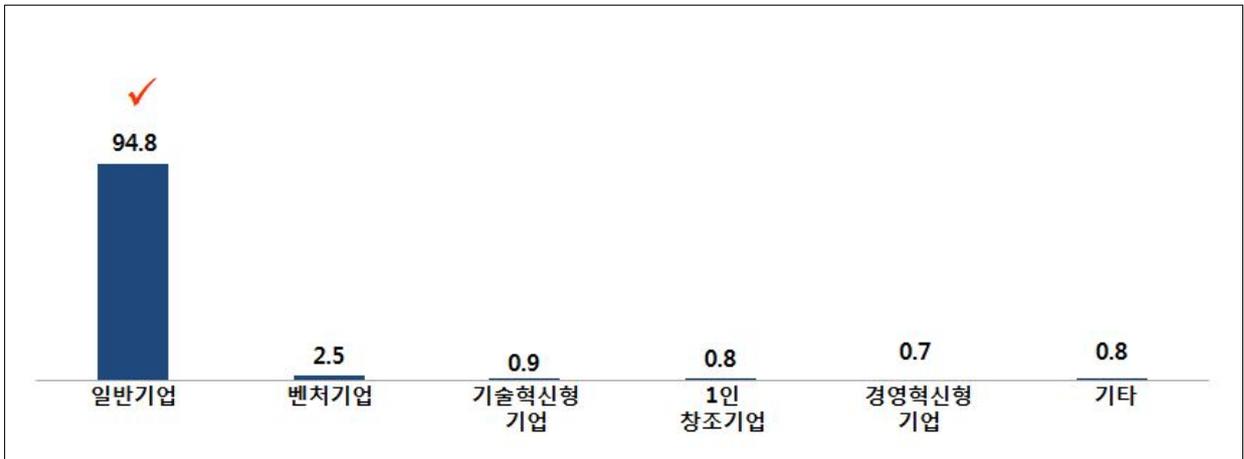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일반법인	코스닥등록법인	기타	
전 체		42,118	99.0	0.0	1.0	
부	제조업	7,459	99.4	0.0	0.6	
	비제조업	34,659	98.9	0.0	1.1	
세 구 업 종 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96.0	0.0	4.0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100.0	0.0	0.0
		기타 제조	5,822	99.8	0.0	0.2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99.3	0.0	0.7
		건설업	8,211	98.7	0.0	1.3
		도매 및 소매업	10,963	99.5	0.0	0.5
		운수업	1,954	96.0	0.0	4.0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98.8	0.0	1.2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99.4	0.0	0.6
		금융 및 보험업	769	99.5	0.0	0.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99.7	0.0	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100.0	0.0	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98.4	0.1	1.5
		교육 서비스업	891	98.7	0.0	1.3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98.6	0.0	1.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98.2	0.0	1.8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97.7	0.0	2.3
		중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2,217	99.1	0.0
5 ~ 19인	16,213		99.1	0.0	0.9	
20 ~ 49인	2,634		98.4	0.0	1.6	
50 ~ 99인	628		99.4	0.0	0.6	
100인 이상	426		95.6	1.1	3.3	
권 역 별	수도권	26,182	99.9	0.0	0.1	
	경남권	6,429	99.4	0.0	0.6	
	경북권	3,348	99.8	0.0	0.2	
	전라권	3,236	89.6	0.0	10.4	
	충청권	2,923	100.0	0.0	0.0	

나. 기업 인증 유형

- 여성기업의 94.8%는 특별한 기업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일반기업’으로 나타났으며, 벤처기업은 2.5%, 기술혁신형 기업은 0.9%로 나타남

(그림 2) 기업 인증 유형(복수 응답)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기업 인증 유형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에 상관없이 대부분 ‘일반기업’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인증을 획득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한편, 비제조업 중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5.1%)에서는 벤처기업인증을 획득한 여성기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20~49인’에서 ‘벤처기업’(5.2%), ‘기술혁신형 기업’(3.3%)이 다소 높았고, ‘100인 이상’ 기업에서는 ‘경영혁신형 기업’(3.8%)이 높게 나타남

<표 3> 기업 인증 유형(복수 응답)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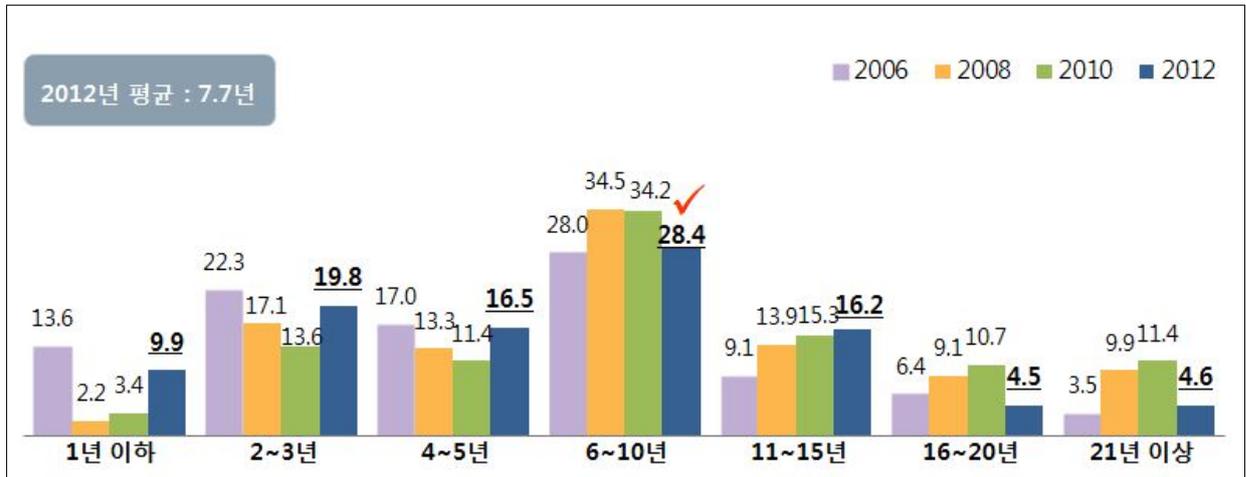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일반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이노비즈)	1인창조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메인비즈)	기타	
전 체		42,118	94.8	2.5	0.9	0.8	0.7	0.8	
부 문	제조업	7,459	89.8	5.9	2.7	1.5	1.3	0.3	
	비제조업	34,659	95.9	1.7	0.5	0.7	0.5	0.9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91.2	4.8	0.8	1.6	0.5	1.6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95.3	2.3	0.4	0.8	1.1	0.0
		기타 제조	5,822	88.8	6.6	3.3	1.6	1.5	0.2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98.5	0.0	0.0	0.0	0.8	0.7
		건설업	8,211	96.2	1.2	0.3	0.3	0.7	1.3
		도매 및 소매업	10,963	96.5	1.6	1.1	0.8	0.3	0.1
		운수업	1,954	91.7	2.1	0.5	2.1	0.0	3.5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95.7	1.0	0.0	1.8	0.3	1.2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93.7	5.1	1.0	0.6	0.3	0.0
		금융 및 보험업	769	98.1	1.4	0.0	0.5	0.0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96.9	2.2	0.3	0.0	0.0	0.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95.1	2.7	0.2	0.6	1.7	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96.7	0.3	0.0	0.4	1.2	1.7
		교육 서비스업	891	93.3	1.8	0.0	3.5	0.0	1.3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98.8	1.2	0.0	0.0	0.0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95.2	1.4	1.6	0.0	0.8	1.8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93.3	4.7	0.6	0.0	0.0	2.0		
종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2,217	96.0	1.8	0.4	1.0	0.3	0.7	
	5 ~ 19인	16,213	94.2	2.9	1.2	0.7	0.9	0.7	
	20 ~ 49인	2,634	89.0	5.2	3.3	1.1	1.7	1.7	
	50 ~ 99인	628	92.7	3.2	2.8	0.0	2.1	0.6	
	100인 이상	426	90.3	2.1	1.0	0.0	3.8	3.8	
권 역 별	수도권	26,182	95.7	2.2	1.1	0.8	0.7	0.1	
	경남권	6,429	92.9	4.0	1.1	1.0	0.4	0.7	
	경북권	3,348	96.2	1.5	0.5	0.3	1.1	0.5	
	전라권	3,236	89.0	2.2	0.5	0.8	0.2	7.5	
	충청권	2,923	95.2	2.3	0.2	1.3	1.0	0.0	

다. 기업연령

- 여성기업의 평균 기업연령은 7.7년으로 나타남. 기업연령별로는 '6~10년'(28.4%)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3년'(19.8%), '4~5년'(1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 기업 연령(업력)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평균 기업연령은 제조업(8.5년)이 비제조업(7.5년)에 비해 평균 1년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기타 제조업'(8.6년)의 기업연령이 가장 길었으며, 비제조업 중에서는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10.3년)과 '운수업'(10.6년)의 기업연령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비제조업 중에서는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평균 기업연령이 5.5년으로 가장 짧음
- 종사자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기업 연령은 비례하여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5인 미만'(6.6년) 여성기업과 '100인 이상'(16.9년) 여성기업의 평균 기업연령 차이는 약 10.3년임
- 권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경남권'의 평균 기업연령이 8.4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표 4> 기업 연령(업력)

(단위: 개사, %,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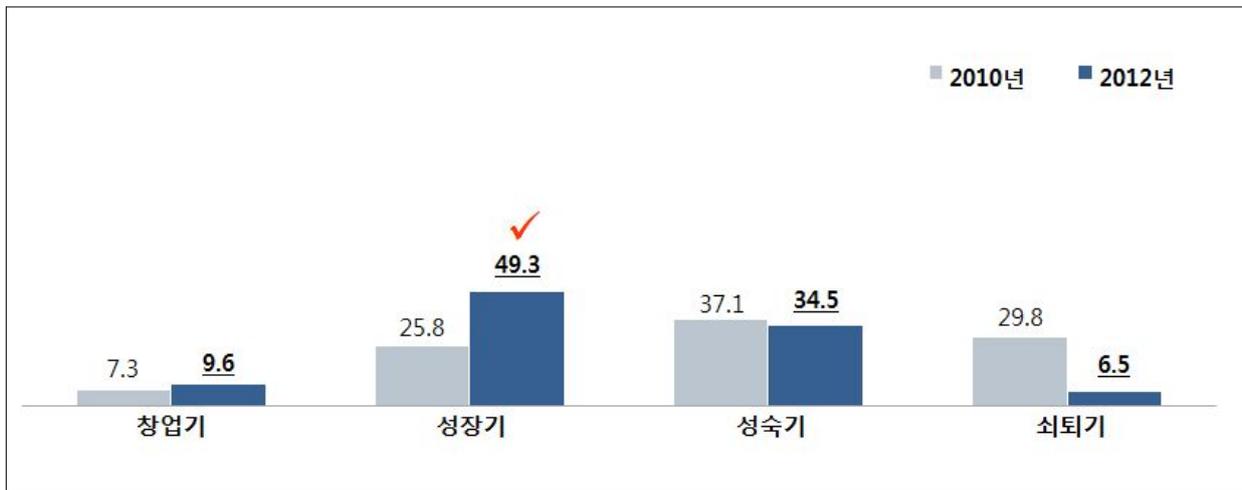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1년 이하	2~3년	4~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평균 업력(년)	
전 체		42,118	9.9	19.8	16.5	28.4	16.2	4.5	4.6	7.7	
세 계	제조업	7,459	8.5	17.0	14.6	28.1	19.8	6.2	5.8	8.5	
	비제조업	34,659	10.3	20.4	16.9	28.5	15.5	4.1	4.3	7.5	
세 계 업 종 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8.5	22.2	15.0	24.0	20.8	4.4	5.0	7.9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10.3	18.3	15.1	25.6	14.1	9.8	6.8	8.5
		기타 제조	5,822	8.2	16.0	14.5	29.0	20.4	6.0	5.8	8.6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6.8	9.4	12.2	28.0	28.3	7.4	7.8	10.3
		건설업	8,211	9.4	16.2	15.9	26.7	22.9	5.8	3.2	8.1
		도매 및 소매업	10,963	9.6	20.3	18.6	30.6	14.3	3.1	3.5	7.1
		운수업	1,954	7.9	15.6	17.2	29.8	12.1	3.5	13.9	10.6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12.3	30.0	15.5	28.5	9.2	1.6	2.8	6.1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6.1	22.5	14.2	26.5	14.9	4.0	1.8	6.5
		금융 및 보험업	769	16.0	27.2	16.3	21.1	17.7	0.9	0.7	5.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12.9	24.2	14.6	22.1	8.3	5.8	12.1	8.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7.4	24.8	21.3	27.7	12.1	3.9	2.9	6.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9.0	20.3	14.4	32.9	13.0	5.3	5.1	7.7
		교육 서비스업	891	15.2	29.8	20.1	20.8	9.5	1.6	3.0	5.8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25.7	23.9	14.1	18.7	11.1	5.2	1.2	5.7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3.7	16.2	17.0	39.2	8.0	2.9	2.9	6.7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5.3	30.0	14.1	28.7	8.6	2.9	0.4	5.5		
종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2,217	12.5	24.4	17.0	27.0	12.6	3.4	3.1	6.6	
	5 ~ 19인	16,213	7.9	15.5	17.0	30.4	20.1	4.6	4.5	8.3	
	20 ~ 49인	2,634	3.6	13.0	12.7	29.2	20.8	11.0	9.6	10.7	
	50 ~ 99인	628	3.3	8.1	9.9	26.3	20.6	10.7	21.1	13.3	
	100인 이상	426	3.5	2.6	7.3	22.2	22.5	10.2	31.7	16.9	
업 역 별	수도권	26,182	9.1	20.8	17.0	28.9	15.4	4.2	4.5	7.6	
	경남권	6,429	10.2	16.9	15.3	30.3	16.4	4.8	6.1	8.4	
	경북권	3,348	12.9	14.8	14.4	25.5	22.0	6.0	4.5	8.1	
	전라권	3,236	11.6	20.6	17.1	25.4	16.2	5.4	3.8	7.3	
	충청권	2,923	11.6	21.7	16.8	26.0	16.2	4.6	3.0	7.3	

라. 기업성장단계

- 여성기업의 기업성장단계를 살펴보면, '성장기'에 있는 기업이 49.3%로 가장 높고, '성숙기'(34.5%), '창업기'(9.6%), '쇠퇴기'(6.5%)의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2010년에는 '성숙기'(37.1%)와 '쇠퇴기'(29.8%)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2012년 여성기업체 조사에서는 기업성장 단계가 '성장기'에 있다는 응답은 23.5%p 더 높은 반면 '쇠퇴기'인 기업체는 23.3%p 낮음

(그림 4) 기업성장단계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52.7%)이 비제조업(48.6%)에 비해 기업 성장단계 중 성장기로 응답한 기업 비중 더 높음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식료품/음료 제조'(56.3%), 비제조업 중 '숙박 및 음식점업'(58.0%)에서 현재 기업이 '성장기'에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한편,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12.5%), 비제조업 중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1.8%)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쇠퇴기'라는 응답이 높은 편임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20인 미만'에서는 '성장기'에 있는 기업 비중이 높은 반면, '20인 이상'에서는 '성숙기'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5> 기업성장단계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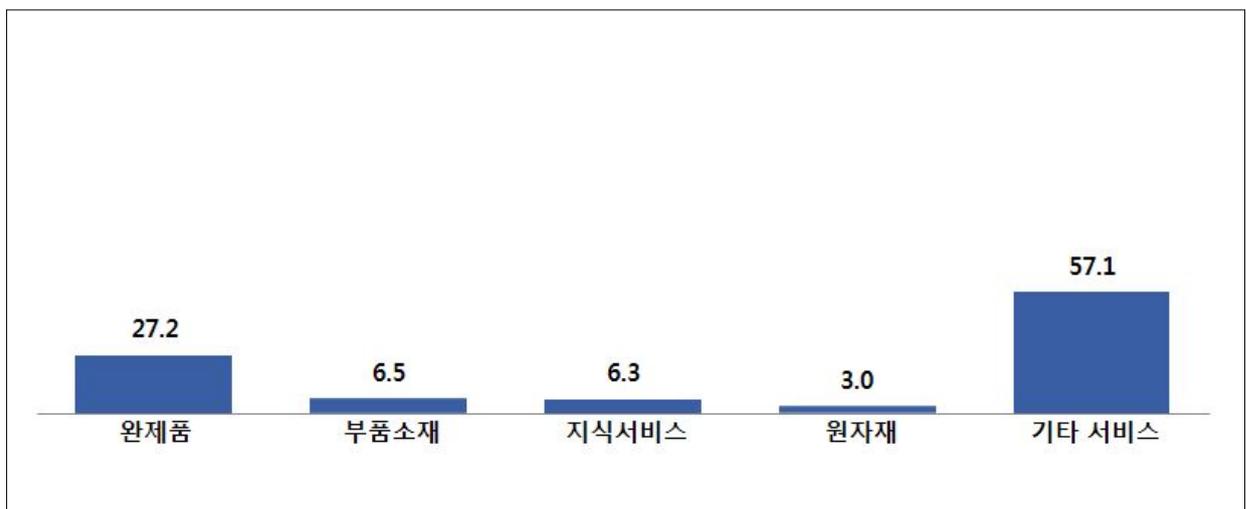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전 체		42,118	9.6	49.3	34.5	6.5		
부	제조업	7,459	10.4	52.7	31.4	5.6		
	비제조업	34,659	9.5	48.6	35.2	6.7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9.8	56.3	30.2	3.6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8.7	52.6	26.1	12.5	
		기타 제조	5,822	10.7	52.1	32.2	4.9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5.9	44.2	38.3	11.6	
		건설업	8,211	6.2	48.7	40.0	5.0	
		도매 및 소매업	10,963	9.4	45.6	36.2	8.8	
		운수업	1,954	6.6	40.1	47.4	5.9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8.5	58.0	30.0	3.6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20.1	55.6	19.9	4.3	
		금융 및 보험업	769	11.8	48.4	31.7	8.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13.8	53.2	27.5	5.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7.1	54.0	28.1	10.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11.4	48.9	36.4	3.3	
		교육 서비스업	891	12.6	54.7	26.1	6.6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14.8	52.9	23.6	8.7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5.2	45.9	37.0	11.8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8.6	52.6	25.9	2.8	
		중	5인 미만	22,217	12.4	52.1	28.5	7.1
			5 ~ 19인	16,213	7.2	48.1	38.7	5.9
20 ~ 49인	2,634		3.8	38.9	51.8	5.4		
50 ~ 99인	628		3.5	39.2	52.9	4.3		
100인 이상	426		1.1	33.2	57.6	8.1		
지역	수도권	26,182	10.0	51.7	31.4	7.0		
	경남권	6,429	6.7	43.0	46.0	4.3		
	경북권	3,348	10.9	48.7	37.4	3.1		
	전라권	3,236	10.3	47.5	35.2	6.9		
	충청권	2,923	10.9	45.2	33.7	10.2		

마. 주력생산 품목 구분

- 여성기업의 주력생산 품목을 살펴보면, '기타 서비스'가 57.1%로 가장 높음. 그러나 이는 응답 여성기업의 17.7%가 제조업이고, 그 외 82.3%가 비제조업으로 업종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제조업의 주력생산 품목구분은 '완제품'(70.7%)이 가장 많으며, 비제조업은 '기타 서비스'(68.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주력생산 품목

(단위: %)



<표 6> 주력생산 품목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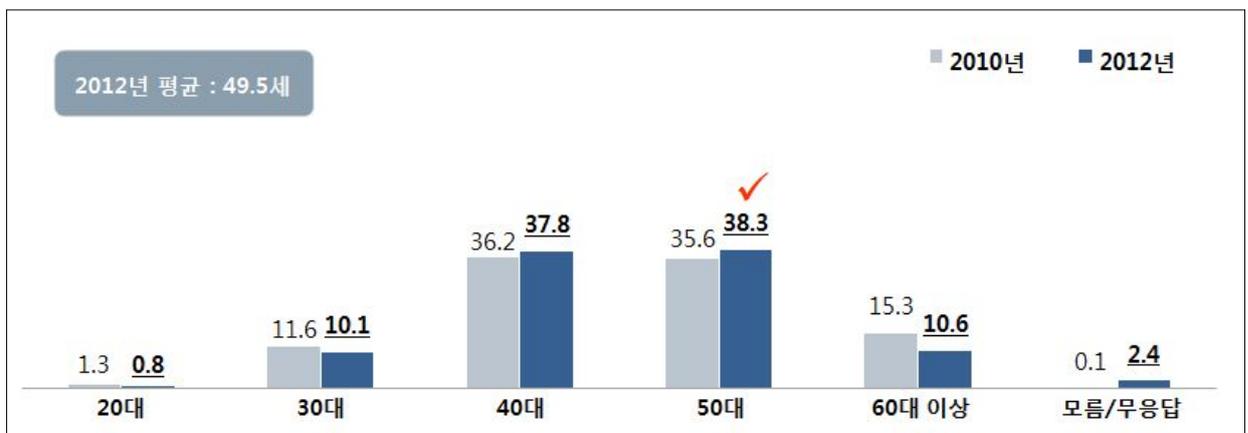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완제품	부품소재	지식서비스	원자재	기타 서비스		
전체		42,118	27.2	6.5	6.3	3.0	57.1		
부업	제조업	7,459	70.7	19.9	0.0	4.7	4.7		
	비제조업	34,659	17.8	3.6	7.6	2.6	68.4		
세부업종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91.2	3.8	0.0	5.1	0.0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83.1	9.4	0.0	7.4	0.0	
		기타 제조	5,822	66.0	23.7	0.0	4.3	6.0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4.5	6.6	0.0	4.3	84.6	
		건설업	8,211	15.4	5.1	2.0	2.8	74.8	
		도매 및 소매업	10,963	37.5	6.7	1.7	5.6	48.4	
		운수업	1,954	0.0	0.0	0.5	0.0	99.5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14.9	4.7	0.0	1.2	79.2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0.1	0.0	55.5	0.0	34.4	
		금융 및 보험업	769	0.0	0.0	15.9	0.0	84.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0.0	0.0	3.1	0.0	96.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9.6	0.0	20.1	1.6	68.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6.2	0.0	2.6	0.0	91.3	
		교육 서비스업	891	0.0	0.0	63.0	0.0	37.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0.0	0.0	8.6	0.0	91.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0.0	0.0	7.0	0.0	93.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0.0	0.0	1.6	0.0	98.4	
		중사자규모	5인 미만	22,217	23.5	5.2	6.2	3.1	62.1
			5 ~ 19인	16,213	30.9	7.5	6.7	3.1	51.8
20 ~ 49인	2,634		34.1	11.0	5.9	1.7	47.3		
50 ~ 99인	628		34.4	5.4	3.2	2.0	55.0		
100인 이상	426		23.4	7.2	4.0	1.0	64.4		
지역	수도권	26,182	29.6	5.7	7.3	3.6	53.8		
	경남권	6,429	20.8	7.0	3.1	0.3	68.8		
	경북권	3,348	19.8	8.4	3.7	2.2	65.9		
	전라권	3,236	27.9	8.2	5.8	4.5	53.6		
	충청권	2,923	26.8	7.9	7.4	3.1	54.7		

바. 대표자 연령

- 여성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49.5세로 나타났으며, 대표자의 연령대는 '50대'(38.3%)와 '40대'(37.8%)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60대 이상'(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여성 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40대'와 '50대'는 다소 높아졌고, '30대 미만'과 '60대 이상'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대표자 연령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서는 '50대'(45.3%), 비제조업에서는 '40대'(38.7%)의 연령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는 '20인 이상'에서는 '50대'의 비중이 높은 반면, '20인 미만'에서는 '40대'의 비중이 다소 높음
-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38.9%), '경북권'(40.6%)의 경우는 '40대' 대표자가 많았지만, '경남권'(43.3%), '충청권'(42.9%)은 50대 대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7> 대표자 연령

(단위: 개사, %,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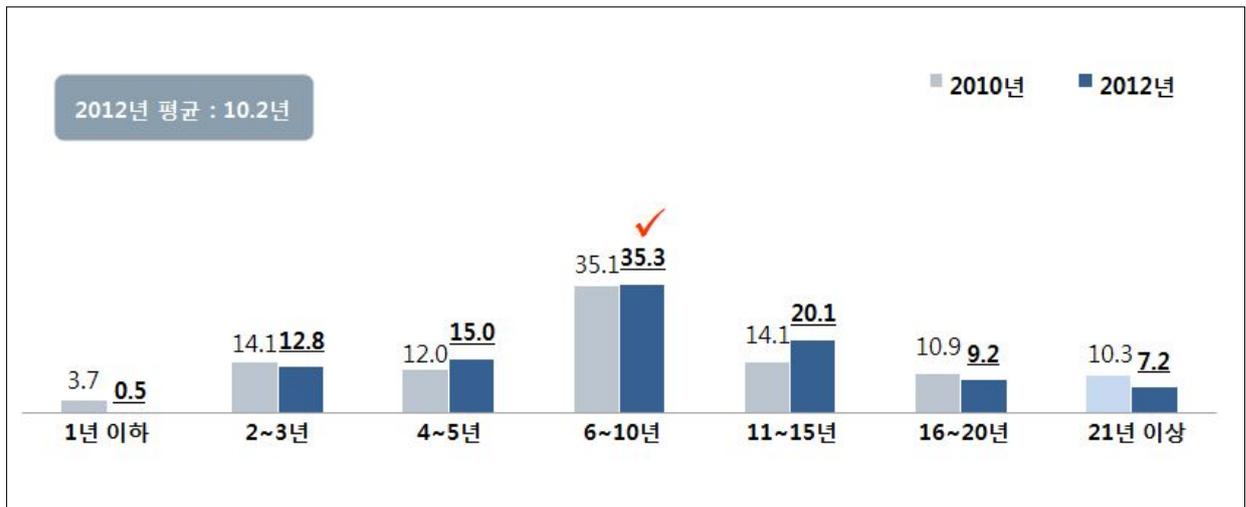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모름/ 무응답	평균 연령 (세)		
전체		42,118	0.8	10.1	37.8	38.3	10.6	2.4	49.5		
부	제조업	7,459	0.9	6.2	33.3	45.3	13.0	1.2	51.1		
	비제조업	34,659	0.8	10.9	38.7	36.8	10.1	2.6	49.1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0.0	6.7	26.9	47.7	18.8	0.0	52.9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2.9	7.8	35.4	37.6	15.5	0.7	50.0	
		기타 제조	5,822	0.8	5.9	34.0	46.0	11.9	1.5	51.0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0.0	6.5	31.7	40.3	18.3	3.2	52.0	
		건설업	8,211	1.3	12.2	39.2	35.8	8.0	3.6	48.5	
		도매 및 소매업	10,963	0.2	10.1	37.9	39.9	8.5	3.4	49.3	
		운수업	1,954	1.5	7.5	34.3	39.9	15.9	0.9	50.7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0.6	10.6	29.6	39.6	18.9	0.6	50.7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0.0	14.5	46.8	27.8	7.9	3.0	47.7	
		금융 및 보험업	769	0.5	9.3	41.5	35.7	12.3	0.7	49.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1.9	5.4	31.5	40.0	19.8	1.5	52.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2.4	14.7	39.5	34.5	6.7	2.2	47.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0.0	12.2	42.2	33.3	10.6	1.6	48.5	
		교육 서비스업	891	0.7	10.7	47.0	31.4	9.6	0.7	48.5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0.0	10.0	38.5	39.1	12.5	0.0	49.9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0.0	10.5	36.1	34.7	15.7	3.0	50.5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4	7.7	43.4	34.9	12.0	0.6	48.7	
		중	5인 미만	22,217	1.2	11.0	38.5	37.4	9.7	2.3	49.0
			5 ~ 19인	16,213	0.4	9.3	38.8	38.1	10.4	2.9	49.5
20 ~ 49인	2,634		0.1	8.6	31.3	44.3	14.6	1.2	51.4		
50 ~ 99인	628		0.8	5.1	23.6	48.2	21.8	0.6	53.6		
100인 이상	426		0.0	5.6	23.4	45.5	25.6	0.0	54.0		
대	수도권	26,182	0.7	9.3	38.9	37.5	10.6	2.9	49.6		
	경남권	6,429	0.9	11.1	33.4	43.3	10.0	1.3	49.4		
	경북권	3,348	1.1	10.7	40.6	32.8	11.5	3.3	49.1		
	전라권	3,236	1.4	13.0	36.0	36.4	12.0	1.3	49.4		
	충청권	2,923	0.2	10.5	36.5	42.9	9.5	0.4	49.6		

사. 대표자 동일 업종 경력

- 여성기업 대표자의 동일 업종 경력은 평균 10.2년이며, 평균 기간이 '6~10년'(35.3%)으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음
-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대표자 동일 업종 경력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평균 10.9년)과 비제조업(평균 10.1년) 대표자의 동일 업종에 대한 평균 종사기간은 거의 비슷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 제조'(평균 14.3년), 비제조업 중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평균 12.1년)의 대표자가 타 업종에 비해 동일한 업종에 종사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남
 - 한편, 비제조업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39.2%)',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38.5%)',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37.0%)'은 '5년 이하' 경력을 가진 대표자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음

<표 8> 대표자 동일 업종 경력

(단위: 개사, %,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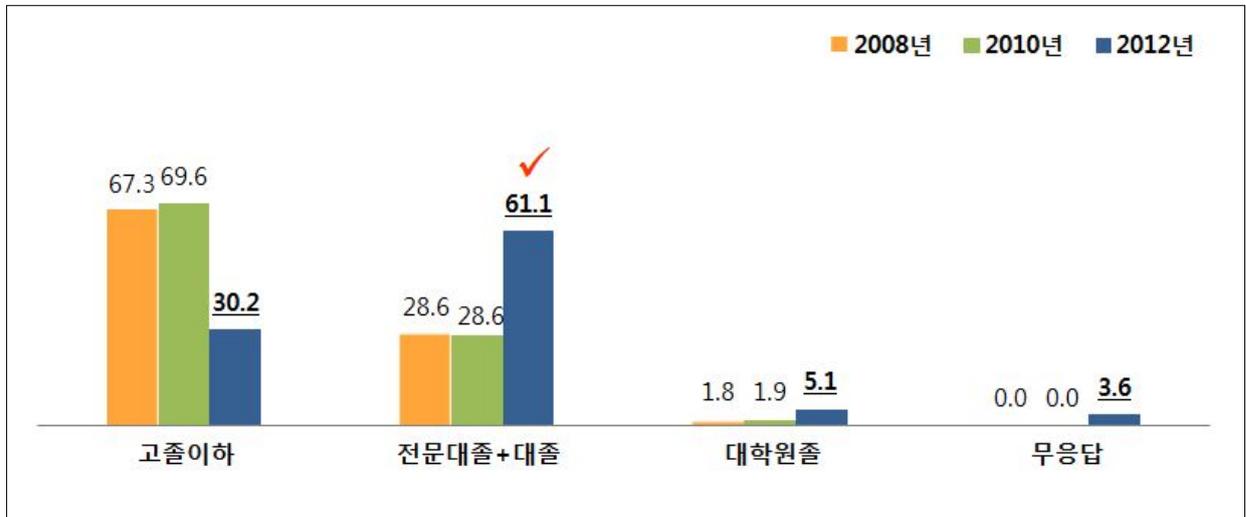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1년 이하	2-3년	4-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평균 경력 (년)	
전체		42,118	0.5	12.8	15.0	35.3	20.1	9.2	7.2	10.2	
부	제조업	7,459	0.6	12.7	12.3	33.4	22.1	9.7	9.2	10.9	
	비제조업	34,659	0.5	12.8	15.6	35.6	19.7	9.0	6.8	10.1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0.0	11.9	14.2	33.0	24.2	8.0	8.8	11.0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0.0	10.7	4.8	29.6	16.6	18.9	19.4	14.3
		기타 제조	5,822	0.8	13.0	13.1	34.0	22.6	8.6	7.8	10.5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0.0	7.9	8.7	32.1	33.1	8.3	9.9	12.1
		건설업	8,211	0.9	9.9	14.0	36.0	24.6	9.4	5.2	10.0
		도매 및 소매업	10,963	0.2	12.7	15.6	37.5	18.6	10.3	5.2	10.0
		운수업	1,954	0.5	11.9	14.2	36.0	20.9	6.0	10.5	10.8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0.6	17.0	21.6	32.3	15.7	5.0	7.8	9.1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0.6	19.2	17.2	34.7	14.3	6.6	7.3	9.2
		금융 및 보험업	769	0.0	17.8	14.6	29.3	23.7	10.2	4.5	9.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1.2	17.0	16.4	31.2	14.3	8.1	11.8	10.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0.2	12.9	21.4	33.0	18.3	6.9	7.3	9.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0.1	11.9	12.8	37.4	17.4	10.7	9.8	11.0
		교육 서비스업	891	0.0	16.3	18.3	26.6	19.9	9.9	9.0	11.1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2.4	21.6	15.1	29.9	12.4	10.0	8.5	9.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0	5.4	16.5	39.2	20.8	11.6	5.5	10.6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8	18.3	18.4	40.3	12.2	4.6	4.5	8.3
중	5인 미만	22,217	0.4	15.5	16.9	34.7	18.3	7.5	6.6	9.7	
	5 ~ 19인	16,213	0.6	10.5	14.0	36.8	21.8	10.3	6.0	10.3	
	20 ~ 49인	2,634	0.6	7.2	8.9	33.2	22.2	14.0	14.0	12.8	
	50 ~ 99인	628	0.0	4.6	8.7	26.3	25.5	13.8	21.0	14.7	
	100인 이상	426	0.0	1.8	2.6	30.9	28.7	15.6	20.4	15.3	
대	수도권	26,182	0.2	12.4	15.9	36.3	18.3	9.8	7.1	10.4	
	경남권	6,429	1.5	10.9	13.3	34.6	25.0	6.5	8.0	10.3	
	경북권	3,348	0.2	15.3	11.1	31.1	24.2	9.3	8.8	10.5	
	전라권	3,236	0.7	16.7	13.2	35.2	18.8	8.2	7.2	9.5	
	충청권	2,923	0.8	13.3	17.1	31.9	22.4	10.2	4.3	9.6	

아. 대표자 최종학력

- 여성기업 대표자의 최종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대졸(전문대 포함)'이 61.1%로 가장 높으며, '고졸이하'(30.2%), '대학원졸'(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과거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에서는 '고졸 이하'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으나, 2012년 여성 기업체 대상 조사에서는 '고졸 이하'로 응답한 비중이 30.2%로 기존보다 낮음

(그림 8) 대표자 최종학력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63.0%)과 비제조업 (60.7%) 모두 대표자 학력이 '대졸(전문대 포함)'인 응답이 가장 높음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기타 제조'(66.3%), 비제조업에서는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79.3%)에서 대표자 최종학력이 '대졸(전문대 포함)'이라는 응답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대표자의 최종학력이 '대학원졸 이상'이라는 응답은 '교육서비스'(18.4%),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14.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3.3%)에서 높은 편임
- 종사자 규모별로, '대졸(전문대 포함)' 학력을 가진 대표자 비중은 '100인 이상'(64.2%)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9> 대표자 최종학력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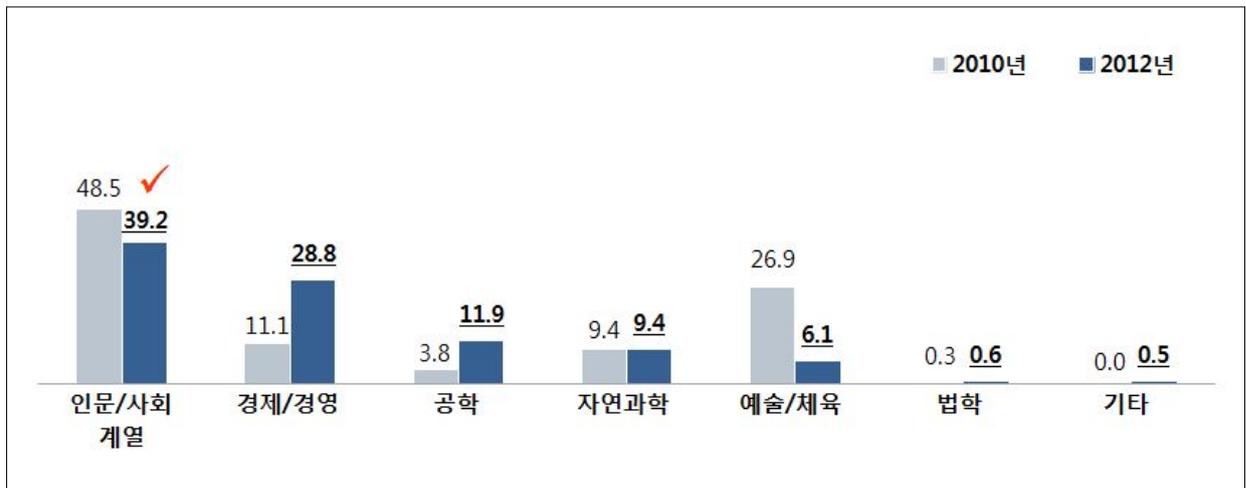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무응답		
전 체		42,118	30.2	9.2	51.9	5.1	3.5		
부	제조업	7,459	31.2	9.0	54.0	3.9	1.8		
	비제조업	34,659	30.0	9.2	51.5	5.4	3.9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43.6	13.5	36.6	4.0	2.4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38.4	6.0	47.3	6.4	1.9	
		기타 제조	5,822	28.5	8.8	57.5	3.5	1.7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48.6	6.8	37.2	2.9	4.5	
		건설업	8,211	35.7	14.7	39.9	3.8	5.9	
		도매 및 소매업	10,963	34.9	8.5	49.6	3.7	3.2	
		운수업	1,954	48.3	6.1	39.5	3.6	2.4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23.2	6.5	54.5	5.0	10.8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7.0	2.2	77.1	10.1	3.7	
		금융 및 보험업	769	19.4	13.7	62.0	2.8	2.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22.6	6.7	60.0	3.1	7.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8.3	9.3	65.8	13.3	3.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26.6	6.1	60.9	5.9	0.5	
		교육 서비스업	891	10.0	3.3	66.6	18.4	1.7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14.9	7.9	60.9	14.8	1.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24.2	12.0	51.6	9.2	2.9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38.9	9.8	44.6	5.3	1.4	
		중	5인 미만	22,217	30.5	9.2	50.9	5.4	4.0
			5 ~ 19인	16,213	29.7	10.0	52.8	4.3	3.3
20 ~ 49인	2,634		30.7	5.6	53.8	7.5	2.4		
50 ~ 99인	628		33.0	9.2	52.1	5.3	0.4		
100인 이상	426		28.1	3.2	61.0	7.2	0.5		
지	수도권	26,182	26.6	10.1	54.8	5.6	2.9		
	경남권	6,429	38.9	6.7	47.8	4.4	2.2		
	경북권	3,348	27.0	10.9	51.4	2.8	7.9		
	전라권	3,236	35.3	8.0	43.7	5.3	7.7		
	충청권	2,923	41.3	6.0	44.9	4.6	3.2		

자. 대표자 전공분야

- 전문대졸 이상 대표자의 전공을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이 39.2%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경영'(28.8%), '공학'(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2012년 조사에서는 '경제/경영', '공학' 전공자는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인문/사회 계열', '예술/체육' 전공자는 낮게 나타남

(그림 9) 대표자 전공분야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및 비제조업 모두 대표자 전공이 '인문/사회 계열'이라는 응답이 각 39.6%와 39.2%로 가장 높음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식품/음료 제조'(44.3%), 비제조업 중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72.1%)에서 대표자의 전공으로 '인문/사회계열'이라는 응답 높은 편임
 - 한편, 업종특성에 따라, '도매 및 소매업(36.8%)'은 '경제/경영'을 전공한 대표자가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26.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7.0%)은 '공학' 전공자의 비율이 높음

<표 10> 대표자 전공분야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인문/ 사회 계열	경제/ 경영	공학	자연 과학	예술/ 체육	법	기타	모름/ 무응답		
전 체		27,909	39.2	28.8	11.9	9.4	6.1	0.6	0.5	3.5		
부	제조업	4,995	39.6	29.7	11.1	10.4	4.2	0.9	0.5	3.7		
	비제조업	22,915	39.2	28.6	12.1	9.1	6.5	0.5	0.5	3.5		
세 부 구 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451	44.3	33.9	4.0	10.8	2.0	0.0	2.0	2.9	
		섬유/의복/가방/신발	479	37.1	20.3	5.1	14.8	18.6	0.0	0.0	4.2	
		기타 제조	4,065	39.4	30.4	12.5	9.8	2.8	1.1	0.3	3.7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216	31.8	34.8	12.8	13.8	6.1	0.0	0.0	0.8	
		건설업	4,795	28.7	26.1	26.0	12.8	3.9	0.5	0.0	2.0	
		도매 및 소매업	6,780	34.5	36.8	7.6	9.7	6.9	0.3	0.0	4.3	
		운수업	963	36.6	29.5	7.4	4.7	11.1	0.0	6.2	4.5	
		숙박 및 음식점업	679	46.4	23.0	9.2	7.9	4.2	0.0	0.0	9.3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503	53.1	14.0	15.9	8.9	7.3	0.7	0.0	0.2	
		금융 및 보험업	604	59.9	23.6	5.4	2.4	3.3	0.0	0.0	5.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09	41.7	27.7	3.5	9.6	4.3	0.9	1.8	10.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28	42.3	18.9	17.0	11.1	9.3	0.5	0.0	0.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2,518	47.2	34.2	4.0	4.6	4.9	1.2	1.1	2.9	
		교육 서비스업	786	60.0	16.1	1.5	5.6	12.1	0.0	0.0	4.8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96	72.1	9.1	7.2	8.7	1.4	0.0	0.0	1.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35	31.1	22.4	6.5	7.0	26.1	2.1	1.3	3.6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2	39.4	36.4	8.6	1.8	8.5	2.4	0.0	3.1	
		중 사 자 구 분	5인 미만	14,558	40.4	27.6	12.0	9.2	6.5	0.4	0.8	2.9
			5 ~ 19인	10,868	37.1	29.9	12.3	9.8	5.9	0.9	0.1	3.9
20 ~ 49인	1,761		39.2	30.0	11.0	9.0	4.4	0.3	0.1	6.1		
50 ~ 99인	418		40.1	32.1	8.1	7.7	6.6	0.0	0.0	5.5		
100인 이상	304		55.8	30.5	4.6	3.4	3.4	0.0	0.0	2.4		
지 역 구 분	수도권	18,473	41.8	27.7	11.3	8.4	7.0	0.6	0.1	3.2		
	경남권	3,787	34.0	34.5	8.9	11.8	3.2	0.7	2.5	4.4		
	경북권	2,179	33.0	29.4	16.5	13.5	5.3	0.3	0.6	1.4		
	전라권	1,846	39.0	22.2	15.1	11.8	5.3	0.1	0.0	6.5		
	충청권	1,624	31.1	34.5	16.3	6.7	5.5	1.0	0.0	4.9		

※ 대표자 최종학력을 대졸(전문대포함) 이상으로 응답한 여성경영인을 대상으로 조사

2 사업장 현황 및 입지

가. 공장 현황

○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기업의 경우, 평균 보유 공장 개수는 1개이며, 평균 규모는 2,286㎡인 것으로 나타남

- 소유 형태로는 공장 보유 여성기업의 51.7%가 자가 소유라고 응답하였으며, 48.3%는 임차라고 응답

(그림 10) 공장 수, 규모, 소유형태

(단위: 개수, ㎡)



<표 11> 공장 수, 규모, 소유형태

(단위: 개사, m², %)

구분		사례 수	공장 수(개)	공장 규모(m ²)	소유형태		
					소유	임차	
전체		6,737	1.0	2,286	51.7	48.3	
연도	제조업	4,807	1.0	2,274	54.8	45.2	
	비제조업	1,930	1.1	2,315	44.1	55.9	
세부업종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567	1.0	1,785	75.1	24.9
		섬유/의복/가방/신발	384	1.1	1,253	33.9	66.1
		기타 제조	3,857	1.0	2,442	53.8	46.2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08	1.0	5,384	66.9	33.1
		건설업	705	1.0	1,722	40.7	59.3
		도매 및 소매업	996	1.1	2,559	46.3	53.7
		운수업	-	-	-	-	-
		숙박 및 음식점업	8	1.0	151	33.3	66.7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	-	-	-	-
		금융 및 보험업	-	-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9	1.1	444	26.6	73.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	-
		교육 서비스업	-	-	-	-	-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1.0	35	0.0	10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	1.0	6,955	22.4	77.6		
종사자규모	5인 미만	2,178	1.0	1,621	49.8	50.2	
	5 ~ 19인	3,389	1.0	1,742	47.2	52.8	
	20 ~ 49인	889	1.0	4,601	66.9	33.1	
	50 ~ 99인	200	1.0	6,114	74.0	26.0	
	100인 이상	82	1.1	9,523	71.6	28.4	
권역	수도권	3,603	1.0	1,251	40.5	59.5	
	경남권	1,000	1.1	3,586	56.9	43.1	
	경북권	714	1.0	3,214	71.0	29.0	
	전라권	915	1.0	2,864	65.8	34.2	
	충청권	505	1.0	4,465	68.7	31.3	

※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나. 물류창고 현황

- 물류창고를 보유한 여성기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물류창고 갯수는 평균 1.1개 정도이며, 물류창고는 평균 507㎡ 정도의 규모임. 물류창고는 소유(29.6%) 보다는 임차(70.4%)한 경우가 대부분임

(그림 11) 물류창고 수, 규모, 소유형태

(단위: %, ㎡)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기타 제조'의 물류창고의 규모가 평균 852㎡, 비제조업에서는 '운수업'의 물류창고 규모가 평균 1,802㎡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물류창고 소유형태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소유'보다는 '임차'로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편으로 보임

<표 12> 물류창고 수, 규모, 소유형태

(단위: 개사, m², %)

구 분		사례 수	물류창고 수(개)	물류창고 규모(m ²)	소유형태		
					소유	임차	
전 체		1,461	1.1	507	29.6	70.4	
대분	제조업	223	1.1	716	49.4	50.6	
	비제조업	1,239	1.1	475	26.1	73.9	
세부업종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37	1.1	493	28.8	71.2
		섬유/의복/가방/신발	24	1.5	323	37.8	62.2
		기타 제조	161	1.1	852	55.9	44.1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	-	-	-	-
		건설업	206	1.0	168	23.7	76.3
		도매 및 소매업	802	1.1	405	28.1	71.9
		운수업	111	1.0	1,802	24.6	75.4
		숙박 및 음식점업	11	1.0	332	52.8	47.2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46	1.0	129	0.0	100.0
		금융 및 보험업	-	-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2	1.1	347	25.5	74.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	-
		교육 서비스업	-	-	-	-	-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	-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		
종사자규모	5인 미만	755	1.1	615	21.9	78.1	
	5 ~ 19인	547	1.1	224	31.9	68.1	
	20 ~ 49인	131	1.2	851	56.2	43.8	
	50 ~ 99인	29	1.0	1,071	66.8	33.2	
	100인 이상	-	-	-	-	-	
권역	수도권	1,111	1.1	515	28.2	71.8	
	경남권	175	1.3	534	39.5	60.5	
	경북권	12	1.0	966	18.5	81.5	
	전라권	74	1.1	230	32.1	67.9	
	충청권	89	1.0	544	27.3	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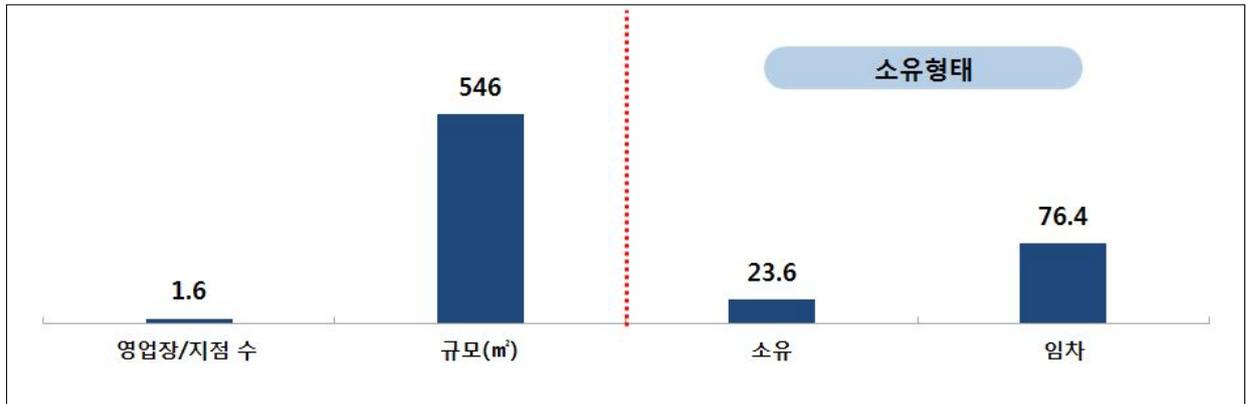
※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다. 영업장/지점 현황

- 영업장/지점을 보유한 여성기업의 영업장/지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영업장/지점 수는 평균 1.6개 정도이며, 영업장은 평균 546㎡ 정도의 규모였음. 영업장/지점은 소유(23.6%) 보다는 임차(76.4%)한 경우가 대부분임

(그림 12) 영업장/지점 수, 규모, 소유형태

(단위: 개사,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영업장/지점 사업장 수'는 제조업(1.5개)과 비제조업(1.6개)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식품/음료 제조'에서 영업장/지점 사업장 수가 평균 4.1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 중 '숙박 및 음식점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평균 2.2개로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영업장/지점 소유형태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임차'가 63.9%, 비제조업은 '임차'가 78.5%로, 임차 비중이 높음

<표 13> 영업장/지점 수, 규모, 소유형태

(단위: 개사 m² %)

구 분		사례 수	영업장/지점 사업장 수(개)	영업장/지점 규모(m ²)	소유형태		
					소유	임차	
전 체		5,977	1.6	546	23.6	76.4	
세부	제조업	844	1.5	759	36.1	63.9	
	비제조업	5,133	1.6	511	21.5	78.5	
세부 제조업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78	4.1	580	37.4	62.6
		섬유/의복/가방/신발	202	1.6	367	13.1	86.9
		기타 제조	563	1.2	917	44.2	55.8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65	1.2	886	8.0	92.0
		건설업	858	1.3	360	21.9	78.1
		도매 및 소매업	2,418	1.7	349	21.2	78.8
		운수업	277	1.5	1,012	22.4	77.6
		숙박 및 음식점업	246	2.2	836	28.8	71.2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216	1.3	135	5.5	94.5
		금융 및 보험업	106	1.5	1,023	43.7	56.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8	1.4	665	13.4	86.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3	2.2	502	14.6	85.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291	1.3	633	28.0	72.0
		교육 서비스업	134	1.8	1,315	9.9	90.1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6	2.2	1,153	17.7	82.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7	1.2	159	28.1	71.9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9	1.0	1,247	40.4	59.6		
조사 자 규모	5인 미만	3,001	1.4	305	21.5	78.5	
	5 ~ 19인	2,157	1.6	651	23.0	77.0	
	20 ~ 49인	542	2.1	1,085	29.6	70.4	
	50 ~ 99인	169	2.4	1,548	31.8	68.2	
	100인 이상	108	1.8	950	49.7	50.3	
권 역	수도권	4,169	1.6	353	21.7	78.3	
	경남권	894	1.6	945	33.1	66.9	
	경북권	285	1.2	992	27.4	72.6	
	전라권	359	1.5	980	22.7	77.3	
	충청권	272	1.4	979	17.8	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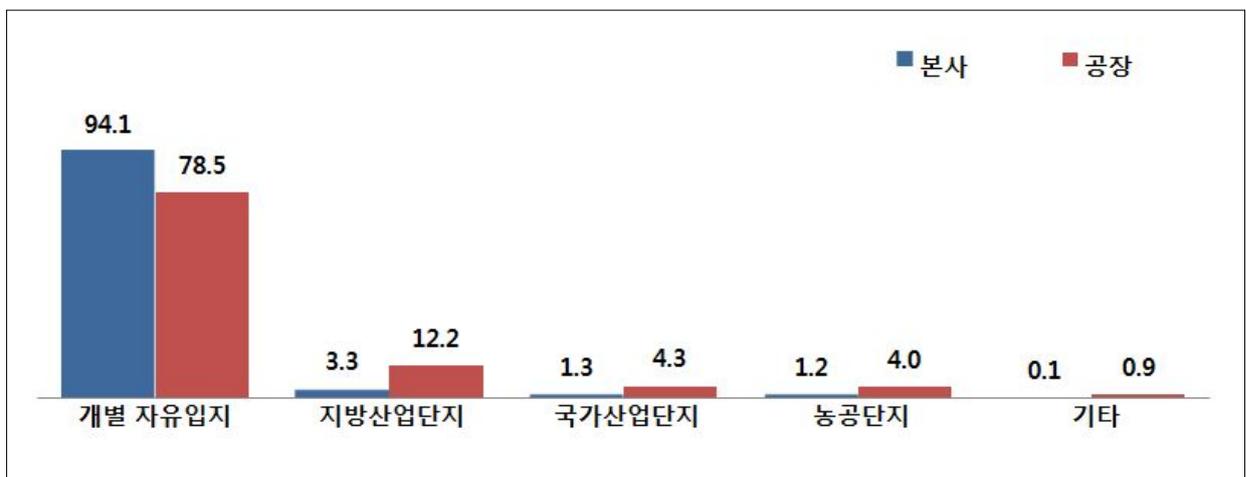
※ 영업장/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라. 본사 및 공장 입지 형태

- 여성기업의 본사 입지 형태를 살펴보면, '개별자유입지'가 94.1%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공장의 경우, '개별자유입지'가 78.5%로 높은 편이나, 본사 대비 낮은 편이며, '지방산업단지'(12.2%)나 '국가산업단지'(4.3%), '농공단지'(4.0%)에 입지한 비율이 다소 높은 편임

(그림 13) 본사 및 공장 입지 형태

(단위: %)



<표 14> 본사 입지 형태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개별 자유입지	지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기타	
전 체		42,118	94.1	3.3	1.3	1.2	0.1	
대분	제조업	7,459	83.0	9.8	3.6	3.1	0.5	
	비제조업	34,659	96.5	1.9	0.8	0.7	0.1	
세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86.1	5.9	2.6	4.6	0.8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90.8	3.7	3.2	1.5	0.7
		기타 제조	5,822	81.4	11.2	3.8	3.1	0.4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90.2	4.2	1.1	4.5	0.0
		건설업	8,211	97.5	1.1	0.4	0.9	0.0
		도매 및 소매업	10,963	96.7	1.8	1.2	0.3	0.0
		운수업	1,954	92.7	4.3	1.8	1.3	0.0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91.7	3.6	1.2	2.9	0.6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96.8	1.2	2.0	0.0	0.0
		금융 및 보험업	769	96.2	3.8	0.0	0.0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97.1	0.8	0.6	1.5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96.6	2.1	0.2	0.6	0.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98.1	1.8	0.1	0.0	0.0
		교육 서비스업	891	96.3	1.9	0.0	1.8	0.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98.8	1.2	0.0	0.0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95.9	1.5	0.0	2.6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94.3	5.3	0.0	0.4	0.0		
조사자규모별	5인 미만	22,217	96.0	2.2	1.1	0.5	0.1	
	5 ~ 19인	16,213	93.0	4.0	1.2	1.6	0.2	
	20 ~ 49인	2,634	86.6	7.5	2.6	3.2	0.1	
	50 ~ 99인	628	89.7	6.3	2.1	1.9	0.0	
	100인 이상	426	88.6	4.2	5.0	2.2	0.0	
지역별	수도권	26,182	96.3	1.9	1.3	0.4	0.1	
	경남권	6,429	89.4	6.3	1.9	2.5	0.0	
	경북권	3,348	91.2	5.9	0.8	2.0	0.2	
	전라권	3,236	88.3	7.6	0.6	3.1	0.4	
	충청권	2,923	95.1	1.6	0.9	2.4	0.0	

<표 15> 공장 입지 형태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개별 자유입지	지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기타	
전 체		6,737	78.5	12.2	4.3	4.0	0.9	
대분	제조업	4,807	75.3	14.9	4.1	4.6	1.1	
	비제조업	1,930	86.5	5.5	4.8	2.6	0.6	
세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567	82.2	7.4	2.6	6.7	1.2
		섬유/의복/가방/신발	384	76.3	10.9	5.8	3.1	3.9
		기타 제조	3,857	74.2	16.4	4.2	4.4	0.8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08	75.8	6.5	4.8	12.9	0.0
		건설업	705	90.3	5.0	4.7	0.0	0.0
		도매 및 소매업	996	86.3	4.6	5.4	3.7	0.0
		운수업	-	-	-	-	-	-
		숙박 및 음식점업	8	100.0	0.0	0.0	0.0	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	-	-	-	-	-
		금융 및 보험업	-	-	-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9	70.6	18.4	0.0	0.0	11.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	-	-
		교육 서비스업	-	-	-	-	-	-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100.0	0.0	0.0	0.0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2	100.0	0.0	0.0	0.0	0.0		
조사자 규모별	5인 미만	2,178	82.1	11.1	4.3	1.9	0.6	
	5 ~ 19인	3,389	77.6	12.6	3.9	4.6	1.3	
	20 ~ 49인	889	73.3	14.7	4.1	7.2	0.7	
	50 ~ 99인	200	79.0	8.7	6.6	5.7	0.0	
	100인 이상	82	74.2	5.3	20.4	0.0	0.0	
지역별	수도권	3,603	78.7	12.0	6.1	1.4	1.8	
	경남권	1,000	77.4	12.4	3.8	6.4	0.0	
	경북권	714	80.1	13.8	0.7	5.4	0.0	
	전라권	915	72.9	15.1	2.0	10.0	0.0	
	충청권	505	87.1	5.3	2.3	5.3	0.0	

※ 공장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기업(84.0%)은 제외 후 재산출한 값임

제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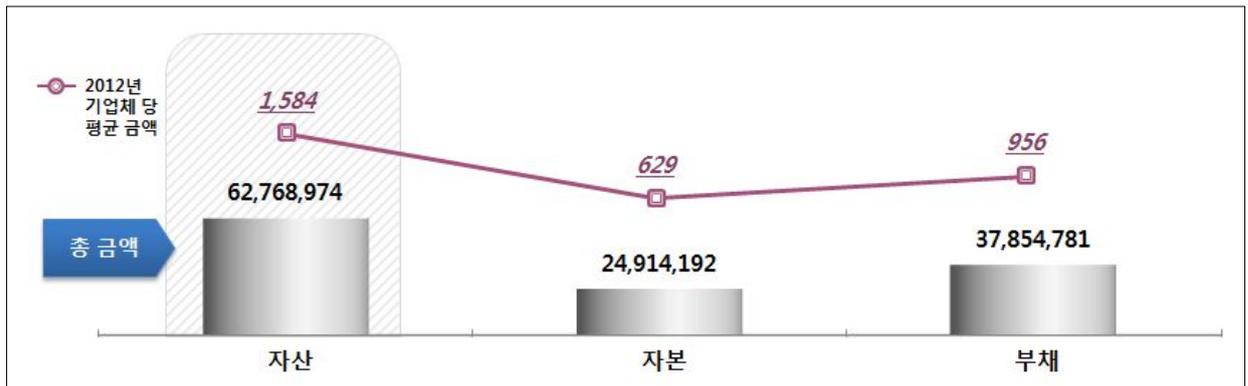
여성기업의 재무 관련 현황

1. 2012년도 재무상태

- '12년 여성기업의 총자산은 62,768,974백만원이며, 기업체 당 평균 자산액은 1,584백만원으로 나타남. 자기자본 총액은 24,914,192백만원(기업체 당 평균 629백만원), 부채총액은 37,854,781백만원(기업체 당 평균 956백만원)임

(그림 14) 2012년도 재무 상태

(단위 : 백만원)



※ 자산 = 자기자본 + 부채(단, 소수점 아랫자리의 반올림으로 인해 각 세부항목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기업체당 평균 자산금액 기준으로 제조업은 2,653백만원, 비제조업은 1,341백만원으로 제조업의 평균 자산이 비제조업에 비해 약 2배 많음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 제조업의 평균 자산이 3,343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비제조업 중에서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약 6,592백만원으로 가장 많음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 자산이 커지는 경향을 보임. 권역별로는 '경남권' 소재 여성기업의 평균 자산액이 2,207백만원으로 타 권역 대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안정성을 진단해볼 수 있는 여성기업의 부채비율은 151.9%이며, 업종별로 제조업, 비제조업이 각각 147.3%, 154.3%로 나타남

<표 16> 2012년도 재무 상태

(단위: 개사, 백만원)

구분	사례 수	자본		부채		자산			
		총액	기업체 당 평균	총액	기업체 당 평균	총액	기업체 당 평균		
전체	42,118	24,914,192	629	37,854,781	956	62,768,974	1,584		
부문	제조업	7,459	7,884,973	1,073	11,614,135	1,580	19,499,108	2,653	
	비제조업	34,659	17,029,219	528	26,240,646	813	43,269,866	1,341	
세부업종별	제조업	식품/음료 제조	834	567,965	686	1,103,793	1,334	1,671,758	2,021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1,098,547	1,442	1,448,357	1,901	2,546,903	3,343
		기타 제조	5,822	6,218,461	1,080	9,061,985	1,573	15,280,447	2,653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345,132	778	309,517	697	654,649	1,475
		건설업	8,211	5,493,465	699	3,095,087	394	8,588,553	1,092
		도매 및 소매업	10,963	4,996,397	495	8,698,356	863	13,694,752	1,358
		운수업	1,954	761,032	445	1,224,336	716	1,985,368	1,162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649,795	687	2,023,196	2,140	2,672,992	2,827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823,854	503	1,101,616	672	1,925,470	1,175
		금융 및 보험업	769	236,155	331	142,280	199	378,436	53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1,177,917	776	4,342,804	2,861	5,520,721	3,6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1,162,142	508	1,204,319	526	2,366,461	1,03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812,616	249	928,926	284	1,741,542	533
		교육 서비스업	891	255,091	330	324,115	420	579,205	75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66,912	696	58,160	605	125,072	1,30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3,977	14	1,922,917	6,579	1,926,894	6,592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244,734	386	865,017	1,363	1,109,751	1,749
종사자규모별	5인 미만	22,217	4,732,584	232	8,254,205	404	12,986,788	636	
	5 ~ 19인	16,213	11,408,326	732	15,714,253	1,009	27,122,580	1,741	
	20 ~ 49인	2,634	4,689,131	1,823	7,801,827	3,033	12,490,958	4,856	
	50 ~ 99인	628	1,809,418	2,934	2,896,806	4,696	4,706,223	7,630	
	100인 이상	426	2,274,733	5,380	3,187,691	7,540	5,462,424	12,920	
지역별	수도권	26,231	14,145,817	574	19,748,672	801	33,894,489	1,375	
	경남권	6,412	4,751,010	790	8,525,153	1,417	13,276,163	2,207	
	경북권	3,335	2,331,346	721	2,852,321	882	5,183,667	1,603	
	전라권	3,225	1,615,916	535	3,754,464	1,243	5,370,380	1,779	
	충청권	2,915	2,070,104	769	2,974,171	1,105	5,044,275	1,8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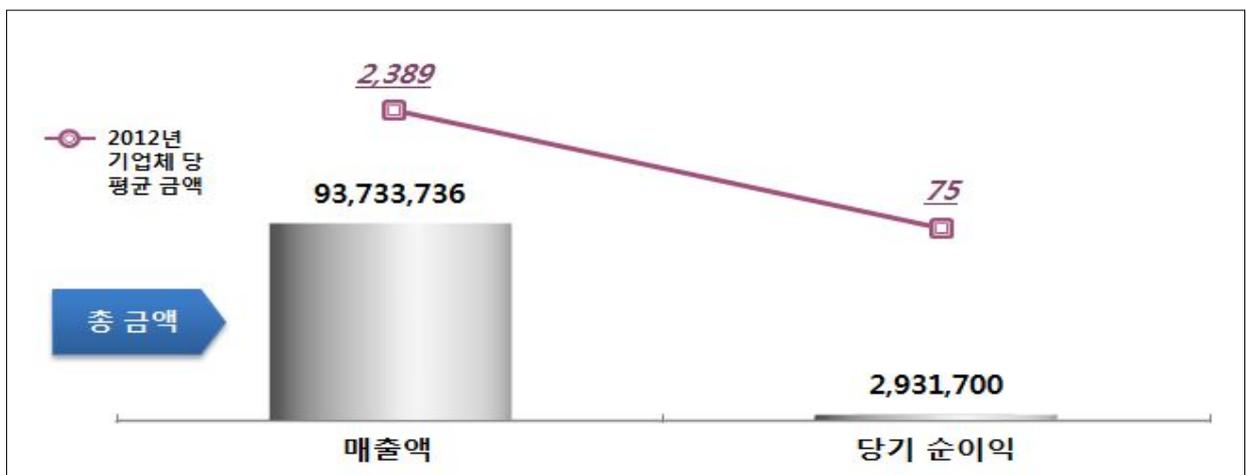
※ 자산 = 자기자본 + 부채(단, 소수점 아랫자리의 반올림으로 인해 각 세부항목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2012년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 여성기업의 '12년 매출총액은 93,733,736백만원으로, 기업체 당 평균 매출액은 2,389백만원으로 나타남. 한편, 당기순이익 총액은 293,1700백만원이며, 기업체 당 75백만원이었음
- 2012년도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은 3.13%임

(그림 15) 2012년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단위: 개사, 백만원)



- 2012년도 기업체 당 평균 매출액은 제조업(3,591백만원)이 비제조업(2,115백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5,523백만원), 비제조업 중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3,564백만원)의 기업체 당 평균 매출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2012년도 기업체 당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160백만원, 비제조업이 55백만원으로, 제조업의 기업체 당 당기순이익이 비제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327백만원), 비제조업의 경우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 복원업'(103백만원)의 기업체 당 당기순이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표 17> 2012년도 매출액 및 당기 순이익

(단위: 개사,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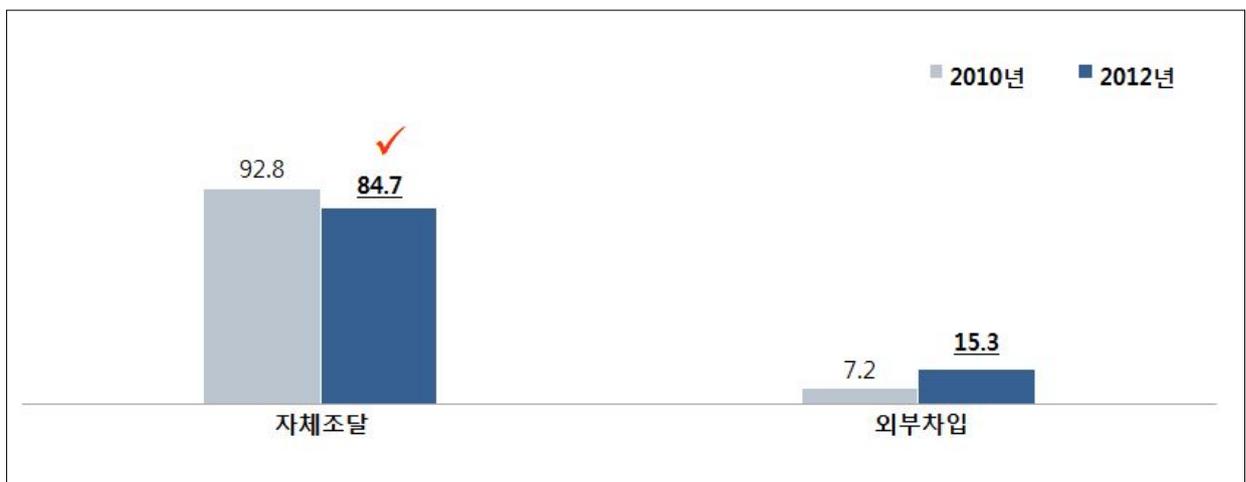
구분	구분	사례 수	2012년도 매출액		2012년도 당기순이익		
			총액	기업체 당 평균	총액	기업체 당 평균	
	전체	42,118	93,733,736	2,389	2,931,700	75	
대부분	제조업	7,459	26,152,077	3,591	1,149,998	160	
	비제조업	34,659	67,581,659	2,115	1,781,701	55	
세부업종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2,580,589	3,144	82,143	102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4,239,748	5,523	247,520	327
		기타 제조	5,822	19,331,740	3,395	820,336	146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945,486	2,141	45,979	103
		건설업	8,211	11,814,705	1,507	443,046	56
		도매 및 소매업	10,963	36,061,556	3,564	717,683	72
		운수업	1,954	3,533,557	2,002	102,430	56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1,703,978	1,829	57,766	63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2,372,436	1,487	79,594	51
		금융 및 보험업	769	941,330	1,344	14,308	2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1,949,518	1,392	67,135	4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2,840,149	1,278	70,544	3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3,578,922	1,127	106,290	34
		교육 서비스업	891	640,065	861	35,281	44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88,231	928	4,551	4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426,368	1,464	-16,021	-56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685,357	1,087	53,116	86
		중소기업	5인 미만	22,217	21,325,027	1,064	399,791
5 ~ 19인	16,213		41,889,825	2,692	1,479,553	96	
20 ~ 49인	2,634		15,873,696	6,125	629,220	243	
50 ~ 99인	628		6,792,479	11,014	224,166	365	
100인 이상	426		7,852,708	18,634	198,969	476	
지역	수도권	26,231	57,091,747	2,342	1,703,507	70	
	경남권	6,412	18,199,471	3,066	367,464	61	
	경북권	3,335	6,694,062	2,102	246,355	78	
	전라권	3,225	5,696,655	1,893	320,247	104	
	충청권	2,915	6,051,802	2,217	294,126	105	

3. 자금조달 방법

- 여성기업의 84.7%는 ‘자체 조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기관이나 정책 자금 등을 통한 ‘외부 차입’은 15.3%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외부차입’이 2010년에 비해 8.1%p 높은 반면, ‘자체 조달’ 비율은 8.1%p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16) 자금조달 방법

(단위 : % (평균))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금조달 방법 중 ‘자체조달’ 비율은 비제조업 (85.1%)이 ‘제조업’(82.8%)에 비해 높으나 큰 차이는 없음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식품/음료 제조’(85.0%), 비제조업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 (92.1%)에서 ‘자체 조달’ 비중이 타 업종 대비 높게 나타남
 - 한편,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은 상대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 외부 자금 차입 비중이 23.8%로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는 ‘5인 미만’(86.0%)과 ‘100인 이상’(87.3%)에서 ‘자체 조달’의 평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종사자 규모별 자금조달 유형은 U자형 형태의 모양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표 18> 자금조달 방법

(단위: 개사 %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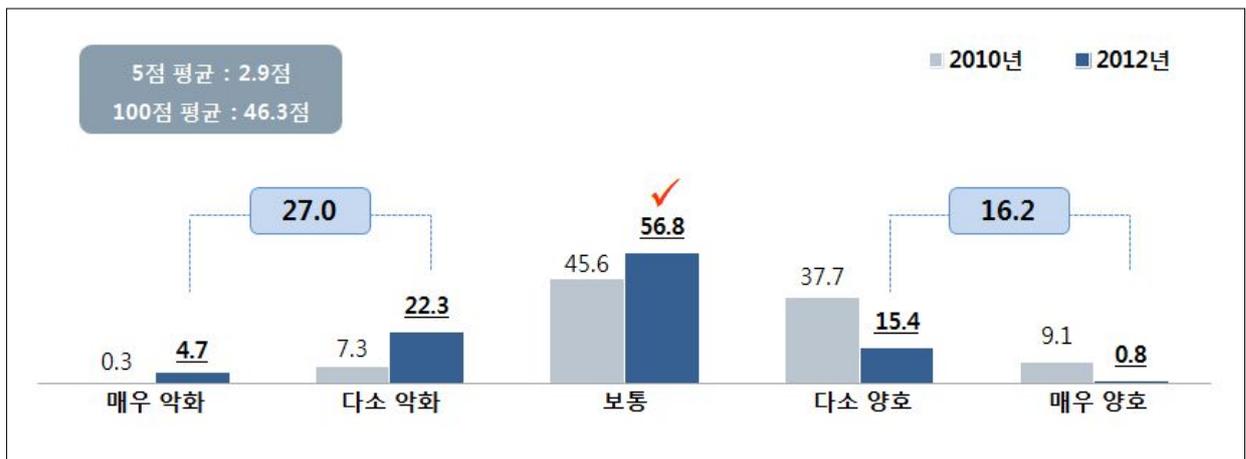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자체조달	외부차입		
전 체		42,118	84.7	15.3		
부	제조업	7,459	82.8	17.2		
	비제조업	34,659	85.1	14.9		
세 부 업 종 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85.0	15.0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76.2	23.8	
		기타 제조	5,822	83.4	16.6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89.9	10.1	
		건설업	8,211	84.5	15.5	
		도매 및 소매업	10,963	81.2	18.8	
		운수업	1,954	83.2	16.8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85.3	14.7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90.8	9.2	
		금융 및 보험업	769	92.1	7.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87.4	12.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86.7	13.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91.1	8.9	
		교육 서비스업	891	85.3	14.7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83.2	16.8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88.0	12.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89.2	10.8	
		중 사 자 구 분 별	5인 미만	22,217	86.0	14.0
			5 ~ 19인	16,213	83.2	16.8
20 ~ 49인	2,634		82.3	17.7		
50 ~ 99인	628		83.6	16.4		
100인 이상	426		87.3	12.7		
지 역 구 분 별	수도권	26,182	84.5	15.5		
	경남권	6,429	84.6	15.4		
	경북권	3,348	81.5	18.5		
	전라권	3,236	86.5	13.5		
	충청권	2,923	87.7	12.3		

4. 2012년 자금 사정

- 여성기업의 27.0%는 2012년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매우악화+다소악화) 되었다고 응답하여, 자금사정이 ‘양호(다소양호+매우양호, 16.2%)’하다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그 외 56.8%는 2012년 기업 자금 사정이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함
-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2012년 기업체조사에서는 기업 자금 사정이 ‘양호’하였다는 응답은 30.6%p 낮은 반면,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19.4%p 더 높게 나타남

(그림 17) 2012년 기업 자금 사정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2012년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제조업의 경우 28.2%, 비제조업의 경우 26.7%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 제조’(33.0%), 비제조업 중에서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3.5%)이 2012년 기업 자금 사정을 타 업종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함
- 종사자 규모별로는 ‘5인 미만’(29.2%)에서 2012년 체감한 자금사정에 대해 ‘악화’라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19> 2012년 기업 자금 사정

(단위: 개사,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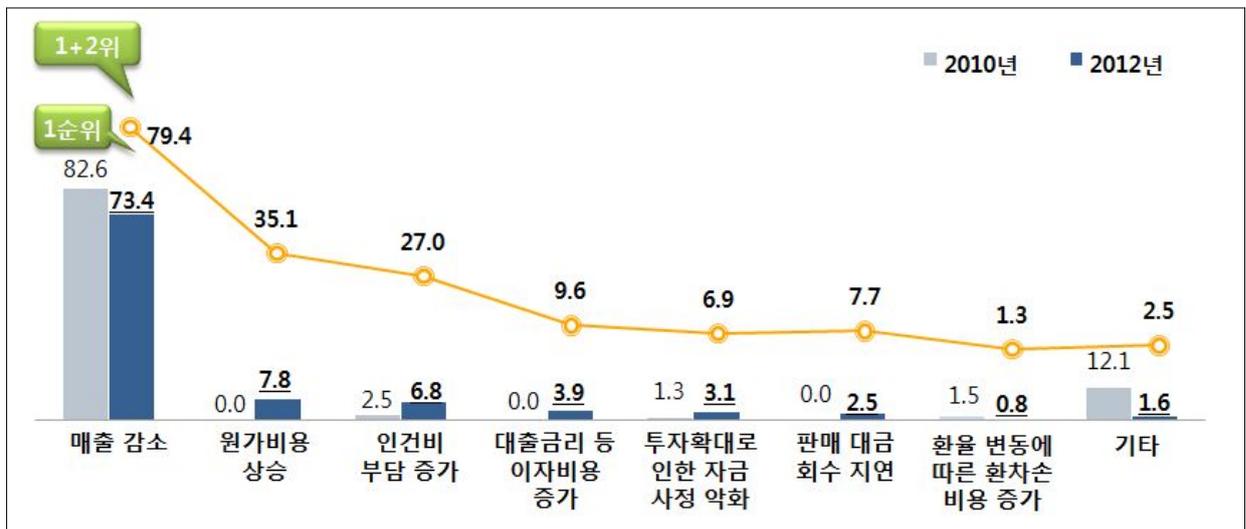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① 매우 악화	② 다소 악화	③ 보통	④ 다소 양호	⑤ 매우 양호	①+② 악화	④+⑤ 양호	100점 평균 (점)	
전 체		42,118	4.7	22.3	56.8	15.4	0.8	27.0	16.2	46.3	
대부	제조업	7,459	4.4	23.8	58.9	12.3	0.5	28.2	12.9	45.2	
	비제조업	34,659	4.7	22.0	56.4	16.0	0.8	26.7	16.9	46.6	
세부 업종 별	제조업	식품/음료 제조	834	7.7	19.8	57.0	14.3	1.3	27.5	15.5	45.4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3.7	29.3	54.6	11.6	0.7	33.0	12.4	44.1
		기타 제조	5,822	4.1	23.6	59.8	12.1	0.4	27.7	12.5	45.3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2.7	27.3	53.9	16.1	0.0	30.0	16.1	45.8
		건설업	8,211	6.9	24.2	51.1	16.9	1.0	31.1	17.9	45.2
		도매 및 소매업	10,963	4.3	19.4	59.3	15.8	1.1	23.7	17.0	47.5
		운수업	1,954	3.1	25.4	55.4	16.1	0.0	28.5	16.1	46.1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3.6	28.2	52.3	16.0	0.0	31.7	16.0	45.2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4.0	19.9	65.6	9.8	0.6	23.9	10.4	45.8
		금융 및 보험업	769	1.7	21.1	65.0	11.8	0.5	22.7	12.2	47.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3.4	22.6	60.8	13.2	0.0	25.9	13.2	46.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6.7	26.8	53.0	13.0	0.6	33.5	13.5	43.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3.1	17.7	54.7	23.1	1.4	20.8	24.5	50.5
		교육 서비스업	891	3.0	26.4	56.0	14.0	0.6	29.3	14.6	45.7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3.7	21.4	50.1	24.9	0.0	25.0	24.9	49.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7.7	23.6	56.5	11.3	1.0	31.3	12.2	43.6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5.0	16.9	62.5	15.6	0.0	21.9	15.6	47.2		
종사 자 규모 별	5인 미만	22,217	5.8	23.4	55.2	14.7	0.9	29.2	15.6	45.4	
	5 ~ 19인	16,213	3.7	20.9	58.9	15.9	0.7	24.5	16.6	47.3	
	20 ~ 49인	2,634	2.6	22.8	57.4	16.7	0.5	25.4	17.2	47.4	
	50 ~ 99인	628	2.7	21.4	56.1	19.6	0.2	24.1	19.9	48.4	
	100인 이상	426	0.8	19.7	62.6	13.4	3.6	20.5	16.9	49.8	
권 역 별	수도권	26,182	4.9	20.2	58.4	15.5	1.0	25.1	16.5	46.9	
	경남권	6,429	2.9	24.1	57.1	15.8	0.0	27.1	15.9	46.5	
	경북권	3,348	3.5	22.8	55.3	17.0	1.5	26.3	18.4	47.5	
	전라권	3,236	6.3	26.5	53.4	13.6	0.3	32.8	13.8	43.7	
	충청권	2,923	6.0	32.1	48.0	13.6	0.3	38.1	13.9	42.6	

5. 자금 사정 악화의 원인

- 2012년에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여성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매출감소’가 73.4%로 가장 높으며, ‘원가비용 상승’(7.8%), ‘인건비 부담 증가’(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2010년 결과와 동일하게 자금사정 악화 원인으로 ‘매출 감소’가 가장 높음

(그림 18) 자금 사정 악화의 원인

(단위: %)



* ‘원가비용 상승’, ‘대출금리 등 이자비용 증가’ 및 ‘판매 대금 회수 지연’은 2013년 조사에서 신규 추가된 보기 항목임

- 자금사정이 악화된 주요 원인이 ‘매출감소’라고 응답한 비중은 제조업(65.3%)보다 비제조업(75.2%)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71.5%), 비제조업 중에서는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85.9%)에서 ‘매출 감소’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음

<표 20> 자금 사정 악화의 원인

(단위: 개사 %)

구분		사례 수	매출 감소	원가 비용 상승	인건비 부담 증가	대출 금리 등 이자비용 증가	투자확대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판매 대금 회수 지연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비용 증가	기타	
전체		11,369	73.4	7.8	6.8	3.9	3.1	2.5	0.8	1.6	
부	제조업	2,105	65.3	10.8	6.0	6.3	4.7	4.7	1.5	0.6	
	비제조업	9,264	75.2	7.1	6.9	3.4	2.8	2.0	0.6	1.9	
세 부 업 종 별	제조업	식품/음료 제조	229	58.9	9.7	5.8	9.3	13.3	2.9	0.0	0.0
		섬유/의복/가방/신발	265	71.5	10.9	6.5	0.0	2.2	2.2	4.4	2.2
		기타 제조	1,611	65.2	11.0	5.9	6.9	3.9	5.4	1.3	0.4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38	70.0	10.4	6.6	5.4	5.0	2.5	0.0	0.0
		건설업	2,552	77.2	8.4	9.8	1.2	2.1	0.4	0.0	0.9
		도매 및 소매업	2,603	71.0	7.2	5.5	7.5	2.0	3.0	1.0	2.8
		운수업	556	66.1	10.5	7.5	2.5	3.6	5.4	3.1	1.3
		숙박 및 음식점업	326	78.6	6.0	5.4	0.8	5.8	0.0	3.6	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403	84.8	2.2	4.9	0.0	6.2	1.9	0.0	0.0
		금융 및 보험업	175	82.2	0.0	3.1	0.0	5.2	6.3	0.0	3.1
		부동산업 및 임대업	449	76.0	4.0	3.4	7.1	3.5	2.4	0.0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05	73.7	10.3	6.8	1.4	1.7	3.1	0.0	3.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717	83.6	4.7	8.1	1.1	1.5	0.0	0.6	0.3
		교육 서비스업	261	72.9	4.3	8.5	2.3	3.9	3.9	0.0	4.3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29	54.2	4.9	15.8	0.0	25.1	0.0	0.0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1	76.4	7.4	0.0	1.7	6.2	0.0	0.0	8.3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47	85.9	1.9	0.0	2.9	5.8	0.0	0.0	3.6		
종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6,485	73.6	7.4	7.1	3.3	3.6	2.6	0.9	1.6	
	5 ~ 19인	3,975	73.9	7.8	5.7	5.2	2.5	2.2	0.8	1.9	
	20 ~ 49인	670	72.3	10.2	8.6	2.5	2.6	3.0	0.0	0.9	
	50 ~ 99인	151	67.4	12.5	7.9	7.1	3.6	1.5	0.0	0.0	
	100인 이상	87	57.7	9.3	15.6	0.0	2.6	6.9	5.2	2.6	
권 역 별	수도권	6,574	70.1	8.5	7.9	5.5	2.4	2.9	1.0	1.8	
	경남권	1,740	82.3	4.6	3.7	1.2	4.2	2.1	0.6	1.4	
	경북권	880	79.6	3.4	10.2	0.0	3.9	0.4	1.1	1.3	
	전라권	1,062	75.5	9.1	2.6	4.9	3.9	2.8	0.6	0.5	
	충청권	1,113	72.1	10.7	6.2	1.5	4.5	2.4	0.0	2.7	

※ '12년 자금 사정에 대해 '다소 악화' 또는 '매우 악화'로 응답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6. 주요 자금 투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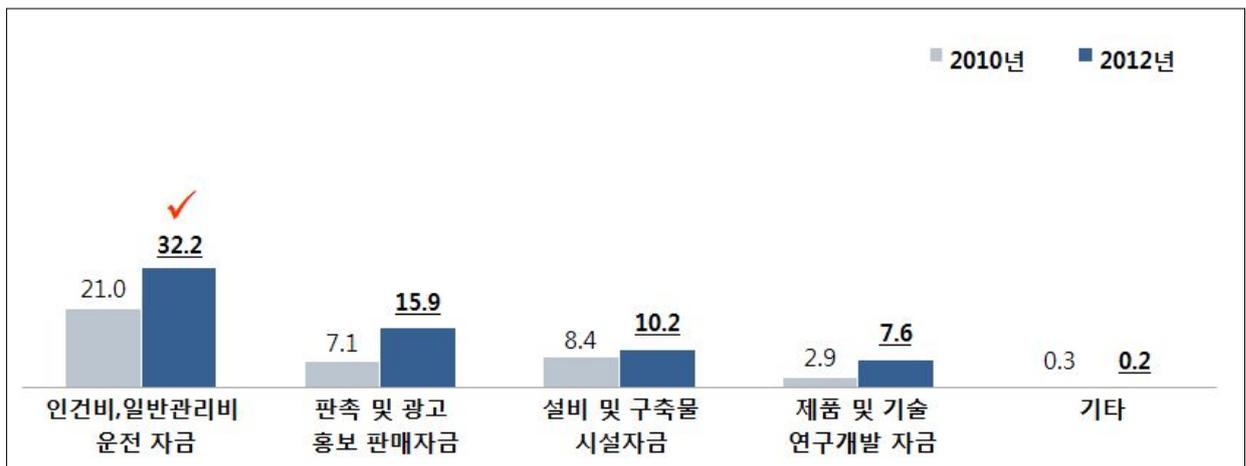
○ 여성기업의 주요 자금 투자 분야로는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운전자금’이 32.2%로 가장 높으며, ‘판촉 및 광고홍보 등 판매자금’(15.9%), ‘설비 및 건축물 등 시설자금’(10.2%) 등의 순임

- 한편, 투자 계획이 없는 여성기업은 34.0%로 높게 나타남

○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2010년 결과와 동일하게 주요 자금 투자 분야로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의 운전자금’이 가장 높으며, 2010년 조사결과에 비해 11.2%p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그림 19) 주요 자금 투자 분야

(단위: %)



○ 대체로 ‘인건비, 일반 관리비 등의 운전자금’에 주로 투자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으나,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23.9%)과 ‘도매 및 소매업’(37.6%)에서는 ‘판촉 및 광고 홍보 등 판매자금’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 한편, 향후 자금 투자 계획이 없는 여성기업은 제조업(27.9%)보다 비제조업(35.3%)에서 높았으며, 세부업종 중에서는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53.5%로 자금 투자계획이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음

<표 21> 주요 자금 투자 분야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의 운전 자금	판촉 및 광고 홍보 등의 판매자금	설비 및 구축물 등의 시설자금	제품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 자금	기타	해당 없음 (투자 계획 없음)	
전 체		42,118	32.2	15.9	10.2	7.6	0.2	34.0	
대 분	제조업	7,459	28.8	12.3	17.1	13.6	0.4	27.9	
	비제조업	34,659	32.9	16.7	8.7	6.3	0.1	35.3	
세 부 조 건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33.8	16.8	17.3	9.4	0.0	22.7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28.4	20.4	10.0	14.8	0.7	25.6
		기타 제조	5,822	28.1	10.5	18.1	14.0	0.4	28.9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40.2	4.3	17.9	1.1	0.0	36.5
		건설업	8,211	39.2	4.6	11.9	5.2	0.3	38.8
		도매 및 소매업	10,963	27.5	27.6	6.5	5.6	0.1	32.7
		운수업	1,954	39.6	8.0	8.8	3.2	0.0	40.5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32.5	13.1	10.9	4.8	0.0	38.7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23.3	23.9	3.3	23.6	0.0	26.0
		금융 및 보험업	769	32.1	17.4	2.4	1.7	0.5	46.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27.4	10.8	16.1	4.3	0.6	40.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35.7	13.7	10.1	11.7	0.0	28.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33.0	23.7	5.2	3.4	0.0	34.6
		교육 서비스업	891	41.5	11.9	5.5	9.8	0.0	31.5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30.5	4.8	8.7	2.4	0.0	53.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23.8	9.1	16.1	6.2	0.0	44.7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43.5	9.3	10.6	2.7	0.0	33.9		
중 사 자 구 모	5인 미만	22,217	30.1	19.1	9.0	6.3	0.2	35.3	
	5 ~ 19인	16,213	33.7	13.0	11.1	8.5	0.2	33.5	
	20 ~ 49인	2,634	35.2	9.4	14.6	11.0	0.4	29.3	
	50 ~ 99인	628	49.3	10.6	9.7	9.2	0.0	21.2	
	100인 이상	426	37.9	8.5	10.4	11.3	0.0	31.9	
지 역 구 분	수도권	26,182	29.7	20.5	8.8	9.2	0.1	31.8	
	경남권	6,429	39.1	9.4	13.7	3.9	0.6	33.3	
	경북권	3,348	35.8	9.7	11.1	6.2	0.0	37.1	
	전라권	3,236	29.5	5.6	11.6	5.8	0.1	47.3	
	충청권	2,923	38.6	7.7	12.4	4.6	0.0	36.7	

제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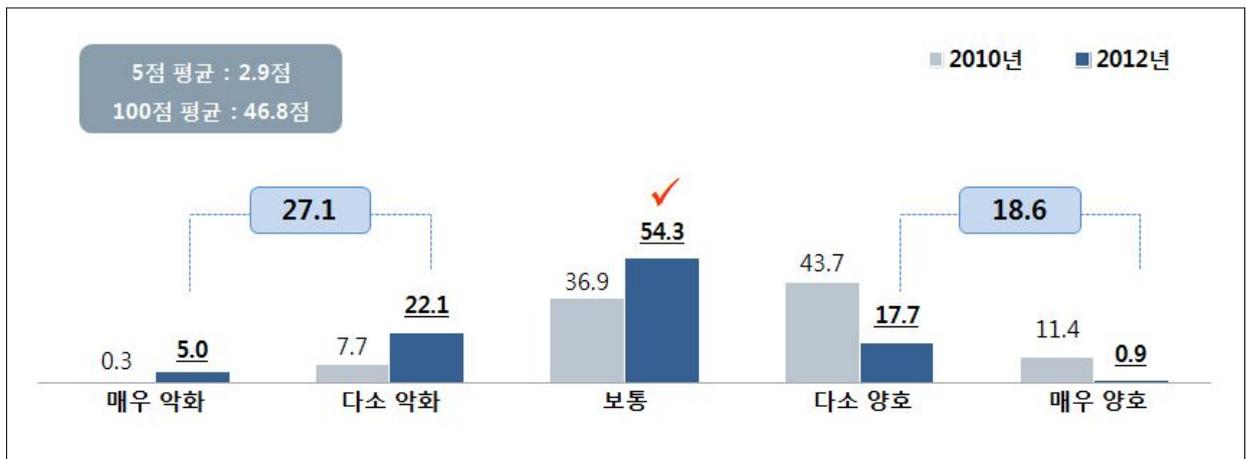
경영의 성과

1. 2012년 여성기업의 경영 성과

- 여성기업의 2012년 경영 성과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이 54.3%로 가장 높고, '악화(매우악화+다소악화)'가 27.1%, '양호(다소양호+매우양호)'가 18.6%로,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양호하다는 응답보다 8.5%p 더 높게 나타남
-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2012년 조사에서는 '양호'의 응답은 36.5%p 더 낮으며, '악화'로 응답한 비율은 19.1%p 더 높게 나타남

(그림 20) 2012년 여성기업의 경영 성과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서는 '식품/음료 제조'(32.4%), 비제조업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37.9%), '부동산 및 임대업'(35.5%)에서 경영성과가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의 경우,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30.5%로 가장 높고, '양호'하다는 응답(17.9%)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권역별로는 '충청권'(34.5%)에서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표 22> 2012년 여성기업의 경영 성과

(단위: 개사,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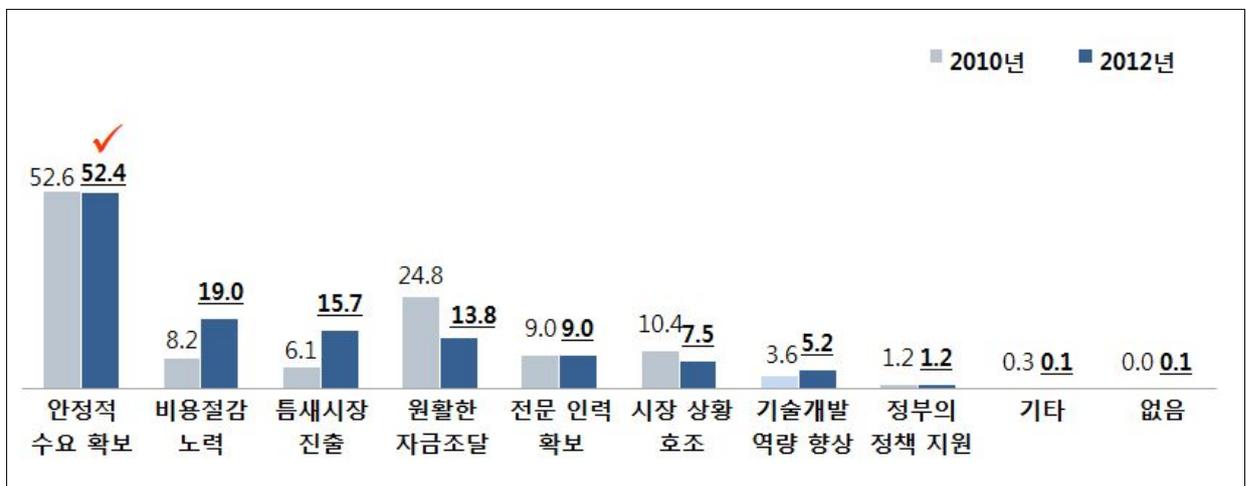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악화	② 다소 악화	③ 보통	④ 다소 양호	⑤ 매우 양호	①+② 악화	④+⑤ 양호	100점 평균 (점)	
전체		42,118	5.0	22.1	54.3	17.7	0.9	27.1	18.6	46.8	
대부분	제조업	7,459	3.9	20.8	60.5	13.8	1.0	24.7	14.8	46.8	
	비제조업	34,659	5.3	22.4	53.0	18.5	0.9	27.6	19.4	46.8	
세부분업종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5.9	26.5	54.7	12.4	0.6	32.4	13.0	43.8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2.2	24.3	57.6	15.1	0.7	26.5	15.8	47.0
		기타 제조	5,822	3.9	19.5	61.8	13.8	1.1	23.4	14.9	47.2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5.1	24.5	52.0	18.4	0.0	29.6	18.4	45.9
		건설업	8,211	7.1	22.1	52.0	18.1	0.7	29.2	18.8	45.8
		도매 및 소매업	10,963	4.6	20.9	53.0	20.5	1.0	25.6	21.4	48.1
		운수업	1,954	3.3	24.2	56.1	16.4	0.0	27.5	16.4	46.4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3.0	29.6	49.6	15.8	1.9	32.6	17.8	46.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4.3	18.0	65.0	12.1	0.6	22.3	12.7	46.7
		금융 및 보험업	769	3.8	34.1	49.5	11.8	0.9	37.9	12.7	43.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6.7	28.7	49.1	14.2	1.2	35.5	15.4	4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6.2	26.4	51.4	16.0	0.0	32.6	16.0	44.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4.7	18.0	50.5	25.1	1.8	22.7	26.8	50.3
		교육 서비스업	891	2.5	27.2	52.7	16.9	0.7	29.7	17.6	46.5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3.6	13.6	63.9	18.9	0.0	17.2	18.9	49.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7.2	25.9	49.1	16.9	1.0	33.0	17.9	44.7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4.9	13.9	64.3	17.0	0.0	18.7	17.0	48.4		
중사자규모	5인 미만	22,217	6.7	23.8	51.6	17.1	0.8	30.5	17.9	45.4	
	5 ~ 19인	16,213	3.4	19.7	57.7	18.2	0.9	23.2	19.1	48.3	
	20 ~ 49인	2,634	2.0	23.2	53.9	19.3	1.5	25.3	20.8	48.7	
	50 ~ 99인	628	2.3	15.7	59.2	22.8	0.0	18.1	22.8	50.6	
	100인 이상	426	2.2	22.9	59.7	11.6	3.6	25.1	15.2	47.9	
별도	수도권	26,182	5.3	20.6	54.7	18.3	1.1	25.9	19.4	47.3	
	경남권	6,429	3.6	22.8	54.2	19.1	0.3	26.4	19.4	47.4	
	경북권	3,348	2.4	22.6	55.4	18.8	0.8	25.0	19.6	48.3	
	전라권	3,236	8.7	25.0	52.6	13.1	0.6	33.7	13.7	43.0	
	충청권	2,923	4.3	30.2	51.6	13.1	0.7	34.5	13.8	43.9	

2. 경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

- 경영성과가 양호한 여성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을 조사한 결과, ‘안정적 수요확보’(52.4%)라는 응답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비용절감 노력’(19.0%)과 ‘틈새시장 진출’(15.7%), ‘원활한 자금조달’ (13.8%)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안정적 수요확보’라는 응답은 거의 비슷하나, 2012년 여성기업체 조사 결과에서 ‘비용절감 노력’, 틈새시장 진출’ 응답은 더 높아진 반면, ‘원활한 자금 조달’은 낮아짐

(그림 21) 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복수 응답)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46.2%)과 ‘비제조업’(53.8%) 모두 ‘안정적 수요 확보’를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은 비중 높음
- 한편, ‘안정적 수요 확보’ 다음으로 제조업은 ‘비용절감 노력’(22.8%), ‘원활한 자금 조달’(16.5%) 순으로 나타났으나, 비제조업은 ‘비용절감 노력’(18.1%), ‘틈새시장 진출’(15.7%) 순으로 응답

<표 23> 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복수 응답)(1/2)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안정적 수요 확보	비용절감 노력	틈새시장 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전문 인력 확보	
전 체		30,698	52.4	19.0	15.7	13.8	9.0	
업종	제조업	5,616	46.2	22.8	15.8	16.5	6.1	
	비제조업	25,082	53.8	18.1	15.7	13.2	9.7	
세부업종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564	55.0	25.7	14.8	10.8	3.6
		섬유/의복/가방/신발	590	35.1	33.5	30.9	14.1	7.1
		기타 제조	4,462	46.5	21.1	13.9	17.5	6.3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324	58.0	22.4	10.9	15.7	3.0
		건설업	5,812	53.2	20.9	11.6	14.1	9.8
		도매 및 소매업	8,160	53.8	19.3	18.9	13.0	6.1
		운수업	1,417	66.5	12.3	21.0	20.7	4.5
		숙박 및 음식점업	692	60.7	22.4	20.6	14.6	11.8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308	47.4	21.1	12.9	6.3	12.8
		금융 및 보험업	478	36.1	20.7	9.4	10.6	16.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17	60.8	12.6	10.9	17.0	1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21	51.7	17.0	12.2	6.7	17.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2,669	52.5	12.6	18.4	15.4	11.2
		교육 서비스업	626	41.8	20.9	17.3	4.2	17.3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95	53.3	18.0	4.6	13.6	2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16	55.1	18.2	20.7	10.6	13.6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47	57.4	5.9	11.4	14.3	19.1
		종사자규모	5인 미만	15,440	50.2	19.0	17.0	11.9
5 ~ 19인	12,456		53.9	19.1	15.0	15.9	10.5	
20 ~ 49인	1,968		60.8	16.4	11.3	13.7	13.8	
50 ~ 99인	515		54.3	19.2	14.3	18.1	10.2	
100인 이상	319		48.1	26.0	8.1	15.0	10.8	
지역	수도권	19,396	47.4	18.4	16.4	14.0	10.1	
	경남권	4,733	65.9	15.9	14.5	14.8	8.8	
	경북권	2,511	55.4	30.3	10.0	13.6	6.6	
	전라권	2,145	61.9	16.0	17.7	12.7	5.9	
	충청권	1,913	55.3	20.9	16.9	10.7	5.7	

※ '12년도 경영성과에 대해 '보통' 또는 '양호'로 응답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표 24> 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복수 응답)(2/2)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시장 상황 호조	기술개발 역량 향상	정부의 정책 지원	기타	없음		
전 체		30,698	7.5	5.2	1.2	0.1	0.1		
부 면	제조업	5,616	6.3	7.8	1.9	0.0	0.2		
	비제조업	25,082	7.8	4.6	1.1	0.1	0.1		
세 부 면 중 세 면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564	4.0	5.1	1.6	0.0	0.0	
		섬유/의복/가방/신발	590	6.5	2.9	2.6	0.0	0.0	
		기타 제조	4,462	6.6	8.8	1.8	0.0	0.2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324	6.4	3.8	1.6	0.0	0.0	
		건설업	5,812	4.8	4.6	1.2	0.0	0.0	
		도매 및 소매업	8,160	9.6	3.8	0.7	0.2	0.0	
		운수업	1,417	9.2	3.0	1.6	0.0	0.0	
		숙박 및 음식점업	692	8.6	1.3	0.8	0.0	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308	5.0	13.5	1.9	0.0	0.0	
		금융 및 보험업	478	18.6	1.1	2.3	1.1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17	7.4	7.9	0.5	0.0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21	3.9	7.6	0.7	0.0	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2,669	11.1	2.9	0.4	0.0	0.0	
		교육 서비스업	626	8.1	2.9	3.6	0.6	2.6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95	1.5	1.7	7.2	0.0	2.9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16	6.1	4.7	3.7	0.0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47	4.5	1.0	1.7	0.0	0.0	
		중 사 자 구 분 면	5인 미만	15,440	8.0	4.5	0.6	0.0	0.1
			5 ~ 19인	12,456	7.0	5.8	1.8	0.0	0.1
20 ~ 49인	1,968		6.0	6.4	2.6	1.1	0.1		
50 ~ 99인	515		12.7	5.8	0.4	0.0	0.0		
100인 이상	319		5.1	2.1	1.8	0.0	0.0		
관 외 지 면	수도권	19,396	8.2	6.7	1.0	0.1	0.0		
	경남권	4,733	6.3	2.7	1.6	0.0	0.5		
	경북권	2,511	5.1	1.6	1.1	0.0	0.0		
	전라권	2,145	6.9	3.7	2.9	0.0	0.5		
	충청권	1,913	7.8	1.6	0.5	0.5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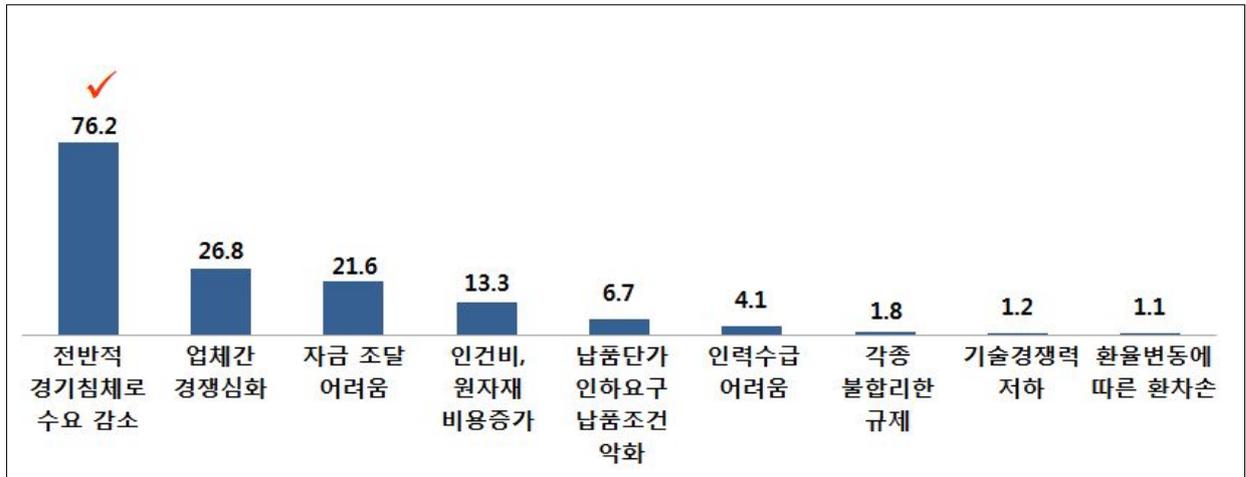
※ '12년도 경영성과에 대해 '보통' 또는 '양호'로 응답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3.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

- 경영성과가 악화되었다는 여성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 조사 결과, '전반적 경기침체로 수요 감소'의 응답이 76.2%로 가장 높음. 그 다음으로는 '업체 간 경쟁심화'(26.8%), '자금조달 어려움'(21.6%)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복수 응답)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전반적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가 경영활동에 가장 부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2순위로 제조업은 '자금 조달 어려움'(25.5%)을, 비제조업은 '업체 간 경쟁심화'(28.6%)를 꼽음
 - 특히 비제조업 중 '건설업'(84.0%), '운수업'(84.3%), '교육 서비스업'(85.0%)에서는 '전반적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에 대한 응답 높음
 - 한편,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경영활동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업체간 경쟁심화'(63.3%)를 꼽은 비중 높음

<표 25>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복수 응답)

(단위: 개사 %)

구분		사례 수	전반적 경기침체 로 수요 감소	업체간 경쟁 심화	자금 조달의 어려움	인건비, 원자재 등 비용 증가	납품단가 인하요구 등 납품조건 악화	인력 수급의 어려움	각종 불합리 한 규제	기술 경쟁력 저하	환율변 동에 따른 환차손	
전체		11,420	76.2	26.8	21.6	13.3	6.7	4.1	1.8	1.2	1.1	
대분	제조업	1,843	67.1	17.1	25.5	15.4	12.5	0.9	2.0	2.5	3.2	
	비제조업	9,577	78.0	28.6	20.8	12.9	5.5	4.7	1.7	0.9	0.7	
세부업종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270	68.1	12.0	24.3	15.1	12.9	0.6	4.9	0.0	2.5
		섬유/의복/가방/신발	213	68.4	12.6	17.8	13.7	11.0	1.3	1.5	0.0	7.0
		기타 제조	1,360	66.7	18.8	26.9	15.7	12.7	0.9	1.5	3.4	2.7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37	71.1	26.0	12.5	9.3	7.7	7.1	4.2	0.0	2.6
		건설업	2,399	84.0	31.8	10.4	15.0	9.4	5.5	0.0	1.1	0.0
		도매 및 소매업	2,803	79.5	22.3	26.6	10.7	4.7	3.5	2.6	0.0	1.9
		운수업	537	84.3	40.6	18.5	13.9	1.4	2.2	0.0	0.0	0.0
		숙박 및 음식점업	336	69.5	34.8	21.4	18.1	5.0	4.4	0.0	0.8	2.7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375	66.4	31.6	26.3	16.4	2.4	4.4	0.0	1.2	0.0
		금융 및 보험업	291	73.2	32.6	11.8	7.5	3.8	5.0	5.7	1.9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614	78.6	22.4	22.2	11.6	0.0	6.0	0.8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85	65.0	30.9	24.5	19.4	13.1	4.5	3.1	4.9	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783	73.8	32.3	31.1	9.2	1.3	7.4	1.3	1.1	0.3
		교육 서비스업	265	85.0	23.3	21.4	3.9	0.0	5.8	5.3	0.0	0.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43.7	63.3	22.4	21.3	0.0	7.0	0.0	0.0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6	77.1	20.1	24.8	4.1	0.0	2.5	11.9	0.0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6	74.0	31.0	14.6	25.3	4.2	4.2	0.0	0.0	0.0		
종사자규모별	5인 미만	6,777	77.5	28.1	21.5	10.9	6.5	4.0	1.1	1.0	1.4	
	5 ~ 19인	3,757	74.9	25.5	21.8	17.4	7.2	4.3	2.6	1.3	0.5	
	20 ~ 49인	666	76.5	19.6	18.5	14.2	6.4	3.1	3.5	1.2	0.9	
	50 ~ 99인	113	64.6	26.8	22.9	18.0	3.3	5.7	0.0	7.4	0.0	
	100인 이상	107	54.5	28.7	31.9	17.6	4.2	11.3	2.1	0.0	4.2	
권역별	수도권	6,786	74.6	28.9	25.1	11.6	7.4	4.3	2.1	1.4	1.2	
	경남권	1,697	78.7	23.9	20.5	16.9	5.7	5.9	1.3	0.2	2.0	
	경북권	837	86.4	18.5	14.5	21.6	9.3	1.4	1.0	4.6	0.0	
	전라권	1,091	71.1	34.6	16.6	7.3	4.6	2.6	1.0	0.0	0.6	
	충청권	1,010	79.7	15.6	10.7	18.3	3.2	3.4	1.3	0.0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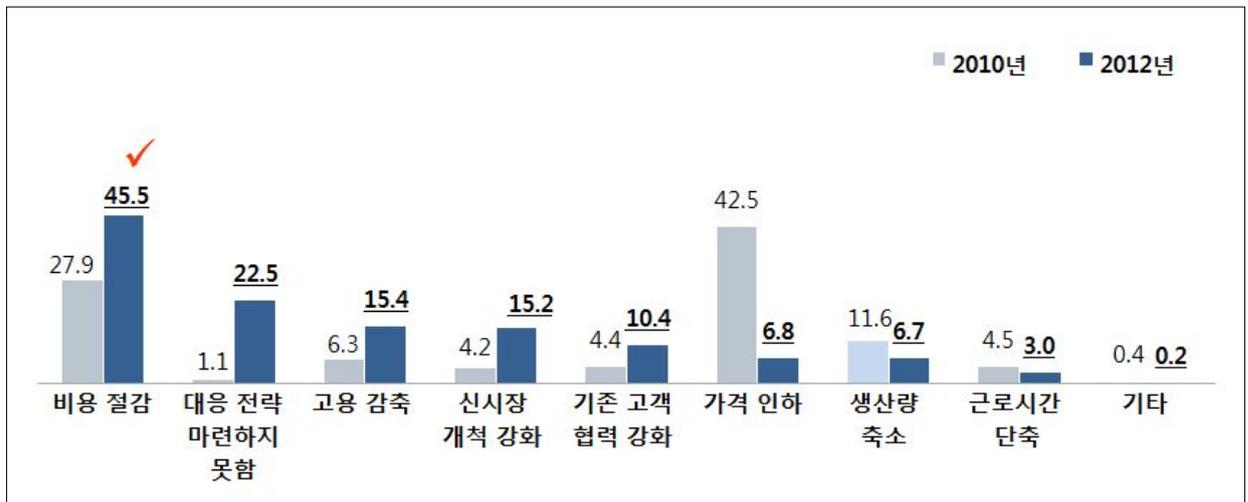
※ '12년도 경영성과에 대해 '다소악화' 또는 '매우악화'로 응답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4. 경영 악화에 대한 대응 방법

- 경영성과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여성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악화에 대한 대응 방법을 조사한 결과, '비용 절감'(45.5%)이 가장 높았으며,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함' 또한 22.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에서는 '가격인하'(42.5%), '비용절감'(27.9%), '생산량축소'(11.6%) 순으로 나타났으나, 2012년 여성기업체 조사 결과에서는 '가격인하'로 응답한 비중은 6.8%에 불과한 반면, '비용절감'에 대한 응답은 45.5%로 약 17.6%p 높아지는 등 다소 차이를 보임

(그림 23) 경영 악화에 대한 대응 방법(복수 응답)

(단위: %)



-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비용 절감'을 통해 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순위로 제조업은 '생산량 축소'(21.1%), 비제조업은 '신시장(틈새시장) 개척 강화'(15.7%)를 꼽음
- 한편, 비제조업 중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대응 전략을 마련 못했다는 응답이 37.3%로 경영악화에 대한 대응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절감'으로 응답한 비중 높아짐

<표 26> 경영 악화에 대한 대응 방법(복수 응답)(1/2)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비용 절감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고용 감축	신시장 (틈새시장) 개척 강화	기존 고객과의 협력 강화	
전 체		11,420	45.5	22.5	15.4	15.2	10.4	
부	제조업	1,843	49.6	16.5	14.0	12.3	8.5	
	비제조업	9,577	44.7	23.7	15.6	15.7	10.8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270	48.8	16.4	8.3	17.1	6.0
		섬유/의복/가방/신발	213	48.6	16.6	12.6	12.5	4.3
		기타 제조	1,360	49.9	16.5	15.4	11.3	9.6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37	41.6	28.9	14.7	3.8	3.8
		건설업	2,399	48.8	27.5	20.9	11.0	8.8
		도매 및 소매업	2,803	49.0	25.2	9.4	15.8	8.8
		운수업	537	35.5	25.4	7.8	22.6	16.5
		숙박 및 음식점업	336	45.2	24.7	13.3	14.7	15.6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375	50.0	7.7	20.4	22.9	10.1
		금융 및 보험업	291	21.9	22.6	1.2	34.2	12.6
		부동산업 및 임대업	614	25.7	25.7	15.8	22.0	13.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85	38.2	18.7	27.0	13.7	17.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783	56.1	15.2	18.1	13.9	8.6
		교육 서비스업	265	33.4	25.9	8.4	20.0	18.4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29.5	14.1	28.1	7.0	28.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6	37.4	37.3	17.1	9.0	5.4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6	48.4	9.7	37.0	15.9	7.6
		중	5인 미만	6,777	44.1	23.7	12.9	16.0
5 ~ 19인	3,757		46.8	21.4	19.8	12.6	11.4	
20 ~ 49인	666		48.0	18.4	12.7	21.5	13.0	
50 ~ 99인	113		56.1	17.9	20.9	11.1	15.1	
100인 이상	107		61.8	15.1	25.6	19.7	13.0	
관	수도권	6,786	50.6	16.8	15.4	16.6	12.8	
	경남권	1,697	39.7	28.3	15.0	15.5	10.8	
	경북권	837	48.4	27.1	23.6	16.5	5.7	
	전라권	1,091	33.3	37.4	14.0	6.2	4.0	
	충청권	1,010	31.9	31.3	10.5	13.3	4.8	

※ '12년도 경영성과에 대해 '다소 악화' 또는 '매우 악화'로 응답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표 27> 경영 악화에 대한 대응 방법(복수 응답)(2/2)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가격 인하	생산량 축소	근로시간 단축	기타	해당사항 없음	
전 체		11,420	6.8	6.7	3.0	0.2	5.9	
대분	제조업	1,843	7.5	21.1	3.0	0.2	3.2	
	비제조업	9,577	6.6	4.0	3.0	0.2	6.4	
세부업종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270	0.0	28.5	0.9	0.0	4.9
		섬유/의복/가방/신발	213	5.4	12.8	8.2	0.0	0.0
		기타 제조	1,360	9.3	20.9	2.6	0.2	3.4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37	2.6	9.6	0.0	0.0	5.5
		건설업	2,399	4.2	2.3	3.0	0.0	5.7
		도매 및 소매업	2,803	9.3	4.6	2.6	0.0	4.4
		운수업	537	5.9	9.5	1.5	1.9	1.9
		숙박 및 음식점업	336	13.5	4.6	1.9	0.0	3.5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375	2.4	4.1	3.2	0.0	4.1
		금융 및 보험업	291	1.9	3.8	0.0	0.0	15.7
		부동산업 및 임대업	614	7.0	3.4	4.3	0.0	1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85	9.4	5.9	4.5	0.0	1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783	5.5	2.0	3.8	0.7	5.5
		교육 서비스업	265	4.5	2.3	9.2	0.0	9.7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7.1	0.0	0.0	0.0	14.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6	1.6	2.5	0.0	2.9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6	4.2	0.0	0.0	0.0	3.4		
조사자규모별	5인 미만	6,777	6.9	5.1	2.5	0.2	7.1	
	5 ~ 19인	3,757	7.8	9.1	3.7	0.0	4.5	
	20 ~ 49인	666	1.3	10.6	3.6	1.2	3.1	
	50 ~ 99인	113	0.0	8.0	5.4	0.0	0.0	
	100인 이상	107	2.0	3.4	7.6	0.0	0.0	
권역별	수도권	6,786	9.5	5.2	1.9	0.1	5.3	
	경남권	1,697	2.3	11.1	5.2	0.8	4.4	
	경북권	837	2.9	7.6	2.1	0.0	7.9	
	전라권	1,091	1.4	9.1	6.9	0.0	8.0	
	충청권	1,010	4.8	6.3	3.5	0.0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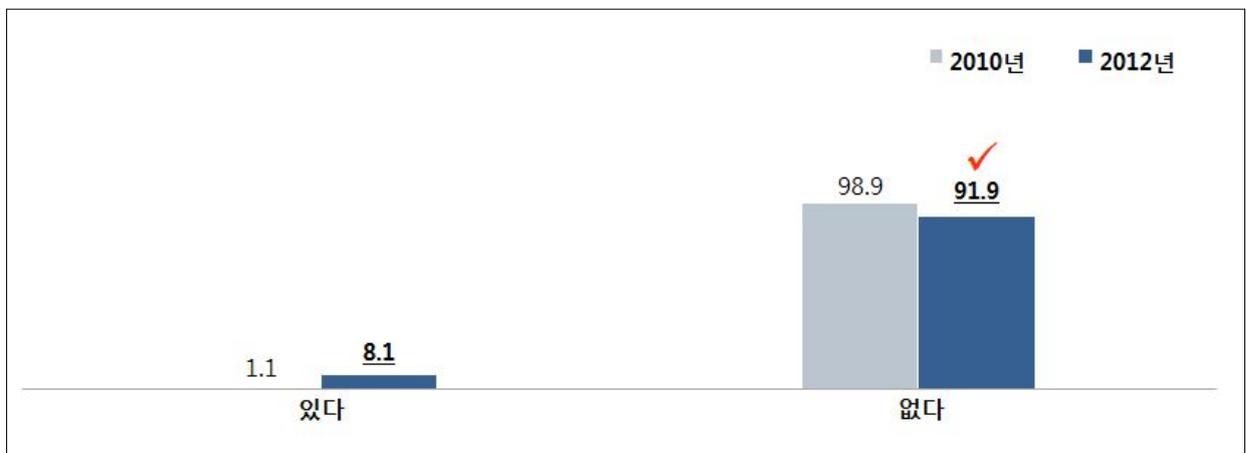
※ '12년도 경영성과에 대해 '다소 악화' 또는 '매우 악화'로 응답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5. 기업구조조정 실시 경험

- 과거(2002년 이후) 기업구조조정(또는 재구축)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은 8.1%, 경험이 없는 여성기업은 91.9%로 나타남
-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2010년 기업구조조정 경험이 있는 여성사업체의 비중은 1.1%였던 것에 비해, 2012년 여성기업의 경우 8.1%로 약 7.0%p 더 높게 나타남

(그림 24) 기업구조조정 실시 경험

(단위: %)



-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기업구조조정 비율은 각각 8.7%, 8.0%임
 - 세부업종별로는 비제조업 중,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5.1%)과 '교육 서비스업'(12.9%)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20~49인'에서 기업구조조정을 경험한 비율이 9.6%로 가장 높고, 권역별로는 '경북권'에서 1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8> 기업구조조정 실시 경험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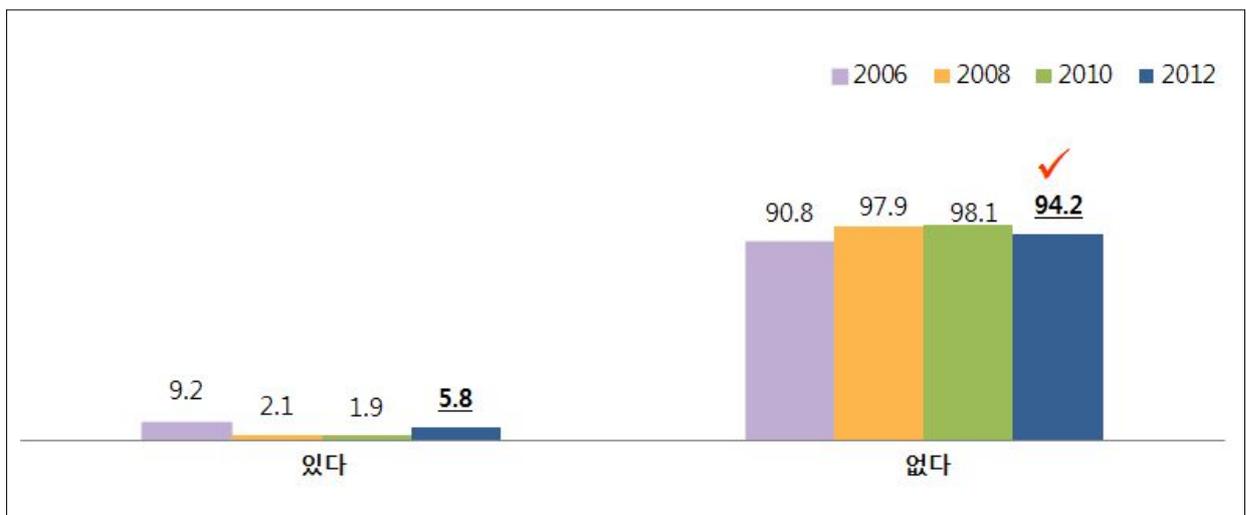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42,118	8.1	91.9		
부	제조업	7,459	8.7	91.3		
	비제조업	34,659	8.0	92.0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7.7	92.3		
		섬유/의복/가방/신발	6.0	94.0		
		기타 제조	9.2	90.8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7.7	92.3		
		건설업	7.8	92.2		
		도매 및 소매업	8.0	92.0		
		운수업	6.2	93.8		
		숙박 및 음식점업	6.4	93.6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8.0	92.0		
		금융 및 보험업	5.6	94.4		
		부동산업 및 임대업	5.8	94.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1	84.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6.0	94.0		
		교육 서비스업	12.9	87.1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7.5	92.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2	93.8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7	95.3		
		중	5인 미만	22,217	8.4	91.6
			5 ~ 19인	16,213	7.4	92.6
20 ~ 49인	2,634		9.6	90.4		
50 ~ 99인	628		8.0	92.0		
100인 이상	426		7.9	92.1		
지역	수도권	26,182	8.4	91.6		
	경남권	6,429	7.8	92.2		
	경북권	3,348	11.1	88.9		
	전라권	3,236	5.9	94.1		
	충청권	2,923	5.0	95.0		

6. 향후 기업구조조정 실시 계획

- 향후 기업구조조정 실시 계획이 있는 여성기업은 5.8%로 나타남
 - 나머지 대부분의 여성기업(94.2%)은 향후 기업구조조정 계획이 없다고 응답
- 기존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결과 대비, 2012년 여성기업체 조사결과에서는 향후 기업구조조정 계획이 있다는 여성기업 비중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5) 향후 기업구조조정 실시 계획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보면, 제조업(7.8%)이 비제조업(5.4%) 보다 향후 기업구조조정 계획이 있는 기업 비중이 더 높음
 - 세부업종별로는 비제조업 중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2.8%)과 '교육 서비스업'(11.0%)에서 기업구조조정 계획이 있는 기업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기업규모별로는 '20~49인'(7.4%)에서, 권역별로는 '전라권'(7.3%)에서 기업구조조정 계획이 있는 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9> 향후 기업구조조정 실시 계획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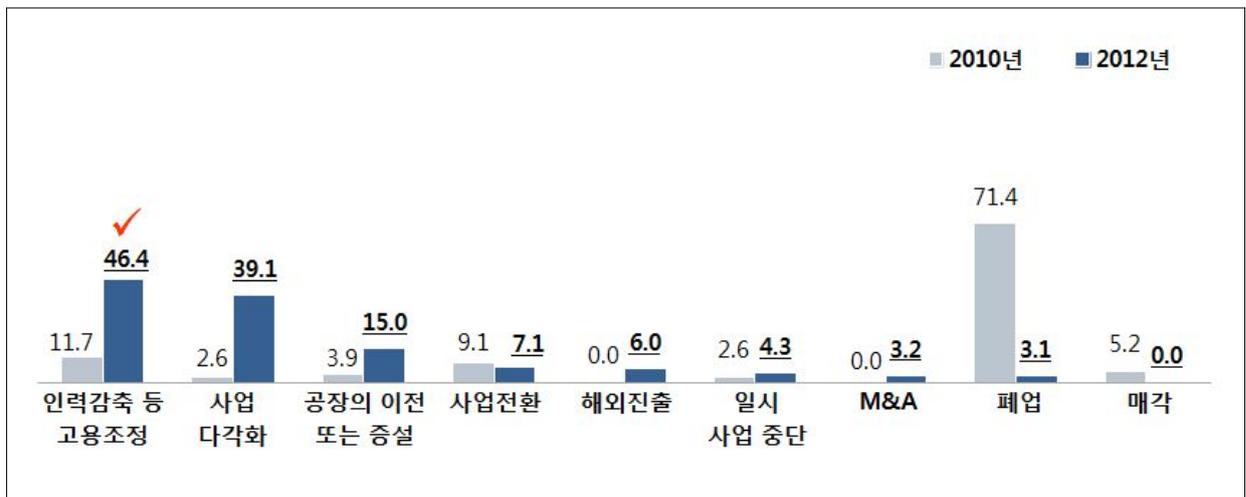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 체		42,118	5.8	94.2		
부	제조업	7,459	7.8	92.2		
	비제조업	34,659	5.4	94.6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4	91.6		
		섬유/의복/가방/신발	8.9	91.1		
		기타 제조	7.6	92.4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4	95.6		
		건설업	4.0	96.0		
		도매 및 소매업	5.1	94.9		
		운수업	4.8	95.2		
		숙박 및 음식점업	5.0	95.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6.8	93.2		
		금융 및 보험업	3.3	96.7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	9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8	87.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2.8	97.2		
		교육 서비스업	11.0	89.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8.9	91.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8	95.2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90.4		
		중	5인 미만	22,217	5.4	94.6
			5 ~ 19인	16,213	6.2	93.8
20 ~ 49인	2,634		7.4	92.6		
50 ~ 99인	628		6.4	93.6		
100인 이상	426		5.2	94.8		
지	수도권	26,182	6.2	93.8		
	경남권	6,429	6.2	93.8		
	경북권	3,348	2.0	98.0		
	전라권	3,236	7.3	92.7		
	충청권	2,923	5.2	94.8		

7. 향후 기업구조조정 계획 방향

- 향후 기업구조조정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은 ‘고용조정’(46.4%), ‘사업다각화’(39.1%), ‘공장이전 또는 증설’(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2010년에는 ‘폐업’(71.4%), ‘인력감축 등 고용조정’(11.7%) 순으로 나타났으나, 2012년 여성기업체 조사에서는 ‘인력감축 등 고용 조정’(46.4%)이 가장 높고 폐업에 대한 응답은 3.1%에 불과함

(그림 26) 향후 기업구조조정 계획 방향(복수응답)

(단위: %)



※ 'M&A'는 2013년 조사에서 신규 추가된 보기항목임

- 응답기업 특성별로 보면, 향후 기업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제조업은 ‘사업다각화’(41.5%)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비제조업은 ‘인력감축 및 고용조정’(50.3%)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 세부업종별로는 비제조업 중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62.9%),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65.5%) 및 ‘운수업’(56.8%)은 ‘사업다각화’라는 응답 높음
 - 한편, 운수업은 ‘폐업’이라는 응답이 10.7%로 폐업 계획이 있는 여성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임
-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에서는 ‘인력 감축 등 고용조정’, ‘50인 이상’에서는 ‘사업 다각화’를 주요 기업구조조정 방향으로 꼽음

<표 30> 향후 기업구조조정 계획 방향(복수응답)

(단위: 개사 %)

구분		사례 수	인력감축 등 고용조정	사업 다각화	공장의 이전 또는 증설	사업전환	해외진출	일시 사업 중단	M&A	폐업	
전체		2,463	46.4	39.1	15.0	7.1	6.0	4.3	3.2	3.1	
부	제조업	584	34.1	41.5	24.0	6.2	10.2	3.4	6.3	2.8	
	비제조업	1,880	50.3	38.4	12.2	7.4	4.7	4.6	2.3	3.3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70	30.5	48.9	16.5	9.5	11.6	0.0	18.9	0.0
		섬유/의복/가방/신발	71	34.1	57.6	29.2	8.4	8.4	8.4	0.0	0.0
		기타 제조	443	34.6	37.8	24.3	5.3	10.3	3.1	5.4	3.6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20	34.7	62.9	45.5	0.0	0.0	0.0	0.0	0.0
		건설업	332	59.4	40.6	7.9	0.0	0.0	8.2	0.0	0.0
		도매 및 소매업	562	52.9	37.8	19.6	4.7	6.9	4.7	0.0	4.7
		운수업	93	24.7	56.8	15.7	0.0	7.8	0.0	0.0	10.7
		숙박 및 음식점업	51	51.9	35.4	22.7	0.0	0.0	12.7	0.0	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15	47.8	65.5	0.0	9.4	0.0	0.0	0.0	9.4
		금융 및 보험업	26	64.4	35.6	21.5	0.0	0.0	0.0	0.0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87	33.2	24.2	11.9	18.3	12.4	12.4	18.3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8	45.1	23.3	8.9	20.4	10.3	3.5	5.9	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96	55.4	40.8	0.0	18.0	0.0	0.0	4.0	8.6
		교육 서비스업	98	51.8	36.0	6.1	0.0	0.0	0.0	0.0	6.1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0	42.6	43.6	0.0	13.8	0.0	0.0	0.0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	57.3	20.2	22.5	0.0	0.0	0.0	0.0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5	56.9	47.5	6.6	8.1	0.0	8.1	8.1	0.0
		중	5인 미만	1,196	36.5	43.2	11.8	10.7	4.9	7.5	3.1
5 ~ 19인	1,011		56.8	33.4	17.8	4.1	7.2	1.7	3.2	1.5	
20 ~ 49인	194		49.9	34.3	23.8	1.5	6.8	0.0	3.8	0.0	
50 ~ 99인	40		57.5	64.8	0.0	9.5	3.8	0.0	9.5	5.6	
100인 이상	22		56.2	80.2	9.9	0.0	9.9	0.0	0.0	0.0	
대	수도권	1,613	41.7	43.5	13.7	8.5	7.8	6.2	3.1	3.2	
	경남권	397	67.0	28.3	18.5	0.0	4.9	0.0	2.7	6.1	
	경북권	66	43.2	47.8	7.0	2.1	4.4	0.0	0.0	3.4	
	전라권	235	41.6	32.5	17.4	9.9	0.0	0.0	8.1	0.0	
	충청권	153	52.1	27.3	18.9	9.0	0.0	4.3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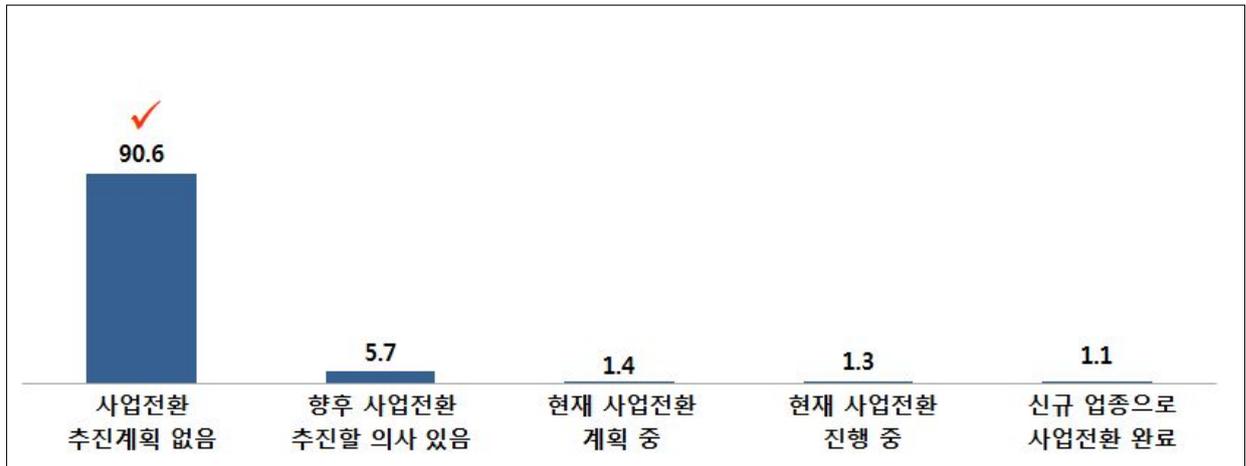
※ 향후 기업구조조정 또는 재구축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8. 과거 사업전환 추진 또는 전환 시도 여부

- 여성기업의 90.6%는 과거 사업전환을 추진하였거나 향후 전환을 시도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사업전환 의사가 있는 여성기업은 5.7%로 나타남

(그림 27) 과거 사업전환 추진 또는 전환 시도 여부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보면, 제조업의 7.4%, 비제조업의 5.3%가 현재 구체적 계획은 없으나, 향후 사업전환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기타제조'(7.8%)와 비제조업 중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9.5%)에서 향후 사업전환 추진 의사가 있는 기업 비중이 높음
 - 그러나 제조업의 87.5%, 비제조업의 91.2%는 사업전환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여성기업의 경우 사업전환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임
- 종사자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 여성기업체의 경우, 11.9%가 향후 사업전환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표 31> 과거 사업전환 추진 또는 전환 시도 여부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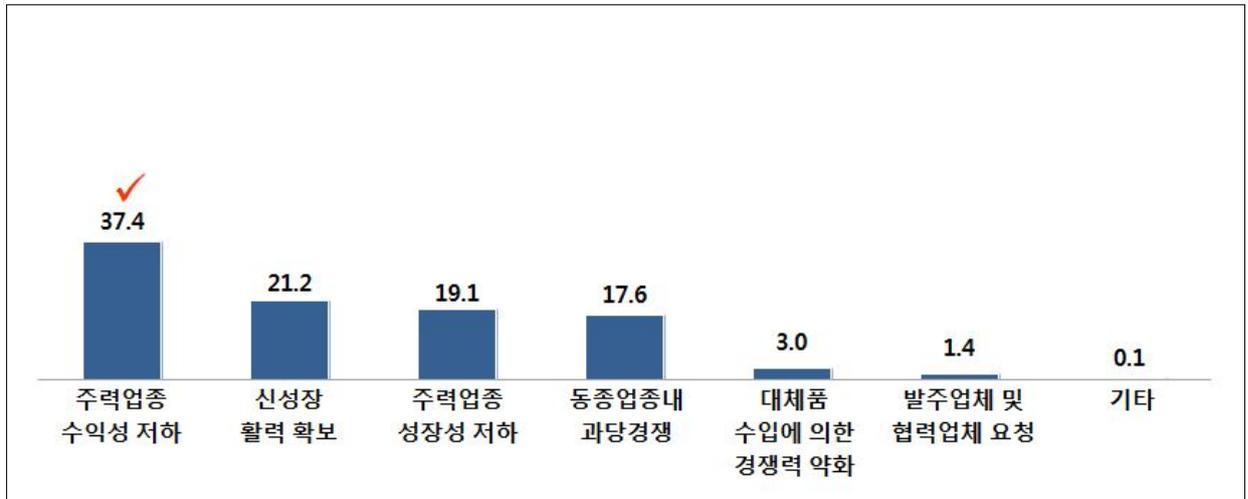
구 분		사 례 수	앞으로도 사업전환을 추진할 계획 없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향후 사업전환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	현재 사업전환을 계획 중	현재 사업전환 진행 중	신규 업종(품목)으로 사업전환 완료	
전 체		42,118	90.6	5.7	1.4	1.3	1.1	
부 류	제조업	7,459	87.5	7.4	1.9	1.9	1.4	
	비제조업	34,659	91.2	5.3	1.3	1.2	1.0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92.0	6.0	0.3	0.5	1.3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86.3	6.6	1.9	3.3	1.9
		기타 제조	5,822	87.0	7.8	2.1	1.8	1.3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93.5	3.1	2.3	0.4	0.8
		건설업	8,211	92.6	5.8	0.2	0.7	0.7
		도매 및 소매업	10,963	91.9	4.9	1.1	1.1	1.1
		운수업	1,954	91.7	3.7	2.0	1.8	0.7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91.4	5.0	2.4	0.0	1.2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88.3	6.2	1.6	1.6	2.4
		금융 및 보험업	769	95.0	1.9	3.1	0.0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89.6	4.9	3.1	1.5	0.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81.3	9.5	3.4	3.8	2.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93.7	4.2	0.8	0.8	0.6
		교육 서비스업	891	90.0	6.9	1.7	1.0	0.3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91.0	1.2	2.5	2.6	2.7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95.2	3.9	0.8	0.0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91.9	4.7	0.0	2.3	1.0		
종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2,217	90.0	6.0	1.5	1.6	0.9	
	5 ~ 19인	16,213	91.8	5.2	1.1	0.9	1.1	
	20 ~ 49인	2,634	88.6	5.2	2.4	1.8	2.0	
	50 ~ 99인	628	90.8	6.4	0.4	0.5	1.9	
	100인 이상	426	83.6	11.9	0.5	0.0	4.0	
권 역 별	수도권	26,182	89.6	6.4	1.4	1.7	0.9	
	경남권	6,429	92.5	3.8	1.6	0.5	1.5	
	경북권	3,348	93.4	3.5	0.7	0.8	1.6	
	전라권	3,236	91.2	4.4	1.9	1.1	1.3	
	충청권	2,923	91.3	6.8	0.4	0.8	0.7	

9. 과거 사업전환 추진 또는 계획 동기

- 과거 사업전환을 추진하였거나 계획을 하게 된 동기로는 '주력업종의 수익성 저하'가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성장 활력 확보'(21.2%), '주력업종의 성장성 저하'(1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8) 과거 사업전환 추진 또는 계획 동기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34.8%)과 비제조업(38.3%) 모두 주로 '주력업종의 수익성 저하' 때문에 과거에 사업을 전환했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함
 - 한편, 비제조업 중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51.2%), '교육 서비스업'(41.1%)은 타 업종과 달리, '신성장 활력 확보'를 위해 사업전환을 추진했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30.2%)은 대체품 수입에 의한 경쟁력 약화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 사업전환 또는 계획 동기로 '20인 미만'기업에서는 '주력업종의 수익성 저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나, '20인 이상'기업에서는 '신성장 활력 확보'에 대한 응답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

<표 32> 과거 사업전환 추진 및 계획 동기

(단위: 개사 %)

구분		사례 수	주력업종의 수익성 저하	신성장 활력 확보	주력업종의 성장성 저하	동종업종내 과당경쟁	대체품 수입에 의한 경쟁력 약화	발주업체 및 협력업체 등의 요청	기타	
전체		3,972	37.4	21.2	19.1	17.6	3.0	1.4	0.1	
부문	제조업	936	34.8	26.6	17.7	15.5	3.3	1.5	0.6	
	비제조업	3,037	38.3	19.6	19.5	18.3	3.0	1.4	0.0	
세부업종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67	33.2	27.9	5.6	23.4	0.0	9.9	0.0
		섬유/의복/가방/신발	110	24.4	24.4	19.3	26.7	0.0	0.0	5.3
		기타 제조	759	36.4	26.8	18.5	13.2	4.0	.9	0.0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30	36.4	23.2	17.2	11.6	11.6	0.0	0.0
		건설업	609	48.1	0.0	26.8	20.6	0.0	4.5	0.0
		도매 및 소매업	893	32.9	29.6	17.6	13.9	6.1	0.0	0.0
		운수업	162	39.1	16.8	6.2	31.7	6.2	0.0	0.0
		숙박 및 음식점업	89	35.0	19.7	21.2	24.1	0.0	0.0	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97	44.7	17.7	18.8	18.8	0.0	0.0	0.0
		금융 및 보험업	38	42.9	0.0	33.3	23.8	0.0	0.0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80	56.1	0.0	23.5	20.4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51	30.7	25.6	24.0	14.3	2.4	3.0	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219	42.6	30.2	7.2	18.9	0.0	1.0	0.0
		교육 서비스업	89	19.3	41.1	17.1	22.6	0.0	0.0	0.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0	13.3	16.0	13.6	26.9	30.2	0.0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	0.0	51.2	0.0	28.4	20.4	0.0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4	27.2	30.9	7.9	24.4	9.7	0.0	0.0		
종사자규모별	5인 미만	2,220	37.4	15.6	24.8	17.8	2.3	1.9	0.3	
	5 ~ 19인	1,324	42.4	24.6	11.6	16.3	4.1	1.0	0.0	
	20 ~ 49인	301	26.9	35.3	14.3	18.7	4.9	0.0	0.0	
	50 ~ 99인	58	13.6	54.5	7.8	24.1	0.0	0.0	0.0	
	100인 이상	70	9.8	49.7	8.3	28.9	0.0	3.3	0.0	
권역별	수도권	2,731	39.3	22.5	19.1	14.9	1.8	2.1	0.2	
	경남권	484	38.3	18.6	9.5	26.8	6.7	0.0	0.0	
	경북권	220	41.2	8.8	26.2	14.1	9.7	0.0	0.0	
	전라권	284	28.4	16.6	18.6	32.4	4.0	0.0	0.0	
	충청권	253	22.5	28.6	31.1	15.8	2.1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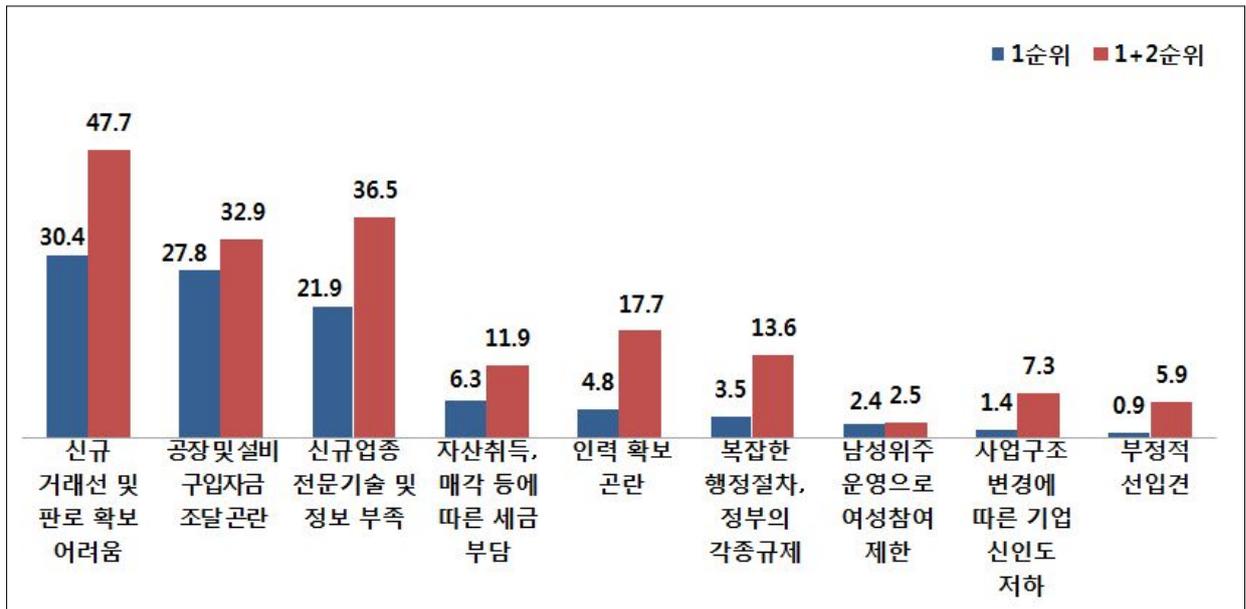
※ 과거 사업전환을 추진했거나 현재 진행 또는 계획이 있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10. 사업전환 시 느낀 애로사항

- 과거 사업전환 경험 또는 향후 계획이 있는 여성기업의 경우, 사업전환 과정에서 '신규거래선 확보의 어려움'(30.4%)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 '공장 및 설비 구입 자금조달 곤란'(27.8%), '신규업종 전문기술 및 정보부족'(21.9%) 순으로 나타남

(그림 29) 사업전환 시 느낀 애로사항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는 제조업은 '공장 및 설비 구입자금 조달 곤란'(43.5%), 비제조업은 '신규 거래선 및 판로 확보의 어려움'(32.3%)을 사업전환 시 느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음
 - 한편,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34.8%)과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30.2%)에서는 '자산취득, 매각 등에 따른 세금 부담'을 사업전환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
 - '숙박 및 음식점업'(46.0%)에서는 '신규업종에 대한 전문기술 및 정보 부족'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음

<표 33> 사업전환 시 느낀 애로사항(1/2)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신규 거래선 및 판로 확보의 어려움	공장 및 설비 구입자금 조달 곤란	신규업종에 대한 전문기술 및 정보 부족	자산취득, 매각 등에 따른 세금 부담	인력 확보 곤란		
전 체		3,972	30.4	27.8	21.9	6.3	4.8		
부	제조업	936	24.1	43.5	16.5	7.7	3.3		
	비제조업	3,037	32.3	23.0	23.6	5.8	5.3		
세 부 업 종 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67	14.4	46.2	0.0	19.7	9.9	
		섬유/의복/가방/신발	110	32.4	29.8	6.0	10.5	16.0	
		기타 제조	759	23.8	45.3	19.5	6.2	0.9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30	0.0	17.2	13.2	34.8	0.0	
		건설업	609	25.4	20.4	30.2	8.2	0.6	
		도매 및 소매업	893	30.1	39.5	19.4	0.0	2.2	
		운수업	162	35.4	22.0	21.0	0.0	8.4	
		숙박 및 음식점업	89	13.9	8.7	46.0	6.5	24.9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97	55.7	6.1	13.3	12.3	7.1	
		금융 및 보험업	38	47.6	14.3	0.0	0.0	9.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80	41.1	5.9	26.4	0.0	2.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51	29.7	15.5	31.6	9.5	11.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219	33.3	19.4	24.5	11.6	7.3	
		교육 서비스업	89	58.9	23.8	0.0	0.0	5.8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0	13.6	16.0	26.5	30.2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	17.1	17.1	54.5	0.0	11.3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4	40.2	11.6	0.0	29.0	9.7	
		중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220	32.5	28.7	18.8	5.4	3.2
			5 ~ 19인	1,324	28.4	26.4	25.2	7.9	7.1
20 ~ 49인	301		21.1	32.1	34.1	5.2	5.2		
50 ~ 99인	58		29.1	14.8	21.4	3.9	13.3		
100인 이상	70		41.0	19.4	9.5	9.8	5.1		
관 외 지역 별	수도권	2,731	29.4	29.2	20.6	6.5	4.4		
	경남권	484	28.1	20.6	33.0	1.2	5.1		
	경북권	220	31.8	26.2	25.4	8.2	6.2		
	전라권	284	27.6	35.7	26.1	4.4	6.1		
	충청권	253	47.3	19.6	7.2	13.9	6.3		

※ 과거 사업전환을 추진했거나 현재 진행 또는 계획이 있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표 34> 사업전환 시 느낀 애로사항(2/2)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복잡한 행정절차, 정부의 각종규제	남성위주의 운영으로 여성의 참여 제한	사업구조 변경에 따른 기업 신인도 저하	여성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기타	없음	
전 체		3,972	3.5	2.4	1.4	0.9	0.3	0.3	
부	제조업	936	2.0	1.4	0.7	0.7	0.0	0.0	
	비제조업	3,037	3.9	2.7	1.6	1.0	0.4	0.4	
세	제조업	식품/음료 제조	67	9.9	0.0	0.0	0.0	0.0	0.0
		섬유/의복/가방/신발	110	0.0	5.3	0.0	0.0	0.0	0.0
		기타 제조	759	1.6	0.9	0.9	0.9	0.0	0.0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30	23.2	0.0	0.0	0.0	0.0	11.6
		건설업	609	10.0	4.5	0.0	0.0	0.0	0.6
		도매 및 소매업	893	0.0	2.9	2.9	2.9	0.0	0.0
		운수업	162	0.0	10.7	0.0	0.0	0.0	2.5
		숙박 및 음식점업	89	0.0	0.0	0.0	0.0	0.0	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97	0.0	0.0	5.5	0.0	0.0	0.0
		금융 및 보험업	38	14.3	0.0	14.3	0.0	0.0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80	17.8	0.0	0.0	0.0	5.9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51	0.0	2.4	0.0	0.0	0.0	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219	1.8	0.0	1.0	1.0	0.0	0.0
		교육 서비스업	89	11.5	0.0	0.0	0.0	0.0	0.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0	0.0	0.0	0.0	13.6	0.0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	0.0	0.0	0.0	0.0	0.0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4	0.0	0.0	9.7	0.0	0.0	0.0
중	5인 미만	2,220	4.2	3.1	2.2	1.5	0.5	0.0	
	5 ~ 19인	1,324	2.3	1.9	0.5	0.1	0.0	0.3	
	20 ~ 49인	301	1.0	0.0	0.0	0.0	0.0	1.3	
	50 ~ 99인	58	10.6	0.0	0.0	0.0	0.0	6.9	
	100인 이상	70	8.6	0.0	3.3	3.3	0.0	0.0	
관	수도권	2,731	3.3	2.9	2.1	1.3	0.4	0.0	
	경남권	484	7.2	3.3	0.0	0.0	0.0	1.6	
	경북권	220	1.6	0.0	0.0	0.6	0.0	0.0	
	전라권	284	0.0	0.0	0.0	0.0	0.0	0.0	
	충청권	253	4.2	0.0	0.0	0.0	0.0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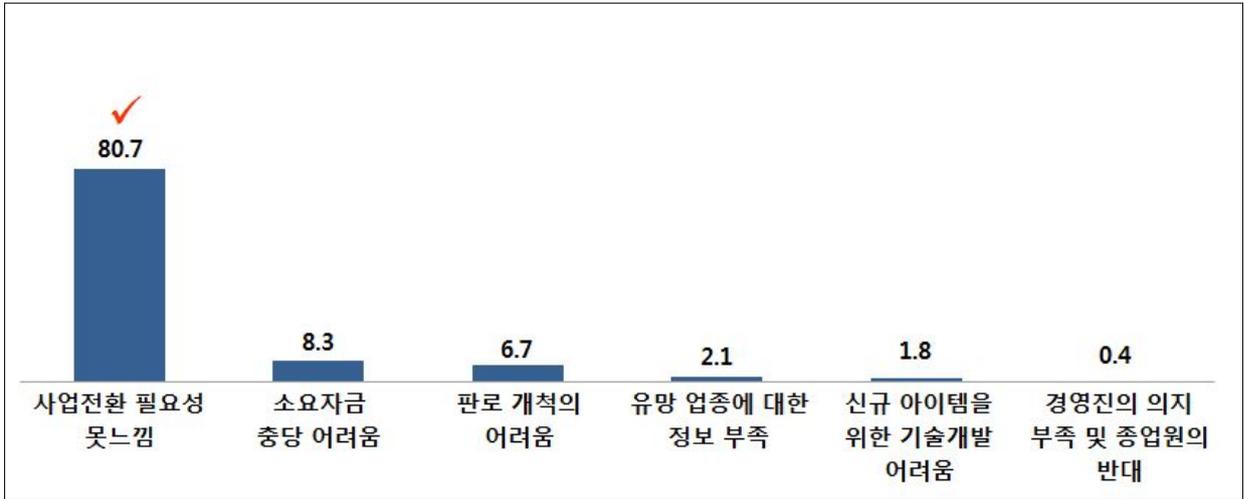
※ 과거 사업전환을 추진했거나 현재 진행 또는 계획이 있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11. 사업전환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 향후 사업전환 계획이 없는 여성기업의 80.7%는 사업전환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사업전환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0) 사업전환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74.2%)과 비제조업(82.1%) 모두 향후 사업전환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 '사업전환 필요성 못느낌'을 꼽음
 - 한편, 비제조업의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소요자금 총당 어려움'에 대한 응답 비중 높은 편임
- 종사자 규모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사업전환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사업전환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수도권'(10.7%)과 '충청권'(9.3%)의 경우 향후 사업전환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사업전환 시 '소요자금 총당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35> 사업전환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단위: 개사 %)

구 분		사 례 수	사업전환의 필요성을 못 느낌	사업전환시 소요자금 충당이 어려움	업종전환시 판로 개척의 어려움	유망 업종에 대한 정보 부족	신규 아이템을 위한 기술개발의 어려움	경영진의 의지 부족 및 종업원의 반대	
전 체		38,146	80.7	8.3	6.7	2.1	1.8	0.4	
대분	제조업	6,523	74.2	11.2	8.2	3.0	3.2	0.3	
	비제조업	31,622	82.1	7.7	6.4	1.9	1.5	0.5	
세부업종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767	75.1	5.5	7.1	4.1	8.1	0.0
		섬유/의복/가방/신발	693	73.9	8.0	8.0	6.7	3.4	0.0
		기타 제조	5,063	74.0	12.5	8.3	2.3	2.5	0.4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31	82.8	8.5	4.6	2.4	0.0	1.7
		건설업	7,602	81.4	7.7	6.3	2.3	1.7	0.7
		도매 및 소매업	10,070	82.2	8.8	6.5	1.2	1.0	0.3
		운수업	1,792	93.1	1.4	2.4	3.0	0.0	0.2
		숙박 및 음식점업	939	83.0	7.6	3.5	2.7	1.4	1.9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486	74.1	10.3	5.8	1.0	8.5	0.3
		금융 및 보험업	731	78.3	2.7	10.7	6.5	1.7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551	79.5	9.3	7.3	3.4	0.5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955	73.5	11.9	10.2	2.2	0.8	1.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233	84.6	4.5	8.2	0.9	1.6	0.3
		교육 서비스업	802	87.7	7.1	3.3	1.9	0.0	0.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05	90.4	4.0	2.8	2.7	0.0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7	89.9	5.4	3.6	1.0	0.0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19	85.9	6.1	3.5	3.4	1.1	0.0		
종사자규모별	5인 미만	19,997	78.6	9.6	7.8	1.8	1.9	0.3	
	5 ~ 19인	14,889	82.5	7.2	5.6	2.6	1.5	0.6	
	20 ~ 49인	2,333	84.5	6.1	4.6	1.6	2.6	0.6	
	50 ~ 99인	570	87.0	3.6	5.6	3.4	0.4	0.0	
	100인 이상	356	89.0	1.7	7.1	0.6	0.6	1.0	
권역별	수도권	23,451	77.0	10.7	7.9	1.9	2.1	0.4	
	경남권	5,946	89.7	2.7	4.0	2.4	0.8	0.3	
	경북권	3,128	92.6	2.2	1.9	1.2	1.6	0.5	
	전라권	2,951	83.5	5.3	6.2	2.5	1.6	0.9	
	충청권	2,670	76.5	9.3	8.9	3.5	1.5	0.2	

※ 향후 사업전환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제4절

경영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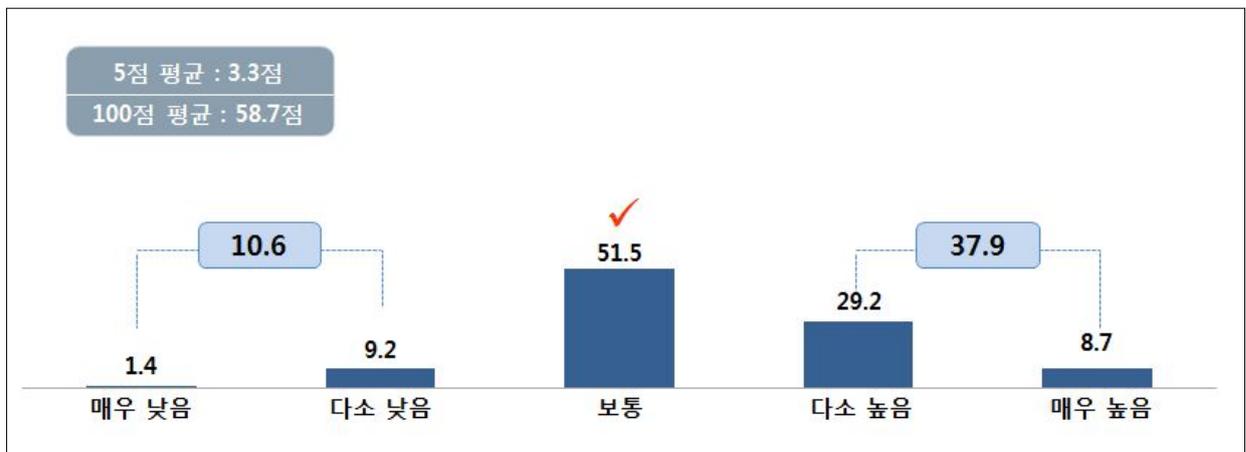
1 시장경쟁 및 경영상황

가. 주력분야의 시장경쟁 정도

- 여성기업의 주력분야에 대한 시장경쟁 정도를 보면, '높다(다소 높음+매우 높음)'는 응답은 37.9%, '낮다(매우 낮음+다소 낮음)'는 응답은 10.6%로, 시장경쟁 정도가 높다는 응답이 27.3%p 더 높게 나타남

(그림 31) 주력분야의 시장경쟁 정도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32.2%)에 비해 비제조업(39.1%)에서 주력분야의 시장경쟁 정도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기타 제조'(32.6%), 비제조업 중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58.9%)에서 주력분야의 경쟁 정도가 '높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 종사자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경쟁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표 36> 주력분야의 시장경쟁 정도

(단위: 개사,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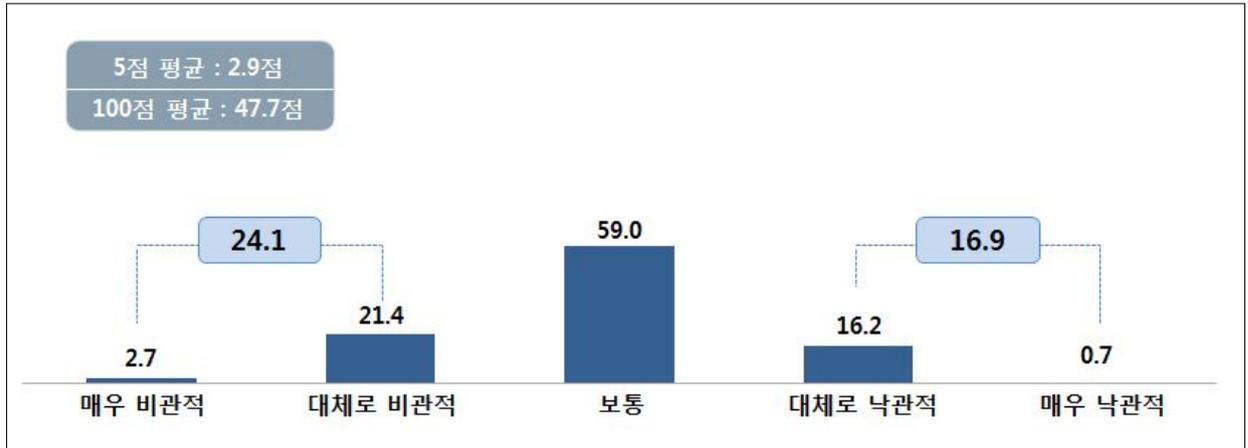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① 매우 낮음	② 다소 낮음	③ 보통	④ 다소 높음	⑤ 매우 높음	①+② 낮음	④+⑤ 높음	100점 평균 (점)	
전체		42,118	1.4	9.2	51.5	29.2	8.7	10.5	37.9	58.7	
부	제조업	7,459	0.9	7.6	59.3	26.3	5.9	8.5	32.2	57.2	
	비제조업	34,659	1.4	9.5	49.9	29.8	9.3	11.0	39.1	59.0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1.9	5.2	62.6	25.7	4.5	7.1	30.3	56.4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0.0	18.0	50.2	25.1	6.6	18.0	31.8	55.1
		기타 제조	5,822	0.9	6.5	60.1	26.6	6.0	7.3	32.6	57.6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2.9	7.4	50.3	27.0	12.4	10.3	39.4	59.7
		건설업	8,211	0.4	8.6	48.9	28.3	13.8	8.9	42.1	61.7
		도매 및 소매업	10,963	2.0	10.4	51.7	29.5	6.5	12.3	36.0	57.0
		운수업	1,954	1.9	15.4	52.0	23.7	6.9	17.3	30.7	54.6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3.0	8.1	52.1	28.9	7.9	11.1	36.8	57.6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6	10.7	44.3	33.8	9.7	12.2	43.5	59.8
		금융 및 보험업	769	2.1	5.7	53.1	28.0	11.2	7.8	39.1	60.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2.6	9.5	57.9	25.5	4.6	12.0	30.1	5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1.1	9.6	48.6	31.6	9.1	10.7	40.8	59.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0.8	8.6	42.0	36.5	12.1	9.4	48.6	62.7
		교육 서비스업	891	3.1	3.0	50.0	35.7	8.3	6.0	44.0	60.8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1.2	10.1	29.8	49.2	9.7	11.3	58.9	64.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0.0	10.9	41.7	39.2	8.2	10.9	47.4	61.2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0	9.0	64.5	20.9	4.6	10.1	25.5	54.7
		중	5인 미만	22,217	1.6	10.6	49.9	28.3	9.7	12.1	38.0
5 ~ 19인	16,213		1.1	7.7	54.4	29.5	7.2	8.8	36.8	58.5	
20 ~ 49인	2,634		1.0	7.3	49.2	33.7	8.8	8.2	42.5	60.5	
50 ~ 99인	628		0.0	9.4	47.3	34.7	8.7	9.4	43.3	60.6	
100인 이상	426		3.3	5.3	49.4	30.1	12.0	8.6	42.0	60.5	
권	수도권	26,182	1.7	9.5	53.1	27.8	7.9	11.2	35.6	57.6	
	경남권	6,429	1.0	6.8	51.6	33.8	6.9	7.8	40.7	59.7	
	경북권	3,348	0.1	10.6	48.8	31.2	9.1	10.8	40.4	59.7	
	전라권	3,236	0.4	8.4	46.3	28.3	16.6	8.8	44.9	63.1	
	충청권	2,923	1.4	10.8	46.3	30.6	11.0	12.2	41.6	59.7	

나. 주력분야 시장전망 예상

- 여성기업의 주력분야에 대한 내년 시장전망에 대해서 ‘비관적’(매우 비관적+대체로 비관적)이라는 예상이 24.1%로, ‘낙관적’(대체로 낙관적+매우 낙관적, 16.9%)이라는 예상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 32) 주력분야의 시장전망 예상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16.8%)보다 비제조업(25.6%)에서 주력 분야의 시장전망을 ‘비관적’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 더 많음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28.0%), 비제조업 중 ‘건설업’(35.4%)에서 주력분야의 시장전망을 ‘비관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제조업 중 ‘식품/음료 제조’(26.3%), 비제조업 중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27.6%)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력분야의 시장전망을 낙관적으로 예상하는 기업 비중이 높은 편임
- 종사자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27.4%), 권역별로는 ‘경북권’(35.4%)에서 시장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비율이 높음

<표 37> 주력분야의 시장전망 예상

(단위: 개사,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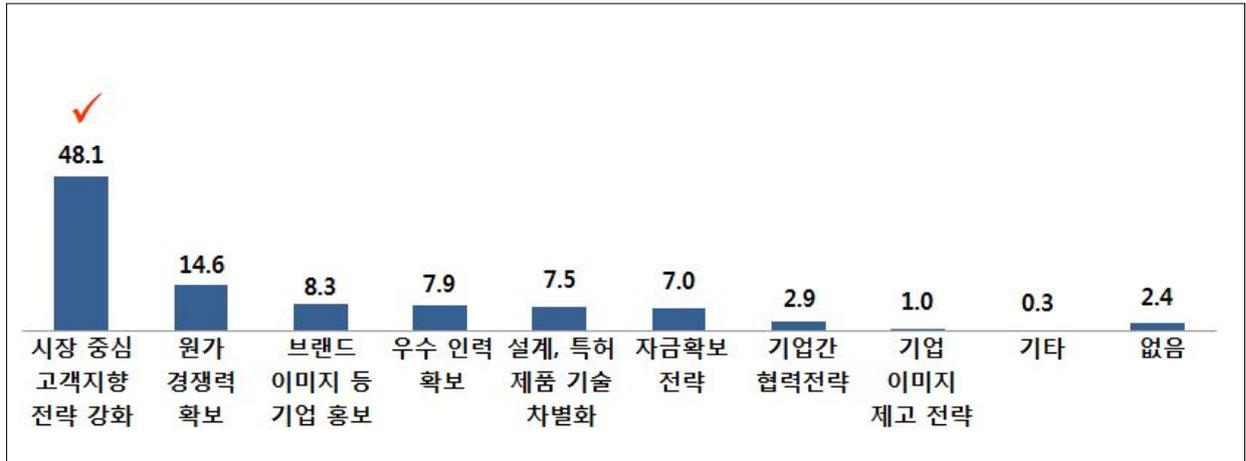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① 매우 비관적	② 대체로 비관적	③ 보통	④ 대체로 낙관적	⑤ 매우 낙관적	①+② 비관적	④+⑤ 낙관적	100점 평균 (점)	
전 체		42,118	2.7	21.4	59.1	16.2	0.7	24.1	16.9	47.7	
부	제조업	7,459	1.5	15.3	64.8	17.9	0.5	16.8	18.4	50.1	
	비제조업	34,659	3.0	22.7	57.8	15.8	0.8	25.6	16.5	47.2	
세 파 업 종 류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1.6	13.6	58.5	24.9	1.4	15.2	26.3	52.7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0.7	27.2	48.1	23.9	0.0	28.0	23.9	48.8
		기타 제조	5,822	1.6	13.9	68.0	16.1	0.4	15.5	16.5	50.0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2.0	27.2	53.7	17.1	0.0	29.2	17.1	46.5
		건설업	8,211	4.4	31.0	52.4	12.2	0.0	35.4	12.2	43.1
		도매 및 소매업	10,963	2.7	18.6	60.3	16.7	1.7	21.3	18.4	49.0
		운수업	1,954	3.3	30.1	54.4	12.1	0.0	33.4	12.1	43.8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1.8	25.7	49.8	21.5	1.2	27.5	22.7	48.6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2.4	19.3	68.1	9.6	0.6	21.7	10.2	46.7
		금융 및 보험업	769	0.5	23.2	64.3	12.1	0.0	23.7	12.1	47.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2.4	22.1	64.7	10.8	0.0	24.5	10.8	46.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3.6	19.1	63.2	13.0	1.0	22.8	14.0	47.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2.2	18.2	52.0	26.8	0.8	20.4	27.6	51.4
		교육 서비스업	891	1.2	17.0	54.9	26.1	0.7	18.3	26.8	52.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2.4	13.4	57.5	26.7	0.0	15.8	26.7	52.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2.9	29.3	48.6	18.2	1.0	32.2	19.2	46.2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2	8.3	76.5	14.0	0.0	9.5	14.0	50.8
		중 사 자 구 분	5인 미만	22,217	3.3	22.9	58.2	14.6	1.1	26.2	15.6
5 ~ 19인	16,213		2.1	19.5	60.5	17.6	0.3	21.6	17.9	48.6	
20 ~ 49인	2,634		2.2	19.3	58.5	19.7	0.3	21.5	20.0	49.1	
50 ~ 99인	628		0.4	19.9	60.3	19.4	0.0	20.3	19.4	49.7	
100인 이상	426		1.1	26.3	54.4	17.7	0.5	27.4	18.2	47.6	
권 역 구 분	수도권	26,182	3.3	18.8	59.8	17.1	0.9	22.1	18.0	48.4	
	경남권	6,429	1.5	20.2	61.7	16.5	0.0	21.7	16.6	48.4	
	경북권	3,348	2.2	33.2	55.4	8.5	0.8	35.4	9.3	43.1	
	전라권	3,236	1.2	29.5	49.9	18.4	0.9	30.8	19.3	47.0	
	충청권	2,923	2.2	24.0	60.8	12.9	0.1	26.2	13.0	46.2	

다. 여성기업의 중점 전략

- 여성기업은 '시장 중심의 고객지향전략 강화'(48.1%)에 주로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원가 경쟁력 확보'(14.6%), '브랜드 이미지 등 기업 홍보'(8.3%)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 여성기업의 중점 전략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42.6%)과 비제조업(49.3%) 모두 '시장 중심의 고객지향 전략 강화'를 주요 중점 전략으로 꼽음
 - 한편, 제조업(21.6%)의 경우, '구매원가 절감 등을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식품/음료 제조'(55.3%), 비제조업 중 '금융 및 보험업'(62.9%)에서 '시장 중심의 고객지향 전략 강화'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20.0%), 비제조업 중 '교육 서비스업'(25.4%)은 '브랜드 이미지 등 기업 홍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8> 여성기업의 중점 전략(1/2)

(단위: 개사 %)

구분		사례 수	시장 중심의 고객지향 전략 강화	구매원가 절감 등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브랜드 이미지 등 기업 홍보	우수 인력 확보	설계, 특허 등 제품 기술 차별화	자금확보 전략	
전체		42,118	48.1	14.6	8.3	7.9	7.5	7.0	
부	제조업	7,459	42.6	21.6	7.8	5.4	13.9	3.9	
	비제조업	34,659	49.3	13.1	8.5	8.4	6.2	7.7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55.3	21.8	6.1	3.8	8.6	2.1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36.9	21.9	20.0	3.7	4.9	9.7
		기타 제조	5,822	41.6	21.5	6.3	5.9	15.9	3.3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45.3	16.0	4.1	6.9	1.9	9.5
		건설업	8,211	45.5	15.3	6.5	9.5	7.7	5.3
		도매 및 소매업	10,963	48.6	17.7	8.3	5.2	5.2	10.7
		운수업	1,954	60.7	9.3	6.1	5.5	2.7	6.7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59.2	12.4	11.1	4.2	2.3	5.3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52.0	11.4	6.5	11.4	9.2	4.6
		금융 및 보험업	769	62.9	5.4	4.3	10.8	1.9	8.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55.8	8.5	9.5	7.1	2.4	9.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36.7	11.1	7.8	12.2	18.1	8.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54.7	5.1	10.5	11.2	3.9	7.0
		교육 서비스업	891	43.0	3.2	25.4	18.2	5.2	3.1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60.1	1.4	7.4	9.0	3.8	1.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41.9	10.4	17.7	8.3	5.3	9.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47.7	13.4	12.4	16.9	1.2	4.8		
중	5인 미만	22,217	49.2	14.1	9.2	7.4	5.6	7.8	
	5 ~ 19인	16,213	46.5	15.5	7.1	8.4	9.9	6.5	
	20 ~ 49인	2,634	47.8	14.7	7.6	8.1	8.8	4.9	
	50 ~ 99인	628	49.6	12.4	12.1	6.9	8.0	4.4	
	100인 이상	426	46.1	10.5	8.0	13.7	6.7	7.7	
대	수도권	26,182	45.2	15.9	8.1	10.0	7.8	8.9	
	경남권	6,429	58.6	11.6	6.0	3.9	5.6	4.1	
	경북권	3,348	52.3	10.2	6.2	5.0	8.4	3.8	
	전라권	3,236	46.8	15.2	15.0	3.8	6.8	4.1	
	충청권	2,923	47.6	14.5	10.5	5.5	9.4	3.3	

<표 39> 여성기업의 중점 전략(2/2)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수급 기업과 공동기술개발 등 기업간 협력전략	CSR, 환경경영 등 기업 이미지 제고 전략	기타	중점 전략 없음	
전 체		42,118	2.9	1.0	0.3	2.4	
부	제조업	7,459	2.5	0.5	0.0	1.9	
	비제조업	34,659	3.0	1.1	0.3	2.5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1.0	0.8	0.0	0.5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2.6	0.0	0.0	0.4
		기타 제조	5,822	2.7	0.5	0.0	2.3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2.4	3.2	0.8	9.9
		건설업	8,211	6.1	0.6	0.6	3.0
		도매 및 소매업	10,963	1.5	0.5	0.5	1.8
		운수업	1,954	2.4	2.3	0.0	4.3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1.1	2.3	0.0	2.2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4.3	0.6	0.0	0.0
		금융 및 보험업	769	3.3	0.5	0.0	2.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2.9	1.5	0.3	2.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2.3	2.0	0.0	1.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2.0	2.2	0.1	3.4
		교육 서비스업	891	0.0	0.7	0.0	1.2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2.4	7.3	0.0	7.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0	2.3	0.0	4.1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7	0.0	0.0	2.0
		중	5인 미만	22,217	2.5	1.0	0.2
5 ~ 19인	16,213		3.3	0.8	0.3	1.7	
20 ~ 49인	2,634		3.7	1.8	0.1	2.4	
50 ~ 99인	628		3.1	1.8	0.0	1.6	
100인 이상	426		2.7	3.2	0.5	1.0	
사	수도권	26,182	2.0	0.6	0.1	1.4	
	경남권	6,429	2.4	1.9	1.3	4.5	
	경북권	3,348	10.1	1.6	0.1	2.3	
	전라권	3,236	3.6	1.0	0.0	3.6	
	충청권	2,923	2.5	1.9	0.0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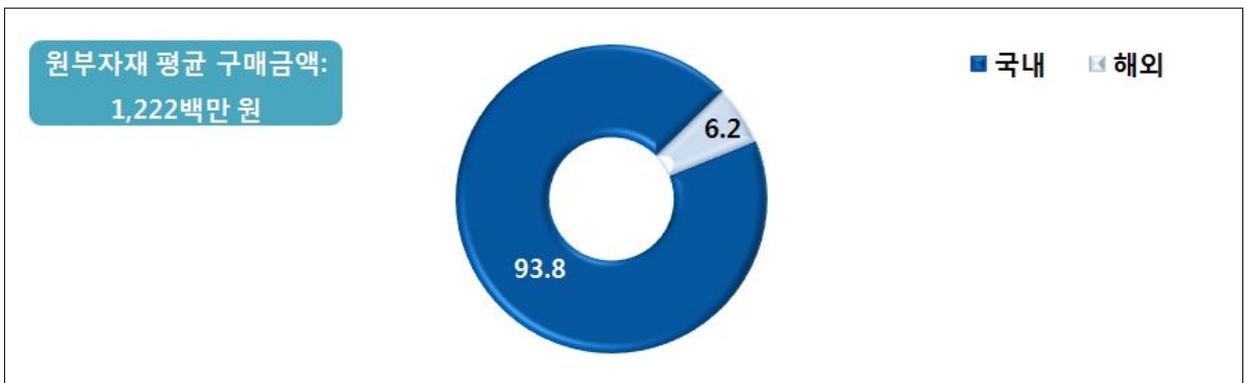
2 구매 활동

가. 원부자재 구매금액 및 국내/해외 구매 비중

- 여성기업의 원부자재 구매 총액은 18,192,241백만원이며, 평균 구매금액은 1,222백만원으로 나타남
- 원부자재 국내/해외 구매비중은 국내구매의 경우 93.8%, 해외구매의 6.2%로, 국내구매 비중이 87.6%p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 원부자재 평균 구매금액 및 국내/해외 구매 비중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보면, 원부자재 평균 구매 금액은 제조업의 경우 1,520백만원, 비제조업은 1,060백만원으로 나타남
- 원부자재의 국내 구매 비중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각각 95.2%와 93.1%로,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국내 원자재 구매 비율이 2.1%p 높음
 - 제조업 중 '식품/음료 제조'(97.2%), 비제조업 중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99.7%), '교육 서비스업'(99.1%)은 업종 특성상, 원부자재의 국내 구매 비중이 높음
 - 반면, 원부자재의 해외 구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제조(11.4%)와 비제조업 중 '도매 및 소매업'(11.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0.0%)으로 나타남

<표 40> 원부자재 평균 구매금액 및 국내/해외 구매 비중

(단위: 개사 백만원 %)

구 분		사례 수	원부자재 총구매 금액		원 부자재 구매 비중		
			총액	기업체 당 평균	국내	해외	
전 체		20,480	18,192,241	1,222	93.8	6.2	
전 부	제조업	6,808	7,944,755	1,520	95.2	4.8	
	비제조업	13,672	10,247,486	1,060	93.1	6.9	
세 부 전 체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731	947,831	1,646	97.2	2.8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634,159	1,394	88.6	11.4
		기타 제조	5,275	6,362,766	1,517	95.8	4.2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09	116,371	1,532	95.8	4.2
		건설업	4,620	2,528,030	645	96.7	3.3
		도매 및 소매업	5,843	5,564,386	1,658	88.4	11.6
		운수업	567	561,574	1,477	93.5	6.5
		숙박 및 음식점업	428	260,073	768	96.8	3.2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269	43,753	272	90.5	9.5
		금융 및 보험업	113	48,069	780	93.9	6.1
		부동산업 및 임대업	273	232,920	1,190	98.1	1.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11	235,329	443	90.0	1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450	482,633	1,407	99.7	0.3
		교육 서비스업	137	36,619	329	99.1	0.9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23	15,188	874	93.3	6.7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6	46,578	666	93.6	6.4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42	75,962	734	95.2	4.8		
중 사 자 구 단	5인 미만	9,396	3,383,305	525	92.4	7.6	
	5 ~ 19인	9,052	7,264,873	1,079	95.2	4.8	
	20 ~ 49인	1,522	4,329,930	3,382	93.6	6.4	
	50 ~ 99인	313	1,724,448	6,251	95.2	4.8	
	100인 이상	196	1,489,685	9,603	91.3	8.7	
권 역	수도권	11,999	7,377,359	905	92.0	8.0	
	경남권	3,075	4,955,628	1,973	94.4	5.6	
	경북권	2,168	2,204,300	1,239	98.6	1.4	
	전라권	1,720	1,575,781	1,225	94.6	5.4	
	충청권	1,518	2,079,173	1,794	96.7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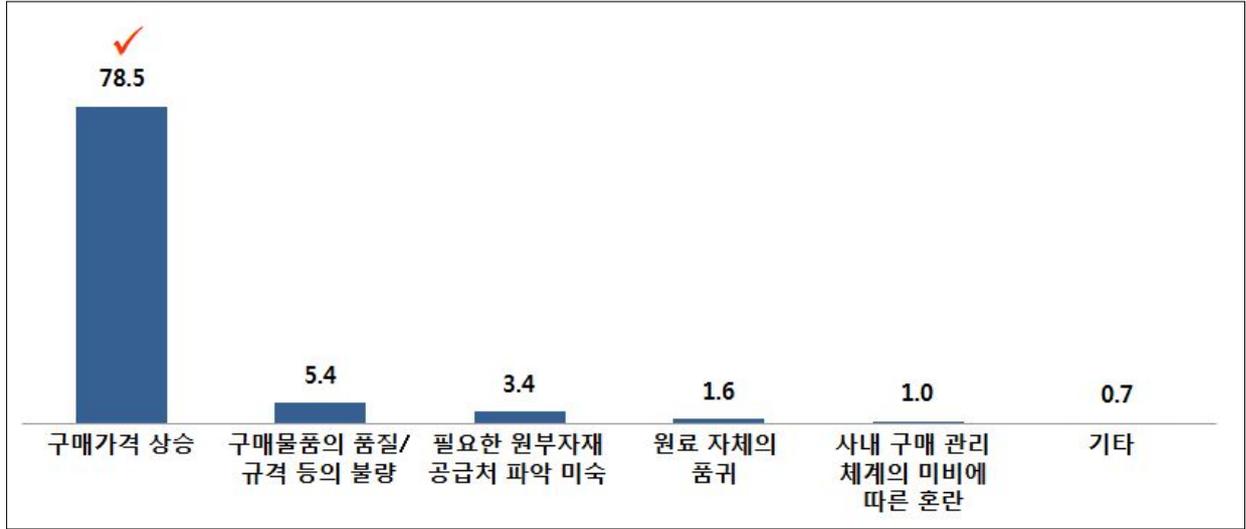
※ 원부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여성기업 제외 후 산출

나. 원부자재 구매 관련 애로사항

- 여성기업이 원부자재 구매 과정에서 겪는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구매 가격 상승’(78.5%)이 가장 높았고, ‘구매물품의 품질/규격 등의 불량’(5.4%),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처 파악 미숙’(3.4%) 등으로 나타남

(그림 35) 원부자재 구매 관련 애로사항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76.4%)과 비제조업(79.5%) 모두 ‘구매가격 상승’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77.5%), 비제조업 중 ‘숙박 및 음식점업’(91.5%)에서 ‘구매 가격 상승’ 응답이 높음
 - 한편, 제조업 중 ‘기타 제조’(6.6%), 비제조업 중 ‘운수업’(7.0%)은 타 업종 대비 ‘구매물품의 품질/규격 등의 불량’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는 ‘50 ~ 99인’(84.8%), 권역별로는 ‘경북권’(86.6%)에서 ‘구매 가격 상승’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 원부자재 구매 관련 애로사항(1/2)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구매가격 상승	구매물품의 품질/규격 등의 불량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처 파악 미속	원료 자체의 품귀	
전 체		20,480	78.5	5.4	3.4	1.6	
대분	제조업	6,808	76.4	5.7	4.5	1.7	
	비제조업	13,672	79.5	5.3	2.8	1.5	
세부업종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731	72.0	1.8	8.7	1.8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77.5	2.9	2.3	0.0
		기타 제조	5,275	76.9	6.6	4.2	2.0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09	84.1	3.2	0.0	8.0
		건설업	4,620	85.5	5.8	2.9	1.2
		도매 및 소매업	5,843	74.0	5.9	3.2	1.2
		운수업	567	81.3	7.0	0.0	1.4
		숙박 및 음식점업	428	91.5	0.0	1.4	1.5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269	60.0	4.0	7.4	0.0
		금융 및 보험업	113	79.0	0.0	4.9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73	72.7	5.8	0.0	1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11	86.0	4.4	1.8	1.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450	81.6	2.3	3.0	0.0
		교육 서비스업	137	86.1	0.0	0.0	0.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23	87.7	0.0	0.0	6.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6	69.4	5.0	0.0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42	74.3	3.7	3.7	6.0		
중사자규모별	5인 미만	9,396	74.9	5.2	4.7	1.8	
	5 ~ 19인	9,052	81.2	6.4	2.2	1.4	
	20 ~ 49인	1,522	83.1	2.5	2.1	1.4	
	50 ~ 99인	313	84.8	3.0	1.9	1.7	
	100인 이상	196	78.5	1.2	2.2	1.8	
권역별	수도권	11,999	75.6	8.0	3.5	1.5	
	경남권	3,075	83.8	1.5	2.6	2.3	
	경북권	2,168	86.6	1.0	5.2	0.4	
	전라권	1,720	74.9	2.6	2.9	1.5	
	충청권	1,518	82.6	2.6	2.0	2.3	

※ 원부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여성기업 제외 후 산출

<표 42> 원부자재 구매 관련 애로사항(2/2)

(단위: 개사 %)

구분		사례 수	사내 구매 관리 체계의 미비에 따른 혼란	기타	애로사항 없음	모름/무응답	
전체		20,480	1.0	0.7	2.9	6.7	
대분	제조업	6,808	1.5	0.7	3.0	6.5	
	비제조업	13,672	0.7	0.7	2.8	6.7	
세부업종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731	1.2	0.0	7.2	7.2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0.0	0.7	1.6	14.9
		기타 제조	5,275	1.8	0.9	2.6	5.1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09	3.2	0.0	1.6	0.0
		건설업	4,620	0.0	0.5	3.0	1.2
		도매 및 소매업	5,843	0.8	0.4	1.6	12.8
		운수업	567	2.6	0.0	7.6	0.0
		숙박 및 음식점업	428	0.0	0.0	3.6	2.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269	4.0	0.0	0.0	24.5
		금융 및 보험업	113	3.2	4.9	8.1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73	0.0	0.0	3.9	3.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11	0.7	2.2	0.0	3.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450	1.8	3.0	8.3	0.0
		교육 서비스업	137	3.0	0.0	8.8	2.2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23	0.0	0.0	6.2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6	0.0	3.0	17.5	5.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42	1.9	3.7	6.7	0.0		
중사자규모별	5인 미만	9,396	0.7	0.9	3.0	8.8	
	5 ~ 19인	9,052	1.2	0.5	2.4	4.8	
	20 ~ 49인	1,522	1.9	0.4	4.1	4.7	
	50 ~ 99인	313	0.0	1.4	4.6	2.5	
	100인 이상	196	1.1	0.0	5.3	9.9	
지역별	수도권	11,999	1.0	0.6	0.0	9.8	
	경남권	3,075	1.2	1.3	6.8	0.5	
	경북권	2,168	0.3	0.2	6.0	0.3	
	전라권	1,720	1.0	1.2	10.5	5.6	
	충청권	1,518	1.1	0.5	4.5	4.4	

※ 원부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여성기업 제외 후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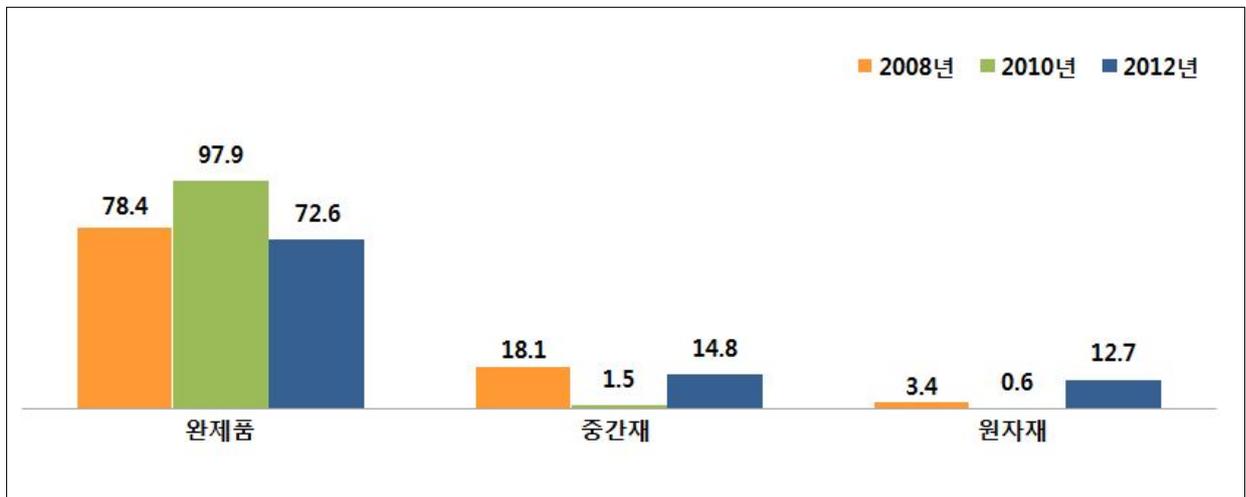
3 생산 활동

가. 생산(판매) 제품의 구성비

- 여성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 중 '완제품'의 비중은 평균 7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간재'(14.8%)와 '원자재'(12.7%)의 순으로 나타남
- 과거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12년 여성기업체 조사에서도 제품 형태별 구성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완제품'의 평균 생산비율은 2010년 대비 25.3%p 낮으며 '중간재'와 '원자재'는 각각 13.3%p, 12.1%p 더 높게 나타남

(그림 36) 생산(판매) 제품의 구성비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완제품'(66.6%), '중간재'(20.7%), '원자재'(12.7%) 순인 반면, 비제조업은 '완제품'(76.3%), '원자재'(12.7%), 중간재(11.1%) 순임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식품/음료 제조'(82.1%), 비제조업 중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93.9%)에서 '완제품'의 생산 비중이 높은 편임
- '중간재' 형태는 제조업 중 '기타제조'(23.8), 비제조업 중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27.2%)에서 높음
- '원자재' 형태는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17.6%), 비제조업 중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24.7%)에서 높게 나타남

<표 43> 생산(판매) 제품의 구성비

(단위: 개사 %)

구분		사례 수	완제품	중간재 (부품포함)	원자재	
전체		19,463	72.6	14.8	12.7	
대분	제조업	7,459	66.6	20.7	12.7	
	비제조업	12,004	76.3	11.1	12.7	
세부업종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82.1	6.1	11.7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69.1	13.4	17.6
		기타 제조	5,822	64.0	23.8	12.2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77	49.4	25.9	24.7
		건설업	2,718	66.8	16.7	16.5
		도매 및 소매업	6,759	80.0	7.8	12.3
		운수업	379	78.9	17.1	4.0
		숙박 및 음식점업	264	81.4	10.0	9.1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425	93.9	4.1	1.9
		금융 및 보험업	101	88.8	7.6	3.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9	73.8	14.8	11.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56	61.3	16.5	22.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294	74.4	14.6	11.0
		교육 서비스업	116	73.9	15.6	10.5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87.4	12.6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3	87.0	10.1	2.9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42	69.5	27.2	3.3		
중사자규모별	5인 미만	9,281	72.9	12.9	14.2	
	5 ~ 19인	8,237	72.2	15.6	12.2	
	20 ~ 49인	1,441	71.6	21.0	7.5	
	50 ~ 99인	319	76.8	14.1	9.1	
	100인 이상	185	70.3	22.5	7.2	
지역별	수도권	12,392	71.8	13.1	15.1	
	경남권	2,678	79.9	18.4	1.7	
	경북권	1,338	71.4	19.6	9.0	
	전라권	1,572	72.4	13.8	14.0	
	충청권	1,483	66.9	18.6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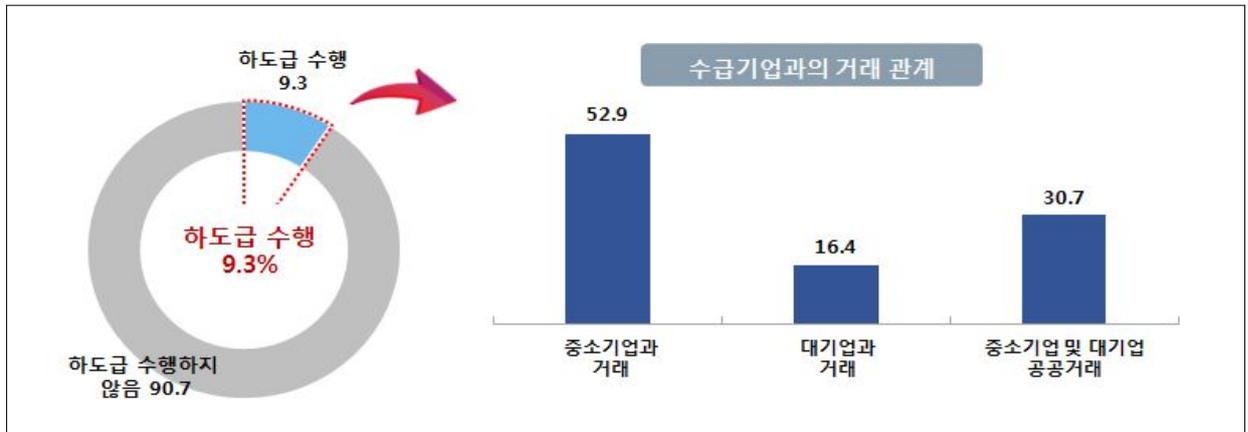
※ 생산(판매)하는 제품 구성과 관련하여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여성기업은 제외 후 산출

나. 하도급 수행 관련

- 타기업의 주문을 받아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납품하는 하도급 수행 여성기업은 9.3%로, 대부분의 여성기업은 하도급 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기업 중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은 52.9%, 대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은 16.4%, 두 곳 모두 거래하는 기업은 30.7%로 나타남

(그림 37) 하도급 수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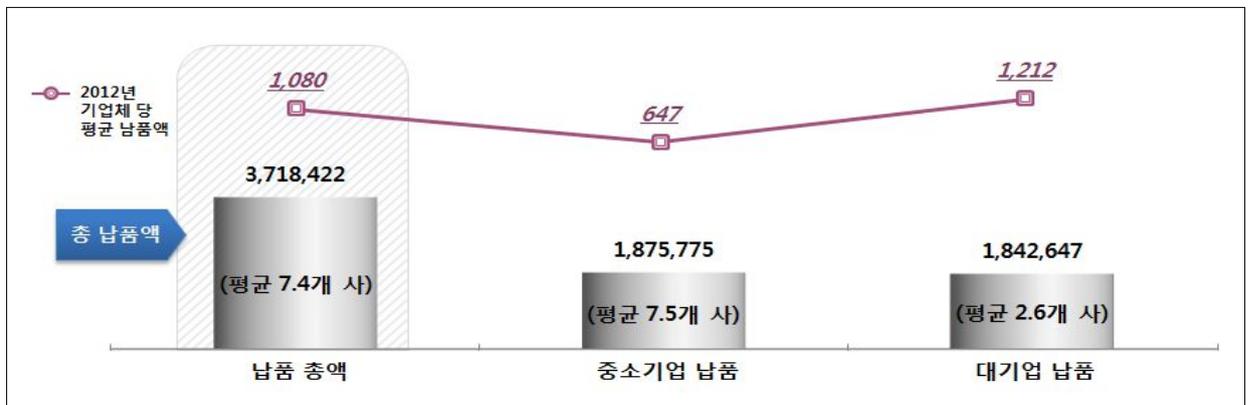
(단위: %)



- 2012년 하도급을 수행하는 여성기업의 평균 수급기업 수는 7.4개사였으며, 납품 총액은 3,718,422백만원, 기업체 당 평균 납품액은 1,080백만원임. 그 중 중소기업 납품은 평균 7.5개사(평균 647백만원)인 반면, 대기업 납품은 평균 2.6개사(평균 1,212백만원)로 나타남

(그림 38) 하도급 수행 위탁기업 수 및 납품액

(단위: 백만원)



<표 44> 하도급 수행 여부 및 수급기업과의 거래 관계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하도급 수행 여부		사례 수	수급기업과의 거래			
			없음	있음		중소기업과 거래	대기업과 거래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공동 거래	
전 체		42,118	90.7	9.3	3,926	52.9	16.4	30.7	
연 구	제조업	7,459	85.7	14.3	1,070	60.3	15.1	24.6	
	비제조업	34,659	91.8	8.2	2,856	50.2	16.9	33.0	
세 부 업 종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91.2	8.8	74	37.7	26.6	35.7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82.6	17.4	139	57.8	20.6	21.6
		기타 제조	5,822	85.3	14.7	857	62.7	13.2	24.1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93.2	6.8	31	12.8	35.1	52.1
		건설업	8,211	83.3	16.7	1,372	52.8	21.6	25.6
		도매 및 소매업	10,963	93.7	6.3	686	49.1	7.1	43.8
		운수업	1,954	92.6	7.4	144	25.9	18.3	55.9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94.7	5.3	54	42.8	10.7	46.5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98.5	1.5	26	52.8	29.7	17.6
		금융 및 보험업	769	98.3	1.7	13	28.5	43.0	28.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95.9	4.1	71	51.8	10.9	3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90.7	9.3	223	41.7	20.8	37.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94.7	5.3	183	71.8	11.1	17.1
		교육 서비스업	891	98.0	2.0	18	66.7	0.0	33.3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96.2	3.8	4	64.0	0.0	36.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95.4	4.6	15	50.0	0.0	5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97.8	2.2	15	34.9	46.8	18.3		
중 사 자 구 모	5인 미만	22,217	91.9	8.1	1,796	56.7	10.4	32.9	
	5 ~ 19인	16,213	89.5	10.5	1,702	52.0	18.6	29.3	
	20 ~ 49인	2,634	87.2	12.8	336	39.6	35.1	25.3	
	50 ~ 99인	628	91.3	8.7	55	42.9	16.4	40.7	
	100인 이상	426	91.1	8.9	38	47.2	34.9	17.8	
별 도 권	수도권	26,182	92.8	7.2	1,885	52.9	13.8	33.3	
	경남권	6,429	87.5	12.5	803	50.0	12.1	37.9	
	경북권	3,348	79.5	20.5	686	54.6	30.6	14.8	
	전라권	3,236	89.3	10.7	345	56.3	15.9	27.8	
	충청권	2,923	92.9	7.1	207	53.0	10.7	36.3	

※ '수급기업과의 거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하도급 거래가 있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표 45> 하도급 수행 위탁기업 수 및 납품액(1/2)

(단위: 개사, 백만원)

구 분		사례 수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납품 거래			
			평균 위탁기업 개수	납품 총액	기업체 당 평균 납품액	
전 체		3,926	7.4	3,718,422	1,080	
면	제조업	1,070	9.3	2,046,205	2,249	
	비제조업	2,856	6.7	1,672,217	660	
세 부 업 종 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74	4.7	49,931	744
		섬유/의복/가방/신발	139	19.8	201,128	1,923
		기타 제조	857	7.9	1,795,146	2,432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31	6.9	30,462	1,389
		건설업	1,372	7.6	1,073,429	832
		도매 및 소매업	686	5.7	299,914	559
		운수업	144	4.2	31,878	221
		숙박 및 음식점업	54	4.9	11,567	271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26	4.5	21,433	1,019
		금융 및 보험업	13	2.7	2,001	220
		부동산업 및 임대업	71	5.5	9,057	1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23	4.8	59,659	32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83	8.9	113,199	661
		교육 서비스업	18	6.7	2,285	127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4	4.5	1,098	25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	5.9	5,794	388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	5.0	10,441	695		
총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1,796	5.6	564,995	359	
	5 ~ 19인	1,702	9.1	1,475,255	986	
	20 ~ 49인	336	7.0	1,060,041	3,515	
	50 ~ 99인	55	10.9	190,341	5,823	
	100인 이상	38	10.2	427,790	11,921	
권 역 별	수도권	1,885	9.3	1,644,185	1,057	
	경남권	803	4.9	755,430	980	
	경북권	686	6.0	587,025	917	
	전라권	345	7.8	590,159	1,911	
	충청권	207	4.7	141,623	850	

※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하도급 거래가 있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표 46> 하도급 수행 위탁기업 수 및 납품액(2/2)

(단위: 개사, 백만원)

구분	사례 수	중소기업과 거래			사례 수	대기업과 거래				
		평균 위탁기업 개수	납품 총액	기업체 당 평균 납품액		평균 위탁기업 개수	납품 총액	기업체 당 평균 납품액		
전체	3,282	7.5	1,875,775	647	1,848	2.6	1,842,647	1,212		
부 문	제조업	908	9.7	1,056,090	1,385	425	3.1	990,115	2,966	
	비제조업	2,374	6.6	819,685	383	1,424	2.5	852,532	718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54	4.5	26,663	493	46	2.3	23,268	592
		섬유/의복/가방/신발	111	23.3	141,278	1,814	59	3.1	59,850	1,052
		기타 제조	744	8.0	888,148	1,408	320	3.2	906,998	3,818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20	10.2	5,069	462	27	2.2	25,394	1,415
		건설업	1,076	8.1	546,064	524	647	2.6	527,365	886
		도매 및 소매업	638	5.3	174,538	331	349	1.8	125,376	629
		운수업	118	3.4	12,389	105	107	1.8	19,489	183
		숙박 및 음식점업	48	4.4	5,370	146	31	1.6	6,196	2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8	2.5	3,367	250	12	5.9	18,066	1,498
		금융 및 보험업	7	1.0	436	120	9	3.0	1,566	172
		부동산업 및 임대업	63	5.3	6,422	122	34	1.6	2,635	1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7	4.1	8,834	65	130	3.0	50,825	44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63	8.5	49,196	326	52	4.7	64,003	1,238
		교육 서비스업	18	3.7	1,443	80	6	9.0	842	14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4	3.1	611	140	2	4.0	487	31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	5.0	3,331	223	7	1.8	2,463	329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	2.7	2,616	328	10	5.5	7,825	800		
종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1,609	5.3	373,264	264	778	2.2	191,731	317	
	5 ~ 19인	1,385	9.5	810,378	658	816	3.0	664,878	948	
	20 ~ 49인	218	8.7	397,203	1,967	203	2.4	662,837	3,674	
	50 ~ 99인	46	10.9	119,373	4,131	31	3.2	70,968	4,412	
	100인 이상	25	10.9	175,558	7,121	20	5.9	252,232	14,020	
관 역 별	수도권	1,624	9.6	959,183	710	887	2.4	685,002	1,082	
	경남권	706	4.0	318,062	459	401	2.7	437,368	1,155	
	경북권	476	6.5	285,585	631	312	3.3	301,440	1,063	
	전라권	290	8.1	232,717	906	151	2.6	357,442	2,536	
	충청권	185	4.3	80,228	548	97	1.9	61,396	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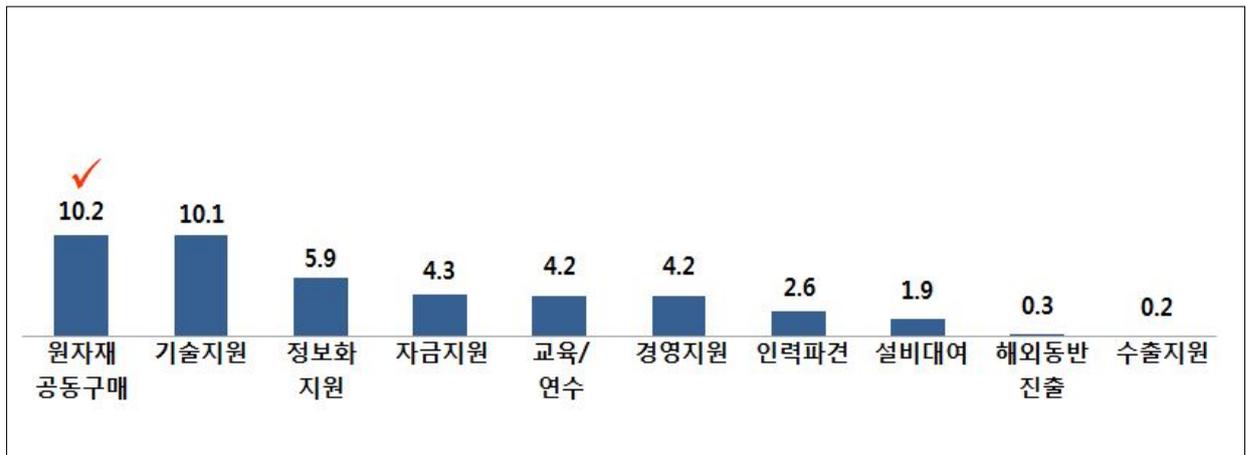
※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하도급 거래가 있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다. 거래 모기업의 지원 사항

- 2012년 하도급 수행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들이 거래 모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은 '원자재 공동구매'(10.2%), '기술지원'(10.1%) 및 '정보화 지원'(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9) 거래 모기업의 지원 사항(복수 응답)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거래 모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 제조업에서는 '기술지원'(13.7%), '원자재 공동구매'(8.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비제조업에서는 '원자재 공동구매'(10.9%), '기술지원'(8.7%) 등의 순임
- 종사자 규모별로는 '원자재 공동구매'에 대해서는 '5인 미만'(12.8%)에서 가장 높은 반면, '기술지원'에 대해서는 '100인 이상'(29.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7> 거래 모기업의 지원 사항(복수 응답)

(단위: 개사 %)

구분		사례 수	원자재 공동 구매	기술 지원	정보화 지원	자금 지원	교육/ 연수	경영 지원	인력 파견	설비 대여	해외 동반 진출	수출 지원	해당 없음 (지원 없음)	
전체		3,926	10.2	10.1	5.9	4.3	4.2	4.2	2.6	1.9	0.3	0.2	65.8	
부	제조업	1,070	8.1	13.7	5.4	6.0	3.4	4.8	2.0	1.6	1.1	0.3	63.1	
	비제조업	2,856	10.9	8.7	6.0	3.7	4.5	3.9	2.8	2.1	0.0	0.1	66.8	
세 부 업 종 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74	0.0	21.3	11.0	0.0	0.0	0.0	0.0	0.0	0.0	0.0	67.7
		섬유/의복/가방/신발	139	6.5	8.4	0.0	4.1	1.4	4.3	4.3	0.0	0.0	0.0	75.1
		기타 제조	857	9.0	13.9	5.8	6.8	4.0	5.3	1.8	2.0	1.3	0.3	60.8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31	5.8	5.8	5.8	0.0	11.2	0.0	0.0	11.2	0.0	0.0	71.8
		건설업	1,372	6.9	6.9	2.0	3.6	5.8	4.1	1.9	1.6	0.0	0.0	76.0
		도매 및 소매업	686	20.3	6.6	12.7	6.6	0.0	7.1	0.0	2.8	0.0	0.0	55.5
		운수업	144	13.3	17.1	0.0	0.0	0.0	0.0	0.0	0.0	0.0	0.0	69.6
		숙박 및 음식점업	54	21.4	0.0	21.4	0.0	0.0	0.0	0.0	0.0	0.0	0.0	57.2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26	0.0	35.2	35.2	0.0	0.0	0.0	17.6	0.0	0.0	0.0	47.2
		금융 및 보험업	13	0.0	0.0	0.0	0.0	0.0	0.0	43.0	0.0	0.0	0.0	57.0
		부동산업 및 임대업	71	15.0	0.0	15.0	0.0	15.0	0.0	0.0	0.0	0.0	0.0	54.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23	6.1	11.0	11.0	0.0	0.0	0.0	6.1	0.0	0.0	0.0	65.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83	7.3	26.1	0.0	5.7	14.6	1.2	14.6	7.3	0.0	0.0	51.9
		교육 서비스업	18	3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66.7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4	31.6	36.0	0.0	0.0	36.0	0.0	31.6	0.0	0.0	0.0	32.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	0.0	0.0	0.0	0.0	38.4	0.0	0.0	0.0	0.0	20.9	61.6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	0.0	0.0	0.0	0.0	0.0	34.9	18.3	0.0	0.0	0.0	46.8		
종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1,796	12.8	7.6	8.0	2.9	4.2	2.2	2.6	1.1	0.4	0.2	66.3	
	5 ~ 19인	1,702	7.6	12.5	3.5	5.9	3.8	5.6	2.3	2.7	0.0	0.0	66.1	
	20 ~ 49인	336	10.1	7.2	5.2	2.0	6.3	1.7	3.7	1.7	0.0	0.9	67.1	
	50 ~ 99인	55	11.5	19.8	14.3	4.1	4.1	38.2	4.1	4.1	8.3	0.0	35.1	
	100인 이상	38	0.0	29.4	5.8	17.6	5.3	6.0	0.0	5.8	0.0	0.0	59.6	
권 역 별	수도권	1,885	13.4	13.4	10.5	8.2	5.1	7.8	3.2	2.8	0.4	0.2	50.2	
	경남권	803	11.1	8.4	2.1	0.9	6.9	0.0	2.0	2.0	0.0	0.4	71.6	
	경북권	686	4.1	0.6	0.3	0.3	0.6	0.3	0.9	0.5	0.0	0.0	93.6	
	전라권	345	4.8	6.9	3.0	0.6	0.7	3.5	2.0	0.7	1.3	0.0	84.5	
	충청권	207	6.0	22.9	2.1	1.1	3.9	1.1	6.1	0.0	0.0	0.0	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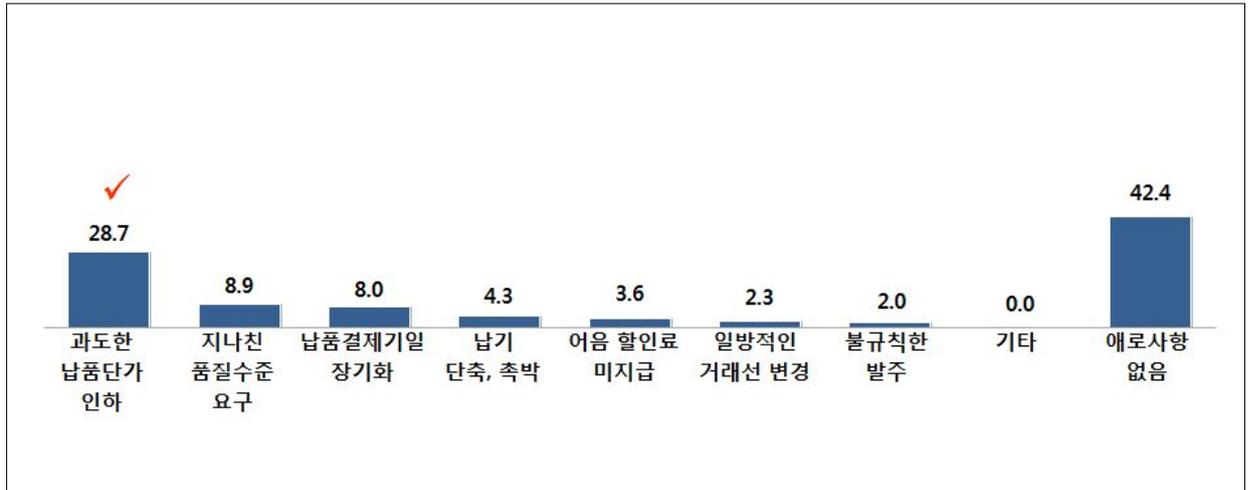
※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하도급 거래가 있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라. 거래 모기업으로부터 겪은 주된 애로사항

- 2012년 하도급 수행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이 거래 모기업으로부터 겪은 애로사항은 '과도한 납품 단가 인하'가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나친 품질수준 요구'(8.9%)와 '납품결제일 장기화'(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0) 거래 모기업으로부터 겪은 애로사항

(단위: %)



- 제조업(29.6%)과 비제조업(28.3%) 모두 거래 모기업과의 거래 시 애로사항으로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기타 제조'(31.5%), 비제조업에서 '금융 및 보험업'(57.0%)이 거래 대기업의 '과도한 납품 단가 인하'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다는 응답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교육서비스업은 하도급 거래시, '지나친 품질요구'(66.7%)에 대한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8> 거래 모기업으로부터 겪은 애로사항

(단위: 개사 %)

구분		사례 수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지나친 품질수준 요구	납품 결제기일 장기화	납기 단축, 촉박	어음 할인료 미지급	일방적인 거래선 변경	불규칙한 발주	애로 사항 없음	
전체		3,926	28.7	8.9	8.0	4.3	3.6	2.3	2.0	42.2	
부	제조업	1,070	29.6	9.8	7.7	4.9	0.9	3.1	2.9	41.1	
	비제조업	2,856	28.3	8.6	8.2	4.1	4.7	2.0	1.6	42.6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74	23.3	3.3	9.0	2.1	0.0	9.0	0.0	53.3
		섬유/의복/가방/신발	139	21.3	4.1	8.4	9.0	0.0	0.0	0.0	57.2
		기타 제조	857	31.5	11.3	7.5	4.5	1.1	3.1	3.6	37.4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31	35.1	0.0	0.0	0.0	0.0	12.8	0.0	52.1
		건설업	1,372	25.4	9.1	13.1	2.0	7.6	0.3	1.6	40.9
		도매 및 소매업	686	32.6	10.4	3.8	5.1	3.8	3.8	2.8	37.7
		운수업	144	36.8	6.9	0.0	5.1	0.0	0.0	0.0	51.2
		숙박 및 음식점업	54	21.4	10.7	0.0	0.0	0.0	0.0	0.0	67.9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26	35.2	12.1	0.0	0.0	0.0	17.6	17.6	17.6
		금융 및 보험업	13	57.0	0.0	0.0	0.0	0.0	0.0	0.0	43.0
		부동산업 및 임대업	71	30.1	0.0	0.0	0.0	0.0	0.0	0.0	69.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23	33.1	6.1	6.1	6.1	0.0	6.1	0.0	42.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83	22.0	1.2	7.3	16.3	0.0	2.1	0.0	51.1
		교육 서비스업	18	0.0	66.7	0.0	0.0	0.0	0.0	0.0	33.3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4	31.6	0.0	0.0	0.0	0.0	0.0	0.0	68.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	53.4	17.5	0.0	0.0	17.5	0.0	0.0	11.6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	0.0	0.0	0.0	18.3	0.0	0.0	0.0	81.7
중	5인 미만	1,796	32.0	8.7	10.5	4.5	6.4	2.8	0.4	34.6	
	5 ~ 19인	1,702	26.3	9.0	6.8	3.0	1.5	1.5	3.9	48.1	
	20 ~ 49인	336	20.1	9.7	2.6	10.5	0.9	2.9	0.9	52.4	
	50 ~ 99인	55	45.6	5.5	5.5	2.8	0.0	7.0	0.0	33.6	
	100인 이상	38	23.1	17.6	0.0	0.0	0.0	0.0	0.0	59.3	
관	수도권	1,885	30.9	10.7	11.5	4.1	2.0	4.2	2.2	34.5	
	경남권	803	20.3	8.1	6.5	7.3	9.5	0.8	3.3	44.3	
	경북권	686	34.6	6.4	4.4	1.9	4.0	0.6	0.0	48.1	
	전라권	345	20.8	8.2	2.8	4.4	0.0	0.0	2.0	61.8	
	충청권	207	34.0	6.0	3.4	2.1	1.3	0.0	1.4	51.8	

※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하도급 거래가 있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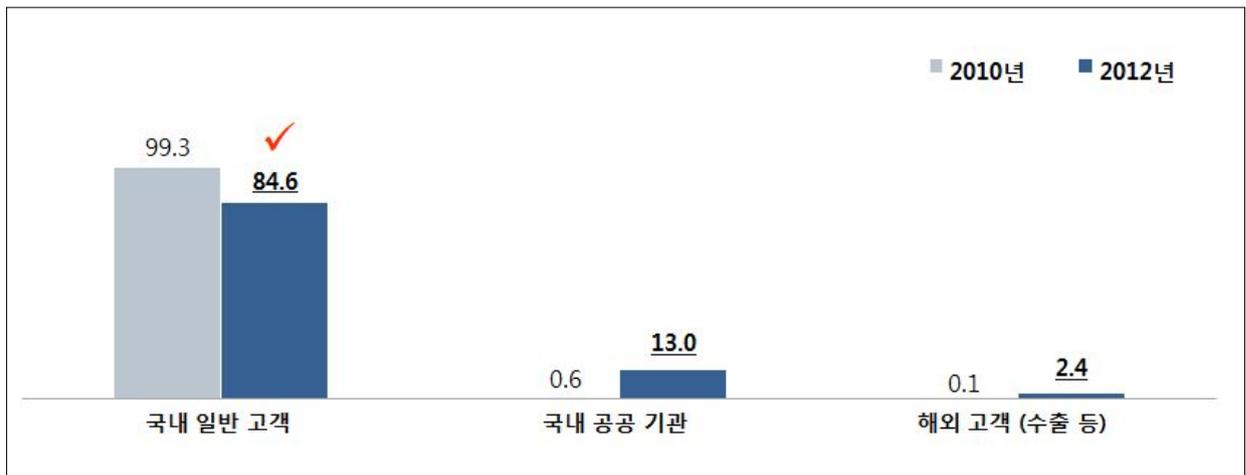
4 판매 활동

가. 여성기업의 국내외 고객별 매출액 구성비

- 여성기업의 고객별 매출액 구성비는 ‘국내 일반 고객’이 평균 84.6%로 가장 높으며, ‘국내 공공기관’(13.0%), ‘해외 고객(수출 등)’(2.4%)의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와 2012년 여성기업체 조사를 비교할 때, 고객별 매출 구성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 일반 고객’의 매출액 구성비는 14.7%p 낮은 반면, ‘국내 공공 기관’과 ‘해외 고객’의 매출 비중은 다소 높음

(그림 42) 고객별 매출 구성비

(단위: %(평균))



- 제조업(85.8%)과 비제조업(84.3%) 모두 ‘국내 일반고객’ 비중이 가장 높은 편임. 한편, ‘국내 공공기관’의 매출 구성비는 제조업(10.3%)보다 비제조업(13.6%)에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해외 고객’의 매출 비중은 비제조업(2.1%)보다 제조업(3.9%)에서 더 높음
- 세부업종별로, 제조업 중 ‘식품/음료 제조’(93.3%), 비제조업 중 ‘금융 및 보험업’(94.0%)에서는 ‘국내 일반고객’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 공공기관’의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기타 제조’(11.8%), ‘건설업’(27.3%)이며, ‘해외 고객’의 매출비중이 높은 업종은 ‘섬유/의복/가방/신발’제조업(9.8%)과 ‘도매 및 소매업’(4.0%)으로 나타남

<표 49> 고객별 매출 구성비

(단위: 개사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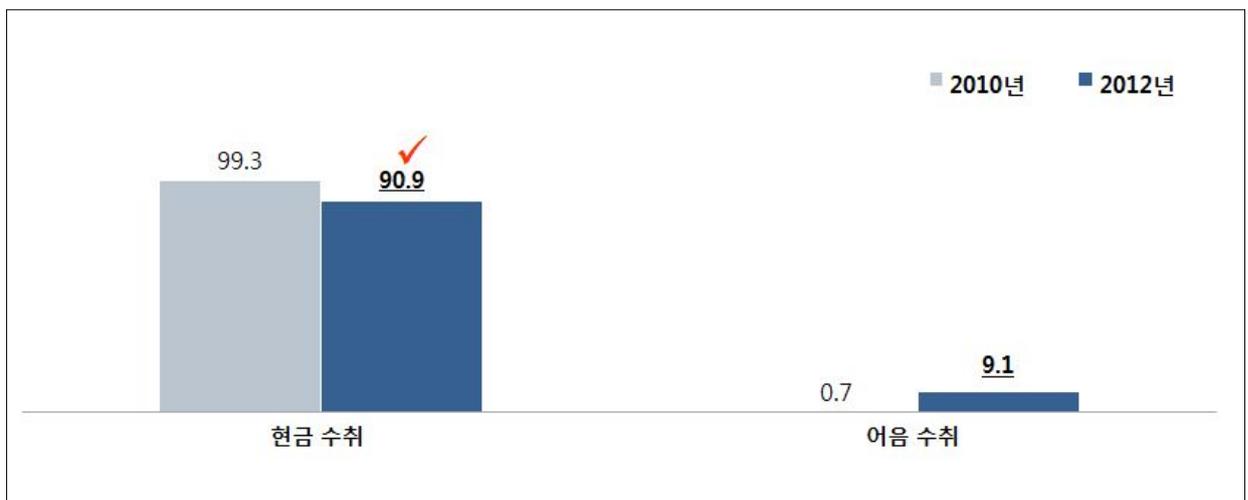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국내 일반 고객	국내 공공 기관	해외 고객 (수출 등)	
전 체		42,118	84.6	13.0	2.4	
대분	제조업	7,459	85.8	10.3	3.9	
	비제조업	34,659	84.3	13.6	2.1	
세부업종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93.3	5.4	1.3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86.1	4.2	9.8
		기타 제조	5,822	84.7	11.8	3.5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78.4	21.2	0.3
		건설업	8,211	72.4	27.3	0.3
		도매 및 소매업	10,963	88.4	7.5	4.0
		운수업	1,954	85.9	11.4	2.7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90.9	8.4	0.7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85.8	11.0	3.2
		금융 및 보험업	769	94.0	5.9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93.5	6.4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84.6	13.3	2.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85.0	12.4	2.6
		교육 서비스업	891	93.0	7.0	0.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93.3	6.7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90.5	8.8	0.6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93.4	6.3	0.3		
중사자규모	5인 미만	22,217	86.5	11.1	2.4	
	5 ~ 19인	16,213	82.1	15.5	2.4	
	20 ~ 49인	2,634	83.6	14.1	2.3	
	50 ~ 99인	628	84.4	11.5	4.1	
	100인 이상	426	83.3	13.2	3.6	
지역	수도권	26,182	88.7	8.1	3.2	
	경남권	6,429	77.9	20.8	1.3	
	경북권	3,348	68.2	30.7	1.1	
	전라권	3,236	80.3	18.2	1.5	
	충청권	2,923	85.6	13.8	0.6	

나. 판매 대금 수취 방법

- 여성기업의 판매대금 수취 방법은 '현금수취'가 90.9%로 '어음수취'(9.1%)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2012년 여성기업체 조사에서도 '현금수취'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현금 수취비율은 다소 낮아지고 어음수취 비율이 기존 대비 높아짐

(그림 42) 판매대금 수취방법

(단위: %)



- 판매대금 수취방법 중, '현금 수취' 비율은 제조업(87.5%)보다 비제조업(91.6%)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어음 수취' 비율은 비제조업(8.4%)보다 제조업(12.5%)에서 높게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식품/음료 제조'와 비제조업 중 '금융 및 보험업'에서 현금 수취 비중이 매우 높았음
 - '어음 수취' 비중이 높은 업종은 '섬유/의복/가방/신발'제조(15.5%)와 '기타 제조'(12.6%), 비제조업의 경우는 '도매 및 소매업'(10.9%)인 것으로 나타남

<표 50> 판매대금 수취방법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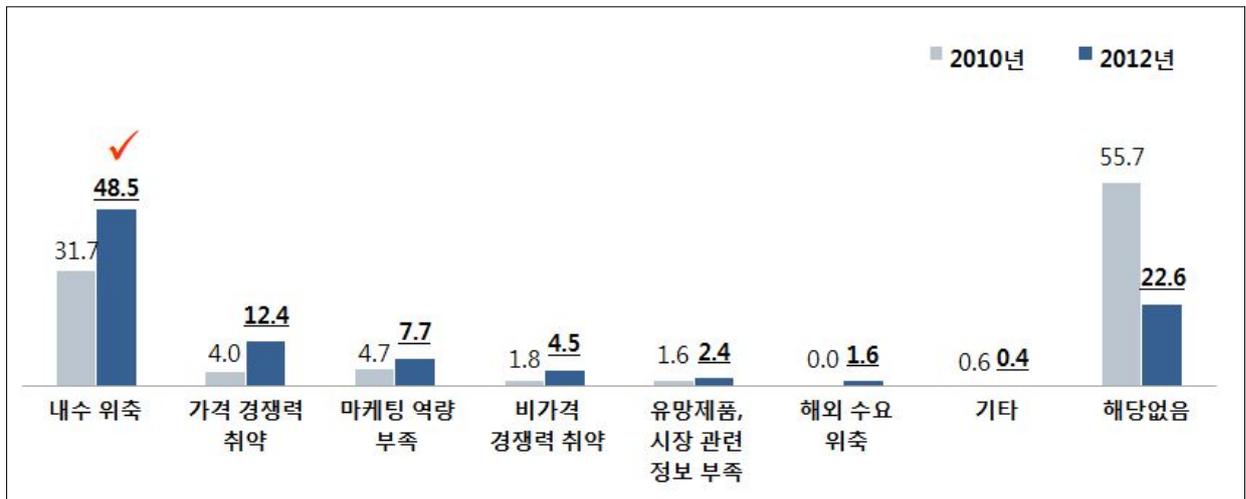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현금 수취	어음 수취		
전 체		42,118	90.9	9.1		
부	제조업	7,459	87.5	12.5		
	비제조업	34,659	91.6	8.4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91.4	8.8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84.5	15.5	
		기타 제조	5,822	87.4	12.6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96.6	3.4	
		건설업	8,211	90.5	9.5	
		도매 및 소매업	10,963	89.1	10.9	
		운수업	1,954	92.0	8.0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94.1	6.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93.2	6.8	
		금융 및 보험업	769	97.9	2.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95.3	4.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91.4	8.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93.7	6.3	
		교육 서비스업	891	97.2	2.8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97.2	2.8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94.8	5.2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97.0	3.0	
		중	5인 미만	22,217	91.9	8.1
			5 ~ 19인	16,213	89.5	10.5
20 ~ 49인	2,634		90.1	9.9		
50 ~ 99인	628		93.7	6.3		
100인 이상	426		94.0	6.0		
도	수도권	26,182	90.4	9.6		
	경남권	6,429	90.7	9.3		
	경북권	3,348	90.7	9.3		
	전라권	3,236	93.9	6.1		
	충청권	2,923	92.1	7.9		

다. 판매 활동 관련 애로사항

- 여성기업들의 판매 활동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위축'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격 경쟁력 취약'(12.4%), '마케팅 역량 부족'(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내수 위축'으로 인해 판매활동 관련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이 16.8%p 더 높게 나타남

(그림 43) 판매활동 관련 애로사항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49.3%)과 비제조업(48.3%) 모두 '내수 위축'으로 인하여 판매활동 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51.4%)와 비제조업 중 '부동산업 및 임대업'(56.0%)에서 '내수 위축'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51> 판매활동 관련 애로사항

(단위: 개사 %)

구분		사례 수	내수 위축	가격 경쟁력 취약	마케팅 역량 부족	품질, 기술, 브랜드, 디자인 등 비가격 경쟁력 취약	유망제품 또는 시장 관련 정보 부족	해외 수요 축	기타	해당 없음 (애로 못느낌)	
전체		42,118	48.5	12.4	7.7	4.5	2.4	1.6	0.4	22.6	
제조업	제조업	7,459	49.3	11.4	10.7	5.8	2.4	2.3	0.4	17.8	
	비제조업	34,659	48.3	12.6	7.1	4.2	2.4	1.5	0.4	23.6	
비제조업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44.7	7.0	18.6	4.0	3.7	1.1	0.0	20.9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51.4	8.0	6.2	8.1	1.5	4.2	0.0	20.6
		기타 제조	5,822	49.7	12.5	10.2	5.7	2.3	2.2	0.5	17.0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35.8	16.8	5.1	3.9	1.1	0.7	1.1	35.4
		건설업	8,211	55.1	15.2	3.6	4.1	0.3	0.7	0.3	20.7
		도매 및 소매업	10,963	52.1	11.2	7.8	3.0	3.6	1.7	0.5	20.1
		운수업	1,954	36.6	18.0	2.8	5.1	2.9	0.6	0.8	33.2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51.9	10.9	4.3	4.3	1.7	0.0	0.0	26.8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40.8	9.3	16.0	5.5	4.8	1.3	0.0	22.3
		금융 및 보험업	769	46.1	10.7	11.8	5.9	3.1	0.0	0.0	22.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56.0	5.7	5.3	5.5	1.2	0.3	0.3	2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50.2	11.3	8.1	6.7	3.0	2.2	0.0	18.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30.8	16.9	11.0	4.3	2.8	4.5	0.5	29.2
		교육 서비스업	891	40.9	4.1	12.2	4.1	1.2	1.3	0.0	36.2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17.2	6.4	6.2	5.0	0.0	0.0	1.2	63.9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46.1	10.5	4.5	1.9	1.4	1.0	0.5	34.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42.2	11.1	2.8	4.1	0.6	0.6	0.3	38.2		
조사자 규모	5인 미만	22,217	50.5	10.5	8.7	4.2	2.6	1.7	0.3	21.5	
	5 ~ 19인	16,213	45.8	14.9	6.7	4.9	1.9	1.4	0.3	24.0	
	20 ~ 49인	2,634	48.9	12.5	6.9	4.2	2.8	1.2	0.6	22.8	
	50 ~ 99인	628	43.6	12.4	7.9	4.9	2.4	4.2	0.3	24.4	
	100인 이상	426	49.8	16.0	3.2	2.9	2.1	3.3	1.9	20.7	
지역	수도권	26,182	48.9	11.1	8.7	4.6	3.1	2.2	0.5	20.9	
	경남권	6,429	42.9	17.4	5.2	4.0	1.3	0.9	0.1	28.2	
	경북권	3,348	54.3	10.4	7.2	5.1	1.6	0.1	0.1	21.0	
	전라권	3,236	48.6	12.5	6.2	3.1	1.2	0.8	0.1	27.6	
	충청권	2,923	50.6	14.9	6.8	4.6	0.7	0.9	0.0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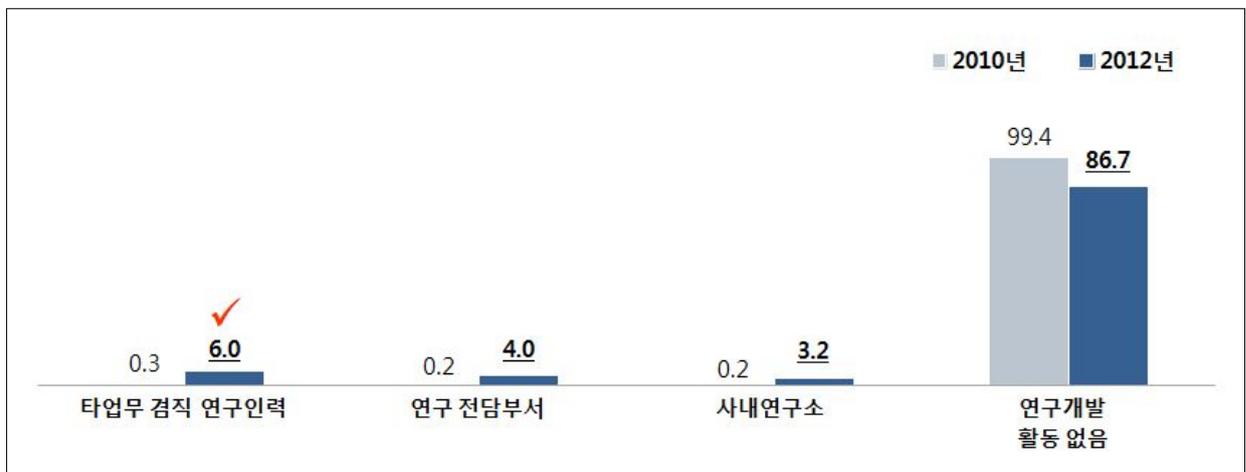
5 투자 및 사업의 확대

가. 연구개발 담당조직 형태

- 여성기업의 연구개발 담당조직 형태는 '타업무 겸직 연구인력'(6.0%)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연구 전담부서'(4.0%)와 '사내연구소'(3.2%) 등이 있음
 - 그러나 연구관련 조직이 없는 여성기업이 86.7%로, 연구개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 대비, 2012년 여성기업체 조사에서는 '관련 조직 없음'이 12.7%p 낮게 나타났으며, '타업무 겸직 연구인력'과 '연구 전담부서' 응답 비중이 각 5.7%p, 3.8%p씩 더 높게 나타남

(그림 44) 연구개발 담당조직 형태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비제조업(89.2%)이 제조업(74.9%)보다 연구개발 조직이 없다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한편, '타업무 겸직 연구인력'이라는 응답은 제조업(10.6%)이 비제조업(5.0%) 보다 5.6%p 더 높게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기타 제조'와 비제조업 중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타업무 겸직 연구인력'이나 '연구전담부서' 또는 '사내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담당조직을 갖춘 기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의 규모에서는 '타업무 겸직 연구인력'이 많은 반면 '50인 이상'의 규모에서는 '연구 전담부서'가 가장 많음

<표 52> 연구개발 담당조직 형태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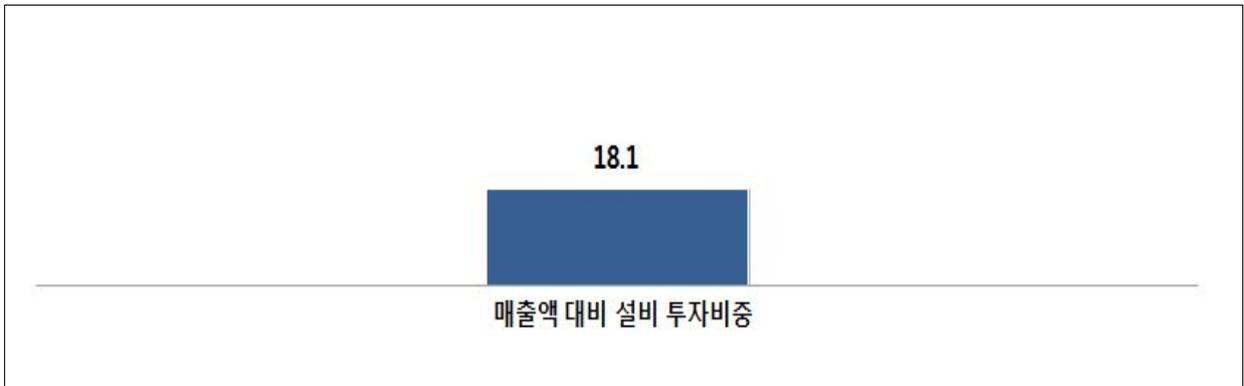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타업무 겸직 연구인력	연구 전담부서	사내연구소	관련 조직 없음		
전 체		42,118	6.0	4.0	3.2	86.7		
부	제조업	7,459	10.6	8.0	6.4	74.9		
	비제조업	34,659	5.0	3.2	2.5	89.2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10.5	7.3	5.3	76.9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8.6	1.6	7.1	82.6	
		기타 제조	5,822	10.9	9.0	6.5	73.6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5.7	0.4	0.0	94.0	
		건설업	8,211	5.8	3.5	2.1	88.7	
		도매 및 소매업	10,963	4.5	2.1	2.0	91.5	
		운수업	1,954	2.7	3.0	2.0	92.3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4.0	5.0	3.0	87.9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8.6	8.2	7.0	76.3	
		금융 및 보험업	769	3.5	1.9	2.9	91.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4.5	1.2	0.9	93.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7.9	9.9	4.8	77.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2.9	0.8	2.1	94.2	
		교육 서비스업	891	7.0	2.6	6.2	84.1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4.8	6.3	0.0	88.9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5.7	1.6	4.6	88.1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4.9	1.4	1.4	92.2	
		중	5인 미만	22,217	4.9	2.7	2.1	90.3
			5 ~ 19인	16,213	7.0	4.9	4.1	83.9
20 ~ 49인	2,634		9.1	7.7	6.2	77.0		
50 ~ 99인	628		6.9	9.8	4.6	78.8		
100인 이상	426		7.3	10.8	8.6	73.3		
지	수도권	26,182	5.6	4.1	2.9	87.4		
	경남권	6,429	5.9	4.1	4.0	86.0		
	경북권	3,348	6.9	4.9	4.1	84.1		
	전라권	3,236	8.3	4.0	3.6	84.1		
	충청권	2,923	7.1	2.8	2.9	87.2		

나.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 비율

- 설비 투자 활동이 있는 여성기업의 경우, 2012년 매출액 대비 '설비 투자비중'은 18.1%로 나타남

(그림 45)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 비율

(단위: %)



- 제조업의 경우 설비투자 비중은 16.6%, 비제조업은 18.9%로 나타나 비제조업이 제조업 보다 설비투자 비중이 2.3%p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제조업(16.8%), 비제조업 중, '금융 및 보험업'(27.3%)에서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 비중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0~99인'(20.3%)에서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비가 높게 나타남

<표 53>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 비율

(단위: 개사 %)

구 분		사 례 수	매출액 대비 설비 투자비중		
전 체		5,309	18.1		
부	제조업	1894	16.6		
	비제조업	3414	18.9		
세	제조업	식품/음료 제조	255	15.7	
		섬유/의복/가방/신발	137	16.8	
		기타 제조	1502	16.7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85	19.1	
		건설업	1008	25.0	
		도매 및 소매업	647	12.6	
		운수업	188	17.7	
		숙박 및 음식점업	124	24.4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83	16.8	
		금융 및 보험업	88	27.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56	25.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96	1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266	14.9	
		교육 서비스업	129	11.4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0	12.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9	24.5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5	18.1	
		종사자규모별	5인 미만	2004	20.0
			5 ~ 19인	2499	17.6
20 ~ 49인	621		13.1		
50 ~ 99인	91		20.3		
100인 이상	94		18.0		
권역별	수도권	2755	17.4		
	경남권	1079	18.8		
	경북권	628	14.0		
	전라권	524	29.1		
	충청권	323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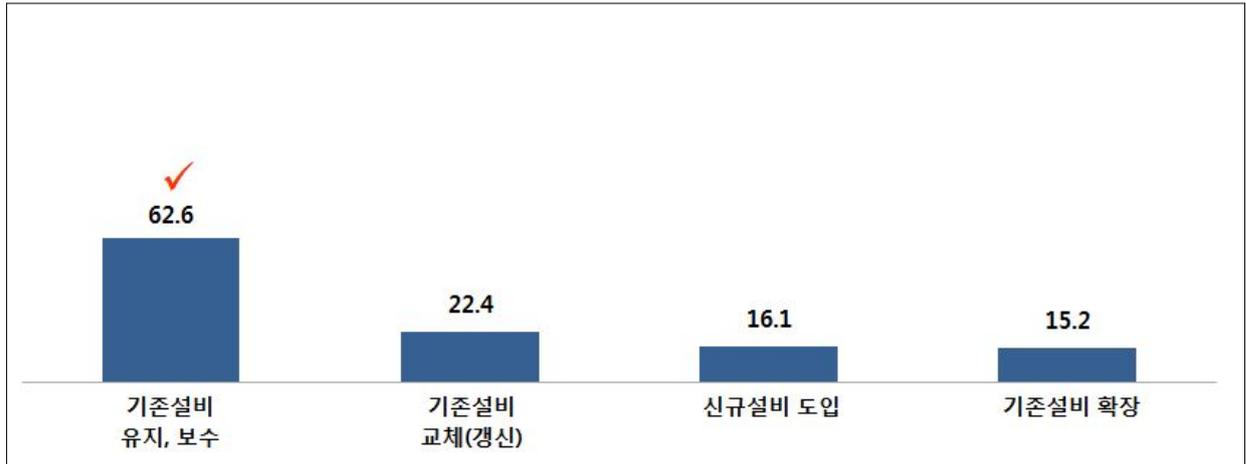
※ '12년 설비투자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다. 설비 투자 용도

- 설비 투자가 있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설비 투자 용도를 조사한 결과, '기존설비 유지보수'(62.6%)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존설비 교체'(22.4%), '신규설비 도입'(16.1%) 순으로 나타남

(그림 46) 설비 투자 용도

(단위: %)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식품/음료 제조'(70.5%), 비제조업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75.5%)이 '기존설비 유지, 보수'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고,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60.1%)의 경우 '신규설비 도입'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4> 설비 투자 용도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기존설비 유지, 보수	기존설비 교체(갱신)	신규설비 도입	기존설비 확장	
전 체		5,318	62.6	22.4	16.1	15.2	
대분	제조업	1,904	61.1	28.9	17.3	15.0	
	비제조업	3,414	63.4	18.8	15.5	15.3	
세부업종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255	70.5	28.2	17.3	13.6
		섬유/의복/가방/신발	137	42.8	35.3	13.2	19.5
		기타 제조	1,512	61.2	28.4	17.7	14.9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85	47.2	33.2	20.4	11.3
		건설업	1,008	74.7	11.5	11.1	13.0
		도매 및 소매업	647	65.8	19.4	8.1	27.5
		운수업	188	42.2	17.6	22.9	24.8
		숙박 및 음식점업	124	75.5	16.7	14.6	4.7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83	49.2	31.0	20.7	9.8
		금융 및 보험업	88	57.8	36.1	8.3	16.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56	54.5	23.8	25.5	9.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96	51.7	20.3	25.1	10.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266	66.9	10.4	21.3	9.9
		교육 서비스업	129	61.4	33.2	21.3	4.7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0	26.6	13.3	60.1	13.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9	65.1	18.9	8.9	10.7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5	60.9	37.0	8.3	27.5		
종사자규모별	5인 미만	2,004	56.3	21.0	19.9	17.3	
	5 ~ 19인	2,506	67.9	22.2	12.3	14.6	
	20 ~ 49인	624	60.8	25.4	19.6	12.1	
	50 ~ 99인	91	58.8	41.5	19.6	6.7	
	100인 이상	94	71.2	19.2	10.8	18.7	
권역별	수도권	2,764	65.2	21.1	14.7	15.0	
	경남권	1,079	58.8	22.7	15.6	19.1	
	경북권	628	59.9	24.9	17.5	14.5	
	전라권	524	59.2	20.6	21.8	12.8	
	충청권	323	63.8	31.2	17.9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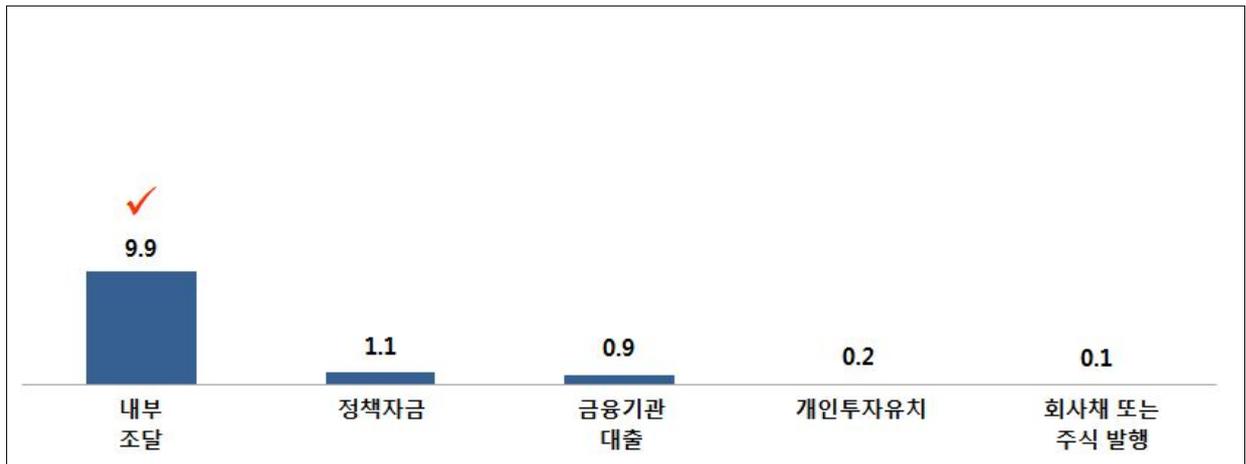
※ '12년 설비투자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라. 연구 개발 투자비 조달 방법

- 여성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비 조달 방법은 '내부조달'(9.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책자금'(1.1%), '금융기관 대출'(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7) 연구 개발 투자비 조달 방법

(단위: %)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기타 제조'(18.2%), 비제조업 중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19.0%)에서 '내부 조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내부 조달'을 통해 투자비를 조달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55> 연구 개발 투자비 조달 방법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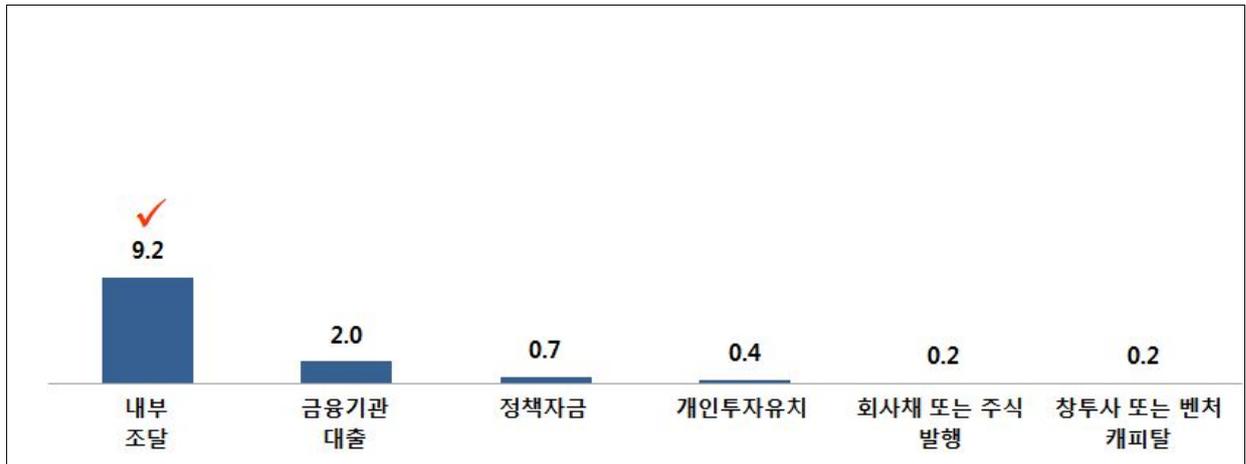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내부 조달	정책자금	금융기관 대출	개인투자 유치	회사채 또는 주식발행	창투자 또는 벤처 캐피탈	해당 없음 (연구개발 투자 없음)	
전 체		42,118	9.9	1.1	0.9	0.2	0.1	0.0	87.7	
부	제조업	7,459	17.6	2.7	1.7	0.2	0.0	0.0	77.7	
	비제조업	34,659	8.3	0.7	0.7	0.3	0.1	0.0	89.9	
세 부 업 종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16.1	1.0	1.4	0.8	0.0	0.0	80.7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14.7	1.5	1.5	0.0	0.0	0.0	82.4
		기타 제조	5,822	18.2	3.1	1.8	0.2	0.0	0.0	76.7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7.2	0.0	0.0	0.0	0.0	0.0	92.8
		건설업	8,211	9.2	0.5	0.4	0.0	0.0	0.0	89.9
		도매 및 소매업	10,963	6.7	0.9	0.6	0.4	0.0	0.0	91.4
		운수업	1,954	7.2	2.3	1.3	0.0	0.0	0.0	89.3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3.5	0.0	0.6	0.0	0.0	0.6	95.4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9.0	0.9	0.8	0.6	0.0	0.3	78.4
		금융 및 보험업	769	4.0	0.7	0.5	0.4	0.0	0.0	94.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3.9	0.0	1.2	0.6	0.3	0.0	93.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18.6	0.1	1.5	0.6	0.0	0.2	79.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4.0	0.7	0.9	0.0	0.1	0.0	94.2
		교육 서비스업	891	12.0	1.2	1.7	0.0	1.3	0.0	83.7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6.3	1.2	1.2	0.0	0.0	0.0	91.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5.9	0.0	4.4	0.0	0.0	0.0	89.7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6.0	0.0	0.0	0.0	0.0	0.0	94.0		
중 사 자 구 모 비	5인 미만	22,217	6.7	0.7	0.9	0.3	0.1	0.0	91.3	
	5 ~ 19인	16,213	12.5	1.6	0.8	0.2	0.0	0.1	84.8	
	20 ~ 49인	2,634	17.7	0.9	1.9	0.3	0.2	0.2	78.9	
	50 ~ 99인	628	18.7	0.6	1.1	0.4	0.0	0.0	79.2	
	100인 이상	426	18.7	1.6	1.6	0.0	0.5	0.0	77.6	
관 외 관	수도권	26,182	9.6	0.7	0.8	0.3	0.1	0.0	88.6	
	경남권	6,429	9.0	2.5	1.7	0.0	0.0	0.0	86.7	
	경북권	3,348	12.0	1.6	1.2	0.1	0.0	0.0	85.1	
	전라권	3,236	12.6	1.1	0.7	0.4	0.0	0.2	85.0	
	충청권	2,923	9.8	0.7	0.7	0.0	0.1	0.0	88.7	

마. 설비 투자비 조달 방법

- 여성기업의 설비 투자비 조달 방법은 '내부조달'(9.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금융기관 대출'(2.0%), '정책자금'(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8) 설비 투자비 조달 방법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부조달', '금융기관 대출', '정부자금' 순으로 응답함. 한편, 가장 높은 비중으로 응답한 '내부조달'은 비제조업(7.3%) 대비 제조업(18.2%)이 10.9%p 더 높음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식품/음료 제조'(22.0%), 비제조업 중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14.2%)에서 '내부 조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6> 설비 투자비 조달 방법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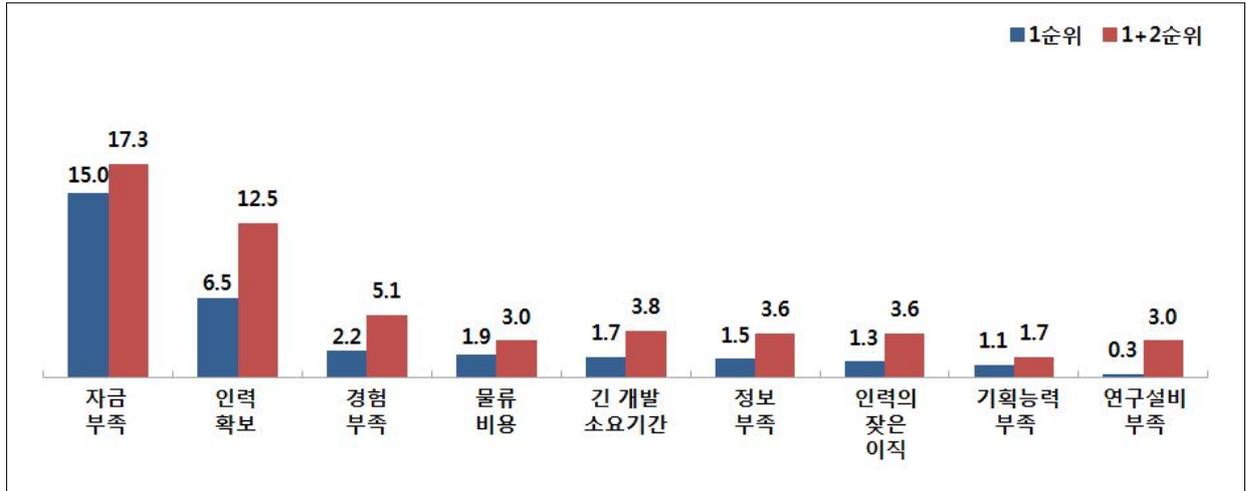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내부 조달	금융기관 대출	정책자금	개인투자 유치	회사채 또는 주식발행	창투자 또는 벤처 캐피탈	해당 없음 (설비 투자 없음)	
전 체		42,118	9.2	2.0	0.7	0.4	0.2	0.2	87.4	
부 문	제조업	7,459	18.2	4.9	1.4	0.3	0.4	0.3	74.5	
	비제조업	34,659	7.3	1.3	0.5	0.4	0.2	0.1	90.2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22.0	5.5	1.8	0.8	0.2	0.0	69.7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12.3	4.4	0.0	0.4	0.0	0.0	83.0
		기타 제조	5,822	18.4	4.9	1.5	0.2	0.5	0.4	74.0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14.2	4.3	0.0	0.0	0.0	0.0	81.5
		건설업	8,211	10.3	1.3	0.7	0.0	0.0	0.0	87.7
		도매 및 소매업	10,963	4.0	1.2	0.2	0.4	0.1	0.0	94.1
		운수업	1,954	6.4	1.3	1.3	0.5	0.2	0.0	90.4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10.1	1.4	0.6	0.0	0.0	0.0	87.9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8.4	0.3	0.4	1.2	0.3	0.0	89.4
		금융 및 보험업	769	6.5	2.3	0.5	0.7	0.7	0.7	88.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6.4	0.7	0.0	0.6	1.2	0.0	9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12.0	1.4	1.3	1.1	0.2	0.5	8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5.3	0.8	0.4	0.1	0.5	0.5	92.3
		교육 서비스업	891	10.1	2.6	0.6	0.6	0.0	0.6	85.5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3.6	1.4	0.0	2.7	0.0	1.2	91.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1.7	3.4	0.0	0.0	0.0	0.0	84.8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7.9	4.7	0.0	0.0	0.0	0.0	87.4		
중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2,217	6.3	1.4	0.6	0.3	0.2	0.1	91.0	
	5 ~ 19인	16,213	12.0	2.1	0.7	0.4	0.1	0.2	84.6	
	20 ~ 49인	2,634	15.5	5.0	0.9	0.7	0.9	0.6	76.4	
	50 ~ 99인	628	9.8	3.8	0.0	0.0	0.9	0.0	85.5	
	100인 이상	426	17.2	3.5	0.3	0.5	0.5	0.0	78.0	
권 역 별	수도권	26,182	8.0	1.2	0.4	0.5	0.2	0.1	89.5	
	경남권	6,429	11.6	3.7	1.0	0.1	0.3	0.1	83.2	
	경북권	3,348	13.1	4.4	0.5	0.0	0.3	0.5	81.2	
	전라권	3,236	13.5	1.0	1.0	0.5	0.1	0.0	83.8	
	충청권	2,923	5.6	3.5	1.4	0.0	0.2	0.3	89.0	

바. 자체 기술 개발 시 애로사항

- 자체 기술 개발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기술개발 자금의 부족’(15.0%)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개발 인력확보 곤란’(6.5%), ‘기술개발 경험 부족’(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9) 자체 기술 개발 시 애로사항

(단위: %)



-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기술개발 자금의 부족’, ‘개발인력 확보 곤란’, ‘기술개발 경험 부족’ 순으로 나타남. 한편, ‘기술개발의 자금부족’의 경우, 제조업(27.6%)이 비제조업(12.3%) 보다 애로라고 응답한 비중이 15.3%p 더 높게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기타 제조’(29.5%), 비제조업 중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27.1%)에서 ‘기술개발 자금의 부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음
- 종사자 규모별로는 규모가 커질수록 자체 기술 개발 시 애로사항으로 ‘개발인력 확보’라는 응답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표 57> 자체 기술 개발 시 애로사항(1/2)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기술개발 자금의 부족	개발인력 확보 곤란	기술개발 경험 부족	물류비용 부담	긴 개발 소요기간		
전 체		42,118	15.0	6.5	2.2	1.9	1.7		
부	제조업	7,459	27.6	11.0	4.2	3.0	3.8		
	비제조업	34,659	12.3	5.5	1.8	1.6	1.2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24.4	13.1	2.1	2.7	5.4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17.5	9.5	1.9	1.5	1.8	
		기타 제조	5,822	29.5	10.9	4.8	3.2	3.9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11.6	1.5	0.9	2.4	0.4	
		건설업	8,211	11.9	2.8	2.7	2.2	1.7	
		도매 및 소매업	10,963	9.7	5.1	1.6	2.5	1.0	
		운수업	1,954	8.2	2.1	0.2	1.1	1.3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13.5	6.2	1.1	1.8	0.8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27.1	16.0	1.9	0.2	3.0	
		금융 및 보험업	769	12.0	5.5	2.6	0.5	0.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15.3	9.2	1.8	1.2	0.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25.6	10.9	3.9	0.0	0.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6.1	5.3	0.3	0.8	0.7	
		교육 서비스업	891	12.5	3.8	1.9	0.0	0.5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7.6	5.1	0.0	1.2	1.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7.4	3.8	1.0	0.0	1.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0.9	4.6	0.4	0.0	1.4	
		중	5인 미만	22,217	13.5	6.0	1.4	1.4	0.7
			5 ~ 19인	16,213	16.2	6.5	3.2	2.8	2.8
20 ~ 49인	2,634		19.3	7.8	2.8	0.7	3.4		
50 ~ 99인	628		14.9	13.5	1.3	0.8	1.2		
100인 이상	426		19.4	12.6	3.5	0.0	2.0		
지	수도권	26,182	16.1	7.6	3.0	2.7	2.0		
	경남권	6,429	11.5	3.5	1.8	0.5	1.7		
	경북권	3,348	13.4	4.5	0.5	0.2	0.7		
	전라권	3,236	18.1	3.8	0.3	0.6	0.1		
	충청권	2,923	11.2	8.3	0.8	0.3	1.5		

<표 58> 자체 기술 개발 시 애로사항(2/2)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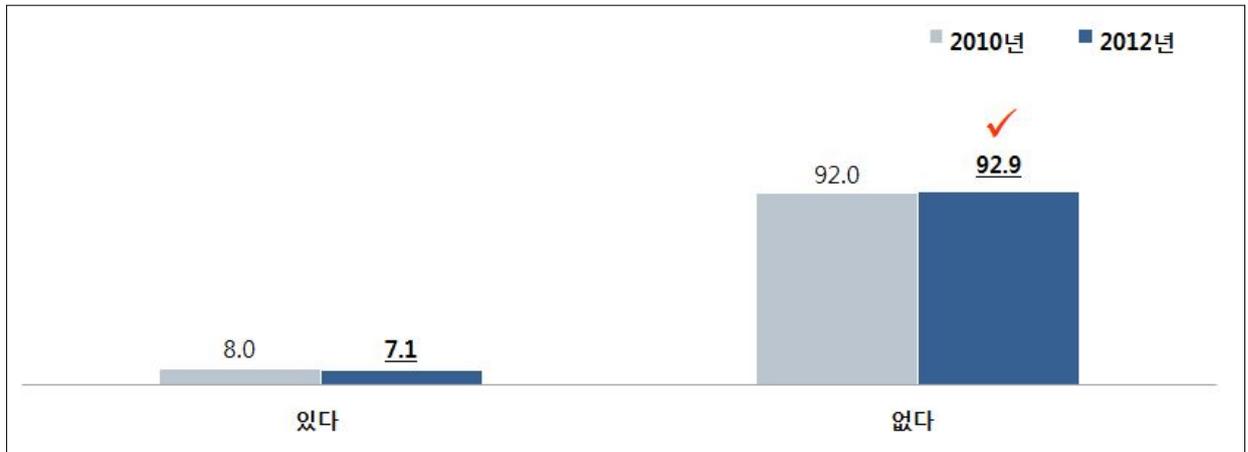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	개발인력의 찾은 이직	기술개발 기획능력 부족	연구설비 기자재 부족	애로사항 없음	모름/무응답	
전 체		42,118	1.5	1.3	1.1	0.3	52.5	16.1	
제 조 업	제조업	7,459	2.0	1.9	1.9	0.7	31.9	12.0	
	비제조업	34,659	1.4	1.2	0.9	0.2	56.9	16.9	
제 조 업	식품/음료 제조	834	2.1	1.9	1.9	0.8	37.1	8.7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0.4	2.2	1.5	1.8	33.3	28.7	
	기타 제조	5,822	2.2	1.9	1.9	0.6	31.0	10.1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0.0	0.6	1.5	1.1	65.3	14.7
		건설업	8,211	2.4	1.4	1.8	0.3	65.7	7.1
		도매 및 소매업	10,963	1.4	0.7	0.9	0.2	56.4	20.3
		운수업	1,954	0.9	0.4	0.6	0.0	76.4	9.0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0.0	1.1	0.0	0.6	61.4	13.6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2.6	2.1	0.2	0.0	23.9	23.1
		금융 및 보험업	769	0.5	1.9	0.5	0.0	62.5	13.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0.8	0.7	0.6	0.0	61.3	8.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0.6	2.2	1.0	0.6	37.5	16.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1.2	1.7	0.0	0.1	48.1	35.8
		교육 서비스업	891	0.6	1.2	0.6	0.0	58.5	20.5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0.0	0.0	0.0	0.0	83.7	1.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0.5	0.0	0.0	1.0	80.8	4.5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3	0.0	0.0	0.0	49.9	31.5	
중 사 자 구 분 별		5인 미만	22,217	1.1	1.3	0.6	0.2	55.6	18.2
	5 ~ 19인	16,213	2.1	1.3	1.7	0.4	48.4	14.5	
	20 ~ 49인	2,634	1.2	1.2	1.5	0.5	51.8	9.8	
	50 ~ 99인	628	2.5	0.9	1.0	1.0	54.5	8.4	
	100인 이상	426	1.1	1.6	0.5	0.0	46.6	12.7	
권 역 별	수도권	26,182	2.2	1.5	1.4	0.4	38.0	25.1	
	경남권	6,429	0.5	1.0	1.0	0.3	78.0	0.2	
	경북권	3,348	0.1	0.0	0.2	0.0	79.4	1.1	
	전라권	3,236	0.6	1.0	0.5	0.3	73.5	1.3	
	충청권	2,923	0.3	1.4	0.4	0.0	72.3	3.5	

사. 사업 규모 확대 계획 유무

-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 여성기업은 7.1%로 나머지 92.9%는 사업 규모 확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2012년 여성기업체 조사 결과에서는 사업 규모 확대 계획이 없다는 응답 비중이 거의 비슷하나, 다소 높아짐

(그림 50) 사업 규모 확대 계획 유무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사업 규모 확대 계획에 대해 제조업(11.1%)이 비제조업(6.2%)에 비해 향후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식품/음료 제조'(12.7%)와 '기타 제조'(11.3%), 비제조업 중 '교육 서비스업'(14.7%)과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1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0.2%)에서 사업 규모 확대 계획이 있는 응답이 높은 편임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20~49인'(11.6%), '50~99인'(9.2%)에서 사업 규모 확대 계획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9> 사업 규모 확대 계획 유무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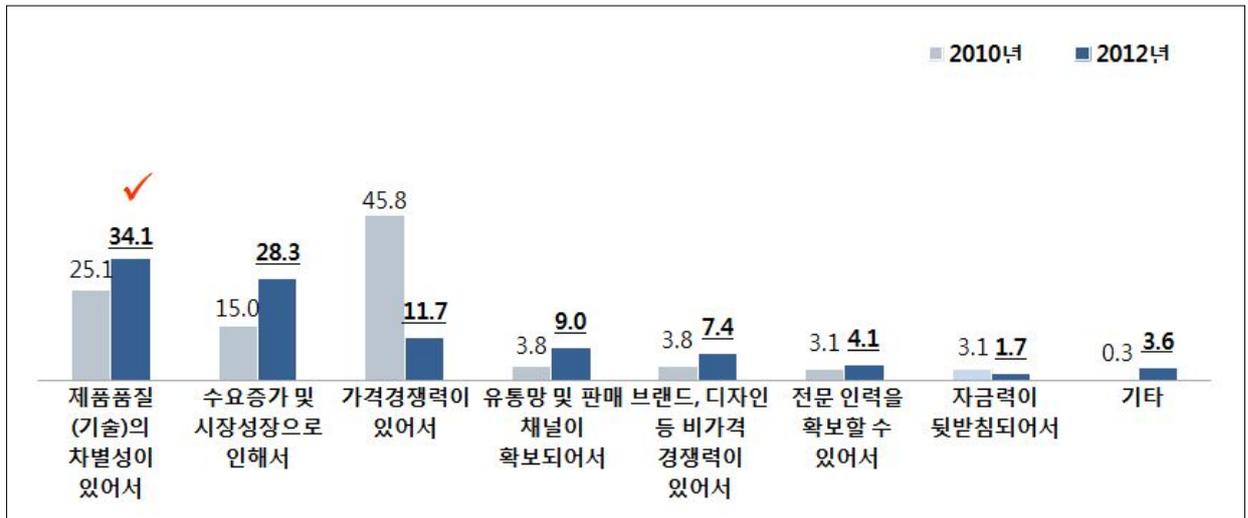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 체		42,118	7.1	92.9		
부	제조업	7,459	11.1	88.9		
	비제조업	34,659	6.2	93.8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12.7	87.3		
		섬유/의복/가방/신발	8.1	91.9		
		기타 제조	11.3	88.7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9.8	90.2		
		건설업	5.3	94.7		
		도매 및 소매업	5.3	94.7		
		운수업	8.5	91.5		
		숙박 및 음식점업	3.4	96.6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8.6	91.4		
		금융 및 보험업	2.9	97.1		
		부동산업 및 임대업	5.5	94.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2	89.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4.9	95.1		
		교육 서비스업	14.7	85.3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0.3	89.7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8	95.2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	90.5		
		중	5인 미만	22,217	5.8	94.2
			5 ~ 19인	16,213	8.1	91.9
20 ~ 49인	2,634		11.6	88.4		
50 ~ 99인	628		9.2	90.8		
100인 이상	426		7.2	92.8		
관	수도권	26,182	6.9	93.1		
	경남권	6,429	8.8	91.2		
	경북권	3,348	4.4	95.6		
	전라권	3,236	8.9	91.1		
	충청권	2,923	6.5	93.5		

아. 사업 규모 확대의 주된 요인

- 사업 규모 확대 계획이 있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제품 품질 차별성'(34.1%)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수요증가 및 시장 성장'(28.3%), '가격 경쟁력'(1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2012년 여성기업체 조사결과에서는 '제품품질의 차별성이 있어서'와 '수요증가 및 시장 성장으로 인해서'는 각각 9.0%p와 13.3%p씩 더 높은 반면,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는 34.1%p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1) 사업 규모 확대의 주된 요인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40.0%)과 비제조업(31.9%) 모두 '제품품질의 차별성이 있어서'를 사업규모 확대의 주된 요인으로 꼽음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식품/음료 제조업'(52.2%), 비제조업 중 '금융 및 보험업'(50.0%)이 '제품품질의 차별성이 있어서'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20인 미만'은 '제품 품질의 차별성이 있어서'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20인 이상'은 '수요증가 및 시장성장으로 인해서'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60> 사업 규모 확대의 요인(1/2)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제품 품질(기술)의 차별성이 있어서	수요증가 및 시장성장으로 인해서	가격경쟁력이 있어서	유통망 및 판매채널이 확보되어서	
전 체		2,992	34.1	28.3	11.7	9.0	
부 면	제조업	827	40.0	23.1	15.5	13.2	
	비제조업	2,166	31.9	30.3	10.2	7.4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품/음료 제조	106	52.2	18.6	17.1	8.6
		섬유/의복/가방/신발	65	31.9	13.0	18.9	18.2
		기타 제조	655	38.8	24.9	14.9	13.5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5	15.2	49.2	27.9	0.0
		건설업	435	28.5	30.6	7.9	6.1
		도매 및 소매업	585	29.0	28.3	15.5	12.5
		운수업	167	37.6	18.5	0.0	10.4
		숙박 및 음식점업	35	24.0	31.4	37.1	7.4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46	20.6	38.1	17.0	0.0
		금융 및 보험업	22	50.0	0.0	50.0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95	39.1	33.4	10.8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5	43.2	32.0	0.0	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68	35.1	30.8	0.0	13.8
		교육 서비스업	131	43.1	30.1	4.6	9.2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2	0.0	85.9	14.1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	31.4	28.2	20.2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4	23.1	33.6	21.6	6.7
중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1,281	34.6	26.8	13.8	5.9	
	5 ~ 19인	1,318	35.2	27.2	10.2	11.7	
	20 ~ 49인	305	32.1	32.2	11.4	11.3	
	50 ~ 99인	58	15.9	56.2	8.1	0.0	
	100인 이상	31	26.2	47.3	0.0	14.9	
관 외 지역 별	수도권	1,801	32.5	27.4	10.7	10.3	
	경남권	565	31.6	34.6	17.2	2.8	
	경북권	146	44.8	30.0	9.2	9.1	
	전라권	289	33.2	24.7	7.6	14.7	
	충청권	191	50.6	22.6	13.2	6.1	

※ 사업규모 확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표 61> 사업 규모 확대의 요인(2/2)

(단위: 개사 %)

구분		사례 수	브랜드, 디자인 등 비가격경쟁력이 있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자금력이 뒷받침되어서	기타	
전체		2,992	7.4	4.1	1.7	3.6	
기업	제조업	827	5.4	0.0	0.0	2.8	
	비제조업	2,166	8.2	5.6	2.4	3.9	
세부업종별	제조업	식품/음료 제조	106	0.0	0.0	0.0	3.5
		섬유/의복/가방/신발	65	18.0	0.0	0.0	0.0
		기타 제조	655	5.0	0.0	0.0	2.9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5	0.0	0.0	7.7	0.0
		건설업	435	5.2	11.5	5.2	5.2
		도매 및 소매업	585	10.1	4.5	0.0	0.0
		운수업	167	19.1	6.0	0.0	8.4
		숙박 및 음식점업	35	0.0	0.0	0.0	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46	7.5	10.6	3.1	3.1
		금융 및 보험업	22	0.0	0.0	0.0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95	0.0	5.4	0.0	1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5	13.6	0.0	0.0	11.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68	3.1	9.3	8.0	0.0
		교육 서비스업	131	8.5	0.0	0.0	4.6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2	0.0	0.0	0.0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	0.0	0.0	20.2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4	6.7	0.0	8.2	0.0
		중사자규모별	5인 미만	1,281	5.7	6.9	1.7
5 ~ 19인	1,318		8.4	2.4	2.3	2.6	
20 ~ 49인	305		11.3	0.0	0.0	1.8	
50 ~ 99인	58		9.0	0.0	0.0	10.8	
100인 이상	31		0.0	7.4	0.0	4.2	
지역별	수도권	1,801	8.8	6.8	0.9	2.6	
	경남권	565	3.6	0.0	5.3	4.9	
	경북권	146	6.8	0.0	0.0	0.0	
	전라권	289	9.8	0.0	1.8	8.2	
	충청권	191	2.7	0.0	0.0	4.8	

※ 사업규모 확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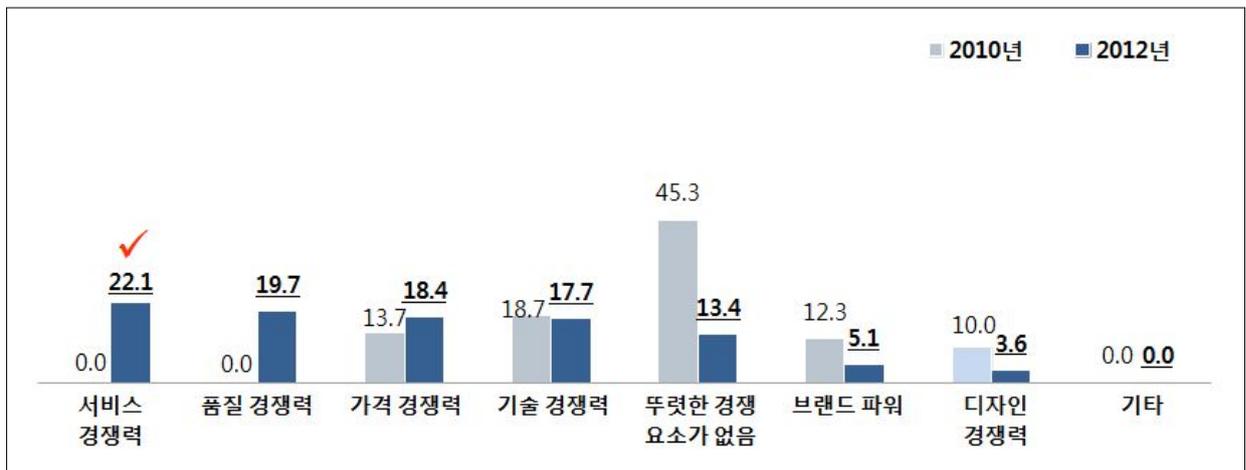
6 마케팅

가. 여성기업의 핵심 경쟁 요소

- 여성기업의 핵심 경쟁 요소로는 '서비스 경쟁력'(22.1%)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품질 경쟁력'(19.7%), '가격 경쟁력'(1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여성사업체 조사에서는 '뚜렷한 경쟁 요소가 없음'(45.3%)이라는 응답을 제외하고 '기술 경쟁력'(18.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2년 여성기업체 조사에서는 '서비스 경쟁력'(22.1%) 응답이 가장 높음

(그림 52) 여성기업의 핵심 경쟁 요소

(단위: %)



※ '서비스 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은 2013년 조사에서 신규 추가된 보기항목임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품질 경쟁력'(37.5%), '기술 경쟁력'(21.4%), '가격 경쟁력'(14.7%)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비제조업은 '서비스 경쟁력'(24.9%), '가격 경쟁력'(19.2%), '기술 경쟁력'(16.9%) 등의 순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임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서비스 경쟁력'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62> 여성기업의 핵심 경쟁 요소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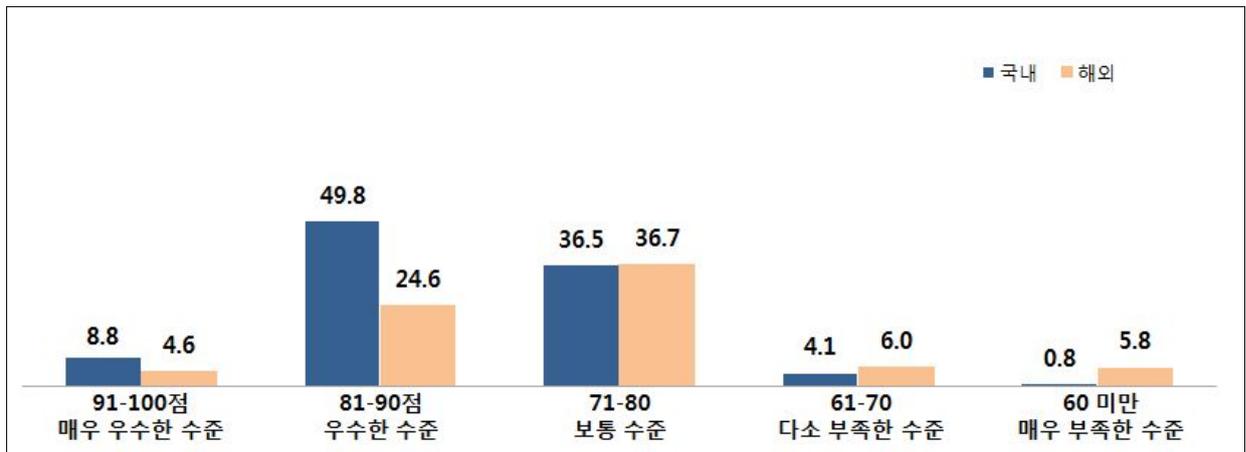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서비스 경쟁력	품질 경쟁력	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	뚜렷한 경쟁 요소가 없음	브랜드 파워	디자인 경쟁력	기타	
전체		42,118	22.1	19.7	18.4	17.7	13.4	5.1	3.6	0.0	
기업	제조업	7,459	9.4	37.5	14.7	21.4	8.4	3.5	5.2	0.0	
	비제조업	34,659	24.9	15.9	19.2	16.9	14.4	5.4	3.3	0.0	
세부업종	제조업	식품/음료 제조	834	12.7	40.1	23.0	12.8	6.5	4.7	0.2	0.0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7.0	30.4	14.8	12.9	4.8	12.5	17.6	0.0
		기타 제조	5,822	9.2	38.1	13.5	23.8	9.2	2.0	4.2	0.0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15.0	5.3	23.7	14.1	39.9	2.0	0.0	0.0
		건설업	8,211	20.5	12.7	11.6	31.8	16.5	3.6	3.2	0.0
		도매 및 소매업	10,963	15.1	22.4	33.5	9.6	9.2	6.0	4.1	0.0
		운수업	1,954	33.0	7.3	17.3	8.2	29.2	4.6	0.4	0.0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28.7	20.5	19.0	7.6	18.5	5.7	0.0	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20.7	21.8	7.8	28.5	4.5	10.7	6.2	0.0
		금융 및 보험업	769	54.9	4.3	10.2	9.0	16.4	5.2	0.0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32.2	8.8	12.2	10.3	29.4	5.0	2.1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28.3	25.0	8.1	22.4	3.9	2.7	9.5	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46.3	7.6	16.9	10.5	14.8	3.8	0.1	0.0
		교육 서비스업	891	28.8	12.3	4.9	8.7	22.4	21.8	1.2	0.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47.9	5.0	8.5	8.7	20.8	7.8	0.0	1.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27.7	15.2	4.8	14.6	23.6	10.4	3.7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39.6	6.9	18.5	20.4	10.3	3.5	0.8	0.0		
중사자규모	5인 미만	22,217	21.9	17.8	20.1	15.0	16.0	5.7	3.5	0.0	
	5 ~ 19인	16,213	21.4	21.4	17.1	22.0	10.2	4.1	3.8	0.0	
	20 ~ 49인	2,634	25.4	24.9	14.7	16.0	10.8	5.5	2.7	0.0	
	50 ~ 99인	628	28.8	20.1	11.3	12.1	14.9	4.9	7.9	0.0	
	100인 이상	426	31.7	23.5	15.3	17.2	8.2	3.7	0.5	0.0	
지역	수도권	26,182	22.2	21.2	20.6	15.0	10.9	5.4	4.7	0.0	
	경남권	6,429	22.8	16.1	17.2	21.0	16.5	4.2	2.2	0.0	
	경북권	3,348	21.9	15.8	12.6	30.4	14.3	2.5	2.4	0.0	
	전라권	3,236	19.6	20.0	14.7	17.4	19.3	7.7	1.3	0.0	
	충청권	2,923	23.3	18.2	12.2	21.3	20.7	3.7	0.7	0.0	

나. 국내 및 해외 주요 경쟁사 대비 제품/서비스 경쟁력 수준

- 여성기업의 58.6%는 국내 주요 경쟁사 대비 자사의 제품/서비스 경쟁력이 우수(매우 우수 +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반면, 해외 경쟁사 대비 제품/서비스 경쟁력 수준은 우수하다는 응답이 29.2%로 국내 경쟁력에 비해서는 낮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53) 국내 및 해외 주요 경쟁사 대비 제품/서비스 경쟁력 수준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61.1%)과 비제조업(58.0%) 모두 국내 주요 경쟁사 대비 자사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으나, 해외 주요 경쟁사 대비 경쟁력은 30% 미만만이 '우수'하다고 응답함(제조업 29.7%, 비제조업 29.1%)

<표 63> 국내 주요 경쟁사 대비 제품/서비스 경쟁력 수준

(단위: 개사 %)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우수한 수준	② 우수한 수준	③ 보통 수준	④ 다소 부족한 수준	⑤ 매우 부족한 수준	①+② 우수	④+⑤ 부족	
전체		42,118	8.8	49.8	36.5	4.1	0.8	58.6	4.9	
대분	제조업	7,459	8.9	52.2	34.9	2.9	1.1	61.1	4.0	
	비제조업	34,659	8.7	49.2	36.9	4.4	0.7	58.0	5.2	
세부업종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11.4	43.5	40.7	2.0	2.4	54.9	4.3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15.6	61.3	20.8	2.3	0.0	76.9	2.3
		기타 제조	5,822	7.6	52.2	36.0	3.1	1.0	59.8	4.1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8.3	32.5	53.3	3.5	2.5	40.8	5.9
		건설업	8,211	7.3	54.9	33.3	4.4	0.0	62.2	4.4
		도매 및 소매업	10,963	9.5	45.5	39.1	5.0	1.0	54.9	6.0
		운수업	1,954	8.7	43.5	37.7	10.1	0.0	52.2	10.1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8.7	50.6	36.4	3.1	1.3	59.2	4.4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3.3	52.9	30.2	3.0	0.6	66.2	3.7
		금융 및 보험업	769	11.2	36.2	47.4	3.8	1.4	47.4	5.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1.8	43.6	47.8	3.1	3.7	45.4	6.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10.5	48.7	36.8	3.5	0.5	59.3	3.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5.7	54.6	36.1	3.1	0.5	60.3	3.6
		교육 서비스업	891	19.1	51.4	27.6	1.2	0.7	70.4	1.9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7.6	66.4	24.7	1.2	0.0	74.0	1.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0.2	57.3	28.6	1.9	1.9	67.5	3.9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2.9	53.0	30.0	4.1	0.0	65.9	4.1		
중사자규모별	5인 미만	22,217	7.7	47.1	39.3	4.9	1.0	54.9	5.9	
	5 ~ 19인	16,213	9.8	51.9	34.2	3.5	0.7	61.6	4.2	
	20 ~ 49인	2,634	10.6	55.8	30.9	2.3	0.3	66.4	2.6	
	50 ~ 99인	628	9.9	57.0	30.1	2.7	0.4	66.9	3.0	
	100인 이상	426	10.6	59.8	28.5	0.5	0.5	70.4	1.1	
별	수도권	26,182	9.9	47.8	37.1	4.2	1.0	57.6	5.2	
	경남권	6,429	8.2	53.1	34.2	4.1	0.4	61.3	4.5	
	경북권	3,348	4.5	61.9	29.9	3.5	0.2	66.4	3.7	
	전라권	3,236	6.9	48.0	38.3	5.8	0.9	54.9	6.7	
	충청권	2,923	6.9	48.3	41.9	2.2	0.7	55.2	2.9	

<표 64> 해외 주요 경쟁사 대비 제품/서비스 경쟁력 수준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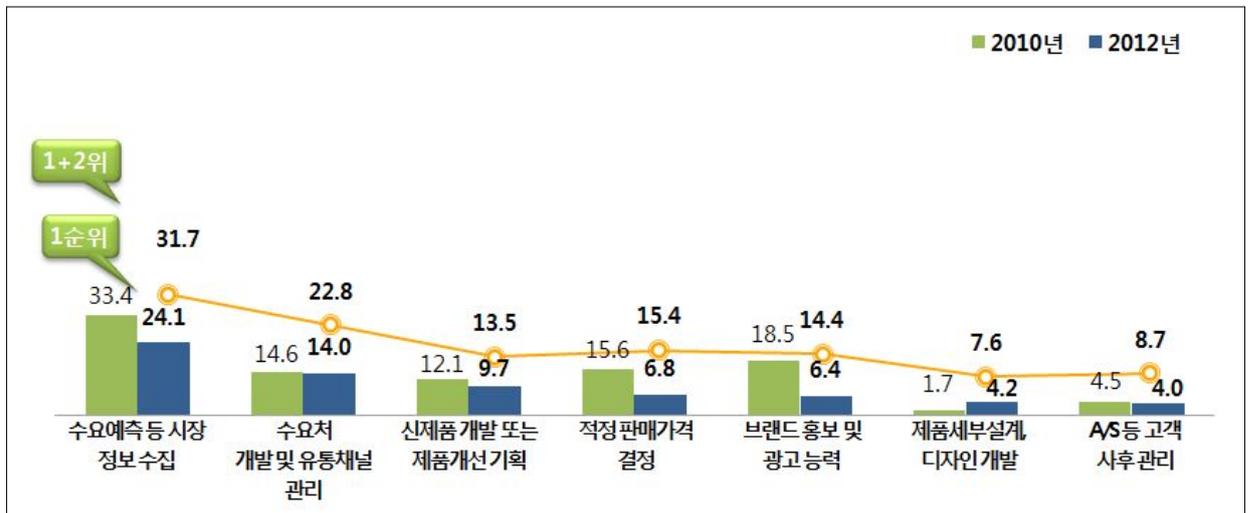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① 매우 우수한 수준	② 우수한 수준	③ 보통 수준	④ 다소 부족한 수준	⑤ 매우 부족한 수준	모름/ 무응답	①+② 우수	④+⑤ 부족	
전 체		42,118	4.6	24.6	36.7	6.0	5.8	22.2	29.2	11.8	
대 부	제조업	7,459	4.1	25.6	32.3	4.4	5.0	28.7	29.7	9.4	
	비제조업	34,659	4.7	24.4	37.6	6.4	6.0	20.9	29.1	12.4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7.2	29.2	26.0	2.9	10.6	24.2	36.4	13.5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2.9	19.0	23.9	4.1	3.7	46.4	21.9	7.8
		기타 제조	5,822	3.9	26.0	34.3	4.7	4.3	26.9	29.8	9.0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2.6	15.4	48.1	3.2	5.7	24.9	18.1	8.9
		건설업	8,211	3.5	23.9	42.2	6.0	3.0	21.3	27.4	9.0
		도매 및 소매업	10,963	6.1	23.3	30.3	7.1	9.5	23.6	29.4	16.6
		운수업	1,954	4.7	28.2	41.2	10.4	4.7	10.8	32.9	15.1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3.3	23.5	48.0	5.7	3.9	15.6	26.8	9.6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6.1	24.8	36.1	4.6	7.4	21.0	30.9	12.0
		금융 및 보험업	769	2.6	20.9	46.5	6.9	2.4	20.7	23.5	9.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4.3	14.2	54.5	9.2	7.3	10.6	18.5	16.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4.9	22.2	39.2	3.0	4.0	26.7	27.2	7.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3.4	31.7	39.3	6.2	4.8	14.6	35.1	11.0
		교육 서비스업	891	6.9	22.5	27.4	2.5	7.0	33.6	29.5	9.5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6.2	30.6	26.0	3.9	4.9	28.4	36.8	8.7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4.6	22.4	34.8	8.5	5.3	24.3	27.0	13.9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3.3	47.6	20.0	4.1	2.8	22.2	50.9	6.8		
중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2,217	5.3	23.0	38.1	6.4	6.6	20.6	28.2	13.0	
	5 ~ 19인	16,213	3.7	25.8	34.9	5.7	4.7	25.2	29.6	10.3	
	20 ~ 49인	2,634	4.8	26.3	37.7	5.8	7.1	18.3	31.1	12.9	
	50 ~ 99인	628	3.9	34.2	34.0	4.4	4.5	19.0	38.1	8.9	
	100인 이상	426	4.7	39.9	25.9	5.2	3.0	21.3	44.7	8.1	
별 외 권 별	수도권	26,182	4.5	22.0	29.9	5.6	6.3	31.7	26.5	11.9	
	경남권	6,429	6.3	30.8	44.5	7.3	5.3	5.8	37.1	12.6	
	경북권	3,348	3.2	27.6	52.5	6.5	5.3	4.9	30.8	11.8	
	전라권	3,236	4.7	29.3	47.3	7.2	3.4	8.2	34.0	10.6	
	충청권	2,923	3.9	25.4	50.3	5.3	5.8	9.3	29.3	11.1	

다. 마케팅 능력 중 취약 분야

- 여성기업의 마케팅 능력 중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처 예측 등 시장정보 수집’(24.1%)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수요처 개발 및 유통채널 관리’(14.0%),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개선 기획’(9.7%)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수요예측 등 시장정보 수집’ 능력이 가장 취약하다고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2010년 대비 2012년 조사결과가 9.3%p 더 낮게 나타남

(그림 54) 마케팅 능력 중 취약 분야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23.5%)과 비제조업(24.2%) 모두 ‘수요예측 등 시장정보 수집’ 능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수요 예측 등 시장정보 수집’ 다음으로 제조업은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개선 기획’(20.2%)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제조업은 ‘수요처개발 및 유통채널 관리’ (14.4%)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표 65> 마케팅 능력 중 취약 분야

(단위: 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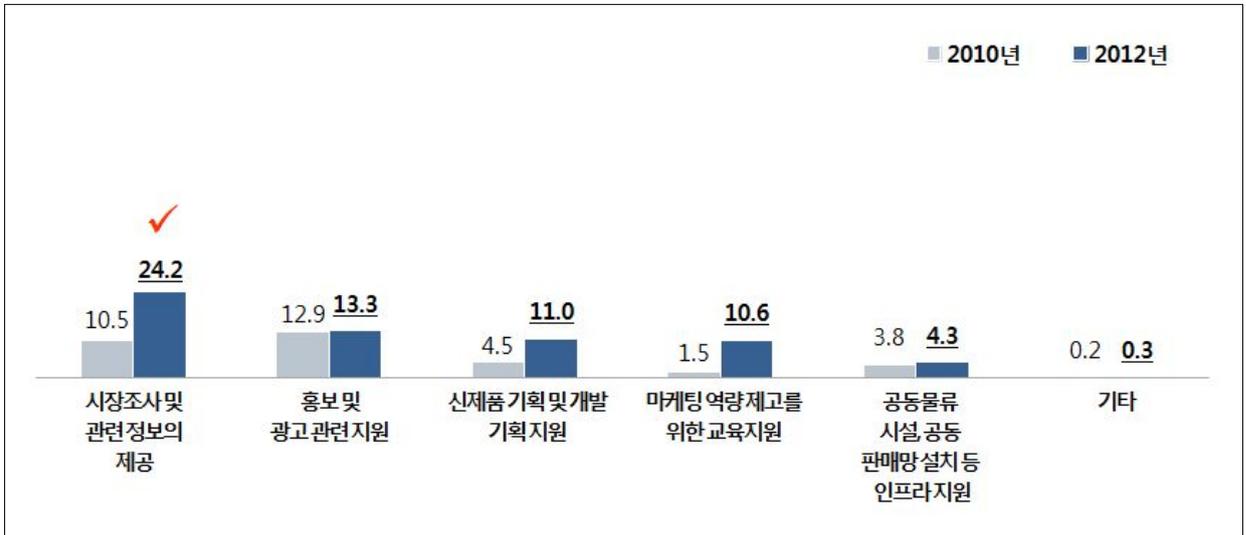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수요예측 등 시장정보 수집	수요처 개발 및 유통채널 관리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개선 기획	적정 판매가격 결정	브랜드 홍보 및 광고 능력	제품의 세부설계, 디자인 등의 개발	A/S 등 고객 사후 관리	해당 없음 (취약분야 없음)	
전체		42,118	24.1	14.0	9.7	6.8	6.4	4.2	4.0	30.8	
대분	제조업	7,459	23.5	12.3	20.2	5.8	4.4	6.9	2.5	24.4	
	비제조업	34,659	24.2	14.4	7.4	7.0	6.8	3.6	4.4	32.1	
세부업종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23.1	19.6	15.3	9.1	7.2	2.9	1.7	21.1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17.3	9.5	20.5	4.8	3.7	11.9	5.8	26.6
		기타 제조	5,822	24.4	11.6	20.9	5.5	4.1	6.8	2.2	24.6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17.5	15.6	5.0	8.5	1.1	0.0	1.9	50.5
		건설업	8,211	20.0	19.1	6.7	6.1	5.7	3.2	2.2	36.9
		도매 및 소매업	10,963	26.7	13.9	8.0	9.1	4.9	4.4	3.7	29.3
		운수업	1,954	14.9	15.5	4.1	5.4	8.5	0.9	7.9	42.7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22.6	11.3	10.1	5.8	12.8	1.6	3.2	32.5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20.7	19.2	18.4	4.2	12.6	4.8	2.3	17.8
		금융 및 보험업	769	27.9	8.7	5.2	6.7	3.5	1.4	11.8	34.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30.1	9.9	6.9	3.7	6.0	3.5	4.3	35.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29.0	14.4	11.3	3.8	8.9	9.8	5.3	17.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31.4	10.2	4.2	11.2	6.7	1.7	7.5	27.1
		교육 서비스업	891	23.4	8.9	0.0	2.9	15.5	1.0	4.7	43.5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12.7	7.5	2.7	2.6	6.0	0.0	2.4	66.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8.9	11.0	5.2	4.4	13.6	2.3	3.4	41.2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0.1	5.4	3.9	4.9	9.8	0.8	12.5	52.6		
종사자규모별	5인 미만	22,217	25.7	14.3	8.1	6.8	6.2	4.2	4.5	30.2	
	5 ~ 19인	16,213	22.0	13.6	11.4	6.9	6.6	4.2	3.1	32.1	
	20 ~ 49인	2,634	22.0	15.8	12.0	6.7	6.8	4.9	5.2	26.6	
	50 ~ 99인	628	23.0	13.3	12.9	3.8	6.9	3.0	5.4	31.8	
	100인 이상	426	30.7	8.6	10.3	10.3	4.0	2.8	3.6	29.7	
권역별	수도권	26,182	26.2	10.9	11.3	7.9	5.6	4.9	4.5	28.9	
	경남권	6,429	21.3	19.2	6.9	5.0	10.2	2.1	3.4	31.9	
	경북권	3,348	20.0	32.0	5.1	4.7	3.6	4.3	1.9	28.3	
	전라권	3,236	18.3	13.7	6.4	4.2	6.3	2.7	3.1	45.3	
	충청권	2,923	22.6	10.7	10.5	7.0	8.1	4.0	5.2	31.8	

라. 마케팅 관련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

- 마케팅과 관련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시장조사 및 관련 정보 제공'(24.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홍보 및 광고지원'(13.3%), '신제품 및 개발기획 지원'(1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에서는 '홍보 및 광고 관련 지원'(12.9%)이 가장 높게 나타났었으나, 2012년 여성기업체 조사에서는 '시장조사 및 관련 정보의 제공'(24.2%)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55) 마케팅 관련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신제품 기획 및 개발 기획 지원'(23.7%), '시장조사 및 관련 정보의 제공'(21.2%), '홍보 및 광고 관련 지원'(10.0%) 순으로 나타남 반면, 비제조업은 '시장조사 및 관련 정보의 제공'(24.9%), '홍보 및 광고 관련 지원'(14.0%), '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11.0%) 등의 순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임
- 한편, 제조업 중 '기타 제조업'(25.2%), '섬유/의복/가방/신발'(22.5%), 비제조업 중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23.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0.5%)에서는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개선 기획 지원'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66> 마케팅 관련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

(단위: 개사 %)

구분		사례 수	시장조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홍보 및 광고 관련 지원	신제품 기획 및 개발 지원	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공동물류 시설, 공동판매 망 설치 등 인프라 지원	기타	모름/ 무응답	해당 없음 (정부지원 불필요)	
전체		42,118	24.2	13.3	11.0	10.6	4.3	0.3	0.1	36.2	
부 문	제조업	7,459	21.2	10.0	23.7	8.7	6.9	0.1	0.2	29.3	
	비제조업	34,659	24.9	14.0	8.3	11.0	3.7	0.4	0.0	37.7	
세 부 업 종 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20.6	16.6	14.0	9.2	11.7	0.0	0.3	27.5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19.8	9.3	22.5	9.6	3.6	0.7	0.0	34.4
		기타 제조	5,822	21.5	9.1	25.2	8.5	6.7	0.0	0.2	28.9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26.6	8.2	2.2	6.5	0.0	0.0	0.9	55.6
		건설업	8,211	22.7	13.4	6.3	14.3	3.4	0.3	0.0	39.7
		도매 및 소매업	10,963	28.6	13.1	7.5	9.4	5.4	0.2	0.0	35.8
		운수업	1,954	23.4	13.1	3.4	8.3	4.8	0.8	0.0	46.2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19.0	22.0	5.3	10.2	3.6	1.1	0.0	38.7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20.1	16.3	23.8	13.9	1.7	0.9	0.0	23.3
		금융 및 보험업	769	19.0	15.4	4.0	12.3	2.9	0.0	0.0	46.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20.3	8.5	9.7	10.1	4.0	0.0	0.6	46.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27.8	15.0	20.5	10.0	3.1	0.6	0.0	23.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31.0	16.7	6.1	9.5	1.3	0.5	0.0	35.0
		교육 서비스업	891	14.8	20.3	4.1	19.4	1.9	0.0	0.0	39.6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7.4	14.8	2.6	6.4	0.0	1.2	0.0	67.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5.1	20.4	8.9	12.4	1.8	0.8	0.0	40.6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3.8	11.1	3.9	4.9	1.9	0.3	0.0	64.1		
중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2,217	25.1	13.1	10.1	9.9	4.6	0.3	0.1	36.8	
	5 ~ 19인	16,213	23.6	13.8	11.3	11.5	3.9	0.3	0.0	35.5	
	20 ~ 49인	2,634	21.4	13.4	14.7	11.7	3.8	0.2	0.1	34.8	
	50 ~ 99인	628	20.6	12.3	16.8	9.9	3.3	0.0	0.0	37.0	
	100인 이상	426	27.9	10.3	14.9	6.4	3.5	1.9	0.0	35.1	
관 외 별	수도권	26,182	26.7	12.5	13.8	8.0	4.2	0.5	0.1	34.2	
	경남권	6,429	21.9	13.7	5.4	14.4	4.9	0.0	0.0	39.6	
	경북권	3,348	17.2	19.0	7.3	21.7	3.7	0.0	0.0	31.1	
	전라권	3,236	20.6	13.8	4.6	9.5	4.2	0.0	0.0	47.3	
	충청권	2,923	19.0	12.5	9.1	14.6	4.6	0.0	0.0	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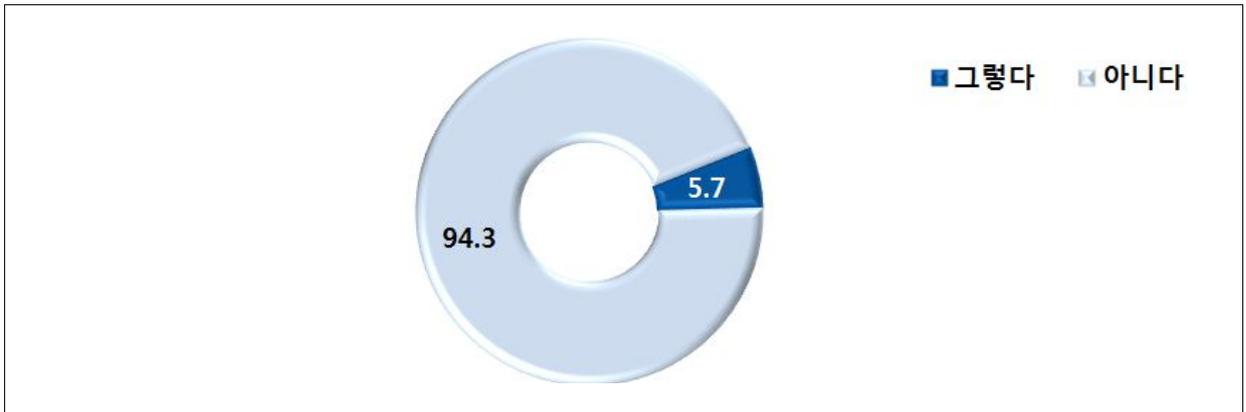
7 해외 수출 활동

가. 2012년도 수출 실적 유무

- 2012년도에 자사의 제품을 수출한 실적이 있는 여성기업은 5.7%로, 대부분의 여성기업(94.3%)은 수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6) 2012년도 수출 실적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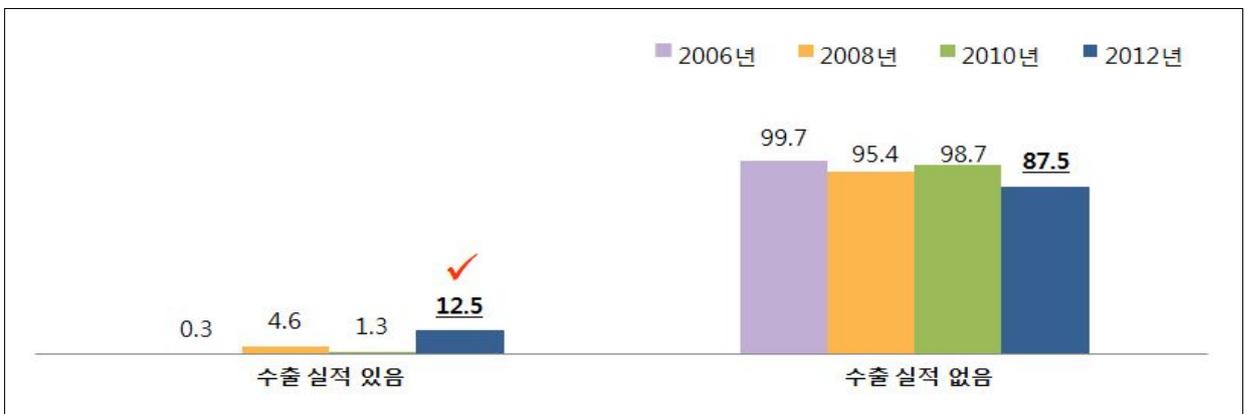
(단위: %)



- 여성기업 중 제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2년도에 수출실적이 있는 여성기업 (12.5%)이 2010년(1.3%) 보다 11.2%p 더 높음. 그러나 여전히 수출실적이 없는 여성기업 비중은 87.5%로, 국내 여성기업은 대체로 내수시장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57) 여성제조기업의 수출 실적 유무(제조업)

(단위: %)



- 수출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중에서는 '섬유/의복/가방/신발' 제조업이 15.9%로 가장 높았으며, 비제조업에서는 '도/소매업'(8.8%)과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8.0%)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수출 기업이 더 많았으며,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는 약 10% 정도가 수출 여성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권역별로는 '수도권'(7.1%)이 다른 권역에 비해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비율이 다소 높음

<표 67> 2012년 수출 실적 유무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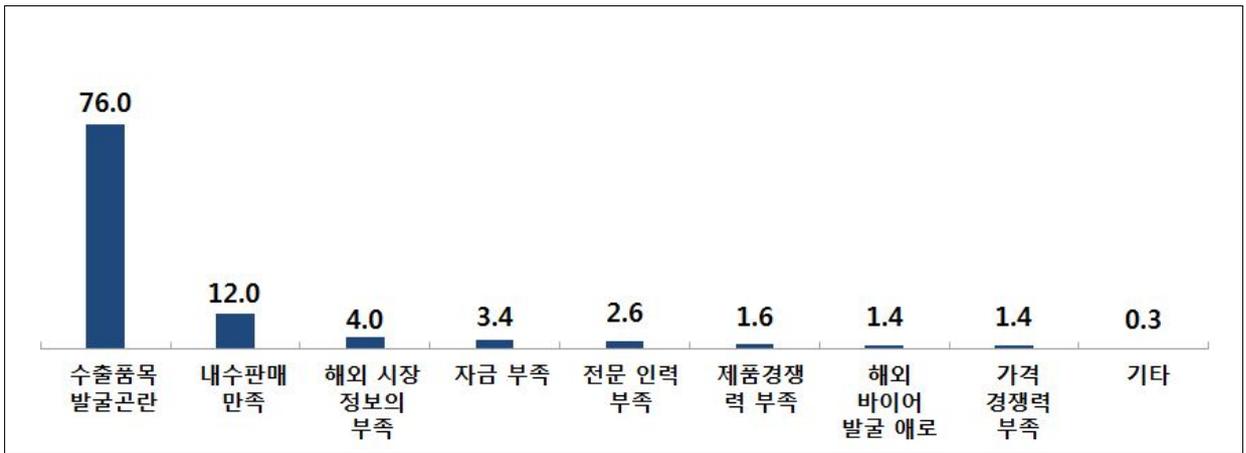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그렇다	아니다	
전 체		42,118	5.7	94.3	
부 문	제조업	7,459	12.5	87.5	
	비제조업	34,659	4.2	95.8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품/음료 제조	834	6.8	93.2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15.9	84.1
		기타 제조	5,822	12.8	87.2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2.0	98.0
		건설업	8,211	0.3	99.7
		도매 및 소매업	10,963	8.8	91.2
		운수업	1,954	2.7	97.3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0.0	10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8.0	92.0
		금융 및 보험업	769	0.0	1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0.0	1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5.0	95.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3.9	96.1
		교육 서비스업	891	0.0	100.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0.0	10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8	98.2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0.6	99.4		
종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2,217	5.2	94.8	
	5 ~ 19인	16,213	5.5	94.5	
	20 ~ 49인	2,634	8.5	91.5	
	50 ~ 99인	628	10.7	89.3	
	100인 이상	426	10.5	89.5	
권 역 별	수도권	26,182	7.1	92.9	
	경남권	6,429	3.9	96.1	
	경북권	3,348	3.2	96.8	
	전라권	3,236	2.6	97.4	
	충청권	2,923	2.6	97.4	

나. 수출을 하지 않는 이유

- 2012년 수출 실적이 없는 여성기업은 제품 수출을 하지 않는 이유로 '수출품목 발굴 곤란'(76.0%)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내수판매 만족'(12.0%), '해외 시장정보의 부족'(4.0%) 등으로 응답함

(그림 58) 수출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수출품목 발굴 곤란'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제조업(62.3%)보다는 비제조업(78.7%)에서 '수출품목 발굴 곤란'에 대한 응답이 높으나, 이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비제조업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됨
 - '내수판매 만족'이라는 응답은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22.5%)과 비제조업 중, '도매 및 소매업(2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해외시장 정보의 부족'이라는 응답은 '섬유/의복/가방/신발'(10.0%)에서 가장 높았으며, '자금 부족'이라는 응답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8%)에서 높게 나타남
- 권역 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내수판매 만족'으로 수출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이 16.2%로 타 권역 대비 높게 나타남

<표 68> 수출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수출 품목 발굴 근관	내수 판매 만족	해외 시장 정보의 부족	자금 부족	전문 인력의 부족	제품 경쟁력 부족	해외 바이어 발굴 애로	가격경 쟁력 부족	기타	
전 체		39,737	76.0	12.0	4.0	3.4	2.6	1.6	1.4	1.4	0.3	
부 업	제조업	6,528	62.3	19.3	6.3	4.2	4.6	2.1	2.6	3.2	0.2	
	비제조업	33,208	78.7	10.6	3.6	3.2	2.2	1.5	1.2	1.0	0.4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777	59.9	20.8	8.9	2.8	3.9	2.6	5.1	2.0	0.0
		섬유/의복/가방/신발	675	58.3	22.5	10.0	3.8	3.9	2.6	1.8	4.8	0.0
		기타 제조	5,076	63.2	18.7	5.4	4.4	4.7	2.0	2.4	3.2	0.2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52	94.2	4.6	0.8	0.4	0.0	0.8	0.0	0.0	0.0
		건설업	8,189	83.6	8.4	3.4	2.4	1.5	1.3	0.4	0.5	0.5
		도매 및 소매업	9,997	67.9	20.0	4.8	1.5	2.3	1.8	1.5	1.0	0.8
		운수업	1,902	87.9	4.6	1.4	0.6	5.6	0.4	0.4	0.4	0.0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90.2	5.9	0.8	2.8	0.8	0.0	0.0	0.0	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549	61.0	18.4	7.8	5.8	7.4	3.4	4.2	4.7	0.0
		금융 및 보험업	769	94.1	4.0	0.0	1.9	1.4	0.0	0.0	0.0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79.3	3.0	0.0	13.3	0.9	1.7	0.9	1.5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285	71.1	5.2	5.8	11.8	4.8	2.0	3.1	1.9	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317	90.3	3.2	2.3	1.9	0.4	0.8	0.8	0.9	0.0
		교육 서비스업	891	92.0	2.6	4.9	0.0	1.7	1.3	2.1	0.0	0.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95.1	4.9	0.0	0.0	0.0	0.0	0.0	0.0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16	88.0	5.4	2.0	2.6	0.0	1.8	1.0	0.0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69	89.0	5.6	1.6	0.6	0.6	1.4	1.1	0.8	0.0
중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1,059	77.5	10.2	3.9	3.2	2.1	1.8	1.4	1.4	0.2	
	5 ~ 19인	15,325	73.3	15.1	4.3	3.5	3.4	1.2	1.3	1.5	0.5	
	20 ~ 49인	2,410	76.1	10.8	4.2	3.8	2.7	1.8	2.2	0.7	0.1	
	50 ~ 99인	561	80.9	8.1	4.1	3.2	2.7	2.4	1.4	0.8	0.0	
	100인 이상	381	85.8	6.2	3.0	2.1	0.0	0.6	1.1	0.6	1.2	
권 역 별	수도권	24,318	68.7	16.2	4.9	3.9	2.2	1.9	1.6	1.9	0.5	
	경남권	6,180	89.7	4.2	2.7	1.2	2.9	1.0	1.1	0.2	0.0	
	경북권	3,241	87.0	3.0	1.8	4.3	5.5	1.5	1.4	1.1	0.0	
	전라권	3,150	87.0	7.2	2.3	2.9	2.8	0.3	1.7	0.1	0.0	
	충청권	2,847	83.4	8.8	3.7	3.2	2.4	1.2	0.2	1.6	0.0	

※ '12년 제품 수출 실적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다. 현재 주요 수출국 및 향후 관심 수출국

- 수출 실적이 있는 여성기업의 현재 주요 수출국은 '중국'(39.5%), '일본'(31.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향후 관심 수출국은 '아시아(중국과 일본 제외)'(24.6%), '중국'(2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9) 현재 주요 수출국 및 향후 관심 수출국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는 현재 '일본'(35.7%)에 주로 수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중국'(24.9%)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의 경우는 현재 '중국'(42.4%)에 주로 수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아시아(중국/일본 제외, 27.2%)를 관심 수출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는 '50~99인'을 제외하고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는 응답이 모두 높게 나타났음. 한편, 향후 수출국으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아시아(중국/일본 제외)' 수출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69> 현재 주요 수출국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현재 주요 수출국											
		중국	일본	아시아 (중국/ 일본 제외)	미국	유럽	중동	러시아 / CIS	중남미/ 캐나다	호주/ 오세아 니아	아프 리카		
전 체	2,381	39.5	31.3	23.9	20.4	8.9	5.1	4.0	3.7	3.4	0.8		
부 문	제조업	931	35.0	35.7	26.8	19.3	10.9	6.1	3.0	2.6	3.1	0.3	
	비제조업	1,451	42.4	28.4	22.0	21.2	7.7	4.5	4.6	4.5	3.6	1.1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품/음료 제조	57	39.4	42.2	41.8	46.8	11.7	0.0	0.0	0.0	0.0	0.0
		섬유/의복/가방/신발	128	34.2	35.1	24.1	13.8	9.8	0.0	0.0	2.6	2.6	0.0
		기타 제조	746	34.8	35.3	26.1	18.2	11.0	7.6	3.7	2.8	3.4	0.4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9	56.6	0.0	43.4	0.0	0.0	0.0	0.0	0.0	0.0	0.0
		건설업	22	100.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966	42.1	27.3	25.7	17.4	4.7	2.7	6.0	6.7	5.4	0.0
		운수업	52	47.4	0.0	0.0	19.2	38.5	14.1	0.0	0.0	0.0	0.0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	-	-	-	-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34	22.8	21.2	19.5	27.3	6.7	3.3	5.2	0.0	0.0	11.4
		금융 및 보험업	-	-	-	-	-	-	-	-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	-	-	-	-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1	31.7	40.6	11.4	31.7	3.6	11.3	1.8	0.0	0.0	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35	64.1	35.9	19.9	16.0	22.1	9.9	0.0	0.0	0.0	0.0
		교육 서비스업	-	-	-	-	-	-	-	-	-	-	-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	0.0	0.0	0.0	100.0	45.6	0.0	0.0	0.0	0.0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종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1,158	39.7	27.9	27.3	18.1	6.3	4.6	4.5	3.4	4.5	0.9	
	5 ~ 19인	888	40.6	35.5	20.2	19.7	11.5	6.1	2.1	5.1	2.4	0.5	
	20 ~ 49인	224	39.7	35.2	19.4	30.4	12.7	6.5	5.2	1.5	1.5	1.3	
	50 ~ 99인	67	31.9	34.6	24.2	27.5	6.7	0.0	11.5	0.0	0.0	0.0	
	100인 이상	45	24.1	9.8	31.5	34.8	9.8	0.0	9.7	0.0	9.8	0.0	
권 역 별	수도권	1,864	37.4	25.7	24.1	21.0	9.4	3.3	3.0	4.8	4.1	0.8	
	경남권	249	51.7	54.7	25.0	11.0	6.6	21.3	10.5	0.0	1.3	0.0	
	경북권	107	46.6	62.5	15.1	28.4	2.7	0.0	4.8	0.0	0.0	2.7	
	전라권	85	38.7	33.1	29.2	22.1	21.6	0.0	8.2	0.0	0.0	0.0	
	충청권	76	42.6	45.1	20.2	24.6	0.0	9.2	0.0	0.0	2.9	0.0	

※ '12년 제품 수출 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표 70> 향후 관심 수출국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향후 관심 수출국												
		아시아 (중국/ 일본 제외)	중국	유럽	미국	중남미/ 캐나다	일본	중동	호주/ 오세 아니아	러시아/ CIS	아프 리카	없음/ 모름/ 무응답		
전 체	2,381	24.6	21.6	12.4	11.4	5.9	5.3	3.8	3.7	2.3	0.8	22.0		
대분	제조업	931	20.7	24.9	8.7	14.9	4.5	6.3	3.8	3.6	3.0	2.0	19.4	
	비제조업	1,451	27.2	19.5	14.7	9.1	6.8	4.6	3.8	3.8	1.8	0.0	23.6	
세부업종별	제조업	식품/음료 제조	57	26.1	7.7	2.3	16.1	0.0	4.3	0.0	11.7	4.3	2.3	39.6
		섬유/의복/가방/신발	128	15.9	24.6	11.9	9.3	11.6	0.0	1.6	2.6	0.0	0.0	25.3
		기타 제조	746	21.1	26.2	8.7	15.7	3.6	7.6	4.5	3.2	3.5	2.3	16.9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9	0.0	43.4	18.5	0.0	0.0	38.1	0.0	0.0	0.0	0.0	0.0
		건설업	22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966	29.3	18.4	16.1	8.3	7.4	2.0	4.0	4.7	2.7	0.0	22.6
		운수업	52	14.1	19.2	0.0	19.2	0.0	0.0	28.2	19.2	0.0	0.0	0.0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	-	-	-	-	-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34	14.8	24.1	9.0	10.4	10.4	19.5	1.9	0.0	0.0	0.0	26.2
		금융 및 보험업	-	-	-	-	-	-	-	-	-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	-	-	-	-	-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1	18.6	15.4	22.6	20.4	11.3	3.6	0.0	0.0	0.0	0.0	34.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35	26.0	29.8	9.9	0.0	0.0	9.9	0.0	0.0	0.0	0.0	34.3
		교육 서비스업	-	-	-	-	-	-	-	-	-	-	-	-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	-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	0.0	0.0	45.6	54.4	0.0	0.0	0.0	0.0	0.0	0.0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중사자규모별	5인 미만	1,158	28.9	25.4	10.9	8.9	8.2	4.8	0.0	3.1	3.4	0.0	24.2	
	5 ~ 19인	888	21.7	16.4	12.9	12.6	3.7	6.2	8.4	5.3	0.8	1.6	18.8	
	20 ~ 49인	224	21.1	22.3	15.2	19.3	5.4	5.6	2.6	2.8	2.4	1.3	16.3	
	50 ~ 99인	67	15.7	22.7	20.1	14.2	0.0	3.4	7.2	0.0	3.4	0.0	29.8	
	100인 이상	45	4.5	22.1	12.7	4.9	0.0	0.0	14.3	0.0	0.0	2.9	43.6	
권역별	수도권	1,864	23.5	23.3	11.3	10.8	7.2	5.9	4.1	4.4	2.9	0.8	20.3	
	경남권	249	24.6	17.1	16.1	7.0	2.3	2.8	2.8	0.0	0.0	1.2	32.6	
	경북권	107	32.3	19.4	10.5	11.9	0.0	6.5	4.8	0.0	0.0	0.0	31.2	
	전라권	85	22.1	9.3	29.4	22.4	0.0	2.6	2.6	0.0	0.0	0.0	23.5	
	충청권	76	45.4	12.3	8.9	27.2	0.0	0.0	0.0	8.7	0.0	0.0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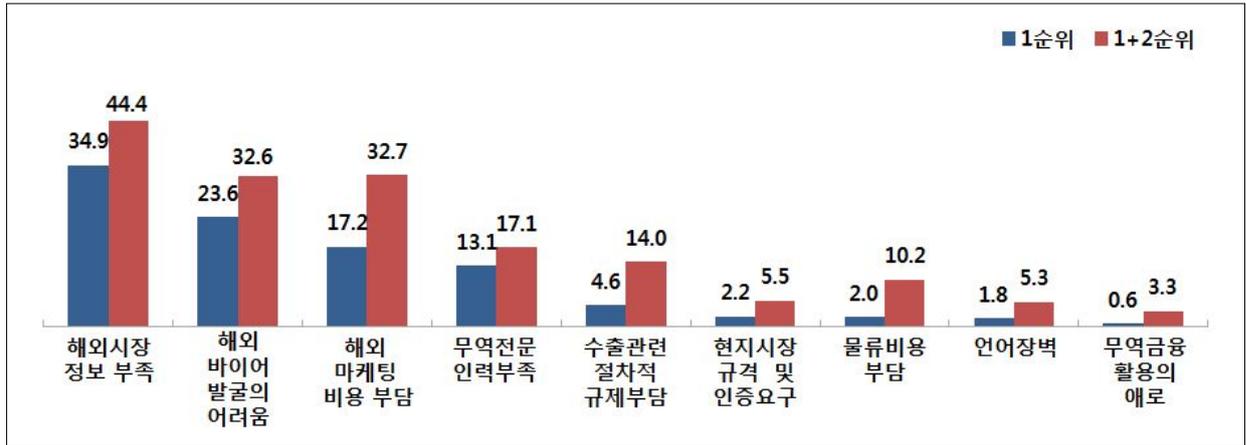
※ '12년 제품 수출 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라. 해외시장 개척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 여성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해외시장 정보 부족’(34.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해외 바이어 발굴 어려움’(23.6%), ‘해외마케팅 비용 부담’(1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60) 해외시장 개척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비제조업(38.1%)과 제조업(30.0%) 모두 ‘해외시장 정보 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비제조업은 제조업보다 ‘해외시장 정보 부족’과 ‘해외마케팅 비용 부담’에 더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제조업은 ‘해외 바이어 발굴 어려움’, ‘무역 전문인력 부족’에 비제조업보다 더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71> 해외시장 개척 과정의 애로사항(1/2)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해외시장 정보 부족	해외 바이어 발굴 어려움	해외마케팅 비용 부담	무역전문인력 부족	수출관련 절차적 규제 부담	
전 체		2,381	34.9	23.6	17.2	13.1	4.6	
부 면	제조업	931	30.0	26.5	13.5	17.8	4.1	
	비제조업	1,451	38.1	21.7	19.6	10.0	4.9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57	34.8	37.6	7.0	14.0	0.0
		섬유/의복/가방/신발	128	18.6	41.5	2.6	18.3	7.2
		기타 제조	746	31.6	23.0	15.8	17.9	3.9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9	18.5	0.0	0.0	38.1	0.0
		건설업	22	0.0	0.0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966	39.9	22.2	19.7	11.9	4.7
		운수업	52	47.4	0.0	19.2	0.0	33.3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34	19.0	42.7	22.7	2.3	0.0
		금융 및 보험업	-	-	-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1	22.2	15.0	29.9	12.6	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35	61.8	16.0	9.9	6.1	6.1
		교육 서비스업	-	-	-	-	-	-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	0.0	45.6	54.4	0.0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	100.0	0.0	0.0	0.0	0.0		
중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1,158	38.3	28.1	16.4	10.9	3.1	
	5 ~ 19인	888	29.6	17.5	19.6	16.7	7.0	
	20 ~ 49인	224	28.9	27.3	18.3	9.8	4.1	
	50 ~ 99인	67	54.8	20.8	5.6	7.7	0.0	
	100인 이상	45	52.5	12.3	0.0	22.5	4.9	
권 역 별	수도권	1,864	36.9	19.1	18.0	15.6	5.5	
	경남권	249	25.7	45.2	16.7	0.0	0.0	
	경북권	107	13.3	47.9	6.5	11.3	0.0	
	전라권	85	38.8	19.0	17.8	7.7	7.0	
	충청권	76	42.0	33.9	12.2	2.9	0.0	

※ 수출경험이 있는 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조사

<표 72> 해외시장 개척 과정의 애로사항(2/2)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현지시장 규격 및 인증요구	물류비용 부담	언어장벽	무역금융 활용 애로	없음	
전 체		2,381	2.2	2.0	1.8	0.6	0.2	
부 업	제조업	931	3.2	2.4	2.6	0.0	0.0	
	비제조업	1,451	1.5	1.7	1.2	0.9	0.4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57	6.6	0.0	0.0	0.0	0.0
		섬유/의복/가방/신발	128	0.0	2.6	9.2	0.0	0.0
		기타 제조	746	3.5	2.5	1.7	0.0	0.0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9	0.0	0.0	43.4	0.0	0.0
		건설업	22	100.0	0.0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966	0.0	0.0	0.0	.9	.5
		운수업	52	0.0	0.0	0.0	0.0	0.0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34	0.0	0.0	10.0	3.3	0.0
		금융 및 보험업	-	-	-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1	0.0	20.3	0.0	0.0	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35	0.0	0.0	0.0	0.0	0.0
		교육 서비스업	-	-	-	-	-	-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	0.0	0.0	0.0	0.0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	0.0	0.0	0.0	0.0	0.0
종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1,158	0.6	1.8	0.8	0.0	0.0	
	5 ~ 19인	888	4.1	2.0	3.0	0.5	0.0	
	20 ~ 49인	224	2.4	2.8	2.6	3.9	0.0	
	50 ~ 99인	67	0.0	3.4	0.0	0.0	7.7	
	100인 이상	45	7.8	0.0	0.0	0.0	0.0	
권 역 별	수도권	1,864	0.4	2.3	1.2	0.7	0.3	
	경남권	249	5.8	1.3	5.3	0.0	0.0	
	경북권	107	21.0	0.0	0.0	0.0	0.0	
	전라권	85	1.5	0.0	8.2	0.0	0.0	
	충청권	76	9.1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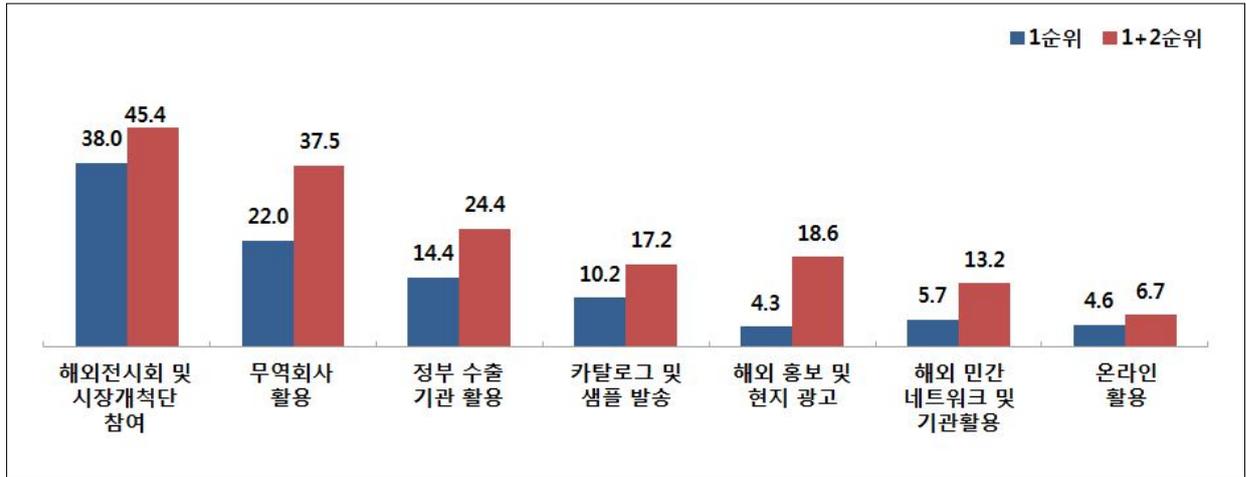
※ 수출경험이 있는 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조사

마. 효과적인 해외 마케팅 수단

- 여성기업에게 가장 효과적인 해외 마케팅 수단은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여’(38.0%)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무역회사 활용’(22.0%), ‘정부 수출기관 활용’(1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61) 효과적인 해외 마케팅 수단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45.7%)과 비제조업(33.1%) 모두 가장 효과적인 해외 마케팅 수단으로 ‘해외전시회 및 시장 개척단 참여’를 꼽음
 - 한편, 비제조업(18.3%)에서는 ‘우리정부의 수출 지원기관 활용’이라는 응답이 제조업(8.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해외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여’에 대한 응답 비중은 종업원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남

<표 73> 효과적인 해외 마케팅 수단(1/2)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여	무역회사 활용	우리정부의 수출 지원기관 활용	제품 카탈로그 및 샘플 발송	해외 민간네트워크 및 관련기관 활용	
전 체		2,381	38.0	22.0	14.4	10.2	5.7	
업 종	제조업	931	45.7	25.1	8.3	10.1	3.2	
	비제조업	1,451	33.1	20.0	18.3	10.2	7.3	
세 구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57	28.1	21.1	26.2	20.3	0.0
		섬유/의복/가방/신발	128	38.4	19.0	9.3	19.1	7.1
		기타 제조	746	48.3	26.4	6.8	7.8	2.8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9	38.1	0.0	0.0	18.5	0.0
		건설업	22	0.0	0.0	0.0	100.0	0.0
		도매 및 소매업	966	29.5	25.7	23.9	9.7	6.7
		운수업	52	0.0	33.3	19.2	0.0	0.0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34	39.3	8.1	12.7	0.0	16.2
		금융 및 보험업	-	-	-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1	61.0	7.8	0.0	11.3	16.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35	45.8	0.0	6.1	12.2	0.0
		교육 서비스업	-	-	-	-	-	-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	45.6	0.0	0.0	0.0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	0.0	100.0	0.0	0.0	0.0
중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1,158	32.8	26.9	19.4	7.5	5.8	
	5 ~ 19인	888	42.9	14.9	9.7	13.3	6.4	
	20 ~ 49인	224	42.1	17.3	11.8	14.9	5.4	
	50 ~ 99인	67	41.7	30.5	9.0	7.7	0.0	
	100인 이상	45	49.0	46.1	0.0	0.0	0.0	
권 역 별	수도권	1,864	36.6	21.7	13.9	9.5	7.1	
	경남권	249	41.6	27.4	22.9	3.5	0.0	
	경북권	107	30.7	36.7	0.0	27.5	3.1	
	전라권	85	62.8	0.0	21.0	8.2	0.0	
	충청권	76	43.4	14.0	11.7	27.0	0.0	

※ 수출경험이 있는 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조사

<표 74> 효과적인 해외 마케팅 수단(2/2)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e-market place등의 온라인 활용	해외홍보지 및 해외 현지 광고	기타	없음	
전 체		2,381	4.6	4.3	0.6	0.2	
부 면	제조업	931	2.8	4.1	0.6	0.0	
	비제조업	1,451	5.8	4.5	0.5	0.3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57	4.3	0.0	0.0	0.0
		섬유/의복/가방/신발	128	0.0	2.6	4.5	0.0
		기타 제조	746	3.2	4.7	0.0	0.0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9	43.4	0.0	0.0	0.0
		건설업	22	0.0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966	0.5	4.0	0.0	0.0
		운수업	52	14.1	19.2	14.1	0.0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34	13.7	10.0	0.0	0.0
		금융 및 보험업	-	-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1	0.0	0.0	0.0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35	35.9	0.0	0.0	0.0
		교육 서비스업	-	-	-	-	-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	0.0	54.4	0.0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	0.0	0.0	0.0	0.0		
중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1,158	4.8	2.3	0.5	0.0	
	5 ~ 19인	888	4.6	7.4	0.8	0.0	
	20 ~ 49인	224	3.8	2.8	0.0	2.0	
	50 ~ 99인	67	7.7	3.4	0.0	0.0	
	100인 이상	45	0.0	4.9	0.0	0.0	
권 역 별	수도권	1,864	5.7	4.4	0.7	0.2	
	경남권	249	0.0	4.6	0.0	0.0	
	경북권	107	0.0	2.0	0.0	0.0	
	전라권	85	0.0	8.0	0.0	0.0	
	충청권	76	3.8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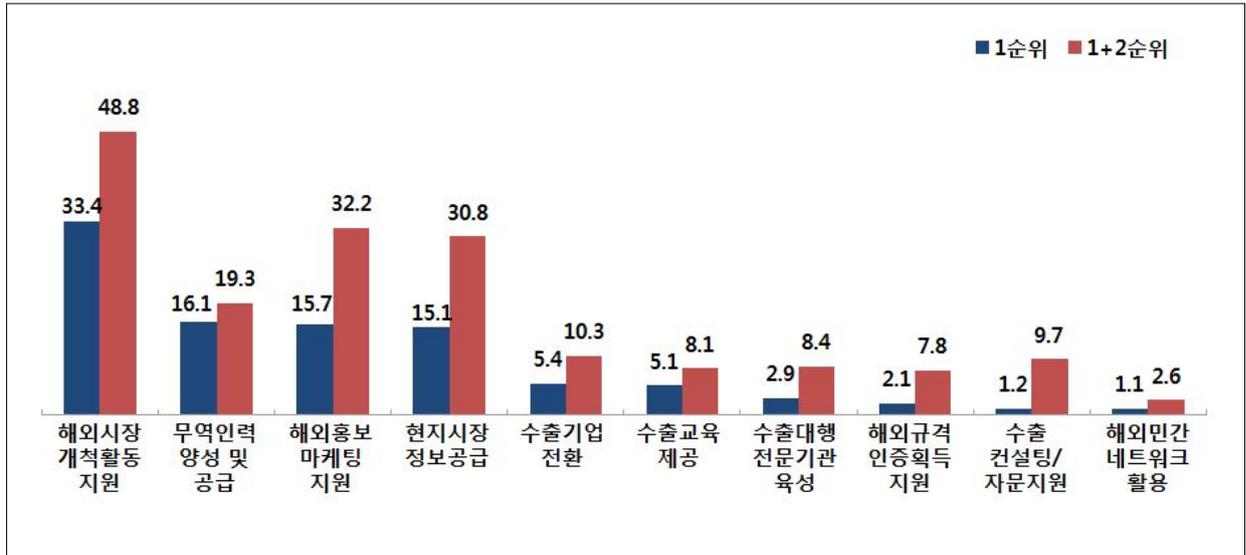
※ 수출경험이 있는 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조사

바.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분야

- 여성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로는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33.4%)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음. 그 다음으로는 ‘무역인력 양성 및 공급’(16.1%), ‘해외홍보 마케팅 지원’(1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62)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 분야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수출 관련 정부 지원 필요 분야에 대해 제조업(39.4%)과 비제조업(29.5%) 모두 ‘해외 시장 개척활동 지원 강화’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그 다음으로 제조업은 ‘무역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18.5%), ‘현지 시장 정보 공급’(11.2%) 순인 반면, 비제조업은 ‘해외 홍보 마케팅 활동 지원’(19.8%), ‘현지 시장 정보 공급’(1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75>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 분야(1/2)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강화	무역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해외 홍보, 마케팅 활동 지원	현지시장 정보 공급	내수중심기 업의 수출기업 전환지원	수출교육 제공	
전 체		2,381	33.4	16.1	15.7	15.1	5.4	5.1	
부 업	제조업	931	39.4	18.5	9.3	11.2	4.4	9.4	
	비제조업	1,451	29.5	14.5	19.8	17.7	6.0	2.4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품/음료 제조	57	32.8	16.1	20.3	26.2	0.0	2.3
		섬유/의복/가방/신발	128	40.1	17.2	12.3	7.2	13.8	4.6
		기타 제조	746	39.7	18.9	7.9	10.7	3.1	10.7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9	38.1	0.0	43.4	0.0	0.0	0.0
		건설업	22	0.0	0.0	0.0	10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966	23.7	16.8	23.7	16.1	5.4	2.7
		운수업	52	33.3	19.2	0.0	47.4	0.0	0.0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34	52.6	4.2	15.6	11.4	8.1	0.0
		금융 및 보험업	-	-	-	-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1	52.1	12.6	3.6	11.3	9.0	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35	29.8	12.2	19.9	16.0	9.9	6.1
		교육 서비스업	-	-	-	-	-	-	-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	0.0	0.0	45.6	54.4	0.0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	100.0	0.0	0.0	0.0	0.0	0.0		
종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1,158	29.9	17.3	16.2	14.1	7.7	4.0	
	5 ~ 19인	888	32.9	15.1	14.2	19.7	4.1	6.3	
	20 ~ 49인	224	44.6	12.2	21.5	9.2	0.0	3.9	
	50 ~ 99인	67	47.6	17.9	17.8	2.3	3.4	3.4	
	100인 이상	45	55.4	19.2	0.0	0.0	0.0	17.6	
권 역 별	수도권	1,864	30.8	18.9	17.1	12.2	6.8	6.3	
	경남권	249	30.5	2.0	14.0	37.1	0.0	1.2	
	경북권	107	64.1	2.0	5.4	23.7	0.0	0.0	
	전라권	85	60.6	8.0	5.7	0.0	0.0	0.0	
	충청권	76	31.7	20.8	12.6	20.0	3.0	2.9	

※ 수출경험이 있는 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조사

<표 76>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 분야(2/2)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수출대행 전문기관 육성	해외규격 인증 획득지원 사업	수출컨설팅/ 자문지원	해외민간네 트워크 활용 지원	기타	없음	
전 체		2,381	2.9	2.1	1.2	1.1	1.2	0.7	
부 면	제조업	931	1.8	4.1	1.1	0.0	0.0	1.0	
	비제조업	1,451	3.7	0.7	1.3	1.8	1.9	0.6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57	0.0	2.3	0.0	0.0	0.0	0.0
		섬유/의복/가방/신발	128	0.0	4.6	0.0	0.0	0.0	0.0
		기타 제조	746	2.2	4.1	1.3	0.0	0.0	1.2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9	0.0	0.0	0.0	0.0	18.5	0.0
		건설업	22	0.0	0.0	0.0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966	3.2	0.0	2.0	2.7	2.7	0.9
		운수업	52	0.0	0.0	0.0	0.0	0.0	0.0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34	0.0	8.1	0.0	0.0	0.0	0.0
		금융 및 보험업	-	-	-	-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1	11.3	0.0	0.0	0.0	0.0	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35	6.1	0.0	0.0	0.0	0.0	0.0
		교육 서비스업	-	-	-	-	-	-	-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	0.0	0.0	0.0	0.0	0.0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	0.0	0.0	0.0	0.0	0.0	0.0		
중 사 자 구 모 별	5인 미만	1,158	4.0	1.5	0.0	2.3	2.3	0.6	
	5 ~ 19인	888	1.7	3.0	3.0	0.0	0.0	0.0	
	20 ~ 49인	224	1.3	1.3	1.3	0.0	0.8	3.9	
	50 ~ 99인	67	7.7	0.0	0.0	0.0	0.0	0.0	
	100인 이상	45	0.0	2.9	0.0	0.0	0.0	4.9	
관 외 지역	수도권	1,864	3.0	2.0	1.4	0.0	1.5	0.0	
	경남권	249	0.0	0.0	1.2	10.5	0.0	3.5	
	경북권	107	0.0	2.7	0.0	0.0	0.0	2.0	
	전라권	85	16.0	9.7	0.0	0.0	0.0	0.0	
	충청권	76	0.0	0.0	0.0	0.0	0.0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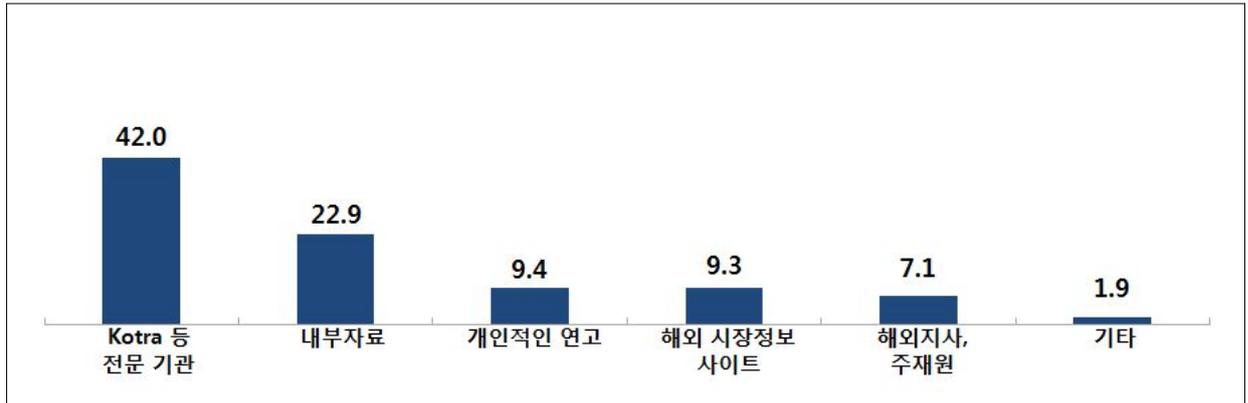
※ 수출경험이 있는 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조사

사. 해외 시장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

- 여성기업이 해외 시장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는 'KOTRA 또는 무역협회 등 전문 기관'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내부자료'(22.9%), '개인적인 연고'(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63) 해외 시장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48.8%)과 비제조업(37.6%) 모두 'KOTRA 또는 무역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해 해외 시장 정보를 얻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 한편, 비제조업 중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81.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54.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39.7%)은 '시장조사 등 내부자료'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77> 해외 시장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KOTRA 또는 무역협회 등 전문기관	시장조사 등 내부자료	개인적인 연고	해외 시장정보 제공 사이트	해외지사 또는 주재원	해당 없음 (해외시장 정보수집 경험 없음)	기타	
전 체		2,381	42.0	22.9	9.4	9.3	7.1	7.3	1.9	
부 문	제조업	931	48.8	16.2	9.8	9.3	5.3	7.9	2.7	
	비제조업	1,451	37.6	27.3	9.2	9.4	8.3	6.9	1.3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57	60.2	21.4	6.6	0.0	0.0	11.8	0.0
		섬유/의복/가방/신발	128	39.1	14.3	18.3	11.9	2.6	9.3	4.5
		기타 제조	746	49.6	16.1	8.6	9.5	6.2	7.4	2.7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9	0.0	81.5	18.5	0.0	0.0	0.0	0.0
		건설업	22	100.0	0.0	0.0	0.0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966	38.5	26.2	10.8	8.7	8.5	6.7	0.5
		운수업	52	0.0	33.3	0.0	52.6	0.0	14.1	0.0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	-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34	45.5	23.3	2.3	4.6	8.1	8.1	8.1
		금융 및 보험업	-	-	-	-	-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	-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1	31.7	24.0	9.1	9.0	22.6	3.6	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35	38.2	39.7	6.1	6.1	0.0	9.9	0.0
		교육 서비스업	-	-	-	-	-	-	-	-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	0.0	54.4	0.0	0.0	0.0	0.0	45.6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	0.0	0.0	100.0	0.0	0.0	0.0	0.0		
종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1,158	38.9	24.1	12.4	9.7	7.3	6.1	1.4	
	5 ~ 19인	888	41.4	25.4	5.9	9.0	6.7	9.7	1.9	
	20 ~ 49인	224	48.2	15.0	11.0	8.1	9.2	5.9	2.6	
	50 ~ 99인	67	56.1	8.4	0.0	17.8	3.4	6.7	7.7	
	100인 이상	45	82.5	4.9	7.7	0.0	4.9	0.0	0.0	
권 역 별	수도권	1,864	39.5	24.6	11.1	11.0	7.9	4.7	1.2	
	경남권	249	44.3	22.6	0.0	4.0	3.5	22.2	3.5	
	경북권	107	74.7	8.6	9.2	0.0	0.0	4.8	2.7	
	전라권	85	34.2	5.2	9.5	8.0	16.0	15.8	11.2	
	충청권	76	60.2	23.8	0.0	0.0	0.0	16.0	0.0	

※ 수출경험이 있는 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조사

제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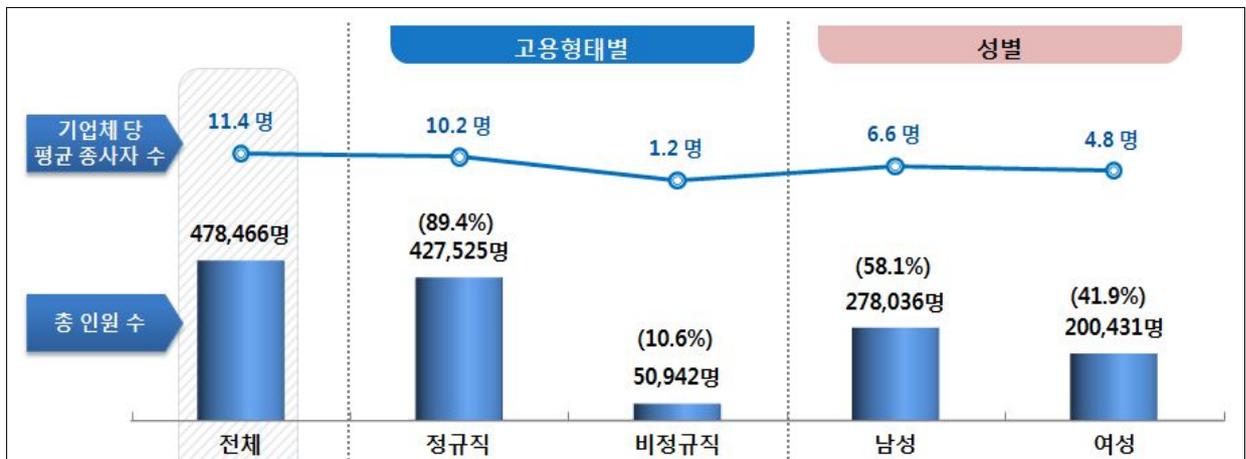
인사 노무 관리

1. 여성기업의 전체 인력 현황

- 2013년 6월 30일 기준, 여성기업의 종사자 인원은 478,466명으로 추정되며, 기업체 당 평균 인원은 11.4명이었음
-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이 427,525명으로 전체의 89.4%로 대부분이며, 비정규직은 50,942명으로 전체의 10.6%로 추정됨.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278,036명으로 전체의 58.1%, 여성이 200,431명으로 전체의 41.9%로 추정됨

(그림 64) 인력실태 - 고용형태 및 성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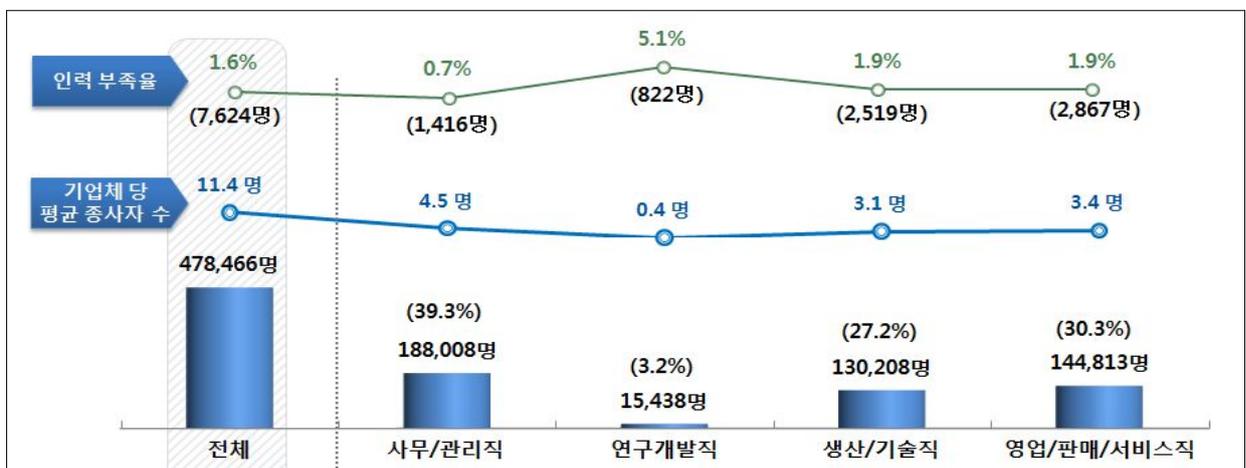


※ 인력 총 인원은 소수점 아래자리의 반올림으로 인해 각 세부항목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직종별로 살펴보면, 사무/관리직이 188,008명으로 전체의 39.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영업/판매/서비스직 144,813명(30.3%), 생산/기술직 130,208(27.2%), 연구개발직이 15,438명으로 전체의 3.2%로 추정됨

(그림 65) 인력실태 - 직종별

(단위: %)



※ 인력 총 인원은 소수점 아래자리의 반올림으로 인해 각 세부항목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2013년 여성기업의 전체 부족인원은 7,624명으로 인력 부족율은 1.6%임
 - 직종별로는, 연구개발직에 대한 부족율이 5.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영업/판매/서비스직과 생산/기술직이 각각 1.9%로 나타남
-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인력부족율은 각 1.2%, 1.7%로 비슷한 수준임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기타 제조업'(1.3%), 비제조업 중 '운수업'(3.8%)의 인력 부족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5인 미만' 여성기업의 인력부족율이 3.6%로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부족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전라권' 소재 여성기업의 인력부족율이 2.7%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기업체 당 평균 종사 인원은 15.8명으로 비제조업(평균 10.4명) 대비 종사인원이 많음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 제조'(평균 17.8명), 비제조업 중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20.3명)의 평균 인원이 타 업종 대비 많음
 - 권역별로는 기업체 당 평균 인원이 큰 차이가 없으나, '경북권' 소재 여성기업의 평균 인원이 13.1명, '경남권' 평균인원이 13.0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 고용형태를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정규직 비중이 96.0%로 비제조업(87.2%)에 비해 높았으며,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기타 제조업'(96.9%), 비제조업 중 '운수업'(94.6%)의 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음
- 종사자 성별을 중심으로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비제조업의 여성 고용 비율(43.3%)이 제조업(37.5%)보다 높게 나타남
 -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51.7%)에서 여성 고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기타 제조'(33.2%)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
 - 비제조업의 경우,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76.2%)에서 여성 고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28.1%)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여성기업에서 여성 고용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78> 여성기업의 인력실태 - (1)전체

(단위: 개사 명 %)

구 분		사례 수	현 인원(명)			부족 인원(명)			
			인원 수	평균 인원 (명)	비율	인원 수	평균 인원 (명)	인력 부족율	
전 체		42,118	478,466	11.4	100.0	7,624	0.2	1.6	
대 구	제조업	7,459	118,001	15.8	24.7	1,385	0.2	1.2	
	비제조업	34,659	360,465	10.4	75.3	6,239	0.2	1.7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13,308	16.0	2.8	111	0.1	0.8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14,287	17.8	3.0	126	0.2	0.9
		기타 제조	5,822	90,406	15.5	18.9	1,148	0.2	1.3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5,013	10.9	1.0	27	0.1	0.5
		건설업	8,211	69,955	8.5	14.6	1,041	0.1	1.5
		도매 및 소매업	10,963	80,479	7.3	16.8	1,063	0.1	1.3
		운수업	1,954	27,512	14.1	5.8	1,091	0.6	3.8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15,057	14.6	3.1	372	0.4	2.4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9,686	11.7	4.1	343	0.2	1.7
		금융 및 보험업	769	7,329	9.5	1.5	214	0.3	2.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14,221	8.2	3.0	400	0.2	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25,842	10.7	5.4	436	0.2	1.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70,198	20.3	14.7	968	0.3	1.4
		교육 서비스업	891	10,768	12.1	2.3	112	0.1	1.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2,012	17.5	0.4	14	0.1	0.7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3,801	11.8	0.8	28	0.1	0.7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8,593	12.8	1.8	129	0.2	1.5		
종 사 자 구 모 별	5인 미만	22,217	108,641	4.9	22.7	4,075	0.2	3.6	
	5 ~ 19인	16,213	179,681	11.1	37.6	2,325	0.1	1.3	
	20 ~ 49인	2,634	78,444	29.8	16.4	511	0.2	0.6	
	50 ~ 99인	628	42,061	67.0	8.8	403	0.6	0.9	
	100인 이상	426	69,639	163.5	14.6	309	0.7	0.4	
권 역 별	수도권	26,182	280,777	10.7	58.7	4,320	0.2	1.5	
	경남권	6,429	83,657	13.0	17.5	966	0.2	1.1	
	경북권	3,348	43,923	13.1	9.2	762	0.2	1.7	
	전라권	3,236	35,141	10.9	7.3	994	0.3	2.7	
	충청권	2,923	34,968	12.0	7.3	582	0.2	1.6	

※ 인력 부족율(%) = 부족인원/(현 인원 + 부족인원) × 100

※ 인력 현황 수치의 경우, 소수점 아래자리의 반올림으로 인해 각 세부항목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79> 여성기업의 인력실태 - (2)고용형태 및 성별

(단위: 개사 명 %)

구 분		사례 수	고용형태 및 성별 현 인원(명)								
			고용 형태별				성별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여성		
			총인원	비율	총인원	비율	총인원	비율	총인원	비율	
전 체		42,118	427,525	89.4	50,942	10.6	278,036	58.1	200,431	41.9	
부	제조업	7,459	113,236	96.0	4,765	4.0	73,735	62.5	44,266	37.5	
	비제조업	34,659	314,289	87.2	46,177	12.8	204,301	56.7	156,164	43.3	
세 부 업 종 별	제조업	식품/음료 제조	834	12,203	91.7	1,106	8.3	6,468	48.6	6,840	51.4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13,461	94.2	826	5.8	6,906	48.3	7,380	51.7
		기타 제조	5,822	87,573	96.9	2,833	3.1	60,360	66.8	30,046	33.2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4,670	93.1	344	6.9	3,605	71.9	1,408	28.1
		건설업	8,211	62,310	89.1	7,645	10.9	47,142	67.4	22,814	32.6
		도매 및 소매업	10,963	75,008	93.2	5,471	6.8	42,635	53.0	37,844	47.0
		운수업	1,954	26,027	94.6	1,486	5.4	19,353	70.3	8,159	29.7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13,048	86.7	2,009	13.3	7,931	52.7	7,126	47.3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7,889	90.9	1,798	9.1	11,962	60.8	7,724	39.2
		금융 및 보험업	769	6,636	90.6	692	9.4	3,264	44.5	4,065	55.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12,057	84.8	2,164	15.2	8,163	57.4	6,057	42.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23,720	91.8	2,122	8.2	13,809	53.4	12,033	46.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53,255	75.9	16,944	24.1	36,507	52.0	33,691	48.0
		교육 서비스업	891	8,094	75.2	2,674	24.8	3,776	35.1	6,992	64.9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1,612	80.1	400	19.9	479	23.8	1,533	76.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3,118	82.0	682	18.0	1,853	48.7	1,948	51.3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6,846	79.7	1,747	20.3	3,823	44.5	4,770	55.5		
종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2,217	94,390	86.9	14,251	13.1	55,822	51.4	52,819	48.6	
	5 ~ 19인	16,213	166,682	92.8	12,999	7.2	111,423	62.0	68,258	38.0	
	20 ~ 49인	2,634	73,030	93.1	5,414	6.9	46,601	59.4	31,843	40.6	
	50 ~ 99인	628	35,835	85.2	6,226	14.8	24,729	58.8	17,332	41.2	
	100인 이상	426	57,588	82.7	12,051	17.3	39,460	56.7	30,180	43.3	
권 역 별	수도권	26,182	245,258	87.3	35,518	12.7	159,952	57.0	120,825	43.0	
	경남권	6,429	78,508	93.8	5,150	6.2	49,786	59.5	33,872	40.5	
	경북권	3,348	38,907	88.6	5,016	11.4	27,378	62.3	16,545	37.7	
	전라권	3,236	32,758	93.2	2,383	6.8	19,733	56.2	15,408	43.8	
	충청권	2,923	32,093	91.8	2,875	8.2	21,187	60.6	13,781	39.4	

※ 인력 현황 수치의 경우, 소수점 아래자리의 반올림으로 인해 각 세부항목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80> 여성기업의 인력실태 - (3)직종별

(단위: 개사 명 %)

구 분		사례 수	직종별 현 인원(명)								
			사무/관리직		연구개발직		생산/기술직		영업/판매/서비스직		
			총인원	비율	총인원	비율	총인원	비율	총인원	비율	
전 체		42,118	188,008	39.3	15,438	3.2	130,208	27.2	144,813	30.3	
전체	제조업	7,459	39,444	33.4	5,403	4.6	57,384	48.6	15,769	13.4	
	비제조업	34,659	148,563	41.2	10,034	2.8	72,824	20.2	129,044	35.8	
세부업종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4,149	31.2	467	3.5	6,115	45.9	2,576	19.4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4,636	32.4	424	3.0	7,202	50.4	2,025	14.2
		기타 제조	5,822	30,659	33.9	4,512	5.0	44,067	48.7	11,168	12.4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1,548	30.9	89	1.8	1,540	30.7	1,836	36.6
		건설업	8,211	32,165	46.0	933	1.3	28,104	40.2	8,753	12.5
		도매 및 소매업	10,963	37,842	47.0	1,650	2.1	12,312	15.3	28,675	35.6
		운수업	1,954	10,573	38.4	638	2.3	5,627	20.5	10,675	38.8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5,229	34.7	95	0.6	2,525	16.8	7,208	47.9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9,784	49.7	2,351	11.9	3,272	16.6	4,280	21.7
		금융 및 보험업	769	4,270	58.3	22	0.3	325	4.4	2,711	37.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6,478	45.6	93	0.7	2,419	17.0	5,230	36.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11,310	43.8	2,043	7.9	5,353	20.7	7,135	2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18,506	26.4	1,535	2.2	8,298	11.8	41,859	59.6
		교육 서비스업	891	5,561	51.6	480	4.5	783	7.3	3,943	36.6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1,001	49.7	0	0.0	104	5.2	908	45.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782	46.9	59	1.6	609	16.0	1,350	35.5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2,514	29.3	46	0.5	1,553	18.1	4,481	52.1		
중사자규모	5인 미만	22,217	53,288	49.0	2,432	2.2	17,951	16.5	34,971	32.2	
	5 ~ 19인	16,213	77,962	43.4	5,665	3.2	55,640	31.0	40,414	22.5	
	20 ~ 49인	2,634	27,437	35.0	3,054	3.9	26,239	33.4	21,714	27.7	
	50 ~ 99인	628	11,432	27.2	1,042	2.5	13,004	30.9	16,583	39.4	
	100인 이상	426	17,889	25.7	3,245	4.7	17,374	24.9	31,132	44.7	
지역	수도권	26,182	112,051	39.9	9,443	3.4	66,587	23.7	92,696	33.0	
	경남권	6,429	34,645	41.4	2,381	2.8	24,003	28.7	22,629	27.0	
	경북권	3,348	14,456	32.9	955	2.2	16,688	38.0	11,824	26.9	
	전라권	3,236	13,292	37.8	1,539	4.4	11,252	32.0	9,058	25.8	
	충청권	2,923	13,564	38.8	1,120	3.2	11,678	33.4	8,607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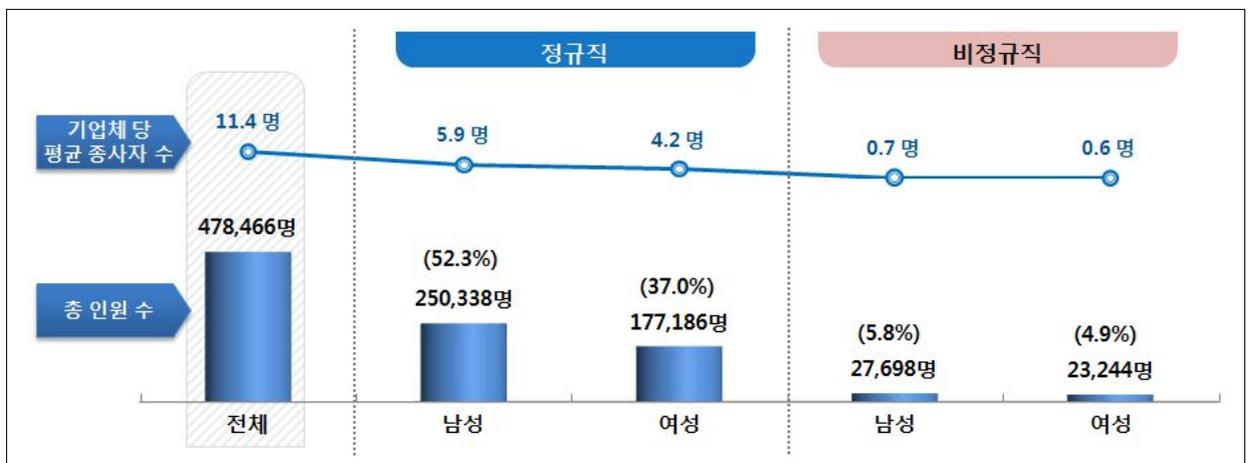
※ 인력 현황 수치의 경우, 소수점 아래자리의 반올림으로 인해 각 세부항목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여성기업의 고용형태/성별 인력현황

- 여성기업의 종사자 고용형태 별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직의 경우 남성이 250,338명(평균 5.9명), 여성이 177,186명(평균 4.2명)으로 여성보다 남성 정규직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의 경우는 남성이 27,698명(평균 0.7명), 여성이 23,244명(평균 0.6명)으로 남성 비정규직 인원이 더 많기는 하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림 66) 고용형태별 인력현황

(단위: 명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기업체 당 평균 인원 기준으로 제조업의 정규직 남성 평균 인원(9.5명)이 비제조업(5.2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에서는 '기타 제조업'(평균 10.0명), 비제조업 중에서는 '운수업'(평균 9.3명)의 정규직 남성 인원 많음
- 정규직 여성이 많은 업종은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 제조'(평균 8.7명), 비제조업 중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평균 10.2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평균 7.3명)등 인 것으로 나타남

<표 81> 고용형태별 인력현황

(단위: 개사 명 %)

구 분		사례 수	현 인원(명)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총인원	평균(명)	총인원	평균(명)	총인원	평균(명)	총인원	평균(명)	
전 체		42,118	250,338	5.9	177,186	4.2	27,698	0.7	23,244	0.6	
업종	제조업	7,459	71,145	9.5	42,091	5.6	2,589	0.3	2,176	0.3	
	비제조업	34,659	179,193	5.2	135,096	3.9	25,108	0.7	21,069	0.6	
세부업종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6,223	7.5	5,980	7.2	245	0.3	860	1.0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6,470	8.1	6,991	8.7	437	0.5	389	0.5
		기타 제조	5,822	58,452	10.0	29,120	5.0	1,907	0.3	926	0.2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3,351	7.3	1,319	2.9	254	0.6	89	0.2
		건설업	8,211	40,981	5.0	21,329	2.6	6,161	0.8	1,485	0.2
		도매 및 소매업	10,963	39,752	3.6	35,256	3.2	2,883	0.3	2,588	0.2
		운수업	1,954	18,128	9.3	7,899	4.0	1,225	0.6	261	0.1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7,204	7.0	5,844	5.7	727	0.7	1,282	1.2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0,839	6.4	7,050	4.2	1,123	0.7	674	0.4
		금융 및 보험업	769	3,089	4.0	3,547	4.6	175	0.2	517	0.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7,200	4.2	4,856	2.8	963	0.6	1,201	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12,175	5.1	11,545	4.8	1,634	0.7	488	0.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27,884	8.1	25,371	7.3	8,623	2.5	8,320	2.4
		교육 서비스업	891	3,069	3.4	5,025	5.6	707	0.8	1,967	2.2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444	3.9	1,168	10.2	35	0.3	365	3.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655	5.1	1,464	4.5	198	0.6	485	1.5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3,422	5.1	3,424	5.1	401	0.6	1,346	2.0		
종사자규모별	5인 미만	22,217	48,172	2.2	46,218	2.1	7,651	0.3	6,601	0.3	
	5 ~ 19인	16,213	103,188	6.4	63,494	3.9	8,235	0.5	4,764	0.3	
	20 ~ 49인	2,634	44,128	16.8	28,902	11.0	2,473	0.9	2,941	1.1	
	50 ~ 99인	628	21,755	34.6	14,080	22.4	2,975	4.7	3,251	5.2	
	100인 이상	426	33,096	77.7	24,492	57.5	6,364	14.9	5,688	13.4	
권역별	수도권	26,182	140,381	5.4	104,877	4.0	19,571	0.7	15,947	0.6	
	경남권	6,429	47,095	7.3	31,413	4.9	2,691	0.4	2,459	0.4	
	경북권	3,348	24,212	7.2	14,695	4.4	3,166	0.9	1,851	0.6	
	전라권	3,236	18,651	5.8	14,108	4.4	1,082	0.3	1,301	0.4	
	충청권	2,923	19,999	6.8	12,094	4.1	1,188	0.4	1,687	0.6	

※ 인력 현황 수치의 경우, 소수점 아래자리의 반올림으로 인해 각 세부항목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여성기업의 직종별 인력현황

가. 사무/관리직

- 사무/관리직의 세부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총인원 수는 188,008명임. 정규직 여성의 경우 95,501명(평균 2.3명)으로 전체의 50.8%로 가장 많았으며, 정규직 남성은 85,876명(평균 2.0명), 비정규직 남성 4,618명(평균 0.1명), 비정규직 여성 2,012명임
- 사무/관리직의 부족 인원은 1,416명으로 인력 부족율은 0.7%로 나타남

(그림 67) 직종별 인력현황 - (1)사무/관리직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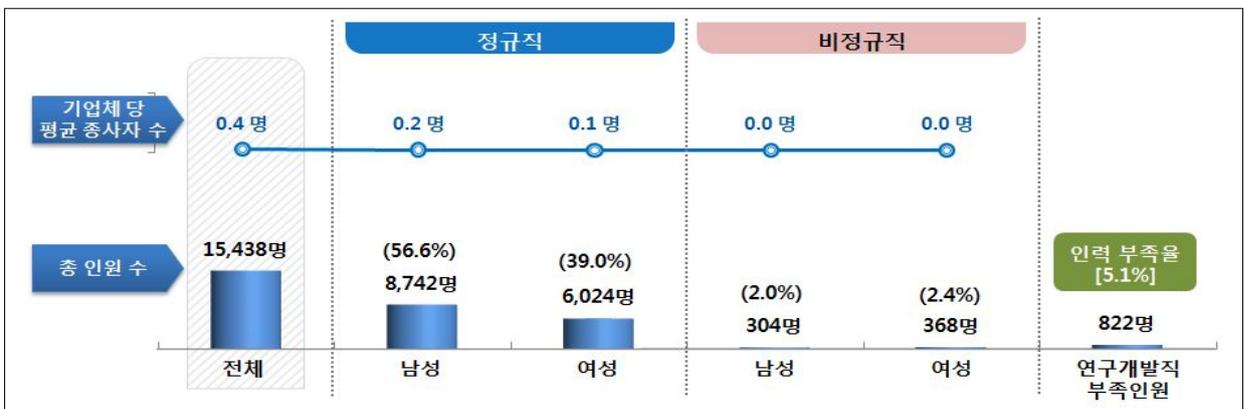
※ 인력 총 인원은 소수점 아래자리의 반올림으로 인해 각 세부항목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연구개발직

- 여성기업의 연구개발직 총인원 수는 15,438명임(평균 0.4명). 정규직 남성이 8,742명(평균 0.2명)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규직 여성 6,024명(평균 0.1명), 비정규직 남성 304명, 비정규직 여성 368명임
- 연구개발직의 부족 인원은 822명으로 인력 부족율은 5.1%로 직종 중 가장 높음

(그림 68) 직종별 인력현황 - (2)연구개발직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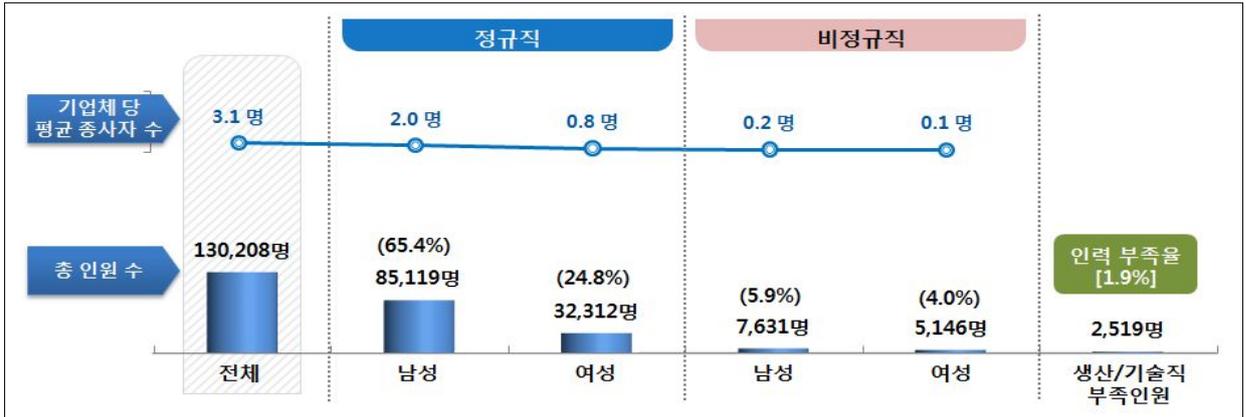


다. 생산/기술직

- 여성기업의 생산/기술직 총인원 수는 130,208명임(평균 3.1명). 정규직 남성이 85,119명(평균 2.0명)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규직 여성 32,312명(평균 0.8명), 비정규직 남성 7,631명(평균 0.2명), 비정규직 여성 5,146명(평균 0.1명)임
- 생산/기술직의 부족 인원은 2,519명으로 인력 부족율은 1.9%로 나타남

(그림 69) 직종별 인력현황 - (3)생산/기술직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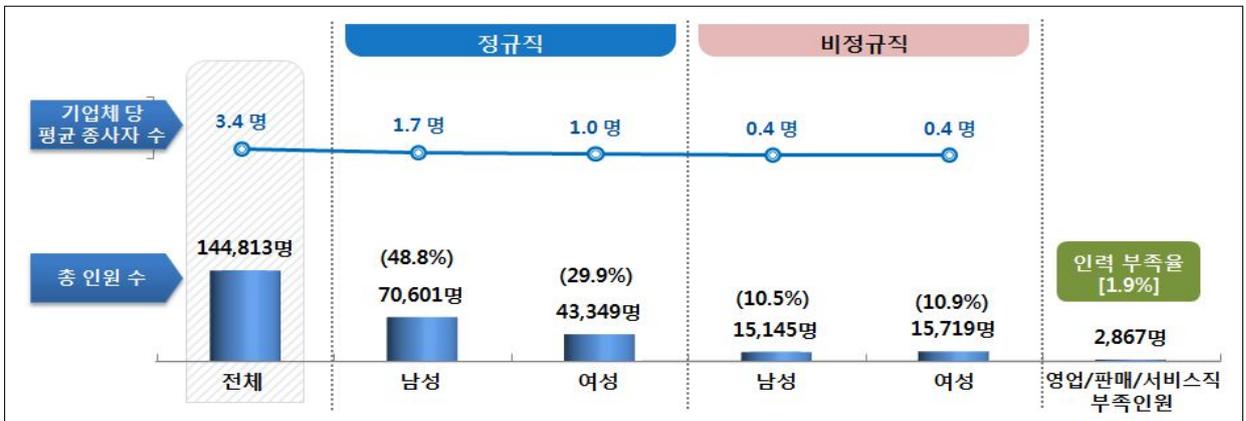


라. 영업/판매/서비스직

- 영업/판매/서비스직의 세부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총인원 수는 144,813명임(평균 3.4명). 정규직 남성이 70,601명(평균 1.7명)으로 전체의 48.8%로 가장 많았으며, 정규직 여성 43,349명(평균 1.0명), 비정규직 남성 15,145명(평균 0.4명), 비정규직 여성 15,719명임(평균 0.4명)
- 영업/판매/서비스직의 부족 인원은 2,867명으로 인력 부족율은 1.9%로 나타남

(그림 70) 직종별 인력현황 - (4)영업/판매/서비스직

(단위: 명 %)



* 인력 총 인원은 소수점 아래자리의 반올림으로 인해 각 세부항목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82> 직종별 인력현황-(1)사무/관리직

(단위: 개사 명 %)

구분	사례 수	현 인원(명)								부족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총인원	부족율		
		총인원	평균(명)	총인원	평균(명)	총인원	평균(명)	총인원	평균(명)				
전체	42,118	85,876	2.0	95,501	2.3	4,618	0.1	2,012	0.0	1,416	0.7		
제조업	제조업	7,459	19,733	2.6	19,405	2.6	187	0.0	119	0.0	215	0.5	
	비제조업	34,659	66,143	1.9	76,097	2.2	4,431	0.1	1,893	0.1	1,201	0.8	
서비스업	제조업	식품/음료 제조	834	1,867	2.2	2,170	2.6	84	0.1	29	0.0	27	0.6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2,095	2.6	2,535	3.2	0	0.0	6	0.0	24	0.5
		기타 제조	5,822	15,771	2.7	14,700	2.5	103	0.0	84	0.0	165	0.5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660	1.4	880	1.9	0	0.0	7	0.0	2	0.1
		건설업	8,211	14,696	1.8	15,042	1.8	2,279	0.3	148	0.0	159	0.5
		도매 및 소매업	10,963	16,102	1.5	20,903	1.9	614	0.1	223	0.0	280	0.7
		운수업	1,954	5,364	2.7	5,201	2.7	7	0.0	0	0.0	218	2.0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2,344	2.3	2,666	2.6	84	0.1	134	0.1	25	0.5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5,039	3.0	4,286	2.5	201	0.1	258	0.2	47	0.5
		금융 및 보험업	769	2,103	2.7	2,158	2.8	0	0.0	9	0.0	94	2.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3,283	1.9	3,128	1.8	31	0.0	36	0.0	90	1.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4,829	2.0	6,374	2.6	20	0.0	87	0.0	153	1.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7,975	2.3	9,204	2.7	808	0.2	520	0.2	87	0.5
		교육 서비스업	891	1,647	1.8	3,247	3.6	318	0.4	350	0.4	34	0.6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302	2.6	686	6.0	3	0.0	10	0.1	3	0.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776	2.4	879	2.7	39	0.1	88	0.3	3	0.2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022	1.5	1,442	2.1	27	0.0	22	0.0	4	0.2		
종사자규모	5인 미만	22,217	19,079	0.9	32,379	1.5	1,033	0.0	797	0.0	872	1.6	
	5 ~ 19인	16,213	37,040	2.3	37,782	2.3	2,536	0.2	604	0.0	359	0.5	
	20 ~ 49인	2,634	14,312	5.4	12,812	4.9	147	0.1	166	0.1	122	0.4	
	50 ~ 99인	628	6,412	10.2	4,718	7.5	171	0.3	131	0.2	5	0.0	
	100인 이상	426	9,033	21.2	7,810	18.3	732	1.7	314	0.7	58	0.3	
권역	수도권	26,182	49,928	1.9	56,336	2.2	4,212	0.2	1,574	0.1	821	0.7	
	경남권	6,429	16,887	2.6	17,411	2.7	148	0.0	199	0.0	105	0.3	
	경북권	3,348	6,123	1.8	8,173	2.4	83	0.0	77	0.0	136	0.9	
	전라권	3,236	6,295	1.9	6,854	2.1	78	0.0	65	0.0	157	1.2	
	충청권	2,923	6,643	2.3	6,727	2.3	97	0.0	97	0.0	197	1.4	

※ 인력 부족율(%) = 부족인원/(현 인원 + 부족인원) × 100

※ 인력 현황 수치의 경우, 소수점 아래 자리의 반올림으로 인해 각 세부항목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83> 직종별 인력현황-(2)연구개발직

(단위: 기사 명 %)

구분	구분	사례 수	현 인원(명)								부족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총인원	부족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총인원	평균(명)	총인원	평균(명)	총인원	평균(명)	총인원	평균(명)	총인원	부족율	
전체		42,118	8,742	0.2	6,024	0.1	304	0.0	368	0.0	822	5.1	
제조업	제조업	7,459	3,609	0.5	1,728	0.2	49	0.0	16	0.0	169	3.0	
	비제조업	34,659	5,133	0.1	4,296	0.1	254	0.0	351	0.0	654	6.1	
세부업종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240	0.3	220	0.3	0	0.0	7	0.0	2	0.3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189	0.2	222	0.3	12	0.0	0	0.0	12	2.7
		기타 제조	5,822	3,179	0.5	1,286	0.2	37	0.0	10	0.0	155	3.3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53	0.1	36	0.1	0	0.0	0	0.0	0	0.0
		건설업	8,211	448	0.1	485	0.1	0	0.0	0	0.0	122	11.6
		도매 및 소매업	10,963	1,115	0.1	535	0.0	0	0.0	0	0.0	157	8.7
		운수업	1,954	157	0.1	481	0.2	0	0.0	0	0.0	30	4.5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30	0.0	64	0.1	0	0.0	0	0.0	19	16.6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472	0.9	651	0.4	138	0.1	90	0.1	194	7.6
		금융 및 보험업	769	13	0.0	4	0.0	0	0.0	5	0.0	5	20.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37	0.0	31	0.0	15	0.0	10	0.0	11	1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1,178	0.5	837	0.3	0	0.0	27	0.0	64	3.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432	0.1	966	0.3	0	0.0	137	0.0	2	0.1
		교육 서비스업	891	157	0.2	160	0.2	84	0.1	80	0.1	23	4.6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0	0.0	0	0.0	0	0.0	0	0.0	2	10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24	0.1	35	0.1	0	0.0	0	0.0	3	5.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7	0.0	12	0.0	17	0.0	0	0.0	21	31.8		
종사자규모	5인 미만	22,217	1,476	0.1	591	0.0	163	0.0	202	0.0	567	18.9	
	5 ~ 19인	16,213	3,429	0.2	2,018	0.1	130	0.0	88	0.0	212	3.6	
	20 ~ 49인	2,634	1,906	0.7	1,141	0.4	3	0.0	3	0.0	28	0.9	
	50 ~ 99인	628	541	0.9	500	0.8	0	0.0	0	0.0	13	1.3	
	100인 이상	426	1,390	3.3	1,773	4.2	8	0.0	75	0.2	2	0.1	
지역	수도권	26,182	6,089	0.2	2,856	0.1	214	0.0	283	0.0	552	5.5	
	경남권	6,429	1,049	0.2	1,305	0.2	17	0.0	11	0.0	91	3.7	
	경북권	3,348	436	0.1	396	0.1	62	0.0	62	0.0	36	3.7	
	전라권	3,236	640	0.2	892	0.3	0	0.0	7	0.0	120	7.2	
	충청권	2,923	529	0.2	575	0.2	10	0.0	5	0.0	22	2.0	

※ 인력 부족율(%) = 부족인원/(현 인원 + 부족인원) × 100

※ 인력 현황 수치의 경우, 소수점 아래 자리의 반올림으로 인해 각 세부항목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84> 직종별 인력현황-(3)생산/기술직

(단위: 개사 명 %)

구 분	사 례 수	현 인원(명)								부족 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총인원	부족율		
		총인원	평균(명)	총인원	평균(명)	총인원	평균(명)	총인원	평균(명)				
전 체	42,118	85,119	2.0	32,312	0.8	7,631	0.2	5,146	0.1	2,519	1.9		
부	제조업	7,459	37,731	5.1	16,132	2.2	1,887	0.3	1,634	0.2	737	1.3	
	비제조업	34,659	47,388	1.4	16,180	0.5	5,744	0.2	3,512	0.1	1,783	2.4	
세	제	식품/음료 제조	834	2,935	3.5	2,466	3.0	110	0.1	604	0.7	60	1.0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3,476	4.3	3,084	3.8	335	0.4	306	0.4	85	1.2
		기타 제조	5,822	31,320	5.4	10,582	1.8	1,441	0.2	724	0.1	592	1.3
	비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1,108	2.4	241	0.5	159	0.3	33	0.1	25	1.6
		건설업	8,211	20,409	2.5	3,490	0.4	3,348	0.4	856	0.1	615	2.1
		도매 및 소매업	10,963	6,948	0.6	3,660	0.3	532	0.0	1,173	0.1	405	3.2
		운수업	1,954	3,969	2.0	1,336	0.7	170	0.1	152	0.1	144	2.5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1,468	1.4	845	0.8	121	0.1	90	0.1	74	2.8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894	1.1	827	0.5	452	0.3	99	0.1	36	1.1
		금융 및 보험업	769	218	0.3	108	0.1	0	0.0	0	0.0	22	6.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1,575	0.9	536	0.3	149	0.1	159	0.1	161	6.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3,045	1.3	1,933	0.8	249	0.1	126	0.1	131	2.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4,907	1.4	2,308	0.7	368	0.1	715	0.2	83	1.0
		교육 서비스업	891	319	0.4	301	0.3	97	0.1	66	0.1	34	4.2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45	0.4	42	0.4	10	0.1	7	0.1	4	3.9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347	1.1	200	0.6	41	0.1	21	0.1	3	0.5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137	1.7	353	0.5	47	0.1	16	0.0	45	2.8		
종	5인 미만	22,217	11,788	0.5	3,216	0.1	1,474	0.1	1,474	0.1	894	4.7	
	5 ~ 19인	16,213	39,958	2.5	11,298	0.7	3,072	0.2	1,312	0.1	1,227	2.2	
	20 ~ 49인	2,634	16,331	6.2	8,039	3.1	869	0.3	1,001	0.4	280	1.1	
	50 ~ 99인	628	8,006	12.7	3,837	6.1	675	1.1	486	0.8	100	0.8	
	100인 이상	426	9,037	21.2	5,922	13.9	1,541	3.6	874	2.1	19	0.1	
권	수도권	26,182	42,528	1.6	16,958	0.6	4,039	0.2	3,063	0.1	1,153	1.7	
	경남권	6,429	15,665	2.4	6,810	1.1	746	0.1	782	0.1	534	2.2	
	경북권	3,348	11,523	3.4	2,740	0.8	2,000	0.6	425	0.1	501	2.9	
	전라권	3,236	7,167	2.2	2,930	0.9	469	0.1	685	0.2	199	1.7	
	충청권	2,923	8,237	2.8	2,874	1.0	377	0.1	191	0.1	132	1.1	

※ 인력 부족율(%) = 부족인원/(현 인원 + 부족인원) × 100

※ 인력 현황 수치의 경우, 소수점 아래 자리의 반올림으로 인해 각 세부항목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85> 직종별 인력현황-(4)영업/판매/서비스직

(단위: 개사 명 %)

구분	사례 수	현 인원(명)								부족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총인원	부족율		
		총인원	평균(명)	총인원	평균(명)	총인원	평균(명)	총인원	평균(명)				
전체	42,118	70,601	1.7	43,349	1.0	15,145	0.4	15,719	0.4	2,867	1.9		
제조업	제조업	7,459	10,072	1.4	4,825	0.6	466	0.1	406	0.1	265	1.7	
	비제조업	34,659	60,529	1.7	38,523	1.1	14,679	0.4	15,312	0.4	2,602	2.0	
세부업종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1,181	1.4	1,123	1.3	51	0.1	221	0.3	23	0.9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709	0.9	1,150	1.4	89	0.1	77	0.1	6	0.3
		기타 제조	5,822	8,181	1.4	2,553	0.4	325	0.1	108	0.0	236	2.1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1,529	3.3	162	0.4	95	0.2	49	0.1	0	0.0
		건설업	8,211	5,427	0.7	2,312	0.3	533	0.1	481	0.1	145	1.6
		도매 및 소매업	10,963	15,587	1.4	10,158	0.9	1,737	0.2	1,193	0.1	220	0.8
		운수업	1,954	8,638	4.4	881	0.5	1,047	0.5	109	0.1	700	6.1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3,361	3.3	2,268	2.2	522	0.5	1,058	1.0	254	3.4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2,435	1.4	1,286	0.8	332	0.2	227	0.1	66	1.5
		금융 및 보험업	769	755	1.0	1,278	1.7	175	0.2	503	0.7	93	3.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2,305	1.3	1,162	0.7	767	0.4	995	0.6	138	2.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3,123	1.3	2,400	1.0	1,365	0.6	247	0.1	87	1.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14,570	4.2	12,893	3.7	7,447	2.2	6,948	2.0	796	1.9
		교육 서비스업	891	946	1.1	1,318	1.5	209	0.2	1,470	1.7	20	0.5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97	0.8	440	3.8	22	0.2	349	3.0	5	0.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508	1.6	349	1.1	118	0.4	375	1.2	18	1.3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246	1.9	1,616	2.4	310	0.5	1,308	1.9	59	1.3		
종사자규모	5인 미만	22,217	15,829	0.7	10,032	0.5	4,981	0.2	4,128	0.2	1,743	4.7	
	5 ~ 19인	16,213	22,761	1.4	12,395	0.8	2,497	0.2	2,760	0.2	527	1.3	
	20 ~ 49인	2,634	11,579	4.4	6,909	2.6	1,455	0.6	1,771	0.7	82	0.4	
	50 ~ 99인	628	6,795	10.8	5,025	8.0	2,128	3.4	2,635	4.2	285	1.7	
	100인 이상	426	13,636	32.0	8,987	21.1	4,083	9.6	4,425	10.4	229	0.7	
지역	수도권	26,182	41,836	1.6	28,726	1.1	11,106	0.4	11,028	0.4	1,793	1.9	
	경남권	6,429	13,494	2.1	5,888	0.9	1,779	0.3	1,467	0.2	237	1.0	
	경북권	3,348	6,131	1.8	3,385	1.0	1,021	0.3	1,286	0.4	89	0.7	
	전라권	3,236	4,549	1.4	3,431	1.1	535	0.2	543	0.2	517	5.4	
	충청권	2,923	4,591	1.6	1,918	0.7	704	0.2	1,394	0.5	230	2.6	

※ 인력 부족율(%) = 부족인원/(현 인원 + 부족인원)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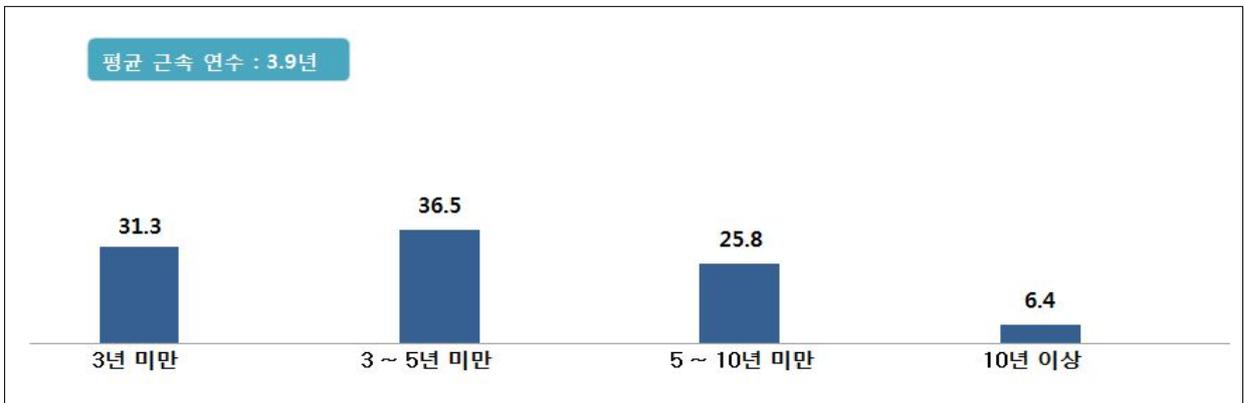
※ 인력 현황 수치의 경우, 소수점 아래 자리의 반올림으로 인해 각 세부항목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경쟁기업 대비 평균 근속연수 및 전문성

- 여성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3.9년으로, '3~5년 미만'(36.5%)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고, '3년 미만'(31.3%), '5~10년 미만'(25.8%) 순으로 나타남
- 응답기업 특성별로 보면, 제조업(4.3년)이 비제조업(3.8년)보다 종사자 근속연수가 0.5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업종 중에서는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4.8년)이 가장 높음

(그림 71) 여성기업 종사자의 평균 근속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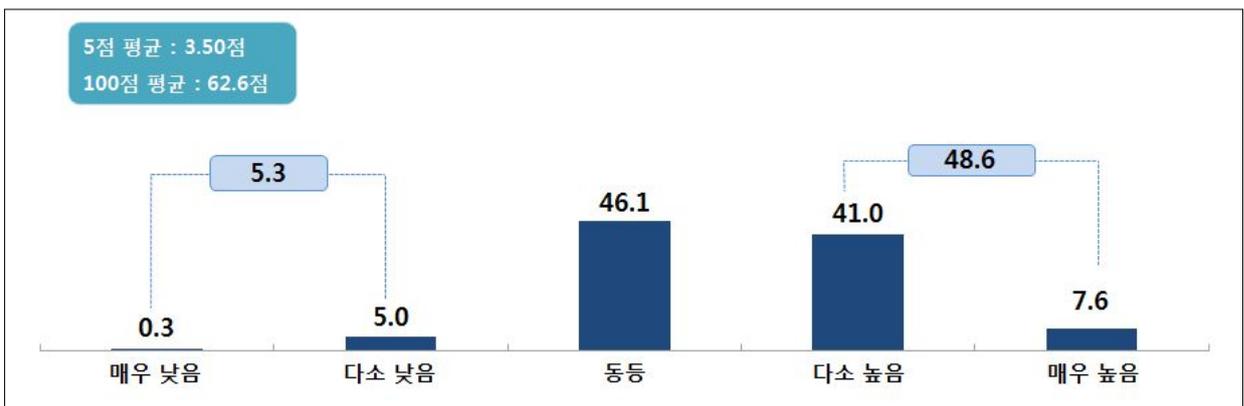
(단위: %)



- 종사자의 경쟁사 대비 전문성(숙련도)을 조사한 결과, '높음'(다소 높음+매우 높음) 응답이 48.6%로 '낮음'(매우 낮음+다소 낮음)에 대한 응답 5.3%보다 43.3%p 더 높음

(그림 72) 여성기업 종사자의 전문성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는, 비제조업(49.3%)이 제조업(45.0%)에 비해 경쟁사 대비 종사자 전문성을 높게 평가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58.1%), 비제조업 중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72.8%)에서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

<표 86> 여성기업 종사자의 평균 근속연수 및 전문성

(단위: 개사 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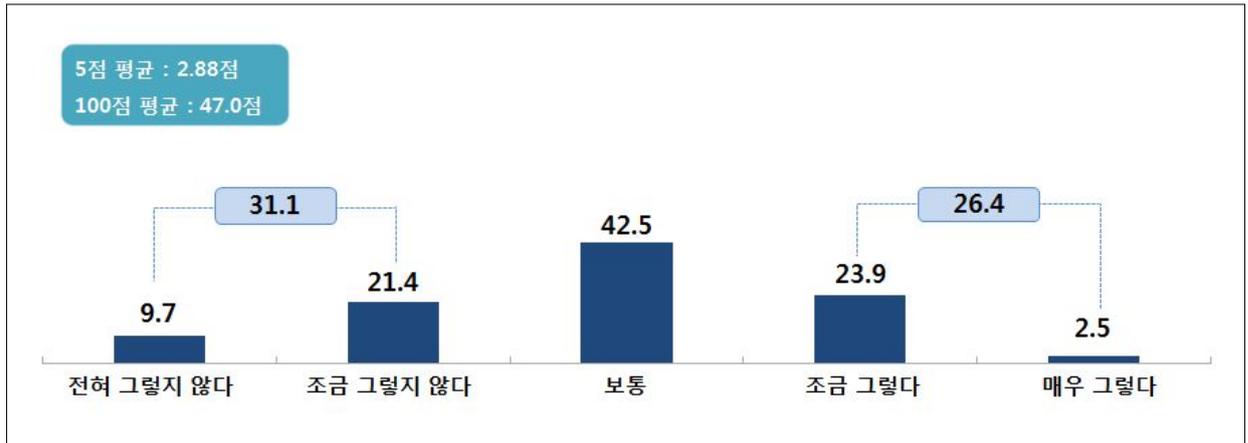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평균 근속연수 (년)	경쟁기업 대비 종사자의 전문성(숙련도)									
			① 매우 낮음	② 다소 낮음	③ 동등	④ 다소 높음	⑤ 매우 높음	①+② 낮음	④+⑤ 높음	100점 평균 (점)		
전체	42,118	3.9	0.3	5.0	46.1	38.5	7.6	5.3	48.6	62.6		
기업	제조업	7,459	4.3	0.1	5.5	49.5	41.5	6.5	5.5	45.0	61.5	
	비제조업	34,659	3.8	0.4	4.9	45.4	46.0	7.8	5.3	49.3	62.9	
세 구 업 종 별	제조업	식품/음료 제조	834	3.6	0.3	5.1	45.0	54.1	3.6	5.4	49.7	61.9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4.2	0.0	6.9	35.0	35.3	4.0	6.9	58.1	63.8
		기타 제조	5,822	4.4	0.0	5.3	52.1	40.6	7.2	5.4	42.5	61.1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4.8	0.4	4.2	45.8	42.3	9.0	4.5	49.7	63.5
		건설업	8,211	3.7	0.3	3.8	45.1	37.4	8.5	4.0	50.8	63.8
		도매 및 소매업	10,963	4.1	0.2	6.3	47.1	49.6	9.0	6.6	46.4	62.1
		운수업	1,954	3.9	0.4	4.9	39.3	40.0	5.8	5.3	55.4	63.9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2.6	0.3	3.2	55.0	53.9	1.6	3.4	41.6	59.9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3.7	0.6	5.4	35.1	33.0	5.1	6.0	58.9	64.3
		금융 및 보험업	769	3.4	0.5	9.7	49.9	26.6	6.9	10.2	39.9	59.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3.6	1.9	3.5	60.5	49.1	7.5	5.4	34.1	58.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3.9	1.0	2.7	42.2	42.5	4.9	3.8	54.0	63.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3.7	0.2	4.5	46.6	54.3	6.2	4.7	48.7	62.5
		교육 서비스업	891	3.5	0.0	4.2	26.9	57.9	14.6	4.2	68.9	69.8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3.2	1.2	3.8	22.2	45.3	14.9	5.0	72.8	70.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3.4	0.0	6.6	37.9	43.3	10.2	6.6	55.5	64.8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3.6	0.0	4.2	43.2	38.2	9.4	4.2	52.6	64.5
종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2,217	3.8	0.4	5.6	48.3	43.2	7.6	6.0	45.7	61.7	
	5 ~ 19인	16,213	4.0	0.3	4.2	44.1	48.9	8.2	4.5	51.4	63.7	
	20 ~ 49인	2,634	4.1	0.6	4.6	41.9	47.8	4.1	5.1	53.0	62.9	
	50 ~ 99인	628	4.3	0.0	3.7	40.9	47.7	7.7	3.7	55.4	64.9	
	100인 이상	426	4.1	0.5	5.9	43.4	39.2	2.5	6.5	50.1	61.4	
권 역 별	수도권	26,182	4.1	0.3	5.3	46.9	45.7	8.3	5.6	47.5	62.5	
	경남권	6,429	3.7	0.7	4.4	43.6	42.8	5.6	5.0	51.3	62.8	
	경북권	3,348	3.5	0.0	4.1	43.7	49.9	9.4	4.1	52.2	64.4	
	전라권	3,236	3.6	0.0	6.1	38.7	34.9	5.4	6.1	55.3	63.6	
	충청권	2,923	3.3	0.4	3.6	55.7		5.5	4.0	40.4	60.4	

5. 인력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애로경험

- 인력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애로경험이 '있다'(조금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6.4%, '없다'(전혀 그렇지 않다+조금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1.1%로 나타남

(그림 73) 인력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애로경험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비제조업(26.5%)이 제조업(25.9%) 보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애로를 느낀 경험이 있다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음
 - 특히 비제조업 중 '운수업'(40.7%)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애로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는, '20 ~ 49인'(34.8%)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애로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권역별로는, '경북권'(44.0%)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애로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87> 인력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애로경험

(단위: 개사,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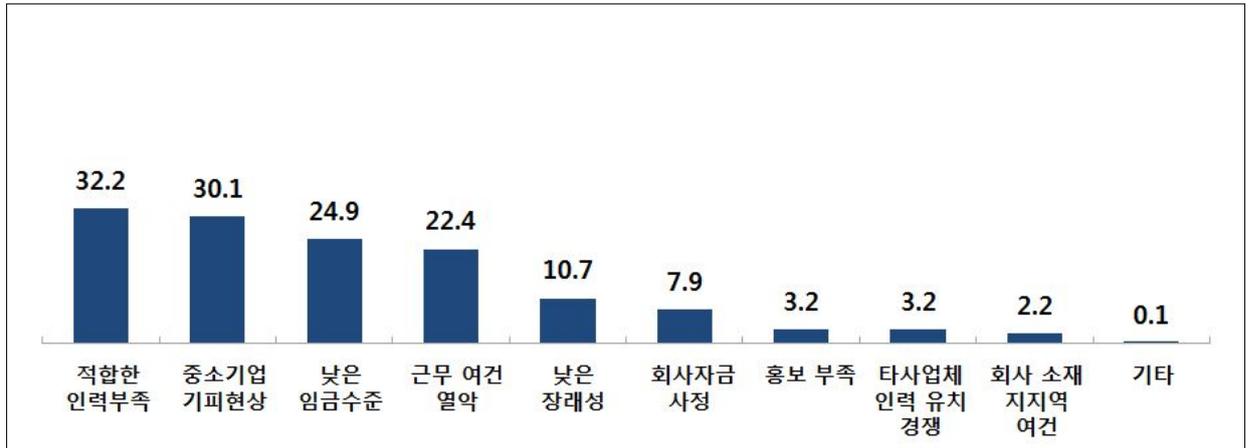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② 없음	④+⑤ 있음	100점 평균 (점)	
전체		42,118	9.7	21.4	42.5	23.9	2.5	31.1	26.4	47.0	
업종	제조업	7,459	4.1	14.0	56.0	22.6	3.3	18.1	25.9	51.8	
	비제조업	34,659	10.9	23.0	39.7	24.2	2.3	33.9	26.5	46.0	
세부업종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4.3	16.8	57.0	16.7	5.2	21.1	21.9	50.4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4.1	16.8	53.4	22.0	3.7	20.9	25.7	51.1
		기타 제조	5,822	4.1	13.2	56.2	23.6	3.0	17.3	26.5	52.0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17.2	23.7	36.9	20.2	2.0	40.9	22.2	41.5
		건설업	8,211	7.3	19.5	40.0	31.2	2.0	26.8	33.2	50.3
		도매 및 소매업	10,963	14.5	26.7	38.8	17.6	2.4	41.3	20.0	41.6
		운수업	1,954	8.7	23.0	27.5	37.8	2.9	31.7	40.7	50.8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6.7	17.3	47.0	25.9	3.1	24.0	29.0	50.3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5.1	15.5	53.7	25.0	0.6	20.6	25.7	50.2
		금융 및 보험업	769	11.8	17.6	42.8	25.2	2.6	29.4	27.8	47.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10.1	20.7	46.0	22.9	0.3	30.8	23.2	4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9.4	14.4	50.5	21.6	4.1	23.8	25.7	49.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14.0	32.8	27.0	23.9	2.4	46.7	26.3	42.0
		교육 서비스업	891	15.0	23.9	39.8	18.4	3.0	38.9	21.3	42.6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2.4	30.2	31.0	33.7	2.7	32.7	36.4	51.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1.5	32.4	29.6	22.3	4.1	44.0	26.4	43.7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5.2	15.6	52.9	23.6	2.7	20.8	26.3	50.7		
중사자규모	5인 미만	22,217	11.7	21.8	41.6	22.2	2.6	33.5	24.9	45.6	
	5 ~ 19인	16,213	7.2	22.0	44.1	24.7	2.0	29.2	26.7	48.1	
	20 ~ 49인	2,634	9.0	16.1	40.1	32.1	2.7	25.1	34.8	50.9	
	50 ~ 99인	628	8.0	15.0	42.3	27.7	7.0	23.0	34.7	52.7	
	100인 이상	426	6.1	16.7	47.6	26.0	3.6	22.8	29.6	51.1	
권역	수도권	26,182	9.0	19.1	48.9	20.6	2.5	28.0	23.1	47.1	
	경남권	6,429	13.4	28.4	28.3	27.1	2.8	41.8	29.9	44.4	
	경북권	3,348	7.6	16.0	32.4	42.5	1.5	23.6	44.0	53.6	
	전라권	3,236	9.6	31.1	31.0	24.4	3.9	40.6	28.4	45.5	
	충청권	2,923	10.5	21.9	41.6	24.5	1.5	32.4	26.0	46.1	

6. 인력 채용시 어려운 점

- 인력 채용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적합한 인력부족'(32.2%)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고, '중소기업 기피현상'(30.1%), '낮은 임금수준'(24.9%) 순으로 나타남

(그림 74) 인력 채용시 어려운 점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서는 '중소기업 기피현상'(40.8%)이 비제조업에서는 '적합한 인력부족'(32.5%)이 주요 애로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식품/음료 제조'(34.0%), 비제조업 중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2.7%)에서 '적합한 인력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42.7%), 비제조업 중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4.7%)의 경우 '중소기업 기피현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제조업 중 '식품/음료 제조'(31.9%), 비제조업 중 '숙박 및 음식점업'(35.0%)의 경우 '낮은 임금수준'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운수업'(38.3%)의 경우 '근무 여건 열악'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88> 인력 채용시 어려운 점(1/2)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적합한 인력부족	중소기업 기피현상	낮은 임금수준	근무 여건 열악	낮은 장래성	
전 체		42,118	32.2	30.1	24.9	22.4	10.7	
부	제조업	7,459	30.9	40.8	23.6	20.2	12.0	
	비제조업	34,659	32.5	27.8	25.2	22.8	10.4	
세 부 업 종 류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34.0	31.1	31.9	22.4	13.5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22.6	42.7	17.8	22.7	8.7
		기타 제조	5,822	31.6	41.9	23.2	19.6	12.2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33.3	23.7	24.3	27.3	10.7
		건설업	8,211	37.7	30.9	27.6	25.9	7.9
		도매 및 소매업	10,963	29.1	29.0	21.0	20.0	12.0
		운수업	1,954	29.6	20.0	32.6	38.3	13.1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26.3	24.0	35.0	28.7	9.8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42.7	44.7	17.8	7.9	8.8
		금융 및 보험업	769	24.5	24.7	21.1	13.5	15.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28.9	18.2	37.8	24.2	16.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27.6	33.7	22.5	18.4	7.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35.9	19.9	29.9	26.2	10.1
		교육 서비스업	891	36.2	17.1	15.0	12.6	6.5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42.1	22.6	16.0	19.0	20.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31.2	23.2	21.6	27.4	11.8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30.1	24.3	22.3	31.1	9.5
		중 사 자 구 분	5인 미만	22,217	31.6	28.2	24.9	22.0
5 ~ 19인	16,213		32.4	32.8	24.7	21.8	10.0	
20 ~ 49인	2,634		37.1	29.2	25.4	25.3	8.3	
50 ~ 99인	628		30.2	30.2	27.8	32.5	11.2	
100인 이상	426		31.0	30.7	31.5	28.9	11.6	
지 역 구 분	수도권	26,182	33.2	32.7	23.8	19.1	12.9	
	경남권	6,429	24.4	28.8	26.4	29.3	7.9	
	경북권	3,348	46.2	22.5	30.4	20.5	3.5	
	전라권	3,236	32.2	20.0	24.4	24.3	6.3	
	충청권	2,923	25.0	29.5	26.3	36.5	10.0	

<표 89> 인력 채용시 어려운 점(2/2)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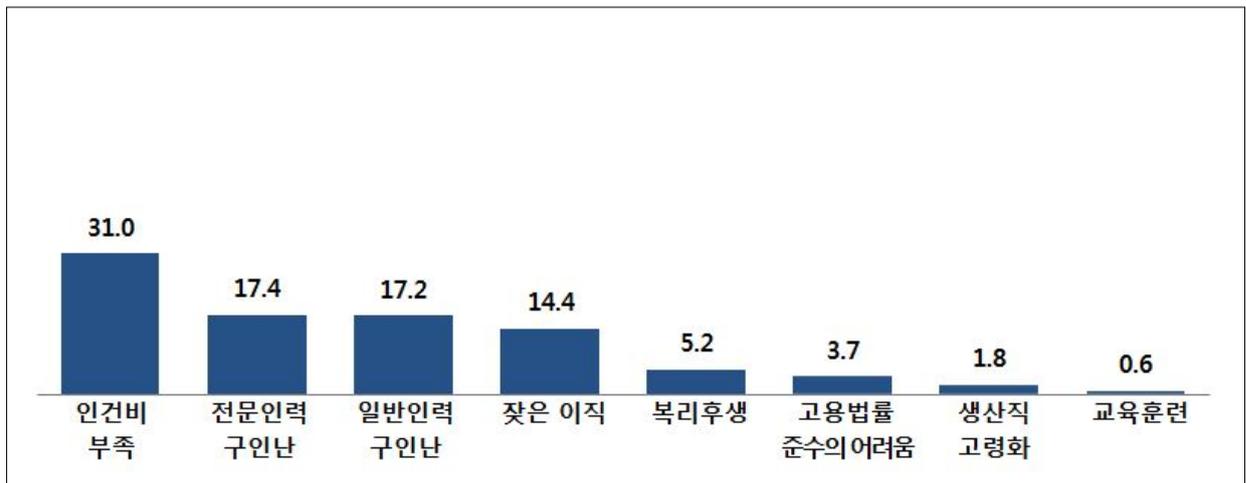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인력은 필요하나 회사자금 사정	인력 채용 홍보 부족	타사업체의 인력 유치 경쟁 때문	회사 소재지의 지역 여건	기타	어려운 점 없음	
전체		42,118	7.9	3.2	3.2	2.2	0.1	7.0	
부	제조업	7,459	5.9	3.3	3.1	3.9	0.0	3.3	
	비제조업	34,659	8.3	3.2	3.2	1.9	0.1	7.8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5.6	1.9	0.3	6.3	0.0	3.4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7.6	1.9	6.1	4.0	0.0	3.4
		기타 제조	5,822	5.7	3.7	3.1	3.5	0.0	3.3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2.1	1.2	2.6	2.6	0.0	4.8
		건설업	8,211	5.5	3.1	1.2	2.8	0.3	6.4
		도매 및 소매업	10,963	10.5	3.0	2.4	1.5	0.0	10.4
		운수업	1,954	7.2	1.5	2.4	1.7	0.0	3.9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4.7	1.4	1.7	3.6	0.0	1.8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0.6	4.9	9.2	0.5	0.0	2.7
		금융 및 보험업	769	6.1	6.2	11.9	0.9	0.0	8.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9.0	3.5	1.2	0.9	0.0	3.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16.4	4.4	1.7	2.0	0.0	7.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4.9	3.6	8.0	0.5	0.2	9.4
		교육 서비스업	891	9.5	2.4	4.9	4.0	0.7	19.7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1.2	2.6	2.6	7.4	0.0	12.6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0.5	2.6	1.8	2.9	0.0	9.4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2.8	3.1	2.7	4.1	0.0	5.5
		중	5인 미만	22,217	9.0	2.9	2.6	1.4	0.2
5 ~ 19인	16,213		7.4	4.0	3.3	2.9	0.1	6.2	
20 ~ 49인	2,634		3.1	2.2	6.2	5.0	0.0	3.4	
50 ~ 99인	628		4.1	1.1	3.2	3.5	0.0	3.3	
100인 이상	426		3.0	1.0	8.6	0.5	0.0	3.2	
대	수도권	26,182	9.5	4.8	3.8	1.7	0.0	7.0	
	경남권	6,429	5.7	0.0	2.1	2.6	0.1	7.5	
	경북권	3,348	3.8	0.6	3.0	4.3	1.0	3.5	
	전라권	3,236	5.4	0.1	1.9	2.9	0.0	10.9	
	충청권	2,923	5.1	2.7	1.3	3.0	0.0	5.4	

7. 인력 관리 시 애로 사항

- 여성기업의 인력 관리 시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인건비 부담’(31.0%)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문인력 구인난’(17.4%), ‘일반인력 구인난’(1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75) 인력 관리 시 애로사항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29.2%)과 비제조업(31.4%) 모두 ‘인건비 부담’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식료품/음료 제조’(33.4%), 비제조업 중 ‘숙박 및 음식점업’(41.5%)에서 ‘인건비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음
 - 한편, ‘건설업(23.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27.3%)은 ‘전문인력 구인난’을, ‘운수업’(32.0%), ‘금융 및 보험업’(28.7%)은 ‘찾은 이직’으로 인한 애로가 있다는 응답이 타 업종 대비 높음
- 종사자 규모별로는, ‘5인 미만’(33.3%)에서 ‘인건비 부담’이라는 응답이 타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90> 인력 관리 시 애로사항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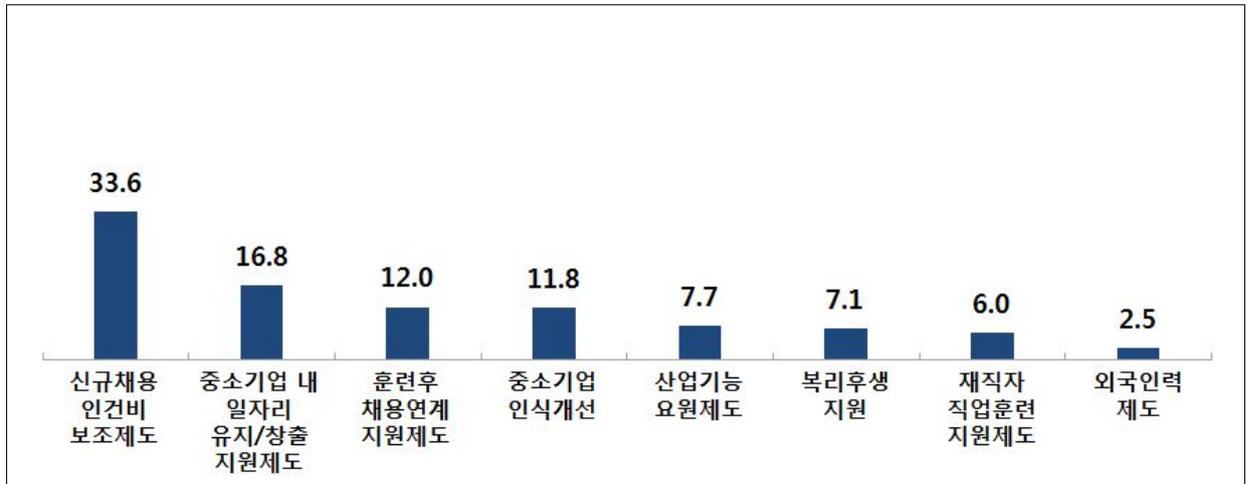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인건비 부담	전문 인력 구인난	일반 인력 구인난	찾은 이직	복리 후생	주 5일제, 유연근무제 등 바뀌는 고용법을 준수하기 어려움	생산직 고령화	교육 훈련	애로 사항 없음	
전 체		42,118	31.0	17.4	17.2	14.4	5.2	3.7	1.8	0.6	8.7	
대 분	제조업	7,459	29.2	18.6	19.2	12.7	6.3	5.3	3.7	0.1	4.8	
	비제조업	34,659	31.4	17.1	16.8	14.8	5.0	3.3	1.4	0.7	9.5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33.4	10.8	22.1	16.0	4.5	3.8	2.3	0.0	7.0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20.5	27.9	18.2	8.1	4.9	8.3	6.2	0.7	5.3
		기타 제조	5,822	29.8	18.4	18.9	12.9	6.8	5.1	3.6	0.0	4.3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33.3	9.7	19.8	24.8	1.7	1.3	3.5	0.0	5.9
		건설업	8,211	27.0	23.0	12.6	16.2	5.7	5.2	1.6	0.9	7.8
		도매 및 소매업	10,963	29.8	13.0	22.3	11.7	6.6	2.3	1.3	0.4	12.5
		운수업	1,954	29.4	5.9	13.0	32.0	3.3	1.4	2.6	1.3	11.1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41.5	8.9	11.8	23.0	2.8	5.7	0.6	0.0	5.6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38.2	27.3	17.4	5.7	2.1	4.4	0.6	1.4	2.9
		금융 및 보험업	769	25.3	7.8	13.2	28.7	6.2	3.1	0.7	1.2	13.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37.5	9.6	22.5	14.9	2.4	3.5	1.7	0.9	7.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39.1	21.1	18.5	7.3	3.6	2.0	0.6	0.0	7.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35.5	21.1	12.1	14.6	2.5	2.8	1.4	0.5	9.5
		교육 서비스업	891	28.6	23.7	13.7	11.3	4.3	2.4	0.9	0.6	14.5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26.9	17.0	16.2	20.1	0.0	7.5	1.2	0.0	11.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27.9	22.7	9.6	19.6	6.0	4.5	1.0	1.5	7.1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33.9	19.2	10.7	13.1	10.5	4.4	3.1	0.6	4.5		
중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2,217	33.3	15.8	16.4	14.1	5.1	3.6	1.2	0.5	9.9	
	5 ~ 19인	16,213	28.8	19.0	17.7	14.5	5.5	4.0	2.4	0.7	7.5	
	20 ~ 49인	2,634	26.9	20.5	20.8	14.6	4.8	2.1	3.3	0.2	6.8	
	50 ~ 99인	628	27.2	18.8	19.1	22.1	2.7	3.7	3.2	0.0	3.2	
	100인 이상	426	29.7	13.2	19.0	17.5	7.5	2.6	0.5	0.0	9.9	
별 도	수도권	26,182	29.6	17.2	20.5	11.6	6.4	4.6	1.5	0.9	7.7	
	경남권	6,429	31.8	18.9	10.0	20.5	3.1	1.2	3.0	0.0	11.4	
	경북권	3,348	35.1	25.4	11.6	16.0	3.6	0.3	1.5	0.0	6.4	
	전라권	3,236	34.9	13.7	10.7	16.2	1.7	4.2	1.9	0.0	16.7	
	충청권	2,923	33.1	10.4	17.5	22.3	4.7	3.9	2.3	0.0	5.8	

8.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부 인력정책

- 향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인력정책으로는, '신규채용 인건비 보조제도'(33.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소기업 내 일자리 유지/창출 지원제도'(16.8%), '훈련 후 채용연계 지원제도'(12.0%) 순임

(그림 76)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부 인력정책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26.8%) 대비 비제조업(35.1%)에서 '신규채용 인건비 보조제도'에 대한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식품/음료 제조'(35.6%), 비제조업 중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41.6%)에서 '신규채용 인건비 보조제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23.1%)의 경우 '훈련 후 채용연계지원 제도'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비제조업의 경우 '운수업'에서는 '중소기업 내 일자리유지/창출 지원제도'(28.1%),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훈련 후 채용연계지원 제도'(20.9%),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24.8%)이라는 응답이 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91>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부 인력정책(1/2)

(단위: 개사 %)

구분		사례 수	신규채용 인건비 보조제도	중소기업 내 일자리유지/ 창출 지원제도	훈련 후 채용연계지원 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산업기능 요원제도	
전체		42,118	33.6	16.8	12.0	11.8	7.7	
기업	제조업	7,459	26.8	15.9	15.0	9.8	11.6	
	비제조업	34,659	35.1	17.0	11.3	12.2	6.9	
세 구 업 종 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35.6	15.9	15.0	11.2	5.2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19.4	14.3	23.1	5.2	18.6
		기타 제조	5,822	26.6	16.1	13.8	10.2	11.5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32.6	19.4	16.8	7.0	11.1
		건설업	8,211	37.4	11.7	13.3	10.4	10.6
		도매 및 소매업	10,963	34.3	18.2	9.7	17.5	3.2
		운수업	1,954	33.4	28.1	10.2	5.7	5.3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22.4	18.5	20.9	10.5	7.7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35.2	19.0	11.6	9.9	8.6
		금융 및 보험업	769	28.8	12.5	13.7	20.5	2.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30.7	15.4	7.6	10.2	12.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35.2	15.3	9.1	13.8	8.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41.6	22.1	9.7	5.9	4.8
		교육 서비스업	891	36.6	10.5	14.1	6.6	9.9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29.2	17.3	6.0	24.8	3.6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40.4	17.6	10.3	10.9	8.9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27.4	19.0	18.9	7.3	8.4
		중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2,217	33.7	17.9	11.6	12.7
5 ~ 19인	16,213		33.7	15.2	12.4	11.3	9.0	
20 ~ 49인	2,634		33.7	15.5	12.3	7.5	11.3	
50 ~ 99인	628		32.9	21.2	14.1	11.5	7.7	
100인 이상	426		28.1	20.6	11.7	10.2	7.8	
권 역 별	수도권	26,182	29.3	19.0	10.5	13.5	6.9	
	경남권	6,429	42.8	13.1	13.2	8.8	8.8	
	경북권	3,348	45.4	10.6	13.7	5.9	12.3	
	전라권	3,236	37.6	12.1	13.9	11.5	10.8	
	충청권	2,923	34.2	18.0	18.5	10.2	3.7	

<표 92>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부 인력정책(2/2)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복리후생 지원	재직자 직업훈련 지원제도	외국 인력제도	기타	없음		
전 체		42,118	7.1	6.0	2.5	0.0	2.5		
부 면	제조업	7,459	9.1	6.2	3.6	0.1	1.9		
	비제조업	34,659	6.7	5.9	2.3	0.0	2.6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5.0	5.8	1.7	0.3	4.3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5.6	8.3	1.6	0.0	3.7	
		기타 제조	5,822	10.1	6.0	4.2	0.1	1.3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5.8	4.5	1.6	0.0	1.2	
		건설업	8,211	7.5	5.2	2.6	0.0	1.3	
		도매 및 소매업	10,963	7.1	5.5	2.1	0.0	2.6	
		운수업	1,954	6.5	5.4	1.1	0.0	4.4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9.2	4.9	1.4	0.3	4.3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2.4	11.6	1.3	0.0	0.4	
		금융 및 보험업	769	7.4	8.0	0.7	0.0	6.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8.3	7.9	2.5	0.0	4.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4.9	6.3	5.4	0.0	1.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4.7	5.6	2.6	0.0	2.8	
		교육 서비스업	891	5.2	7.4	1.8	0.0	8.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10.4	7.2	0.0	0.0	1.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6.7	1.5	1.8	0.0	1.9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1.2	4.9	0.8	0.0	2.2	
		중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2,217	6.5	6.2	2.3	0.0	2.8
			5 ~ 19인	16,213	7.9	5.7	2.6	0.0	2.1
20 ~ 49인	2,634		7.3	5.8	4.4	0.2	2.1		
50 ~ 99인	628		4.5	4.6	2.3	0.0	1.3		
100인 이상	426		11.0	6.6	1.9	0.0	2.1		
권 역 별	수도권	26,182	9.5	6.7	3.0	0.0	1.6		
	경남권	6,429	3.0	5.0	2.6	0.0	2.8		
	경북권	3,348	2.1	5.3	1.2	0.0	3.4		
	전라권	3,236	3.4	2.9	1.4	0.0	6.6		
	충청권	2,923	4.2	6.2	1.1	0.0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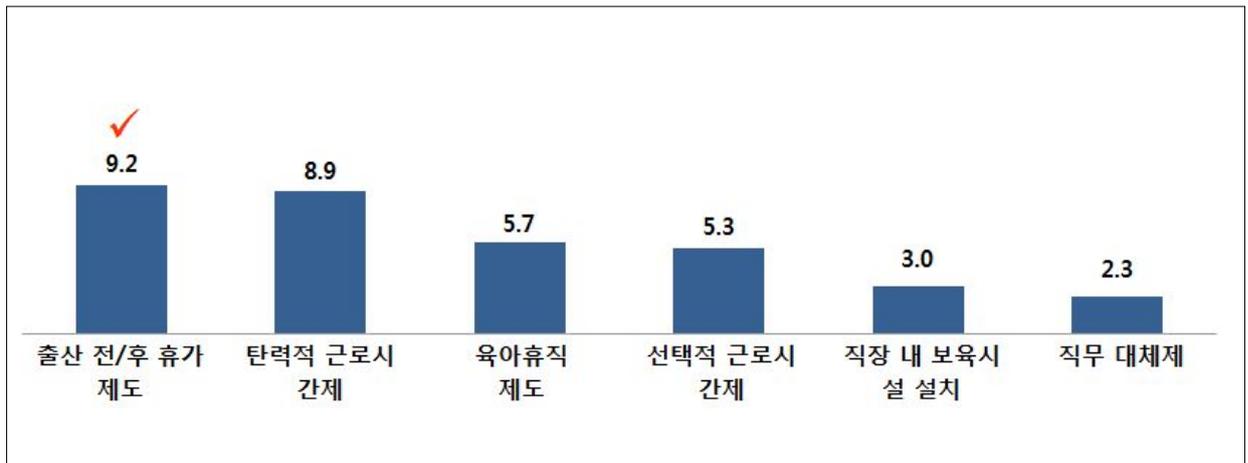
9.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

○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출산 전/후 휴가제도’(9.2%)가 가장 높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8.9%), ‘육아휴직제도’(5.7%)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77.4%의 여성기업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별도의 지원제도가 없다고 응답

(그림 77)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비제조업(22.0%)보다는 제조업(25.6%)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에서는 주로 ‘출산 전/후 휴가제도’(13.7%) 활용이 높은 반면, 비제조업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9.1%)가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기업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100인 이상’을 살펴보면, ‘출산 전/후 휴가제도’(25.3%), ‘육아휴직제도’(21.7%), ‘탄력적 근로시간제’(14.8%) 순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93>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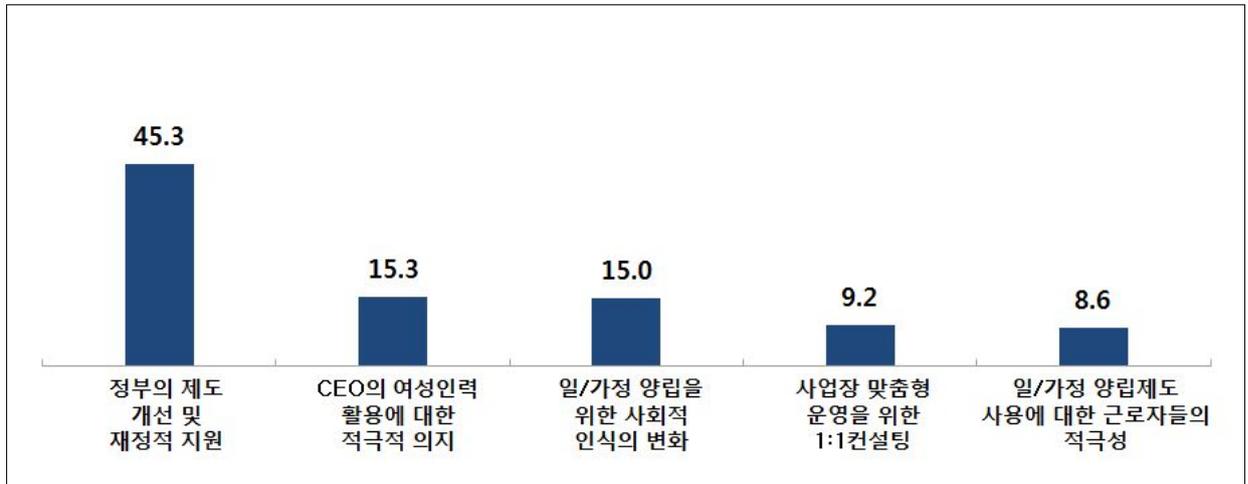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출산 전/후 휴가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육아휴직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직무 대체제	해당없음 (일·가정 양립관련 지원에도 없음)	
전체		42,118	9.2	8.9	5.7	5.3	3.0	2.3	77.4	
대분	제조업	7,459	13.7	7.9	5.9	3.4	7.2	1.3	74.4	
	비제조업	34,659	8.2	9.1	5.6	5.7	2.0	2.5	78.0	
세부업종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16.3	7.1	7.3	6.3	4.8	0.5	74.2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10.5	8.6	4.2	1.5	0.0	0.4	79.4
		기타 제조	5,822	13.8	8.0	5.9	3.3	8.5	1.6	73.8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7.3	4.6	1.9	3.0	1.5	2.6	86.6
		건설업	8,211	4.7	5.7	2.8	4.2	0.3	2.4	84.9
		도매 및 소매업	10,963	6.6	7.7	4.8	5.4	1.5	2.6	80.6
		운수업	1,954	5.0	8.5	7.6	5.2	0.0	0.0	84.7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14.3	20.8	12.6	9.3	4.8	6.0	62.5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4.1	9.1	6.1	5.6	5.6	1.2	71.5
		금융 및 보험업	769	11.6	7.6	4.2	3.0	10.2	3.5	75.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20.7	6.5	9.8	10.0	6.3	6.1	68.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17.6	19.6	18.5	7.0	6.1	1.4	55.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6.3	12.0	2.5	5.5	0.5	2.6	78.8
		교육 서비스업	891	6.8	11.8	3.4	7.4	0.0	3.0	75.9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8.9	21.5	7.9	12.8	0.0	1.4	58.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8.7	6.5	3.6	2.9	0.0	0.0	83.9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4.0	13.4	3.2	11.2	1.6	1.4	72.7		
종사자규모별	5인 미만	22,217	8.1	8.0	4.4	5.3	3.4	2.1	79.7	
	5 ~ 19인	16,213	9.1	9.4	6.0	4.9	2.3	2.7	76.8	
	20 ~ 49인	2,634	14.2	11.5	10.1	6.6	2.2	1.7	68.3	
	50 ~ 99인	628	17.5	16.0	12.8	5.8	4.3	2.8	62.3	
	100인 이상	426	25.3	14.8	21.7	9.2	5.6	0.5	54.4	
권역별	수도권	26,182	10.3	11.4	6.2	6.0	4.1	3.1	72.4	
	경남권	6,429	5.8	2.8	4.3	4.3	0.1	1.3	88.5	
	경북권	3,348	6.7	6.9	4.8	4.8	0.0	0.3	84.8	
	전라권	3,236	9.5	5.3	5.4	4.5	0.2	1.5	84.5	
	충청권	2,923	9.4	6.7	5.2	2.8	4.9	0.6	81.0	

10. 일·가정 양립제도의 정착을 위한 필요 사항

- 일·가정 양립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여성기업의 45.3%는 ‘정부의 제도개선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 다음으로는 ‘CEO의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적극적 의지’(15.3%),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15.0%) 순으로 나타남

(그림 78) 일·가정 양립제도의 정착을 위한 필요 사항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37.5%)에 비해 비제조업(47.0%)에서 ‘정부의 제도 개선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47.0%), 비제조업 중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56.3%)에서 ‘정부의 제도개선 및 재정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94> 일·가정 양립제도의 정착을 위한 필요 사항

(단위: 개사 %)

구분		사례 수	정부의 제도 개선 및 재정적 지원	CEO의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사업장 맞춤형 인건위 1:1 컨설팅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에 대한 근로자들의 적극성	필요사항 없음	모름/무응답	
전체		42,118	45.3	15.3	15.0	9.2	8.6	4.9	1.7	
부	제조업	7,459	37.5	18.7	15.4	8.0	13.7	4.7	1.9	
	비제조업	34,659	47.0	14.6	15.0	9.4	7.4	4.9	1.6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30.3	25.1	17.2	4.0	16.2	4.8	2.5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47.0	7.6	16.1	1.1	23.4	2.2	2.6
		기타 제조	5,822	37.3	19.3	15.0	9.6	12.1	5.0	1.7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37.2	11.1	19.1	5.0	16.5	10.3	0.8
		건설업	8,211	43.7	11.8	14.4	14.6	6.0	8.0	1.5
		도매 및 소매업	10,963	52.9	12.5	13.7	8.4	6.3	4.9	1.2
		운수업	1,954	32.7	23.3	23.9	5.5	10.6	2.9	1.1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51.6	11.2	14.1	8.0	9.6	2.6	2.8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43.1	21.8	15.0	9.3	7.3	2.6	0.9
		금융 및 보험업	769	39.3	11.2	18.2	4.3	21.0	2.8	3.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45.5	15.2	14.2	9.2	10.7	4.3	0.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47.3	20.5	14.4	9.8	3.3	2.7	1.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48.7	15.4	15.1	6.9	8.4	3.5	2.0
		교육 서비스업	891	50.8	17.0	10.6	1.2	13.2	1.2	5.9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31.4	27.4	15.3	13.4	10.0	1.2	1.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56.3	15.3	14.4	2.3	5.7	4.1	2.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37.2	18.5	20.7	10.2	4.5	5.0	3.9		
중	5인 미만	22,217	43.9	14.1	15.4	9.7	9.3	5.7	1.8	
	5 ~ 19인	16,213	46.8	16.7	13.9	9.4	7.5	4.2	1.5	
	20 ~ 49인	2,634	49.1	15.6	17.7	4.0	8.6	3.2	1.7	
	50 ~ 99인	628	39.3	21.0	18.7	5.8	9.3	5.0	1.0	
	100인 이상	426	46.2	18.7	16.0	6.7	8.8	2.5	1.2	
관	수도권	26,182	44.8	17.7	11.2	11.2	8.6	4.0	2.5	
	경남권	6,429	45.6	12.3	22.9	5.1	6.2	7.6	0.4	
	경북권	3,348	50.9	11.6	18.6	5.0	9.5	4.2	0.3	
	전라권	3,236	47.8	8.1	20.0	7.7	11.1	4.8	0.5	
	충청권	2,923	40.1	12.7	22.7	6.4	9.9	8.1	0.1	

제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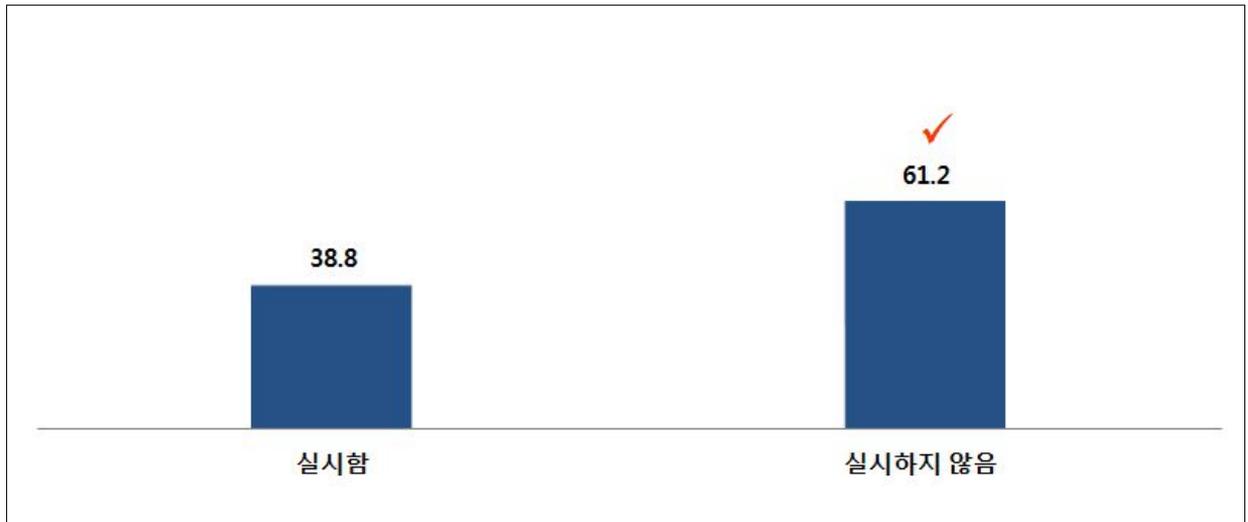
교육 및 연수

1.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실시 여부

- 2012년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을 실시한 여성기업은 38.8%로, 나머지 61.2%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9)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실시 여부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여성기업 비중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에서 각각 40.6%, 38.4%로 유사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기타 제조'(41.4%)의 교육훈련 실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식료품/음료 제조'(40.6%), '섬유/의복/가방/신발'(35.4%) 순으로 나타남
 - 비제조업 중 '교육 서비스업'(63.4%)의 교육훈련 실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54.0%), '금융 및 보험업'(53.5%)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26.2%)은 비제조업 중 교육훈련 실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비중이 높아짐

<표 95>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실시 여부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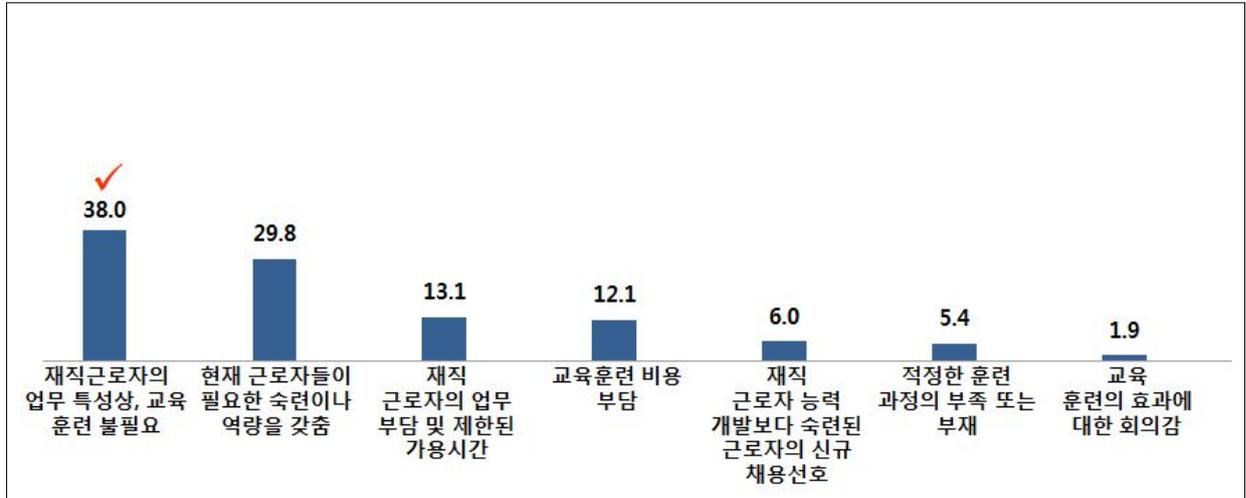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실시함	실시하지 않음	
전 체		42,118	38.8	61.2	
부	제조업	7,459	40.6	59.4	
	비제조업	34,659	38.4	61.6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40.6	59.4	
		섬유/의복/가방/신발	35.4	64.6	
		기타 제조	41.4	58.6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7.4	52.6	
		건설업	43.1	56.9	
		도매 및 소매업	28.6	71.4	
		운수업	48.8	51.2	
		숙박 및 음식점업	54.0	46.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35.1	64.9	
		금융 및 보험업	53.5	46.5	
		부동산업 및 임대업	26.2	73.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5.5	64.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45.0	55.0	
		교육 서비스업	63.4	36.6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48.9	51.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8.2	51.8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7	59.3	
		중	5인 미만	31.1	68.9
			5 ~ 19인	43.6	56.4
20 ~ 49인	62.8		37.2		
50 ~ 99인	64.1		35.9		
100인 이상	72.1		27.9		
지	수도권	32.5	67.5		
	경남권	49.7	50.3		
	경북권	52.7	47.3		
	전라권	46.4	53.6		
	충청권	46.8	53.2		

2.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여성기업의 경우, '재직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교육훈련 불필요'(38.0%), '현재 근로자들이 필요한 숙련이나 역량을 갖추'(29.8%)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80)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제조업 중 '식료품/음료 제조'(54.5%)와 비제조업 중 '운수업'(66.2%)은 '재직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교육훈련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비중 차지
- 한편,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는 '현재 근로자들이 필요한 숙련이나 역량을 갖추'(60.7%)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96>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단위: 개사 %)

구분		사례 수	재직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교육훈련 불필요	현재 근로자들이 필요한 숙련이나 역량을 갖추	재직 근로자의 업무부담 및 제한된 가용시간	교육훈련 비용 부담	재직 근로자 능력개발 보다 숙련된 근로자의 신규채용 선호	적정한 훈련 과정의 부족 또는 부재	교육 훈련의 효과에 대한 회의감	
전체		25,770	38.0	29.8	13.1	12.1	6.0	5.4	1.9	
대분	제조업	4,429	34.3	27.7	18.7	10.7	5.2	5.7	2.0	
	비제조업	21,341	38.8	30.2	12.0	12.3	6.2	5.4	1.9	
세부업종별	제조업	식품/음료 제조	496	54.5	22.0	10.0	4.0	2.7	3.7	4.5
		섬유/의복/가방/신발	519	27.6	39.5	11.3	12.1	5.6	4.5	2.3
		기타 제조	3,414	32.4	26.7	21.1	11.5	5.5	6.1	1.6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242	55.2	24.2	7.6	8.1	0.0	2.1	5.8
		건설업	4,668	32.3	37.0	11.3	15.0	8.4	3.8	1.7
		도매 및 소매업	7,831	38.2	30.2	11.4	11.2	6.0	6.8	1.4
		운수업	1,001	66.2	20.0	7.2	3.7	2.2	3.0	1.0
		숙박 및 음식점업	473	45.1	31.1	8.0	15.5	3.0	0.5	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092	25.5	31.7	24.7	10.4	6.9	3.5	4.5
		금융 및 보험업	358	39.6	22.2	9.7	16.2	4.1	6.1	3.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77	52.8	19.9	9.5	9.9	6.8	3.6	2.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51	31.9	19.9	19.3	20.4	7.2	9.4	1.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898	45.8	34.9	7.7	8.8	4.8	5.9	3.5
		교육 서비스업	326	33.2	33.6	23.6	13.4	5.5	0.0	1.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59	17.4	60.7	19.6	7.4	5.0	2.4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7	51.8	33.1	10.1	7.5	3.4	1.6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99	27.9	25.5	8.7	20.7	5.5	9.3	3.5		
종사자규모별	5인 미만	15,305	41.9	30.5	9.7	11.9	5.5	4.3	1.6	
	5 ~ 19인	9,140	31.3	29.9	18.0	12.4	6.8	7.3	2.1	
	20 ~ 49인	981	36.5	22.2	20.0	12.2	7.3	5.8	4.4	
	50 ~ 99인	225	44.7	14.8	21.1	13.8	3.5	4.0	2.8	
	100인 이상	119	49.6	24.1	17.7	7.6	9.4	10.6	5.7	
지역별	수도권	17,664	32.4	30.8	15.4	13.9	6.8	6.7	1.9	
	경남권	3,232	53.2	23.3	7.9	8.8	4.2	3.8	3.4	
	경북권	1,584	41.5	39.7	8.5	5.9	4.5	1.4	0.5	
	전라권	1,735	45.2	32.2	9.2	4.6	5.1	3.4	1.8	
	충청권	1,555	59.0	19.4	7.4	12.2	3.3	0.4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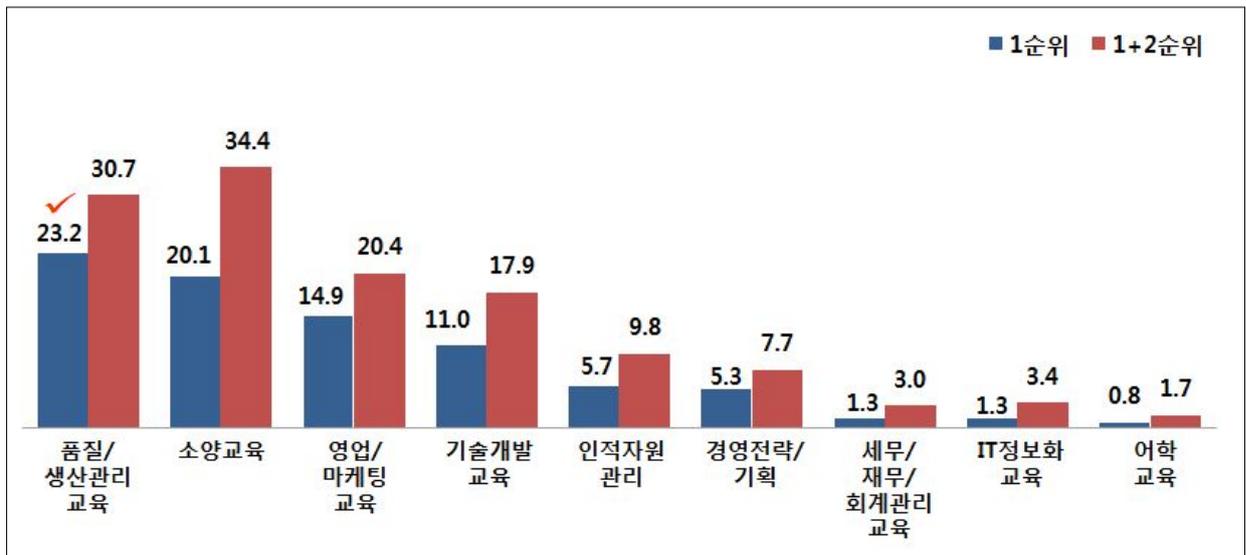
※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3. 가장 많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내용

-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여성기업들 중 가장 많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는 '품질/생산관리 교육'(23.2%)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양교육'(20.1%), '영업/마케팅 교육'(14.9%) 순으로 나타남

(그림 81) 가장 많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내용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가장 많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살펴보면, 제조업은 '품질/생산관리 교육'(44.1%)을 가장 많이 실시하는 반면, 비제조업은 '소양교육'(22.1%)을 가장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비제조업 중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훈련 내용 가운데 '소양교육'(54.6%)을 실시하는 응답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타 업종 대비 특정 훈련 내용에 집중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소양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97> 가장 많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내용(1/2)

(단위: 개사 %)

구분		사례 수	품질/생산관리 교육	소양교육	영업/마케팅 교육	기술개발교육	인적자원관리	
전체		16,348	23.2	20.1	14.9	11.0	5.7	
기업	제조업	3,030	44.1	11.4	9.7	6.5	3.3	
	비제조업	13,318	18.5	22.1	16.1	12.0	6.3	
세부업종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338	44.6	17.8	5.5	4.8	2.7
		섬유/의복/가방/신발	284	51.4	5.1	17.8	9.4	0.0
		기타 제조	2,408	43.2	11.3	9.4	6.4	3.8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219	14.5	14.2	7.4	8.4	4.2
		건설업	3,543	24.5	10.1	4.8	19.9	7.9
		도매 및 소매업	3,132	22.6	20.7	31.4	3.7	5.0
		운수업	953	15.8	30.6	6.4	9.8	4.7
		숙박 및 음식점업	555	16.6	48.5	9.3	2.3	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591	8.4	4.1	20.2	32.0	8.3
		금융 및 보험업	411	8.6	14.7	40.9	3.1	7.5
		부동산업 및 임대업	454	20.3	30.4	22.6	4.7	3.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55	18.4	9.6	14.0	30.5	8.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554	11.9	36.7	17.3	7.3	5.6
		교육 서비스업	565	7.9	39.8	8.4	4.3	11.5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56	5.4	54.6	0.0	4.9	12.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5	5.1	47.4	11.3	7.7	2.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74	13.8	49.8	6.4	8.0	4.7
		중사자규모별	5인 미만	6,912	21.7	17.8	17.7	10.1
5 ~ 19인	7,073		23.8	20.2	13.1	12.6	6.7	
20 ~ 49인	1,653		28.5	23.7	10.6	10.1	4.2	
50 ~ 99인	403		25.1	30.2	15.8	3.9	2.9	
100인 이상	307		15.2	38.1	16.1	9.2	1.4	
지역별	수도권	8,518	22.3	17.0	22.3	11.0	8.4	
	경남권	3,198	23.5	23.5	8.9	6.8	3.5	
	경북권	1,764	18.6	15.7	8.6	21.3	2.8	
	전라권	1,501	29.2	25.8	3.9	14.2	3.0	
	충청권	1,368	27.9	30.7	3.5	4.1	1.3	

※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표 98> 가장 많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내용(2/2)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경영전략/기획	세무/재무/ 회계관리 교육	IT정보화 교육	어학 교육	기타	
전 체		16,348	5.3	1.3	1.3	0.8	16.3	
업 종	제조업	3,030	11.6	0.7	0.4	0.5	11.7	
	비제조업	13,318	3.8	1.5	1.5	0.9	17.4	
세 구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338	3.1	2.0	0.0	2.0	17.5
		섬유/의복/가방/신발	284	2.6	0.0	0.0	2.1	11.6
		기타 제조	2,408	13.8	0.6	0.5	0.1	10.9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219	1.8	0.0	0.8	0.0	48.7
		건설업	3,543	1.3	2.4	0.6	0.0	28.6
		도매 및 소매업	3,132	4.5	0.8	0.4	0.6	10.3
		운수업	953	2.5	1.0	1.0	1.0	27.0
		숙박 및 음식점업	555	1.4	0.0	3.6	0.0	18.3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591	5.5	4.4	10.9	1.3	4.9
		금융 및 보험업	411	5.8	0.8	0.0	1.3	17.3
		부동산업 및 임대업	454	3.5	2.3	2.4	0.0	10.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55	5.8	1.6	2.9	2.3	5.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554	4.0	1.2	0.9	1.7	13.5
		교육 서비스업	565	14.4	0.0	2.6	4.5	6.8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56	2.5	0.0	2.5	0.0	17.7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5	7.1	1.7	0.0	0.0	17.6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74	4.2	0.0	1.0	0.0	12.1
		종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6,912	5.3	1.5	1.4	0.7
5 ~ 19인	7,073		5.5	1.2	1.0	0.8	15.1	
20 ~ 49인	1,653		3.2	1.0	1.7	1.0	15.9	
50 ~ 99인	403		4.4	1.3	2.7	0.0	13.7	
100인 이상	307		10.3	1.5	0.7	2.4	4.9	
권 역 별	수도권	8,518	7.7	2.1	1.3	0.4	7.5	
	경남권	3,198	2.7	1.1	1.4	2.0	26.6	
	경북권	1,764	1.9	0.1	0.8	0.2	30.2	
	전라권	1,501	3.2	0.0	1.0	0.4	19.2	
	충청권	1,368	2.7	0.0	2.0	1.4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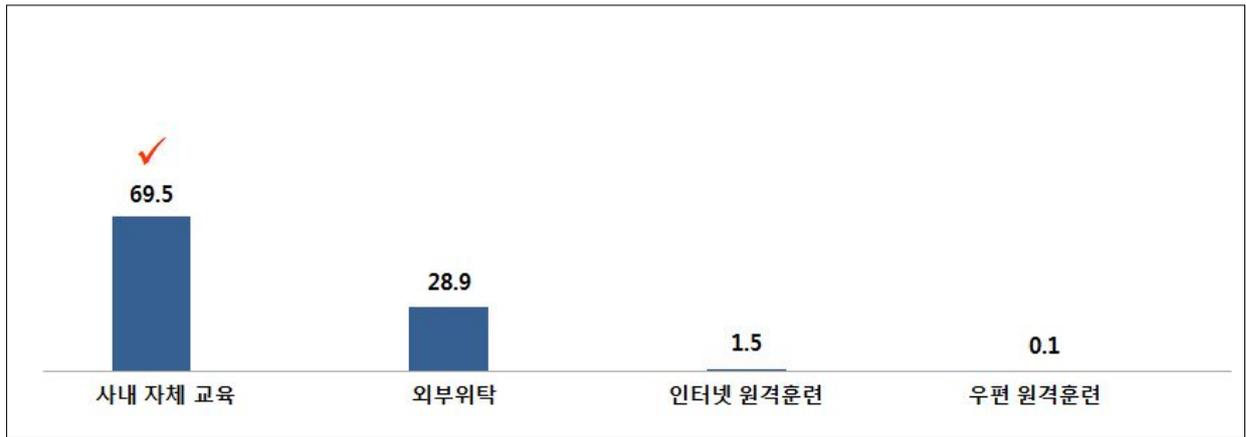
※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4.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형태

-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여성기업에서는 ‘사내 자체 교육’(69.5%)을 통해 주로 교육을 실시하며, 다음으로는 ‘외부 위탁’(28.9%), ‘인터넷 원격훈련’(1.5%) 형태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82)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형태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교육훈련 제공 형태는 사내자체 교육 > 외부위탁 > 인터넷 원격 훈련 > 우편 원격훈련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임
 - 특히 ‘섬유/의복/가방/신발’(88.3%)은 ‘사내 자체 교육’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한편, 비제조업 중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40.8%)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9.4%)은 타 업종에 비해 ‘외부위탁’ 형태의 교육훈련 제공이 높은 편임

<표 99>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형태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사내 자체 교육	외부위탁	인터넷 원격훈련	우편 원격훈련	
전 체		16,348	69.5	28.9	1.5	0.1	
업종	제조업	3,030	70.9	27.1	1.5	0.5	
	비제조업	13,318	69.1	29.4	1.5	0.0	
세부업종	제조업	식품/음료 제조	338	68.0	27.3	4.6	0.0
		섬유/의복/가방/신발	284	88.3	11.7	0.0	0.0
		기타 제조	2,408	69.3	28.9	1.2	0.6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219	65.9	34.1	0.0	0.0
		건설업	3,543	66.3	33.0	0.8	0.0
		도매 및 소매업	3,132	77.3	21.6	1.1	0.0
		운수업	953	63.0	37.0	0.0	0.0
		숙박 및 음식점업	555	70.6	28.9	0.5	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591	65.8	30.4	3.9	0.0
		금융 및 보험업	411	72.2	23.9	3.9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454	63.1	34.6	2.4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55	55.0	39.4	5.6	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554	75.3	23.6	1.1	0.0
		교육 서비스업	565	66.7	31.4	2.0	0.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56	59.2	38.3	2.5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5	79.5	18.5	2.0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74	56.7	40.8	2.6	0.0
종사자규모	5인 미만	6,912	70.4	27.6	2.0	0.0	
	5 ~ 19인	7,073	69.8	29.0	1.0	0.2	
	20 ~ 49인	1,653	63.5	34.5	2.0	0.0	
	50 ~ 99인	403	67.9	30.3	1.8	0.0	
	100인 이상	307	73.9	26.1	0.0	0.0	
지역	수도권	8,518	75.5	22.0	2.4	0.2	
	경남권	3,198	65.6	34.3	0.1	0.0	
	경북권	1,764	62.5	36.8	0.8	0.0	
	전라권	1,501	57.0	42.3	0.7	0.0	
	충청권	1,368	63.7	35.0	1.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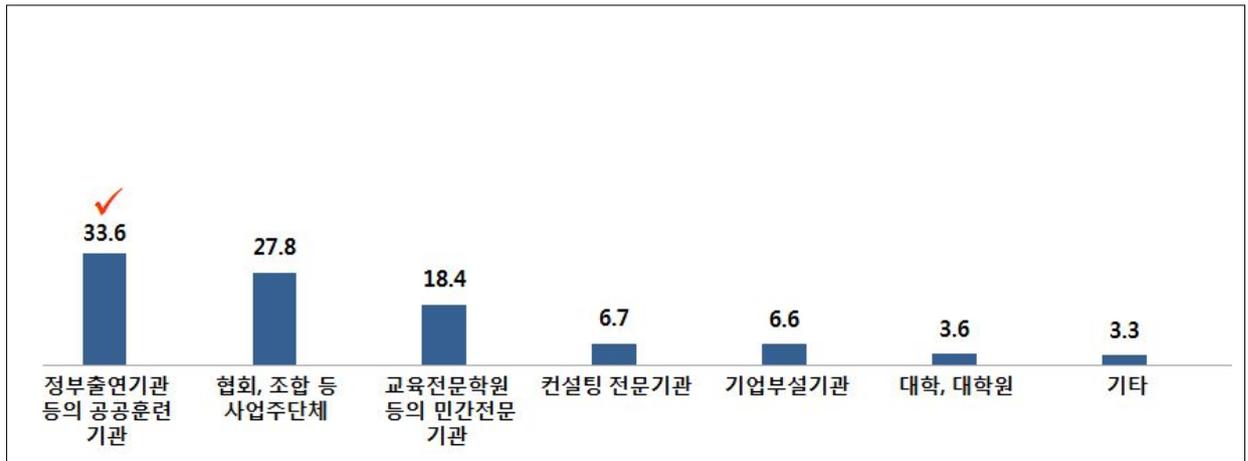
※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5. 교육훈련 위탁 기관

- 외부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여성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기관 등의 공공훈련기관'(33.6%)을 주로 이용하고, 다음으로 '협회, 조합 등 사업주단체'(27.8%), '교육전문 학원 등의 민간전문기관'(18.4%) 순으로 나타남

(그림 83) 교육훈련 위탁 기관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교육훈련 위탁 기관을 살펴보면, 제조업(44.3%)과 비제조업(31.3%) 모두 '정부출연기관 등의 공공훈련기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제조업의 경우 '교육전문 학원 등의 민간전문기관(22.0%)', 비제조업의 경우 '협회, 조합 등 사업주단체'(30.4%)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한편, 비제조업 중 '부동산업 및 임대업'(43.3%), '건설업'(41.9%), '운수업'(38.7%)은 '협회, 조합 등 사업주단체'에 대한 응답이 높은 편임
- 종사자 규모별로 50인 미만은 '정부출연기관 등의 공공훈련기관'에, 50인 이상은 '교육전문 학원 등의 민간전문기관'에 주로 교육을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00> 교육훈련 위탁 기관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정부출연 기관 등의 공공훈련 기관	협회, 조합 등 사업주 단체	교육전문 학원 등의 민간전문 기관	컨설팅 전문기관	기업부설 기관	대학, 대학원	기타	
전 체		4,734	33.6	27.8	18.4	6.7	6.6	3.6	3.3	
업 종	제조업	822	44.3	15.1	22.0	8.3	4.5	5.0	0.8	
	비제조업	3,911	31.3	30.4	17.7	6.4	7.1	3.3	3.8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92	26.6	15.9	37.9	19.6	0.0	0.0	0.0
		섬유/의복/가방/신발	33	54.8	23.3	9.8	12.0	0.0	0.0	0.0
		기타 제조	697	46.1	14.7	20.4	6.6	5.3	5.9	1.0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75	47.8	32.8	19.4	0.0	0.0	0.0	0.0
		건설업	1,168	26.8	41.9	17.0	1.9	5.3	4.9	2.2
		도매 및 소매업	676	47.3	18.1	8.0	11.9	8.0	0.0	6.7
		운수업	352	21.7	38.7	11.6	8.8	4.1	5.7	9.4
		숙박 및 음식점업	161	24.5	30.2	25.9	15.3	4.0	0.0	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79	18.4	17.1	51.7	8.6	1.7	2.5	0.0
		금융 및 보험업	98	37.1	11.2	14.9	0.0	27.5	5.6	3.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57	43.6	43.3	6.5	3.3	3.3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37	24.7	32.3	20.6	4.5	10.5	4.1	3.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67	29.4	19.8	20.5	6.9	13.2	4.3	5.9
		교육 서비스업	177	36.0	20.0	18.8	12.6	2.9	6.3	3.4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23	42.7	26.0	6.9	6.0	0.0	12.3	6.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9	40.0	30.9	18.2	0.0	10.9	0.0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2	24.1	24.2	35.0	4.7	12.1	0.0	0.0		
종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1,907	35.1	31.6	15.7	4.3	7.8	3.1	2.4	
	5 ~ 19인	2,055	33.0	26.4	19.9	6.8	4.7	4.2	5.0	
	20 ~ 49인	570	33.3	23.4	18.5	12.2	11.0	1.5	0.0	
	50 ~ 99인	122	29.3	20.7	30.1	3.7	1.9	8.6	5.7	
	100인 이상	80	19.6	13.7	26.5	24.4	5.5	10.3	0.0	
권 역 별	수도권	1,873	29.5	25.4	23.6	9.8	6.0	2.3	3.3	
	경남권	1,099	41.3	26.4	14.1	6.0	4.6	1.7	5.8	
	경북권	649	36.4	27.9	16.6	3.1	11.8	3.3	0.9	
	전라권	635	31.8	32.3	11.2	6.1	7.1	8.0	3.5	
	충청권	479	30.2	33.9	20.2	1.6	6.2	7.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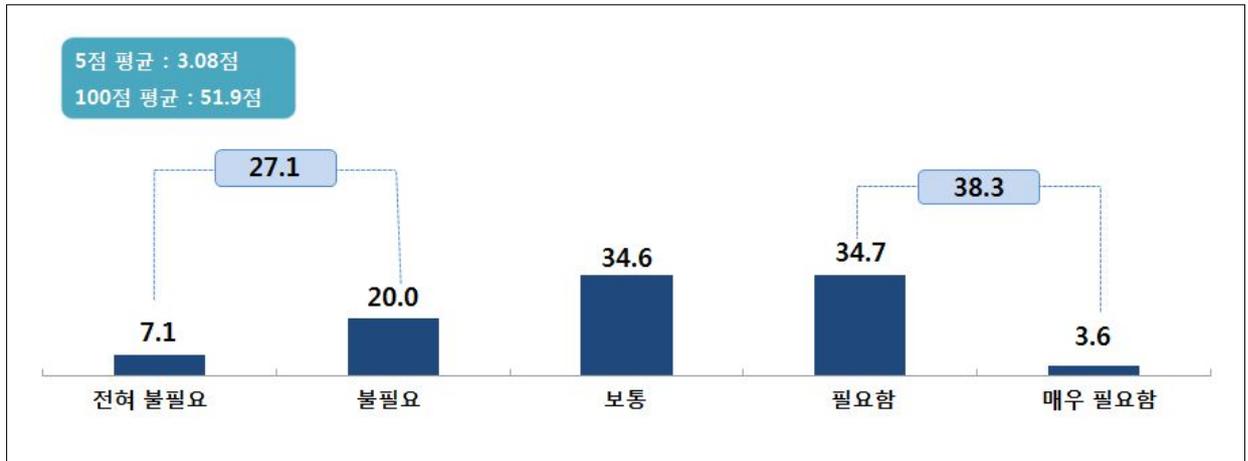
※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형태를 '외부위탁'으로 응답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6.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 필요성

- 여성기업 중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여성기업은 38.3%(필요함+매우 필요함)로 교육이 필요 없다는 여성기업(27.1%)(불필요+전혀 불필요) 보다 11.2%p 높음

(그림 84)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 필요성

(단위 :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비제조업(39.8%)이 제조업(31.4%)에 비해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35.1%)제조와 비제조업 중에서는 '교육 서비스업'(56.0%)이 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음
- 종사자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재직 근로자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101>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 필요성

(단위: 개사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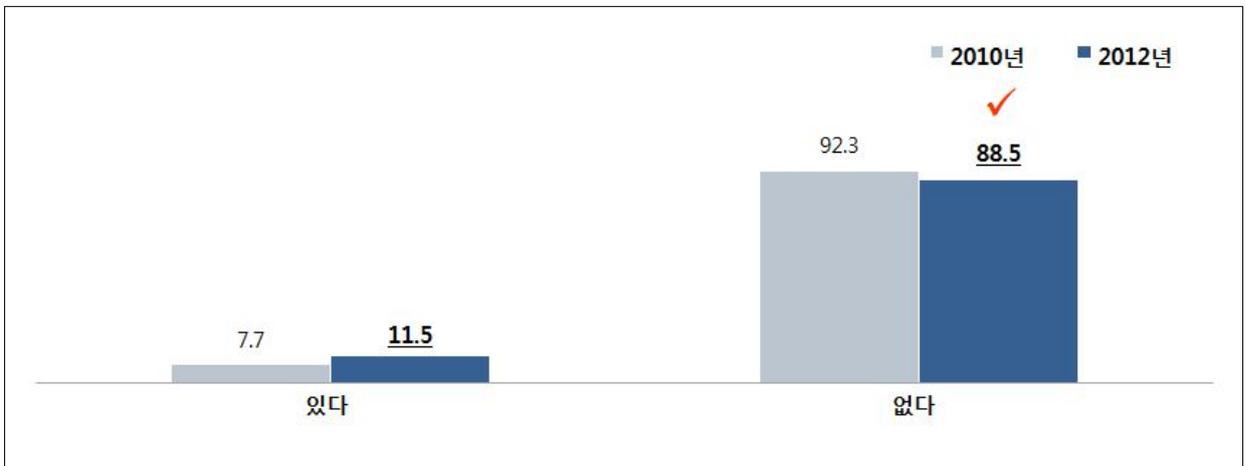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①+② 불필요	④+⑤ 필요	100점 평균 (점)	
전 체		42,118	7.1	20.0	34.6	34.7	3.6	27.1	38.3	51.9	
부	제조업	7,459	3.2	17.5	47.9	28.4	3.0	20.7	31.4	52.6	
	비제조업	34,659	7.9	20.6	31.8	36.0	3.7	28.5	39.8	51.8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2.9	24.8	40.0	28.1	4.1	27.7	32.3	51.5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9.6	20.6	34.6	32.5	2.6	30.3	35.1	49.5
		기타 제조	5,822	2.4	16.0	50.8	27.9	2.9	18.4	30.8	53.2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13.6	22.2	27.9	30.6	5.6	35.9	36.2	48.1
		건설업	8,211	2.5	18.7	32.3	42.8	3.7	21.2	46.5	56.6
		도매 및 소매업	10,963	12.9	24.0	34.4	25.7	3.0	36.9	28.7	45.5
		운수업	1,954	13.1	23.7	17.0	43.2	3.0	36.8	46.1	49.8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4.8	14.0	28.5	49.8	2.8	18.8	52.6	58.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4.3	13.6	40.9	37.9	3.3	17.9	41.2	55.6
		금융 및 보험업	769	1.2	15.4	34.8	42.3	6.4	16.6	48.7	59.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6.1	24.8	33.8	33.0	2.3	30.9	35.3	50.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3.3	11.7	41.1	37.0	7.0	15.0	44.0	58.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10.4	23.6	21.2	42.6	2.2	34.0	44.8	50.6
		교육 서비스업	891	6.8	16.2	20.9	44.8	11.2	23.1	56.0	59.3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1.2	15.0	31.4	47.4	5.1	16.1	52.4	6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8.1	22.5	27.0	39.3	3.1	30.6	42.4	51.7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3.6	21.8	38.8	28.5	7.4	25.4	35.9	53.6
중	5인 미만	22,217	9.8	23.2	33.7	29.8	3.5	33.0	33.3	48.5	
	5 ~ 19인	16,213	4.4	17.4	37.0	38.0	3.3	21.7	41.3	54.6	
	20 ~ 49인	2,634	1.9	12.8	30.6	50.2	4.5	14.7	54.7	60.6	
	50 ~ 99인	628	4.0	12.8	27.5	48.6	7.0	16.9	55.7	60.5	
	100인 이상	426	1.9	9.4	29.9	49.6	9.1	11.4	58.7	63.6	
대	수도권	26,182	8.0	18.0	41.8	29.6	2.6	26.0	32.2	50.2	
	경남권	6,429	6.0	27.2	19.5	43.2	4.0	33.3	47.3	53.0	
	경북권	3,348	3.1	16.6	21.0	50.7	8.6	19.7	59.2	61.2	
	전라권	3,236	4.4	25.4	23.7	41.8	4.7	29.8	46.5	54.3	
	충청권	2,923	8.4	20.5	31.1	35.5	4.5	28.9	40.0	51.8	

7. 여성경영자 대상 교육(연수) 참가여부

- 여성기업인의 11.5%는 여성경영자 대상 교육(연수)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88.5%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여성경영자 대상 교육(연수)에 참가한 경험은 2010년 7.7% → 2012년 11.5%로, 2012년에 더 높음

(그림 85) 여성경영자 대상 교육(연수) 참가여부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는, 제조업(12.9%)이 비제조업(11.2%) 대비 여성경영자 대상 교육(연수)에 참가 경험비율이 약 1.7%p 높으나 거의 비슷함
 - 한편, 비제조업 중, '금융 및 보험업'(17.2%)과 '교육 서비스업'(19.8%)의 경우 여성경영자 교육(연수)에 참가 했다는 응답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종사자가 많을수록 여성경영자 대상 교육(연수)에 참여한 비율이 높음

<표 102> 여성경영자 대상 교육(연수) 참가여부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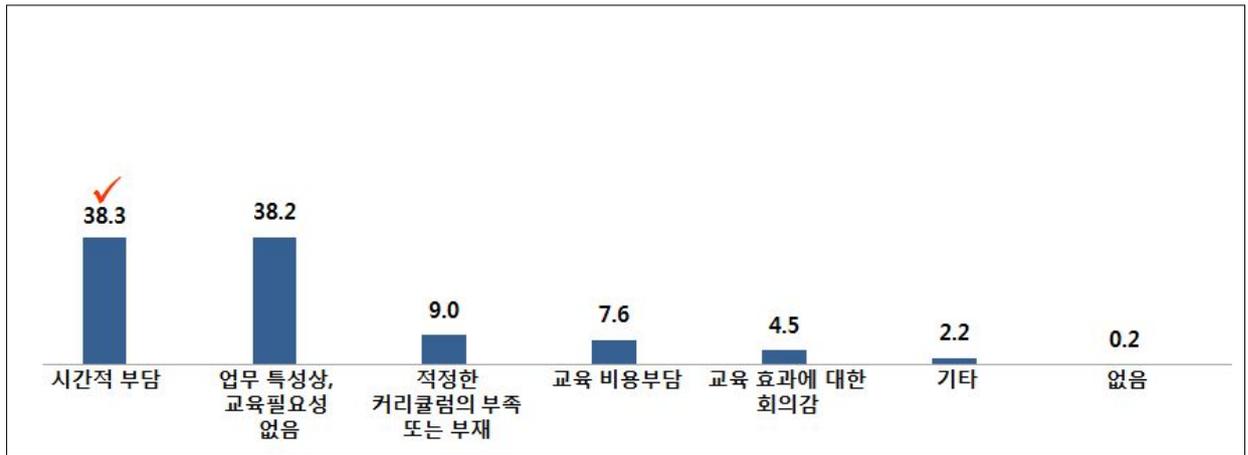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 체		42,118	11.5	88.5		
부	제조업	7,459	12.9	87.1		
	비제조업	34,659	11.2	88.8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14.1	85.9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11.6	88.4	
		기타 제조	5,822	13.0	87.0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14.4	85.6	
		건설업	8,211	10.3	89.7	
		도매 및 소매업	10,963	10.9	89.1	
		운수업	1,954	12.4	87.6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12.5	87.5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5.8	94.2	
		금융 및 보험업	769	17.2	82.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7.1	92.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13.1	86.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12.1	87.9	
		교육 서비스업	891	19.8	80.2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14.1	85.9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5.1	84.9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1.6	88.4	
		중	5인 미만	22,217	8.8	91.2
			5 ~ 19인	16,213	13.2	86.8
20 ~ 49인	2,634		19.6	80.4		
50 ~ 99인	628		23.8	76.2		
100인 이상	426		21.0	79.0		
구	수도권	26,182	9.8	90.2		
	경남권	6,429	14.7	85.3		
	경북권	3,348	11.6	88.4		
	전라권	3,236	16.6	83.4		
	충청권	2,923	13.7	86.3		

8. 여성경영자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 여성경영자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주요 이유로는 '시간적 부담'(38.3%)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업무 특성상, 교육 필요성 없음'(38.2%), '적정한 커리큘럼의 부족 또는 부재'(9.0%) 순으로 나타남

(그림 86) 여성경영자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여성경영자 교육 불참 이유를 보면, 제조업은 '시간적 부담'이 39.2%로 가장 높고, 비제조업은 '업무 특성상, 교육 필요성 없음'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46.4%), '건설업'(44.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6.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43.6%)에서는 '시간적 부담'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음
- 종사자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교육 불참 이유로 '시간적 부담'이 가장 높았고, '5인 미만'의 경우 '업무 특성상, 교육필요성 없음'(40.6%)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03> 여성경영자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단위: 개사 %)

구분		사례 수	시간적 부담	업무 특성상, 교육필요성 없음	적절한 커리큘럼의 부족 또는 부재	교육 비용부담	교육 효과에 대한 회의감	기타	없음	
전체		37,267	38.3	38.2	9.0	7.6	4.5	2.2	0.2	
부문	제조업	6,494	39.2	30.7	11.8	11.0	5.5	1.5	0.2	
	비제조업	30,773	38.1	39.8	8.4	6.9	4.3	2.4	0.2	
세부업종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716	45.2	35.6	6.8	7.4	3.2	1.6	0.2
		섬유/의복/가방/신발	710	40.4	38.3	8.8	5.8	4.6	2.1	0.0
		기타 제조	5,068	38.2	28.9	13.0	12.3	6.0	1.4	0.3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395	29.5	55.4	3.8	2.7	1.9	6.8	0.0
		건설업	7,367	44.3	35.2	5.8	6.4	6.5	1.8	0.1
		도매 및 소매업	9,766	35.6	43.2	8.1	5.7	4.4	3.0	0.0
		운수업	1,711	29.9	60.4	5.4	0.3	2.4	1.1	0.6
		숙박 및 음식점업	900	36.4	41.4	6.7	10.8	4.0	0.6	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585	46.4	21.6	12.1	9.9	8.7	1.4	0.0
		금융 및 보험업	637	35.4	32.6	8.3	13.4	2.0	6.9	1.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08	38.6	38.9	4.9	15.6	1.9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91	46.0	23.8	8.5	14.4	2.0	3.9	1.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034	28.1	48.4	16.7	3.7	1.7	1.3	0.0
		교육 서비스업	715	33.7	44.0	14.6	0.7	2.4	3.8	0.7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99	43.6	30.6	8.7	7.2	7.0	2.8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73	40.1	45.3	5.0	2.8	4.4	2.3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95	38.3	32.6	12.6	7.0	3.8	5.0	0.7		
조사자규모별	5인 미만	20,253	35.7	40.6	9.9	7.5	3.9	2.2	0.2	
	5 ~ 19인	14,081	41.3	34.9	7.8	8.3	5.4	2.2	0.1	
	20 ~ 49인	2,118	42.6	36.8	8.1	4.7	4.9	2.7	0.2	
	50 ~ 99인	479	38.7	37.2	11.6	4.7	6.0	1.4	0.3	
	100인 이상	336	37.7	37.0	13.3	7.0	3.0	2.0	0.0	
권역별	수도권	23,605	37.8	35.3	10.6	10.2	4.7	1.4	0.0	
	경남권	5,481	37.7	46.9	5.3	2.0	4.3	3.3	0.4	
	경북권	2,961	41.7	36.3	6.1	3.2	6.4	6.1	0.2	
	전라권	2,697	42.3	44.2	7.4	0.7	3.0	1.8	0.5	
	충청권	2,522	35.9	41.6	7.6	8.0	2.2	3.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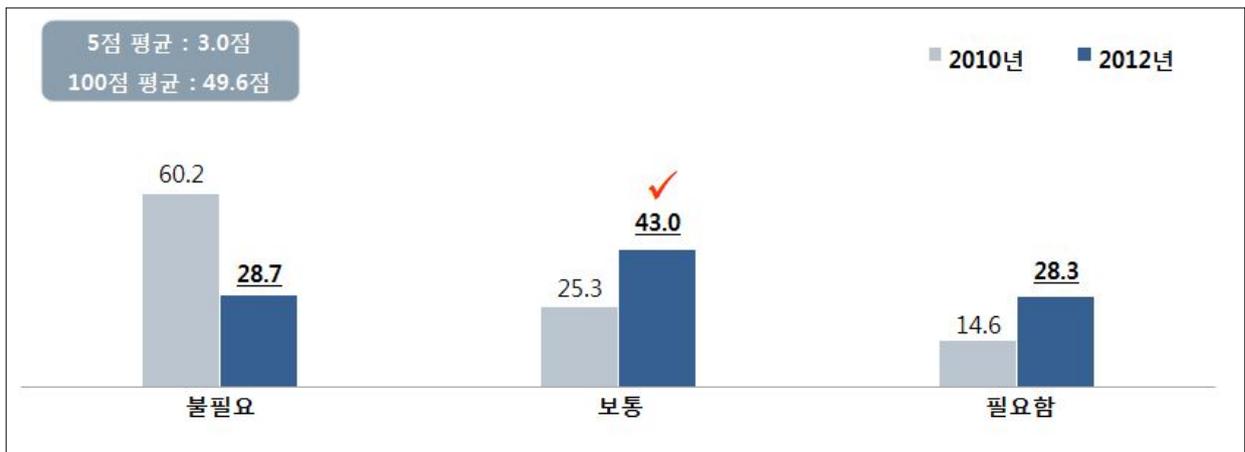
※ 여성경영자 대상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

9. 여성경영자 교육의 필요성

- 여성경영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함'(필요함+매우 필요함)으로 응답한 비중은 28.3%, '불필요'(전혀 불필요+불필요)로 응답한 비중은 28.7%로 나타남
-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2012년 여성기업체 대상 조사에서는 여성경영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13.7%p 더 높은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5%p 더 낮음

(그림 87) 여성경영자 교육 필요성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비제조업(28.9%)이 제조업(25.5%)보다 여성경영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4%p 높게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기타 제조'(26.2%), 비제조업 중 '교육 서비스업'(44.3%)에서 여성경영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는 '20 ~ 49인'에서 여성경영자 교육이 '필요'(34.2%)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권역별로는 '경북권'(43.5%)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04> 여성경영자 교육의 필요성

(단위: 개사,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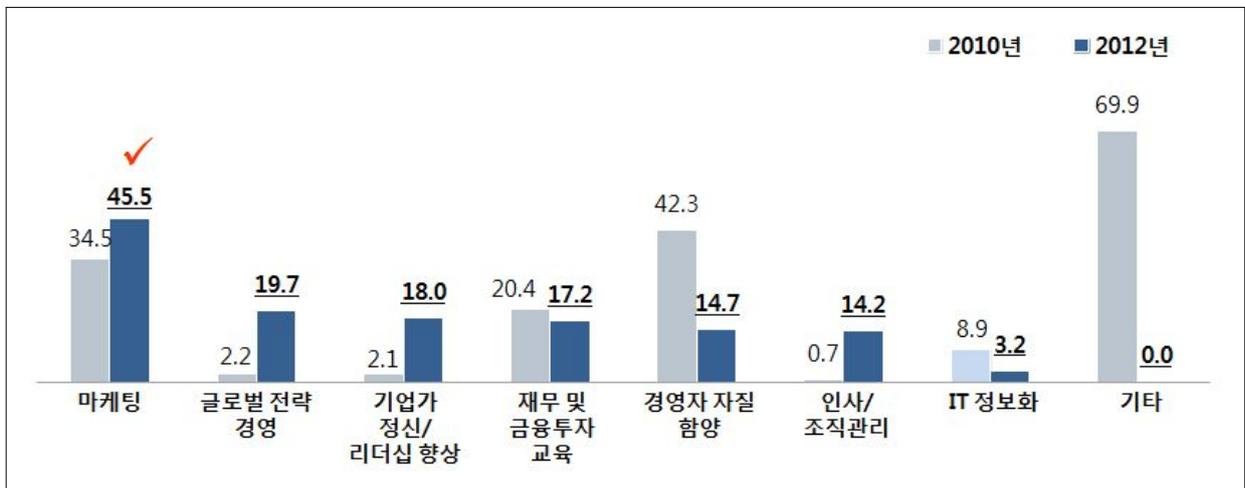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①+② 불필요	④+⑤ 필요	100점 평균 (점)	
전 체		42,118	3.4	25.3	43.0	26.2	2.1	28.7	28.3	49.6	
부 문	제조업	7,459	2.5	23.3	48.8	23.4	2.1	25.8	25.5	49.8	
	비제조업	34,659	3.6	25.8	41.7	26.8	2.1	29.3	28.9	49.5	
세 부 업 종 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4.3	32.9	38.5	19.8	4.4	37.2	24.3	46.8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1.9	27.3	49.7	19.7	1.5	29.2	21.1	47.9
		기타 제조	5,822	2.3	21.4	50.1	24.4	1.8	23.6	26.2	50.5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7.4	35.9	31.7	22.3	2.7	43.3	25.0	44.2
		건설업	8,211	2.5	23.5	40.4	31.6	1.9	26.1	33.5	51.7
		도매 및 소매업	10,963	2.1	29.1	50.7	15.6	2.5	31.2	18.1	46.8
		운수업	1,954	8.9	32.9	24.8	31.8	1.6	41.8	33.4	46.1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5.6	16.1	41.6	35.5	1.3	21.7	36.8	52.7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2.9	18.8	38.9	35.3	4.1	21.7	39.4	54.7
		금융 및 보험업	769	3.3	22.3	37.2	36.8	0.5	25.6	37.3	52.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5.5	21.2	41.7	31.3	0.3	26.7	31.6	49.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2.0	14.6	49.2	29.7	4.4	16.6	34.1	55.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7.6	33.4	27.6	30.3	1.1	41.0	31.4	46.0
		교육 서비스업	891	1.2	20.2	34.4	41.7	2.6	21.3	44.3	56.1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2.4	28.6	35.1	33.9	0.0	31.0	33.9	50.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4.5	29.3	32.7	32.5	1.0	33.8	33.5	49.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4.4	25.2	42.1	27.4	0.9	29.6	28.3	48.8		
중 사 자 구 분 별	5인 미만	22,217	3.9	27.1	42.0	24.7	2.3	31.0	27.0	48.6	
	5 ~ 19인	16,213	2.9	23.6	44.6	26.8	2.1	26.5	28.9	50.4	
	20 ~ 49인	2,634	2.6	22.3	41.0	33.6	0.6	24.9	34.2	51.8	
	50 ~ 99인	628	1.3	26.3	39.6	30.5	2.4	27.5	32.9	51.6	
	100인 이상	426	3.1	17.5	50.3	26.6	2.6	20.6	29.1	52.0	
지 역 별	수도권	26,182	3.3	24.1	50.8	19.4	2.4	27.4	21.8	48.4	
	경남권	6,429	4.7	28.5	30.7	35.6	0.6	33.1	36.2	49.8	
	경북권	3,348	3.3	23.2	30.1	40.9	2.6	26.4	43.5	54.1	
	전라권	3,236	2.1	28.7	28.1	36.9	4.2	30.8	41.1	53.1	
	충청권	2,923	2.6	28.4	31.1	37.8	0.1	31.0	37.9	51.1	

10. 여성경영자가 필요한 교육 분야

- 여성경영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기업의 경우, '마케팅'(45.5%)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글로벌 전략 경영'(19.7%), '기업가정신/리더십 향상'(18.0%), '재무 및 금융투자 함양'(17.2%)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2012년 여성기업체 조사에서는 '경영자질 함양' 교육 보다는, '마케팅'(45.5%), '글로벌 전략 경영'(17.7%), '기업가정신/리더십정신'(18.0%) 교육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88) 여성경영자가 필요한 교육 분야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41.2%)과 비제조업(46.5%) 모두 여성경영자 대상 교육으로 '마케팅'을 가장 필요한 교육 분야로 응답함
 - 한편, 비제조업 중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필요한 교육으로 '재무 및 금융투자교육'(34.5%)에 대한 응답이 높은 반면, '운수업'(31.4%)과 '교육 서비스업'(37.9%)은 '경영자 자질함양'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사자 규모별로는, '5인 미만' 규모에서 '마케팅'(46.7%)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종사자 규모가 '100인 이상'의 경우 '인사/조직관리'(20.7%)라고 응답한 비율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음

<표 105> 여성경영자가 필요한 교육 분야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마케팅	글로벌 전략경영	기업가 정신/ 리더십 향상	재무 및 금융투자 교육	경영자 자질함양	인사/ 조직관리	IT 정보화	기타	
전 체		30,021	45.5	19.7	18.0	17.2	14.7	14.2	3.2	0.0	
부	제조업	5,533	41.2	26.7	16.9	14.3	10.6	11.8	2.9	0.1	
	비제조업	24,488	46.5	18.1	18.2	17.9	15.7	14.8	3.3	0.0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521	48.1	24.8	16.4	9.3	9.4	13.6	2.6	0.0
		섬유/의복/가방/신발	569	46.9	22.7	15.1	14.9	8.9	8.3	2.1	0.0
		기타 제조	4,443	39.6	27.4	17.1	14.8	11.0	12.0	3.0	0.2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261	46.0	9.9	28.8	20.0	10.7	18.5	4.4	0.0
		건설업	6,071	42.7	13.8	19.6	22.8	16.5	14.8	2.8	0.0
		도매 및 소매업	7,543	54.1	13.0	14.9	12.3	12.3	10.4	1.8	0.0
		운수업	1,137	34.2	21.4	27.1	17.9	31.4	16.5	3.9	0.0
		숙박 및 음식점업	805	36.7	32.0	12.5	15.8	15.5	8.4	1.5	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317	56.9	14.4	11.7	12.2	4.6	6.3	8.1	0.0
		금융 및 보험업	572	42.0	29.9	15.7	18.7	11.5	20.5	1.6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69	30.0	29.6	13.1	18.4	13.3	13.9	4.4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05	39.0	28.4	21.3	29.8	15.5	28.3	8.8	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2,038	50.0	20.4	23.1	13.9	18.5	15.3	0.5	0.0
		교육 서비스업	701	56.0	34.0	32.5	21.8	37.9	28.7	10.1	0.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79	32.5	9.1	17.8	34.5	18.0	20.6	3.5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13	52.4	12.2	20.9	14.8	26.5	17.8	1.5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74	43.4	18.6	14.8	19.8	16.1	24.7	0.6	0.0		
중	5인 미만	15,339	46.7	20.9	16.4	15.9	15.4	14.3	3.4	0.0	
	5 ~ 19인	11,915	45.6	17.8	19.5	19.0	13.4	13.4	3.2	0.0	
	20 ~ 49인	1,974	37.9	19.7	21.1	16.9	17.3	17.0	2.4	0.0	
	50 ~ 99인	455	42.7	22.6	19.0	18.4	17.5	16.9	3.5	0.0	
	100인 이상	338	38.8	22.5	18.3	16.8	11.2	20.7	2.7	0.0	
대	수도권	19,004	43.0	20.5	15.1	15.3	12.3	14.9	3.6	0.0	
	경남권	4,298	51.7	18.1	23.5	19.1	17.8	11.8	1.4	0.0	
	경북권	2,463	47.3	12.1	18.9	21.7	18.7	9.6	1.8	0.0	
	전라권	2,240	52.7	21.5	28.7	20.8	18.2	15.4	5.7	0.0	
	충청권	2,015	46.3	22.2	20.5	21.6	22.4	17.9	2.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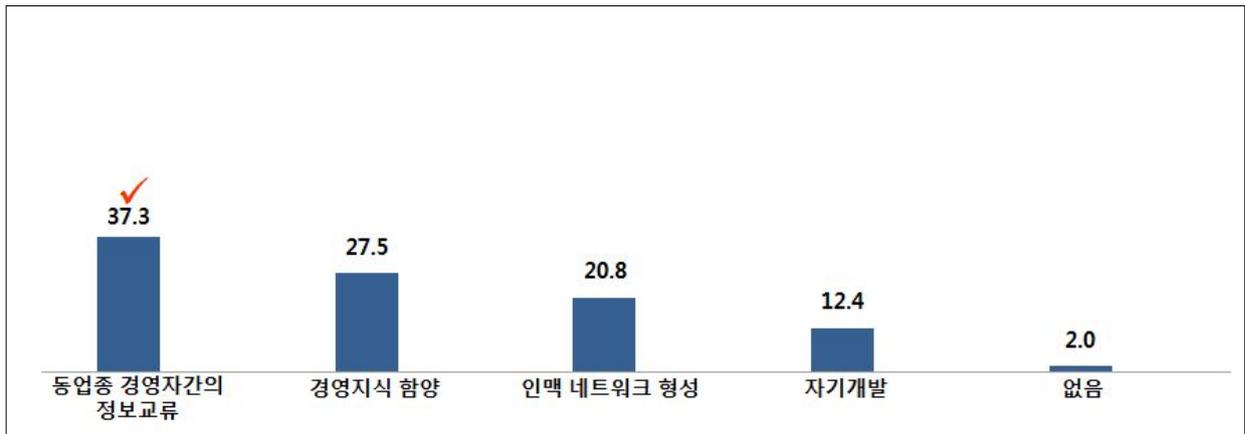
※ 여성경영자 대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으로 응답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11. 여성 경영자 대상 교육(연수)의 기대 효과

- 여성경영자 대상 교육(연수)의 기대 효과로는 '동업종 경영자간의 정보교류'가 37.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영지식 함양'(27.5%), '인맥 네트워크 형성'(2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89) 여성 경영자 대상 교육(연수)의 기대 효과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경영자 대상 교육(연수)의 기대 효과에 대해 제조업(36.5%)과 비제조업(37.5%) 모두 '동업종 경영자 간의 정보교류'라는 응답이 높음
 - 한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52.0%), '섬유/의복/가방/신발'(36.9%)에서는 '경영지식 함양'이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34.0%)의 경우 '인맥 네트워크 형성'을 여성 경영자 대상 교육 효과로 기대하는 비율이 높음

<표 106> 여성 경영자 대상 교육(연수)의 기대 효과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동업종 경영자간의 정보교류	경영지식 함양	인맥 네트워크 형성	자기개발	기대효과 없음	
전 체		42,118	37.3	27.5	20.8	12.4	2.0	
부 면	제조업	7,459	36.5	28.7	19.7	13.1	1.9	
	비제조업	34,659	37.5	27.2	21.1	12.2	2.0	
세 부 면 세 분 류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38.0	25.9	24.7	9.0	2.4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32.3	36.9	15.6	13.3	1.8
		기타 제조	5,822	36.9	28.0	19.6	13.6	1.9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34.6	29.8	13.0	18.3	4.3
		건설업	8,211	41.7	26.4	22.3	9.2	0.3
		도매 및 소매업	10,963	37.5	25.9	21.2	11.9	3.4
		운수업	1,954	36.7	25.9	12.7	23.5	1.3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33.1	32.8	15.9	16.3	1.9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44.3	13.7	34.0	7.2	0.8
		금융 및 보험업	769	31.9	27.5	26.9	11.6	2.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29.0	31.6	20.9	17.9	0.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22.3	52.0	18.1	7.1	0.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43.1	18.9	19.1	14.8	4.0
		교육 서비스업	891	31.3	34.2	21.9	10.7	1.8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45.8	16.5	17.5	19.1	1.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41.2	31.7	13.6	13.5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38.2	18.7	27.1	14.9	1.0
중 사 자 구 분	5인 미만	22,217	37.8	26.5	20.4	12.9	2.4	
	5 ~ 19인	16,213	35.8	29.0	21.8	11.9	1.5	
	20 ~ 49인	2,634	41.4	24.6	21.6	10.8	1.6	
	50 ~ 99인	628	45.2	29.3	16.3	8.3	1.0	
	100인 이상	426	37.0	34.1	11.5	16.3	1.1	
지 역 구 분	수도권	26,182	35.5	26.0	24.5	12.0	2.0	
	경남권	6,429	37.7	30.2	12.0	17.9	2.3	
	경북권	3,348	47.5	25.6	16.5	9.6	0.8	
	전라권	3,236	42.1	32.7	13.6	9.2	2.4	
	충청권	2,923	36.4	31.3	20.0	10.9	1.4	

제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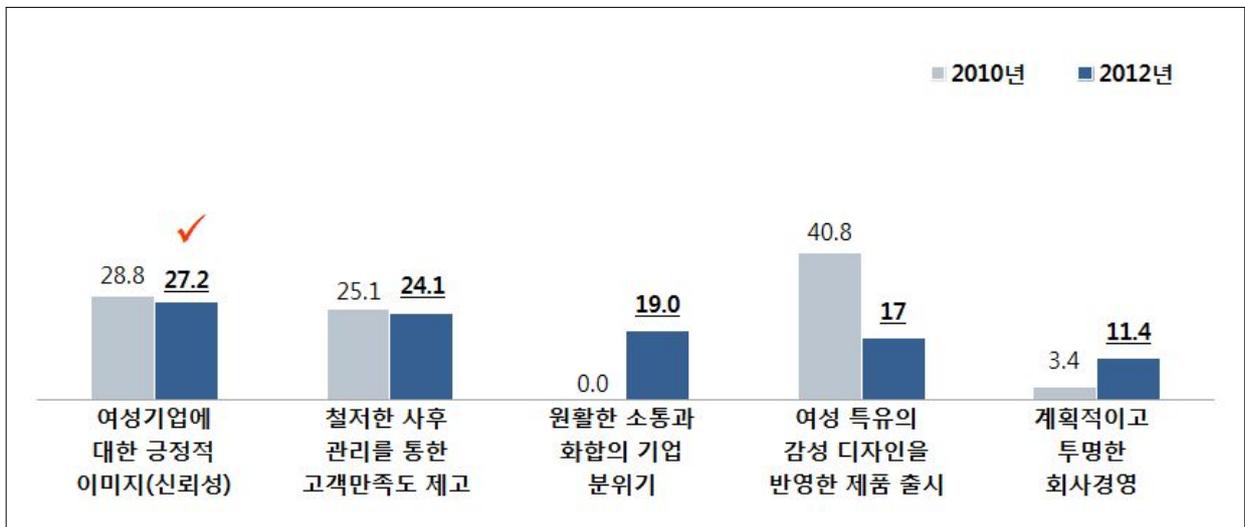
여성기업인의 특성 및 애로 사항

1. 일반 중소기업 대비 여성기업의 장점

- 일반 중소기업 대비 여성기업의 주요 장점은 '여성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신뢰성)'(27.2%),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24.1%), '원활한 소통과 화합의 기업 분위기'(19.0%)인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특유의 감성 디자인을 반영한 제품 출시'가 가장 높은 비중(40.8%)을 차지하였으나, 2012년 조사 결과에서는 17.0%로 2010년 대비 낮은 편임

(그림 90) 일반 중소기업 대비 여성기업의 장점

(단위: %)



※ '원활한 소통과 화합의 기업 분위기'는 2013년 조사에서 신규 추가된 보기항목임

- 응답기업 특성별로 보면, 제조업(29.3%)과 비제조업(26.7%) 모두 '여성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신뢰성)'를 여성기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음
- 한편, 여성기업의 장점 2순위로 제조업은 '여성 특유의 감성 디자인을 반영한 제품출시'(23.1%)를, 비제조업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25.0%)가 높음

<표 107> 일반 중소기업 대비 여성기업의 장점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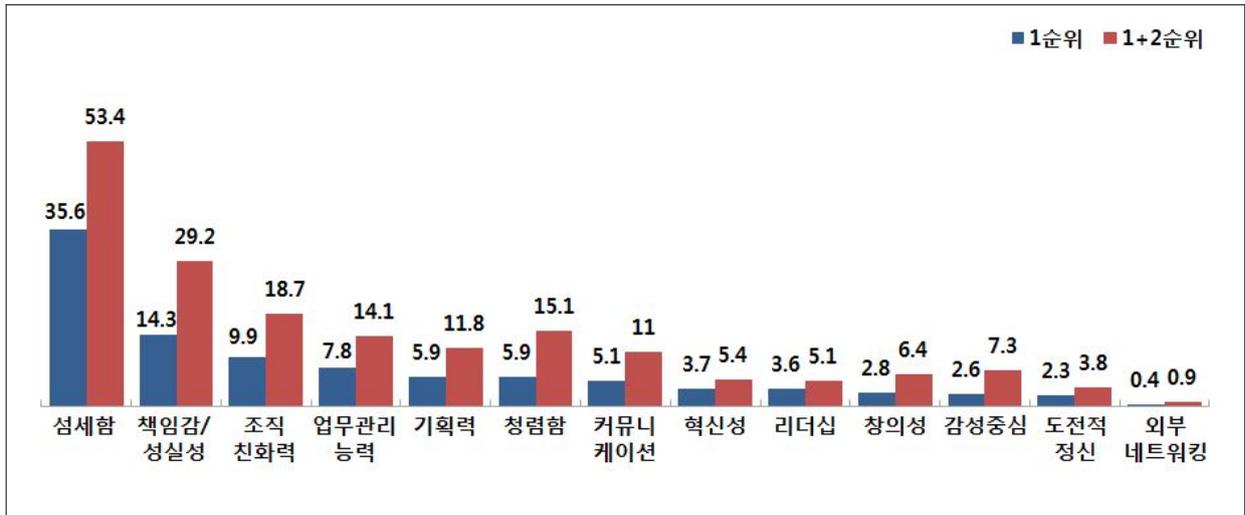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여성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신뢰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원활한 소통과 화합의 기업 분위기	여성 특유의 감성 디자인을 반영한 제품 출시	계획적이고 투명한 회사경영	장점 없음	
전체		42,118	27.2	24.1	19.0	17.0	11.4	1.4	
대분	제조업	7,459	29.3	19.8	18.5	23.1	7.9	1.4	
	비제조업	34,659	26.7	25.0	19.1	15.6	12.2	1.4	
세분업종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38.8	21.3	16.3	17.6	4.9	1.1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28.7	7.8	9.6	46.4	7.6	0.0
		기타 제조	5,822	28.1	21.2	20.0	20.7	8.4	1.6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29.3	26.3	17.7	7.3	18.1	1.3
		건설업	8,211	26.5	26.8	17.6	12.2	16.2	0.7
		도매 및 소매업	10,963	23.9	24.2	19.6	19.5	10.4	2.4
		운수업	1,954	29.3	21.8	22.0	9.7	16.6	0.7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32.2	19.2	20.0	18.9	8.5	1.2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32.2	21.4	20.1	15.2	11.0	0.0
		금융 및 보험업	769	27.7	30.5	17.4	13.8	8.8	1.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26.8	21.8	18.1	21.1	10.3	1.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30.6	23.4	15.8	19.5	9.5	1.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28.6	30.8	18.1	13.3	8.7	0.6
		교육 서비스업	891	21.7	20.6	28.8	12.9	14.1	1.9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37.5	20.1	25.2	8.7	4.8	3.6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31.9	20.0	24.1	9.4	12.8	1.8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21.9	28.8	23.1	7.5	18.7	0.0		
중사자규모	5인 미만	22,217	26.9	23.9	17.6	18.6	11.5	1.5	
	5 ~ 19인	16,213	26.8	25.4	20.4	14.9	11.3	1.1	
	20 ~ 49인	2,634	29.6	20.2	21.5	16.1	11.3	1.3	
	50 ~ 99인	628	33.9	19.5	15.9	14.1	14.7	2.0	
	100인 이상	426	31.8	12.1	26.9	19.3	8.1	1.9	
지역	수도권	26,182	24.4	27.7	17.0	19.1	10.4	1.3	
	경남권	6,429	28.5	16.5	27.3	11.6	14.6	1.5	
	경북권	3,348	37.9	21.1	17.1	10.2	12.6	1.1	
	전라권	3,236	27.7	18.2	20.3	21.7	9.9	2.3	
	충청권	2,923	35.9	17.8	19.0	12.0	14.3	0.8	

2. 일반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강점

- 일반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강점으로는 '섬세함'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책임감/성실성'(14.3%) '조직 친화력'(9.9%), '업무관리 능력'(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91) 일반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강점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보면, 제조업(42.3%)과 비제조업(34.2%) 모두 여성기업인의 강점으로 '섬세함'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비제조업 중 '운수업'(19.2%)과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19.0%)은 '책임감/성실함'이라는 응답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 서비스업'(15.3%)에서 '기획력'의 응답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08> 일반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강점(1/2)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섬세함	책임감/ 성실성	조직 친화력	업무관리 능력	기획력	청렴함	
전 체		42,118	35.6	14.3	9.9	7.8	5.9	5.9	
부 면	제조업	7,459	42.3	10.8	7.3	5.6	8.5	4.3	
	비제조업	34,659	34.2	15.1	10.5	8.3	5.4	6.2	
세 부 면 중 점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51.2	12.9	4.6	4.6	5.4	7.4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38.1	12.6	3.7	3.4	15.3	2.2
		기타 제조	5,822	41.7	10.2	8.2	6.0	8.0	4.2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40.1	18.5	8.4	9.6	5.9	1.2
		건설업	8,211	29.9	16.4	16.7	9.2	4.1	5.3
		도매 및 소매업	10,963	34.8	16.2	9.4	7.4	4.9	7.2
		운수업	1,954	45.6	19.2	4.6	6.8	1.1	9.0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37.4	10.6	11.9	10.9	5.5	4.4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32.3	14.0	13.7	4.9	15.3	2.0
		금융 및 보험업	769	33.3	15.6	7.2	9.2	2.6	5.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29.4	12.9	5.2	13.6	3.6	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32.1	12.4	8.5	3.9	9.2	9.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38.7	11.3	5.0	10.7	6.8	5.8
		교육 서비스업	891	39.7	8.4	8.7	8.5	6.9	2.6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33.6	19.0	12.6	12.2	6.2	2.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27.7	15.6	12.4	10.5	7.3	1.4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32.1	16.7	11.7	5.4	1.5	8.2
중 사 자 구 모 면	5인 미만	22,217	35.3	13.2	8.0	8.5	6.5	6.6	
	5 ~ 19인	16,213	35.3	15.4	12.3	7.0	5.4	4.9	
	20 ~ 49인	2,634	37.6	16.8	10.4	7.6	5.5	6.0	
	50 ~ 99인	628	39.1	15.5	10.1	4.1	4.9	6.8	
	100인 이상	426	43.7	13.1	12.9	6.7	3.6	5.1	
면 역 구 분	수도권	26,182	33.6	10.8	6.9	7.8	7.5	6.1	
	경남권	6,429	42.1	18.5	15.0	8.6	2.0	6.8	
	경북권	3,348	27.4	31.3	23.3	6.4	3.2	3.8	
	전라권	3,236	47.6	15.8	10.4	8.9	5.0	3.1	
	충청권	2,923	35.1	15.3	9.3	6.5	4.9	7.0	

<표 109> 일반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강점(2/2)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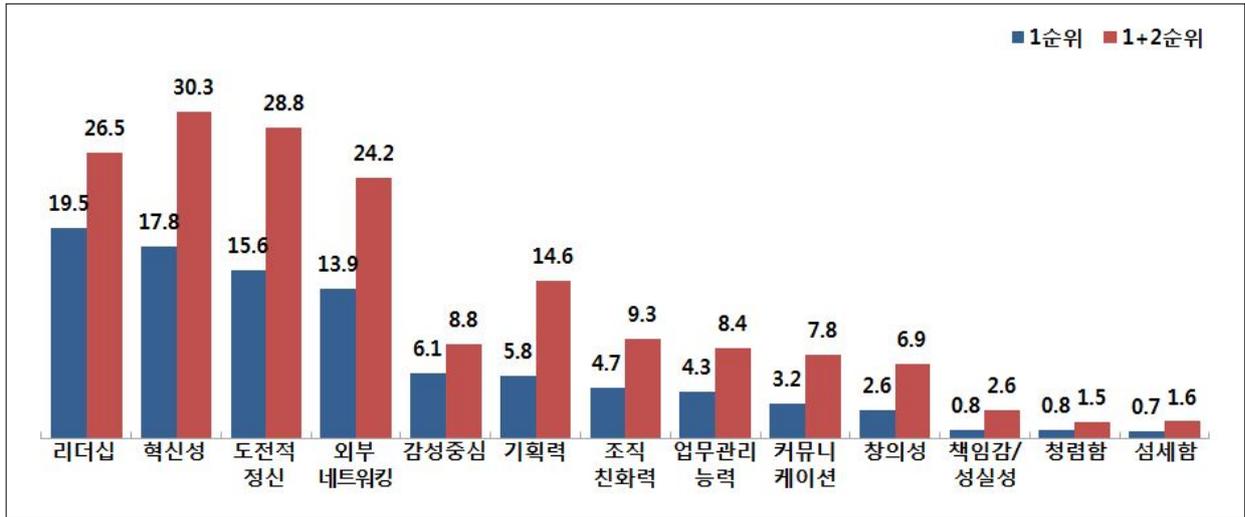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커뮤니케이션	혁신성	리더십	창의성	감성중심	도전적 정신	외부 네트워크	
전 체		42,118	5.1	3.7	3.6	2.8	2.6	2.3	0.4	
부	제조업	7,459	4.5	3.8	5.6	2.8	1.7	2.6	0.1	
	비제조업	34,659	5.2	3.7	3.2	2.8	2.8	2.3	0.5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5.4	1.6	4.8	1.4	0.8	0.0	0.0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7.0	1.5	1.5	5.1	1.1	8.5	0.0
		기타 제조	5,822	4.1	4.4	6.3	2.7	1.9	2.1	0.1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3.7	3.5	1.1	3.3	1.6	3.0	0.0
		건설업	8,211	5.9	1.9	3.4	2.1	1.2	3.0	0.9
		도매 및 소매업	10,963	5.6	3.0	2.4	3.1	4.6	1.4	0.2
		운수업	1,954	3.1	2.1	0.5	2.3	1.4	3.5	0.7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3.8	6.0	2.4	2.7	1.2	3.2	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4.6	4.0	3.1	3.1	2.7	0.3	0.0
		금융 및 보험업	769	4.0	6.3	8.8	1.6	4.0	2.1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2.4	14.1	6.6	0.6	1.8	1.5	0.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5.4	8.5	2.7	4.0	3.3	0.0	0.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4.5	2.2	2.8	4.1	2.8	5.0	0.4
		교육 서비스업	891	10.4	1.8	6.0	3.7	0.7	1.2	1.2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5.3	0.0	0.0	3.8	3.7	0.0	1.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6.9	0.8	3.9	2.8	4.3	4.9	1.8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4.6	1.4	10.4	2.3	2.2	3.6	0.0		
중	5인 미만	22,217	5.3	3.9	4.2	2.8	3.3	2.1	0.3	
	5 ~ 19인	16,213	5.1	3.5	3.2	3.0	1.8	2.5	0.5	
	20 ~ 49인	2,634	3.9	3.5	1.7	1.9	1.8	2.5	0.7	
	50 ~ 99인	628	5.6	2.2	3.0	3.2	2.2	3.3	0.0	
	100인 이상	426	2.4	3.3	1.8	4.5	1.1	1.0	0.8	
대	수도권	26,182	6.8	5.3	4.1	3.4	3.4	3.7	0.5	
	경남권	6,429	0.9	0.7	2.0	1.5	1.1	0.0	0.6	
	경북권	3,348	1.5	0.5	0.2	1.3	0.8	0.0	0.2	
	전라권	3,236	2.6	0.9	3.0	1.6	1.0	0.1	0.0	
	충청권	2,923	5.5	2.8	7.4	3.1	2.4	0.1	0.3	

3. 일반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약점

- 일반 남성기업인과 비교할 때, 여성기업인의 약점으로는 '리더십'이 1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혁신성'(17.8%), 도전적 정신(1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92) 일반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약점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24.5%)과 비제조업(18.5%) 모두 '리더십'을 여성기업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응답함
 - 한편, 제조업의 경우, 여성기업인의 약점으로 '리더십'(24.5%), '도전적 정신'(19.3%), '혁신성'(17.8%) 등의 순으로 꼽았으나, 비제조업에서는 '리더십'(18.5%), '혁신성'(17.8%), '외부네트워킹'(1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 중 '운수업'(28.4%), '부동산업 및 임대업'(20.3%),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22.7%)은 '외부네트워킹'을 일반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주요 약점으로 꼽은 비율이 높음

<표 110> 일반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약점(1/2)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리더십	혁신성	도전적 정신	외부 네트워킹	감성중심	기획력	조직 친화력	
전 체		42,118	19.5	17.8	15.6	13.9	6.1	5.8	4.7	
부 업	제조업	7,459	24.5	17.8	19.3	9.2	4.9	7.0	3.3	
	비제조업	34,659	18.5	17.8	14.8	14.9	6.3	5.5	5.1	
세 부 업 종 류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20.8	22.6	21.7	7.4	3.7	5.7	4.7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28.5	11.4	14.2	7.4	7.9	3.7	8.1
		기타 제조	5,822	24.5	17.9	19.7	9.7	4.6	7.6	2.4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15.1	16.7	19.7	9.6	6.4	4.2	8.2
		건설업	8,211	18.1	13.5	12.9	16.3	11.9	4.0	5.3
		도매 및 소매업	10,963	17.8	23.5	15.3	13.3	2.9	4.2	5.1
		운수업	1,954	17.8	12.8	11.9	28.4	4.4	8.4	4.2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18.2	18.3	17.1	10.5	6.4	15.5	3.2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21.5	15.8	13.6	12.8	14.6	5.1	3.3
		금융 및 보험업	769	24.5	17.0	14.7	5.5	6.8	9.1	7.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16.8	13.9	13.7	20.3	7.2	9.3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24.3	23.7	16.2	9.4	2.7	5.3	2.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19.0	14.2	18.5	16.9	3.2	6.1	7.2
		교육 서비스업	891	14.5	10.9	12.9	14.3	6.5	5.9	5.5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15.5	23.2	17.4	22.7	1.2	5.3	4.9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3.0	18.0	14.1	12.2	6.8	6.2	4.9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3.5	15.4	17.8	9.4	6.5	5.8	9.3		
중 사 자 구 분	5인 미만	22,217	18.2	17.5	15.6	14.8	5.4	6.6	4.7	
	5 ~ 19인	16,213	21.0	19.0	15.6	12.8	6.4	4.4	4.7	
	20 ~ 49인	2,634	22.7	14.8	15.1	12.9	9.8	5.9	4.6	
	50 ~ 99인	628	14.5	15.6	17.4	15.5	6.9	8.8	7.4	
	100인 이상	426	21.9	13.1	18.3	14.0	4.9	9.2	5.0	
지 역 구 분	수도권	26,182	20.8	18.5	16.5	13.4	2.9	6.6	4.5	
	경남권	6,429	17.8	17.8	17.3	16.3	10.5	3.6	5.1	
	경북권	3,348	14.8	15.3	11.9	17.0	16.8	1.8	3.2	
	전라권	3,236	17.9	16.2	13.7	11.0	10.7	4.8	5.9	
	충청권	2,923	19.3	16.8	11.0	13.2	7.9	8.2	6.6	

<표 111> 일반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약점(2/2)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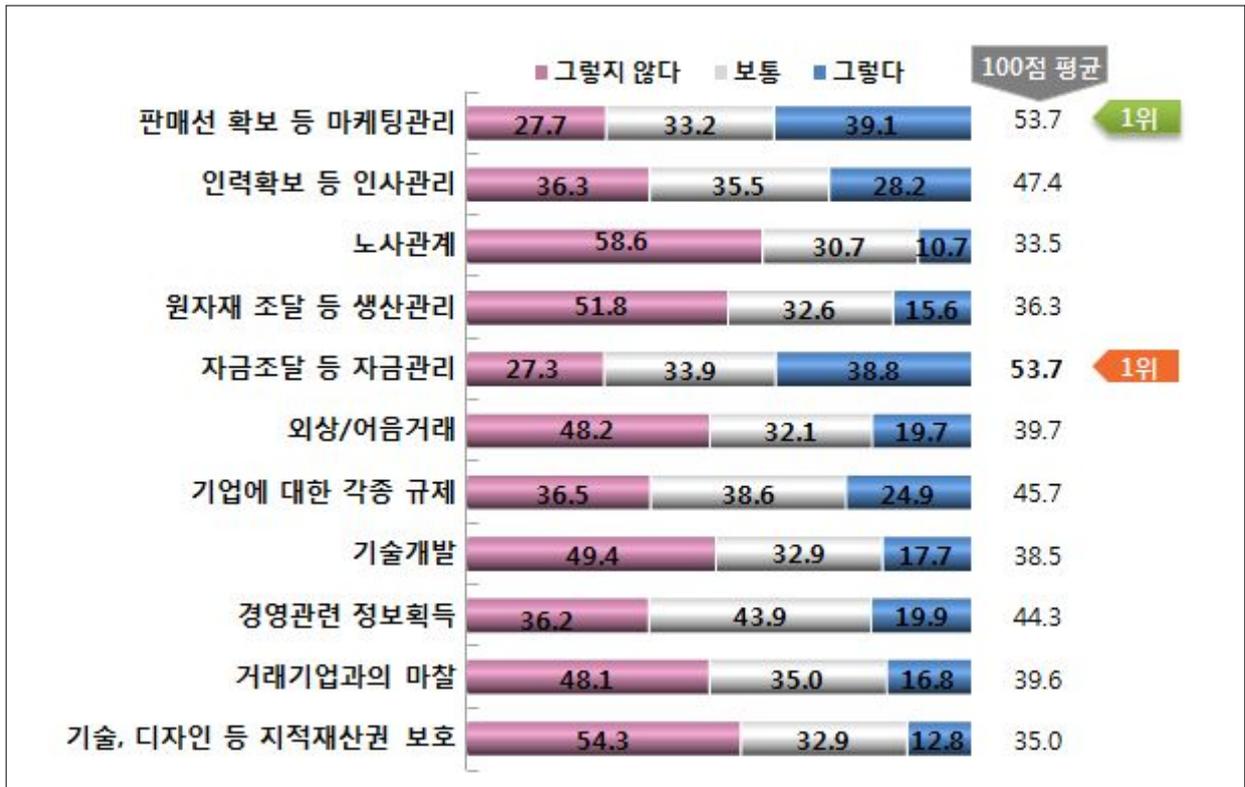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업무 관리 역	커뮤니 케이션	창의성	책임감/ 성실성	칭령함	섬세함	약점 없음	모름/ 무응답	
전 체		42,118	4.3	3.2	2.6	0.8	0.8	0.7	1.7	2.4	
부 문	제조업	7,459	4.4	3.1	2.4	0.6	0.4	0.5	1.6	1.1	
	비제조업	34,659	4.3	3.3	2.7	0.8	0.8	0.8	1.7	2.7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7.0	3.8	0.0	0.0	0.0	0.2	2.1	0.3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3.4	2.5	5.5	2.2	1.5	0.7	1.5	1.5
		기타 제조	5,822	4.1	3.0	2.3	0.4	0.4	0.6	1.5	1.1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1.5	2.7	4.5	4.2	0.9	0.8	4.9	0.8
		건설업	8,211	3.3	3.0	1.8	1.2	1.5	1.5	3.1	2.5
		도매 및 소매업	10,963	4.1	4.1	2.7	0.8	0.5	0.4	0.9	4.5
		운수업	1,954	6.4	2.6	1.9	0.0	0.0	0.0	0.8	0.5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3.1	0.0	4.2	0.0	0.0	0.0	3.3	0.2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6.7	2.2	2.2	0.5	0.0	0.3	0.0	1.3
		금융 및 보험업	769	1.9	2.1	0.9	1.6	0.0	0.7	2.9	5.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5.2	1.3	3.4	0.0	0.9	2.3	0.9	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6.4	2.0	3.2	0.0	1.0	1.1	0.9	1.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3.5	4.0	3.8	0.5	1.6	0.3	1.2	0.0
		교육 서비스업	891	7.2	4.5	5.2	2.3	0.0	0.0	3.1	7.4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3.8	2.4	1.2	0.0	0.0	0.0	2.4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3.6	5.5	2.8	0.8	0.0	1.5	5.3	5.2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3.9	8.4	3.4	2.1	0.6	0.6	1.9	1.4
		중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2,217	4.8	3.4	2.5	0.7	0.7	0.9	1.3
5 ~ 19인	16,213		3.4	3.2	3.1	0.9	0.9	0.6	2.0	1.8	
20 ~ 49인	2,634		5.4	2.8	1.4	0.7	0.3	0.6	2.1	1.0	
50 ~ 99인	628		3.7	2.9	1.5	0.6	0.0	0.9	4.0	0.3	
100인 이상	426		5.3	1.9	1.7	0.0	0.0	0.0	4.6	0.0	
지 역 별	수도권	26,182	4.0	3.1	3.4	1.1	1.0	0.4	0.2	3.8	
	경남권	6,429	2.7	3.1	1.4	0.1	0.1	1.0	3.1	0.1	
	경북권	3,348	4.1	6.0	1.1	0.3	0.7	1.0	5.9	0.0	
	전라권	3,236	7.8	0.9	1.9	0.9	0.8	1.3	6.1	0.0	
	충청권	2,923	6.9	3.9	1.3	0.2	0.1	2.6	1.9	0.2	

4. 여성기업인으로써 경영상 어려운 부분

- 여성기업인으로써 경영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야로는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 관리'(39.1%), '자금조달 등 자금관리'(38.8%)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93) 여성기업인으로써 경영상 어려운 분야

(단위: %)



- 제조업(39.7%)과 비제조업(38.9%) 모두 여성기업인이 느끼는 경영상 애로 요인으로 '마케팅관리'를 꼽은 비중이 높음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중 '식품/음료 제조'(44.3%), 비제조업은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56.3%)에서 '마케팅 관리'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제조업 중 '기타 제조'(40.2%)가, 비제조업 중에서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58.8%)이 타 업종에 비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높음

<표 112> 여성기업인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운 분야-(1)마케팅관리

(단위: 개사, %, 점)

구 분		사례 수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②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느낀다	⑤ 많이 느낀다	①+② 어려움을 느끼지 않음	④+⑤ 어려움을 느낀다	100점 평균 (점)				
전 체		42,118	4.5	23.2	33.2	31.0	8.1	27.8	39.1	53.7				
업	제조업	7,459	3.3	17.3	39.7	30.9	8.7	20.6	39.7	56.1				
	비제조업	34,659	4.8	24.5	31.8	31.0	7.9	29.3	38.9	53.2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4.0	22.0	29.8	33.1	11.2	25.9	44.3	56.4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3.3	17.5	39.2	32.5	7.4	20.9	39.9	55.8			
		기타 제조	5,822	3.2	16.6	41.2	30.4	8.6	19.8	39.0	56.1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5.0	24.5	42.0	20.2	8.3	29.5	28.5	50.6			
		건설업	8,211	6.0	28.7	32.8	23.0	9.6	34.6	32.6	50.4			
		도매 및 소매업	10,963	5.5	23.2	35.4	31.5	4.5	28.6	36.0	51.6			
		운수업	1,954	1.8	26.4	20.3	43.7	7.8	28.2	51.5	57.3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2.4	24.1	32.8	34.3	6.5	26.4	40.8	54.6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2.2	14.2	27.3	42.8	13.5	16.4	56.3	62.8			
		금융 및 보험업	769	4.7	27.8	29.6	27.7	10.2	32.5	37.8	52.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3.4	24.0	35.7	30.4	6.5	27.4	36.9	53.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2.3	20.6	28.2	34.3	14.6	22.9	48.9	59.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4.5	24.2	25.9	37.5	8.0	28.7	45.5	55.1			
		교육 서비스업	891	13.1	26.6	24.5	23.2	12.6	39.7	35.8	48.9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2.7	19.7	38.9	35.1	3.6	22.4	38.7	54.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6.0	30.6	25.9	32.7	4.8	36.7	37.4	49.9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8	24.4	43.5	25.6	5.7	25.2	31.3	52.8					
종	사	자	구	도	5인 미만	22,217	4.2	23.7	32.1	31.3	8.8	27.8	40.1	54.2
					5 ~ 19인	16,213	5.3	23.4	34.5	29.6	7.2	28.6	36.9	52.6
					20 ~ 49인	2,634	2.8	20.9	32.8	35.8	7.7	23.7	43.5	56.2
					50 ~ 99인	628	5.6	18.3	36.7	33.7	5.6	23.9	39.3	53.8
					100인 이상	426	5.6	15.6	38.7	32.9	7.3	21.2	40.2	55.2
권	역	별	수도권	26,182	4.5	20.8	35.8	31.5	7.3	25.3	38.9	54.1		
			경남권	6,429	2.8	24.8	32.5	29.0	10.9	27.6	39.9	55.1		
			경북권	3,348	9.4	35.1	24.7	21.8	9.0	44.4	30.9	46.5		
			전라권	3,236	2.9	26.5	28.7	33.7	8.2	29.4	41.9	54.4		
			충청권	2,923	5.3	23.9	25.6	37.9	7.2	29.2	45.2	54.5		

<표 113> 여성기업인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운 분야-(2)인사관리

(단위: 개사, %, 점)

구 분		사례 수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②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느낀다	⑤ 많이 느낀다	①+② 어려움을 느끼지 않음	④+⑤ 어려움을 느낀다	100점 평균 (점)	
전 체		42,118	7.6	28.7	35.5	22.9	5.3	36.3	28.2	47.4	
대부	제조업	7,459	2.9	22.6	44.5	23.0	7.0	25.5	30.0	52.2	
	비제조업	34,659	8.6	30.0	33.6	22.9	4.9	38.6	27.8	46.4	
세부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4.2	35.2	32.7	19.2	8.8	39.4	27.9	48.3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2.6	21.9	43.4	26.9	5.2	24.5	32.1	52.5
		기타 제조	5,822	2.7	20.9	46.4	23.0	7.0	23.6	30.0	52.7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3.1	32.5	41.9	18.3	4.2	35.6	22.5	47.0
		건설업	8,211	10.6	33.4	26.2	24.8	5.1	43.9	29.9	45.1
		도매 및 소매업	10,963	10.5	29.8	40.6	15.2	3.9	40.3	19.1	43.0
		운수업	1,954	4.2	31.9	29.0	30.0	4.9	36.1	34.8	49.8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3.0	28.4	36.6	25.5	6.5	31.4	32.0	51.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4.0	27.5	36.6	27.8	4.1	31.5	31.9	50.1
		금융 및 보험업	769	10.7	23.1	33.0	27.4	5.9	33.8	33.3	48.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8.0	23.8	29.8	34.0	4.5	31.8	38.4	50.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4.3	25.2	32.0	31.2	7.2	29.5	38.4	52.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7.7	31.0	30.5	25.7	5.1	38.7	30.8	47.4
		교육 서비스업	891	13.5	29.8	27.1	21.6	8.0	43.3	29.6	45.2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2.5	29.7	42.8	22.3	2.7	32.1	25.0	48.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0.6	34.8	31.4	20.1	3.1	45.4	23.2	42.6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6	29.3	44.7	16.8	7.6	30.9	24.4	49.9		
중사	5인 미만	22,217	8.7	30.0	35.2	21.0	5.0	38.8	26.0	45.9	
	5 ~ 19인	16,213	6.9	28.0	35.8	24.1	5.1	34.9	29.2	48.1	
	20 ~ 49인	2,634	3.7	25.1	35.4	27.9	8.0	28.8	35.9	52.8	
	50 ~ 99인	628	3.4	23.7	41.9	25.8	5.2	27.1	31.0	51.4	
	100인 이상	426	3.8	16.2	29.9	40.1	10.0	20.0	50.1	59.0	
지역	수도권	26,182	7.3	25.4	39.9	22.5	4.9	32.7	27.4	48.0	
	경남권	6,429	7.0	32.7	28.7	25.4	6.2	39.7	31.6	47.8	
	경북권	3,348	14.1	37.0	22.3	19.7	7.0	51.1	26.7	42.1	
	전라권	3,236	6.1	34.3	30.0	24.1	5.6	40.4	29.7	47.2	
	충청권	2,923	5.5	33.8	32.5	23.6	4.6	39.3	28.2	47.0	

<표 114> 여성기업인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운 분야-(3)노사관계

(단위: 개사, %, 점)

구분		사례 수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②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느낀다	⑤ 많이 느낀다	①+② 어려움을 느끼지 않음	④+⑤ 어려움을 느낀다	100점 평균 (점)	
전체		42,118	19.3	39.3	30.7	9.7	1.0	58.6	10.7	33.5	
대부	제조업	7,459	10.2	37.3	40.2	10.3	1.9	47.5	12.3	39.1	
	비제조업	34,659	21.2	39.7	28.7	9.5	0.8	60.9	10.3	32.2	
세부 업종 별	제조업	식품/음료 제조	834	15.2	45.0	30.4	7.8	1.6	60.2	9.4	33.9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10.0	35.5	39.0	14.1	1.5	45.5	15.5	40.4
		기타 제조	5,822	9.6	36.4	41.8	10.2	2.0	46.0	12.2	39.7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15.1	52.2	24.7	6.5	1.5	67.3	8.0	31.8
		건설업	8,211	27.7	39.2	23.0	9.4	0.7	66.9	10.1	29.0
		도매 및 소매업	10,963	20.8	39.4	31.4	7.7	0.7	60.2	8.4	32.0
		운수업	1,954	11.6	50.9	27.5	8.3	1.7	62.5	10.0	34.4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18.5	40.0	36.2	4.6	0.6	58.6	5.2	32.2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8.9	43.2	28.3	9.5	0.3	62.0	9.7	32.3
		금융 및 보험업	769	17.2	44.3	29.2	8.5	0.7	61.5	9.2	32.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19.5	29.6	36.6	14.3	0.0	49.1	14.3	36.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13.4	30.9	30.2	23.4	2.2	44.2	25.6	42.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22.7	39.8	28.5	8.1	1.0	62.4	9.1	31.3
		교육 서비스업	891	30.1	37.8	24.6	7.0	0.5	67.9	7.5	27.5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10.2	39.0	40.7	8.9	1.2	49.1	10.2	38.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28.7	36.0	26.2	8.1	1.0	64.7	9.1	29.2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8.7	57.1	29.7	4.6	0.0	65.7	4.6	32.5		
조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2,217	22.8	38.1	29.4	8.6	1.2	60.9	9.7	31.8	
	5 ~ 19인	16,213	16.4	40.1	32.1	10.7	0.7	56.5	11.4	34.8	
	20 ~ 49인	2,634	10.2	44.4	33.4	10.8	1.2	54.6	12.0	37.1	
	50 ~ 99인	628	14.2	34.6	35.9	13.4	1.9	48.8	15.3	38.5	
	100인 이상	426	9.4	45.7	26.7	15.2	3.0	55.1	18.2	39.2	
권 역 별	수도권	26,182	15.7	32.3	38.0	12.5	1.4	48.1	13.9	37.9	
	경남권	6,429	20.5	52.2	21.8	5.6	0.0	72.6	5.6	28.1	
	경북권	3,348	34.5	45.9	14.6	4.7	0.4	80.4	5.0	22.6	
	전라권	3,236	25.7	55.1	15.4	2.9	0.9	80.8	3.8	24.5	
	충청권	2,923	24.0	48.2	20.7	6.8	0.3	72.2	7.1	27.8	

<표 115> 여성기업인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운 분야-(4)생산관리

(단위: 개사, %, 점)

구 분		사례 수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②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느낀다	⑤ 많이 느낀다	①+② 어려움을 느끼지 않음	④+⑤ 어려움을 느낀다	100점 평균 (점)	
전 체		42,118	20.9	30.9	32.6	13.2	2.4	51.8	15.6	36.3	
대 부	제조업	7,459	7.0	25.1	40.8	22.6	4.5	32.0	27.1	48.2	
	비제조업	34,659	23.9	32.2	30.8	11.2	1.9	56.1	13.1	33.7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품/음료 제조	834	10.8	25.5	44.4	14.8	4.4	36.4	19.2	44.1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5.6	25.6	40.6	23.0	5.2	31.2	28.2	49.1
		기타 제조	5,822	6.6	24.9	40.4	23.6	4.5	31.5	28.1	48.6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35.4	30.3	23.6	9.2	1.5	65.7	10.7	27.8
		건설업	8,211	25.5	31.7	28.0	12.2	2.6	57.1	14.8	33.7
		도매 및 소매업	10,963	18.5	33.4	37.0	9.4	1.8	51.9	11.1	35.6
		운수업	1,954	23.0	41.3	22.1	10.3	3.3	64.2	13.6	32.4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19.7	29.2	33.3	16.0	1.7	49.0	17.7	37.7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20.5	41.9	27.0	10.3	0.3	62.5	10.6	32.0
		금융 및 보험업	769	31.3	31.8	27.5	7.5	1.9	63.1	9.4	29.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29.4	21.4	33.5	15.4	0.3	50.8	15.7	33.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18.1	20.1	39.7	17.2	4.9	38.2	22.1	42.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34.5	33.0	20.7	11.2	0.7	67.5	11.9	27.7
		교육 서비스업	891	41.9	34.4	19.2	4.0	0.5	76.3	4.4	21.7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29.1	54.7	13.5	2.7	0.0	83.8	2.7	22.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35.2	32.2	22.2	8.9	1.5	67.4	10.4	27.4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7.0	34.0	40.2	8.7	0.0	51.0	8.7	35.2		
종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2,217	23.2	30.3	32.3	12.2	2.0	53.5	14.2	34.9	
	5 ~ 19인	16,213	18.4	31.4	33.3	14.2	2.7	49.8	16.9	37.9	
	20 ~ 49인	2,634	15.9	34.0	31.4	15.4	3.4	49.8	18.8	39.1	
	50 ~ 99인	628	20.7	31.6	33.8	12.2	1.8	52.3	13.9	35.7	
	100인 이상	426	27.6	26.2	30.3	13.7	2.2	53.8	15.9	34.2	
별 도 권 역 별	수도권	26,182	16.5	27.2	38.3	15.9	2.0	43.8	18.0	39.9	
	경남권	6,429	24.6	38.9	26.8	6.4	3.3	63.5	9.7	31.2	
	경북권	3,348	37.2	35.3	18.1	7.8	1.7	72.4	9.5	25.4	
	전라권	3,236	28.5	37.8	20.8	9.1	3.7	66.4	12.8	30.4	
	충청권	2,923	25.2	33.7	24.4	13.9	2.9	58.9	16.8	33.9	

<표 116> 여성기업인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운 분야-(5)자금관리

(단위: 개사, %, 점)

구분		사례 수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②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느낀다	⑤ 많이 느낀다	①+② 어려움을 느끼지 않음	④+⑤ 어려움을 느낀다	100점 평균 (점)	
전체		42,118	5.8	21.5	33.9	29.5	9.3	27.3	38.8	53.7	
대부	제조업	7,459	2.9	18.1	39.6	30.1	9.3	21.0	39.4	56.2	
	비제조업	34,659	6.5	22.2	32.7	29.3	9.3	28.7	38.7	53.2	
세부업종별	제조업	식품/음료 제조	834	3.2	26.1	34.4	24.6	11.6	29.3	36.3	53.9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4.1	22.1	37.5	27.5	8.8	26.2	36.3	53.7
		기타 제조	5,822	2.7	16.4	40.6	31.2	9.0	19.1	40.2	56.8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2.1	34.0	36.5	23.2	4.2	36.0	27.5	48.4
		건설업	8,211	9.1	24.2	32.3	25.0	9.3	33.4	34.3	50.3
		도매 및 소매업	10,963	5.1	22.9	35.9	26.5	9.6	28.0	36.1	53.1
		운수업	1,954	3.3	26.2	30.5	32.6	7.4	29.6	40.0	53.6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4.9	24.3	34.4	28.5	7.9	29.2	36.4	52.5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9.5	26.3	26.9	28.0	9.2	35.9	37.2	50.2
		금융 및 보험업	769	11.3	21.7	35.2	30.4	1.4	33.0	31.8	47.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5.2	16.5	36.9	36.0	5.5	21.7	41.4	5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2.0	13.6	25.5	43.3	15.5	15.7	58.8	64.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6.9	16.4	28.8	37.5	10.4	23.3	48.0	57.1
		교육 서비스업	891	15.4	25.2	22.9	22.4	14.1	40.6	36.5	48.7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1.2	28.5	49.2	17.4	3.7	29.7	21.0	48.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1.7	20.9	24.2	32.7	10.6	32.5	43.2	52.4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0	23.9	44.6	27.3	3.2	24.9	30.5	51.9		
조사자 규모별	5인 미만	22,217	6.3	21.9	33.2	28.0	10.6	28.1	38.7	53.7	
	5 ~ 19인	16,213	5.7	21.1	34.3	30.9	7.9	26.9	38.8	53.5	
	20 ~ 49인	2,634	3.1	22.2	35.3	30.5	8.9	25.4	39.4	54.9	
	50 ~ 99인	628	3.8	16.7	38.1	35.5	5.8	20.6	41.3	55.7	
	100인 이상	426	8.2	15.1	36.3	35.8	4.7	23.2	40.5	53.4	
지역별	수도권	26,182	5.6	19.2	36.8	29.8	8.6	24.8	38.5	54.2	
	경남권	6,429	4.6	24.3	32.2	28.1	10.8	28.9	38.9	54.1	
	경북권	3,348	10.0	32.1	23.5	23.6	10.8	42.1	34.4	48.3	
	전라권	3,236	5.1	26.1	24.8	33.2	10.9	31.2	44.0	54.6	
	충청권	2,923	6.8	18.7	33.4	31.8	9.2	25.5	41.0	54.5	

<표 117> 여성기업인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운 분야-(6)외상/어음 거래

(단위: 개사, %, 점)

구 분		사례 수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②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느낀다	⑤ 많이 느낀다	①+② 어려움을 느끼지 않음	④+⑤ 어려움을 느낀다	100점 평균 (점)	
전 체		42,118	15.9	32.3	32.1	16.6	3.1	48.2	19.7	39.7	
대 부	제조업	7,459	8.4	28.4	37.7	21.3	4.1	36.8	25.5	46.1	
	비제조업	34,659	17.5	33.2	30.8	15.6	2.9	50.7	18.5	38.3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품/음료 제조	834	11.0	35.5	34.0	15.9	3.6	46.5	19.5	41.4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11.1	27.4	39.3	16.6	5.5	38.6	22.2	44.5
		기타 제조	5,822	7.7	27.6	38.0	22.7	4.0	35.2	26.8	47.0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5.8	47.1	30.5	15.8	0.8	52.9	16.5	39.6
		건설업	8,211	18.9	34.3	26.9	16.3	3.6	53.2	19.9	37.8
		도매 및 소매업	10,963	11.9	32.0	39.8	13.5	2.8	43.9	16.3	40.9
		운수업	1,954	14.9	40.9	26.2	14.6	3.4	55.8	18.0	37.7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18.5	41.5	18.4	19.6	2.0	60.0	21.6	36.3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9.7	36.0	25.6	16.7	2.1	55.6	18.8	36.4
		금융 및 보험업	769	27.1	29.1	22.2	19.6	2.0	56.2	21.6	35.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19.5	27.6	26.8	23.9	2.1	47.1	26.0	40.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17.1	19.9	30.0	26.8	6.1	37.0	33.0	46.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25.0	34.7	28.0	11.1	1.2	59.7	12.3	32.2
		교육 서비스업	891	41.9	31.0	20.0	6.0	1.1	72.8	7.1	23.4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13.9	65.0	16.2	2.4	2.4	79.0	4.9	28.6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24.4	39.1	22.7	8.6	5.2	63.5	13.8	32.8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4.1	39.9	36.9	8.4	0.8	54.0	9.1	35.5		
종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2,217	16.9	29.8	33.8	16.2	3.3	46.7	19.5	39.8	
	5 ~ 19인	16,213	14.7	35.4	30.5	16.8	2.6	50.1	19.4	39.3	
	20 ~ 49인	2,634	13.9	36.4	27.9	17.3	4.5	50.2	21.9	40.6	
	50 ~ 99인	628	18.3	30.3	33.1	16.4	1.9	48.6	18.3	38.3	
	100인 이상	426	16.3	27.7	27.9	22.3	5.8	44.0	28.1	43.4	
별 도 권 역 별	수도권	26,182	13.1	27.0	36.2	20.3	3.4	40.1	23.7	43.5	
	경남권	6,429	16.7	41.4	28.6	10.7	2.6	58.1	13.3	35.3	
	경북권	3,348	30.4	42.9	18.2	5.9	2.6	73.3	8.5	26.8	
	전라권	3,236	20.5	42.2	26.0	7.9	3.4	62.7	11.3	32.8	
	충청권	2,923	17.5	37.2	25.5	17.5	2.4	54.6	19.9	37.5	

<표 118> 여성기업인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운 분야-(7)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단위: 개사, %, 점)

구 분		사례 수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②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느낀다	⑤ 많이 느낀다	①+② 어려움을 느끼지 않음	④+⑤ 어려움을 느낀다	100점 평균 (점)	
전 체		42,118	9.9	26.6	38.6	20.5	4.4	36.5	24.9	45.7	
대부	제조업	7,459	4.5	22.0	45.5	22.6	5.4	26.5	28.0	50.6	
	비제조업	34,659	11.0	27.6	37.2	20.1	4.1	38.6	24.2	44.7	
세부 업종 별	제조업	식품/음료 제조	834	5.4	23.9	45.3	17.3	8.1	29.3	25.4	49.7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5.6	30.3	44.6	18.0	1.5	35.9	19.5	44.9
		기타 제조	5,822	4.2	20.6	45.7	23.9	5.6	24.8	29.5	51.5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4.0	29.3	42.8	19.6	4.3	33.3	23.9	47.8
		건설업	8,211	16.8	25.0	33.6	18.2	6.3	41.8	24.5	43.1
		도매 및 소매업	10,963	8.9	29.9	41.3	17.6	2.3	38.8	19.9	43.7
		운수업	1,954	6.7	30.8	32.5	25.9	4.1	37.5	30.0	47.5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12.4	29.1	29.0	25.6	4.0	41.4	29.6	44.9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0.2	31.1	42.0	15.0	1.7	41.3	16.7	41.7
		금융 및 보험업	769	10.2	35.5	26.7	24.6	3.1	45.7	27.6	43.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6.3	30.8	32.6	27.8	2.6	37.0	30.4	4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10.6	19.1	41.7	22.3	6.3	29.7	28.6	48.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7.9	23.8	37.1	25.6	5.6	31.6	31.2	49.3
		교육 서비스업	891	25.7	26.7	24.9	17.4	5.3	52.4	22.7	37.5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5.0	30.1	29.1	30.8	4.9	35.1	35.7	50.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7.8	31.7	28.3	17.9	4.2	49.5	22.1	39.7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2.0	30.0	53.2	13.0	1.8	31.9	14.9	45.7		
조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2,217	9.8	28.2	39.1	19.4	3.5	38.0	22.9	44.7	
	5 ~ 19인	16,213	10.8	24.4	38.0	21.4	5.3	35.2	26.8	46.5	
	20 ~ 49인	2,634	6.2	27.3	37.7	23.4	5.5	33.5	28.8	48.7	
	50 ~ 99인	628	5.8	22.5	41.9	25.2	4.7	28.2	29.9	50.1	
	100인 이상	426	4.9	30.5	39.4	20.0	5.2	35.3	25.2	47.5	
권 역 별	수도권	26,182	8.1	24.5	40.6	22.5	4.3	32.6	26.8	47.6	
	경남권	6,429	8.7	27.9	40.4	17.5	5.6	36.5	23.1	45.9	
	경북권	3,348	26.3	28.3	29.1	14.4	1.9	54.6	16.3	34.3	
	전라권	3,236	7.3	37.1	31.6	18.1	5.8	44.4	23.9	44.5	
	충청권	2,923	12.3	28.8	35.7	19.4	3.8	41.1	23.2	43.4	

<표 119> 여성기업인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운 분야-(8)기술개발

(단위: 개사, %, 점)

구 분		사례 수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②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느낀다	⑤ 많이 느낀다	①+② 어려움을 느끼지 않음	④+⑤ 어려움을 느낀다	100점 평균 (점)	
전 체		42,118	17.4	32.0	32.9	14.7	3.0	49.4	17.7	38.5	
대 부	제조업	7,459	6.1	28.1	40.2	21.1	4.5	34.2	25.6	47.4	
	비제조업	34,659	19.9	32.8	31.3	13.3	2.6	52.7	16.0	36.5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품/음료 제조	834	9.5	36.5	36.0	10.5	7.4	46.0	18.0	42.5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6.8	33.3	41.5	16.2	2.2	40.1	18.4	43.4
		기타 제조	5,822	5.5	26.1	40.7	23.3	4.4	31.7	27.7	48.7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20.4	34.0	37.6	4.5	3.5	54.4	8.0	34.2
		건설업	8,211	21.2	34.4	29.3	11.7	3.5	55.6	15.2	35.5
		도매 및 소매업	10,963	16.0	33.7	37.8	11.6	0.9	49.7	12.5	36.9
		운수업	1,954	33.4	35.6	24.9	4.4	1.6	69.1	6.1	26.3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24.1	32.2	20.5	20.8	2.3	56.3	23.2	36.3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1.2	31.4	32.5	21.2	3.8	42.6	25.0	43.7
		금융 및 보험업	769	24.7	30.3	23.9	19.7	1.4	55.0	21.1	35.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28.7	26.7	21.5	22.5	0.6	55.4	23.1	34.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8.4	22.6	38.3	22.0	8.7	31.0	30.7	5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23.1	35.1	26.3	12.4	3.0	58.3	15.4	34.2
		교육 서비스업	891	34.5	28.2	22.3	12.1	2.9	62.7	15.0	30.2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30.0	52.6	13.5	3.8	0.0	82.6	3.8	22.8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37.2	28.1	16.9	11.8	6.0	65.3	17.8	30.3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9.0	42.2	36.2	10.2	2.4	51.2	12.6	38.7		
종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2,217	19.1	31.2	31.8	14.8	3.2	50.3	18.0	38.0	
	5 ~ 19인	16,213	15.9	32.3	34.5	14.6	2.7	48.2	17.3	39.0	
	20 ~ 49인	2,634	13.7	36.6	31.4	15.3	3.0	50.3	18.3	39.3	
	50 ~ 99인	628	16.9	31.5	35.5	13.1	3.0	48.4	16.1	38.4	
	100인 이상	426	15.0	32.8	36.6	13.7	2.0	47.7	15.7	38.8	
별 역 권	수도권	26,182	13.2	27.4	37.4	18.8	3.1	40.6	22.0	42.8	
	경남권	6,429	23.2	39.4	27.6	7.9	1.8	62.6	9.8	31.4	
	경북권	3,348	34.4	39.1	18.0	6.4	2.1	73.6	8.4	25.6	
	전라권	3,236	20.1	38.9	28.8	7.3	4.9	59.0	12.2	34.5	
	충청권	2,923	20.4	40.4	25.8	10.3	3.0	60.8	13.3	33.8	

<표 120> 여성기업인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운 분야-(9)경영 관련 정보 획득

(단위: 개사, %, 점)

구분		사례 수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②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느낀다	⑤ 많이 느낀다	①+② 어려움을 느끼지 않음	④+⑤ 어려움을 느낀다	100점 평균 (점)	
전체		42,118	9.2	27.0	43.9	17.0	2.9	36.2	19.9	44.3	
대부	제조업	7,459	5.2	23.1	49.3	18.6	3.8	28.3	22.4	48.2	
	비제조업	34,659	10.0	27.9	42.7	16.7	2.7	37.9	19.4	43.5	
세부업종별	제조업	식품/음료 제조	834	5.4	27.4	47.5	11.3	8.4	32.8	19.7	47.5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6.4	28.9	51.2	12.1	1.5	35.2	13.6	43.4
		기타 제조	5,822	5.0	21.7	49.3	20.5	3.5	26.7	24.0	48.9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8.3	31.6	45.6	13.0	1.5	39.9	14.5	41.9
		건설업	8,211	12.0	28.1	42.2	16.2	1.6	40.1	17.8	41.8
		도매 및 소매업	10,963	8.7	31.9	44.0	12.5	3.0	40.6	15.4	42.3
		운수업	1,954	13.9	32.8	38.4	14.8	0.2	46.7	15.0	38.6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13.4	27.6	45.2	11.0	2.8	41.0	13.8	40.5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8.1	28.3	40.3	20.0	3.2	36.5	23.3	45.5
		금융 및 보험업	769	9.3	27.3	35.5	26.8	1.2	36.6	28.0	45.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6.6	25.5	43.2	23.1	1.7	32.1	24.7	46.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7.9	16.6	45.6	21.8	8.1	24.5	29.9	51.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9.7	23.6	41.4	23.8	1.5	33.3	25.3	45.9
		교육 서비스업	891	19.8	20.0	33.4	20.5	6.3	39.8	26.8	43.4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4.9	27.7	37.0	27.9	2.6	32.5	30.5	48.9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5.2	29.2	36.6	14.9	4.1	44.4	19.0	40.9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2.8	20.3	62.8	12.5	1.6	23.1	14.0	47.4		
조사자 규모별	5인 미만	22,217	9.9	28.2	41.9	16.7	3.2	38.1	19.9	43.8	
	5 ~ 19인	16,213	8.5	26.0	46.3	17.0	2.2	34.5	19.2	44.6	
	20 ~ 49인	2,634	7.9	25.1	44.2	18.9	3.9	33.0	22.8	46.4	
	50 ~ 99인	628	7.9	21.5	49.3	20.3	1.0	29.4	21.4	46.3	
	100인 이상	426	8.7	21.2	47.4	17.3	5.4	29.9	22.7	47.3	
지역별	수도권	26,182	8.2	24.7	46.6	17.5	3.0	32.9	20.5	45.6	
	경남권	6,429	8.8	27.3	40.5	20.5	2.8	36.2	23.3	45.3	
	경북권	3,348	16.7	36.6	35.4	10.0	1.2	53.3	11.3	35.6	
	전라권	3,236	7.6	34.9	41.0	12.5	3.9	42.6	16.5	42.6	
	충청권	2,923	11.8	27.4	40.6	18.1	2.2	39.2	20.2	42.9	

<표 121> 여성기업인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운 분야-(10)거래 기업과의 마찰

(단위: 개사, %, 점)

구 분		사례 수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②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느낀다	⑤ 많이 느낀다	①+② 어려움을 느끼지 않음	④+⑤ 어려움을 느낀다	100점 평균 (점)	
전 체		42,118	12.2	35.9	35.0	15.0	1.8	48.2	16.9	39.6	
대 부	제조업	7,459	7.2	33.6	42.7	14.3	2.3	40.8	16.5	42.7	
	비제조업	34,659	13.3	36.4	33.3	15.2	1.7	49.8	16.9	38.9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품/음료 제조	834	10.4	41.9	32.7	14.2	0.8	52.3	15.0	38.3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9.3	39.0	41.0	9.2	1.5	48.3	10.7	38.6
		기타 제조	5,822	6.5	31.6	44.4	14.9	2.6	38.1	17.5	43.9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8.1	43.1	36.4	8.3	4.1	51.1	12.4	39.3
		건설업	8,211	14.6	39.1	27.9	17.2	1.3	53.7	18.5	37.9
		도매 및 소매업	10,963	11.2	39.0	37.6	10.4	1.7	50.2	12.1	38.1
		운수업	1,954	17.0	35.5	25.7	19.1	2.7	52.5	21.8	38.7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18.0	33.8	32.0	13.2	3.0	51.8	16.2	37.4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0.9	34.8	36.7	16.2	1.3	45.8	17.5	40.5
		금융 및 보험업	769	12.0	33.3	33.9	19.6	1.2	45.3	20.8	4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13.9	28.7	34.3	20.0	3.0	42.7	23.0	42.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10.7	28.4	41.7	17.7	1.6	39.0	19.3	42.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11.5	33.7	32.3	21.1	1.3	45.3	22.4	41.7
		교육 서비스업	891	32.8	33.5	21.8	10.7	1.3	66.2	12.0	28.6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11.0	24.2	28.6	36.2	0.0	35.2	36.2	47.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27.0	41.9	16.3	10.9	3.9	68.9	14.8	30.7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0.5	37.7	39.0	11.4	1.4	48.2	12.8	38.9		
종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2,217	13.4	36.9	33.5	14.5	1.8	50.3	16.3	38.6	
	5 ~ 19인	16,213	11.5	34.5	36.8	15.5	1.8	45.9	17.3	40.4	
	20 ~ 49인	2,634	8.1	37.5	35.4	17.4	1.6	45.6	18.9	41.7	
	50 ~ 99인	628	12.7	31.6	36.7	16.2	2.9	44.3	19.0	41.2	
	100인 이상	426	7.7	37.7	40.5	13.0	1.1	45.5	14.1	40.5	
별 도 권 역 별	수도권	26,182	10.6	29.6	42.2	15.6	1.9	40.3	17.5	42.1	
	경남권	6,429	11.9	46.5	25.0	14.9	1.8	58.4	16.6	37.1	
	경북권	3,348	18.9	48.4	19.3	11.6	1.8	67.3	13.4	32.2	
	전라권	3,236	14.3	48.3	21.3	14.7	1.4	62.7	16.1	35.1	
	충청권	2,923	17.3	41.3	25.3	14.9	1.2	58.6	16.1	35.4	

<표 122> 여성기업인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운 분야-(11)지적 재산권 보호

(단위: 개사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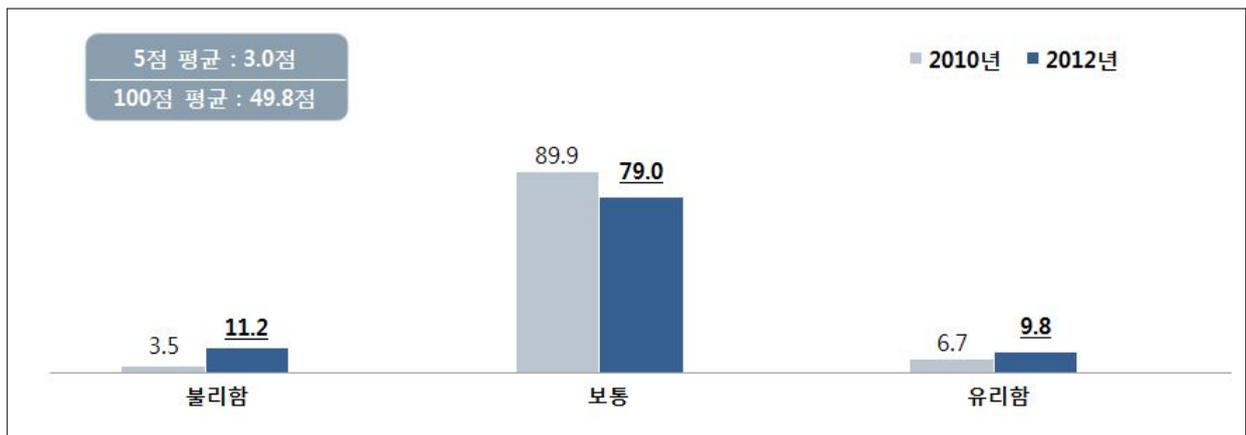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②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느낀다	⑤ 많이 느낀다	①+② 어려움을 느끼지 않음	④+⑤ 어려움을 느낀다	100점 평균 (점)		
전 체		42,118	20.4	33.9	32.9	10.8	2.0	54.3	12.8	35.0		
세부	제조업	7,459	9.3	29.6	44.8	13.4	3.0	38.8	16.4	42.8		
	비제조업	34,659	22.8	34.8	30.3	10.2	1.8	57.7	12.0	33.3		
세부	제조업	식품/음료 제조	834	15.1	31.5	40.9	9.3	3.2	46.6	12.5	38.5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6.7	45.9	40.0	6.2	1.1	52.6	7.4	37.3	
		기타 제조	5,822	8.8	27.0	46.0	15.0	3.2	35.8	18.2	44.2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26.7	37.1	30.2	6.0	0.0	63.8	6.0	28.9	
		건설업	8,211	26.0	34.5	28.4	8.8	2.3	60.5	11.1	31.7	
		도매 및 소매업	10,963	19.5	36.3	36.1	6.5	1.6	55.8	8.0	33.6	
		운수업	1,954	28.7	47.5	13.8	8.5	1.5	76.2	10.0	26.7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29.3	37.8	17.3	13.2	2.4	67.1	15.6	30.4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7.2	32.3	37.2	20.2	3.0	39.6	23.3	44.9	
		금융 및 보험업	769	26.0	35.0	20.5	18.4	0.0	61.0	18.4	32.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28.7	27.8	27.6	15.3	0.6	56.4	15.9	32.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11.6	23.3	37.9	24.0	3.1	35.0	27.1	45.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27.1	34.7	26.8	10.6	0.8	61.9	11.3	30.8	
		교육 서비스업	891	36.5	33.5	22.5	5.3	2.2	70.0	7.5	25.8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26.0	56.7	12.3	5.0	0.0	82.7	5.0	24.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37.0	35.4	17.5	6.2	4.0	72.4	10.1	26.2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21.5	35.6	36.9	3.8	2.2	57.2	6.0	32.4			
조사	자	규모	5인 미만	22,217	20.9	33.5	31.6	11.8	2.1	54.5	13.9	35.1
			5 ~ 19인	16,213	19.9	33.9	34.7	9.7	1.9	53.7	11.6	35.0
			20 ~ 49인	2,634	18.8	37.4	31.4	10.6	1.8	56.2	12.4	34.8
			50 ~ 99인	628	18.7	39.4	32.2	7.1	2.6	58.1	9.7	33.8
			100인 이상	426	27.6	25.2	36.8	9.3	1.1	52.8	10.3	32.7
지역	별	수도권	26,182	14.0	29.5	41.4	13.3	1.9	43.4	15.2	39.9	
		경남권	6,429	28.1	44.9	19.4	5.7	1.9	73.0	7.6	27.1	
		경북권	3,348	40.4	34.9	16.5	5.4	2.8	75.3	8.2	23.8	
		전라권	3,236	27.0	44.9	18.9	6.6	2.6	71.8	9.2	28.3	
		충청권	2,923	31.4	36.2	20.1	10.6	1.8	67.5	12.4	28.8	

5. 일반 중소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경영상 불리한 정도

- 여성기업인의 경영이 일반 중소기업인 대비 상대적으로 '불리'(다소 불리함+매우 불리함)하다는 응답은 11.2%로 '유리'(다소 유리함+매우 유리함)하다는 응답(9.8%)보다 1.4%p 높게 나타남
 - 응답 업체의 79.0%는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하여 여성기업인과 일반 중소기업인과의 경영상 차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2012년 여성기업체 조사에서는 '불리함(7.7%p)'과 '유리함(3.1%p)'에 대한 응답 모두 기존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 94) 일반 중소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경영상 불리한 정도

(단위: %)



- 업종별로는, 제조업(12.7%)에서 비제조업(10.9%)보다 불리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세부업종별로는 비제조업 중 '운수업'(16.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14.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3.9%)에서 일반 중소기업 대비 불리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23> 일반 중소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경영상 불리한 정도

(단위: 개사,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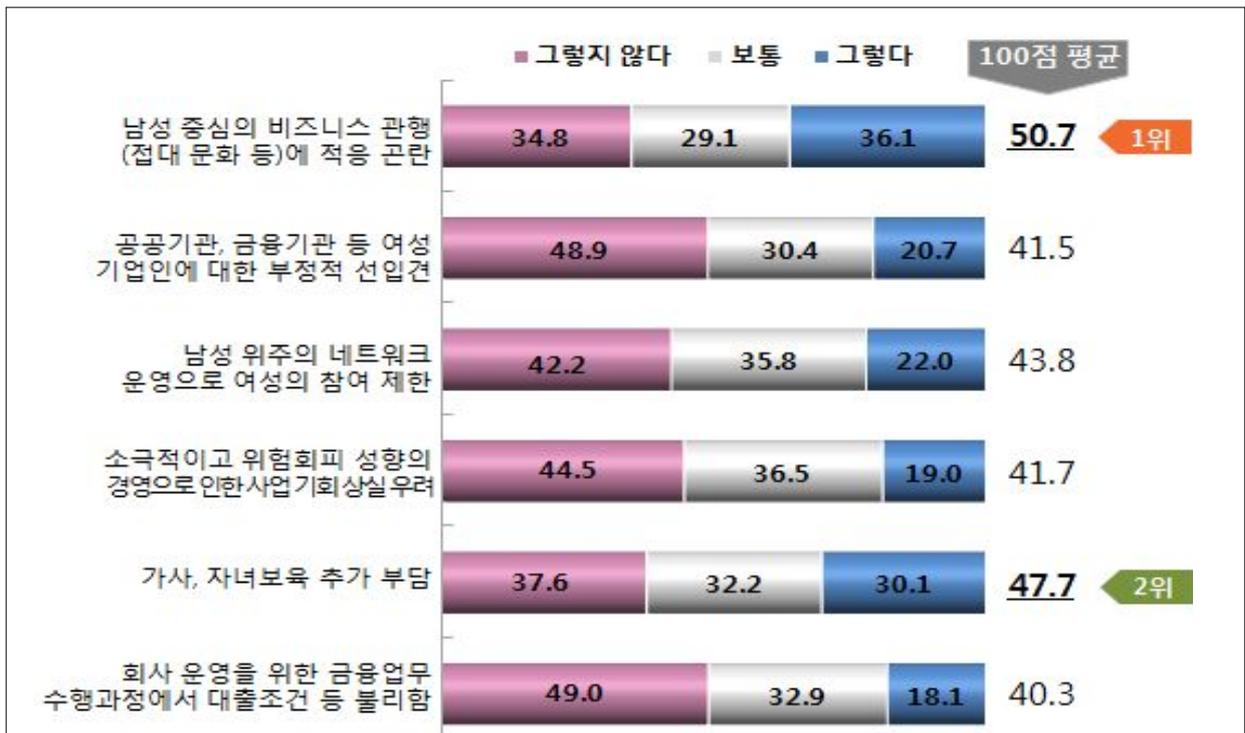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① 매우 불리함	② 다소 불리함	③ 보통	④ 다소 유리함	⑤ 매우 유리함	①+② 불리함	④+⑤ 유리함	100점 평균 (점)	
전 체		42,118	0.5	10.7	79.0	8.7	1.1	11.2	9.8	49.8	
대부	제조업	7,459	0.5	12.2	78.6	8.0	0.7	12.7	8.7	49.1	
	비제조업	34,659	0.6	10.3	79.1	8.9	1.2	10.9	10.1	49.9	
세부 업종 별	제조업	식품/음료 제조	834	0.0	10.1	81.4	8.3	0.2	10.1	8.5	49.6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0.7	13.4	77.5	6.2	2.2	14.1	8.4	48.9
		기타 제조	5,822	0.5	12.4	78.3	8.2	0.6	12.9	8.8	49.0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0.0	9.9	79.6	9.4	1.1	9.9	10.5	50.4
		건설업	8,211	0.6	11.1	76.3	10.7	1.4	11.7	12.0	50.3
		도매 및 소매업	10,963	0.5	9.0	81.1	8.4	1.0	9.4	9.4	50.1
		운수업	1,954	0.7	15.6	76.7	4.1	2.9	16.3	7.0	48.2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1.4	9.0	77.0	12.5	0.0	10.4	12.5	50.2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4	5.9	79.6	13.1	0.0	7.4	13.1	51.1
		금융 및 보험업	769	0.0	11.3	84.7	1.8	2.1	11.3	4.0	48.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0.6	7.0	87.1	3.8	1.5	7.6	5.3	49.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1.0	12.9	79.6	6.0	0.6	13.9	6.5	48.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0.0	14.1	72.0	13.0	0.9	14.1	13.9	50.2
		교육 서비스업	891	0.6	7.6	83.3	7.6	0.9	8.2	8.5	50.2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0.0	10.0	54.9	28.7	6.4	10.0	35.1	57.9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0.0	5.1	89.6	2.8	2.6	5.1	5.3	50.7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0.0	7.1	87.7	4.7	0.4	7.1	5.1	49.6		
종사 자 규모 별	5인 미만	22,217	0.6	12.2	78.8	7.3	1.1	12.8	8.4	49.0	
	5 ~ 19인	16,213	0.5	9.1	79.0	10.7	0.8	9.5	11.4	50.6	
	20 ~ 49인	2,634	0.3	8.6	78.9	9.7	2.5	8.9	12.2	51.4	
	50 ~ 99인	628	1.0	9.4	80.1	8.1	1.4	10.4	9.4	49.9	
	100인 이상	426	0.0	7.6	85.7	5.6	1.1	7.6	6.7	50.0	
권 역 별	수도권	26,182	0.6	9.8	77.5	11.5	0.6	10.4	12.1	50.4	
	경남권	6,429	0.2	12.1	81.4	3.8	2.5	12.3	6.3	49.1	
	경북권	3,348	0.7	10.5	83.9	3.4	1.5	11.2	4.9	48.7	
	전라권	3,236	0.9	12.1	81.8	5.0	0.2	12.9	5.2	47.9	
	충청권	2,923	0.1	14.0	77.8	5.3	2.8	14.1	8.1	49.2	

6. 일반 중소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부분

- 일반 중소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이 불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분야로는 '남성 중심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적응 곤란'이 36.1%로 가장 높았으며, '가사, 자녀보육 추가 부담'(30.1%), '남성위주의 네트워크 운영으로 여성의 참여 제한'(2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95) 일반 중소기업 대비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부분

(단위: %)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50.9%), 비제조업 중 '운수업'(56.0%)에서 '남성 중심 비즈니스 관행'으로 인해 불리함을 느끼는 여성기업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가사, 자녀보육 추가 부담'에 대해 불리하다는 응답은 제조업 중 '기타 제조'(32.5%), 비제조업 중 '금융 및 보험업'(51.5%)에서 높게 나타남

<표 124> 일반 중소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부분-(1)남성 중심 비즈니스 관행

(단위: 개사 %, 점)

구 분		사례 수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②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느낀다	⑤ 많이 느낀다	①+② 불리함을 느끼지 않음	④+⑤ 불리함을 느낀다	100점 평균 (점)	
전 체		42,118	4.7	30.1	29.1	29.8	6.3	34.8	36.1	50.7	
대부분	제조업	7,459	4.4	31.5	22.5	35.5	6.1	35.9	41.6	51.9	
	비제조업	34,659	4.7	29.8	30.6	28.5	6.4	34.5	34.9	50.5	
세부분업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5.4	36.4	27.2	24.9	6.1	41.8	31.0	47.5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5.6	15.5	28.0	46.8	4.1	21.2	50.9	57.0
		기타 제조	5,822	4.0	33.0	21.1	35.5	6.4	37.1	41.8	51.8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2.7	33.3	27.8	31.2	4.9	36.1	36.1	50.6
		건설업	8,211	6.4	29.2	29.7	26.5	8.3	35.6	34.7	50.3
		도매 및 소매업	10,963	3.8	35.0	36.6	19.9	4.7	38.8	24.6	46.7
		운수업	1,954	3.9	15.8	24.3	45.4	10.5	19.7	56.0	60.7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2.4	28.8	28.3	36.8	3.7	31.2	40.5	52.7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3.5	38.9	22.4	31.9	3.3	42.4	35.2	48.2
		금융 및 보험업	769	5.9	25.1	26.6	37.4	5.0	31.0	42.4	52.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4.1	20.0	25.8	43.2	6.9	24.1	50.2	57.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3.8	23.5	26.9	39.0	6.9	27.2	45.8	55.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5.2	25.9	27.5	33.6	7.7	31.1	41.3	53.2
		교육 서비스업	891	10.2	32.1	30.8	21.9	5.0	42.3	26.9	44.8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6.2	57.7	8.7	23.7	3.8	63.9	27.4	40.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7.0	37.2	22.9	28.7	4.3	44.1	32.9	46.5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2.0	33.4	38.3	20.3	6.0	35.4	26.3	48.7		
중사자규모	5인 미만	22,217	4.0	29.6	30.8	29.5	6.1	33.6	35.6	51.0	
	5 ~ 19인	16,213	5.6	31.5	27.3	29.1	6.5	37.0	35.7	49.9	
	20 ~ 49인	2,634	3.8	29.0	26.7	34.7	5.8	32.8	40.5	52.4	
	50 ~ 99인	628	5.5	21.2	32.5	30.9	10.0	26.7	40.8	54.7	
	100인 이상	426	7.5	28.1	23.5	35.6	5.4	35.6	41.0	50.8	
지역	수도권	26,182	3.8	32.6	31.0	27.5	5.1	36.4	32.6	49.4	
	경남권	6,429	3.0	24.9	24.7	37.1	10.3	27.9	47.4	56.7	
	경북권	3,348	9.9	26.2	27.8	27.9	8.2	36.1	36.1	49.6	
	전라권	3,236	6.8	28.2	27.9	30.9	6.1	35.0	37.1	50.4	
	충청권	2,923	7.2	26.4	25.0	34.8	6.5	33.6	41.4	51.8	

<표 125> 일반 중소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부분-(2)여성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단위: 개사, %, 점)

구 분		사례 수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②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느낀다	⑤ 많이 느낀다	①+② 불리함을 느끼지 않음	④+⑤ 불리함을 느낀다	100점 평균 (점)	
전 체		42,118	7.6	41.3	30.4	19.0	1.7	48.9	20.7	41.5	
대 부	제조업	7,459	8.0	38.1	29.0	21.8	3.1	46.1	24.9	43.5	
	비제조업	34,659	7.5	42.0	30.7	18.4	1.4	49.5	19.8	41.1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품/음료 제조	834	9.2	40.9	29.1	18.2	2.6	50.1	20.8	41.0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8.6	30.4	40.2	17.5	3.3	39.1	20.8	44.1
		기타 제조	5,822	7.7	38.8	27.5	22.8	3.1	46.5	26.0	43.7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9.2	40.9	36.9	9.6	3.3	50.1	12.9	39.2
		건설업	8,211	8.4	43.1	29.5	18.3	0.7	51.5	19.0	39.9
		도매 및 소매업	10,963	7.6	46.6	32.0	13.4	0.4	54.2	13.8	38.1
		운수업	1,954	3.0	38.0	34.7	18.8	5.5	41.0	24.3	46.5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5.4	37.2	33.7	21.6	2.0	42.6	23.7	44.4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1.0	35.5	27.7	24.7	1.2	46.5	25.9	42.4
		금융 및 보험업	769	8.3	41.7	24.5	24.7	0.7	50.0	25.5	42.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5.5	32.7	34.7	25.3	1.8	38.2	27.1	46.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5.9	33.3	30.9	26.9	3.1	39.2	29.9	47.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6.5	40.6	27.1	22.9	2.8	47.1	25.8	43.7
		교육 서비스업	891	14.8	44.8	29.0	10.1	1.3	59.6	11.5	34.6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8.8	62.6	16.1	11.2	1.2	71.5	12.4	33.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0.4	46.1	24.6	17.0	1.9	56.5	18.9	38.5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5.4	42.3	34.4	17.1	0.8	47.7	17.9	41.4		
종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2,217	6.6	40.8	30.4	20.6	1.5	47.5	22.1	42.4	
	5 ~ 19인	16,213	8.8	41.8	30.1	17.4	1.9	50.6	19.3	40.5	
	20 ~ 49인	2,634	7.9	42.3	31.4	15.6	2.7	50.2	18.4	40.7	
	50 ~ 99인	628	7.1	37.9	36.0	17.6	1.4	45.0	19.0	42.1	
	100인 이상	426	9.7	46.8	27.0	13.9	2.7	56.4	16.5	38.3	
별 역 역 별	수도권	26,182	7.6	38.0	32.4	20.2	1.7	45.7	21.9	42.6	
	경남권	6,429	5.1	45.9	29.2	17.4	2.4	51.0	19.8	41.5	
	경북권	3,348	11.7	46.2	26.8	14.4	0.9	57.9	15.3	36.7	
	전라권	3,236	7.1	50.7	23.1	17.4	1.6	57.9	19.0	38.9	
	충청권	2,923	8.4	44.5	27.5	17.8	1.8	52.9	19.6	40.0	

<표 126> 일반 중소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부분(3)남성위주의 네트워크 운영으로 여성의 참여 제한

(단위: 개사, %, 점)

구분		사례 수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②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느낀다	⑤ 많이 느낀다	①+② 불리함을 느끼지 않음	④+⑤ 불리함을 느낀다	100점 평균 (점)	
전체		42,118	7.7	34.6	35.8	19.1	2.9	42.2	22.0	43.8	
대부	제조업	7,459	8.8	29.4	37.4	21.9	2.5	38.2	24.5	45.0	
	비제조업	34,659	7.4	35.7	35.4	18.4	3.0	43.1	21.5	43.5	
세부 업종 별	제조업	식품/음료 제조	834	11.6	34.4	35.7	16.3	2.0	46.0	18.3	40.7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5.7	30.8	41.1	20.5	1.8	36.5	22.3	45.5
		기타 제조	5,822	8.8	28.5	37.1	22.9	2.7	37.3	25.7	45.6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6.7	34.7	39.7	16.0	2.9	41.5	18.8	43.4
		건설업	8,211	11.9	36.3	29.2	18.3	4.3	48.2	22.7	41.7
		도매 및 소매업	10,963	5.7	41.4	38.2	12.7	2.0	47.1	14.7	41.0
		운수업	1,954	1.8	24.7	40.4	27.7	5.4	26.5	33.1	52.6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6.2	33.8	39.8	18.5	1.6	40.0	20.1	43.9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9.3	39.5	30.7	17.5	3.0	48.8	20.5	41.3
		금융 및 보험업	769	5.7	29.5	36.3	27.1	1.4	35.2	28.5	47.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4.7	24.7	38.8	29.6	2.2	29.4	31.8	5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5.2	26.6	39.1	24.6	4.5	31.8	29.1	49.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7.3	31.5	35.1	24.2	2.0	38.7	26.2	45.5
		교육 서비스업	891	13.5	41.6	33.7	7.3	3.9	55.1	11.2	36.6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15.3	43.6	23.7	16.1	1.2	58.9	17.3	36.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3.0	40.7	26.0	18.5	1.9	53.7	20.4	38.9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2	38.4	43.1	15.4	1.9	39.6	17.3	44.6		
조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2,217	6.5	34.0	36.9	19.7	2.9	40.5	22.6	44.6	
	5 ~ 19인	16,213	9.4	35.8	34.0	18.0	2.8	45.2	20.7	42.2	
	20 ~ 49인	2,634	6.0	35.2	33.3	21.6	3.8	41.3	25.4	45.5	
	50 ~ 99인	628	8.2	25.0	46.6	15.4	4.7	33.2	20.1	45.9	
	100인 이상	426	7.6	29.1	42.9	17.0	3.3	36.8	20.3	44.8	
권 역 별	수도권	26,182	7.2	32.9	37.1	20.0	2.8	40.1	22.8	44.5	
	경남권	6,429	4.4	36.9	34.7	20.2	3.9	41.2	24.0	45.6	
	경북권	3,348	18.3	39.1	23.8	16.4	2.3	57.4	18.7	36.3	
	전라권	3,236	5.8	40.0	36.8	13.4	4.0	45.8	17.4	42.4	
	충청권	2,923	8.6	33.3	38.8	17.7	1.6	41.9	19.4	42.6	

<표 127> 일반 중소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부분-(4)소극적 경영으로 인한 사업기회 상실 우려

(단위: 개사, %, 점)

구 분		사례 수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②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느낀다	⑤ 많이 느낀다	①+② 불리함을 느끼지 않음	④+⑤ 불리함을 느낀다	100점 평균 (점)	
전 체		42,118	10.1	34.5	36.5	16.4	2.6	44.5	19.0	41.7	
대 부	제조업	7,459	9.3	31.4	37.9	19.4	2.1	40.7	21.4	43.4	
	비제조업	34,659	10.2	35.1	36.2	15.8	2.7	45.3	18.4	41.4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품/음료 제조	834	15.7	32.8	31.0	18.6	1.9	48.5	20.5	39.6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7.9	36.7	38.7	15.1	1.6	44.6	16.7	41.4
		기타 제조	5,822	8.6	30.5	38.8	20.0	2.1	39.0	22.2	44.2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4.7	35.8	39.6	17.9	2.0	40.5	19.9	44.1
		건설업	8,211	15.6	34.4	36.0	11.5	2.5	50.0	14.0	37.7
		도매 및 소매업	10,963	8.9	40.2	38.1	11.3	1.4	49.1	12.7	39.0
		운수업	1,954	4.0	29.3	36.5	26.8	3.4	33.3	30.2	49.1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5.5	31.4	40.5	20.4	2.1	36.9	22.6	45.6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9.2	45.8	35.4	7.2	2.5	55.0	9.7	37.0
		금융 및 보험업	769	9.5	26.2	38.5	21.8	4.0	35.7	25.8	46.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9.3	24.1	27.9	34.2	4.5	33.5	38.7	50.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6.0	22.0	43.6	21.9	6.5	28.1	28.3	50.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8.9	36.6	29.0	21.7	3.8	45.5	25.5	43.7
		교육 서비스업	891	19.8	35.4	28.3	15.7	0.7	55.2	16.4	35.5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18.6	49.1	13.4	16.6	2.4	67.7	19.0	33.8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5.6	34.5	31.6	16.1	2.3	50.0	18.4	38.8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6.0	31.3	46.1	15.2	1.4	37.3	16.6	43.7		
종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2,217	8.2	35.5	36.7	17.0	2.5	43.8	19.6	42.5	
	5 ~ 19인	16,213	12.7	33.5	36.3	15.2	2.3	46.2	17.5	40.3	
	20 ~ 49인	2,634	9.0	35.0	33.6	18.8	3.5	44.1	22.3	43.2	
	50 ~ 99인	628	9.5	27.3	41.9	18.9	2.4	36.8	21.3	44.4	
	100인 이상	426	11.7	22.8	47.9	11.1	6.4	34.5	17.5	44.4	
권 역 별	수도권	26,182	9.0	33.9	37.5	17.6	2.0	42.9	19.6	42.4	
	경남권	6,429	7.1	36.0	35.9	16.9	4.1	43.1	21.1	43.8	
	경북권	3,348	26.1	34.5	25.0	12.0	2.5	60.6	14.4	32.5	
	전라권	3,236	7.5	39.5	36.8	12.5	3.6	47.0	16.1	41.3	
	충청권	2,923	10.8	30.1	42.4	14.0	2.8	40.9	16.8	42.0	

<표 128> 일반 중소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부분-(5)가사, 자녀보육 추가 부담

(단위: 개사, %, 점)

구분		사례 수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②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느낀다	⑤ 많이 느낀다	①+② 불리함을 느끼지 않음	④+⑤ 불리함을 느낀다	100점 평균 (점)	
전체		42,118	7.4	30.2	32.3	24.6	5.6	37.6	30.1	47.7	
대분	제조업	7,459	6.6	32.8	30.3	24.3	5.9	39.4	30.3	47.5	
	비제조업	34,659	7.5	29.6	32.7	24.6	5.5	37.2	30.1	47.7	
세부업종	제조업	식품/음료 제조	834	9.5	35.4	25.7	23.6	5.8	44.9	29.4	45.2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8.1	47.8	29.1	14.4	0.7	55.8	15.1	38.0
		기타 제조	5,822	6.0	30.4	31.1	25.8	6.7	36.4	32.5	49.2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1.9	27.3	41.3	21.5	8.1	29.2	29.6	51.7
		건설업	8,211	15.9	25.1	32.3	21.6	5.1	41.0	26.7	43.7
		도매 및 소매업	10,963	3.3	35.2	34.3	24.4	2.7	38.6	27.1	47.0
		운수업	1,954	5.0	33.4	35.6	22.9	3.1	38.4	26.0	46.4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5.5	28.5	27.4	27.7	10.8	34.1	38.5	52.4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3.6	42.9	28.1	21.4	3.9	46.5	25.4	44.8
		금융 및 보험업	769	9.2	18.5	20.8	35.7	15.8	27.7	51.5	57.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11.3	26.1	24.4	24.1	14.1	37.4	38.2	50.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4.1	15.8	39.4	25.6	15.0	20.0	40.6	57.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5.5	27.2	31.3	32.9	3.1	32.7	36.0	50.2
		교육 서비스업	891	12.4	32.8	30.8	20.3	3.6	45.2	23.9	42.5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1.4	58.6	17.4	18.7	3.8	60.0	22.6	41.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0.9	39.0	29.5	18.6	1.9	49.9	20.6	40.4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3	23.6	42.6	26.5	6.0	24.9	32.5	53.1		
조사자 규모	5인 미만	22,217	6.7	28.5	33.2	24.7	6.8	35.3	31.5	49.1	
	5 ~ 19인	16,213	8.4	32.7	30.5	24.4	4.0	41.1	28.4	45.7	
	20 ~ 49인	2,634	7.3	30.7	31.8	24.9	5.4	38.0	30.2	47.6	
	50 ~ 99인	628	5.1	22.2	44.8	24.7	3.3	27.3	28.0	49.7	
	100인 이상	426	5.7	29.2	38.9	20.3	6.0	34.9	26.2	47.9	
지역	수도권	26,182	4.3	32.1	33.7	23.7	6.3	36.4	30.0	48.9	
	경남권	6,429	8.0	27.5	30.7	30.1	3.7	35.5	33.7	48.5	
	경북권	3,348	31.1	23.6	24.0	20.1	1.2	54.7	21.4	34.2	
	전라권	3,236	7.1	30.3	33.6	24.1	4.9	37.4	29.0	47.4	
	충청권	2,923	6.8	26.4	31.7	26.1	9.0	33.2	35.1	51.1	

<표 129> 일반 중소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부분-(6)금융업무 수행과정 시 불리함

(단위: 개사 %, 점)

구 분		사례 수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②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느낀다	⑤ 많이 느낀다	①+② 불리함을 느끼지 않음	④+⑤ 불리함을 느낌	100점 평균 (점)	
전 체		42,118	10.1	38.9	32.9	16.0	2.1	49.0	18.1	40.3	
세 부	제조업	7,459	8.3	37.2	34.3	17.9	2.4	45.5	20.2	42.2	
	비제조업	34,659	10.5	39.3	32.6	15.6	2.0	49.8	17.6	39.9	
세 부	제조업	식품/음료 제조	834	9.5	43.3	29.8	17.2	0.2	52.8	17.4	38.8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6.5	43.3	42.5	6.9	0.7	49.8	7.6	38.0
		기타 제조	5,822	8.4	35.4	33.8	19.5	2.9	43.8	22.4	43.3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8.3	45.6	35.4	9.4	1.2	53.9	10.7	37.4
		건설업	8,211	17.2	38.7	28.7	13.9	1.5	55.8	15.5	36.0
		도매 및 소매업	10,963	8.4	42.9	36.7	10.4	1.6	51.3	12.0	38.5
		운수업	1,954	6.9	34.0	31.4	23.1	4.6	40.9	27.7	46.1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5.5	43.9	26.5	22.8	1.3	49.4	24.0	42.6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5.2	45.0	34.5	13.9	1.3	50.2	15.2	40.3
		금융 및 보험업	769	8.5	32.9	27.2	26.7	4.8	41.4	31.4	46.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14.2	24.6	30.0	31.0	0.3	38.8	31.3	44.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6.7	29.8	37.8	19.7	5.9	36.6	25.7	47.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7.2	40.3	31.6	19.8	1.1	47.5	20.9	41.8
		교육 서비스업	891	18.1	37.6	27.8	12.7	3.8	55.7	16.5	36.6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14.9	52.6	14.8	15.3	2.5	67.5	17.7	34.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5.8	46.4	19.9	15.9	1.9	62.2	17.9	35.4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5.9	45.7	34.6	13.8	0.0	51.6	13.8	39.1		
중 사 자 구 모	5인 미만	22,217	8.2	38.4	34.1	16.7	2.6	46.6	19.3	41.8	
	5 ~ 19인	16,213	12.7	40.0	31.4	14.6	1.4	52.7	16.0	38.0	
	20 ~ 49인	2,634	10.8	37.5	29.6	20.6	1.5	48.3	22.1	41.1	
	50 ~ 99인	628	8.7	30.2	45.6	13.1	2.4	38.9	15.5	42.6	
	100인 이상	426	8.5	43.7	32.2	12.9	2.6	52.2	15.6	39.4	
지 역	수도권	26,182	7.5	35.7	37.5	17.0	2.3	43.2	19.3	42.7	
	경남권	6,429	7.2	46.3	27.8	17.2	1.4	53.5	18.6	39.8	
	경북권	3,348	33.2	39.7	20.3	6.0	0.8	72.9	6.8	25.4	
	전라권	3,236	12.4	44.1	26.4	15.6	1.4	56.5	17.0	37.4	
	충청권	2,923	10.9	44.2	24.6	16.7	3.7	55.0	20.4	39.5	

7. 여성기업인으로써 겪는 차별 대우에 대한 경험 유무

- 여성기업인의 대부분(93.8%)은 여성으로서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과거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 대비, 2012년 여성기업체 조사에서는 여성기업인으로써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그림 96) 여성기업인으로써 겪는 차별 대우에 대한 경험 유무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보면, 여성기업인이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은 제조업(7.1%)이 비제조업(6.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기타 제조'(7.8%), 비제조업에서는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11.2%), '건설업'(9.7%)에서 여성기업인으로써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 대체로,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차별대우 경험이 있는 비중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임

<표 130> 여성기업인으로써 겪는 차별 대우에 대한 경험 유무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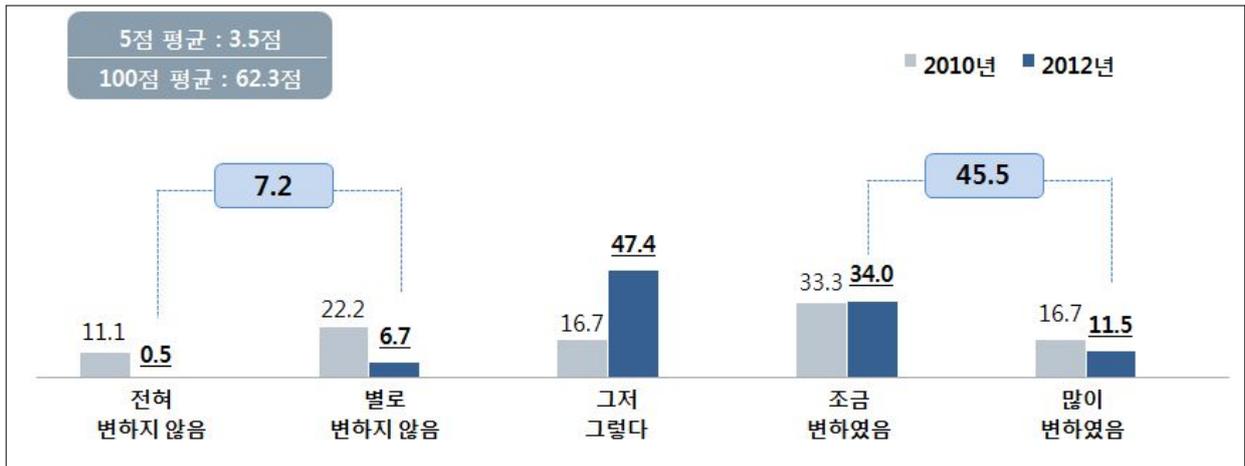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차별대우 경험 있음	차별대우 경험 없음	
전 체		42,118	6.2	93.8	
부 업	제조업	7,459	7.1	92.9	
	비제조업	34,659	6.0	94.0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4.3	95.7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4.8	95.2
		기타 제조	5,822	7.8	92.2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8.7	91.3
		건설업	8,211	9.7	90.3
		도매 및 소매업	10,963	2.7	97.3
		운수업	1,954	9.3	90.7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4.2	95.8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4.9	95.1
		금융 및 보험업	769	5.2	94.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6.1	93.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5.6	94.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6.3	93.7
		교육 서비스업	891	7.6	92.4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11.2	88.8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6.2	93.8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4.0	96.0
		중 사 자 구 모 별	5인 미만	22,217	6.2
5 ~ 19인	16,213		6.1	93.9	
20 ~ 49인	2,634		7.3	92.7	
50 ~ 99인	628		5.5	94.5	
100인 이상	426		3.3	96.7	
관 도 지 별	수도권	26,182	6.4	93.6	
	경남권	6,429	5.0	95.0	
	경북권	3,348	7.2	92.8	
	전라권	3,236	5.6	94.4	
	충청권	2,923	6.0	94.0	

8. 과거 대비 여성기업인에 대한 인식 변화정도

- 과거 대비 여성기업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변화되었다고 인식하는지 조사한 결과, 여성기업인의 45.5%는 '변하였다'(조금 변하였음+많이 변하였음)고 응답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음
-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에서는 '변하였다'는 응답이 50.0%, '변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3.3%로 나타났지만, '12년 여성 기업체 대상 조사에서는 '변하였다'가 45.5%, '변하지 않았다'가 7.2%로 다소 차이 보임. 한편, 2012년 조사결과에서는 '그저 그렇다'(47.4%)의 비중이 매우 높음

(그림 97) 과거 대비 여성기업인에 대한 인식 변화정도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비제조업(46.7%)이 제조업(39.3%)에 비해 과거 대비 여성기업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변하였음'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7.4%p)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 제조업'(47.2%), 비제조업에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6.5%)에서 타 업종에 비해 과거 대비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변하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31> 과거 대비 여성기업인에 대한 인식 변화정도

(단위: 개사, %, 점)

구 분		사례 수	① 전혀 변하지 않음	② 별로 변하지 않음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변하 였음	⑤ 많이 변하 였음	①+② 변하지 않음	④+⑤ 변하 였음	100점 평균 (점)	
전 체		42,118	0.5	6.7	47.4	34.0	11.5	7.2	45.5	62.3	
대부	제조업	7,459	0.3	4.4	56.0	28.2	11.1	4.7	39.3	61.4	
	비제조업	34,659	0.5	7.2	45.5	35.2	11.5	7.8	46.7	62.5	
세부 업종 별	제조업	식품/음료 제조	834	0.0	6.8	59.6	19.6	14.0	6.8	33.6	60.2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1.1	3.6	48.0	41.0	6.2	4.8	47.2	61.9
		기타 제조	5,822	0.2	4.2	56.6	27.6	11.4	4.4	39.0	61.5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0.0	6.2	51.0	27.3	15.5	6.2	42.8	63.0
		건설업	8,211	0.0	6.4	39.7	40.7	13.2	6.4	54.0	65.2
		도매 및 소매업	10,963	0.5	5.6	49.2	32.1	12.7	6.1	44.7	62.7
		운수업	1,954	0.5	16.4	40.9	34.8	7.4	16.9	42.2	58.1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0.0	6.6	47.7	37.3	8.3	6.6	45.6	61.8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0.0	1.4	51.0	32.0	15.6	1.4	47.5	65.4
		금융 및 보험업	769	0.0	4.5	45.9	36.2	13.4	4.5	49.6	64.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2.4	8.6	50.7	30.3	8.0	11.0	38.3	58.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1.0	3.6	56.5	30.4	8.4	4.6	38.8	60.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1.0	16.0	38.7	37.6	6.8	17.0	44.4	58.3
		교육 서비스업	891	0.7	5.7	37.6	45.1	10.9	6.3	56.1	65.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0.0	7.4	26.0	30.1	36.4	7.4	66.5	73.9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0	10.3	30.4	42.3	16.0	11.3	58.3	65.5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0.8	3.0	52.3	31.0	12.9	3.8	43.9	63.0		
조사 자 규모 별	5인 미만	22,217	0.7	7.7	48.6	33.3	9.7	8.4	43.0	60.9	
	5 ~ 19인	16,213	0.2	5.3	46.4	34.1	14.0	5.5	48.1	64.1	
	20 ~ 49인	2,634	0.6	8.2	42.1	38.4	10.7	8.8	49.1	62.6	
	50 ~ 99인	628	0.0	6.5	45.0	38.0	10.5	6.5	48.5	63.1	
	100인 이상	426	0.5	2.5	56.9	31.1	9.1	3.0	40.1	61.4	
별 역 권	수도권	26,182	0.4	4.8	52.6	28.9	13.3	5.2	42.2	62.5	
	경남권	6,429	0.9	11.9	36.6	42.8	7.8	12.8	50.6	61.2	
	경북권	3,348	0.2	8.8	31.2	46.5	13.4	9.0	59.8	66.0	
	전라권	3,236	0.8	11.1	39.4	41.7	7.1	11.8	48.7	60.8	
	충청권	2,923	0.0	5.9	51.8	36.8	5.4	5.9	42.2	60.4	

제8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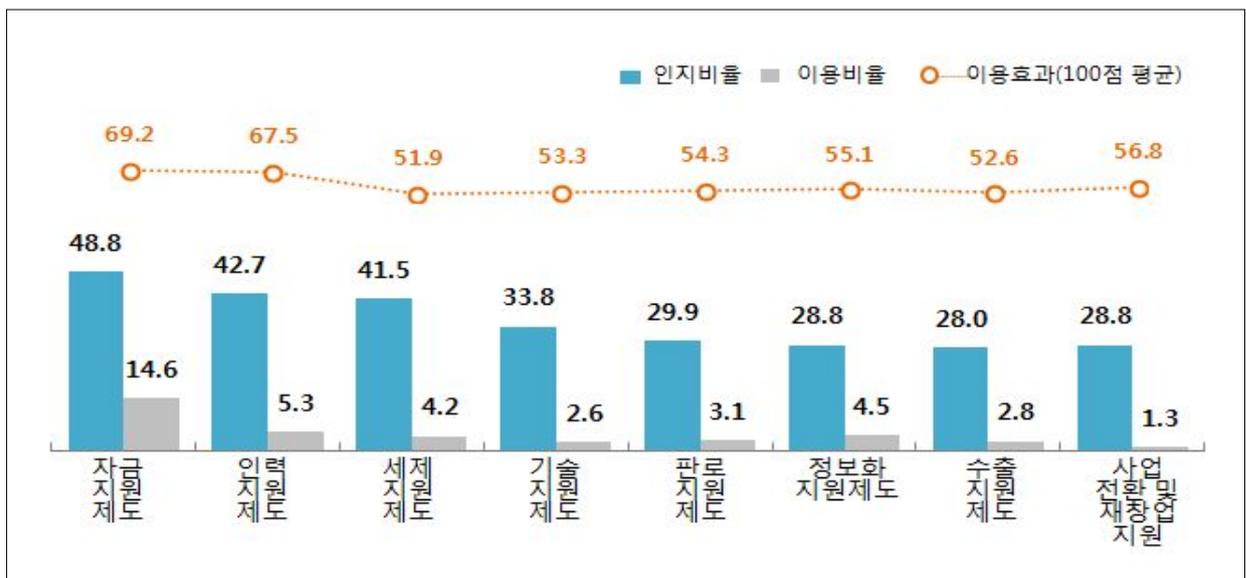
여성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정책 인식

1. 정부의 기업 활동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 여성기업체의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률은 모든 정책분야에서 50% 미만으로 다소 낮은 수준임
-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 중 자금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력지원 제도(42.7%), 세제지원 제도(41.5%), 기술지원 제도(33.8%) 등의 순임
- 여성기업들의 지원 제도 이용률 또한 자금지원 제도가 1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력지원 제도(5.3%), 세제지원 제도(4.2%), 기술 지원 제도(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원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들의 이용 효과는 100점 평균 기준으로 자금지원 제도가 69.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력지원 제도(67.5점), 사업전환 및 재창업 지원 제도(56.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자금과 인력 지원 제도외의 정책이용 효과는 대략 50점대로 보통수준임

(그림 98)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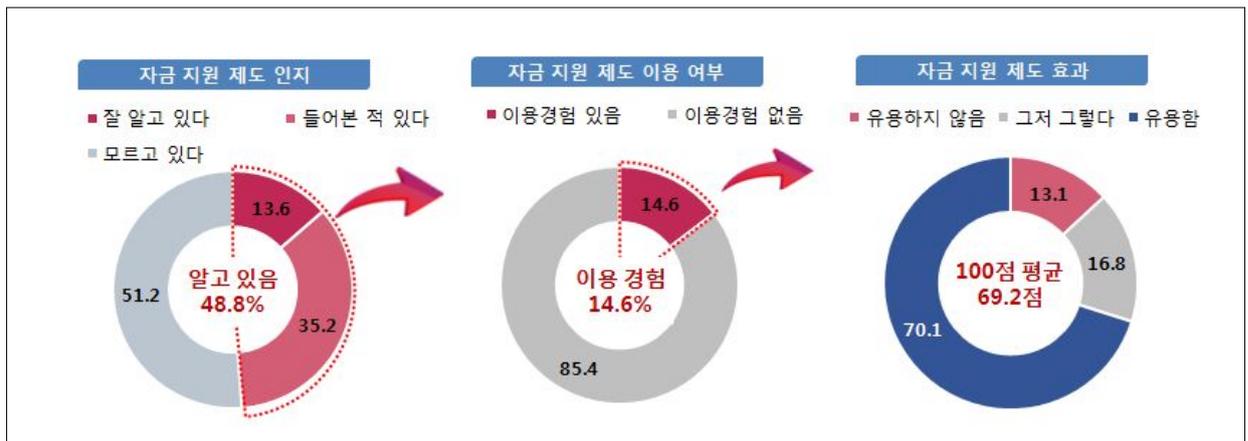
(단위: %)



가. 자금 지원 제도

- 여성기업체의 48.8%는 정부의 자금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음¹⁾’으로 응답하였으며, 이 중, 14.6%는 해당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지원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받은 여성기업의 70.1%가 ‘유용함²⁾’이라고 응답함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섬유/의복/가방/신발’제조에서 자금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율(61.1%) 및 이용률(43.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제도 인지율은 건설업(58.8%)에서 가장 높으나, 이용률은 ‘숙박 및 음식점업’(30.0%)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99)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1)자금 지원 제도 (단위: %)



나. 인력 지원 제도

- 여성기업체의 42.7%는 정부의 기업 활동 지원정책 중 인력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음’으로 응답하였으며, 이 중 10.1%는 제도를 ‘잘 알고 있음’으로 응답함
- 한편, 인력지원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여성기업 중 5.3%만이 해당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여 이용률이 낮은 편이었음. 한편, 이용효과에 대해서는 이용 경험이 있는 업체의 62.6%가 ‘유용함’으로 응답함

1) 잘 알고 있음+들어본 적 있음

2) 다소 유용함+매우 유용함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인력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섬유/의복/가방/신발'제조(51.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용률은 '식료품/음료 제조'(11.8%)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제도 인지율(61.4%) 및 이용률(12.4%) 모두 높게 나타남

(그림 100)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2)인력 지원 제도 (단위: %)



다. 세제 지원 제도

- 여성기업체의 41.5%는 정부의 기업 활동 지원정책 중 세제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음'으로 응답하였으며, 이 중 10.4%는 제도를 '잘 알고 있음'으로 응답함
- 세제지원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여성기업의 4.2%만이 해당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보임. 한편, 이용효과에 대해서는 이용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 중, 39.8%가 해당 지원제도를 '유용함'으로 응답함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섬유/의복/가방/신발'제조에서 세제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률(52.9%) 및 이용률(27.9%)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제조업의 경우는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53.6%)에서 제도 인지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률은 '교육서비스업'(6.5%)에서 가장 높음

(그림 101)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3)세제 지원 제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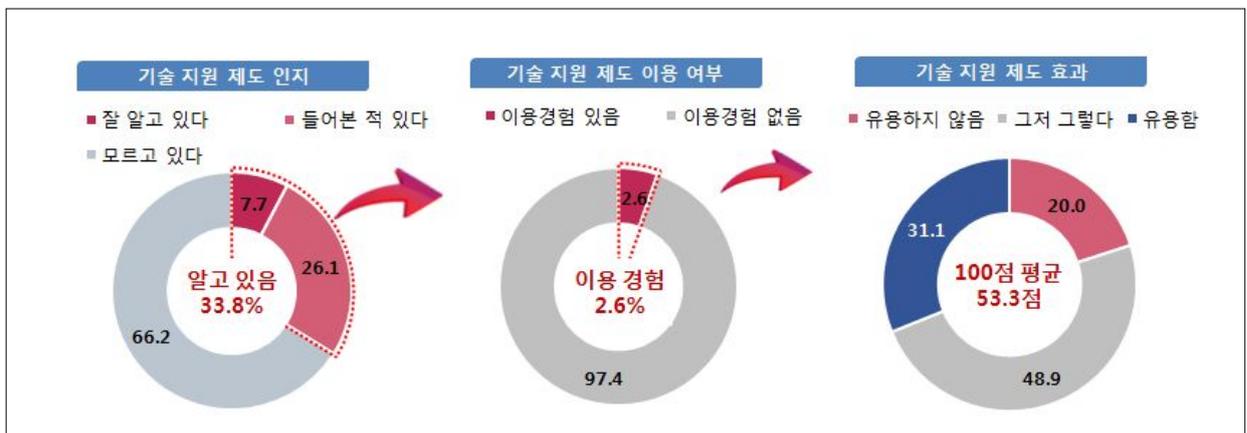


라. 기술 지원 제도

- 여성기업체의 33.8%는 정부의 기업 활동 지원정책 중 기술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음’으로 응답하였으며, 이 중 7.7%가 제도를 ‘잘 알고 있음’으로 응답함
- 기술지원 제도를 알고 있는 여성기업의 2.6%만이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 업체(97.4%)가 해당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업체의 31.1%가 해당 지원제도를 ‘유용함’으로 응답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섬유/의복/가방/신발’제조에서 기술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율(38.9%) 및 이용률(19.1%)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제조업의 경우는 ‘건설업’(47.4%)에서 기술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용률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4.7%)에서 가장 높음

(그림 102)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4)기술지원 제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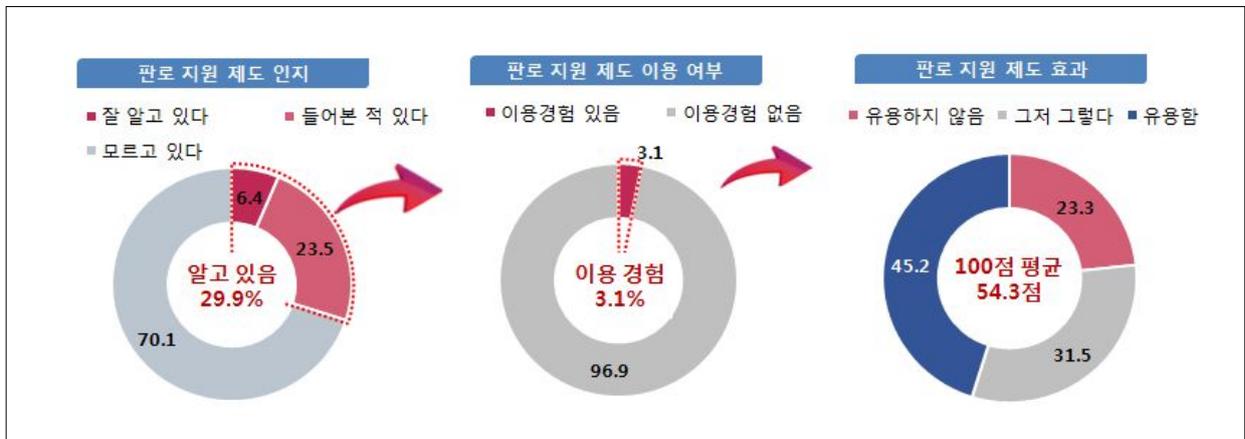


마. 판로지원 제도

- 여성기업체의 29.9%는 정부의 기업 활동 지원정책 중 판로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음’으로 응답하였으며, 이 중 6.4%만이 제도를 ‘잘 알고 있음’으로 응답함
- 판로지원 제도를 알고 있는 여성기업의 3.1%만이 해당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여 대부분의 응답 업체(96.9%)가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업체의 45.2%가 해당 지원제도를 ‘유용함’으로 응답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섬유/의복/가방/신발’제조업에서 판로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율(38.6%) 및 이용률(26.0%)이 가장 높음
 - 비제조업 중에서는 ‘출판/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43.2%)에서 인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률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6%)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3)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5)판로 지원 제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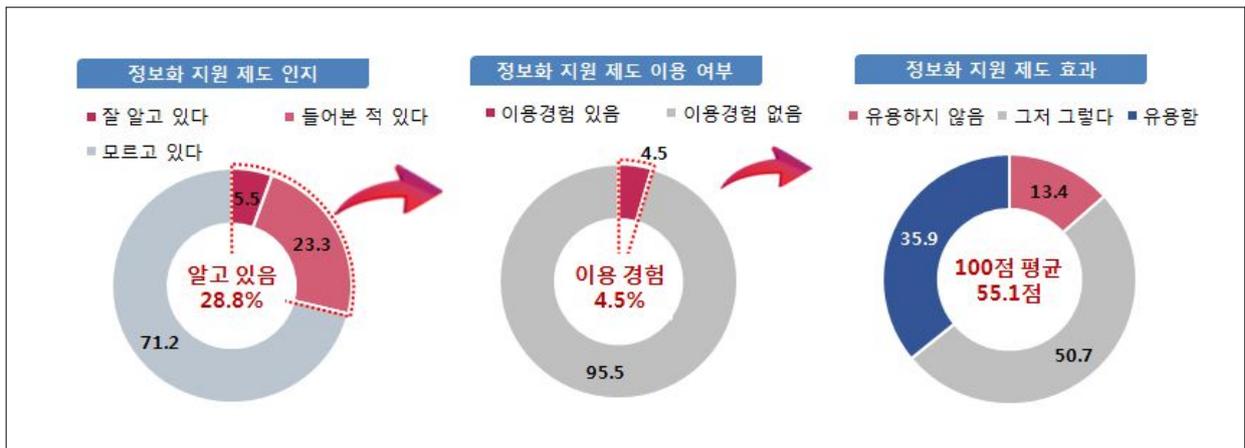
바. 정보화 지원 제도

- 여성기업체의 28.8%는 정부의 기업 활동 지원정책 중 정보화 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음’으로 응답하였으며, 이 중 5.5%가 제도를 ‘잘 알고 있음’으로 응답함
- 정보화 지원 제도를 알고 있는 여성기업의 4.5%만이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여 대부분의 응답업체(95.5%)가 해당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업체의 35.9%가 해당 지원제도를 ‘유용함’으로 응답하였음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기타제조'(34.9%)에서 정보화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용률은 '섬유/의복/가방/신발'제조(18.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제조업의 경우는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48.4%)에서 인지율이 가장 높으나, 제도 이용률은 '숙박 및 음식점업'(14.8%)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4)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6)정보화 지원 제도

(단위: %)



사. 수출지원 제도

- 여성기업체의 28.0%는 정부의 기업 활동 지원정책 중 수출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음'으로 응답하였으며, 이 중 5.1%가 제도를 '잘 알고 있음'으로 응답함
- 수출지원 제도를 알고 있는 여성기업의 2.8%만이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여, 대부분의 응답 업체(97.2%)가 해당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제도 이용효과에 대해서는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업체 중, 42.8%가 해당 지원제도를 '유용함'으로 응답하였음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기타 제조'(33.3%)에서 인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용률은 '섬유/의복/가방/신발'(18.4%)제조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제조업의 경우는 제도 인지율은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44.0%)에서 높으나, 이용률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2.1%)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105)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7)수출 지원 제도

(단위: %)



아. 사업 전환 및 재창업 지원 제도

- 여성기업체의 28.8%는 정부의 기업 지원정책 중 사업전환 및 재창업 지원제도에 대해 '알고있음'으로 응답하였으며, 이 중 4.5%가 제도를 '잘 알고 있음'으로 응답
- 사업 전환 및 재창업 지원 제도를 알고 있는 여성기업의 1.3% 만이 해당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여, 지원정책 분야 중 제도 이용률이 가장 낮음. 한편,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업체의 39.2%만이 해당 지원제도가 유용하다고 응답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기타 제조'(33.6%)에서 인지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용률은 '섬유/의복/가방/신발'제조(9.2%)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제조업의 경우, 인지율은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43.7%)에서 가장 높으며, 이용률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8.5%)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106)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8)사업 전환 및 재창업 지원 제도

(단위: %)



<표 132>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 (1)자금 지원 제도

(단위: 개사 %)

구분	사례 수	인지여부			이용여부		효과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르고 있다	있다	없다	유용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유용함		
전체	42,118	13.6	35.2	51.2	14.6	85.4	13.1	16.8	70.1		
전체	제조업	7,459	15.0	38.1	46.9	21.1	78.9	22.5	16.4	61.1	
	비제조업	34,659	13.3	34.5	52.2	13.1	86.9	9.5	17.0	73.5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15.8	34.1	50.1	21.9	78.1	0.0	33.4	66.6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13.2	47.9	38.9	43.1	56.9	66.7	10.9	22.3	
	기타 제조	5,822	15.1	37.3	47.5	17.4	82.6	8.8	15.7	75.5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14.4	42.1	43.5	19.6	80.4	25.7	17.0	57.3
		건설업	8,211	17.1	41.7	41.1	11.3	88.7	5.0	22.8	72.2
		도매 및 소매업	10,963	12.6	30.2	57.2	13.8	86.2	12.2	13.0	74.8
		운수업	1,954	10.6	33.3	56.1	14.3	85.7	9.6	9.5	80.9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13.5	36.1	50.3	30.0	70.0	9.3	23.6	67.1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7.1	35.5	47.4	4.8	95.2	10.7	18.0	71.3
		금융 및 보험업	769	10.1	26.0	64.0	12.5	87.5	0.0	0.0	1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8.9	38.2	52.9	7.0	93.0	18.7	0.0	8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11.9	30.9	57.2	18.8	81.2	0.0	26.8	73.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10.8	33.8	55.4	10.6	89.4	0.0	13.7	86.3
		교육 서비스업	891	9.5	29.4	61.1	20.7	79.3	54.8	7.1	38.1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20.8	36.9	42.3	19.8	80.2	0.0	10.5	89.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0.4	31.7	57.9	20.6	79.4	21.9	29.8	48.3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2.2	35.9	51.9	12.8	87.2	0.0	12.6	87.4	
중소기업	5인 미만	22,217	12.7	33.1	54.2	11.3	88.7	16.0	12.5	71.5	
	5 ~ 19인	16,213	14.5	37.4	48.1	17.6	82.4	10.0	19.3	70.7	
	20 ~ 49인	2,634	15.5	37.1	47.4	18.3	81.7	18.2	18.9	62.9	
	50 ~ 99인	628	13.6	43.4	43.0	19.3	80.7	19.4	21.4	59.2	
	100인 이상	426	12.4	34.3	53.2	22.9	77.1	4.8	25.0	70.2	
지역별	수도권	26,182	10.1	32.2	57.6	15.7	84.3	20.1	21.2	58.7	
	경남권	6,429	19.2	37.3	43.5	13.2	86.8	2.2	7.0	90.8	
	경북권	3,348	23.5	43.7	32.8	12.0	88.0	0.0	7.4	92.6	
	전라권	3,236	18.7	38.5	42.8	13.9	86.1	0.0	8.0	92.0	
	충청권	2,923	15.2	43.3	41.4	14.8	85.2	13.1	24.4	62.5	

<표 133>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 (2)인력 지원 제도

(단위: 기사 %)

구 분		사례 수	인지여부			이용여부		효과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르고 있다	있다	없다	유용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유용함	
전 체		42,118	10.1	32.6	57.3	5.3	94.7	10.8	26.6	62.6	
전 부	제조업	7,459	11.8	35.4	52.8	8.5	91.5	9.8	28.1	62.2	
	비제조업	34,659	9.8	32.0	58.2	4.6	95.4	11.2	26.0	62.7	
세 부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11.1	26.5	62.4	11.8	88.2	0.0	42.5	57.5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7.2	43.9	48.9	10.1	89.9	41.7	15.8	42.6
		기타 제조	5,822	12.6	35.5	51.9	7.9	92.1	5.4	27.9	66.6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11.2	40.9	47.9	4.9	95.1	14.3	52.2	33.6
		건설업	8,211	13.1	39.0	48.0	3.8	96.2	16.9	33.1	50.0
		도매 및 소매업	10,963	7.9	28.1	64.0	4.4	95.6	15.0	22.0	63.0
		운수업	1,954	12.9	30.4	56.7	6.1	93.9	19.3	33.4	47.3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4.9	32.5	62.6	7.2	92.8	0.0	100.0	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6.8	37.1	46.1	8.2	91.8	12.1	16.3	71.6
		금융 및 보험업	769	4.8	23.7	71.6	4.2	95.8	0.0	0.0	1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4.4	40.1	55.5	0.7	99.3	0.0	0.0	1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9.4	29.0	61.6	6.9	93.1	0.0	3.4	96.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8.6	25.3	66.1	3.6	96.4	0.0	14.3	85.7
		교육 서비스업	891	8.3	22.9	68.9	4.0	96.0	0.0	0.0	100.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12.4	49.0	38.7	12.4	87.6	0.0	15.8	84.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1.0	30.4	58.6	9.1	90.9	0.0	35.7	64.3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7.6	40.6	51.8	1.5	98.5	0.0	42.1	57.9		
조사자 규모	5인 미만	22,217	8.6	30.2	61.3	4.5	95.5	16.5	15.1	68.3	
	5 ~ 19인	16,213	11.7	35.1	53.1	5.4	94.6	5.3	36.7	58.0	
	20 ~ 49인	2,634	13.6	35.7	50.6	8.5	91.5	7.1	27.7	65.2	
	50 ~ 99인	628	11.0	40.2	48.8	12.6	87.4	19.9	20.6	59.5	
	100인 이상	426	9.4	34.5	56.1	6.3	93.7	18.5	62.9	18.5	
권역	수도권	26,182	6.6	27.9	65.5	6.0	94.0	13.5	31.8	54.7	
	경남권	6,429	16.6	38.8	44.6	4.4	95.6	1.7	27.3	71.0	
	경북권	3,348	23.4	38.0	38.6	3.3	96.7	0.0	18.2	81.8	
	전라권	3,236	13.0	44.9	42.1	6.5	93.5	0.0	13.6	86.4	
	충청권	2,923	9.2	41.5	49.2	4.5	95.5	40.6	15.5	44.0	

<표 134>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 (3)세제 지원 제도

(단위: 개사 %)

구분	사례 수	인지여부			이용여부		효과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르고 있다	있다	없다	유용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유용함		
전체	42,118	10.4	31.1	58.5	4.2	95.8	25.4	34.8	39.8		
전체	제조업	7,459	10.9	35.1	54.0	7.7	92.3	14.7	59.4	25.9	
	비제조업	34,659	10.3	30.2	59.4	3.4	96.6	31.4	21.2	47.4	
세부업종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7.4	38.7	53.9	1.7	98.3	0.0	38.1	61.9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13.2	39.7	47.2	27.9	72.1	25.0	75.0	0.0
		기타 제조	5,822	11.1	34.0	54.9	5.3	94.7	6.6	47.0	46.4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11.9	40.7	47.3	2.1	97.9	32.6	67.4	0.0
		건설업	8,211	15.0	37.2	47.7	1.3	98.7	50.9	41.8	7.3
		도매 및 소매업	10,963	9.9	25.6	64.5	5.5	94.5	48.7	0.0	51.3
		운수업	1,954	7.6	30.3	62.1	3.9	96.1	15.5	59.4	25.1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7.1	29.3	63.6	4.7	95.3	0.0	100.0	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5.6	33.7	50.7	5.5	94.5	19.8	50.5	29.7
		금융 및 보험업	769	3.6	26.4	70.1	2.4	97.6	0.0	0.0	1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3.6	38.3	58.1	0.0	100.0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8.9	26.2	64.9	3.5	96.5	0.0	0.0	10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8.1	27.0	64.9	4.4	95.6	0.0	32.5	67.5
		교육 서비스업	891	6.9	21.3	71.8	6.5	93.5	0.0	0.0	100.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12.3	41.3	46.4	2.2	97.8	0.0	0.0	10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0.4	25.5	64.1	1.5	98.5	100.0	0.0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5.8	31.4	62.8	0.8	99.2	0.0	0.0	100.0		
조사자 규모	5인 미만	22,217	8.8	29.6	61.6	3.6	96.4	44.4	17.0	38.6	
	5 ~ 19인	16,213	12.1	32.7	55.2	4.5	95.5	10.4	49.9	39.7	
	20 ~ 49인	2,634	14.1	32.8	53.1	5.2	94.8	17.4	38.6	44.0	
	50 ~ 99인	628	9.3	34.6	56.1	10.5	89.5	9.3	47.3	43.5	
	100인 이상	426	10.3	30.7	59.0	6.0	94.0	20.7	39.6	39.6	
권역	수도권	26,182	7.5	27.1	65.4	6.8	93.2	26.1	38.9	35.0	
	경남권	6,429	13.5	34.6	51.9	2.0	98.0	0.0	20.5	79.5	
	경북권	3,348	24.3	41.0	34.7	0.0	100.0	-	-	-	
	전라권	3,236	12.6	36.2	51.3	0.9	99.1	0.0	15.8	84.2	
	충청권	2,923	11.8	41.6	46.6	3.0	97.0	57.7	7.4	35.0	

<표 135>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 (4)기술 지원 제도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인지여부			이용여부		효과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르고 있다	있다	없다	유용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유용함	
전 체		42,118	7.7	26.1	66.2	2.6	97.4	20.0	48.9	31.1	
전 부	제조업	7,459	8.0	30.0	62.0	6.3	93.7	11.6	56.1	32.3	
	비제조업	34,659	7.7	25.2	67.1	1.7	98.3	27.9	42.2	29.9	
세 부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7.8	25.7	66.6	6.2	93.8	0.0	76.9	23.1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4.5	34.4	61.1	19.1	80.9	19.7	50.9	29.4
		기타 제조	5,822	8.5	30.1	61.5	4.6	95.4	8.9	55.6	35.5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11.6	34.0	54.4	0.0	100.0	-	-	-
		건설업	8,211	11.9	35.5	52.6	1.4	98.6	50.9	49.1	0.0
		도매 및 소매업	10,963	5.8	20.0	74.2	1.2	98.8	75.1	24.9	0.0
		운수업	1,954	6.6	24.2	69.2	1.7	98.3	0.0	100.0	0.0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6.7	23.3	70.0	1.9	98.1	0.0	100.0	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4.9	32.0	53.1	2.1	97.9	0.0	72.9	27.1
		금융 및 보험업	769	5.6	19.2	75.3	1.9	98.1	0.0	0.0	1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4.6	26.0	69.4	1.0	99.0	0.0	0.0	1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6.3	23.5	70.2	4.4	95.6	0.0	43.1	56.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5.0	17.5	77.5	2.7	97.3	0.0	0.0	100.0
		교육 서비스업	891	2.6	23.9	73.5	0.0	100.0	-	-	-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6.0	21.0	73.0	0.0	100.0	-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8.1	20.7	71.2	4.7	95.3	0.0	100.0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6.8	24.4	68.8	2.5	97.5	0.0	0.0	100.0		
중 사 자 기 단	5인 미만	22,217	6.2	23.9	69.8	2.1	97.9	42.2	21.7	36.1	
	5 ~ 19인	16,213	9.7	28.4	62.0	2.6	97.4	4.4	70.3	25.3	
	20 ~ 49인	2,634	9.4	29.8	60.9	5.5	94.5	5.8	57.7	36.5	
	50 ~ 99인	628	5.6	28.5	65.9	4.1	95.9	30.8	51.7	17.5	
	100인 이상	426	4.9	24.0	71.1	5.4	94.6	32.8	32.8	34.3	
권 역	수도권	26,182	4.0	22.4	73.6	3.5	96.5	19.4	53.5	27.1	
	경남권	6,429	13.7	29.3	56.9	1.6	98.4	0.0	38.0	62.0	
	경북권	3,348	18.5	39.4	42.1	0.8	99.2	0.0	84.5	15.5	
	전라권	3,236	10.8	29.2	59.9	0.9	99.1	0.0	19.0	81.0	
	충청권	2,923	12.1	33.5	54.4	4.4	95.6	47.0	34.8	18.2	

<표 136>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 (5)판로 지원 제도

(단위: 개사 %)

구분	사례 수	인지여부			이용여부		효과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르고 있다	있다	없다	유용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유용함		
전체	42,118	6.4	23.5	70.1	3.1	96.9	23.3	31.5	45.2		
제조업	제조업	7,459	8.2	27.6	64.1	7.1	92.9	19.0	35.4	45.6	
	비제조업	34,659	6.0	22.6	71.4	2.0	98.0	27.6	27.6	44.7	
제조업	식품/음료 제조	834	6.4	25.9	67.8	7.3	92.7	0.0	87.6	12.4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7.9	30.7	61.4	26.0	74.0	44.8	34.3	20.9	
	기타 제조	5,822	8.5	27.5	64.0	4.3	95.7	0.0	25.0	75.0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9.7	29.6	60.7	0.9	99.1	0.0	0.0	100.0
		건설업	8,211	8.8	32.4	58.8	2.3	97.7	35.5	29.1	35.5
		도매 및 소매업	10,963	4.4	16.9	78.7	2.2	97.8	50.0	0.0	50.0
		운수업	1,954	3.1	16.6	80.3	0.9	99.1	0.0	100.0	0.0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4.7	19.7	75.6	2.6	97.4	0.0	0.0	10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3.2	30.0	56.9	2.3	97.7	0.0	72.9	27.1
		금융 및 보험업	769	3.2	21.8	75.0	0.0	100.0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4.6	20.1	75.3	0.0	100.0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5.2	22.7	72.1	2.0	98.0	0.0	0.0	10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5.0	19.9	75.1	0.6	99.4	0.0	0.0	100.0
		교육 서비스업	891	6.3	18.0	75.6	5.5	94.5	0.0	100.0	0.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6.0	17.3	76.7	0.0	100.0	-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5.8	23.2	71.1	5.6	94.4	0.0	66.8	33.2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4.2	20.5	75.3	0.0	100.0	-	-	-	
중소기업	5인 미만	22,217	5.3	21.6	73.1	3.1	96.9	32.2	10.3	57.5	
	5 ~ 19인	16,213	7.4	25.8	66.8	2.4	97.6	14.0	49.7	36.3	
	20 ~ 49인	2,634	9.8	24.4	65.9	6.0	94.0	18.1	50.3	31.6	
	50 ~ 99인	628	5.9	24.7	69.4	5.4	94.6	25.9	74.1	0.0	
	100인 이상	426	4.9	23.7	71.4	6.4	93.6	0.0	46.2	53.8	
지역별	수도권	26,182	3.6	18.2	78.2	4.5	95.5	24.2	36.5	39.4	
	경남권	6,429	9.6	30.0	60.4	0.6	99.4	0.0	38.2	61.8	
	경북권	3,348	17.5	37.9	44.7	1.1	98.9	0.0	49.9	50.1	
	전라권	3,236	10.5	27.5	62.0	0.4	99.6	0.0	0.0	100.0	
	충청권	2,923	7.0	35.6	57.4	6.9	93.1	31.8	12.8	55.4	

<표 137>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 (6)정보화 지원 제도

(단위: 기사 %)

구분	사례 수	인지여부			이용여부		효과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르고 있다	있다	없다	유용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유용함		
전체	42,118	5.5	23.3	71.2	4.5	95.5	13.4	50.7	35.9		
제조업	제조업	7,459	6.4	27.3	66.3	5.9	94.1	14.8	53.8	31.3	
	비제조업	34,659	5.3	22.4	72.2	4.2	95.8	12.9	49.6	37.5	
제조업	식품/음료 제조	834	4.7	22.2	73.1	7.0	93.0	0.0	84.4	15.6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2.9	29.9	67.2	18.1	81.9	31.4	68.6	0.0	
	기타 제조	5,822	7.2	27.7	65.1	4.2	95.8	8.2	39.8	51.9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11.0	32.4	56.6	10.6	89.4	35.4	16.5	48.1
		건설업	8,211	7.1	30.4	62.5	1.7	98.3	50.9	49.1	0.0
		도매 및 소매업	10,963	4.1	17.9	78.0	5.7	94.3	0.0	80.8	19.2
		운수업	1,954	2.0	21.5	76.5	10.0	90.0	9.8	21.8	68.4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4.9	19.6	75.5	14.8	85.2	15.5	31.0	53.5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3.5	34.9	51.6	3.4	96.6	0.0	83.6	16.4
		금융 및 보험업	769	2.6	17.6	79.8	0.0	100.0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3	22.6	77.1	4.0	96.0	32.5	0.0	67.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5.3	20.5	74.2	2.2	97.8	0.0	0.0	10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5.9	15.7	78.4	4.4	95.6	0.0	40.8	59.2
		교육 서비스업	891	3.8	22.8	73.3	5.1	94.9	0.0	0.0	100.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6.0	13.6	80.4	0.0	100.0	-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9.0	21.1	69.8	6.8	93.2	26.3	26.3	47.3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4.3	15.9	79.8	0.0	100.0	-	-	-		
조사자 규모별	5인 미만	22,217	4.6	22.1	73.3	3.9	96.1	16.0	42.4	41.6	
	5 ~ 19인	16,213	6.4	24.4	69.2	5.1	94.9	10.7	59.5	29.8	
	20 ~ 49인	2,634	7.9	27.2	64.9	5.0	95.0	20.8	53.3	26.0	
	50 ~ 99인	628	6.3	22.8	70.8	7.2	92.8	0.0	40.7	59.3	
	100인 이상	426	4.0	23.0	73.0	4.8	95.2	0.0	0.0	100.0	
권역별	수도권	26,182	3.6	18.8	77.6	7.7	92.3	10.3	53.0	36.7	
	경남권	6,429	8.5	28.3	63.2	1.4	98.6	0.0	69.0	31.0	
	경북권	3,348	11.5	38.9	49.6	0.4	99.6	0.0	100.0	0.0	
	전라권	3,236	7.8	25.7	66.5	1.9	98.1	0.0	0.0	100.0	
	충청권	2,923	6.5	32.2	61.4	3.3	96.7	74.2	25.8	0.0	

<표 138>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 (7)수출 지원 제도

(단위: 개사 %)

구분	사례 수	인지여부			이용여부		효과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르고 있다	있다	없다	유용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유용함		
전체	42,118	5.1	22.9	72.0	2.8	97.2	26.6	30.6	42.8		
전체	제조업	7,459	5.4	26.7	68.0	5.9	94.1	20.6	20.1	59.4	
	비제조업	34,659	5.1	22.1	72.8	2.1	97.9	31.0	38.2	30.8	
세부업종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2.0	25.0	73.0	3.0	97.0	0.0	41.6	58.4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2.1	25.7	72.1	18.4	81.6	36.5	8.0	55.5
		기타 제조	5,822	6.3	27.0	66.7	4.8	95.2	15.0	23.9	61.2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6.3	34.7	59.0	0.9	99.1	100.0	0.0	0.0
		건설업	8,211	7.9	32.1	60.1	2.4	97.6	35.5	29.1	35.5
		도매 및 소매업	10,963	3.6	16.0	80.4	2.4	97.6	50.0	50.0	0.0
		운수업	1,954	6.9	20.6	72.5	0.0	100.0	-	-	-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1.8	15.0	83.2	3.4	96.6	0.0	100.0	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9.6	34.4	56.0	1.0	99.0	0.0	40.7	59.3
		금융 및 보험업	769	2.6	18.5	78.9	0.0	100.0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2.4	20.3	77.2	3.9	96.1	33.3	66.7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4.8	21.9	73.3	2.8	97.2	0.0	0.0	10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3.4	16.9	79.7	0.7	99.3	0.0	0.0	100.0
		교육 서비스업	891	3.4	18.0	78.6	0.0	100.0	-	-	-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1.2	16.3	82.5	0.0	100.0	-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4.4	25.0	70.6	12.1	87.9	0.0	57.7	42.3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3.8	19.7	76.6	0.0	100.0	-	-	-		
조사자 규모	5인 미만	22,217	4.8	21.0	74.2	3.0	97.0	38.5	17.1	44.4	
	5 ~ 19인	16,213	5.4	24.9	69.7	2.2	97.8	16.6	48.2	35.2	
	20 ~ 49인	2,634	5.8	26.6	67.6	4.7	95.3	12.4	30.4	57.1	
	50 ~ 99인	628	4.4	27.7	67.9	4.4	95.6	0.0	82.7	17.3	
	100인 이상	426	6.4	20.4	73.2	4.8	95.2	0.0	23.7	76.3	
권역	수도권	26,182	3.4	17.4	79.2	4.4	95.6	25.5	23.7	50.7	
	경남권	6,429	8.3	28.1	63.6	1.6	98.4	0.0	84.1	15.9	
	경북권	3,348	8.9	44.3	46.9	0.2	99.8	0.0	0.0	100.0	
	전라권	3,236	8.7	27.3	64.0	1.8	98.2	0.0	56.1	43.9	
	충청권	2,923	5.3	31.7	63.0	2.9	97.1	88.6	4.9	6.5	

<표 139>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 (8)사업 전환 및 재창업 지원 제도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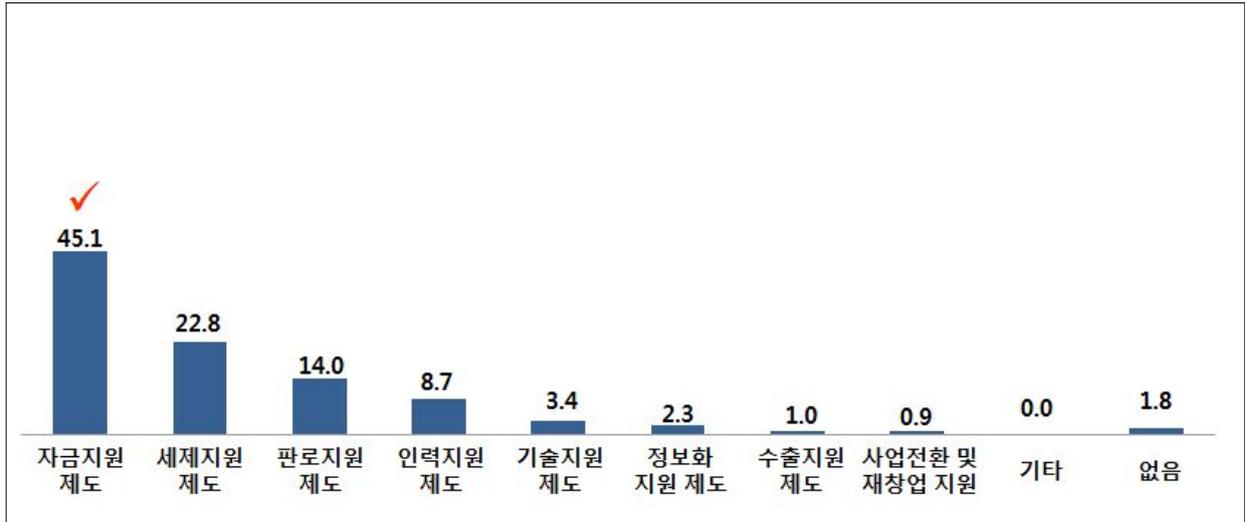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인지여부			이용여부		효과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르고 있다	있다	없다	유용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유용함		
전체	42,118	4.5	24.3	71.1	1.3	98.7	11.9	48.9	39.2		
전체	제조업	7,459	4.1	28.2	67.7	3.0	97.0	17.7	44.7	37.6	
	비제조업	34,659	4.6	23.5	71.9	0.8	99.2	6.5	52.8	40.7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2.5	28.9	68.6	2.5	97.5	0.0	0.0	100.0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1.2	22.8	76.0	9.2	90.8	33.7	66.3	0.0	
	기타 제조	5,822	4.7	28.9	66.4	2.5	97.5	14.3	43.0	42.7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7.0	30.9	62.1	0.0	100.0	-	-	-
		건설업	8,211	5.3	33.6	61.1	0.7	99.3	0.0	100.0	0.0
		도매 및 소매업	10,963	4.2	18.0	77.8	0.0	100.0	-	-	-
		운수업	1,954	4.0	19.5	76.5	0.9	99.1	0.0	0.0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2.7	15.7	81.6	6.2	93.8	0.0	100.0	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8.0	35.7	56.3	0.6	99.4	0.0	0.0	100.0
		금융 및 보험업	769	2.1	17.5	80.3	0.0	100.0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3.7	22.9	73.4	2.2	97.8	50.0	5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4.3	23.4	72.3	2.1	97.9	0.0	0.0	10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4.5	18.3	77.1	0.7	99.3	0.0	0.0	100.0
		교육 서비스업	891	5.0	19.5	75.5	0.0	100.0	-	-	-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7.3	27.4	65.3	0.0	100.0	-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6.6	20.8	72.6	8.5	91.5	0.0	35.0	65.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3.9	18.4	77.7	0.0	100.0	-	-	-		
중소기업	5인 미만	22,217	4.4	21.6	74.1	0.6	99.4	0.0	16.0	84.0	
	5 ~ 19인	16,213	4.8	27.9	67.3	2.0	98.0	17.2	65.3	17.5	
	20 ~ 49인	2,634	5.3	25.9	68.8	0.8	99.2	0.0	0.0	100.0	
	50 ~ 99인	628	3.1	27.5	69.4	2.1	97.9	0.0	0.0	100.0	
	100인 이상	426	1.5	19.2	79.2	0.0	100.0	-	-	-	
지역별	수도권	26,182	3.2	19.9	76.9	2.3	97.7	13.0	50.0	37.0	
	경남권	6,429	8.3	26.3	65.5	0.3	99.7	0.0	74.7	25.3	
	경북권	3,348	5.9	45.3	48.8	0.0	100.0	-	-	-	
	전라권	3,236	5.6	25.5	68.9	0.0	100.0	-	-	-	
	충청권	2,923	5.8	34.3	59.9	0.6	99.4	0.0	0.0	100.0	

2. 여성기업 성장을 위해 확충이 필요한 정부 정책

- 향후 여성기업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자금지원’ (45.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세제지원’(22.8%), ‘판로 지원’(14.0%) 등의 순임

(그림 107) 여성기업 성장을 위해 확충이 필요한 정부 정책

(단위: %)



- 업종 전반적으로 ‘자금지원 제도’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제조업과 비제조업 중에서는 비제조업(46.2%)이 제조업(40.1%)보다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음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섬유/의복/가방/신발’(50.3%), 비제조업의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5.2%)에서 ‘자금지원 제도’의 확충으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편임
 - 한편, 비제조업의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32.5%)은 ‘자금지원’(26.4%)보다 ‘세제지원’(32.5%)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인 업체에서는 ‘자금지원 제도’ 확충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100인 이상’의 업체에서는 ‘세제지원 제도’(33.9%)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40> 여성기업 성장을 위해 확충이 필요한 정부 정책 (1/2)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자금지원 제도	세제지원 제도	판로지원 제도	인력지원 제도	기술지원 제도	
전 체		42,118	45.1	22.8	14.0	8.7	3.4	
부 면	제조업	7,459	40.1	25.6	15.8	7.7	5.3	
	비제조업	34,659	46.2	22.2	13.6	8.9	3.0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38.3	23.7	21.9	8.5	1.8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50.3	21.1	15.7	5.2	1.5
		기타 제조	5,822	39.0	26.5	15.0	8.0	6.3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40.8	26.6	7.0	11.9	4.7
		건설업	8,211	50.9	16.5	17.4	7.1	3.9
		도매 및 소매업	10,963	38.6	28.6	17.0	6.8	3.0
		운수업	1,954	54.6	16.1	8.0	11.3	0.7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43.4	26.3	10.9	11.9	1.2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43.6	16.0	13.0	9.5	6.8
		금융 및 보험업	769	35.5	29.0	6.6	13.7	0.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47.9	29.7	7.6	8.3	0.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50.0	24.3	8.9	11.4	2.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49.6	16.3	12.0	12.7	3.3
		교육 서비스업	891	62.4	16.2	4.9	8.3	1.3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26.4	32.5	8.8	18.4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65.2	10.1	6.6	5.3	2.5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50.6	19.7	3.6	16.9	3.9
		중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2,217	46.3	23.3	13.8	7.7
5 ~ 19인	16,213		44.0	21.5	14.6	9.8	4.1	
20 ~ 49인	2,634		45.3	24.4	13.4	8.6	3.4	
50 ~ 99인	628		39.6	25.6	8.8	11.0	4.3	
100인 이상	426		29.4	33.9	13.9	12.3	4.0	
관 외 지 별	수도권	26,182	42.1	26.0	12.7	9.2	3.9	
	경남권	6,429	47.5	18.5	17.9	7.5	2.7	
	경북권	3,348	58.4	9.6	14.8	9.5	2.0	
	전라권	3,236	54.9	16.1	14.8	5.3	3.5	
	충청권	2,923	40.2	26.5	15.8	9.6	2.0	

<표 141> 여성기업 성장을 위해 확충이 필요한 정부 정책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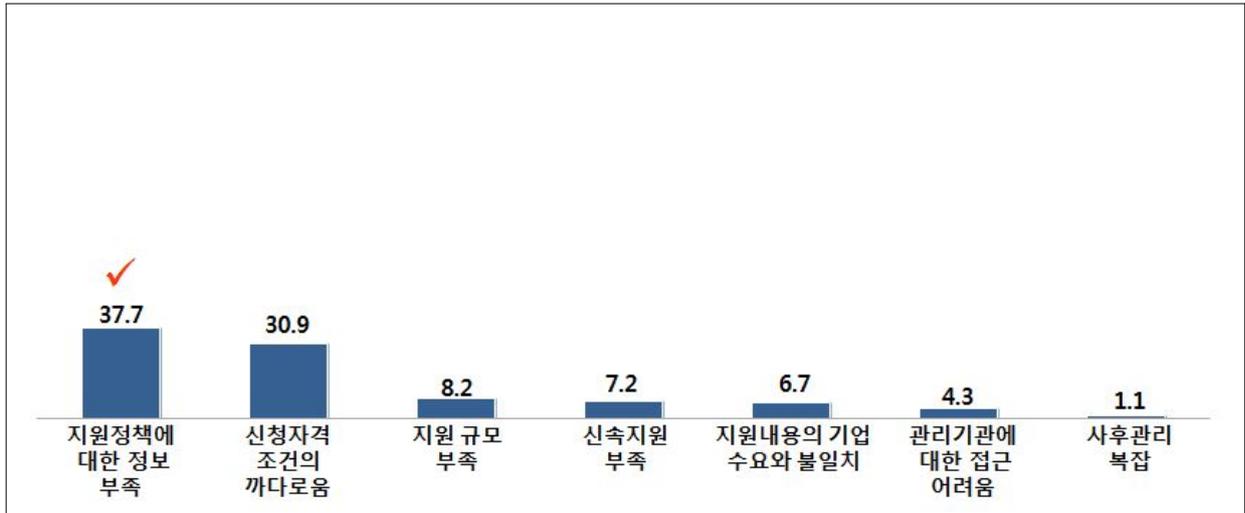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정보화지원 제도	수출지원 제도	사업전환 및 재창업 지원	기타	필요정부 정책 없음	
전 체		42,118	2.3	1.0	0.9	0.0	1.8	
부	제조업	7,459	1.5	1.9	0.9	0.0	1.0	
	비제조업	34,659	2.5	0.8	0.9	0.0	1.9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1.1	1.4	1.1	0.0	2.2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2.6	1.6	1.5	0.0	0.7
		기타 제조	5,822	1.4	2.0	0.8	0.0	0.9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0.9	0.9	3.5	0.0	3.9
		건설업	8,211	1.5	0.3	0.3	0.0	2.0
		도매 및 소매업	10,963	1.8	1.6	1.1	0.0	1.5
		운수업	1,954	4.2	1.1	0.9	0.0	3.2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3.1	0.0	2.3	0.0	1.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8.7	1.4	0.9	0.0	0.2
		금융 및 보험업	769	7.1	0.0	3.1	0.0	4.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1.4	0.6	1.9	0.0	2.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0.9	0.2	0.6	0.0	1.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4.1	0.0	0.1	0.1	1.8
		교육 서비스업	891	3.7	0.0	0.0	0.0	3.2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6.2	1.2	2.4	0.0	4.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2.9	1.0	2.1	1.0	3.4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0.0	1.9	0.0	0.3	3.1
		중	5인 미만	22,217	2.2	0.8	1.1	0.0
5 ~ 19인	16,213		2.5	1.1	0.7	0.0	1.7	
20 ~ 49인	2,634		2.3	1.0	0.2	0.0	1.4	
50 ~ 99인	628		4.5	4.0	0.9	0.0	1.2	
100인 이상	426		1.0	0.8	1.9	1.0	1.5	
관	수도권	26,182	2.9	1.1	0.9	0.0	1.3	
	경남권	6,429	1.0	1.5	1.0	0.0	2.4	
	경북권	3,348	3.2	0.3	0.6	0.0	1.5	
	전라권	3,236	0.7	0.6	0.5	0.0	3.7	
	충청권	2,923	1.6	0.7	0.9	0.0	2.8	

3. 여성기업의 정부 정책 활용 시 애로사항

- 여성기업이 정부 정책을 활용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으로는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청자격 조건의 까다로움’(30.9%), ‘지원 규모 부족’(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08) 여성기업의 정부 정책 활용 시 애로사항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신청자격 조건의 까다로움’이라는 응답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비제조업은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부족’ 응답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35.5%), 비제조업 중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46.8%), ‘교육 서비스업’(45.2%)에서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부족’에 대한 응답이 높은 편임
- ‘신청자격 조건의 까다로움’에 대해서는 제조업 중 ‘식료품/음료/제조’(35.9%), 비제조업 중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43.1%), ‘운수업’(42.8%)에서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42> 여성기업의 정부 정책 활용 시 애로사항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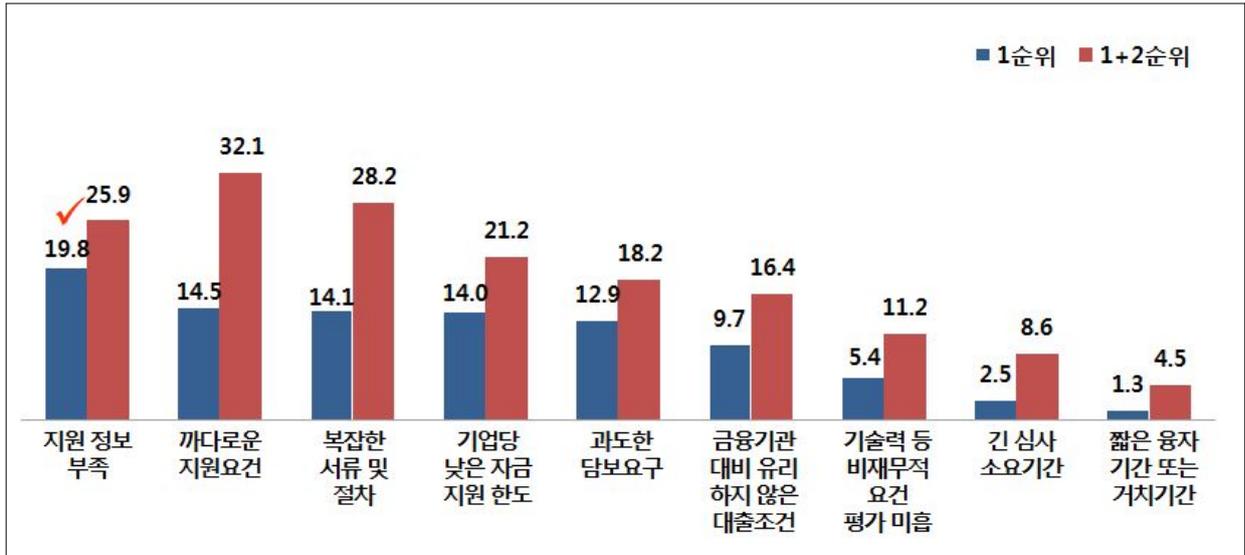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부족	신청 자격 조건의 까다로움	지원 규모 부족	신속 지원 부족	지원 내용의 기업 수요와 불일치	관리 기관에 대한 접근 어려움	사후 관리 복잡	애로 사항 없음	모름/무응답	
전체		42,118	37.7	30.9	8.2	7.2	6.7	4.3	1.1	3.0	0.8	
업종	제조업	7,459	31.4	33.6	9.1	9.1	7.8	4.8	0.9	2.3	1.0	
	비제조업	34,659	39.1	30.4	8.0	6.7	6.4	4.2	1.2	3.2	0.8	
세부업종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32.5	35.9	4.4	8.3	5.6	7.8	1.6	1.9	1.9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35.5	31.8	5.5	3.0	14.0	3.3	1.9	2.9	2.2
		기타 제조	5,822	30.6	33.5	10.3	10.1	7.3	4.6	0.6	2.2	0.7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42.7	30.1	7.9	3.3	5.5	6.2	0.0	3.5	0.8
		건설업	8,211	35.2	33.8	9.1	4.9	7.4	5.4	1.8	2.0	0.3
		도매 및 소매업	10,963	41.5	26.2	8.3	7.5	6.2	4.3	1.1	4.6	0.2
		운수업	1,954	35.9	42.8	7.7	1.3	4.3	3.7	0.8	2.9	0.6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40.5	27.1	5.4	6.4	5.8	4.1	1.3	4.9	4.5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31.1	39.2	11.7	7.5	7.3	2.5	0.5	0.2	0.0
		금융 및 보험업	769	44.7	20.7	3.3	9.0	7.1	5.2	0.9	7.8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41.3	29.7	5.8	9.7	6.9	2.9	1.5	1.5	0.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33.4	31.1	8.4	10.5	8.0	2.6	1.8	2.1	2.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46.8	26.7	6.3	8.0	3.6	4.2	0.5	2.8	1.3
		교육 서비스업	891	45.2	27.2	5.0	4.2	8.3	1.5	0.9	3.8	3.7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34.8	32.5	6.4	9.0	8.7	2.4	0.0	5.0	1.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27.5	43.1	4.3	2.6	9.3	9.5	1.8	1.0	1.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38.6	29.6	8.4	8.0	5.9	4.5	0.0	4.2	0.8		
중소사자규모	5인 미만	22,217	40.6	30.0	7.7	6.6	5.9	4.2	1.1	3.4	0.6	
	5 ~ 19인	16,213	35.1	31.2	8.9	8.0	7.2	4.6	1.3	2.7	1.0	
	20 ~ 49인	2,634	30.2	35.4	8.2	8.0	9.5	4.5	0.7	1.8	1.6	
	50 ~ 99인	628	31.1	35.9	11.5	5.1	7.8	3.4	0.6	4.6	0.0	
	100인 이상	426	44.0	34.5	3.5	2.1	6.7	3.9	1.8	3.5	0.0	
권역	수도권	26,182	38.4	27.6	9.0	9.6	6.9	4.1	1.3	1.9	1.2	
	경남권	6,429	31.9	39.9	6.1	3.9	6.3	6.2	0.4	5.2	0.0	
	경북권	3,348	43.3	34.2	7.5	0.8	4.6	2.6	2.0	4.8	0.3	
	전라권	3,236	41.5	35.1	6.5	2.3	4.3	2.8	1.4	5.6	0.6	
	충청권	2,923	33.8	32.3	8.4	5.2	10.4	6.0	0.4	3.4	0.2	

4. 여성기업이 정부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겪는 애로사항

- 정부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지원 정보 부족’(19.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까다로운 지원요건’(14.5%), ‘복잡한 서류 및 절차’(1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09) 정부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겪는 애로사항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금지원에 대한 애로요인으로 제조업에서는 ‘과도한 담보요구’(21.4%), ‘기업당 낮은 자금 지원한도’(18.1%), ‘복잡한 서류 및 절차’(13.2%) 순으로 나타났고, 비제조업은 ‘지원 정보 부족’(22.3%), ‘까다로운 지원요건’(14.8%), ‘복잡한 서류 및 절차’(14.2%)순으로 나타나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결과가 다소 차이가 있음
- 종사자 규모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지원 정보의 부족’에 대해 애로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 143> 정부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겪는 애로사항(1/2)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지원 정보의 부족	까다로운 지원요건	복잡한 서류 및 절차	기업당 낮은 자금지원 한도	과도한 담보요구	금융기관 대비 유리하지 않은 대출조건	
전 체		42,118	19.8	14.5	14.1	14.0	12.9	9.7	
업 종	제조업	7,459	8.3	13.1	13.2	18.1	21.4	8.9	
	비제조업	34,659	22.3	14.8	14.2	13.1	11.0	9.9	
세 계 업 종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10.0	20.8	11.0	16.4	18.0	11.1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16.0	8.6	14.0	11.2	16.0	13.0
		기타 제조	5,822	7.0	12.6	13.4	19.3	22.7	8.1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27.5	15.3	11.7	11.5	8.2	4.9
		건설업	8,211	29.3	15.5	14.7	8.9	10.9	8.5
		도매 및 소매업	10,963	22.1	10.5	12.6	16.5	8.0	14.6
		운수업	1,954	28.6	23.3	12.9	8.8	8.0	6.0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21.9	15.2	13.9	10.6	20.5	4.4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2.0	16.1	20.9	17.1	13.1	7.5
		금융 및 보험업	769	15.6	16.4	11.6	8.9	18.3	6.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15.3	18.1	12.7	12.2	22.5	5.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13.9	14.0	14.0	15.3	17.2	6.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16.5	17.0	17.5	16.2	8.7	11.2
		교육 서비스업	891	25.4	20.4	14.6	6.8	10.4	3.4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17.3	22.5	22.2	7.6	10.1	5.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25.1	23.0	17.3	11.1	4.9	7.7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26.7	18.2	11.9	10.8	8.7	6.3		
중 사 자 구 분	5인 미만	22,217	20.3	14.4	13.5	14.6	13.7	9.5	
	5 ~ 19인	16,213	20.2	14.3	14.6	13.0	11.7	10.2	
	20 ~ 49인	2,634	16.0	16.9	14.0	15.2	12.5	8.9	
	50 ~ 99인	628	14.7	14.2	14.4	17.3	13.6	10.3	
	100인 이상	426	13.5	15.4	24.2	10.4	14.0	7.2	
권 역 구 분	수도권	26,182	15.5	11.2	14.5	15.4	15.5	11.8	
	경남권	6,429	24.4	23.0	15.9	10.3	6.2	6.2	
	경북권	3,348	39.9	17.1	8.8	12.1	6.4	7.0	
	전라권	3,236	27.4	19.7	10.8	9.6	11.5	3.8	
	충청권	2,923	17.3	17.1	15.6	16.3	12.7	8.3	

<표 144> 정부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겪는 애로사항(2/2)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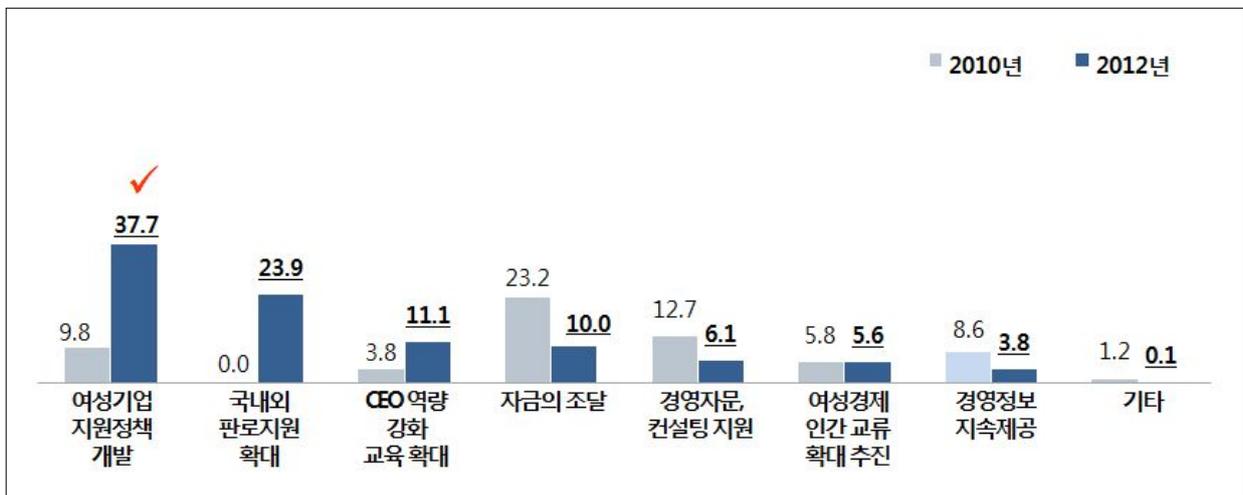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기술력 등 비재무적 요건에 대한 평가 미흡	긴 심사 소요기간	짧은 용자기간 또는 거치기간	기타	애로사항 없음	모름/ 무응답	
전 체		42,118	5.4	2.5	1.3	0.1	4.7	1.0	
제 조 업	제조업	7,459	8.5	2.8	1.6	0.0	2.9	1.1	
	비제조업	34,659	4.7	2.4	1.2	0.1	5.1	1.0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6.4	1.9	0.0	0.0	1.8	2.7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10.9	4.7	0.7	0.0	4.0	0.7	
	기타 제조	5,822	8.5	2.7	1.9	0.0	2.9	0.9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8.4	0.8	1.6	0.0	10.3	0.0
		건설업	8,211	3.6	1.5	1.2	0.3	5.6	0.0
		도매 및 소매업	10,963	2.8	4.5	1.5	0.0	6.4	0.5
		운수업	1,954	4.7	0.2	0.0	0.0	5.2	2.2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1.4	0.6	4.3	0.8	0.6	5.8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0.2	1.7	0.4	0.0	0.5	0.4
		금융 및 보험업	769	2.9	1.9	1.9	0.0	13.8	1.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4.3	3.0	0.6	0.3	4.6	0.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13.5	1.5	0.5	0.0	1.3	2.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5.1	1.6	1.6	0.1	2.9	1.5
		교육 서비스업	891	5.0	0.7	0.0	0.0	8.2	5.1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4.8	3.9	2.6	0.0	4.0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4.5	1.0	0.0	0.5	4.9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8.9	1.7	2.0	0.0	4.5	0.4	
중 사 자 구 분 별	5인 미만	22,217	4.7	2.1	1.3	0.0	5.0	0.9	
	5 ~ 19인	16,213	6.2	3.1	1.2	0.2	4.5	1.0	
	20 ~ 49인	2,634	6.2	3.2	2.3	0.2	3.1	1.5	
	50 ~ 99인	628	7.1	1.2	1.1	0.0	5.8	0.3	
	100인 이상	426	6.7	0.0	0.5	1.6	4.6	1.9	
권 역 별	수도권	26,182	6.4	3.2	1.6	0.2	3.3	1.4	
	경남권	6,429	3.4	0.8	0.9	0.0	8.2	0.6	
	경북권	3,348	1.4	0.8	0.1	0.0	6.4	0.0	
	전라권	3,236	5.2	2.1	1.0	0.0	8.5	0.4	
	충청권	2,923	5.4	2.2	1.3	0.0	3.5	0.3	

5.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

-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여성기업 지원정책 개발’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내외 판로지원 확대’(23.9%), ‘CEO 역량강화 교육 확대’(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2010년에는 ‘자금의 조달’(23.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2년 여성기업체 대상 조사에서는 ‘자금의 조달’이 2순위로 나타남

(그림 110) 여성 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

(단위: %)



※ ‘국내외 판로지원 확대’는 2013년 조사에서 신규 추가된 보기 항목임

- 세부업종 중 ‘여성기업 지원정책 개발’에 대해 제조업 중에서는 ‘기타 제조’(41.9%)가, 비제조업 중에서는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55.4%)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제조업의 ‘섬유/의복/가방/신발’(39.5%), 비제조업의 ‘도매 및 소매업’(28.3%)은 ‘국내외 판로지원 확대’라는 응답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한편, 비제조업의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20.4%)은 ‘자금의 조달’이라는 응답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국내외 판로지원 확대’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표 145>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1/2)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여성기업 지원정책 개발	국내외 판로지원 확대	CEO 역량 강화 교육 확대	자금의 조달	경영자문, 컨설팅 지원	
전 체		42,118	37.7	23.9	11.1	10.0	6.1	
부 면	제조업	7,459	39.3	27.4	11.9	6.1	5.3	
	비제조업	34,659	37.3	23.2	10.9	10.8	6.3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품/음료 제조	834	33.0	31.5	11.6	7.1	4.1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26.8	39.5	13.9	7.7	2.6
		기타 제조	5,822	41.9	25.1	11.6	5.8	5.9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33.2	24.2	4.2	20.4	6.2
		건설업	8,211	37.8	23.8	10.2	11.2	7.2
		도매 및 소매업	10,963	34.5	28.3	9.4	11.9	5.2
		운수업	1,954	31.6	16.1	17.5	15.2	5.4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40.0	22.7	12.5	7.6	4.9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55.4	15.7	6.5	7.5	4.9
		금융 및 보험업	769	26.6	26.0	8.6	11.2	9.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37.2	19.8	15.1	8.6	8.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40.5	23.1	7.0	11.6	7.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39.5	19.1	15.8	4.3	5.3
		교육 서비스업	891	31.4	12.8	15.0	14.0	10.7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43.5	7.7	8.6	9.0	1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37.8	15.7	14.8	18.9	5.1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45.7	15.9	10.7	12.3	6.2
		중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2,217	37.5	23.9	11.3	9.8
5 ~ 19인	16,213		37.4	24.8	10.4	10.4	5.2	
20 ~ 49인	2,634		40.3	21.7	10.5	10.4	4.9	
50 ~ 99인	628		35.0	15.4	18.4	7.9	6.0	
100인 이상	426		47.6	15.2	15.4	7.3	5.0	
관 외 지 별	수도권	26,182	39.2	23.1	9.8	9.5	6.1	
	경남권	6,429	33.9	29.5	15.6	8.1	2.8	
	경북권	3,348	36.5	20.4	15.8	13.1	5.9	
	전라권	3,236	32.9	25.6	7.4	13.4	10.9	
	충청권	2,923	39.2	20.9	11.3	11.2	8.1	

<표 146>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2/2)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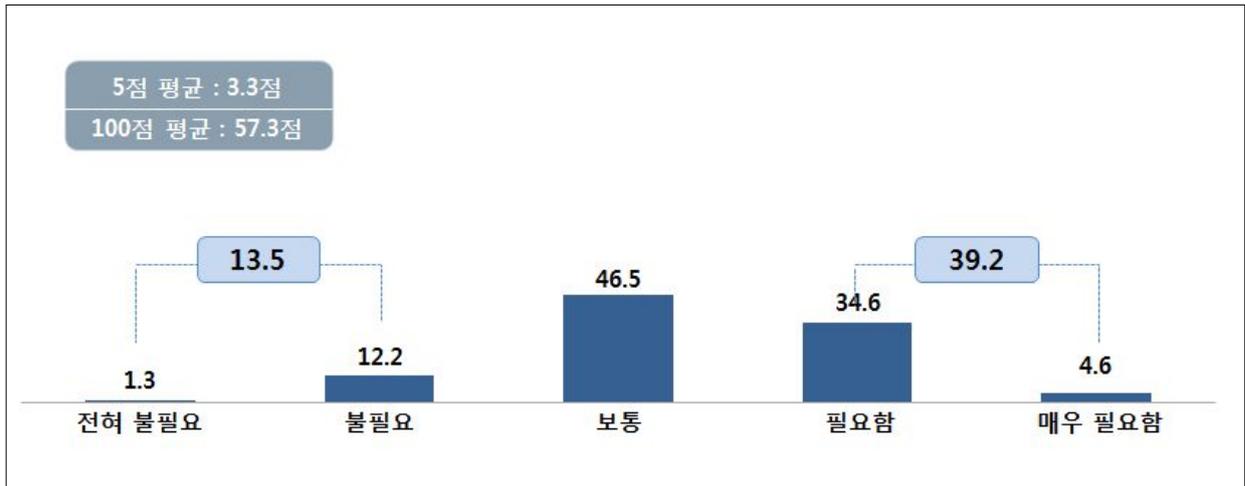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여성경제인간 교류확대 추진	경영정보의 지속제공	기타	정부 중점 추진 필요사항 없음	모름/무응답	
전 체		42,118	5.6	3.8	0.1	0.4	1.3	
부 문	제조업	7,459	5.6	3.2	0.0	0.4	0.7	
	비제조업	34,659	5.6	3.9	0.1	0.4	1.4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5.7	5.0	0.0	1.0	1.1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5.4	1.5	0.0	1.1	1.5
		기타 제조	5,822	5.6	3.2	0.0	0.3	0.6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3.7	5.5	0.0	2.5	0.0
		건설업	8,211	4.9	2.7	0.3	0.7	1.3
		도매 및 소매업	10,963	4.7	4.5	0.0	0.2	1.4
		운수업	1,954	6.6	6.1	0.0	0.9	0.6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4.3	2.8	0.0	0.8	4.5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7.5	1.4	0.0	0.0	1.0
		금융 및 보험업	769	7.6	8.8	0.0	1.9	0.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7.4	3.2	0.0	0.6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4.3	2.8	0.0	0.2	2.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9.6	4.5	0.0	0.0	1.8
		교육 서비스업	891	6.0	6.3	0.0	0.0	3.8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16.1	2.5	0.0	1.4	1.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4.5	2.8	0.0	0.5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7	7.5	0.0	0.0	0.0
중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2,217	4.9	3.8	0.0	0.4	1.5	
	5 ~ 19인	16,213	6.3	3.9	0.1	0.4	1.1	
	20 ~ 49인	2,634	6.5	3.3	0.0	0.5	1.8	
	50 ~ 99인	628	9.9	6.4	0.0	1.0	0.0	
	100인 이상	426	4.2	4.2	0.0	0.0	1.1	
관 외 지 역	수도권	26,182	6.5	3.5	0.1	0.1	2.1	
	경남권	6,429	5.3	3.5	0.0	1.2	0.0	
	경북권	3,348	3.2	4.2	0.0	0.8	0.0	
	전라권	3,236	3.5	5.2	0.0	0.9	0.2	
	충청권	2,923	3.7	4.9	0.0	0.6	0.1	

6. 여성기업 공제조합의 필요성

- 여성기업체의 39.2%는 각종 자금대여 및 보증 등을 시행하는 여성기업 공제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필요함+매우 필요함)고 응답함

(그림 111) 여성기업 공제조합의 필요성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비제조업(39.8%)이 제조업(36.2%)에 비해 여성기업 공제조합이 '필요하다'(필요함+매우 필요함)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기타 제조'(38.2%), 비제조업에서는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52.6%)이 공제조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47> 여성기업 공제조합의 필요성

(단위: 개사, %, 점)

구 분		사례 수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모름/ 무응답	①+② 불필요	④+⑤ 필요함	100점 평균 (점)	
전 체		42,118	1.3	12.2	46.5	34.6	4.6	0.9	13.4	39.2	57.3	
대부	제조업	7,459	1.5	10.9	51.0	31.9	4.3	0.5	12.3	36.2	56.7	
	비제조업	34,659	1.2	12.5	45.5	35.1	4.7	0.9	13.7	39.8	57.5	
세부 업종 별	제조업	식품/음료 제조	834	0.3	17.2	47.3	28.6	5.5	1.1	17.5	34.2	55.5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0.7	15.1	59.4	21.5	1.8	1.5	15.8	23.3	52.1
		기타 제조	5,822	1.7	9.4	50.4	33.8	4.5	0.3	11.1	38.2	57.5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0.9	14.8	43.6	38.8	2.0	0.0	15.7	40.8	56.6
		건설업	8,211	0.9	8.8	46.7	34.7	8.2	0.7	9.7	42.9	60.2
		도매 및 소매업	10,963	1.2	12.5	48.8	33.4	3.4	0.7	13.7	36.8	56.4
		운수업	1,954	3.5	23.0	37.5	30.6	5.4	0.0	26.5	35.9	52.8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0.9	11.7	46.5	33.3	3.7	4.0	12.5	37.0	57.1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2	7.0	38.3	49.9	2.7	0.8	8.2	52.6	61.6
		금융 및 보험업	769	1.4	11.6	44.4	39.0	2.8	0.7	13.1	41.9	57.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0.6	15.0	46.5	34.7	3.2	0.0	15.6	37.9	56.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1.0	12.3	51.8	29.5	2.8	2.6	13.3	32.3	55.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2.1	17.4	34.2	42.3	2.6	1.5	19.5	44.8	56.5
		교육 서비스업	891	0.0	10.1	43.8	32.0	11.6	2.5	10.1	43.6	61.6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1.2	16.0	36.0	46.9	0.0	0.0	17.2	46.9	57.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0.0	24.3	37.2	35.2	3.3	0.0	24.3	38.5	54.4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0.0	5.3	61.9	27.7	5.0	0.0	5.3	32.8	58.1		
종사 자 규모 별	5인 미만	22,217	1.2	12.5	46.3	33.9	5.1	1.0	13.7	39.0	57.4	
	5 ~ 19인	16,213	1.4	11.5	47.1	34.9	4.4	0.6	12.9	39.3	57.4	
	20 ~ 49인	2,634	1.1	13.9	44.1	37.3	2.8	0.9	15.0	40.0	56.7	
	50 ~ 99인	628	0.4	12.3	49.4	35.2	2.7	0.0	12.7	37.9	56.9	
	100인 이상	426	1.6	8.4	50.0	37.0	1.9	1.1	10.0	38.9	57.4	
권 역 별	수도권	26,182	0.9	10.2	53.1	31.1	3.4	1.3	11.1	34.5	56.6	
	경남권	6,429	2.9	18.4	35.5	39.2	3.9	0.0	21.3	43.1	55.7	
	경북권	3,348	0.4	11.2	35.6	42.1	10.6	0.0	11.6	52.8	62.8	
	전라권	3,236	0.2	13.0	35.9	43.1	7.4	0.4	13.2	50.5	61.1	
	충청권	2,923	3.2	16.0	36.3	37.2	7.2	0.1	19.2	44.4	57.3	

제9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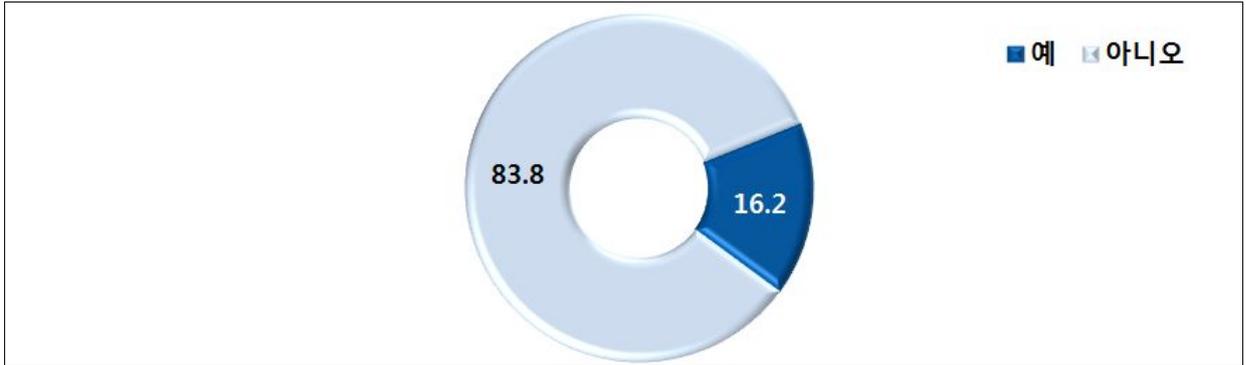
공공구매제도 관련

1.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비율 의무화 제도 인식 여부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의무화 제도를 모르고 있는 여성기업은 83.8%로 알고 있는 여성기업 16.2% 대비 약 5.2배 많음

(그림 112) 공공구매 비율 의무화 제도 인식 여부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15.8%)과 비제조업(16.3%) 모두 인지도가 20% 미만으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9.5%)과 비제조업 중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9.7%)에서 제도를 인식하는 기업 비중이 가장 낮음
 -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은 업종은 '건설업'(27.2%),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23.4%)임
- 종사자 규모별로는 '5인 미만'(13.3%)에서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낮으며, 대체로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제도 인식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 보임
- 권역별로는 '경북권'(33.4%)에서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으며, '수도권'(8.9%)에서 가장 낮음

<표 148>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비율 의무화 제도 인식 여부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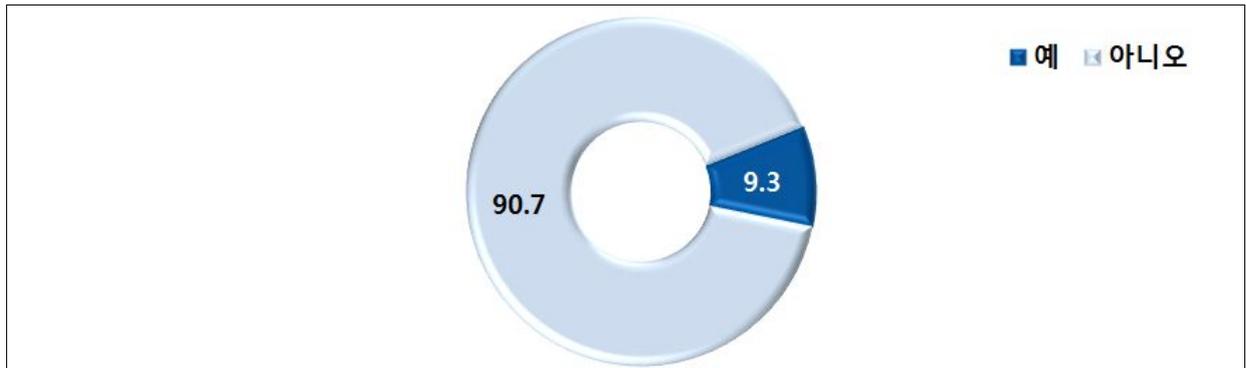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42,118	16.2	83.8	
부	제조업	7,459	15.8	84.2	
	비제조업	34,659	16.3	83.7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12.2	87.8	
		섬유/의복/가방/신발	9.5	90.5	
		기타 제조	17.2	82.8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23.4	76.6	
		건설업	27.2	72.8	
		도매 및 소매업	11.7	88.3	
		운수업	14.0	86.0	
		숙박 및 음식점업	12.5	87.5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9.9	90.1	
		금융 및 보험업	11.4	88.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0	88.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0	84.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6.3	83.7	
		교육 서비스업	10.9	89.1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9.7	90.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1.9	88.1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4	87.6	
		중	5인 미만	13.3	86.7
			5 ~ 19인	19.0	81.0
20 ~ 49인	22.1		77.9		
50 ~ 99인	22.2		77.8		
100인 이상	19.6		80.4		
관	수도권	8.9	91.1		
	경남권	30.2	69.8		
	경북권	33.4	66.6		
	전라권	25.5	74.5		
	충청권	21.6	78.4		

2. 공공구매를 통한 정부기관 납품 경험 유무

- 공공구매를 통한 정부기관 납품경험 분석에서 '경험없음'이 90.7%로 나타나, 여성 기업 대부분이 공공구매를 통한 납품경험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113) 공공구매를 통한 정부기관 납품 경험 유무

(단위: %)



- 공공구매를 통한 납품경험은 비제조업(9.5%)이 제조업(8.3%)보다 1.2%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기타 제조'(8.9%), 비제조업 중 '건설업'(18.6%),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9.1%)에서 공공구매 납품경험이 높은 편임
- 종사자 규모별로는 '50-99인'(11.4%)에서 공공구매를 통한 정부기관 납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음
- 제도 인식정도와 유사하게, '경북권'(30.0%)에서 공공기관 납품경험이 있는 여성 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수도권'(5.5%)에서 가장 낮음

<표 149> 공공구매를 통한 정부기관 납품 경험 유무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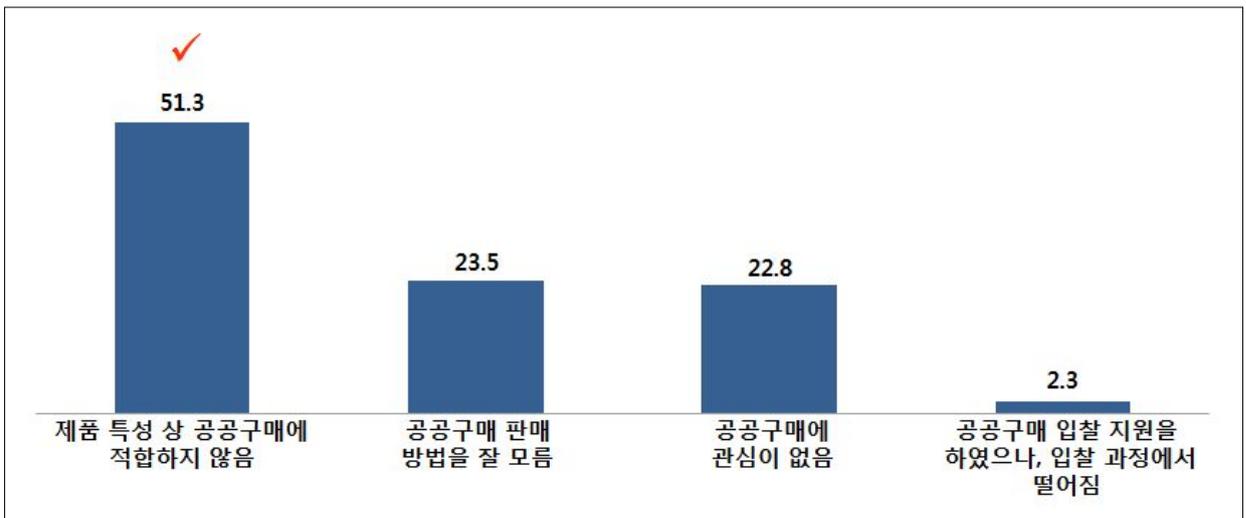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42,118	9.3	90.7	
부	제조업	7,459	8.3	91.7	
	비제조업	34,659	9.5	90.5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3.8	96.2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8.3	91.7
		기타 제조	5,822	8.9	91.1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6.9	93.1
		건설업	8,211	18.6	81.4
		도매 및 소매업	10,963	6.4	93.6
		운수업	1,954	6.0	94.0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5.8	94.2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5.8	94.2
		금융 및 보험업	769	3.3	96.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7.3	9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7.8	92.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9.1	90.9
		교육 서비스업	891	5.3	94.7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6.2	93.8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6.2	93.8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3.4	96.6
		중	5인 미만	22,217	8.4
5 ~ 19인	16,213		10.3	89.7	
20 ~ 49인	2,634		9.9	90.1	
50 ~ 99인	628		11.4	88.6	
100인 이상	426		10.9	89.1	
관	수도권	26,182	5.5	94.5	
	경남권	6,429	12.1	87.9	
	경북권	3,348	30.0	70.0	
	전라권	3,236	10.2	89.8	
	충청권	2,923	12.3	87.7	

3. 공공구매를 통한 정부기관 납품 경험이 없는 이유

- 공공구매 납품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제품 특성상 공공구매에 적합하지 않음'(51.3%)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방법을 모름'(23.5%), '공공구매에 관심없음'(22.8%), '입찰에서 탈락'(2.3%) 순으로 나타남

(그림 114) 공공구매를 통한 정부기관 납품 경험이 없는 이유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업종 전반적으로 '제품 특성상 공공구매에 적합하지 않음'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섬유/의복/가방/신발' 업종은 '공공구매에 관심 없음'(47.4%)이 정부기관 대상 공공구매를 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공공구매 납품경험이 없는 주요 원인 중, 2순위인 '공공구매 판매 방법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8.0%), '식료품/ 음료 제조'(33.1%), '기타 제조'(31.3%)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150> 공공구매를 통한 정부기관 납품 경험이 없는 이유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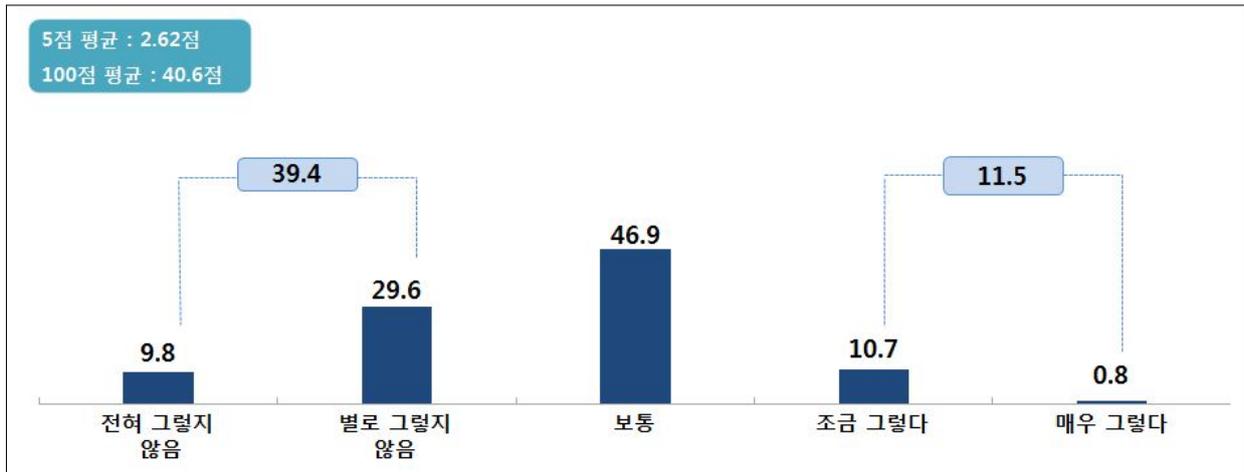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제품 특성 상 공공구매에 적합하지 않음	공공구매 판매 방법을 잘 모름	공공구매에 관심이 없음	공공구매 입찰 지원을 하였으나, 입찰 과정에서 떨어짐	
전체		38,213	51.3	23.5	22.8	2.3	
부 류	제조업	6,839	41.3	29.7	27.5	1.6	
	비제조업	31,373	53.5	22.2	21.8	2.5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800	43.6	33.1	22.8	0.6
		섬유/의복/가방/신발	736	35.9	14.1	47.4	2.6
		기타 제조	5,303	41.7	31.3	25.4	1.5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29	58.5	15.6	23.4	2.5
		건설업	6,684	53.2	18.1	24.8	3.9
		도매 및 소매업	10,263	41.9	29.5	26.4	2.2
		운수업	1,837	75.5	9.1	13.0	2.4
		숙박 및 음식점업	968	62.2	17.6	19.3	0.9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585	38.6	29.9	29.8	1.7
		금융 및 보험업	743	63.8	18.3	17.9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05	61.3	22.4	15.0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219	48.2	38.0	9.3	4.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136	70.9	10.5	17.1	1.5
		교육 서비스업	843	71.1	7.2	21.0	0.7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08	73.4	3.9	22.7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2	75.3	9.3	14.4	1.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50	64.1	14.0	17.3	4.6		
종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0,356	51.8	24.4	21.4	2.4	
	5 ~ 19인	14,551	49.5	22.1	26.0	2.3	
	20 ~ 49인	2,370	55.5	25.2	17.1	2.2	
	50 ~ 99인	556	55.8	22.2	20.8	1.2	
	100인 이상	379	57.9	23.2	15.5	3.5	
권 역 별	수도권	24,751	41.3	26.7	29.5	2.5	
	경남권	5,650	77.4	13.5	7.9	1.2	
	경북권	2,343	66.0	19.7	11.7	2.7	
	전라권	2,905	65.8	20.3	12.1	1.9	
	충청권	2,563	60.8	21.8	13.8	3.6	

※ 공공구매 납품 경험이 없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4. 공공기관 물품·용역 납품/공사 시 느끼는 여성기업으로써 애로정도

- 공공구매 관련 여성기업 애로 정도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6.9%로 가장 높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가 39.4%, '그렇다(조금 그렇다+매우 그렇다)'가 11.5%로 나타남

(그림 115) 공공기관 물품용역 납품/공사 시 느끼는 여성기업으로써 애로정도 (단위: %)



- 업종별로는, 제조업(14.5%)이 비제조업(10.9%)에 비해 애로를 느낀다는 응답이 더 높은 편임

<표 151> 공공기관 물품용역 납품/공사 시 느끼는 여성기업으로써 애로정도

(단위: 개사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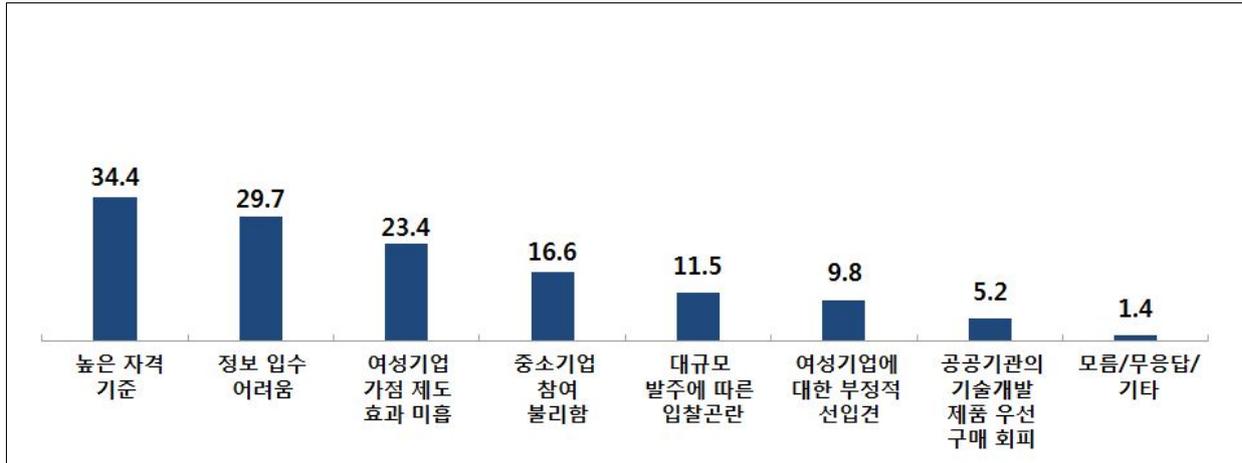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①+② 그렇지 않다	④+⑤ 그렇다	100점 평균 (점)	
전체		42,118	9.8	29.6	46.9	10.7	0.8	2.2	39.4	11.5	40.6	
연도	제조업	7,459	6.1	22.4	56.3	13.7	0.8	0.8	28.4	14.5	45.2	
	비제조업	34,659	10.6	31.1	44.9	10.1	0.8	2.5	41.7	10.9	39.6	
세부업종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8.2	21.7	59.8	8.4	0.8	1.1	29.9	9.2	42.9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6.3	24.9	55.6	13.1	0.0	0.0	31.2	13.1	43.9
		기타 제조	5,822	5.7	22.1	55.8	14.6	0.9	0.8	27.8	15.5	45.7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8.2	34.6	46.6	10.6	0.0	0.0	42.9	10.6	39.9
		건설업	8,211	8.3	32.0	44.8	12.9	0.5	1.5	40.3	13.5	41.2
		도매 및 소매업	10,963	6.7	30.3	48.8	8.6	1.1	4.5	37.0	9.7	41.4
		운수업	1,954	12.4	40.1	39.8	5.9	1.3	0.5	52.5	7.1	35.8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6.4	24.6	52.4	15.2	0.0	1.4	31.0	15.2	44.4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1.7	32.9	37.5	13.4	0.6	3.8	44.6	14.1	39.2
		금융 및 보험업	769	14.6	21.5	55.3	8.2	0.5	0.0	36.0	8.7	39.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12.1	23.2	51.8	12.2	0.0	0.6	35.3	12.2	4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10.2	24.4	49.8	12.0	2.0	1.5	34.6	14.0	42.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23.3	37.8	28.5	8.2	0.3	1.9	61.1	8.5	30.8
		교육 서비스업	891	21.8	29.2	43.8	4.0	0.7	0.6	51.0	4.7	33.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8.7	39.0	49.9	1.2	0.0	1.2	47.7	1.2	36.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19.9	39.1	30.7	7.5	1.4	1.5	58.9	8.9	32.6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9.9	31.0	48.1	5.7	1.3	4.0	40.9	7.0	38.9		
중사자규모	5인 미만	22,217	10.3	28.1	46.3	11.8	0.8	2.7	38.4	12.6	41.0	
	5 ~ 19인	16,213	9.3	31.1	47.8	9.1	1.0	1.8	40.3	10.1	40.2	
	20 ~ 49인	2,634	9.6	33.3	44.1	11.5	0.3	1.2	42.9	11.8	39.8	
	50 ~ 99인	628	7.7	27.1	57.0	8.2	0.0	0.0	34.7	8.2	41.5	
	100인 이상	426	9.1	28.6	48.0	13.7	0.5	0.0	37.7	14.3	42.0	
권역	수도권	26,182	9.1	25.7	49.6	11.1	1.0	3.5	34.8	12.1	42.0	
	경남권	6,429	10.8	39.6	42.0	6.5	1.1	0.0	50.4	7.6	36.9	
	경북권	3,348	13.4	34.8	43.0	8.5	0.1	0.2	48.1	8.6	36.8	
	전라권	3,236	9.6	35.1	41.0	13.9	0.1	0.2	44.7	14.0	39.9	
	충청권	2,923	9.7	29.9	44.5	15.5	0.5	0.0	39.6	15.9	41.8	

5. 공공기관 입찰 시 겪는 애로 사항

-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과도한 실적 등 높은 자격 기준’이 34.4%로 가장 높고, ‘입찰정보 입수 어려움’(29.7%), ‘여성기업 가점제도 효과 미흡’(23.4%), ‘중소기업 참여 불리함’(16.6%)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16) 공공기관 입찰 시 겪는 애로사항

(단위: %)



- 공공기관 입찰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제조업은 ‘과도한 실적 등 높은 자격 기준 (32.3%)’, ‘여성기업 가점 제도의 효과 미흡’(26.7%) 순으로 응답했으나, 비제조업은 ‘과도한 실적 등 높은 자격 기준(35.0%)’ 다음으로, ‘입찰 정보 입수 어려움’(30.8%)을 애로로 응답
 - 제조업 중 ‘식품/음료 제조’(36.3%)와 ‘기타 제조’(32.9%)는 ‘과도한 실적 등 높은 자격 기준’이 가장 큰 애로인 반면, ‘섬유/의복/가방/신발’은 ‘입찰정보 입수 어려움’(26.9%)이 더 큰 애로인 것으로 나타남
 - 비제조업 중 입찰정보 입수가 주요 애로라고 응답한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36.7%), ‘금융 및 보험업’(47.6%) 등 임. 반면, 여성기업 가점 제도 효과가 미흡하다는 응답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3.4%)에서 가장 높음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인 미만’은 ‘높은 자격기준’, ‘100인 이상’은 ‘여성기업 가점 제도의 효과 미흡’(31.8%)을 가장 큰 애로로 응답. 한편, 권역 중 ‘전라권’의 경우 ‘입찰정보 입수 어려움’(40.2%)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음

<표 152>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시 겪는 애로 사항(1/2)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과도한 실적, 품질보증 등의 높은 자격기준	입찰정보 입수 어려움	여성기업 가점 제도의 효과 미흡	입찰자격 요건상, 중소기업 참여가 불리함	대규모 발주에 따른 입찰 곤란	
전 체		19,953	34.4	29.7	23.4	16.6	11.5	
세 부	제조업	3918	32.3	25.3	26.7	12.6	10.0	
	비제조업	16,035	35.0	30.8	22.6	17.5	11.8	
세 부 전 체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355	36.3	29.9	33.9	6.7	3.2
		섬유/의복/가방/신발	408	23.7	26.9	19.1	10.3	14.4
		기타 제조	3,154	32.9	24.6	26.8	13.6	10.1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219	35.3	26.4	19.5	24.4	12.3
		건설업	4,772	45.0	26.6	20.1	24.9	9.9
		도매 및 소매업	4,657	30.1	31.9	21.2	18.5	14.2
		운수업	612	27.3	31.8	22.0	8.4	12.2
		숙박 및 음식점업	481	27.1	36.7	16.0	10.8	12.6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789	26.2	34.2	34.0	12.1	8.5
		금융 및 보험업	265	20.7	47.6	19.9	17.2	17.2
		부동산업 및 임대업	745	23.8	39.8	23.3	12.7	14.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42	31.2	29.1	33.4	11.0	12.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381	42.1	32.3	20.7	9.7	9.5
		교육 서비스업	206	30.1	28.1	21.6	9.3	13.3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23	38.2	18.5	37.1	6.1	12.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2	32.1	27.7	23.6	18.1	11.4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63	33.3	28.8	12.8	12.3	3.2
중 사 자 구 도	5인 미만	9,955	34.1	31.2	23.5	15.7	10.4	
	5 ~ 19인	8,049	35.4	29.3	22.3	17.8	12.5	
	20 ~ 49인	1,406	33.5	21.8	26.7	15.7	13.8	
	50 ~ 99인	310	34.5	29.4	29.7	15.9	7.8	
	100인 이상	232	20.0	27.1	31.8	19.4	13.0	
권 역 별	수도권	12,137	32.3	32.5	25.5	14.8	12.4	
	경남권	2,944	40.6	24.9	16.6	17.2	9.5	
	경북권	2,058	46.3	13.2	26.9	25.5	10.0	
	전라권	1,301	22.4	40.2	17.2	13.0	9.9	
	충청권	1,512	33.4	29.5	20.5	20.6	11.0	

※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여성기업은 제외 후 재산출

<표 153>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시 겪는 애로 사항(2/2)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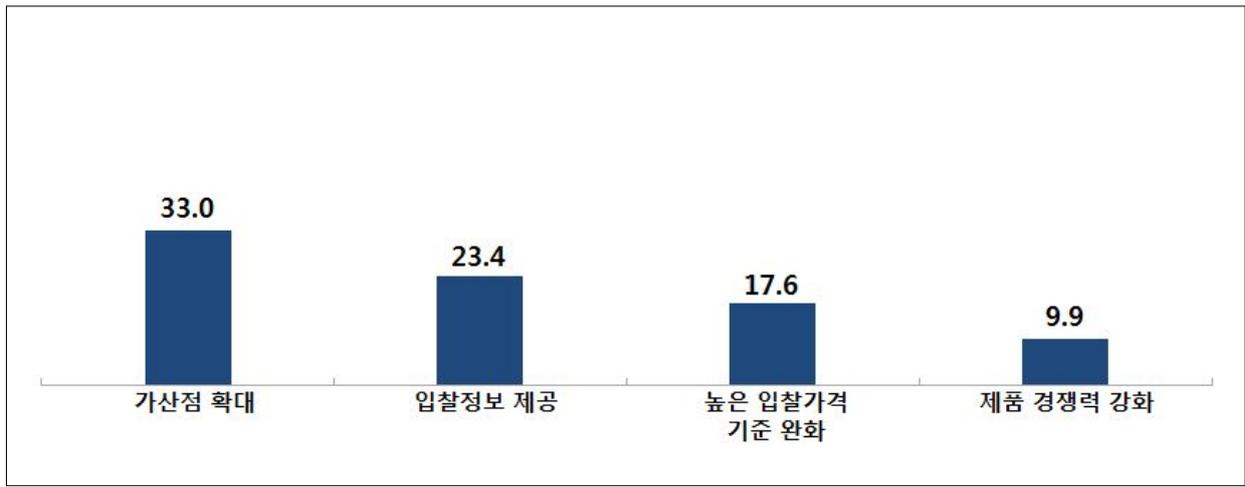
구 분		사 례 수	여성기업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회피	모름/무응답	기타	
전 체		19,953	9.8	5.2	1.1	0.3	
대분	제조업	3,918	12.1	10.0	0.2	0.2	
	비제조업	16,035	9.2	4.1	1.3	0.4	
세부업종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355	8.2	5.6	0.7	0.0
		섬유/의복/가방/신발	408	14.7	9.0	0.0	0.0
		기타 제조	3,154	12.2	10.6	0.2	0.2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219	7.6	1.6	0.0	0.0
		건설업	4,772	7.4	3.7	0.0	0.5
		도매 및 소매업	4,657	7.3	3.2	2.7	0.6
		운수업	612	15.8	1.6	0.0	0.0
		숙박 및 음식점업	481	12.3	6.5	1.9	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789	9.3	5.5	2.2	1.0
		금융 및 보험업	265	8.8	4.1	0.0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745	21.7	5.7	1.4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42	11.2	5.5	0.0	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381	8.1	5.4	3.1	0.2
		교육 서비스업	206	5.4	5.8	0.0	2.5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23	0.0	6.3	0.0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2	14.5	0.0	0.0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63	21.8	3.2	0.0	0.0		
종사자규모별	5인 미만	9,955	9.4	5.1	1.6	0.3	
	5 ~ 19인	8,049	10.3	5.6	.5	0.5	
	20 ~ 49인	1,406	10.6	4.5	.8	0.2	
	50 ~ 99인	310	7.5	2.4	0.0	0.0	
	100인 이상	232	5.4	6.1	0.0	1.0	
권역별	수도권	12,137	12.0	6.5	1.8	0.6	
	경남권	2,944	7.2	2.6	0.0	0.0	
	경북권	2,058	5.8	1.8	0.0	0.0	
	전라권	1,301	8.1	1.6	0.0	0.0	
	충청권	1,512	4.4	7.8	0.0	0.2	

※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여성기업은 제외 후 재산출

6. 공공구매 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

-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가산점 확대'가 33.0%로 가장 높고, '입찰정보 제공'(23.4%), '기준완화'(17.6%), '제품 경쟁력 강화'(9.9%) 순으로 나타남

(그림 117) 공공구매 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단위: %)



- 제조업(34.3%)과 비제조업(32.7%) 모두 '가산점 확대'가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고 응답
 - 특히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47.4%),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46.3%), 및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40.7%)에서 '가산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입찰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업종은 제조업 중 '기타 제조'(24.7%), 비제조업 중 '도매 및 소매업'(28.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7.8%)임
- 권역별로는 '경북권'(45.2%)에서 '입찰가산점 확대'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한편, '충청권'에서는 '높은 입찰자격 기준 완화'로 응답한 비중이 27.4%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154> 여성기업 공공구매 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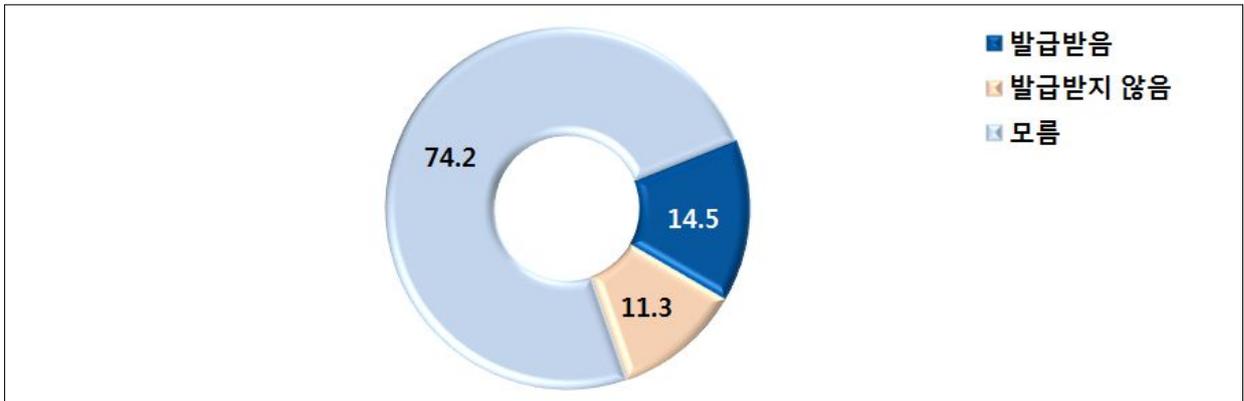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여성기업 입찰 가산점 확대	입찰정보 제공	높은 입찰자격 기준 완화	제품 경쟁력 강화	기타	없음	모름/ 무응답	
전체		42,118	33.0	23.4	17.6	9.9	0.0	8.5	7.6	
대분	제조업	7,459	34.3	24.2	15.9	14.5	0.0	6.2	4.8	
	비제조업	34,659	32.7	23.2	18.0	9.0	0.0	8.9	8.2	
세부업종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35.3	24.1	14.3	13.4	0.0	9.4	3.5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25.2	20.5	16.1	20.8	0.0	13.3	4.1
		기타 제조	5,822	35.5	24.7	16.1	13.8	0.0	4.8	5.0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40.7	19.3	16.2	3.5	0.0	17.6	2.7
		건설업	8,211	34.9	21.8	22.5	7.0	0.0	8.5	5.4
		도매 및 소매업	10,963	29.0	28.3	16.8	9.9	0.0	5.8	10.2
		운수업	1,954	34.2	20.1	21.7	10.3	0.0	9.1	4.7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35.4	25.5	11.4	14.5	0.0	3.5	9.7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47.4	16.8	11.3	8.1	0.0	6.4	10.1
		금융 및 보험업	769	23.1	24.5	10.5	16.6	0.0	16.0	9.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38.7	21.2	18.9	11.0	0.0	7.8	2.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36.4	27.8	14.5	6.3	0.0	5.4	9.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33.5	14.9	21.5	6.6	0.0	13.9	9.6
		교육 서비스업	891	14.0	16.8	11.4	14.2	0.0	33.0	10.7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46.3	7.3	17.4	9.8	0.0	16.7	2.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23.5	24.6	13.8	6.2	0.0	25.1	6.8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23.7	20.0	12.2	14.6	0.8	14.2	14.5		
중사자규모별	5인 미만	22,217	32.3	21.9	17.6	10.2	0.0	9.3	8.5	
	5 ~ 19인	16,213	33.6	25.0	17.1	9.5	0.0	7.8	6.9	
	20 ~ 49인	2,634	34.3	24.9	19.6	9.8	0.0	6.6	4.7	
	50 ~ 99인	628	35.7	20.6	23.0	12.1	0.0	5.8	2.8	
	100인 이상	426	34.6	29.5	18.2	9.8	0.0	2.8	5.1	
권역별	수도권	26,182	29.6	23.6	16.3	10.1	0.0	8.9	11.4	
	경남권	6,429	36.8	28.6	18.0	8.4	0.0	7.3	1.0	
	경북권	3,348	45.2	18.8	21.3	8.4	0.0	5.1	1.2	
	전라권	3,236	36.0	21.8	15.2	14.4	0.0	9.8	2.8	
	충청권	2,923	38.0	16.2	27.4	8.8	0.0	9.3	0.4	

7. 여성기업 확인증 인식/발급 여부

- 여성기업의 74.2%는 여성기업 확인증을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미 발급받은 여성기업은 14.5%, 알고는 있으나 발급받지 않은 여성기업은 11.3%로 나타남

(그림 118) 여성기업 확인증 인식/발급 여부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16.7%)이 비제조업(14.0%) 보다 여성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비중이 다소 높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17.4%)과 '기타 제조' (17.4%), 비제조업 중에서는 '건설업'(23.0%)과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20.5%)의 여성기업 확인증 발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한편, '금융 및 보험업'(4.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5.8%) 등 서비스 업종의 발급기업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는 '50 ~ 99인'(23.2%)에서, 권역별로는 '충청권'(21.5%)의 확인증 발급비중이 가장 높음. 한편, '수도권'에서는 여성기업 확인증을 모른다는 응답이 76.9%로 가장 많고, 발급받은 기업도 11.4%로 가장 낮은 비율 차지하고 있음

<표 155> 여성기업의 여성기업 확인증 인식/발급 여부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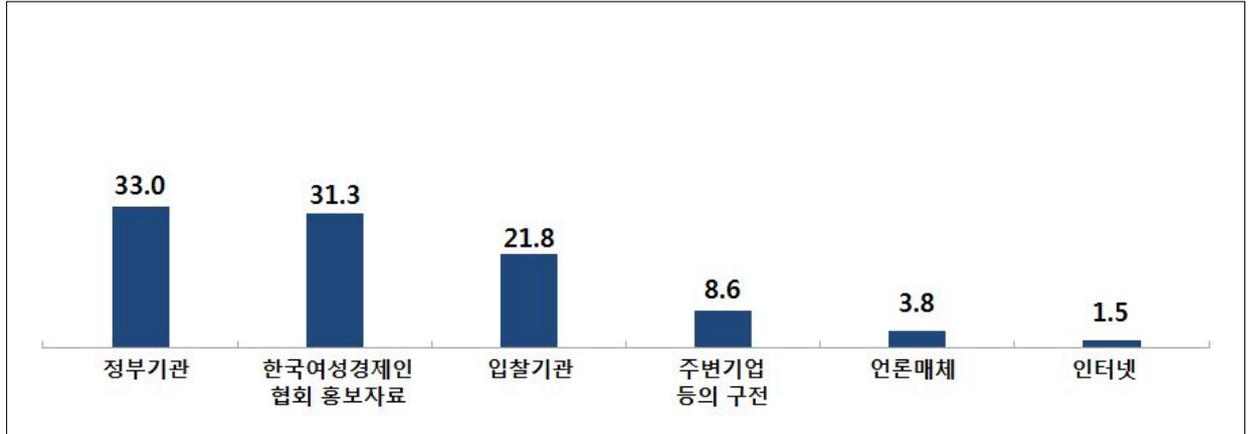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여성기업 확인증 발급받은	알고 있으나 발급받지 않음	모름	
전 체		42,118	14.5	11.3	74.2	
대분	제조업	7,459	16.7	8.7	74.5	
	비제조업	34,659	14.0	11.8	74.2	
세부업종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834	11.6	5.3	83.1
		섬유/의복/가방/신발	803	17.4	8.4	74.3
		기타 제조	5,822	17.4	9.3	73.3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461	20.5	8.9	70.7
		건설업	8,211	23.0	17.2	59.9
		도매 및 소매업	10,963	10.7	9.2	80.1
		운수업	1,954	10.4	7.4	82.3
		숙박 및 음식점업	1,028	8.7	6.0	85.3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683	14.1	10.1	75.8
		금융 및 보험업	769	4.0	6.4	89.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31	6.7	13.1	80.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06	16.0	13.9	70.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2	14.6	12.8	72.6
		교육 서비스업	891	7.3	7.5	85.1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7.3	6.4	86.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2	5.8	11.0	83.3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7.1	14.8	78.1		
중사자규모	5인 미만	22,217	11.3	10.0	78.7	
	5 ~ 19인	16,213	17.5	13.1	69.4	
	20 ~ 49인	2,634	19.6	10.4	70.1	
	50 ~ 99인	628	23.2	13.3	63.5	
	100인 이상	426	22.2	8.7	69.0	
지역	수도권	26,182	11.4	11.7	76.9	
	경남권	6,429	19.2	11.5	69.3	
	경북권	3,348	18.9	14.2	66.9	
	전라권	3,236	19.4	8.5	72.1	
	충청권	2,923	21.5	6.5	72.0	

8. 여성기업 확인증 인식 경로

- 여성기업 확인증을 인식하고 있는 여성기업의 인식 경로를 살펴보면 ‘정부기관’이 33.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홍보자료’(31.3%), ‘입찰기관’(21.8%), ‘주변기업 등의 구전’(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19) 여성기업 확인증 인식 경로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홍보자료’(36.6%)를 통해 확인증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비제조업은 ‘정부기관’(32.8%)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 한편, 비제조업 중,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과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홍보자료’로 응답한 비중이 각각 50.1%, 53.0%로 협회 홍보자료가 중요한 경로인 것으로 분석됨
- ‘50인 미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정부기관이나 협회를 통해 인지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나, ‘5인 미만’과 ‘50-99인’은 ‘주변기업 등 구전’에 대한 응답이 각각 10.0%, 11.5%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 권역별로는 ‘경남권’(40.3%), ‘경북권’(43.5%)에서 정부기관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30.6%), ‘전라권’(39.3%)에서는 ‘협회 홍보 자료’, ‘충청권’은 ‘공공구매 입찰기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음

<표 156> 여성기업의 여성기업 확인증 인식 경로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홍보자료	공공구매 입찰기관	주변 기업 등의 구전	언론매체	인터넷	
전 체		6,104	33.0	31.3	21.8	8.6	3.8	1.5	
부 문	제조업	1,249	34.0	36.6	13.2	10.6	4.5	1.1	
	비제조업	4,856	32.8	30.0	24.0	8.1	3.6	1.6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품/음료 제조	97	32.2	38.1	20.3	0.0	9.4	0.0
		섬유/의복/가방/신발	140	29.5	35.3	12.6	22.6	0.0	0.0
		기타 제조	1,012	34.8	36.6	12.6	9.9	4.6	1.4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94	16.4	50.1	28.0	0.0	5.5	0.0
		건설업	1,888	33.5	27.6	25.9	9.4	2.4	1.2
		도매 및 소매업	1,173	41.4	30.2	14.5	10.0	3.9	0.0
		운수업	203	31.1	36.8	30.3	0.0	1.8	0.0
		숙박 및 음식점업	89	38.4	23.9	31.2	0.0	6.5	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237	37.8	29.5	12.1	0.0	5.7	14.9
		금융 및 보험업	31	0.0	53.0	35.3	11.7	0.0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1	25.4	35.6	31.7	0.0	7.3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86	19.1	29.3	31.3	9.5	7.1	3.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504	24.5	30.9	35.0	6.4	1.6	1.6
		교육 서비스업	65	18.4	30.8	18.4	23.2	9.2	0.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8	49.8	33.3	16.9	0.0	0.0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64.5	35.5	0.0	0.0	0.0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8	34.5	26.8	8.9	18.8	10.9	0.0
		중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2,508	33.4	32.8	18.5	10.0	3.4
5 ~ 19인	2,840		33.5	29.5	23.3	7.6	4.5	1.6	
20 ~ 49인	516		33.0	35.0	23.2	7.4	1.4	0.0	
50 ~ 99인	146		20.9	32.8	31.2	11.5	3.6	0.0	
100인 이상	95		28.8	25.1	40.0	2.3	3.8	0.0	
권 역 별	수도권	2,976	29.0	30.6	20.1	13.3	4.2	2.9	
	경남권	1,237	40.3	28.6	25.7	2.3	3.0	0.0	
	경북권	634	43.5	34.0	19.0	2.0	1.5	0.0	
	전라권	628	35.9	39.3	12.6	7.7	4.5	0.0	
	충청권	629	24.2	29.8	34.0	6.3	4.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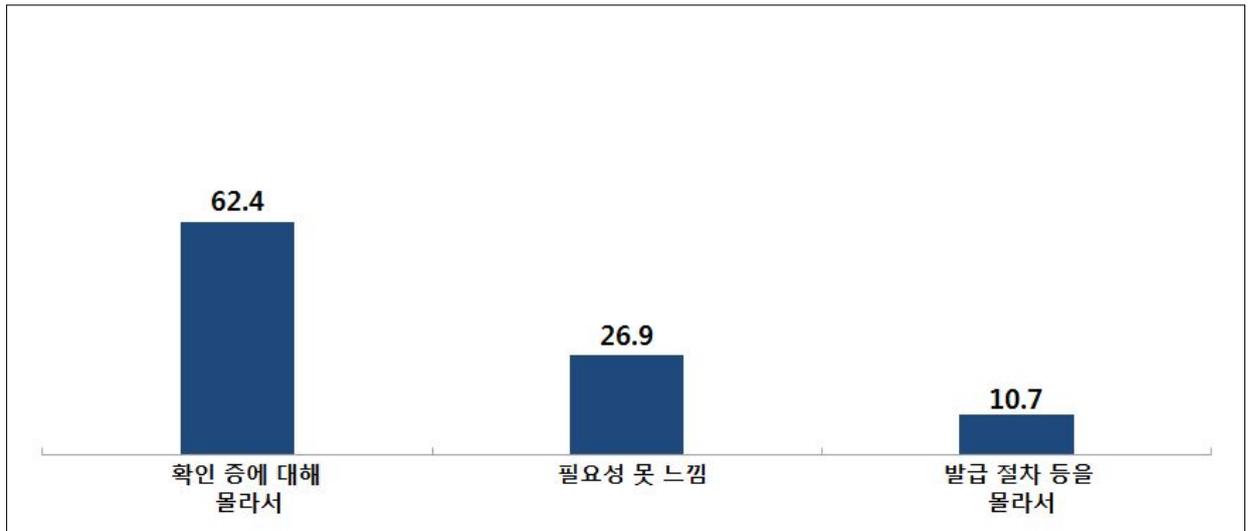
※ 여성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9. 여성기업 확인증을 받지 않은 이유

- 여성기업 확인증 미발급 기업의 경우, 주로 '확인증을 잘 몰라서'(62.4%) 확인증을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확인증 발급의 필요성을 못 느낌'(26.9%), '여성기업 확인증 발급 절차 등의 방법을 몰라서'(10.7%) 순으로 나타남

(그림 120) 여성기업 확인증을 받지 않은 이유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확인증에 대해 몰라서'로 응답한 비율은 제조업(63.4%)과 비제조업(62.2%) 모두 비슷하게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식료품/음료 제조'(72.0%), 비제조업 중 '금융 및 보험업'(77.5%)에서 '확인증을 몰라서' 발급받지 않았다는 응답 높음
 - 한편, '건설업'(15.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13.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3.1%)에서는 '여성기업 확인증 발급 절차 등 방법을 몰라서' 발급받지 않았다는 응답도 높은 편임
- 종사자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대비, '50인 이상'에서 확인증 발급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비중이 높음

<표 157> 여성기업이 여성기업 확인증을 받지 않은 이유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여성기업 확인증에 대해 몰라서	여성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을 필요성을 못 느낌	여성기업 확인증 발급 절차 등 방법을 잘 몰라서	
전 체		36,008	62.4	26.9	10.7	
부 문	제조업	6,210	63.4	27.8	8.9	
	비제조업	29,798	62.2	26.8	11.0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737	72.0	19.6	8.4
		섬유/의복/가방/신발	663	56.7	33.8	9.5
		기타 제조	4,810	63.0	28.2	8.8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367	64.3	25.4	10.3
		건설업	6,323	56.8	27.9	15.3
		도매 및 소매업	9,790	67.5	21.5	11.0
		운수업	1,751	45.8	49.0	5.2
		숙박 및 음식점업	939	68.1	26.4	5.4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446	66.0	28.3	5.7
		금융 및 보험업	738	77.5	18.1	4.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15	63.6	27.2	9.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20	64.2	22.7	13.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2,948	53.8	33.1	13.1
		교육 서비스업	826	74.3	18.8	6.9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07	76.8	23.2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3	59.8	33.8	6.4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25	55.7	32.8	11.6		
종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19,709	62.7	26.6	10.7	
	5 ~ 19인	13,368	62.4	26.8	10.8	
	20 ~ 49인	2,118	62.6	27.7	9.7	
	50 ~ 99인	482	52.2	35.2	12.6	
	100인 이상	331	61.2	32.6	6.1	
권 역 별	수도권	23,201	63.3	25.6	11.1	
	경남권	5,193	58.0	34.2	7.8	
	경북권	2,714	59.6	27.0	13.4	
	전라권	2,608	65.5	22.9	11.6	
	충청권	2,293	63.5	28.6	7.9	

※ 여성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지 않은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제1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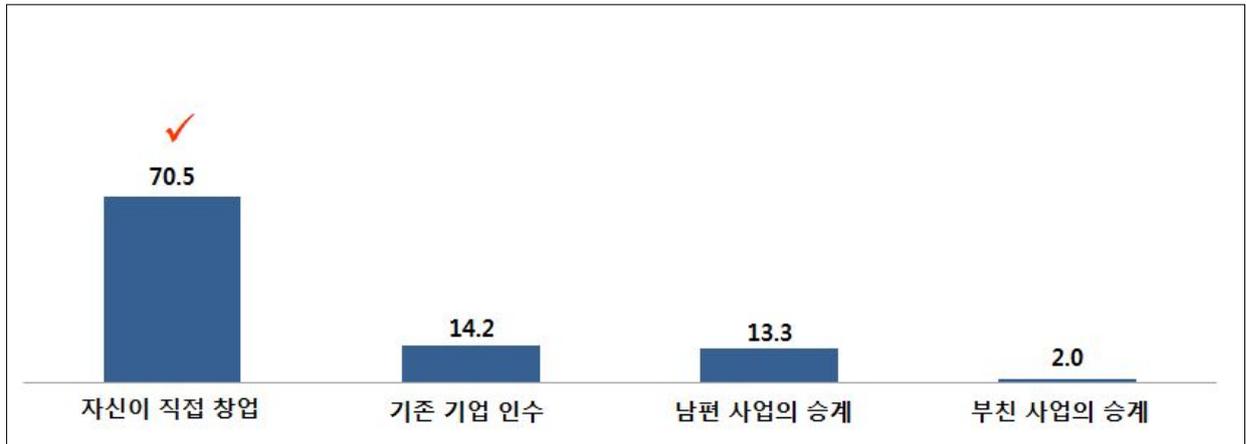
여성기업의 창업 관련

1. 지금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 여성기업의 대표가 지금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자신이 직접 창업’(70.5%), ‘기존기업 인수’(14.2%), ‘남편사업의 승계’(13.3%), ‘부친사업의 승계’(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21) 지금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73.7%)과 비제조업(70.0%) 모두 ‘자신이 직접 창업’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식료품/음료 제조’(75.6%), 비제조업 중에서 ‘금융 및 보험업’(88.0%)에서 ‘자신이 직접 창업’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 한편, 상대적으로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22.2%)에서는 ‘기존 기업 인수’라는 응답이 타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19.3%), ‘운수업’(19.2%)은 남편사업을 승계한 여성기업인 비중이 높음
- 종사자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76.7%)의 기업에서, 권역별로는 ‘충청권’(72.3%)에서 ‘자신이 직접 창업’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표 158> 지금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단위: 개사 %)

구분		사례 수	자신이 직접 창업	기존 기업 인수	남편 사업의 승계	부친 사업의 승계	
전체		21,199	70.5	14.2	13.3	2.0	
기업	제조업	3,280	73.7	9.6	14.1	2.6	
	비제조업	17,919	70.0	15.0	13.1	1.9	
세구업종	제조업	식품/음료 제조	432	75.6	8.4	13.8	2.1
		섬유/의복/가방/신발	371	73.6	11.3	11.2	3.9
		기타 제조	2,477	73.4	9.6	14.6	2.5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55	62.0	16.4	19.3	2.3
		건설업	3,878	68.4	14.8	14.1	2.7
		도매 및 소매업	5,442	62.2	18.5	18.1	1.2
		운수업	950	60.0	17.6	19.2	3.1
		숙박 및 음식점업	661	70.0	15.9	10.5	3.6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968	83.0	4.8	11.1	1.1
		금융 및 보험업	515	88.0	7.1	4.9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50	83.1	9.1	7.3	0.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08	74.4	13.9	10.0	1.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623	78.6	11.7	6.1	3.6
		교육 서비스업	565	77.1	18.8	3.0	1.1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75	78.5	11.9	9.6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78	73.4	17.2	9.5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51	64.9	22.2	11.8	1.2
중사자규모	5인 미만	12,922	71.2	14.1	12.8	2.0	
	5 ~ 19인	7,201	69.9	13.9	14.3	1.9	
	20 ~ 49인	873	64.5	18.2	14.4	2.9	
	50 ~ 99인	128	76.0	13.9	10.2	0.0	
	100인 이상	75	76.7	11.7	9.0	2.7	
지역	수도권	12,945	71.6	14.2	13.3	0.9	
	경남권	3,152	69.4	12.6	14.9	3.1	
	경북권	1,668	66.6	15.3	13.8	4.3	
	전라권	1,870	67.0	17.2	11.3	4.4	
	충청권	1,564	72.3	11.8	12.1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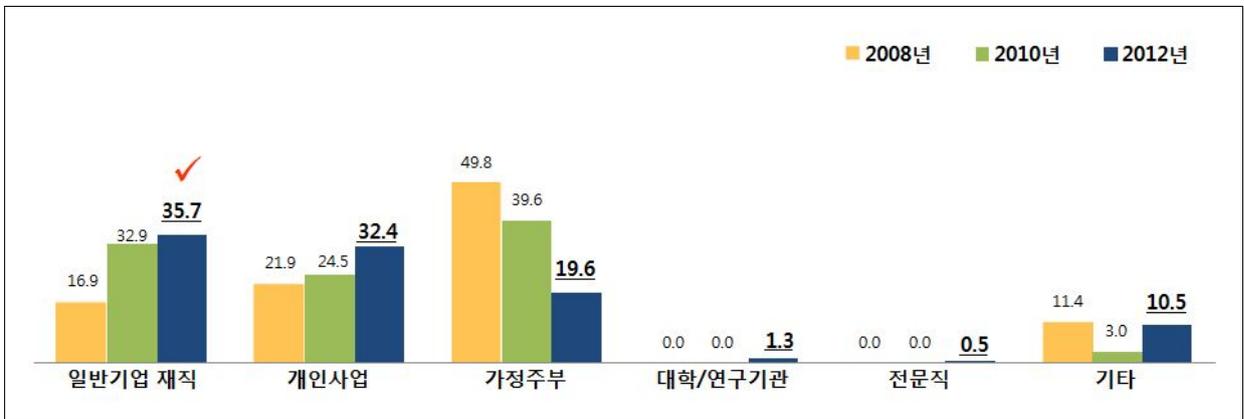
※ 창업연도가 2006년 6월 이후인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함

2. 현 기업체를 맡기 전 종사한 직업

- 여성기업의 대표가 현 기업체 이전에 종사한 직업을 살펴보면 ‘일반기업 재직’(35.7%), ‘개인사업’(32.4%), ‘가정주부’(19.6%) 순으로 나타남
- 과거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2012년 여성기업체의 경우는 ‘일반기업 재직’(2008년 16.9% → 2012년 35.7%)과 ‘개인사업’(2008년 21.9% → 2012년 32.4%)이라는 응답은 높게 나타난 반면, ‘가정주부’(2008년 49.8% → 2012년 19.6%)라는 응답은 낮게 나타남

(그림 122) 현 기업체를 맡기 전 종사한 직업

(단위: %)



※ ‘대학/연구기관’, ‘전문직’은 2013년 조사에서 신규 추가된 보기항목임

- 현 기업체를 맡기 전 ‘일반기업 재직’이었다는 응답은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54.8%), 비제조업 중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50.6%)에서 높은 편임
- ‘개인사업’을 했다는 응답은 제조업 중, ‘식품/음료제조’(42.1%), 비제조업 중 ‘부동산업 및 임대업’(42.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28.3%), ‘운수업’(30.1%)은 ‘가정주부’였다가 현 기업체를 맡은 여성경영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사자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 기업체의 경우, ‘개인사업’을 했다는 응답이 55.4%로 기존에도 사업을 하다가 현 기업체를 운영하게 된 여성경영인이 많은 것으로 보임

<표 159> 현 기업체를 맡기 전 종사한 직업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일반기업 재직	개인 사업	가정 주부	공공 기관	학생	대학/ 연구 기관	전문직	기타	
전 체		21,199	35.7	32.4	19.6	2.8	1.4	1.3	0.5	6.3	
부	제조업	3,280	38.3	32.9	19.3	2.0	1.1	1.4	0.2	4.8	
	비제조업	17,919	35.2	32.3	19.6	2.9	1.5	1.3	0.6	6.6	
세 부 업 종 류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432	22.8	42.1	22.7	3.6	1.5	3.6	0.0	3.6
		섬유/의복/가방/신발	371	54.8	26.1	11.8	1.6	0.0	2.5	0.0	3.2
		기타 제조	2,477	38.5	32.3	19.8	1.8	1.2	0.8	0.3	5.3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55	38.3	30.9	28.3	0.0	0.0	0.0	0.0	2.6
		건설업	3,878	33.7	37.6	21.4	1.7	2.4	0.0	0.0	3.2
		도매 및 소매업	5,442	33.0	28.6	20.6	2.8	1.4	1.0	0.4	12.2
		운수업	950	28.9	36.2	30.1	0.0	0.0	1.5	1.2	2.1
		숙박 및 음식점업	661	24.4	37.6	25.2	7.9	1.0	2.0	1.0	0.9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968	50.6	16.5	14.7	3.4	0.0	5.9	0.0	8.9
		금융 및 보험업	515	38.1	30.3	21.6	1.1	1.1	0.0	1.1	6.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50	28.5	42.8	17.9	3.1	1.5	1.5	0.0	4.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08	49.0	27.9	13.2	2.7	1.9	1.7	0.0	3.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623	36.6	37.9	16.2	4.8	0.5	0.2	0.8	3.0
		교육 서비스업	565	32.3	26.6	10.9	7.0	1.8	5.0	7.9	8.5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75	40.4	25.1	11.4	5.9	1.9	9.7	1.9	3.7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78	34.5	34.2	13.2	4.2	0.0	1.8	3.5	8.8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51	38.7	30.6	17.4	2.3	3.1	2.6	0.0	5.4
		종 사 자 구 모	5인 미만	12,922	34.7	32.2	20.2	2.5	1.4	1.3	0.4
5 ~ 19인	7,201		36.8	32.4	18.9	3.2	1.6	1.2	0.8	5.3	
20 ~ 49인	873		42.8	33.7	16.8	3.3	0.3	1.3	0.5	1.3	
50 ~ 99인	128		47.2	30.7	10.1	1.3	0.0	5.8	0.0	4.9	
100인 이상	75		21.5	55.4	20.4	0.0	0.0	2.7	0.0	0.0	
업 역 권	수도권	12,945	37.7	31.1	16.2	2.9	0.6	1.0	0.4	10.1	
	경남권	3,152	32.3	36.3	23.1	1.7	3.6	1.4	1.5	0.0	
	경북권	1,668	30.4	30.8	28.1	2.6	4.3	3.0	0.4	0.4	
	전라권	1,870	29.9	37.4	25.9	3.4	1.0	1.4	0.1	0.9	
	충청권	1,564	38.5	30.6	23.6	3.7	1.0	2.0	0.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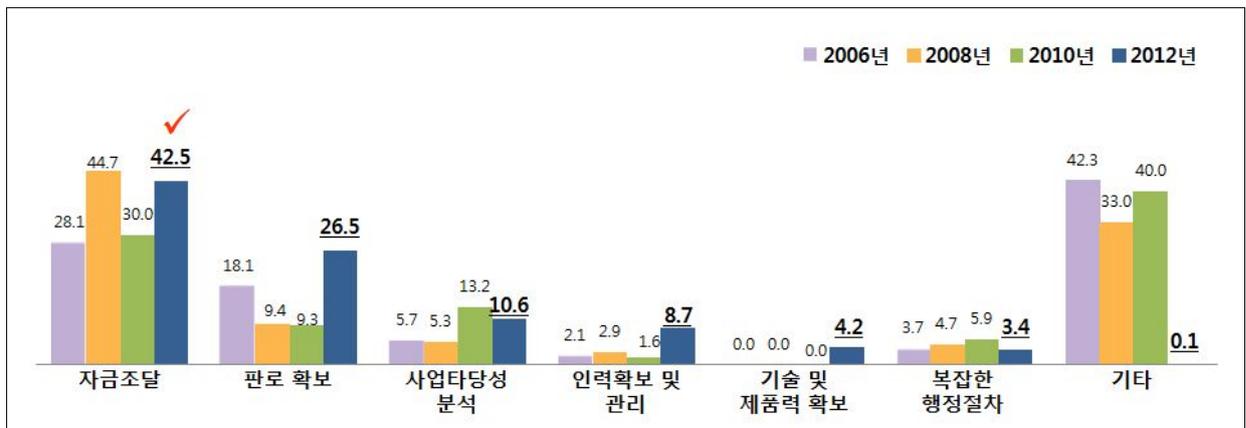
※ 창업연도가 2006년 6월 이후인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3. 창업 준비 시 애로 사항

- 여성기업의 대표가 창업 준비 시 겪은 애로 사항으로는 '자금조달'(42.5%)이 가장 높고, '판로 확보'(26.5%), '사업타당성 분석'(10.6%) 순으로 나타남
- 과거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 중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자금조달'에서 12.5%p, '판로확보'에서 17.2%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123) 창업 준비 시 애로사항

(단위: %)



※ '기술 및 제품력 확보'는 2013년 조사에서 신규 추가된 보기항목임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34.1%)과 비제조업(44.1%) 모두 '자금조달'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제조업의 경우 '판로확보'라는 응답 또한 33.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식품/음료 제조'(35.3%), 비제조업의 경우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9.6%)에서 '자금조달'로 애로를 겪었다는 응답이 높음
 - 한편, '금융 및 보험업'(27.9%)에서는 '인력확보 및 관리'라는 응답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에서 창업 시 '자금 조달'이 가장 큰 애로 사항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100인 이상'(42.0%)의 기업은 '판로확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표 160> 창업 준비 시 애로사항

(단위: 개사 %)

구분		사례 수	자금 조달	판로 확보	아이템 발굴 및 사업 타당성 분석	인력확보 및 관리	기술 및 제품력 확보	복잡한 행정 절차	기타	애로 사항 없음	
전체		21,199	42.5	26.5	10.6	8.7	4.2	3.4	0.1	3.9	
부문	제조업	3,280	34.1	33.1	15.0	4.6	7.1	3.2	0.0	2.9	
	비제조업	17,919	44.1	25.3	9.7	9.4	3.7	3.5	0.1	4.1	
세부업종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432	35.3	37.5	10.0	3.2	3.6	6.7	0.0	3.6
		섬유/의복/가방/신발	371	26.6	36.5	14.1	11.0	8.4	0.9	0.0	2.5
		기타 제조	2,477	35.0	31.8	16.1	3.9	7.5	2.9	0.0	2.8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55	49.5	29.7	2.6	4.8	0.0	7.4	0.0	5.9
		건설업	3,878	47.5	23.7	6.8	7.9	2.7	5.1	0.0	6.2
		도매 및 소매업	5,442	38.4	33.7	9.8	7.0	5.3	1.3	0.5	4.1
		운수업	950	51.6	22.3	8.5	7.5	3.9	3.1	0.0	3.0
		숙박 및 음식점업	661	36.3	12.1	17.5	13.1	3.0	11.0	0.0	7.1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968	35.1	31.9	12.8	6.1	6.1	4.4	0.0	3.6
		금융 및 보험업	515	29.3	22.0	12.1	27.9	1.1	6.7	0.0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50	61.6	11.6	7.1	8.6	3.5	5.5	0.0	2.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08	53.4	20.1	9.0	9.6	3.7	2.4	0.0	1.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623	40.9	26.2	14.1	11.5	1.3	1.7	0.0	4.5
		교육 서비스업	565	46.4	15.8	11.8	16.8	4.1	2.1	0.0	3.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75	39.8	26.2	7.8	18.1	0.0	4.1	0.0	4.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78	69.6	1.5	7.4	10.6	4.2	3.2	0.0	3.5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51	40.9	18.1	10.8	21.6	2.4	4.1	0.0	2.1		
종사자규모별	5인 미만	12,922	42.4	26.9	10.9	7.7	3.9	3.2	0.2	4.8	
	5 ~ 19인	7,201	42.5	27.2	9.8	9.9	4.9	3.5	0.0	2.2	
	20 ~ 49인	873	47.1	15.8	10.5	13.2	3.2	5.8	0.0	4.4	
	50 ~ 99인	128	34.1	17.7	17.0	8.3	6.7	8.3	0.0	7.9	
	100인 이상	75	19.4	42.0	8.9	18.1	5.6	0.0	0.0	6.1	
권역별	수도권	12,945	38.8	29.8	12.0	9.4	4.6	3.1	0.2	2.0	
	경남권	3,152	50.8	20.6	4.7	6.9	5.2	2.6	0.0	9.1	
	경북권	1,668	49.1	22.6	8.9	10.1	1.8	1.9	0.0	5.6	
	전라권	1,870	51.3	18.6	10.1	7.0	2.1	6.5	0.0	4.4	
	충청권	1,564	39.0	24.9	12.5	7.2	4.0	5.2	0.0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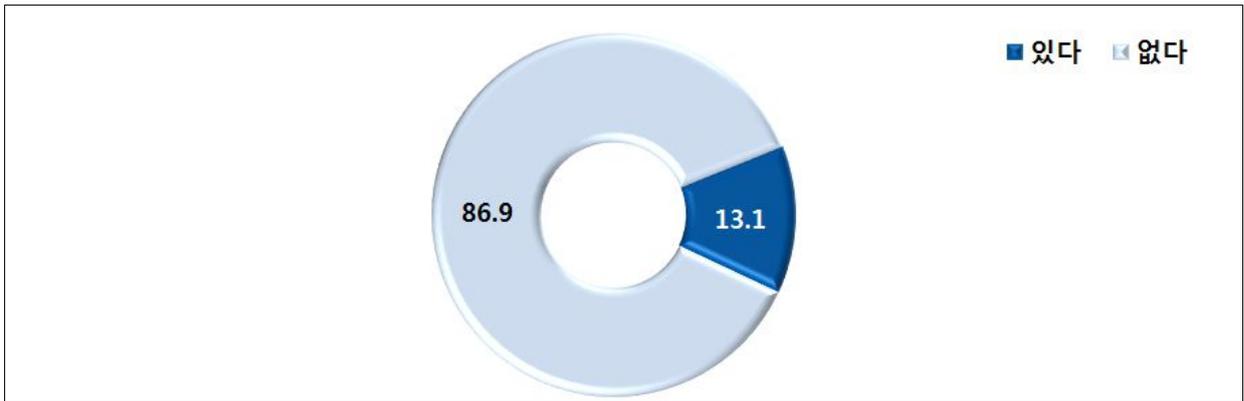
※ 창업연도가 2006년 6월 이후인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4. 창업지원 기관의 창업 지원 여부

- 창업 시 창업지원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3.1%,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86.9%로 나타남

(그림 124) 창업지원 기관의 창업 지원 여부

(단위: %)



- 창업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중은 제조업(13.0%)과 비제조업(13.1%)에 따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식품/음료 제조'(14.4%), 비제조업 중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8.5%)에서 창업지원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종사자 규모별로는 '5~19인'(16.1%), 권역별로는 '경남권'(14.9%)에서 창업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61> 창업지원 기관의 창업 지원 여부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 체		21,199	13.1	86.9	
부	제조업	3,280	13.0	87.0	
	비제조업	17,919	13.1	86.9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14.4	85.6	
		섬유/의복/가방/신발	13.6	86.4	
		기타 제조	12.7	87.3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4.9	85.1	
		건설업	17.6	82.4	
		도매 및 소매업	15.5	84.5	
		운수업	9.8	90.2	
		숙박 및 음식점업	15.2	84.8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6.1	93.9	
		금융 및 보험업	5.7	94.3	
		부동산업 및 임대업	6.5	9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9	87.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6.0	94.0	
		교육 서비스업	11.1	88.9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	9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8	91.2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8.5	81.5	
		중	5인 미만	11.7	88.3
			5 ~ 19인	16.1	83.9
20 ~ 49인	10.8		89.2		
50 ~ 99인	10.1		89.9		
100인 이상	8.7		91.3		
관	수도권	13.2	86.8		
	경남권	14.9	85.1		
	경북권	11.8	88.2		
	전라권	11.7	88.3		
	충청권	12.0	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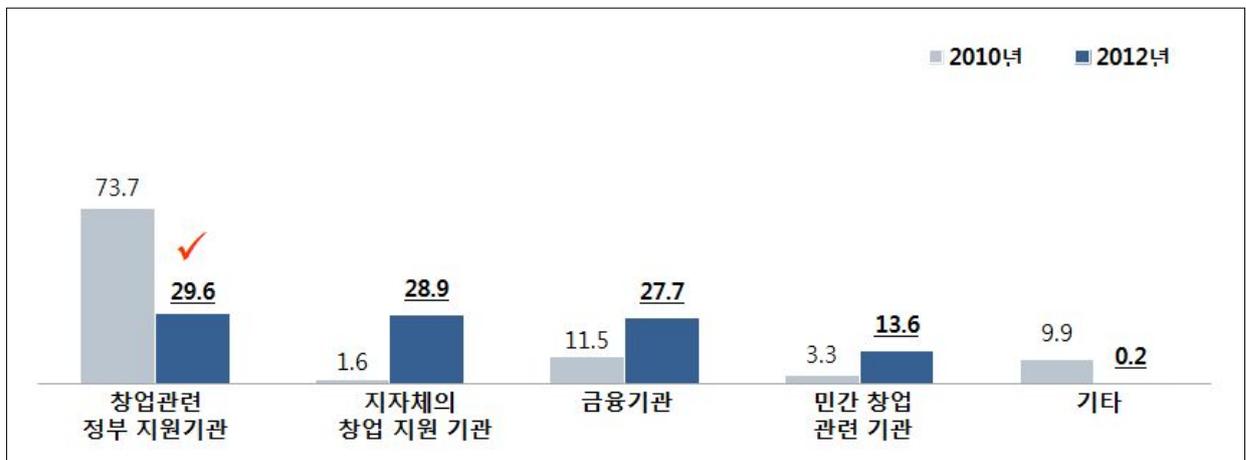
※ 창업연도가 2006년 6월 이후인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5. 창업 준비시 자문 받은 기관

- 창업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나 자문을 받은 기관으로는 ‘창업관련 정부 지원기관’(29.6%), ‘지자체 지원 기관’(28.9%), ‘금융기관’(27.7%)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2010년에는 주로 ‘창업관련 정부 지원기관’(73.7%), ‘금융기관’(11.5%)에서 주로 관련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2년 여성기업체 조사에서는 ‘창업관련 정부기관’(29.6%), ‘지자체’(28.9%), ‘금융기관’(27.7%)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25) 창업 준비 시 관련 정보나 자문 받은 기관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창업관련 정부 지원기관’(38.6%)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비제조업의 경우 ‘지자체의 창업 지원기관’(30.5%)이라는 응답이 높음
 - 한편,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76.4%), 비제조업 중 ‘금융 및 보험업’(68.8%)은 ‘금융기관’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남
- 권역별로는, ‘수도권’(32.9%)에서 ‘창업관련 정부 지원기관’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경북권’(46.8%)에서는 ‘금융기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162> 창업 준비 시 관련 정보나 자문 받은 기관

(단위: 개사 %)

구분		사례 수	창업관련 정부 지원기관	지자체의 창업 지원 기관	금융기관	민간 창업 관련 기관	기타	
전체		2,779	29.6	28.9	27.7	13.6	0.2	
업종	제조업	427	38.6	19.9	24.7	15.2	1.6	
	비제조업	2,352	27.9	30.5	28.2	13.3	0.0	
세부업종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62	36.0	42.6	10.7	10.7	0.0
		섬유/의복/가방/신발	50	23.6	0.0	76.4	0.0	0.0
		기타 제조	315	41.5	18.6	19.2	18.5	2.2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23	0.0	30.2	62.5	7.3	0.0
		건설업	683	16.4	37.9	31.8	13.9	0.0
		도매 및 소매업	846	27.7	25.0	28.7	18.6	0.0
		운수업	93	40.1	49.1	10.7	0.0	0.0
		숙박 및 음식점업	100	37.5	27.8	25.7	9.0	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59	63.7	12.8	23.5	0.0	0.0
		금융 및 보험업	29	0.0	31.2	68.8	0.0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7.5	46.2	23.1	23.1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2	52.6	31.5	10.0	6.0	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98	47.4	29.7	22.9	0.0	0.0
		교육 서비스업	63	32.3	34.0	27.3	6.4	0.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7	40.8	0.0	59.2	0.0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	20.0	40.0	20.0	20.0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3	28.0	5.1	46.7	20.1	0.0		
종사자규모	5인 미만	1,509	25.2	32.3	25.5	16.5	0.5	
	5 ~ 19인	1,156	35.9	24.7	29.3	10.0	0.0	
	20 ~ 49인	94	18.6	27.9	41.5	12.0	0.0	
	50 ~ 99인	13	42.6	0.0	57.4	0.0	0.0	
	100인 이상	7	34.8	34.8	0.0	30.4	0.0 *	
권역	수도권	1,705	32.9	21.7	28.4	16.6	0.4	
	경남권	470	26.7	30.4	27.7	15.1	0.0	
	경북권	197	16.2	32.1	46.8	4.9	0.0	
	전라권	218	30.0	46.4	16.6	7.0	0.0	
	충청권	188	20.1	66.0	13.9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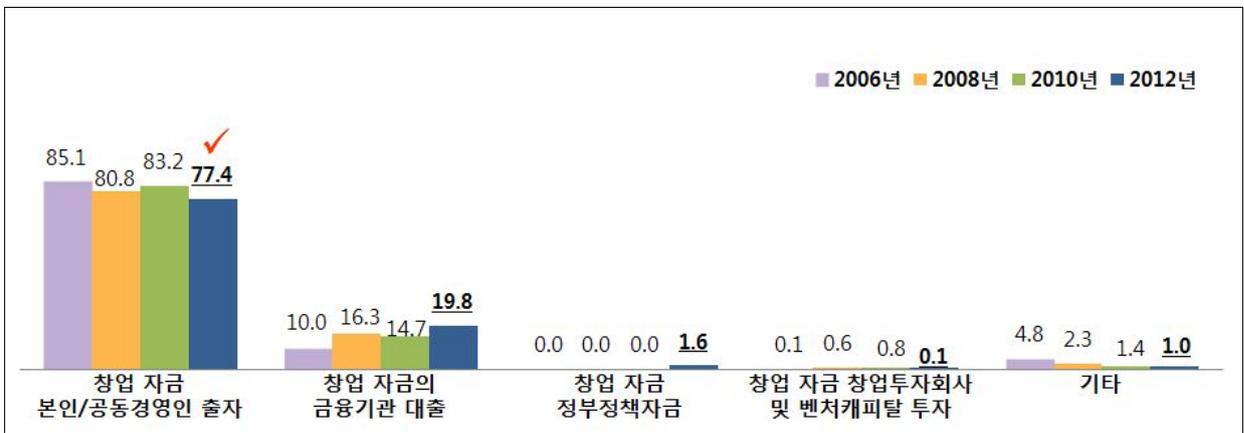
※ 창업연도가 2006년 6월 이후인 여성기업 중, 창업 지원기관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6. 창업 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경로 및 구성비율

- 여성경영인이 필요자금을 조달한 경로 및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본인/공동경영인 출자’(77.4%)가 가장 높았고, ‘금융기관 대출’(19.8%), ‘창업자금 정부정책자금’(1.6%) 순으로 나타남
- 과거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2012년 여성기업체 조사에서는 ‘창업 자금 본인/공동경영인 출자’의 비중이 다소 낮고, ‘창업 자금의 금융기관 대출’이 높아짐

(그림 126) 창업 시 필요자금 조달경로 및 구성비율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78.3%)과 비제조업(77.3%) 모두 ‘본인/공동경영인 출자’를 통해 주로 창업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건설업(30.7%)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6.0%)에서는 ‘금융기관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사자 규모별로는 ‘50 ~ 99인’(81.4%), 권역별로는 ‘경북권’(78.7%)에서 ‘본인/공동경영인의 출자’라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163> 창업 시 필요자금 조달경로 및 구성비율

(단위: 개사 %)

구분		사례 수	창업 자금의 본인/공동경 영인의 출자 비율	창업 자금의 금융기관 대출(담보/ 신용) 비율	창업 자금의 정부정책 자금 비율	창업 자금의 창업투자 회사 및 벤처캐피탈 투자 비율	창업 자금의 기타(사채 등) 비율	
전체		21,199	77.4	19.8	1.6	0.1	1.0	
업종	제조업	3,280	78.3	18.3	2.1	0.0	1.2	
	비제조업	17,919	77.3	20.1	1.5	0.1	1.0	
세부업종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432	76.9	18.2	3.3	0.0	1.7
		섬유/의복/가방/신발	371	76.7	20.1	1.6	0.0	1.6
		기타 제조	2,477	78.8	18.1	2.0	0.0	1.1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55	73.6	25.5	0.8	0.0	0.0
		건설업	3,878	67.0	30.7	1.6	0.0	0.7
		도매 및 소매업	5,442	77.4	19.6	1.7	0.1	1.1
		운수업	950	75.7	20.8	1.2	0.0	2.3
		숙박 및 음식점업	661	77.2	18.4	3.5	0.3	0.5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968	87.6	10.7	0.9	0.1	0.7
		금융 및 보험업	515	82.9	14.3	1.4	0.0	1.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50	85.3	14.0	0.3	0.0	0.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08	79.0	17.2	1.9	0.6	1.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623	86.1	12.2	1.0	0.1	0.7
		교육 서비스업	565	80.1	18.1	1.3	0.0	0.6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75	80.9	16.8	1.0	0.0	1.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78	72.2	26.0	1.3	0.0	0.5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51	81.8	13.3	1.3	0.0	3.7
		종사자규모	5인 미만	12,922	79.3	18.7	0.9	0.0
5 ~ 19인	7,201		74.6	21.5	2.6	0.2	1.0	
20 ~ 49인	873		72.0	24.5	3.0	0.2	0.4	
50 ~ 99인	128		81.4	9.5	1.8	0.0	7.4	
100인 이상	75		79.6	15.2	0.3	0.0	4.9	
권역	수도권	12,945	77.7	19.4	1.5	0.2	1.2	
	경남권	3,152	78.1	19.8	1.5	0.0	0.6	
	경북권	1,668	78.7	18.9	2.3	0.0	0.1	
	전라권	1,870	74.8	22.1	2.3	0.0	0.8	
	충청권	1,564	75.3	21.9	1.2	0.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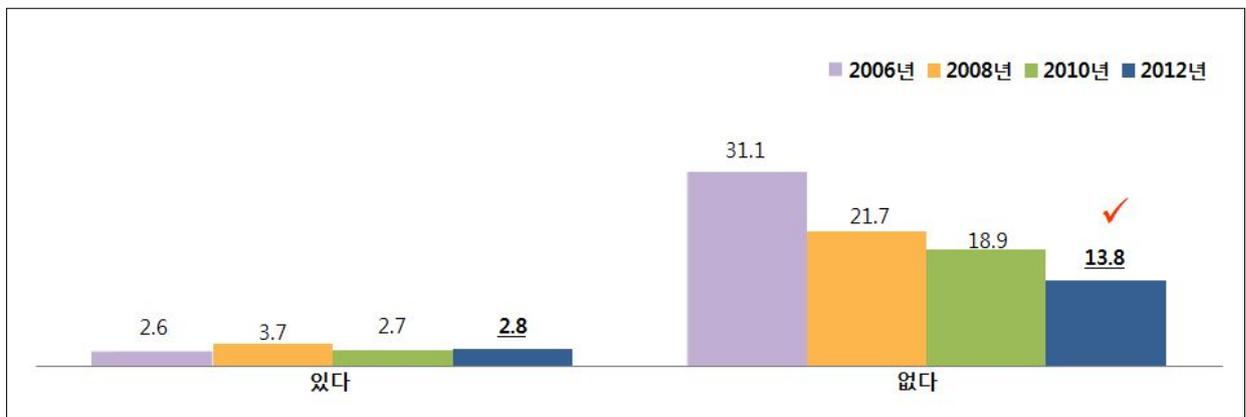
※ 창업년도가 2006년 6월 이후인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7. 창업 시 정책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경험

- 정책 자금 신청 후 지원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기업은 2.8%, '없다'고 응답한 여성기업은 13.8%로 나타남
 - 한편, 2006년 6월 이후 창업한 여성기업 중 83.5%는 창업 정책자금을 신청한 경험 자체가 없다고 응답
- 2012년 여성기업체 조사에서 정책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여성기업 비중은 2010년 사업체 조사 결과와 거의 비슷함

(그림 127) 창업 시 정책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경험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5.5%)이 비제조업(2.2%)에 비해 창업 시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제조와 '식료품/음료 제조'(각각 5.6%), 비제조업 중에서는 '교육 서비스업'(5.0%)에서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64> 창업 시 정책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경험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있다	없다	해당 없음 (자금신청 경험 없음)	
전 체		21,199	2.8	13.8	83.5	
부	제조업	3,280	5.5	12.7	81.8	
	비제조업	17,919	2.2	14.0	83.8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432	5.5	9.2	85.4
		섬유/의복/가방/신발	371	5.6	15.4	79.0
		기타 제조	2,477	5.6	12.9	81.6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55	0.0	24.9	75.1
		건설업	3,878	1.3	23.2	75.5
		도매 및 소매업	5,442	2.8	9.6	87.6
		운수업	950	2.1	13.0	84.9
		숙박 및 음식점업	661	2.3	19.3	78.4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968	4.6	4.2	91.2
		금융 및 보험업	515	.7	10.9	88.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50	.5	9.2	9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08	2.5	15.7	81.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623	1.9	9.0	89.1
		교육 서비스업	565	5.0	23.1	72.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75	0.0	21.5	78.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78	4.7	13.4	82.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51	2.5	14.4	83.1		
중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12,922	2.6	13.1	84.3	
	5 ~ 19인	7,201	3.0	14.4	82.6	
	20 ~ 49인	873	3.6	17.2	79.2	
	50 ~ 99인	128	3.0	25.3	71.7	
	100인 이상	75	1.7	3.0	95.2	
권 역 별	수도권	12,945	2.8	6.7	90.5	
	경남권	3,152	2.9	26.2	70.9	
	경북권	1,668	2.6	21.1	76.3	
	전라권	1,870	1.7	30.5	67.8	
	충청권	1,564	3.8	19.4	7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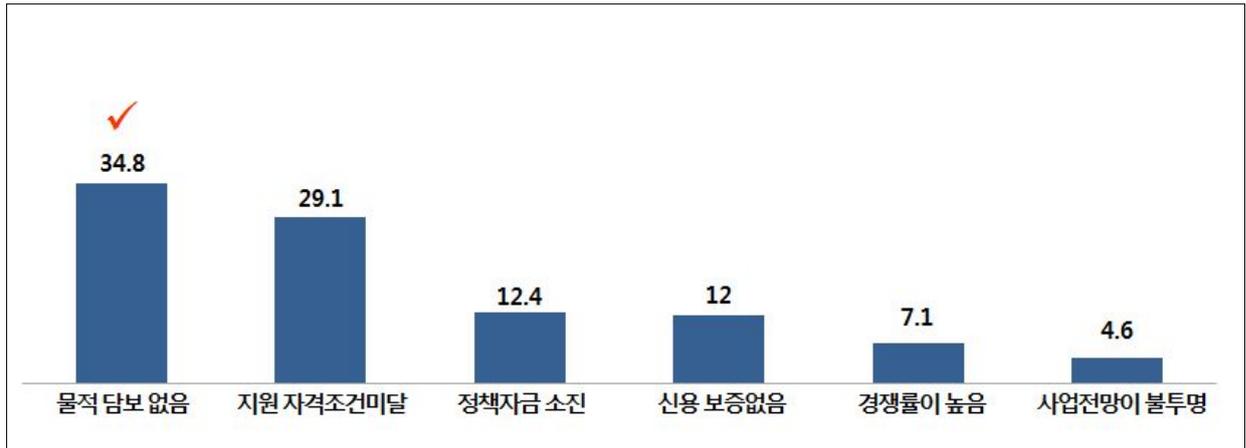
※ 창업연도가 2006년 6월 이후인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8. 창업 시 정책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이유

- 정책자금을 지원했으나 받지 못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물적 담보 없음'(34.8%)이 가장 높았고, '지원 자격조건 미달'(29.1%), '정책자금 소진'(1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28) 창업 시 정책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이유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36.6%)과 비제조업(34.0%) 모두 '물적 담보 없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제조업의 경우 '신용보증이 없어서'(19.0%), 비제조업의 경우 '정책자금 소진'(15.5%)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물적담보가 없어서' 자금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제조업 중 '식품/음료 제조'(61.5%), 비제조업의 경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69.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정책자금 소진'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건설업'(54.9%),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75.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신용보증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운수업'(5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0.7%)에서 가장 높음
- 권역별로는 '충청권'에서 '물적 담보가 없음'에 대한 응답이 76.9%로 높게 나타남

<표 165> 창업 시 정책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이유

(단위: 개사 %)

구분		사례 수	물적 담보가 없어서	지원 자격조건에 미달해서	정책자금 소진	신용 보증이 없어서	경쟁률이 높아서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 고 해서	
전체		584	34.8	29.1	12.4	12.0	7.1	4.6	
부 면	제조업	182	36.6	26.6	5.6	19.0	9.0	3.3	
	비제조업	402	34.0	30.2	15.5	8.8	6.3	5.2	
세 부 면 중 의 면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24	61.5	28.1	0.0	0.0	10.3	0.0
		섬유/의복/가방/신발	21	55.6	0.0	15.8	0.0	0.0	28.6
		기타 제조	138	29.4	30.3	5.1	25.1	10.1	0.0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	-	-	-	-	-	-
		건설업	50	45.1	0.0	54.9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150	30.3	52.3	17.4	0.0	0.0	0.0
		운수업	20	0.0	50.0	0.0	50.0	0.0	0.0
		숙박 및 음식점업	15	43.6	17.4	0.0	0.0	39.0	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44	34.8	24.6	0.0	20.3	0.0	20.3
		금융 및 보험업	4	0.0	0.0	0.0	0.0	0.0	1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5	0.0	100.0	0.0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5	69.3	0.0	0.0	30.7	0.0	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1	0.0	16.8	0.0	12.5	43.8	26.9
		교육 서비스업	28	57.2	21.4	0.0	0.0	21.4	0.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	41.7	37.5	0.0	20.8	0.0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	24.3	0.0	75.7	0.0	0.0	0.0		
중 사 자 구 모 면	5인 미만	334	28.3	38.6	16.0	9.1	7.9	0.0	
	5 ~ 19인	213	42.8	15.5	7.3	15.9	6.0	12.6	
	20 ~ 49인	31	51.4	24.8	10.5	5.5	7.8	0.0	
	50 ~ 99인	4	0.0	0.0	0.0	100.0	0.0	0.0	
	100인 이상	1	100.0	0.0	0.0	0.0	0.0	0.0	
면 의 구 분	수도권	358	31.2	42.0	0.0	16.8	3.6	6.5	
	경남권	92	36.7	13.7	28.5	0.0	21.2	0.0	
	경북권	43	13.3	15.8	70.8	0.0	0.0	0.0	
	전라권	32	21.6	0.0	49.0	0.0	29.3	0.0	
	충청권	59	76.9	0.0	0.0	16.9	0.0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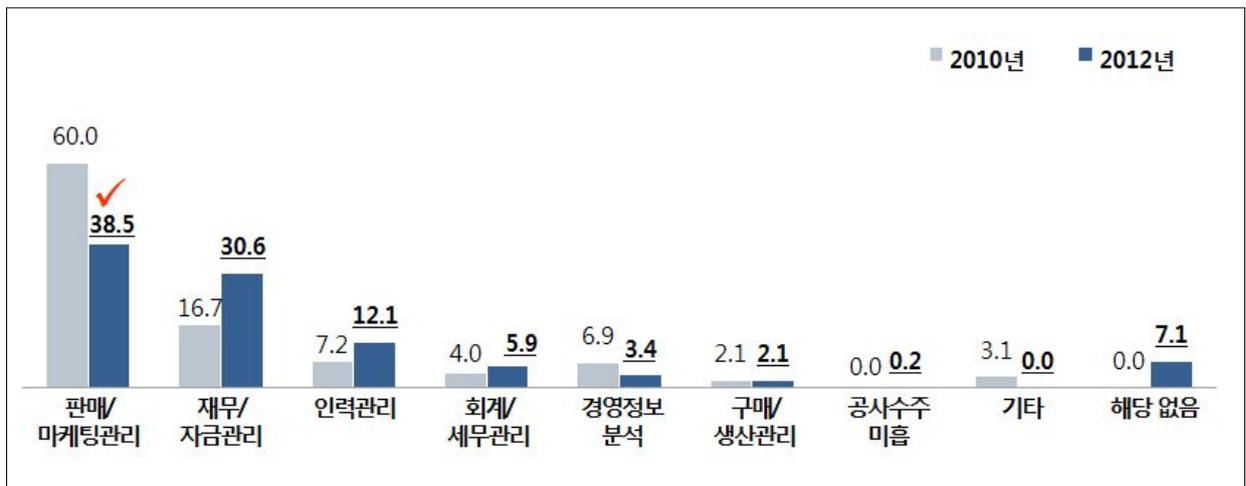
※ 창업연도가 2006년 6월 이후인 여성기업 중,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9. 초기 사업 운영 시 가장 어려웠던 점

- 창업 후 초기 사업 운영 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판매/마케팅관리’(38.5%)가 가장 높았고, ‘재무/자금관리’(30.6%), ‘인력관리’(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2012년 여성기업체 조사에서는 ‘판매/마케팅관리’ 응답은 더 낮은 반면(2010년 60.0% → 2012년 38.5%), ‘재무/자금관리’ 응답은 더 높게 나타남(2010년 16.7% → 2012년 30.6%)

(그림 129) 초기 사업 운영 시 가장 어려웠던 점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창업 후 초기 사업 운영 시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 ‘판매/마케팅 관리’로 응답한 비중은 비제조업(37.4%) 보다 제조업(44.4%)에서 7.0%p 높게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식품/음료 제조’(48.0%), 비제조업 중 ‘도매 및 소매업’(48.5%)에서 ‘판매/마케팅관리’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 한편, 비제조업 중 ‘부동산 및 임대업’(43.7%), ‘교육 서비스업’(41.2%) 등에서는 ‘재무/자금관리’가 초기 운영 시 가장 큰 애로인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판매/마케팅 관리’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보임. 권역별로는 ‘충청권’(49.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66> 초기 사업 운영 시 가장 어려웠던 점

(단위: 개사 %)

구분		사례 수	판매/ 마케팅 관리	재무/ 자금 관리	인력 관리	회계/ 세무 관리	경영 정보 분석	구매/ 생산 관리	공사 수주 미흡	해당 없음 (어려움이 없었음)	
전체		21,199	38.5	30.6	12.1	5.9	3.4	2.1	0.2	7.1	
대분	제조업	3,280	44.4	25.9	9.9	5.0	3.3	3.0	0.4	8.0	
	비제조업	17,919	37.4	31.5	12.5	6.1	3.5	2.0	0.1	6.9	
세부업종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432	48.0	21.6	8.3	3.2	3.1	4.2	1.5	10.1
		섬유/의복/가방/신발	371	42.9	28.7	7.8	8.8	2.1	4.1	0.0	5.6
		기타 제조	2,477	44.1	26.3	10.5	4.8	3.5	2.6	0.3	8.0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55	35.7	27.8	13.8	9.7	5.7	0.0	0.0	7.4
		건설업	3,878	32.5	35.0	11.3	5.6	1.8	4.0	0.6	9.1
		도매 및 소매업	5,442	48.5	27.0	6.7	7.8	1.8	2.9	0.0	5.4
		운수업	950	27.0	37.1	13.5	2.9	6.8	1.0	0.0	11.7
		숙박 및 음식점업	661	26.2	39.8	20.4	1.0	2.0	0.9	0.0	9.8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968	41.1	35.7	7.4	2.1	11.3	0.5	0.0	1.9
		금융 및 보험업	515	41.2	14.2	26.3	3.8	4.2	0.0	0.0	10.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50	17.5	43.7	21.9	6.1	6.8	0.0	0.0	4.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08	34.6	30.9	13.7	9.1	4.9	0.0	0.0	6.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623	40.5	24.5	17.8	6.8	3.2	0.8	0.0	6.4
		교육 서비스업	565	31.5	41.2	13.4	4.3	3.8	0.0	0.0	5.9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75	36.1	35.9	20.0	1.8	0.0	0.0	0.0	6.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78	30.5	38.2	8.0	3.5	6.2	1.0	0.0	12.7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51	27.8	26.6	27.1	7.1	2.0	2.3	0.0	7.2		
종사자규모별	5인 미만	12,922	40.8	29.3	12.0	6.0	3.2	1.6	0.1	7.0	
	5 ~ 19인	7,201	35.4	33.6	10.9	6.0	3.7	3.0	0.3	7.0	
	20 ~ 49인	873	32.1	28.2	19.7	4.8	4.0	2.5	0.0	8.7	
	50 ~ 99인	128	31.9	24.2	26.3	3.0	4.4	6.0	0.0	4.3	
	100인 이상	75	35.0	7.8	23.6	6.1	15.3	0.0	0.0	12.2	
권역별	수도권	12,945	39.4	26.8	12.5	7.6	3.4	2.5	0.2	7.6	
	경남권	3,152	28.9	45.3	12.3	3.5	3.1	1.6	0.0	5.3	
	경북권	1,668	36.2	38.9	11.9	2.4	2.1	3.8	0.4	4.2	
	전라권	1,870	41.3	29.3	8.8	2.8	3.8	0.7	0.0	13.3	
	충청권	1,564	49.6	25.5	12.0	4.6	5.3	0.5	0.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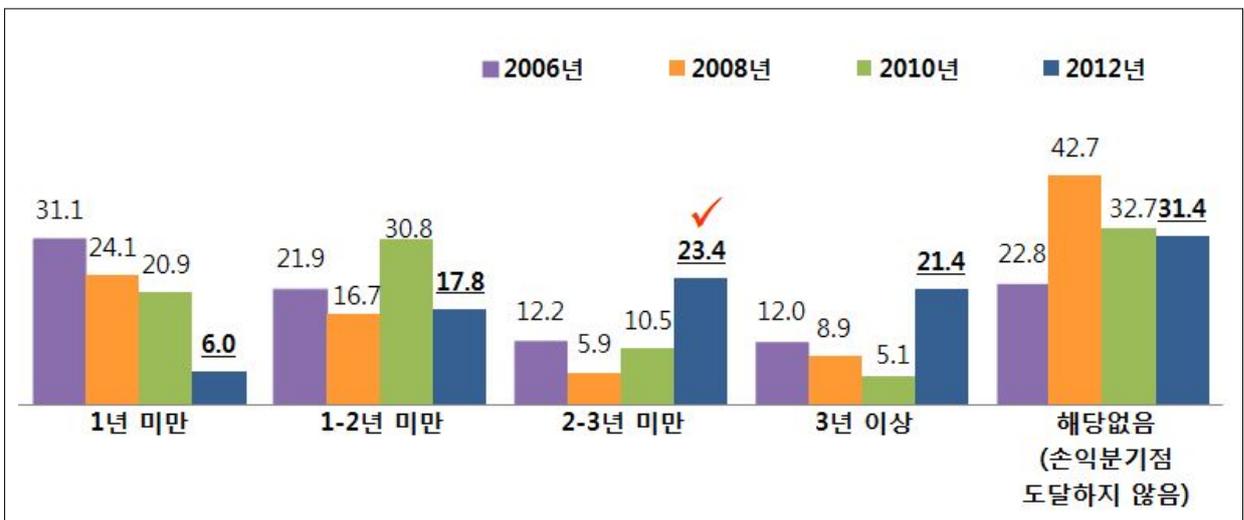
※ 창업연도가 2006년 6월 이후인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10. 창업 후 손익분기점 도달 기간

- 여성기업의 31.4%가 창업 후 아직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여성기업 중, 23.4%는 '2년~3년 미만', 21.4%는 '3년 이상'이 되는 시기에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시작하였음
- 손익분기점을 도달하지 않은 여성기업의 비율은 기존 여성사업체 조사와 큰 차이(2010년 32.7%, 2012년 31.4%)가 없음. 반면, 손익분기점 도달시기가 1년 미만인 여성기업 비중은 낮아짐

(그림 130) 창업 후 손익 분기점 도달 기간

(단위: %)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비제조업(32.2%)이 제조업(26.5%) 보다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은 기업의 비중이 높음
 - 손익분기점 도달 기간으로 제조업(26.3%)은 '3년 이상', 비제조업(22.9%)은 '2-3년 미만'에 대한 응답이 높음
 -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제조업 중 '식품/음료 제조(32.1%)', 비제조업 중 '부동산업 및 임대업'(43.9%)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제조업 중 '식품/음료 제조'의 경우 '1년 미만'(10.9%)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손익분기점 도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기타 제조'는 '3년 이상'(29.3%)이라는 응답이 높음. 비제조업의 경우 '운수업'은 '1년 미만'(10.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3년 이상'(30.6%)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167> 창업 후 손익 분기점 도달 기간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1년 미만	1년- 2년 미만	2년- 3년 미만	3년 이상	해당 없음 (아직 도달하지 못함)	
전 체		21,199	6.0	17.8	23.4	21.4	31.4	
세 계	제조업	3,280	4.1	16.9	26.2	26.3	26.5	
	비제조업	17,919	6.4	18.0	22.9	20.4	32.2	
세 계 중 의 비 제 조 업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432	10.9	15.2	25.3	16.4	32.1
		섬유/의복/가방/신발	371	5.6	22.6	30.4	18.4	23.2
		기타 제조	2,477	2.7	16.3	25.7	29.3	26.0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55	3.4	19.6	21.5	29.2	26.3
		건설업	3,878	6.5	19.3	14.0	21.8	38.4
		도매 및 소매업	5,442	5.4	18.1	28.1	22.1	26.3
		운수업	950	10.6	16.6	19.3	14.5	38.8
		숙박 및 음식점업	661	9.9	10.9	26.2	13.4	39.8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968	1.6	24.7	20.9	19.6	33.2
		금융 및 보험업	515	7.8	17.7	26.2	21.5	26.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50	7.9	9.0	15.9	23.4	43.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08	7.2	15.7	21.0	30.6	25.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623	5.9	21.2	35.5	10.3	27.1
		교육 서비스업	565	7.3	21.1	19.1	17.7	34.8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75	3.7	17.6	19.3	23	36.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78	6.6	14.1	21.3	14.4	43.7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51	8.0	18.6	25.5	11.5	36.3		
창 사 자 구 분	5인 미만	12,922	6.6	17.0	23.1	19.9	33.5	
	5 ~ 19인	7,201	4.9	19.4	23.3	23.8	28.7	
	20 ~ 49인	873	7.0	17.4	28.9	22.7	24.0	
	50 ~ 99인	128	14.3	19.2	36.6	16.1	13.8	
	100인 이상	75	3.0	13.3	20.5	35.9	27.3	
권 역 구 분	수도권	12,945	3.5	15.6	25.2	27.6	28.1	
	경남권	3,152	13.8	20.5	23.3	8.7	33.7	
	경북권	1,668	6.7	26.3	23.6	9.7	33.8	
	전라권	1,870	8.8	18.2	20.8	15.9	36.3	
	충청권	1,564	7.7	21.1	12.4	13.7	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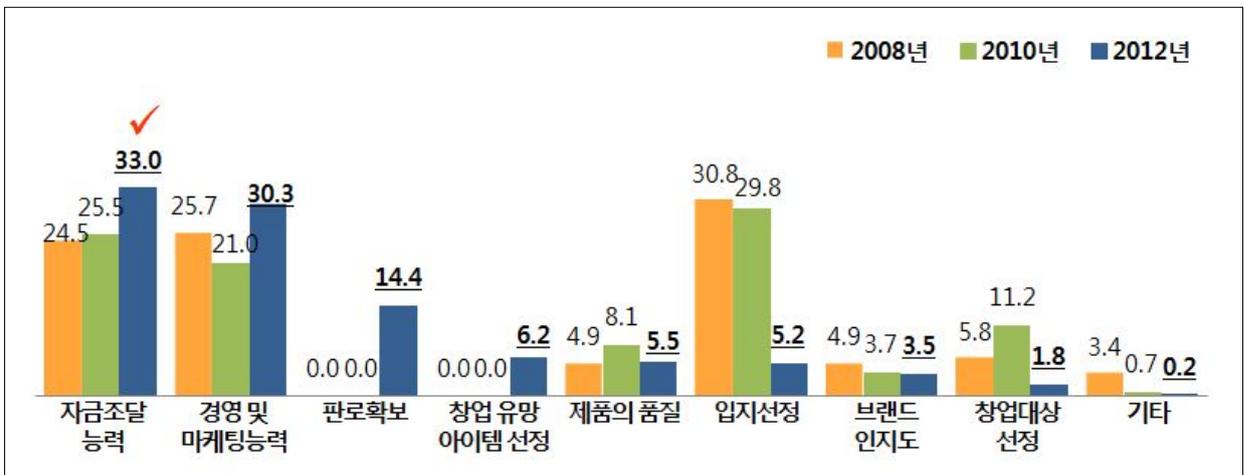
※ 창업연도가 2006년 6월 이후인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11.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중요한 요인

- 여성기업인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자금조달 능력’(33.0%), ‘경영 및 마케팅능력’(30.3%), ‘판로확보’(14.4%) 순으로 나타남
- 과거 여성사업체 조사 결과 대비, 2012년 여성기업체는 ‘자금조달 능력’(33.0%), ‘경영 및 마케팅 능력’(30.3%)에 대한 응답이 높은 반면, ‘입지선정’(5.2%)이라는 응답은 낮음

(그림 131) 창업 성공의 주요 요인

(단위: %)



※ ‘판로확보 및 창업유망 아이템 선정’은 2013년 조사에서 신규 추가된 보기항목임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30.7%)에 비해 비제조업(33.4%)에서 창업 성공의 주요요인에 대해 ‘자금조달 능력’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기타 제조’(33.6%), 비제조업 중 ‘부동산업 및 임대업’(56.1%)에서 ‘자금조달 능력’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음
 - 한편, 제조업 중 ‘식료품/음료 제조’(39.0%), 비제조업 중 ‘금융 및 보험업’(45.8%) 및 ‘교육 서비스업’(41.0%)에서는 ‘경영 및 마케팅 능력’을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꼽은 반면,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32.7%)은 ‘판로확보’를 꼽음
- 권역별로는 ‘경북권’(45.1%)에서 ‘자금 조달 능력’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68> 창업 성공의 주요 요인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자금 조달 능력	경영 및 마케팅 능력	판로 확보	창업 유망 아이템 선정	제품의 품질	입지 (상권) 선정	브랜드 인지도	창업 대상 선정	기타	
전 체		21,199	33.0	30.3	14.4	6.2	5.5	5.2	3.5	1.8	0.2	
부	제조업	3,280	30.7	29.2	18.5	5.7	8.9	3.9	1.5	1.4	0.0	
	비제조업	17,919	33.4	30.5	13.6	6.3	4.9	5.5	3.8	1.8	0.2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432	17.9	39.0	17.8	3.1	10.1	9.5	2.1	0.6	0.0
		섬유/의복/가방/신발	371	26.4	28.5	23.9	6.2	4.7	5.6	4.8	0.0	0.0
		기타 제조	2,477	33.6	27.7	17.8	6.1	9.4	2.7	0.9	1.8	0.0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55	39.7	27.5	14.5	4.5	2.3	2.3	9.3	0.0	0.0
		건설업	3,878	39.1	29.4	17.5	2.2	3.2	1.5	3.9	2.7	0.6
		도매 및 소매업	5,442	26.4	34.1	15.1	7.2	6.0	6.4	3.6	1.2	0.0
		운수업	950	39.5	22.2	21.3	7.1	3.9	2.6	1.8	1.5	0.0
		숙박 및 음식점업	661	26.5	19.0	8.2	7.6	11.4	14.9	9.6	2.8	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968	34.9	34.8	7.3	13.6	3.8	2.7	0.9	2.1	0.0
		금융 및 보험업	515	30.1	45.8	4.6	5.3	0.7	9.6	1.1	2.8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50	56.1	18.1	7.1	5.5	2.0	9.1	0.5	1.5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08	28.8	35.8	5.9	5.6	9.2	5.4	5.9	2.5	0.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623	32.2	25.9	16.3	10.1	3.5	6.2	5.2	0.7	0.0
		교육 서비스업	565	29.3	41.0	7.1	4.8	5.9	4.3	3.9	3.6	0.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75	20.5	23.4	32.7	6.0	5.6	7.8	4.1	0.0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78	36.2	23.0	12.4	4.5	7.7	7.4	7.0	1.8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51	37.2	24.0	11.7	5.8	3.5	11.9	4.1	1.9	0.0		
종	5인 미만	12,922	32.0	30.1	15.1	7.2	4.3	6.2	3.6	1.4	0.0	
	5 ~ 19인	7,201	34.2	31.1	13.1	4.5	7.9	3.1	3.1	2.5	0.5	
	20 ~ 49인	873	38.1	27.6	11.7	4.8	4.4	8.4	3.4	1.7	0.0	
	50 ~ 99인	128	28.5	19.6	22.3	7.3	9.1	0.0	7.5	5.6	0.0	
	100인 이상	75	34.0	32.3	12.2	6.0	1.7	7.8	3.0	3.0	0.0	
권	수도권	12,945	31.8	30.9	14.2	6.9	5.9	5.1	3.8	1.2	0.3	
	경남권	3,152	37.1	30.1	16.1	4.5	2.9	3.5	2.4	3.3	0.0	
	경북권	1,668	45.1	26.2	8.8	4.8	7.2	3.6	2.6	1.6	0.0	
	전라권	1,870	28.3	27.5	17.8	7.1	5.1	8.8	3.7	1.7	0.0	
	충청권	1,564	27.1	33.6	13.9	4.2	6.8	7.6	3.2	3.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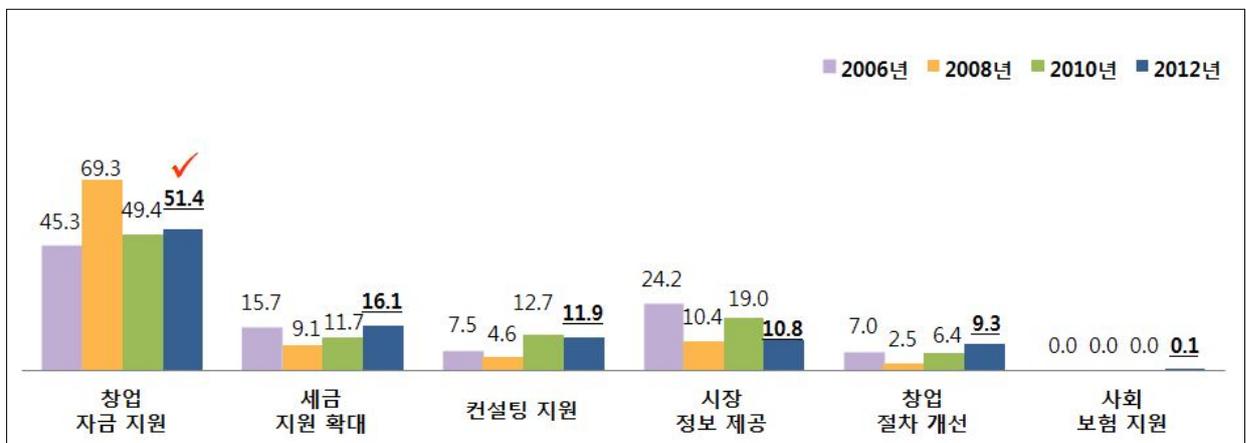
※ 창업연도가 2006년 6월 이후인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12.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 분야

-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창업자금 지원’(51.4%)이 가장 높고, ‘세금지원 확대’(16.1%), ‘컨설팅 지원’(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과거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창업자금 지원’의 경우 2008년 조사결과에서 매우 높게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면 큰 변화 없음

(그림 132)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 분야

(단위: %)



※ ‘사회보험 지원’은 2013년 조사에서 신규 추가된 보기항목임

-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창업자금 지원’이라는 응답은 제조업(43.1%) 대비 비제조업(53.0%)에서 더 높은 반면, ‘세금지원 확대’라는 응답은 제조업(21.5%)에서 더 높음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식품/음료 제조’(50.7%), 비제조업 중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72.7%)에서 ‘창업자금 지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24.8%), 비제조업 중 ‘금융 및 보험업’(21.1%)에서 ‘세금지원 확대’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는 ‘20~49인’(58.9%)에서 ‘창업자금 지원’이, ‘100인 이상’(20.6%)의 경우 ‘세금지원 확대’라는 응답이 높음

<표 169>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 분야

(단위: 개사 %)

구 분		사례 수	창업 자금 지원	세금 지원 확대	컨설팅 지원	시장 정보 제공	창업 절차 개선	사회 보험 지원	없음	모름/무응답	
전 체		21,199	51.4	16.1	11.9	10.8	9.3	0.1	0.1	0.3	
부	제조업	3,280	43.1	21.5	11.4	13.2	9.7	0.0	0.6	0.4	
	비제조업	17,919	53.0	15.1	12.0	10.4	9.2	0.1	0.0	0.3	
세 부 업 종 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432	50.7	15.7	13.2	10.1	10.4	0.0	0.0	0.0
		섬유/의복/가방/신발	371	37.2	24.8	18.1	8.7	11.2	0.0	0.0	0.0
		기타 제조	2,477	42.6	22.1	10.1	14.5	9.3	0.0	0.8	0.6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55	55.3	14.5	11.5	8.2	10.5	0.0	0.0	0.0
		건설업	3,878	58.5	12.1	7.7	9.0	12.7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5,442	48.2	16.5	15.5	10.2	8.7	0.0	0.0	0.8
		운수업	950	66.0	10.9	6.2	13.9	3.1	0.0	0.0	0.0
		숙박 및 음식점업	661	64.5	12.9	14.7	2.4	5.6	0.0	0.0	0.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968	48.9	12.2	18.4	13.1	7.4	0.0	0.0	0.0
		금융 및 보험업	515	36.9	21.1	13.4	15.5	11.3	0.0	0.0	1.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50	60.2	16.4	5.6	5.3	12.6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08	45.8	16.8	12.9	15.5	8.2	0.8	0.0	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623	51.9	17.0	11.1	13.2	6.7	0.0	0.0	0.0
		교육 서비스업	565	55.7	16.4	12.8	10.0	5.2	0.0	0.0	0.0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75	46.3	9.4	17.5	19.0	7.9	0.0	0.0	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78	72.7	15.6	10.0	0.0	1.8	0.0	0.0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51	43.6	19.3	13.6	7.0	16.0	0.4	0.0	0.0
중 사 자 구 분 별	5인 미만	12,922	50.9	16.3	11.6	11.4	9.2	0.0	0.2	0.4	
	5 ~ 19인	7,201	51.4	15.4	12.8	10.4	9.4	0.2	0.0	0.3	
	20 ~ 49인	873	58.9	18.2	8.8	5.9	8.2	0.0	0.0	0.0	
	50 ~ 99인	128	54.7	10.2	14.5	9.6	10.9	0.0	0.0	0.0	
	100인 이상	75	46.0	20.6	7.8	16.9	6.0	2.7	0.0	0.0	
지 역 별	수도권	12,945	43.7	17.1	14.3	13.1	11.1	0.1	0.0	0.5	
	경남권	3,152	65.4	16.8	6.6	5.6	5.6	0.0	0.0	0.0	
	경북권	1,668	67.8	10.8	10.0	4.8	6.7	0.0	0.0	0.0	
	전라권	1,870	67.4	14.7	5.9	6.5	4.4	0.0	1.1	0.0	
	충청권	1,564	50.7	13.6	11.5	13.9	10.3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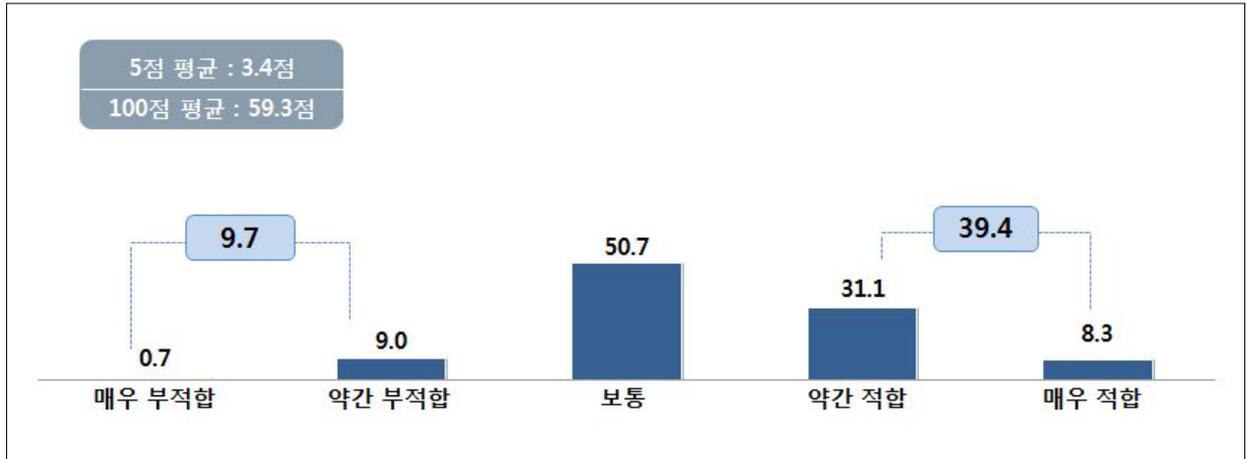
※ 창업연도가 2006년 6월 이후인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13. 현 사업 분야의 여성기업 적합성

- 현 사업이 여성기업에 적합한지에 대해 보면, '적합(약간 적합+매우 적합)'이 39.4%, '부적합(매우 부적합+약간 부적합)'이 9.7%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부적합하다는 평가보다 29.7%p 높게 나타남

(그림 133) 현 사업 분야의 여성기업 적합성

(단위: %)



- 여성기업이 평가하는 현 사업에 대한 적합성은 제조업(37.3%)과 비제조업(39.7%)에 따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식품/음료 제조'(61.8%), 비제조업 중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79.0%)에서 현 사업이 여성기업에 적합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 한편, 여성기업 적합성 정도가 낮다는 응답이 높은 업종은 제조업 중 '기타 제조'(31.1%), 비제조업 중 '하수·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25.6%)이었음
- 종사자 규모별로는, 대체로 규모가 클수록 현 사업이 여성기업에 적합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170> 현 사업 분야의 여성기업 적합성

(단위: 개사, %, 점)

구분		사례수	① 매우 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약간 적합	⑤ 매우 적합	①+② 부적합	④+⑤ 적합	100점 평균 (점)	
전체		21,199	0.7	9.0	50.7	31.1	8.3	9.8	39.4	59.3	
부	제조업	3,280	1.5	9.0	52.0	28.5	8.8	10.4	37.3	58.6	
	비제조업	17,919	0.6	9.1	50.4	31.6	8.2	9.7	39.7	59.4	
세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	432	0.0	12.5	25.7	37.9	23.9	12.5	61.8	68.3
		섬유/의복/가방/신발	371	0.0	2.5	47.3	29.6	20.6	2.5	50.2	67.1
		기타 제조	2,477	2.0	9.3	57.3	26.7	4.5	11.3	31.1	55.6
	비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55	0.0	14.5	60.0	24.5	1.1	14.5	25.6	53.0
		건설업	3,878	0.7	11.2	55.7	27.6	4.8	12.0	32.4	56.1
		도매 및 소매업	5,442	1.3	9.5	50.5	30.6	7.8	10.8	38.4	58.5
		운수업	950	0.0	12.4	46.8	34.9	5.9	12.4	40.8	58.6
		숙박 및 음식점업	661	0.0	4.9	47.8	33.6	13.6	4.9	47.3	64.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968	1.1	6.5	47.8	36.8	7.7	7.7	44.6	60.9
		금융 및 보험업	515	0.0	4.6	49.2	35.6	10.6	4.6	46.2	63.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50	0.0	8.1	56.6	30.2	5.1	8.1	35.3	58.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08	0.0	5.1	54.2	33.3	7.5	5.1	40.8	60.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623	0.0	10.1	46.4	37.4	6.1	10.1	43.6	59.9
		교육 서비스업	565	0.0	5.2	23.6	32.7	37.4	5.2	70.1	75.9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75	0.0	3.7	17.3	52.6	26.4	3.7	79.0	75.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78	0.0	7.2	44.4	33.5	14.9	7.2	48.4	64.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51	0.0	10.1	50.6	25.7	13.6	10.1	39.3	60.7
		중	5인 미만	12,922	0.8	9.0	48.5	32.9	8.7	9.8	41.6
5 ~ 19인	7,201		0.8	8.8	54.5	28.2	7.3	9.7	35.5	58.1	
20 ~ 49인	873		0.0	10.9	52.1	28.2	8.8	10.9	37.0	58.7	
50 ~ 99인	128		0.0	15.0	44.5	25.9	14.7	15.0	40.6	60.1	
100인 이상	75		0.0	3.0	51.1	38.4	7.4	3.0	45.8	62.6	
권	수도권	12,945	0.8	7.9	52.0	29.8	9.3	8.7	39.0	59.7	
	경남권	3,152	0.2	7.2	51.9	36.2	4.5	7.4	40.7	59.4	
	경북권	1,668	0.8	13.4	53.1	24.1	8.6	14.3	32.7	56.5	
	전라권	1,870	1.8	14.6	40.0	35.3	8.3	16.4	43.6	58.4	
	충청권	1,564	0.0	11.0	47.4	34.3	7.3	11.0	41.6	59.5	

※ 창업연도가 2006년 6월 이후인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별첨.

설문지



ID	지역	업체번호			산업분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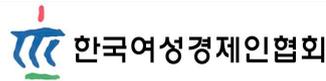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조 사 취 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의뢰로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일반현황, 재무, 경영성과 등 여성기업 현황과 경영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이용되고 통계법 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적인 사항은 일체 비밀이 보장 되오니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조사서 작성자 : 당해 기업의 임원급 이상 [대표자 및 관리자]
- 조사 관련 문의처
 - o (주)포커스컴퍼니 : 박강서 과장(02-3456-0272)
 - o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장은영 연구원(02-369-0993)
- 설문조사서 제출 : 포커스컴퍼니



업 체 명				설 립 년 도	[] [] [] []	년		
				<small>* 현재 조사 업종시작년도</small>				
대표자 출생연도	1	9	[] []	년생	대표자 동일 업종경력	[] [] [] [] 년		
최 종 학 력	1. 고졸이하 2. 전문대졸 3. 대졸 4. 대학원졸			전 공 분 야	1. 인문·사회계열 2. 경제·경영 3. 법 4. 자연과학 5. 공학 6. 예술·체육 7. 기타()			
주 소 (주사업장)	시/도		군/구		읍/면/동			
대표전화번호	() -		팩 스 번 호		() -			

기업의 특성(해당하는 란에 V 표기)

여성기업 분류형태	여성기업인인 1. 소유 2. 경영 3. 소유+경영							
기업체 등록형태	1. 상장법인 2. 코스닥등록법인 3. 장외등록법인 4. 일반법인 5. 기타(적을 것:_____)							
기업 유형 (중복 가능)	1. 벤처기업 2. 기술혁신형기업(이노비즈) 3. 경영혁신형기업(메인비즈) 4. 1인창조기업 5. 일반기업 6. 기타(적을 것:_____)							
주력 생산 품목	<small>* 주요 생산품은 매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기준기재</small>			주력생산 품목구분	1. 완제품 2. 부품소재 3. 원자재 4. 지식서비스 5. 기타 서비스			
기업 성장 단계	1. 창업기 2. 성장기 3. 성숙기 4. 쇠퇴기							

응 답 자

성 명				소 속 부 서 명			
직 위				전 화 번 호	-		
이 메 일	@						

A. 기업 일반 현황

A1) 귀사의 사업장은 모두 몇 개입니까? 공장, 영업장/지점 등을 모두 포함하여 각 사업장의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a. 공장	b. 영업장/지점	c. 물류창고	d. 기타 (적을 것: ())
가. 사업장 수	__개	__개	__개	__개
나. 규모 ※ 1㎡ = 0.3평	__㎡	__㎡	__㎡	__㎡
다. 소유형태	1. 소유 2. 임차	1. 소유 2. 임차	1. 소유 2. 임차	1. 소유 2. 임차
라. 해당 없음				

※영업장/지점 : 본사 이외에 지점(분점), 영업장 또는 판매시설(판매장) 등

A1-1) 귀사의 본사 및 공장은 다음 중 어디에 입지해 있습니까?

가. 본사	나. 공장
-------	-------

1. 국가산업단지
2. 지방산업단지
3. 농공단지
4. 개별 자유 입지
5. 기타(적을 것: _____)
6. 해당 없음(공장 없음)

B. 재무 관련 현황

B1) 귀사의 2012년도 재무상태(대차대조표)에 대한 기초 질문입니다.

1. 자본		백만원
2. 부채		백만원
자산 총계		백만원

※ (안내) [자산 = 부채 + 자본]

B2) 귀사의 2012년도 손익계산서에 대한 기초 질문입니다.

1. 매출액		백만원
2. 당기순이익		백만원

B3) 2012년도에 귀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셨습니다? 다음 각 수단별로 그 비율의 전체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해 주십시오.

1. 자체조달	%
2. 외부차입	%
전체 합계	100%

B4) 2012년도 귀사의 자금사정은 어떠하였습니까?



(1, 2 번 응답자는 B4-1로 갈 것)

(3, 4, 5 번 응답자는 B5로 갈 것)

B4-1) (B4)에서 1,2번 응답자만 귀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1. 매출 감소
2. 원가비용 상승
3. 인건비 부담 증가
4. 대출금리 등 이자비용 증가
5.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비용 증가
6. 투자확대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7. 판매 대금 회수 지연
8. 기타(적을 것: _____)

B5) 귀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자금 투자 분야는 무엇입니까?

1. 설비 및 건축물 등의 시설자금
2. 제품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 자금
3. 판촉 및 광고 홍보 등의 판매자금
4.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의 운전 자금
5. 기타(적을 것: _____)
6. 해당 없음 (투자 계획 없음)

C. 경영의 성과

【 경영성과 및 기업구조조정 】

C1) 2012년도 귀사의 경영성과는 어떠하였습니까?



(1, 2 응답자는 C1-2로 갈 것)

(3, 4, 5 응답자는 C1-1로 갈 것)

C1-1) (C1)에서 3,4,5번 응답자만 2012년도에 귀사의 경영 활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1. 원활한 자금조달
2. 기술개발역량(특허보유 등) 향상
3. 틈새시장 진출
4. 안정적 수요 확보
5. 전문 인력 확보
6. 시장 상황 호조
7. 정부의 정책 지원
8. 비용절감 노력
9. 기타(적을 것: _____)

→ **C2)로 갈 것**

C1-2) (C1)에서 1,2번 응답자만 2012년도 귀사의 경영 활동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1. 전반적 경기침체로 수요 감소
2. 업체간 경쟁심화
3. 자금 조달의 어려움
4. 기술경쟁력 저하
5. 인력수급의 어려움
6.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7. 각종 불합리한 규제
8. 납품단가 인하요구 등 납품조건 악화
9. 인건비, 원자재 등 비용증가

C1-3) (C1)에서 1,2번 응답자만 경영이 악화되었다면, 귀사는 경영악화에 대해 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1. 가격 인하
2. 비용 절감
3. 생산량 축소
4. 고용 감축
5. 근로시간 단축(임금 삭감, 휴가 사용 등)
6. 기존 고객과의 협력 강화
7. 신시장(틈새시장) 개척 강화
8.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9. 기타(적을 것: _____)
10. 해당사항 없음

C2) 귀사는 과거(2002년 이후) 사업의 장래와 관련하여 기업 구조조정 또는 재구축을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C3) 귀사는 향후 기업구조조정 또는 재구축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1. 있다 → **C3-1)로 갈 것**
 2. 없다 → **C4)로 갈 것**

C3-1) (C3)에서 1번 응답자만) 그럼 어떤 방향의 기업구조조정 또는 재구축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복수응답가능)
 1. 사업다각화(신규 사업 진출 등)
 2. M&A 3. 인력감축 등 고용조정
 4. 공장의 이전 또는 증설 5. 해외진출
 6. 사업전환 7. 일시 사업 중단
 8. 폐업
 9. 기타(적을 것: _____)

【 사업전환 】

C4) 귀사는 과거에 사업전환을 추진하였거나 또는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1. 신규 업종(품목)으로 사업전환 완료
 2. 현재 사업전환 진행 중
 3. 현재 사업전환을 계획 중
 4.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향후 사업전환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
 5. 앞으로도 사업전환을 추진할 계획없음 → **C7)로 갈 것**

C5) 귀사에서 사업전환을 추진 또는 계획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현재 추진 또는 향후 추진 예정 포함)
 1. 신성장 활력 확보
 2. 주력업종의 수익성 저하
 3. 주력업종의 성장성 저하
 4. 동종업종내 과당경쟁
 5. 대체품 수입에 의한 경쟁력 약화
 6. 발주업체 및 협력업체 등의 요청
 7. 기타 (적을 것: _____)

C6) 귀사가 사업전환을 추진하면서 느낀 가장 큰 애로요인은 무엇입니까? 2가지만 선택해주시오

1순위	2순위
보 기	
1. 공장 및 설비 구입자금 조달 곤란 2. 자산취득, 매각 등에 따른 세금 부담 3. 신규업종에 대한 전문기술 및 정보 부족 4. 신규 거래선 및 판로 확보의 어려움 5. 여성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6. 남성위주의 운영으로 여성의 참여 제한 7. 인력 확보 곤란 8. 복잡한 행정절차, 정부의 각종규제 9. 사업구조 변경에 따른 기업 신인도 저하 10. 기타(적을 것: _____)	

→ **D1)로 갈 것**

C7) (C4)에서 5번 응답자만)앞으로도 사업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계시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개 선택)
 1. 사업전환의 필요성을 못느낌
 2. 사업전환시 소요자금 총당이 어려움
 3. 업종전환시 판로 개척의 어려움
 4. 신규 아이টে을 위한 기술개발의 어려움
 5. 유망 업종에 대한 정보 부족
 6. 경영진의 의지 부족 및 종업원의 반대
 7. 기타(적을 것: _____)

D. 경영 활동 사항

【 시장경쟁 및 경영상황 】

D1) 귀사 주력분야의 시장경쟁 정도는 어떻습니까?
 매우 낮음 1 2 3 4 5
 다소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매우 높음

D2) 내년 귀사 주력분야의 시장전망은 어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매우 비관적 1 2 3 4 5
 대체로 비관적 반반 대체로 낙관적 매우 낙관적

D3) 최근 귀사가 가장 중점을 두는 기업 전략은 무엇입니까?
 1. 시장 중심의 고객지향 전략 강화
 2. 설계, 특허 등 제품 기술 차별화
 3. 브랜드 이미지 등 기업 홍보
 4. 우수 인력 확보
 5. 구매원가 절감 등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6. 수급 기업과 공동기술개발 등 기업간 협력전략
 7. 자금확보 전략
 8. CSR, 환경경영 등 기업 이미지 제고 전략
 9. 기타 (적을 것: _____)

【 구매 활동 】

D4) 2012년도 원부자재 총 구매금액은 얼마이며, 국내와 해외 구매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 원부자재 총 구매금액	_____백만원	해당없음 (아래 v체크)
나. 원부자재 구매 비중	국내	% D6)로 갈 것
	해외	%
합계		100%

D5) 귀사의 원부자재 구매 과정의 주된 애로는 무엇입니까?
 1.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처 파악 미숙
 2. 구매 가격 상승
 3. 구매물품의 품질·규격 등의 불량
 4. 원료 자체의 품귀
 5. 사내 구매 관리 체계의 미비에 따른 혼란
 6. 기타(적을 것: _____)
 7. 해당 없음(외부 구매 없음)

【 생산 활동 】

D6) 귀사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구성비를 표시해 주십시오.

원자재	%	해당없음 (아래 V체크)
중간재(부품포함)	%	
완제품	%	
합계	100%	

D7) 귀사는 2012년에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하도급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위탁기업 규모	위탁기업 개수	위탁기업 납품액	해당없음 (아래 V체크) D8)로 갈 것
중소기업		백만원	
대기업		백만원	
합계		백만원	

D7-1) (D7)에서 하도급 수행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귀사가 2012년에 거래 모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기술지원
- 경영지원
- 자금지원
- 원자재 공동구매
- 설비대여
- 교육/연수
- 인력파견
- 수출지원
- 정보화지원
- 해외동반진출
- 기타(적을 것: _____)
- 해당 없음(지원 없음)

D7-2) (D7)에서 하도급 수행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귀사가 2012년도 거래 모기업으로부터 겪은 **주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지나친 품질수준 요구
-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 일방적인 거래선 변경
- 납기 단축, 촉박
- 납품결제기일 장기화(물품 납품 후 60일 초과)
- 불규칙한 발주(수시 발주)
- 어음 할인료(물품납품 후 60일 초과 어음의 할인료)미지급
- 기타(적을 것: _____)
- 애로사항 없음

【 판매 활동 】

D8) 2012년도 귀사의 국내외 고객별 매출액 구성비는 얼마나 됩니까? 다음 각 항목별로 그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고객별 매출 구성비	국내 일반 고객	%
	국내 공공 기관	%
	해외 고객(수출 등)	%
전체 매출액		100%

D9) 2012년도 판매대금은 어떻게 수취하고 계십니까?

현금수취	어음수취	합계
%	%	100%

※ 현금: 제품을 판매(납품)하고 대금을 당일 또는 일정기일 경과 후 현금으로 수취한 경우이고, 어음은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기일에 상관없이 어음으로 수취한 경우임.
 ※ 현금에는 순수현금 외에 L/C, 외상결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어음대체용 현금성 결제도 포함.

D10) 판매 활동과 관련한 귀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내수 위축
- 해외 수요 위축
- 마케팅 역량 부족
- 가격 경쟁력 취약
- 유망제품 또는 시장 관련 정보 부족
- 품질, 기술, 브랜드, 디자인 등 비가격경쟁력 취약
- 기타(적을 것: _____)
- 해당 없음(애로를 못 느낌)

【 투자 및 사업의 확대 】

D11) 귀사의 연구개발 담당조직은 어떠한 형태입니까?

- 사내연구소
- 연구 전담부서
- 타업무 겸직 연구인력
- 연구개발 활동 없음

D12) 귀사의 2012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 매출액 대비 설비 투자비중	%
-------------------	---

D12-1) (D12)에서 설비 투자가 있는 응답자만) 설비에 투자한 경우 투자 용도는 무엇이었습니다?(복수응답가능)

- 기존설비 유지·보수
- 기존설비 교체(갱신)
- 기존설비 확장
- 신규설비 도입

D13) 귀사의 2012년도 연구개발투자비(R&D비용) 및 설비 투자비를 조달한 **주된** 방법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가. 연구 개발 투자비	
나. 설비 투자비	

- 내부 조달
- 회사채 또는 주식발행
- 금융기관 대출
- 창투자 또는 벤처캐피탈
- 정책자금(정부의 연구개발 자금 포함)
- 개인투자유치
- 해당 없음(연구개발투자 없음)

D14) 귀사의 자체 기술 개발 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기술개발 자금의 부족
- 개발인력 확보 곤란
- 개발인력의 잦은 이직
- 긴 개발 소요기간
- 기술개발 경험 부족
- 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
- 기술개발 기획능력 부족
- 연구설비 기자재 부족
- 물류비용 부담
- 기타 (적을 것: _____)

D15) 귀사는 사업규모를 확대(신규 또는 기존 사업 확장 등)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있다 → **D15-1)로 갈 것**
- 없다 → **D16)로 갈 것**

D15-1) (D15)에서 1번 응답자만)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주된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1. 가격경쟁력이 있어서
2. 제품 품질(기술)의 차별성이 있어서
3. 브랜드, 디자인 등 비가격경쟁력이 있어서
4. 수요증가 및 시장성장으로 인해서
5.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6. 유통망 및 판매채널이 확보되어서
7. 자금력이 뒷받침되어서
8. 기타(적을 것: _____)

【 마케팅 】

D16) 귀사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요소는 무엇입니까?

1. 기술경쟁력
2. 품질경쟁력
3. 가격 경쟁력
4. 디자인 경쟁력
5. 브랜드 파워(이미지, 인지도)
6. 서비스 경쟁력(A/S, 고객관리 등)
7. 뚜렷한 경쟁요소가 없음
8. 기타(적을 것 : _____)

D17) 귀사의 핵심 제품 또는 서비스는 국내외 주요 경쟁사 대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아래 보기 번호 기입)

가. 국내 주요 경쟁사 대비 귀사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수준	
나. 해외 주요 경쟁사 대비 귀사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수준	

1. 91-100점 : 매우 우수한 수준
2. 81-90점 : 우수한 수준
3. 71-80 : 보통 수준
4. 61-70 : 다소 부족한 수준
5. 60 미만 : 매우 부족한 수준

D18) 귀사의 마케팅 능력 중 가장 취약한 분야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1. 수요예측 등 시장정보 수집
2.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개선 기획
3. 제품의 세부설계, 디자인 등의 개발
4. 적정 판매가격 결정
5. 수요처개발 및 유통채널 관리
6. A/S 등 고객 사후 관리
7. 브랜드 홍보 및 광고 능력
8. 기타(적을 것: _____)
9. 해당 없음(취약분야 없음)

D19) 마케팅과 관련하여 귀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 분야는 무엇입니까?

1. 시장(소비자)조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2. 신제품 기획 및 개발 기획 지원
3. 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4. 홍보 및 광고 관련 지원
5. 공동물류시설, 공동판매망 설치 등 인프라 지원
6. 기타(적을 것: _____)
7. 해당 없음(정부 지원 불필요)

【 해외 기업 활동 】

D20) 귀사는 2012년도에 제품의 수출 실적이 있습니까?

1. 그렇다 → **D21)로 갈 것**
2. 아니다 → **D20-1)로 갈 것**

D20-1)(D20)에서 2번 응답자만) 귀사가 수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1. 수출품목 발굴곤란(수출적합업종아님) → **티)로 갈 것**
2. 내수판매 만족
3. 가격경쟁력 부족
4. 제품경쟁력 부족
5. 자금 부족
6. 전문 인력의 부족
7. 해외 시장 정보의 부족
8. 해외 바이어 발굴 애로
9. 기타(적을 것: _____)

→ **D22)로 갈 것**

D21) (D20)에서 1번 응답자만) 귀사의 현 주요 수출국과 향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출국은 어디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가. 현재 주요 수출국	
나. 향후 관심 수출국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유럽
5. 아시아(중국·일본 제외)
6. 중동
7. 러시아·CIS
8. 호주·오세아니아
9. 중남미·캐나다
10. 아프리카
11. 기타(적을 것: _____)

D22) 귀사가 해외시장 개척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1. 무역전문인력 부족
2. 해외시장 정보 부족(경쟁제품, 시장동향 등)
3. 해외 바이어 발굴 어려움
4. 해외마케팅 비용 부담
5. 언어장벽(계약협상, 통번역 등)
6. 수출관련 절차적 규제부담(선적, 통관 등)
7. 무역금융 활용 애로
8. 물류비용 부담
9. 현지시장 규격 및 인증 요구
10. 기타(적을 것: _____)
11. 해당 없음 (해외시장 개척 경험 없음)

D23) 귀사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추진한 해외마케팅 수단 중 효과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1.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여
2. 무역회사(오피상) 활용
3. 제품 카탈로그 및 샘플 발송
4. 해외홍보지 및 해외현지 광고
5. e-market place 등의 온라인 활용 (예: 알리바바, EC 21 등)
6. 우리정부의 수출 지원기관 활용
7. 해외 민간네트워크 및 관련기관 활용
8. 기타(적을 것: _____)
9. 해당없음 (해외시장 개척 경험 없음)

D24) 귀사는 여성기업의 수출저변 확대를 위하여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1. 수출교육 제공
2. 무역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3. 해외시장개척 활동 지원 강화
4. 내수중심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지원
5. 현지시장 정보의 공급
6. 해외 홍보, 마케팅 활동 지원
7. 수출대행 전문기관 육성
8. 수출컨설팅·자문지원
9.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10. 해외민간 네트워크 활용지원
11. 기타(적을 것: _____)

D25) 귀사의 해외시장 정보를 얻기 위한 주된 경로는 어디입니까? 다음 중 **하나만**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1. 해외지사 또는 주재원
2. KOTRA 또는 무역협회 등 전문기관
3. 시장조사 등 내부자료
4. 개인적인 연구
5. 해외 시장정보 제공 사이트
6. 기타(적을 것: _____)
7. 해당없음 (해외시장 정보수집 경험 없음)

E. 인사 노무 관리

E1) 직종, 연령, 재직연수별 인력현황 (2013년 6월30일 기준)

구 분	현인원 (명)				부족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남	여	남	여	
사무/관리직					
연구개발직					
생산/기술직					
영업/판매/서비스직					
합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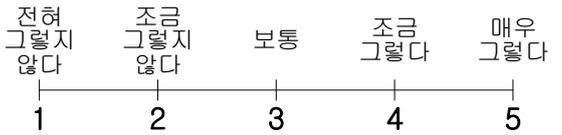
* 비정규직 : 비정규직은 산업기능요원, 용역 근로자, 시간제 파트타임 근로자, 파견근로자, 대체근로자, 자택/가내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

- ☞ 사무/관리직 : 인사, 기획, 경리 등 직접적으로 생산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자(대표, 임원 포함)
- ☞ 연구개발직 :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연구/개발 및 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자
- ☞ 생산/기술직 :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 생산과정에 종사하는 자로 기술직 이나 단순 생산직 모두 포함
- ☞ 영업/판매직/서비스직 :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상품 판매, 마케팅, 비서, 경비, 운전업무 등 생산 외 활동에 종사하는 자

E2) 경쟁기업 대비 귀사 인력의 평균 근속연수와 전문성(숙련도)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문 항	응 답				
가. 평균 근속 연수	년				
나. 전문성(숙련도)	매우 낮음	다소 낮음	동등	다소 높음	매우 높음
	1	2	3	4	5

E3) 귀사는 최근 인력 부족으로 경영상의 애로를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



E4) 귀사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2개 선택)

1. 중소기업 기피현상(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2. 적합한 인력부족
3. 낮은 임금수준
4. 근무 여건 열악(임금, 작업환경, 복지환경 등)
5. 낮은 장래성
6. 타사업체의 인력 유치 경쟁 때문
7. 회사 소재지의 지역 여건
8. 인력 채용 홍보 부족
9. 인력은 필요하나 회사자금사정
10. 기타(적을 것: _____)

E5) 인력관리와 관련하여 귀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1. 전문인력(기술자, 연구원 등) 구인난
2. 일반 인력 구인난
3. 인건비
4. 잦은이직
5. 생산직 고령화
6. 복리후생(연금, 복지시설)
7. 교육훈련
8. 주 5일제, 유연근무제 등 바뀌는 고용법을 준수의 어려움
9. 기타(적을 것 : _____)

E6) 정부가 향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인력정책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산업기능요원제도
2. 외국인력제도
3. 훈련후 채용연계지원제도
4. 신규채용 인건비 보조제도
5. 재직자 직업훈련지원제도
6. 중소기업 내 일자리유지·창출 지원제도
7. 복리후생 지원(출퇴근 버스, 기숙사 건립 지원 등)
8.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9. 기타(적을 것: _____)

E7) 귀사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출산 전·후 휴가제도
3. 육아휴직제도
4.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5. 선택적 근로시간제
6. 직무 대체제
7. 해당없음(일·가정 양립관련 지원제도 없음)

E8) 귀사 내에 일·가정 양립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정부의 제도 개선 및 재정적 지원
2. 사업장 맞춤형 운영을 위한 1:1컨설팅
3. CEO의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적극적 의지
4.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5.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에 대한 근로자들의 적극성
6. 기타(적을 것: _____)

F. 교육 및 연수

【 근로자 교육 및 연수 】

F1) 귀사는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F2) 귀사는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1. 실시함 → **F2-1)로 갈 것**
2. 실시하지 않음 → **F2-4)로 갈 것**

F2-1) (F2)에서 1번 응답자만) 그럼, 귀사가 가장 많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내용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1. 경영전략·기획
2. 인적자원관리
3. 영업·마케팅교육
4. 품질·생산관리 교육
5. 기술개발교육
6. 세무·재무·회계관리 교육
7. IT정보화 교육
8. 소양교육(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등)
9. 어학교육
10. 기타(적을 것: _____)

F2-2) (F2)에서 1번 응답자만) 재직근로자 대상의 교육 훈련은 주로 어떤 형태로 제공하고 계십니까?

1. 외부위탁 → **F2-3)로 갈 것**
2. 사내 자체 교육
3. 인터넷 원격훈련(이러닝)
4. 우편 원격훈련

F2-3) (F2-2)에서 1번 응답자만) 교육훈련을 위탁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1. 대학, 대학원
2. 정부출연기관 등의 공공훈련기관
3. 교육전문학원 등의 민간전문기관
4. 컨설팅 전문기관
5. 기업부설기관(예시 : 회사부설 인력개발원 등)
6. 협회, 조합 등 사업주단체
7. 기타(_____)

F2-4) (F2)에서 2번 응답자만) 재직근로자 대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1. 현재 근로자들이 필요한 숙련이나 역량을 갖추
2. 재직근로자 능력개발보다 숙련된 근로자의 신규채용 선호
3. 적절한 훈련과정의 부족 또는 부재
4. 교육훈련 비용 부담
5. 재직근로자의 업무부담 및 제한된 가용시간
6. 재직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교육훈련 불필요
7. 교육훈련의 효과에 대한 회의감

【 여성경영자 교육 및 연수】

F3) 귀사의 대표는 최근 여성경영자 대상의 교육 또는 연수에 참가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F4)로 갈 것**
2. 없다 → **F3-1)로 갈 것**

F3-1)(F3에서 2번 응답자만) 여성경영자 교육에 참가하신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적절한 커리큘럼의 부족 또는 부재
2. 교육 비용 부담
3. 시간적 부담
4. 교육 효과에 대한 회의감
5. 업무 특성상, 교육필요성 없음
6. 기타(적을 것: _____)

F4) 귀사의 대표는 여성경영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응답자는
F5)로 갈 것**

**(3,4,5 응답자는
F4-1)로 갈 것**

F4-1) (F4)에서 3, 4, 5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어떤 분야의 교육이 필요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1. 글로벌 전략경영
2. 인사·조직관리
3. 재무 및 금융투자교육
4. 마케팅(시장분석, 고객관리 등)
5. 기업가정신·리더십 향상
6. 경영자 자질향양(프리젠테이션, 설득/협상스킬 등)
7. IT 정보화
8. 기타(적을 것: _____)

F5) 귀사의 대표는 여성경영자 대상의 교육 및 연수를 통해 가장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1. 경영지식 향상
2. 인맥 네트워크 형성
3. 동업종 경영자간의 정보교류
4. 자기개발
5. 기타(적을 것: _____)

G. 여성기업인의 특성 및 애로사항

G1) 귀사가 다음 항목별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 느끼시는 정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항	응답
가.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관리	
나. 인력확보 등 인사관리	
다. 노사관계	
라. 원자재 조달 등 생산관리	
마. 자금조달 등 자금관리	
바. 외상/어음거래	
사.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아. 기술개발	
자. 경영관련 정보획득	
차. 거래기업과의 마찰	
카. 기술,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보호	

G2) 여성기업인의 경영은 일반 중소기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G3)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할 때, 여성기업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 특유의 감성 디자인을 반영한 제품 출시
-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여성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신뢰성)
- 원활한 소통과 화합의 기업 분위기
- 계획적이고 투명한 회사경영
- 기타(적을 것: _____)

G4) 귀사가 다음 항목별로 일반 중소기업인과 비교할 때,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점에 대해 느끼시는 정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항	응답
가. 남성 중심의 비즈니스 관행 (접대 문화 등)에 적응 곤란	
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여성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다. 남성 위주의 네트워크 운영으로 여성의 참여 제한	
라. 소극적이고 위험회피 성향의 경영으로 인한 사업 기회 상실 우려	
마. 가사, 자녀보육 추가 부담	
바. 회사 운영을 위한 금융업무 수행과정에서 대출조건 등 불리함	

G5) 일반 남성기업인과 비교하였을 때, 여성기업인의 강점 및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보기를 보고, 2 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가. 여성기업인의 강점	1순위:	2순위:
나. 여성기업인의 약점	1순위:	2순위:

보기	1. 리더십	2. 혁신성	3. 기획력
	4. 도전적 정신	5. 업무관리능력	6. 성세함
	7. 커뮤니케이션	8. 외부 네트워킹	
	9. 창의성	10. 청렴함	
	11. 조직 친화력	12. 책임감/성실성	
	13. 감성중심		

G6) 최근 대표(이사)님은 여성기업인이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 있다
- 없다

G7) 과거 대비 여성기업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어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H. 정부의 여성기업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H1) 정부의 기업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아래 표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면접원 : 아래 표의 '가'부터 '아'까지의 내용을 차례대로 대답하여 H1-1)~H1-3)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기업 활동 지원정책	H1-1) 인지여부	H1-2) 이용여부	H1-3) 효과
가. 자금지원제도			
나. 인력지원제도			
다. 세제지원제도			
라. 기술지원제도			
마. 판로지원제도			
바. 정보화지원제도			
사. 수출지원제도			
아.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H1-1) 귀사는 다음 정부의 _____ 제도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잘 알고 있다
- 들어본 적 있다 → **H1-2)로 갈 것**
- 모르고 있다

H1-2) (H1-1)에서 1, 2번 응답자만) 그럼 귀사에서는 최근 _____ 제도를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있다 → **H1-3)으로 갈 것**
- 없다

16-1) (16)에서 1번 응답자만) 여성기업 확인증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홍보자료(협회 홈페이지, 소식지)
2.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 3. 언론매체(신문, 잡지 등)
3. 인터넷 4. 주변 기업 등의 구전
5. 공공구매 입찰기관(조달청, 지자체 등)
6. 기타(적을 것: _____)

→ J1)로 갈 것

16-2) (16)에서 2,3번 응답자만) 여성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여성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을 필요성을 못 느낌
2. 여성기업 확인증 발급 절차 등 방법을 잘 몰라서
3. 여성기업 확인증에 대해 몰라서
4. 기타(적을 것: _____)

I. 창업 관련 문항

면접원 : 기업체 창업연도가 2006년 6월 이전이면 설문 종료.

J1) 현재 귀사의 대표(이사)님께서 지금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1. 남편 사업의 승계
2. 부친 사업의 승계
3. 기존 기업 인수
4. 자신이 직접 창업
5. 기타(적을 것: _____)

J2) 귀사 대표(이사)는 현 사업체의 대표를 맡기 전에 어떠한 곳에 종사하고 계셨습니까?

1. 대기업 2. 중소기업 3. 대학 · 연구기관
3.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4. 전문직(변호사, 변리사 등)
5. 개인사업 6. 학생 7. 가정주부
8. 기타

J3) 귀사의 대표(이사)님께서 창업을 준비하실 때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 아이템 발굴 및 사업타당성 분석
2. 자금조달 3. 판로 확보
4. 인력확보 및 관리 5. 기술 및 제품력 확보
6. 복잡한 행정절차
7. 기타(적을 것 :: _____)

J4) 창업시 창업지원 기관으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창업 정보, 상담 등의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J4-1)로 갈 것
2. 없다 → J5)로 갈 것

J4-1) (J4)에서 1번 응답자만) 창업 준비시 가장 많은 관련 정보나 자문을 받은 기관은 어디입니까?

1. 창업관련 정부 지원기관
2. 민간 창업 관련 기관
3. 지자체의 창업 지원 기관
4. 금융기관
5. 기타(적을 것: _____)

J5) 대표(이사)님은 창업시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다? 자금 조달 경로와 그 구성 비율을 전체합이 100%가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조달 방법	구성비율
가. 본인·공동경영인의 출자	%
나. 금융기관 대출(담보/신용)	%
다. 정부정책자금	%
라.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캐피탈 투자	%
마. 기타(사채 등)	%
합 계	100%

J6) 대표(이사)님은 창업 시 정책 자금 지원을 신청 하였는데도 지원받지 못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있다 → J6-1)로 갈 것
2. 없다
3. 해당 없음(자금 신청 경험없음) → J7)로 갈 것

J6-1) (J6)에서 1번 응답자만) 지원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2. 경쟁률이 높아서
3. 물적 담보가 없어서
4. 신용 보증이 없어서
5. 정책자금 소진
6. 지원 자격조건에 미달해서
7. 여성기업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8. 기타(적을 것: _____)

J7) 귀사 창업 후 초기사업 운영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 판매/마케팅관리 2. 인력관리
3. 회계/세무관리 4. 재무/자금관리
5. 구매/생산관리 6. 경영정보분석
7. 기타(적을 것: _____)
8. 해당 없음(어려움이 없었음)

J8) 귀사는 창업 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1. 1년 미만 2. 1년 ~ 2년 미만
3. 2년 ~ 3년 미만 4. 3년 ~ 5년 미만
5. 5년 ~ 7년 미만 6. 7년 이상
7. 해당 없음(아직 도달하지 못함)

J9) 귀사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경영 및 마케팅능력 2. 자금조달 능력
3. 브랜드 인지도(프랜차이즈 가맹 등)
4. 입지(상권)선정 5. 제품의 품질(차별성)
6. 창업 유망 아이템 선정(업종 및 아이템 선정)
7. 판로확보 8. 창업대상선정(업종선택)
9. 기타(적을 것: _____)

J10) 귀사는 효과적인 창업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창업자금 지원(또는 보증) 2. 컨설팅 지원
3. 창업절차 개선(간소화) 4. 시장정보 제공
5. 세금지원 확대 6. 기타(적을 것: _____)

J11) 귀사의 현 사업 분야는 여성기업에게 어느 정도 적합한 업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시간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발행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3-24
TEL 02-369-0900, FAX 02-369-0950
www.womanbiz.or.kr

수행기관
(주)포커스컴퍼니
